

大邱地下鐵 中央路驛

火災事故白書



大邱廣域市
DAEGU METROPOLITAN CITY





간행물발간등록번호

53-6270000-000072-01

大邱地下鐵 中央路驛
火災事故白書



大邱廣域市
DAEGU METROPOLITAN CITY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으며, 기억하기에도 가슴 아픈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부상자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고발생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성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사고수습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중앙정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 백서」는 사고의 원인과 수습과정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사고수습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에서 지하철 화재사고 2주년에 맞추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백서는 사고수습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실무공무원을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사고수습 관련자료, 언론 보도내용, 사고관련 백서와 연구논문 등을 참고하여 집필하였으며, 유가족 단체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추모사업과 부상자 만성휴유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백서내용에 수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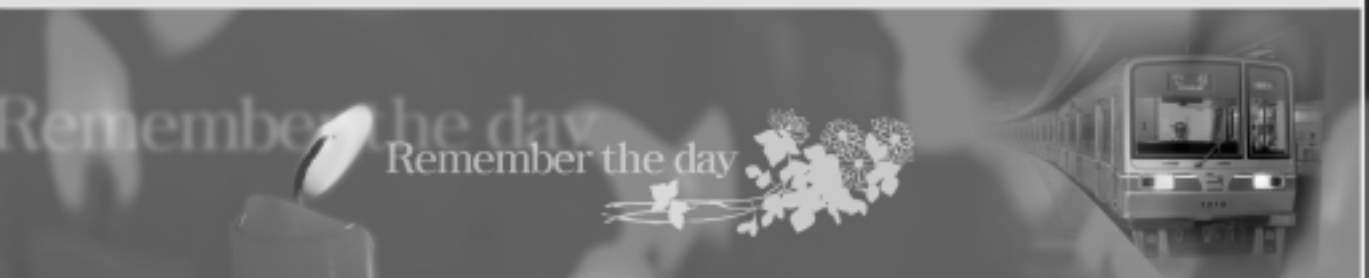
아무쪼록 이 책자가 향후 재난예방과 사고수습과정의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기관과 자문에 응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백서발간을 위해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끝으로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 2.

대구광역시장 조해녕

사진으로 본 지하철화재사고



화재발생 현장











소방호스 투입



소방 및 구급차량 출동







사고수습 활동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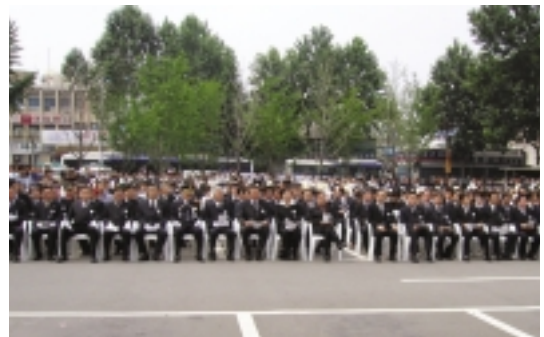












부상자 위문



행정자치부장관 부상자 위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부상자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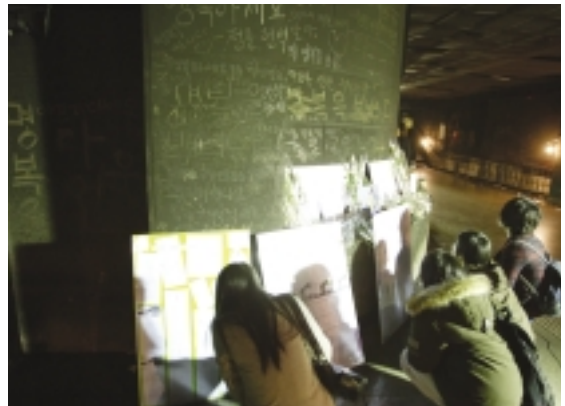




추모 촛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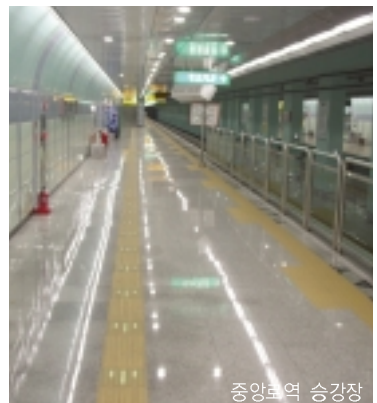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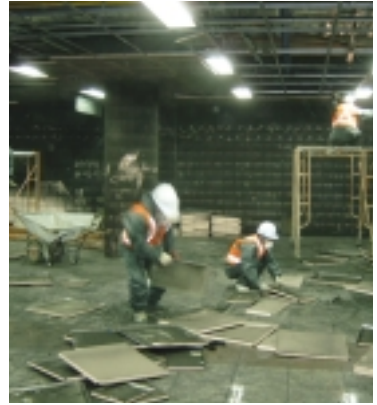
사고현장 복구



시설물 안전진단



복구 장비 투입



CONTENTS 목 차

第1編 序 文 45

- 第1章 火災事故의 概況 47
 - 第1節 事故 初期狀況 49
 - 1. 사고경위 49
 - 2. 승객 대피 52
 - 3. 시간대별 상황 53
 - 第2節 事故原因 56
 - 1. 직접적 원인 56
 - 2. 간접적 원인 58
 - 第3節 被害狀況 61
 - 1. 인명피해 61
 - 2. 재산피해 64
- 第2章 地下鐵 1號線 現況 65
 - 第1節 地下鐵 建設·運營 67
 - 1. 지하철 건설 67
 - 2. 전동차 제작 71
 - 3. 지하철 운영 75
 - 第2節 中央路驛 施設 78
 - 1. 층별 배치 및 구조 78
 - 2. 역사설비 현황 80

第2編 事故收拾

83

第1章 初動段階 收拾	85
第1節 地下鐵公社 初期對應	87
1. 전동차 기관사	87
2. 중앙로역 역무원	89
3. 종합사령실	91
4. 전동차 운행중단	96
第2節 火災鎮壓・救助活動	98
1. 화재신고 접수	98
2. 소방력 운용	99
3. 화재진압	106
4. 인명 구조 구급	108
第2章 事故收拾體制 構築	113
第1節 火災事故對策本部 設置・運營	115
1. 사고대책본부 설치	115
2. 사고대책본부 운영	121
第2節 特別災難地域 指定・宣布	145
1. 지정배경	145
2. 특별재난지역 선포	146

CONTENTS

第3節 事故收拾財源 對策	152
1. 시 재정여건	152
2. 수습재원 대책	152
第4節 中央特別支援團 派遣	158
1. 구성과 임무	158
2. 주요활동 내용	160
第3章 分野別 事故收拾	167
第1節 失蹤者 確認	169
1. 신고·접수	169
2. 실종자 확인	170
3. 집단사망자관리단 운영	172
4.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176
第2節 死亡者 葬禮	182
1. 개별장례	182
2. 합동영결식	185
3. 무연고 시신처리	190
第3節 負傷者 對策	193
1. 부상자 확인	193
2. 부상자 치료	198
3. 만성후유증 관리	202
第4節 物的被害 調査	213
1. 피해신고·접수	213
2. 피해조사	216

第5節 被害者 金融支援	217
1. 금융지원상담센터 운영	217
2. 지원실적	220
第6節 民心收拾 活動	221
1. 지역사회의 동요	221
2. 담화문 및 간담회	226
3. 언론 보도내용	255
第4章 施設復舊 및 電動車 內裝材 交替	267
第1節 安全診斷	269
1. 긴급안전진단	269
2. 교통통제	270
3. 긴급보강공사	273
3. 정밀안전진단	276
第2節 施設物 復舊	291
1. 선로복구	291
2. 역사시설물 복구	297
第3節 電動車 內裝材 交替	305
1. 교체배정	305
2. 내장재 교체	313
第5章 自願奉仕活動	321
第1節 奉仕活動 參與	323
1. 자원봉사단체	324
2. 개인봉사자	329

CONTENTS

第2節 奉仕活動 内容	330
1. 희생자 가족지원	330
2. 부상자 지원활동	332
第3節 美談垂範事例	333
1. 언론보도 내용	333
2. 수범사례	338
3. 자원봉사자 격려	340
第6章 國民誠金・救護物品	343
第1節 國民誠金 募金	345
1. 성금모금	345
2. 국민성금 배분	349
3. 국민성금 집행	358
第2節 救護物品 接受・處理	361
1. 접수창구 운영	361
2. 구호물품 배분	361
第7章 被害 補償	363
第1節 補償業務 推進	365
1. 법률검토	365
2.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372
3. 구상권 행사	382

第2節 死亡者 補償	386
1. 보상대상	386
2. 보상협상	386
3. 손해사정	398
4. 보상금 지급	403
第3節 負傷者 補償	407
1. 보상대상	407
2. 보상협상	407
3. 손해사정	411
4. 보상금 지급	415
第4節 物的被害 補償	418
1. 보상범위 결정	418
2. 보상협상	419
3. 손해사정	420
4. 보상금 지급	423
第8章 追慕行事 및 事業	425
第1節 追慕行事	427
1. 합동분향소 설치	427
2. 종교·사회단체 추모행사	427
3. 1주기 추모행사	430
4. 2주기 추모행사	436

CONTENTS

第2節 追慕事業	443
1. 추진경위	443
2.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운영	449
3. 추모사업 추진	454

第3編 反省과 敎訓 469

第1章 事故原因 反省	471
-------------	-----

第1節 危機管理能力 不足	473
1. 초기 대응미흡	473
2. 상황전파 및 협조체계 미흡	476

第2節 地下鐵 施設未洽	477
1. 전동차 내장재	477
2. 역사 소방설비	478
3. 무선통신망	479
4. 전력 공급시스템	480
5. 방화셔터	481

第3節 地下鐵火災 特性	482
1. 송풍효과	482
2. 대피 및 소방활동 애로	482

第2章 收拾過程 評價	485
-------------	-----

第1節 火災鎮壓・救助活動	487
1. 현장지휘체계 혼선	487

2. 인명구조체계 미흡	488
3. 구조장비 부족	489
4. 제도적 보완	490
第2節 事故收拾對策本部 運營	491
1. 사고현장 관리	491
2. 수습체계와 의사결정과정	494
3. 직원의 근무체제	494
第3節 被害 補償 業務	496
1. 손해사정 실태	496
2. 손해사정의 문제점	498
3. 개선방향	501
第4節 遺家族 支援	504
1. 장례지원	504
2. 금융지원	505
3. 자원봉사활동	506
第3章 地下鐵 安全對策 講究	509
第1節 都市鐵道 綜合安全對策 推進	511
1. 추진경위	511
2. 주요내용	511
第2節 大邱地下鐵 安全對策 推進	516
1. 추진계획	516
2. 주요내용	517
3. 세부 추진실적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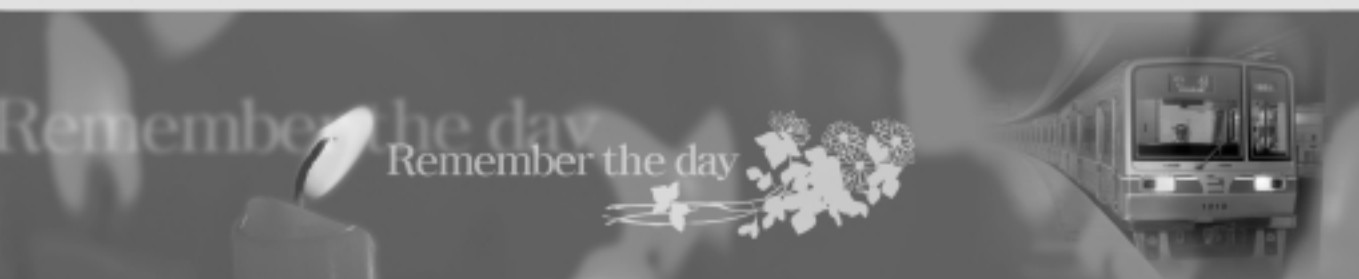
CONTENTS

附 錄

529

● 事故收拾 狀況日誌	531
● 地下鐵 火災事故 死亡者 名單	591
● 各種書式	601
● 奉仕活動 體驗手記	629
● 新聞報道 資料	711

第1編 序 文



第1章

火災事故의 概況

第1節 事故 初期狀況 49

第2節 事故原因 56

第3節 被害狀況 61

第1章 火災事故의 概況

第1節 事故 初期狀況

1. 사고경위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가 발생한 2003년 2월 18일은 대구시민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악몽의 날이었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날 이기도 했다.

2003년 2월 18일 09:53경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하행선 승강장에 정차한 1079호 전동차(대곡→안심) 1호 객차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방화범 김대한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방화범 김대한은 2001년 상반기경 뇌경변을 일으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증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게 되자 삶을 비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하고, 2003년 2월 18일 08:30경 서구 내당동 소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1회용 가스라이터 2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창고에 있던 자동차세척용 샴푸통(용량 4리터의 흰색 플라스틱통)을 꺼내 검은색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 송현역 부근에서 내린 다음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500원어치 상당을 구입하여 샴푸통에 담은 후 송현역으로 들어가 안심방향 승강장에서 09:30경 안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1079호 전동차 1호 객차에 탑승하였다.

09:53경 1079호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도착할 무렵 2호 객차와 가까운 1호 객차 노약자석 옆 일반석에 앉아 있던 김대한은 1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려고 망설이던 중 맞은 편에 앉은 승객으로부터 “왜 자꾸 불을 켜려고 하느냐”는 나무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불을 붙이기로 결심하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켜 다음 샴푸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김씨는 옷에 불이 붙자 황급하게 가방을 1079호 전동차 바닥에 던졌고 불길은 순식간에 전동차 안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되었다. 불길이 번지자 승객들은 우왕좌왕하며 황급히 대피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1079호 전동차 기관사는 중앙로역에 도착해 출입문을 연 뒤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 앞에 있는 폐쇄회로 TV 화면에 객차 쪽에서 승객들이 서둘러 빠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관실 옆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지만 가연성 소재로 가득한 지하철 내부의 불은 감당할 수 없자 승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09:55:30경 1079호 전동차와 반대방향(대곡)으로 운행하는 1080호 전동차가 대구역을 출발하여, 09:56:45경 현장상황을 알지 못한 채 상행선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함으로써 1079호 전동차에서 발생한 불길이 1080호 전동차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확산되었다.

화재 발생 20여초만에 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에 설치되어 있던 승강장 감시용 CCTV의 화면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 분출량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화재가 진행되면서 지하 3층 승강장과 1079호, 1080호 전동차 내부는 유독가스와 화재로 인한 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우왕좌왕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1079호 전동차의 승객 대부분은 대피한 반면, 반대방향으로 운행중이던 1080호 전동차로 화재가 확산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다. 1080호 전동차의 경우 중앙로역에 전동차가 진입할 때 승강장의 연기로 인해 전동차 외부의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었으며, 특히, 발화지점인 1079호 전동차 1호 객차와 인접한 1080호 5·6호 객차의 승객들은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정차 후 전동차 외부상황에 대해 알 수 없을 만큼 이미 화재로 인한 연기가 지하 3층 승강장에 꽂 차 있는 상태였다.

지하철에서 불이 나자 중앙로역 일대는 유독가스로 매케한 냄새가 진동했으며, 환풍구와 출입구 등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는 시내 전체를 뒤덮어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정도였으며, 사고소식을 접한 뒤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 아수라장을 이뤘다.

또한, 지하철에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승객 가족들은 현장에 나와 발을 동

동 굴렀고, 일부 가족들은 경북대학교병원과 동산병원 등을 뛰어다니다 눈물을 흘리며 현장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였으며, 사고수습대책본부와 언론사에는 사고경위와 사상자 명단을 알 수 없겠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였다.

사고가 나자 경찰관과 소방관이 긴급 출동하여 현장지휘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중앙로 일대 차량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소방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화재진화와 구조작업을 펼쳤으나, 화염과 유독가스로 현장접근이 힘들어 구조가 지연되자 이를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



09:52:34 중앙로역 CCTV화면



환기구 연기분출

2. 승객 대피

중앙로 역사는 지하 3층의 구조물으로써 지하 1~2층은 대합실로 이용되며, 지하 3층은 승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지하 1층은 인근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승객들이 전동차에서 지상의 출구까지 피난하기 위해서는 지하 3층 승강장, 개찰구가 있는 지하 2층, 대합실과 지하상가가 있는 지하 1층을 지나 지상출구로 나올 수 있었다.

화재발생 후 발화지점인 지하 3층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지하 2층으로 피난할 때 시야확보와 승강장의 폭이 좁아 탈출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화재의 발생지점과 같은 층에서 탈출해야 하므로 상당량의 연기와 정전으로 승객들의 피난에 어려움을 주었고, 화재로 인해 당황한 승객들이 전동차 내부에서 승강장쪽으로 몰려나오면서 승강장에서의 승객들의 피난이 용이치 않았으며, 시야장애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피난자들이 엉키면서 피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기에 의한 시야장애는 전동차가 정차한 지하 3층 승강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며, 지상쪽으로 올라오면서 장애정도는 감소하였으나, 지하 1층 대합실(매표소)에서도 탈출을 위한 시야확보가 되지 못할 정도의 시야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지하철 화재와 같은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발생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난자의 탈출경로와 연기의 이동방향이 일치하여 지상까지의 통로전체가 연기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으며, 화재로 인한 열기가 그대로 화재발생 공간에 유지되면서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승강장 중간 중간에 있는 기둥은 암흑상태와도 같은 당시의 상황에서 피난자의 진로를 막거나 방향성을 상실케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기둥의 배열이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이번 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이 지하공간의 화재시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둥하단부에 발광성 시설 등의 피난 유도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을 느꼈다.

3. 시간대별 상황

사고 발생 초기 지하철 종합사령실의 전동차 운행 및 통화 기록,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119 신고접수 및 무전상황 기록, 생존자들의 진술내용, 언론 보도내용 등을 종합하여 시간대별로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시 간	주 요 상 황
09:52:32	○ 1079호 전동차 중앙로역 도착
09:53:00	○ 1079호 전동차(대곡→안심)가 중앙로역에 진입하는 순간 전동차에 타고 있던 방화범이 휘발유에 라이터를 켜 불을 붙임 ○ 불이 방화범의 옷으로 옮겨 붙자 방화범이 휘발유통이 든 가방을 전동차 바닥에 던져 불이 전동차 벽면과 천장 등에 옮겨 붙음 ○ 전동차 내부가 급속히 타들어 갔고, 많은 양의 검은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분출되어 승강장과 지하1·2층의 대합실 등에 급속히 확산 ○ 승객들은 주출입구 쪽의 계단을 통해 대피하기 시작 ○ 1079호 기관사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화재발생 사실을 종합사령실에 보고하지 않은 채 역사 밖으로 대피 ○ 종합사령실 기계설비사령 주컴퓨터에 중앙로역 화재경보 문구가 뜨고 경보음이 울렸으나, 종합사령실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09:53:35 ~09:54:40	○ 1079호 전동차의 40대 남자승객이 중앙로역 전동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최초 신고, 이후 역사 밖으로 탈출한 승객들과 전동차 안에 갇힌 승객들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가족 등이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신고 ○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는 삼덕파출소 등 8개 출동대에 출동명령
09:55:00	○ 중앙로역 역무원이 종합사령실에 “중앙로역 실제 화재입니다. 전혀 앞이 분간이 안 됩니다.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라며 중앙로역 화재 사실을 신고, 종합사령실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119 신고를 하지 않았음
09:55:30	○ 1080호 전동차가 대구역에서 중앙로역으로 출발 ○ 중앙로역 역무원이 초기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일부직원 이 승객 대피 유도

시 간	주 요 상 황
09:55:36	○ 종합사령실 운전사령이 전체 열차에 “중앙로역 진입시 조심하여 운전하여 들어가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열차무선 전체 호출을 통하여 통보
09:56:45	○ 1080호 전동차가 이미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던 중앙로역 승강장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림 ○ 승강장에 있던 연기가 전동차 안으로 밀려들자 기관사가 즉시 출입문을 닫음
09:57:07	○ 전동차 전원이 끊어짐에 따라 전동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됨
09:57:32	○ 1080호 기관사가 운전사령에게 열차무선으로 “영망입니다. 빠른 조치바랍니다”라며 걱정한 지시를 내려주도록 요구 ○ 운전사령은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하라”고 지시 ○ 1080호 기관사는 “잠시후 출발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안내방송 ○ 중부소방서 서문로파출소 소방대원 현장 도착 및 인명구조 시작
09:57:40	○ 중앙로역 역무원이 화재 사실을 119 신고
09:58:28	○ 1080호 기관사가 종합사령실에 연락하여 승객 대피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던 중 전동차에 잠시 전력이 공급되어 출발 시도 ○ 1080호 전동차에 전력이 공급되어 기관사가 출발을 시도하면 전력이 다시 끊기는 일이 수 차례 반복되면서 승객대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됨 ○ 1080호 기관사는 전동차가 곧 출발할 예정이므로 전동차 안에 대기하도록 승객들에게 방송 ○ 1079호에서 1080호로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 ○ 종합사령실과 1080호 전동차간 열차무선 통화 두절
10:02:48	○ 종합사령실에서 1080호 전동차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중앙로역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80호 기관사에게 “승객들을 승강장 위로 대피시키라”고 지시 ○ 1080호 기관사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승객대피 안내방송 실시 ○ 1080호 전동차의 일부 객차에서는 승객들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 전동차 안에 갇혀 있게 됨 ○ 소방파출소 및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활동 시작

시 간	주 요 상 황
10:04:00	○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복현파출소 등 16개 파출소, 달서구조대, 동부구급구조대 등에 구급차와 물탱크차 출동 요청 ○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인명구조 계속 실시
10:10:00	○ 1080호 기관사는 운전사령의 “전동차 판내리고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동차의 마스터키를 뽑아 역사출입구를 통해 탈출
10:12:00	○ 소방본부 종합사령실에서 대구시내 병원 구급차 동원 요청
10:17:00	○ 종합사령실에서는 다른 전동차의 운행을 통제하면서 모든 전동차의 운행을 정지시켰고 중앙로역 역무원들은 탈출 후 모두 병원으로 이송됨
10:17:00	○ 중부소방서장이 자체 비상소집 명령
10:25:00	○ 소방본부장이 경북소방본부에 구조대 및 구급대 지원요청
10:28:00	○ 종합사령실에서 전 전동차 운행중지 및 승객하차 지시
10:52:00	○ 소방본부장이 소방본부 전직원 비상 소집명령
11:11:00	○ 경북소방본부 6개대의 구급차 12대 지원출동
11:22:00	○ 지하철공사 직원의 안내로 중앙로역 환기구 및 대구역을 통하여 소방대원들이 중앙로역 지하 3층 화재현장 도착 및 구조작업 실시
13:38:00	○ 화재 완전 진압

第2節 事故原因

1. 직접적 원인

지하철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방화범 김대한이 중앙로역 승강장에 정차한 1079호 전동차안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던져 방화한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휘발유에 의해 확대된 초기 화재는 불연재가 아닌 전동차 내부의 바닥 및 내장재, 의자, 광고판으로 옮겨 붙으며 진화할 틈도 없이 객차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확산되는 화재의 강력한 연소열은 검은 연기와와 유독가스를 발생하면서 전동차 내부를 고온으로 만들며 다른 차량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가 발생한 전동차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화염과 복사열은 터널형태의 폐쇄된 공간인 지하철 승강장의 실내온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며, 반대편 승강장에 도착한 1080호 전동차로 연소가 확산되었다.

지하 3층에서 전동차의 연소, 승강장 시설과 승강장의 안내표시판, 벽면의 도료 등의 연소로 발생한 고열과 짙은 농연은 상층부로 연결되는 계단을 타고 지하 2층 대합실과 개찰구 부분으로 퍼져나갔다.

고온의 열기는 상승기류를 만들면서 지하 2층 대합실의 상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제연경계벽 등의 플라스틱류 제품을 녹일 정도였다. 지하 2층의 경우 상부의 벽면은 농연에 의해 그을림이 심했으나, 하부 부분은 상대적으로 연기에 의한 그을림이나 열에 의한 피해가 적게 나타났다.

지하 1층에는 지하철 역사와는 별도로 지하상가가 지하철의 노선방향과 십자모양으로 배치되어 지하철 역사로 연결되는 2개소의 통로가 있었으며, 지하 1층의 역사와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상가쪽 통로 입구에는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번 화재에서는 방화셔터의 작동으로 상가쪽의 피해는 연기에 의한 약간의 피해 이외에는 없었다.



1080호 전동차 내부 모습



방화범 김대한



중앙로역 화재현장



불에 탄 전동차



1079호 전동차 열쇠



1080호 전동차 열쇠

2. 간접적 원인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한 개인의 방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한 개인의 방화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게 된 원인은 전동차의 내장 불량, 역사 소방설비의 미비 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지하철공사 등 외부 비상대응기관 직원들의 위기 대처능력 부족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전동차 내장재는 대부분 난연재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큰 피해를 낼 수 있음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알 수 있었다. 천장 및 벽면은 FRP, 바닥면은 PVC, 의자 쿠션은 우레탄폼, 단열재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되어 급속한 화재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 재료의 인화점은 약 320~399℃로서 목재 인화점(약 260℃)에 비하여 60~140℃ 정도가 높으나, 발생 연기에는 일산화탄소(CO)가 목재에 비하여 약 10배 이상 포함되고,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HNC)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립자 형태의 재(Soot)도 다량 생성되어 화재발생시 인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동차 제작당시 내장재에 대한 국내의 시험기준은 화염전파 성능에 대한 것으로 이들 시험기준의 한계점은 실제 화재시의 성능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시험항목에 독성이나 연기발생량 등에 관한 내용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내·외 주요 전동차 내장재 비교

구 분	국 내			외 국	
	서울·대구 등 기존 지하철	광주지하철	신공항전철 (제작예정)	홍콩·인도지하철 (영국기준)	그리스 아테네지하철
바 닥 재	난연재	난연재	불연재	불연재	불연재
의 자	난연재	불연재	불연재	불연재	난연재
벽체내부	난연재	불연재	불연재	불연재	불연재
내 장 재	난연재	불연재	불연재	불연재	난연재

화재발생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기관사 등 최초 발견자가 화재발생 사실 및 현장상황 등을 종합사령실에 보고하고, 종합사령실에서는 다른 전동차가 화재현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고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079호의 기관사는 화재발생 즉시 그 사실을 종합사령실에 보고하지 못하였고, 종합사령실에서는 화재발생 후 중앙로역 역무원으로부터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인근 대구역에서 출발하고 있던 1080호 전동차에 중앙로역에 진입하지 말도록 지시하거나 중앙로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운행중인 모든 전동차(All Call)에 대하여 “중앙로역 진입시 조심해 운전하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 발생되었습니다”라고 막연하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1080호의 기관사는 이미 화재가 진행되어 검은 연기가 가득한 중앙로역 구내로 진입하였고, 승객대피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전동차를 출발시키는 데만 집착한 결과, 승객들의 대피시기를 놓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1080호 기관사-종합사령실간 교신내용

【9시 55분】

사령실 : 전 열차에 알립니다. 중앙로에 진입시 조심해 운전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발생했습니다.

【9시 57분】

기관사 : 예, 1080입니다. 지금 단전입니까?

사령실 : 단전이니까 방송 좀 하시고.

기관사 : 예

사령실 : 계세요.

기관사 : 아, 연기 나고 엉망입니다.

【9시 58분】

사령실 : 79열차 화재가 지금 79열차 화재가 났으니까

기관사 : 예.

사령실 : 거저 뭐야, 안내방송 하시고.

기관사 : 엉망입니다. 답답하니까 빨리 조치 바랍니다.

사령실 : 예, 예

기관사 : 예, 중앙로역입니다. 대피시킵니까, 어떡합니까?

사령실 : 단전돼서 차 못 움직이잖아 지금.

기관사 : 예

사령실 : 그럼 일단 방송하시고.

기관사 : 예,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급전되었습니다.

사령실 : 급전됐어?

기관사 : 예.

【9시 59분】

사령실 : 그럼, 발차.

기관사 : 예.

사령실 : 조심해 나가세요.

기관사 : 아, 미치겠네. 지금 급전됐다 왔다갔다하는데. 차 죽여서 다시 살릴게요.

지금 급전됐다, 살았다가 죽었다 엉망입니다.

사령실 : 침착하게 하세요. 아, 여보세요.(사령실, 이후 한동안 다른 전동차 기관사들과 통화)

【10시 2분】

사령실 : 아니, 중앙로 상행선열차는 지금 1080열차는 지금 급전 안 돼 있어요. 지금 1080열차래요. 지금 보조계기가 제로래요. 아 그럼 일단 판 내려갔고, 대기하고 있으세요. 아니 연기가 많이 찼어요. 연기가 찼으면 승객들 승강장 위로 대피시키세요. 대피시키고 방송하세요. 문 열어놓고 안내 방송 잘하고 승강장 위로 대피시키세요.

【10시 4분】

사령실 : 1081, 1080, 1080, 1082, 1082 나오세요. 1079 나오세요, 1080.

【10시 10분】

사령실 : 1082열차 나오세요. 1079나오세요. 1080나오세요.

第3節 被害狀況

1. 인명피해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43명에 달한다. 사망자 192명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가 185명,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 인정사망¹⁾ 1명이었다.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중에서 DNA가 확인된 사망자가 3명, DNA 확인이 불가능한 사망자가 3명이었다.

지하철 화재사고 사상자 현황

○ 총괄

계	사망				부상
	소계	신원확인	신원미확인	인정사망	
343명	192	185	6	1	151

○ 성별

구분	계	남	여	비고
사망자	186	61	125	신원미확인 6명 제외
부상자	151	80	71	법적보상 제외자포함

○ 연령별

구분	계	0~9세	10~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사망자	186	4	30	52	28	15	28	29
부상자	151	3	18	38	39	30	12	11

1) 인정사망이란 호적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의 확증(시체 확인 등)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 화재, 사변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직업별

구 분	계	무직	학생	가사	자영업	일용직	회사원	공무원 교사	기타
사망자	186	29	47	26	11	2	15	5	51
부상자	151	5	29	37	10	17	32	14	7

○ 지역별

구 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기타
사망자	186	1	92		4	8	6	8	2	48	17
부상자	151	2	78	5	11	10	6	13	6	14	6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간이 오전 09:53경으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의 규모가 컸다.

사상자 가운데 동구 주민이 가장 많았던 것은 안심역에서 출발한 1080호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들의 인명피해가 컸고, 달서구 대곡역에서 동구 안심역으로 가던 1079호 전동차에 동구지역 주민들이 많이 탑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청·장년층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시기적으로 봄방학 기간이었던 점과 사고 당일 계명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가족이 함께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가 18가족이나 되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였다.

이번 지하철 사고에서는 부·모, 모·자, 처·자 등 1가구에 2명 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참변을 당한 유가족이 12가구나 되었으며, 특히 두 딸을 동시에 잃었던 모친 김○○의 경우 보상합의 후 두 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았다가 9월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사찰내 묘사체가 붕괴되면서 모친도 두 딸의 뒤를 따라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동시 사망자 현황

(단위 : 가구)

계	부·모	모·자	처·자	자녀			비고
				딸	아들	딸·아들	
12	2	1	6	1	1	1	

지하철 화재사고는 화재로 인한 높은 열과 연기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시신들이 많이 발견되어 시신을 찾지 못하는 희생자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사고대책본부에서 실종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619명이 신고하여 실종자 처리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실종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95년 6월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사고의 예를 참조하여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중앙특별지원단에서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와 4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는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중앙특별지원단과 대책위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3월 10일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차례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찰에서는 실종자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수사한 결과, 전체 실종신고자 619명 가운데 사망 또는 생존 등으로 확인된 498명을 제외한 나머지 121명에 대해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에서 심사를 하여 인정사망자 100중 99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원확인 결과 확정사망으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사망인정 1명, 판단유보 1명, 인정사망 불인정 20명으로 판정하였다.

실종자 접수 및 처리현황

실종자 접수	사실확인						인정사망심사				
	소계	생존	기사망	부상	이중 신고	취하 등	소계	사망인정		불인정	판단 유보
								확정 사망	인정 사망		
619명	498	380	60	4	33	21	121	99	1	20	1

2. 재산피해

가. 지하철 및 중앙로역

지하철과 관련된 물적피해는 전동차 2편성(12량)이 전소되었고, 중앙로역의 시설·전기·통신·신호분야 등도 소실과 중앙로역 구내의 장비와 광고·임대시설 등이 소실되는 등 총 5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지하철관련 피해현황

계	지 하 철			중 앙 로 역		
	소계	전동차	운임손실	소계	시 설	역 구 내 임대시설
570억원	324	188	136	246	231	15

나. 인근상가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인근상가 피해신고는 총 174건 8,340백만원이 접수되었다. 중앙로역사와 연결된 중앙지하상가(대현 프리몰) 입주점포 95건 4,274백만원, 경남프라자 입주점포 13건 464백만원, 중앙로역구내의 광고업체 및 각종 편의시설 임대업체 47건 2,870백만원, 중앙로역사 출입구 부근의 지상점포 등 19건 732백만원이 신고되었다. 신고된 피해물품 등에 대해 손해사정인들의 손해사정 및 검증결과 최종 피해액은 167건 4,477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상가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중앙지하 상 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구 내	기 타
피해신고	건 수	174	95	13	47	19
	금 액	8,340	4,274	464	2,870	732
손해사정 결 과	건 수	167	95	13	46	13
	금 액	4,477	2,110	267	1,962	138

第2章 地下鐵 1號線 現況

第1節 地下鐵 建設・運營 67

第2節 中央路驛 施設 78

第2章 地下鐵 1號線 現況

第1節 地下鐵 建設·運營

1. 지하철 건설

가. 건설계획 수립

대구는 단핵 도시구조를 띠고 있어 도시 중추기능이 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순환도로와의 연결성도 미흡한 실정이며,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해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면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의 지하철 건설사업은 1985년 4월 KAIST의 「대구시 교통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9년 2월 대통령 연두순시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0년 3월 교통개발연구원의 「대구지하철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6개 노선, 2개 지선의 노선망으로 단계별 건설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지하철 건설계획

구 분	노 선		구 간	연장(km)	사업비 (억원)	기 간
	계		6개 노선 2개 지선	158.0	71,761	
1단계	소 계		3개노선	84.4	52,340	1991~2016
	1 호 선		대곡 ~ 안심	28.3	15,187	1991~2002
	연장 구간	시점부	대곡 ~ 명곡	2.3	1,900	-
		종점부	안심 ~ 사북	1.3	678	-
	2 호 선		다사 ~ 고산	29.0	23,299	1996~2005
	3 호 선		칠곡 ~ 범물	23.5	11,276	2006~2016

지하철 1호선 건설재원 조달

(단위 : 억원)

계	국 비	시 비	지방채	비 고
15,187	7,563	2,955	4,669	국비 소급지원비 3,335억원 포함

지하철 1호선 연도별 투자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95까지	'96	'97	'98	'99	'00	'01	'02
계	15,187	8,856	2,628	2,280	985	125	173	131	9
공 사 비	12,063	7,199	2,195	1,571	684	120	165	121	8
차량구입비	1,336	230	308	598	200	-	-	-	-
보 상 비	984	975	7	1	1	-	-	-	-
설계비기타	804	452	118	110	100	5	8	10	1

1991년 11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후속공종인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거쳐 1997년 11월 26일 1단계로 진천~중앙로 구간(L=11.4km, 정거장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을 개통하고, 1998년 5월 2일 중앙로~안심구간(L=16.2km,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을 개통함으로써 지하철 1호선의 전면운행이 시작되어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지하철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하철 1호선 시점부 연장구간(진천~대곡, L=0.7km, 정거장 1개소)은 대곡 택지조성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96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토목 및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거쳐 2002년 5월 10일 개통하였다.

지하철 1호선의 차량기지는 2개소로 달서구 유천동 340번지 일대의 월배차량기지와 동구 대림동 601번지 일대의 안심차량기지가 있다.

월배차량기지는 부지면적 149,200㎡(45,133평)으로 관리사무실, 주공장, 검수고 등 12개동으로 입장검사, 출장검사, 차체 분해조립, 대차 분해조립 및 차체수선, 도장, 차량검수 등의 작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안심차량

기지는 부지면적 207,900㎡(62,889평)으로 검수고외 14개동으로 전동차량의 일상·월상 검사선과 청소선 등이 시설되어 있다.

지하철 1호선 본선구간 총공사비는 1991년 11월 착공당시 10,246억원이었으나, 장기간 공사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고, 토목 공사과정에서 현장여건 및 굴착결과 지반상황에 대한 적절한 공법적용과 건축, 궤도, 기전분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완공시에는 12,063억원으로 1,817억원이 증가되었다.

주요 설계변경 내용으로 대곡~대구역 구간은 터널공법에서 개착공법으로의 변경, 지하수 과다 용출로 인한 지반보강, 방수공법 및 지장물 복구공법 변경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앙로 정거장은 중앙지하상가와 정거장 대합실을 연결하는 내부계단 신설과 우리은행 검용 출입구 설치, 화장실 위치변경 등에 따른 정거장 구조변경, 그리고 지하상가 하부통과 Underpinning 굴착공법을 도입하는 등 안전성, 시공성 등을 검토 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변경하였다.

대구역~안심구간은 주요구조물(신천고가, 동운가도교, 제2신천교, 주공아파트, 동대구역, 아양교 등)의 지반보강과 지하수 과다로 인한 흠막이 보강 등을 위한 설계변경 등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설계변경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하철 1호선 분야별 추진실적

○ 설계부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억원)	기간
계		804	
기본설계	· 본선 28.3km · 차량기지 2개소	43	'90. 7 ~ '91.11
실시설계	· 본선 28.3km · 차량기지 2개소 · 토목·궤도·건축·전기·통신·신호·설비분야	171	'90.11 ~ '94.12
감리·부대비	· 전구간 감리 28.3km · 조달 수수료, 시설부대비	590	'91.11 ~ '02. 6

○ 공사부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억원)	기 간
계		12,063	
토목공사	· 구간 : 대곡 ~ 안심 · 규모 : 연장 28.3km(정거장 30개소)	7,856	'91.11 ~ '02. 6
차량기지	· 월배·안심차량기지(2개소)	1,044	'93. 5 ~ '01.11
궤도공사	· 구간 : 대곡 ~ 안심 · 규모 : 연장 28.3km(정거장 30개소)	321	'94. 7 ~ '01.11
건축공사	"	752	'93.12 ~ '02. 6
전기공사	"	694	'93.12 ~ '02. 6
통신공사	"	431	'94. 5 ~ '02. 6
신호공사	"	327	'95. 1 ~ '02. 6
설비공사	"	638	'93.12 ~ '02. 6

2. 전동차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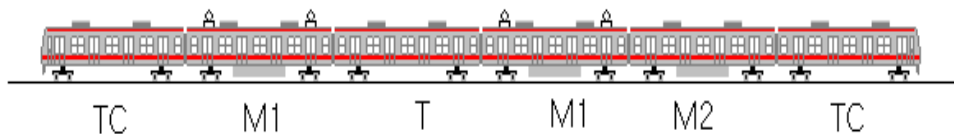
대구시에서는 1993년 9월 18일 및 1994년 2월 18일 조달청의 국제입찰을 통하여 (주)한진중공업과 지하철 1호선에 운행될 전동차 총216량의 구매계약(구매가액 1,341억원, 량당 6.2억원)을 체결하여 1996년 8월 31일부터 1998년 6월 23일까지 전동차를 납품받아 지하철 1호선에 투입하여 운행 중에 있다.

가. 제원

대구지하철 전동차는 DC 1500V 전원을 전차선에서 공급받아 운행되는 통근형 직류전동차로서 6량을 1편성으로 구성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승객증가 추이에 따라 최대 8량으로 1편성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차체는 스테인레스 외판, VVVF 인버터 제어장치에 의한 회생제동 등 제작당시 국내에서는 최신기술을 도입한 전동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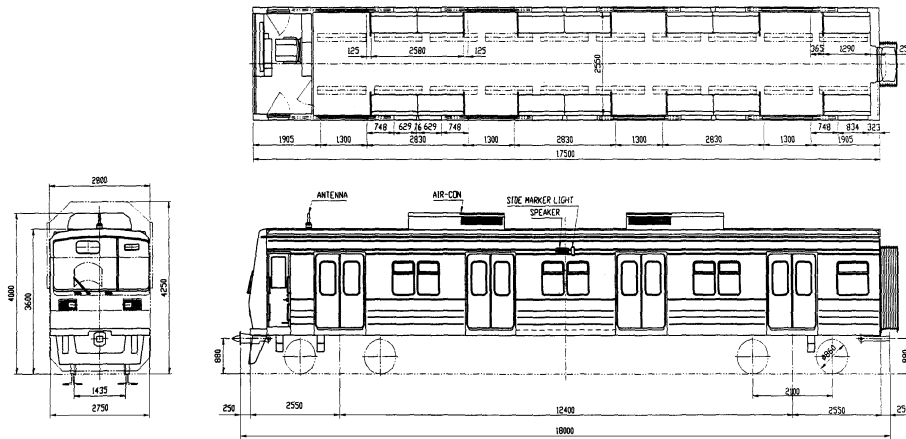
전동차 주요제원

구 분	제 원
차체구조	재질 : 스텐인레스, 규모 : 길이 18m, 폭 2.75m, 높이 3.6m 출입문 : 양쪽열림 방식, 한 쪽면당 4개소 × 2
차량중량	Tc : 33.3톤, M1 : 36.2톤, M2 : 33.5톤, T : 27.1톤
성 능	최고속도 : 100km/h, 가속도 : 3.0km/h/s, 감속도 : 상용 3.5, 비상 4.5 km/h/s
정 원	1편성 722명 [Tc : 113명(좌석 42, 입석 71), M, T : 124명(좌석 48, 입석 76)]
운전방식	ATC/ATO, 1인 운전
속도제어	VVVF 인버터제어(GTO소자), 유도전동기 출력 250 kW
대 차	볼스터레스 방식, 공기스프링
제동방식	회생제동과 공기제동
냉방장치	16,000kcal/h × 2/량
제 작 사	(주)한진중공업(1996. 7 ~ 1998. 8, 주요 電裝品은 독일 지멘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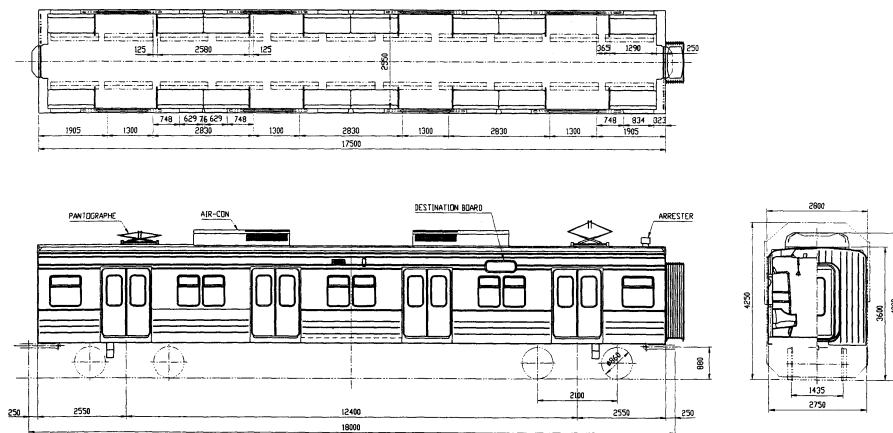


전동차 6량 편성도

대구지하철 전동차는 기본 6량(TC + M1 + T + M1 + M2 + TC)으로 편성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종류는 운전실이 있는 제어차(TC), 동력이 있는 구동차(M1, M2), 동력이 없는 부수차(T)가 있으며, 구동차는 2량(M1, M2)을 1유닛으로 하여 VVVF 인버터로 견인전동기를 제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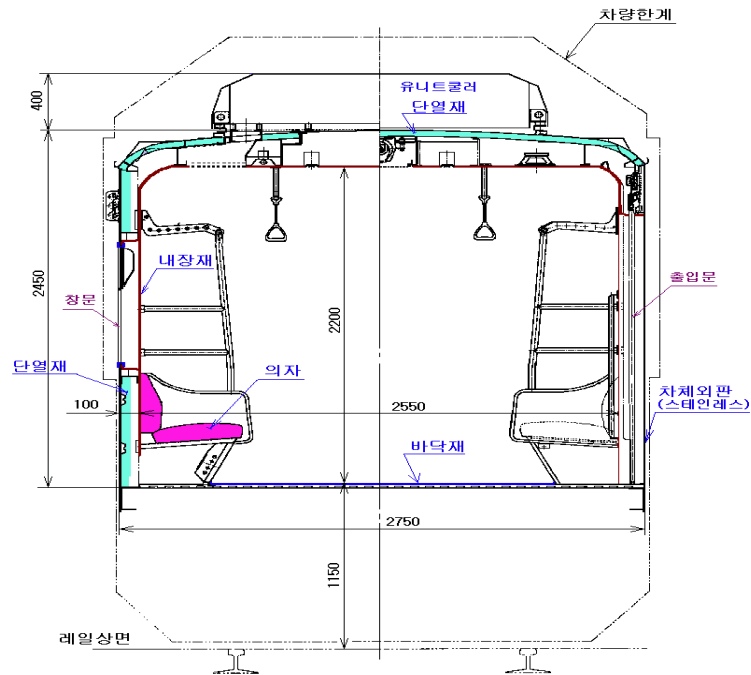
제어차(TC)의 외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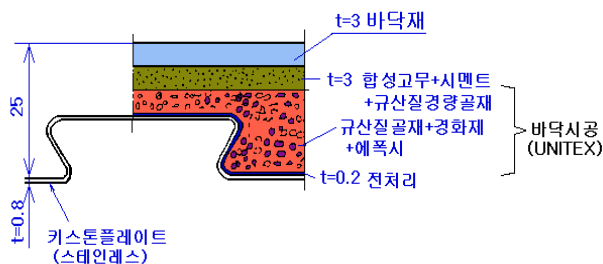
구동차(M1)의 외형도

나. 구조 및 재료

전동차 차체골조, 외판, 지붕 등은 고장력 스테인레스(STS301계) 재질로 되어 있으며, 차체바닥은 승객의 수직하중과 각종 중량 부속품의 지지하중, 연결기를 통하여 주행 및 제동에 의해 전달되는 수평하중, 대차를 통하여 전달되는 충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장력 강재구조로 되어 있다.



전동차의 단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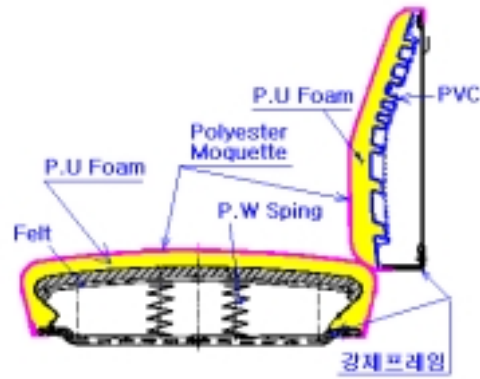
바닥판 구조

실내 벽체 및 천장판은 두께 2.3mm의 폴리에스터계 FRP로 되어 있으며, 차체외판, 지붕과 벽체, 천장사이에는 소음차단, 단열의 목적으로 두께 52mm의 발포폴리에틸렌(P.E Foam)이 채워져 있다.

바닥은 언더프레임 위에 0.8mm두께의 스테인레스강판 키스톤 플레이트 (keystone plate) 바닥판을 깔고 그 위에 경량골재를 채우고 시멘트로 미장을 하고, 염화비닐(PVC)을 깐 구조로 되어 있다.

의자는 하부 스테인레스함 속에 객실 난방용 전열기, 출입문 비상열림 손잡

이 등이 내장되어 있고, 그 위에 의자 안장이 설치되어 있다. 안장은 원통형 코일스프링 위에 펠트, 우레탄폼 쿠션, 방염성 모켓트가 씌워져 있다. 등받이는 금속프레임에 PVC 성형품을 조립한 구조에 폴리우레탄 패드를 적층한 쿠션재료를 넣고 표면은 방염성 모켓트가 씌워져 있다.



의자단면 구조

내장재로 사용한 재료

구 분	재 료	비 고
내 장 판	폴리에스터계 FRP	벽체 및 천장판 두께 2.3mm
단 열 재	폴리에틸렌 폼(P.E Foam)	두께 52mm
바 닥 판	염화비닐(PVC)	두께 52mm
의 자	폴리에스테르 모켓트 폴리우레탄 폼+펠트 금속 및 PVC 프레임	금속형 원통코일 쿠션

3. 지하철 운영

가. 지하철공사 현황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안전한 도시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95. 1. 1 지하철운영기획단 구성
- 1995. 3. 20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공포(조례 제3,019호)
- 1995. 8. 1 지하철공사 설립 인가

- 1995. 11. 20 지하철공사 설립 등기
- 1997. 11. 26 1호선 1단계구간 개통(진천~중앙로, 14개역, 10.3km)
- 1998. 5. 2 1호선 전구간 개통(진천~안심, 29개역, 24.9km)
- 2002. 5. 10 1호선 연장구간 개통(대곡~안심, 30개역, 25.9km)

조직은 본사 6부(경영관리, 영업, 차량운영, 시설, 전기통신, 감사) 20팀과 현업 5사업소(월배기지, 안심기지, 시설, 전기신호, 통신역무), 4관리역(성당못, 반월당, 동대구, 신기)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고당시인 2003. 2. 18현재 임원을 포함한 정원은 1,397명, 현원은 1,325명(임원2, 직원1,323)이었으며, 자본금은 9,998억원(수권자본금 15,000억원)이었다.

나. 1호선 운영지표

대구지하철 1호선은 대곡~안심간 25.9km(영업연장)를 하루 332회 운행하고 1일 평균 약14만명 정도 수송하고 있다.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대곡~교대(12개역), 동대구~안심(12개역)으로 나누어 구간운행을 하고, 미운행구간 6개역에 대해서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승객불편 최소화해 노력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부터 1호선 전구간을 정상 운행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운영지표

구 분		지 표	비 고
영업	시 간	매일 05:20 ~ 24:00(18시간 40분)	
	구 간	대곡~안심(30개역)	
	거 리	25.9 km	건설연장 : 28.3km
열차	보 유	36편성(216량)	1편성 : 6량
	운 행	평일 : 23편성(편도 332회) 휴일 : 18편성(편도 306회)	

구 분		지 표	비 고
운행	시 격	RH : 5분 NH : 6.5분	RH 하계 07:20~08:40, 18:00~19:30 동계 07:20~08:40, 17:00~18:30
	시 간	편도 50분 30초	
	속 도	표정 : 30.8km/h, 평균 : 40.1km/h	

1호선 연도별 이용승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 인 원	51,383,928	49,497,665	50,262,308	53,086,992	26,169,405	50,887,954
1일평균	140,778	135,240	137,700	145,444	71,697	139,419

第2節 中央路驛 施設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43-1번지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은 1991년 11월 18일 착공하여 1996년 10월 30일에 준공하였으며, 역사는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벽식 골조구조로 각 층간 높이는 4.0~4.5m, 심도는 18.16m, 연면적은 10,398.66㎡로 개착식으로 건설되었다.

지하철 1호선 건설당시 1-8공구로 (주)삼우기술단에서 설계하였고, (주)한양에서 시공하였으며, (주)대한콘설탄트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1. 층별 배치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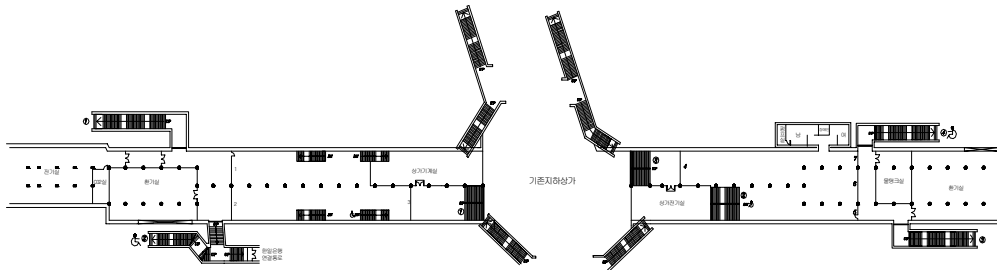
중앙로 역사는 지하 3층의 구조물로서 지하 1·2층은 대합실, 지하 3층은 승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지하 1층은 인근 중앙지하상가와 연결되어 통로가 다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중앙로역 건축설비 현황

구 분	계	지하1층 (대합실)	지하2층 (대합실)	지하3층 (승강장)	비 고
역 사 면 적	10,398㎡	4,207㎡	4,586㎡	1,605㎡	
출 입 구 계 단	19	4(외부)	7(내부)	8(내부)	
기 능 실	32	8	20	4	화장실 포함

가.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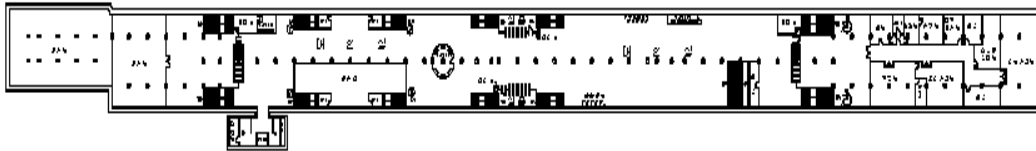
지하 1층 대합실은 외부출입구(역출입구 4개소, 지하상가 2개소)를 통해 진입하여 지하 2층 매표실로 내려가는 통로층으로 시점부에는 전기실, 환기실이 있고, 중앙부에는 중앙지하상가와 상가기계실 및 전기실이 있으며, 종점부에는 화장실, 물탱크실, 환기실이 있다.



지하1층 평면도

나. 지하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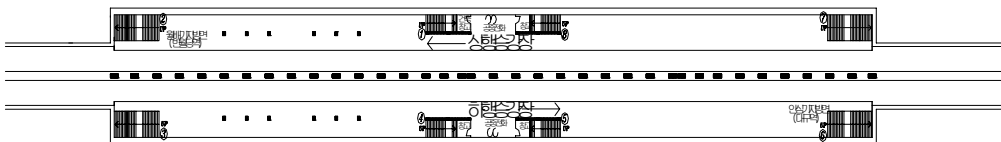
지하 2층은 대합실로서 매표소(자동발매소 포함), 역무실, 화장실 등 기능실이 있고, 열차를 타기 위한 개찰구는 역사연장을 감안하여 시·종점부와 중앙부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승강장층으로 진·출입할 수 있다.



지하2층 평면도

다. 지하 3층

지하 3층은 상대식 플랫폼으로 폭 4.5m(2개소), 연장 169m로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계단 8개소를 통해 대합실층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3층 평면도

2. 역사설비 현황

가. 기계설비

지하 1·2층 환기실 3개소에는 급·배기 송풍기 27대(급기량 453,900m³/h, 배기량 426,000m³/h)가 있어 대합실, 승강장, 기능실의 환기 및 공조(냉난방)를 하고 있다.

역사 시·중점부에 있는 본선 배기환기실에는 송풍기 4대(배기량 225,000m³/h)가 역사주변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본선터널 중앙부에 있는 급기환기실에 있는 송풍기 4대(급기량 286,800m³/h)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역사 및 본선환기설비는 자동으로 연기 배출을 한다.

공조설비 현황

종 류	계	시점환기실	중점환기실	비 고
냉 동 기	1	1	-	
대 합 실 공 조 기	3	2	1	
승 강 장 공 조 기	2	1	1	
히 트 펌 프	1	-	1	
패 키 지 에 어 콘	1	-	1	
자 동 에 어 필터	2	1	1	
역 사 송 풍 기	4	2	2	
본 선 송 풍 기	20	10	10	

소방설비 현황

종 류	계	지하1층 (대합실)	지하2층 (대합실)	지하3층 (승강장)	비 고
분 말 소 화 기	40	17	15	8	
옥 내 소 화 전	15	4	3	8	
연 결 송 수 관	12/1	4/1	4	4	지하/지상
상수도소화용수	1	1	-	-	
스 프 링 클 러	919/4	383/2	536/2	-	헤드/방호구역

종 류	계	지하1층 (대합실)	지하2층 (대합실)	지하3층 (승강장)	비 고
CO ₂ 소 화 설 비	22/42	12/42	10/24	-	헤드/CO ₂ 병
제 연 설 비	330/194	96/87	135/107	99/0	급기/배기
자동 탐지설비	212/23	89/8	105/7	18/8	감지기/발신기
비상 방송설비	161	43	50	68	
비 상 경 보	23	8	7	8	
유 도 등	67	25	26	16	
비 상 조 명 등	251	89	119	43	
비 상 콘 센 트	23	8	7	8	
무선 보조통신	○	○	○	○	

나.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역사내 조명을 위한 각종 조명등기구,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설이 있고, 전동차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설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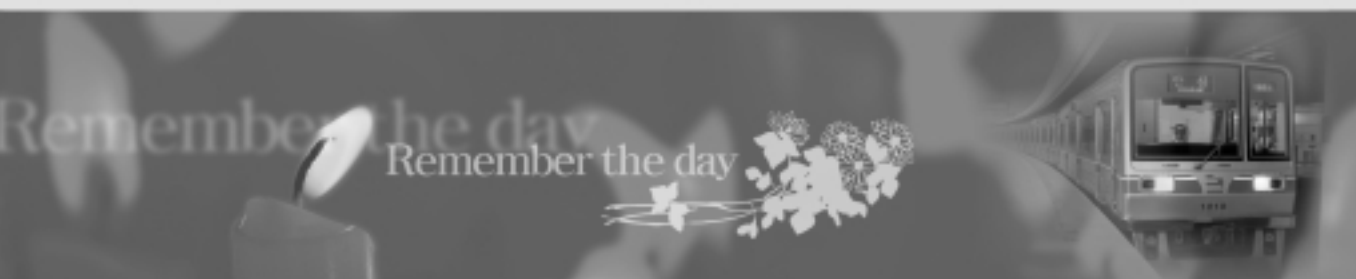
전기설비 현황

구 분	현 황
역사 공급전압	6.6Kv 3회로(반월당 변전소에서 공급)
조 명 용 전 원	단상 220V 2회로(250kVA 변압기 2대)
동 력 용 전 원	삼상 380V 2회로(750kVA 변압기 2대, 냉방 250kVA 변압기 1대)
신 호 용 전 원	단상 220V 2회로(30kVA 변압기 2대)
비상조명전원	직류 110V(1.2V 300Ah 축전지 92개)
분 전 반	18면(지하1층 4면, 지하2층 6면, 지하3층 8면)
조 명 등	1,369개(지하1층 412개, 지하2층 505개, 지하3층 452개)
전차선(전동차전력)	직류 1500V(반월당, 신천변전소에서 병렬 공급)

다. 기타 설비

열차 상호간 안전거리 확보, 운전속도 조절과 운행진로 지시 및 승강장에서
의 자동 정위치 정차 등을 제어하는 전자연동장치, 고장감시장치, 정위치정차
장치, 신호기, 신호제어컴퓨터 등 신호설비가 있고, CCTV 감시설비, 안내·경
고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설비, 종합사령실과 연계하여 안전체계를 갖춘 열
차무선설비, 화상전송설비 등 통신설비가 있으며, 승차권 판매와 이용요금 징
수 및 통제하는 발권기, 자동게이트, 전산기 등 역무자동설비가 있다.

第2編 事故收拾



第1章

初動段階 收拾

第1節 地下鐵公社 初期對應 87

第2節 火災鎮壓・救助活動 98

第1章 初動段階 收拾

第1節 地下鐵公社 初期對應

1. 전동차 기관사

가. 1079호 기관사

안심행 1079호 전동차 기관사는 09:52:32경 중앙로역에 도착하여 출입문 개방상태에서 후사경과 CCTV로 승객 승·하차 상태를 감시하던 중 하차승객들의 동요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운전실 밖으로 나가 1호 객실에서 불길 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화재를 진화하려고 운전실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1호 객실로 뛰어가 객실안 불길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소화액을 전부 분출하여도 불길이 진화되지 않고 확산되어 더 이상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황한 나머지 운전사령에게 화재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 보고하지 못한 채 역사 밖으로 대피하였다.

나. 1080호 기관사

대곡행 1080호 전동차 기관사는 09:55:30경 대구역을 출발할 무렵 운전사령 으로부터 “중앙로역 진입시 조심해 운전하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열차무선 전체호출을 통하여 통보 받았으나 평상시처럼 S-ATO¹⁾모드로 대구역을 출발하여 중앙로역에 진입하였다.

진입하기 전 상당거리 전방에서 역구내에 매연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큰 화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승강장으로 진입하면서 운전사령에 보고하기 위해 열차무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09:56:45경 전동차는 자동으로 중앙로역 상선승강장에 정차한 후 출입문

1) Semi-Automatic Train Operation (반자동열차운전) : 열차의 운행, 정위치 정차, 출입문 개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출입문 폐쇄, 출발은 기관사의 수동취급으로 이루어지는 운전방식

이 개방되었다.

승강장 상태를 확인하려고 운전실측 창문을 열어보니 유독가스가 극심하여 “출입문을 닫습니다. 곧 출발합니다”라고 안내방송을 하고, 곧바로 객실출입문을 닫고 중앙로역을 출발하기 위해 FMC²⁾모드로 전환하여 출발하려 하였으나 09:57:07경 전차선 단전이 발생되어 출발하지 못하였다.

곧바로 운전사령과 무선통화로 전차선 급전 및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09:58경 다시 운전사령과 무선통화로 승객대피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급전이 이루어져 출발하려 하였으나 바로 단전이 되어 출발하지 못하였다.

09:59경 다시 운전사령과 무선통화에서 급전과 단전이 반복되어 전동차를 재 기동하겠다고 통화한 후 판타그래프³⁾ 하강 및 MC Key⁴⁾를 Off한 후 잠시 대기하였다가 전동차를 기동하여 출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몇 차례 전동차 출발에 실패하자 승객들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는 안내방송을 2~3회 실시하고 10:03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운전사령실과 통화하면서 “연기가 많이 찼으면 문 열어놓고 안내방송을 하여 승객들을 승강장 위로 대피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운전실 우측측면 출입문 열림 스위치(DOOS3)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2회 정도 승객대피 안내방송을 하고 운전용품함에 비치된 전호등을 꺼내어 객실로 들어가 승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수차례 소리치면서 2번째 객실로 이동 중 입구에서 3~4명이 대피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계단입구까지 유도하고 다시 운전실로 돌아왔다.

10:10경 다시 운전사령실과 통화하던 중 “전동차 판⁵⁾내리고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고 MC Key를 취거하여 일부승객과 함께 지상으로 대피하였다.

2) Free Manual Control (수동운전) : 열차 운전, 정지, 출입문 등 모든 제어를 기관사의 수동취급으로 이루어지는 운전방식

3) Pantagraph : 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들이는 장치

4) Master Control Key : 자동차열쇠와 같이 열차구동을 위한 열쇠

5) Pantagraph : 판타그래프

2. 중앙로역 역무원

중앙로역 역무실에는 승강장을 비롯한 역구내를 감시하는 CCTV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상·하선 승강장에는 각각 2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전동차가 승강장에 진입하여 승강장을 벗어날 때까지 역무실 감시모니터에 나타나 감시할 수 있다.

또한, 화재수신반은 역구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보가 울리면서 화재 발생구역에 경보등이 표시되며, LCP⁶⁾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로역 및 인접 역인 반월당역, 대구역을 운행중인 열차번호와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종합사령실 운전사령과의 직통전화인 사령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로역에는 역무실 1개소, 매표소 2개소, 개집표소 4개소, 발매기실 3개소가 있고, 사고당일인 2월 18일에는 조책임자 1명, 역무실 모니터 감시 및 수입금관리 1명, 매표소 2명, 기기관리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였다.

가. 조책임자

당일근무 조책임자는 근무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역사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역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역무실 승차권창고에서 수입금 계산을 있는 모니터 감시 및 수입금 관리담당자의 수입금 계산을 도와주고 있었다.

09:53경 1079호 전동차의 방화로 인하여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역무실의 화재수신반으로 하선 승강장 화재감지기가 동작됨을 확인하고, 때마침 역무실로 들어오던 기기관리담당자에게 하선승강장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역무실 승차권 창고에서 수입금 계산을 하던 직원에게도 소화할 것을 지시한 후 09:55경 운전사령에게 사령전화로 “중앙로역 실제 화재입니다. 전혀 앞에 분간이 안됩니다.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화재발생을 보고하였으나 1079호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상세하게 보고하지 못하였다.

09:57경 119에 중앙로역 대합실에 실제 화재 상황을 신고하였고, 09:59경 다

6) Local Control Panel : 현장운전취급 제어반

시 운전사령으로부터 중앙로역 신호장애로 선로전환기를 췌정하라는 지시와 함께 전동차 안에서 화재가 났는지 물어 와 그 장소에 연기가 많아 어딘지 모르며 선로전환기 쪽으로 내려 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10:04경 다시 운전사령으로부터 승객들이 올라가니 안내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유독가스와 매연이 극심한 가운데 승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역무실로 들어와 “살려달라”고 하여 방독면을 씌워주었고 매연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벽을 짚어가면서 지하 1층 대합실로 올라온 후 3번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기기관리 근무자

기기관리 근무자는 09:30경 제2 매표소에서 근무하다가 업무를 교대하고 역무실로 들어오던 중 역무실에 근무하던 조책임자로부터 승강장에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지하 3층 하선승강장으로 내려가 1079호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자욱함을 확인하고 신속히 역무실로 돌아와 조책임자에게 실제 화재사실을 보고하였다.

실제 화재사실을 보고 받은 조책임자가 역무실에 있는 소화기를 주면서 발화지점으로 가서 소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승강장으로 달려가 1079호 전동차 첫 번째 차량 객실 안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불길이 거세어 진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매연과 유독가스가 급속히 번지며 주변이 암흑상태가 되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주위사람들을 소리 등으로 안내하여 지하 2층 대합실로 대피시키고, 매연과 유독가스가 극심하여 견딜 수가 없어 매표실을 나와 미처 대피하지 못한 몇 명의 승객과 함께 손을 잡고 지하 1층으로 대피하던 중 실신하여 119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수입금 관리 및 모니터감시 근무자

수입금 관리자 휴가로 수입금 관리 및 모니터 감시업무를 맡은 역무원은 역무실내 승차권 창고에서 전일 수입금을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 승차권 발매

기에서 동전을 수거하여 계수기로 금액을 세고 있었다.

이 때 조책임자가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역무실에 있는 소화기를 주면서 화재 발생현장으로 내려가 소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이 어디서 났는지 살피면서 하선승강장쪽 계단을 내려가려 하였으나, 계단으로 승객이 올라오면서 지하 3층 승강장에는 사람이 없으니 대피하라고 하며 자기가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다고 하는 승객과 함께 나오다가 지하 1층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라. 매표소 근무자

제1 매표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화재경보가 울리고, 승객의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매표실안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개집표기 및 게이트를 모두 개방시키고, 매표실 방송장치로 승객대피 안내방송을 2~3회 실시하고 중앙로역 중간지점에 설치된 게이트 상태 확인과 매표 수입금을 정리하던 중 유독가스 및 매연으로 호흡이 곤란하여 고통을 참아가며 4번 출구로 대피하여 소방관에 의해 구조되었다.

한편, 제2 매표소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은 비상게이트를 개방하여 승객대피가 용이하도록 하고 매표실내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승객대피 안내방송을 하고, 하선승강장 계단 쪽으로 내려가려다가 연기가 심하게 올라와 내려가지 못하고 매표소로 돌아와 상황을 파악하다가 매연과 유독가스로 아무 것도 볼 수 없어 벽을 짚어가며 계단을 찾아 지하 1층 대합실 기둥부근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 소방관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종합사령실

종합사령실에는 열차운행 관리를 담당하는 운전사령, 전력공급 관리를 담당하는 전력사령, 종합열차제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신호사령, 역사공조방재 관리를 담당하는 기계설비사령, 열차무선 통신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통신사령 등이 있다.

근무자는 종합사령실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사령팀장 1명과 각 사령을 책임

지고 있는 담당(과장) 각 1명이 통상 근무하고 있고, 이번 사고 발생당시 운전사령실에는 9명이 1조 3명씩(주사령 1명, 선사령 2명) 3조 2교대로 근무하였고, 전력사령실에도 9명이 1조 3명씩(주사령 1명, 선사령 2명)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설비사령실에는 6명이 1조 2명씩(주사령 1명, 선사령 1명)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가. 운전사령

운전사령은 신호 및 선로전환기의 취급과 LDP⁷⁾, CCTV 등에 의한 열차운행 감시와 통제, 선로상의 열차운행 정리, 운전사고 및 장애, 이례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LDP에는 1호선 전구간 열차 운행정보가 표시되고 CCTV 22대가 설치되어 있어 각 역 승강장에 전동차 진입 시부터 벗어날 때까지 모습을 감시할 수 있다.

1) 주사령 근무자

열차운행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주사령은 09:55경 대곡~중앙로역간 선사령의 “중앙로역 화재”하고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중앙로역 화재사실을 알았으나, 화재발생으로 인한 검은 연기 때문에 CCTV 모니터에 중앙로역 승강장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화재원인과 규모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고, 09:58경 교대역~큰고개역의 궤도단락으로 신호제어가 되지 않아 선로전환기 수동취급 지시 및 지연열차의 운행통제를 하였다.

2) 대곡~중앙로역간 선사령 근무자

대곡~중앙로역간 선사령 근무자는 09:55경 중앙로역에 근무하는 조책임자로부터 “중앙로역 화재입니다. 전혀 앞에 분간이 안됩니다.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사령실에 “중앙로역 화재”를 복창하여 운전사령실 근무자들에게 화재사실을 전파하였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검은 연기 때문에 CCTV 모니터에 중앙로역 승강장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화재원인과 규모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음으로

7) Large Display Panel : 열차운행상황표시판

일단 중앙로역 부근을 운행중인 전동차를 정차시키고 화재원인과 규모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큰 화재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열차무선 전체호출을 통하여 중앙로역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주의 운전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09:57경 중앙로역 상선에 도착한 1080호 전동차 기관사로부터 전차선 단전과 승객대피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요청받고 무선통화로 승객 안내방송을 지시하던 중 기관사가 급전되어 바로 출발하겠다고 하여 출발지시를 하였으나, 09:59분경 급전과 단전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여 침착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던 중 통화가 끊어졌다.

이후, 단전구간 운행 전동차 기관사로부터 단전내용을 보고 받고 안내방송을 시행토록 지시하는 등 운전정리를 하던 중 10:17경 전구간 전동차운행이 곤란하여 전 전동차에 운행대기를 지시하였다.

3) 대구역~안심역간 선사령 근무자

대구역~안심역간 선사령 근무자는 대곡~중앙로역간 선사령 근무자의 중앙로역 화재발생 전파내용을 듣고, 09:55경 설비사령에게 사령전화로 화재사실 확인과 재연설비를 가동할 것을 통보하였다.

09:57경 중앙로역 조책임자에게 사령전화로 1079호 전동차에 소화기를 가지고 내려갔는지 확인한 후 09:59경 중앙로역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되어 사령전화로 중앙로역 조책임자에게 쇄정하도록 지시하면서 전동차안에서 화재가 났는지 확인하였으나 화재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10:03경 1080호 전동차 기관사에게 전화통화로 연기가 많이 났으면 전동차 출입문을 개방하고 승객대피 안내방송과 승강장 위로 대피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10:06경 전 전동차에 열차무선으로 반월당~신천간 하선 전차선 단전으로 하선전동차의 정상운행이 안 되고 있으며, 상선전동차는 정상 운행할 것과 상선 전동차중 단전전동차 및 신호현시 불능인 전동차는 사령에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

10:10경 1080호 전동차 기관사로부터 걸려 온 일반전화 통화에서 전동차와

현장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판타 하강과 전동차를 죽이고 대합실로 대피할 것을 지시하였다.

10:17경 전역에 전동차 운행중지 및 대기를 지시하였으며, 10:28경 종합사령 팀장으로부터 전동차 운행중단 지시를 받고 전 전동차의 승객을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기계설비사령

기계설비사령은 각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기계, 방재설비를 감시할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기계설비의 중앙감시 및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기계, 방재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 및 관련 부서에 대한 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주사령 근무자

09:00부터 1단계 구간(대곡~중앙로역)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09:30경에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사내 2층 휴게실에서 대기하던 중 10:03경 기계설비담당으로부터 화재발생 사실을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고 사령실로 돌아와 중앙로역 시·종점 본선 배기 송풍기를 수동으로 가동하였다.

대합실 및 승강장 공조기의 환기팬을 가동하던 중 중앙로 신호기계실에 직원 10여명이 고립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중앙로역사 팩키지 에어컨을 수동 가동하고 본선급기 송풍기도 수동으로 가동하여 배기시키고 배연팬, 공조기 환기팬이 정상 가동되는지 감시하였다.

2) 선사령 근무자

09:00부터 2단계구간(대구~안심역)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09:30부터 주사령이 건강검진을 위해 2층 검사장으로 내려간 후 혼자 기계설비 사령장치를 감시하던 중 09:53경 중앙로역 화재경보가 주컴퓨터에 현시되고 그 내용이 프린터로 출력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09:55경 운전사령으로부터 중앙로역 화재발생 확인 및 재연설비를 가동할 것을 통보받아서 주컴퓨터의 화재경보사실을 확인하고 재연설비를 가동하였다.

다. 전력사령

전력사령은 전동차 운행에 필요한 전차선 전력과 각 역사에 필요한 전력공급 계통을 감시할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전력공급 계통을 감시 및 제어하며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 및 관계 부서에 통보업무를 담당한다.

1) 주사령 근무자

전력공급 계통을 감시하던 주사령은 09:57경에 영대병원~신천변전소 구간 전차선로 상·하선이 영대병원변전소 반월당측과 신천변전소 반월당측의 HSCB⁸⁾가 개방되고 반월당변전소 직류 급전계통의 모든 차단기가 개방되며 단전됨을 확인하고 자동급전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감시하였다.

자동재폐로⁹⁾에 의한 급전이 실패함으로 선사령에게 신천변전소 반월당측의 차단기를 오버라이드¹⁰⁾로 절체할 것을 지시하고 직접 영대병원변전소 반월당측 차단기를 오버라이드로 절체하여 자동재폐로를 실행한 결과 영대병원변전소 하선구간은 급전하였다.

그러나 신천변전소 반월당측 상선은 자동재폐로가 실행되던 중 짧은 시간(17초, 33초)동안 급전이 유지된 후 다시 단전이 되면서 자동재폐로가 또 다시 이루어졌으나 실패하여 수동으로 HSCB를 투입할 것을 선사령에게 지시하였으나 급전에 실패하였다.

2) 선사령 근무자

전력공급계통을 감시하던 선사령은 09:57경 영대병원~신천변전소 구간 전차선로 상·하선이 영대병원변전소 반월당측과 신천변전소 반월당측의 HSCB가 개방되고 반월당변전소 직류 급전계통의 모든 차단기가 개방되며 단전됨

-
- 8) High Speed Circuit Breaker(직류고속도차단기) : 전차선 양단에 설치되어 전력공급과 과부하 등 회로이상시 신속히 차단하여 관련장치를 보호하는 차단기
 - 9) 전차선 급전중 과부하 등 회로이상으로 차단기가 차단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차단기를 3회까지 투입하여 급전을 시도하는 기능
 - 10) Override : 전차선 급전구간의 전력공급은 인접한 변전소 양단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과부하 등 회로이상으로 한 변전소 차단기가 차단되면 같은 급전구간의 인접 변전소 차단기를 연계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연계차단이 되지 않도록 설정함

을 확인하고 자동재폐로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감시하였다.

자동재폐로에 의한 급전이 실행되지 않아 주사령의 지시에 따라 신천변전소에 반월당측의 차단기를 오버라이드로 절체하였으나 신천변전소의 반월당측 하선차단기는 투입 즉시 개방되었고 상선 차단기는 짧은 시간(17초, 33초) 동안 급전을 유지하다가 개방되면서 자동재폐로가 실행되었으나 이후 다시 개방되어 수동투입으로 또 다시 급전을 시도하였으나 급전이 되지 않았다.

4. 전동차 운행중단

화재발생 후 10:17경 운전사령에서 각 역과 전동차 기관사들에게 열차운행 중지 및 대기를 지시하였으며, 화재가 진화되지 않고 더욱 확대되어 전동차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지하철공사에서는 전구간 전동차운행 중단을 결정하고 10:28경 종합사령팀장은 전 전동차와 각 역에 전동차 운행중단 및 승객을 하차하도록 지시하였다.

13:38경 화재가 진화되었으나 중앙로역 주요시설물이 소실되는 등 화재피해가 심각하고 사고복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복구 완료시까지 전동차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1호선 30개 역사 가운데 전차선 급전구간과 전동차 회차 등을 감안하여 전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명덕역에서 신천역까지 6개역은 운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24개역을 대곡역~교대역, 동대구역~안심역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운행하기로 하고 사고 다음날인 2월 19일 05:20부터 구간운행을 시작하였다.

열차운행 현황

구 분	사 고 전	사 고 후
구 간	대곡~안심(30개역)	1 구 간 : 대곡~교대(12개역) 2 구 간 : 동대구~안심(12개역) 운행 중단 : 6개역(명덕~신천)
운행시격	RH 5분, NH 6.5분	RH 6.5분, NH 6.5분
운행회수	평일 : 332회, 휴일 : 306회	1구간 : 320회, 2구간 : 320회
소요시간	50분 30초	1구간 : 18분 20초, 2구간 : 19분 45초
운행거리	25.9km	1구간 : 9.1km, 2구간 : 11.0km

대구시에서는 사고수습이 지연되고 지하철 이용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하철 운행중단 구간인 교대역~동대구역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시내버스) 14대를 투입하여 6분간격으로 운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실제 운행횟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후 버스업체별로 지급하였다.

第2節 火災鎮壓・救助活動

1. 화재신고·접수

1079호 전동차의 1호 객차에 탑승했던 전○○(남, 64세)에 의하면 교대역에서 대구우체국에 정보화 교육을 받기 위해 1호 객차에 승차하여 반월당역을 지나자 대각선 좌석에 앉아 있던 방화범 김대환이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내어 켜는 것을 보고 “당신 왜 불장난해”라고 야단을 치자 방화범이 눈치를 보면서 라이터를 껐다.

잠시 후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도착하자 방화범이 오른편 좌석 위에 놓인 가방에서 흰색 플라스틱통 뚜껑을 열어 라이터를 켜 가까이 하자 ping하는 소리와 함께 착화되어 화염이 방화범의 옷(체육복)과 좌석시트에 인화되어 급격히 차내부가 연소되었다고 하였다.

2월 18일 09:53:35경 ○○○가 “지금 중앙통역 지하철역 전철안에서 불났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손님인데 불났습니다. 중앙로역으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최초신고를 하였고, 09:54:07경 2차 신고자 ○○○가 “여보세요. 여기 중앙로지하철역에 불났어요. 중앙로지하철역에 불났습니다. 전동차에 불났습니다.” 하는 다급한 목소리로 화재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익명의 신고자들로부터 화재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2003년 2월 18일 09:54:40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중앙로역 화재사고 신고를 접보하고, 상황보고체계에 의하여 보고하였고, 09:59경 소방본부장 및 현장지휘소 요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소방본부에서는 대구지방경찰청에 교통통제를 요청하였으며, 10:10경 한국전력에 출동요청을 하는 한편, 1339 및 대구 시내 병원 구급차 동원요청을 하는 등 소방 응원요청과 더불어 유관기관 동원으로 수습 취약분야를 해소하고자 했으며,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상황전파 및 현장지휘소 등을 운영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2. 소방력 운용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를 수습하기 위하여 당일 09:57~18:00까지 약 8시간 동안 대구소방본부, 중앙119구조대, 경북·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력을 투입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임했다.

원활한 구조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현장지휘소와 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고, 경찰, 군부대, 전기·가스 등 19개 관련 유관기관·단체를 동원하여 수습활동을 전개하였다.

가. 소방력 동원

지하철 중앙로역 사고현장에 동원된 소방력은 본부 및 산하 6개 소방서와 중앙119구조대 등의 14개 응원기관 소속 1,046명의 소방공무원과 158대의 차량 및 관련장비를 투입하였다.

활동장소별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을 위해 중앙로역 현장활동에 인력 906명과 차량 158대를 투입하였고, 병원과 월배차량기지 등 사고현장 이외의 장소에 140명을 배치하였다.

사고현장내 소방력은 대구본부 소속 7개 기관의 차량 119대 764명을 비롯하여 중앙119구조대 8대 37명, 경북소방본부 소속 8개 소방서(김천, 경산, 성주, 영천, 구미, 상주, 칠곡, 경주소방서) 차량 22대 65명, 경남소방본부 소속 4개 기관(동마산, 밀양, 양산, 거창소방서) 9대 40명을 투입하였다.

차량은 화재진압용 38대(펌프 11, 탱크 21, 배연 2, 조명 4), 인명구조용 45대(구조공작차 6, 소방응원 39), 구급활동용 42대(구급차), 현장활동 지원용으로 33대를 동원하였다.

대구본부 소속 현장동원대별 현황은 화재진압분야에 서문로파출소 등 27개 파출소, 인명구조분야에 중부구조대 등 6개 구조대, 구급분야에 서문로구급 등 42개 구급대를 동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방본부 소속 당일 비번자 463명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그 중

425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및 현장보조업무를 수행케 하였다.

소방인력 운용현황

(단위 : 명)

총계	사고관련 동원소방인력											기타 인력			
1,385	계	사고 현장					사고현장 이외					계	출동 대기	민원 업무 등	사고
		소계	당번	비번	일근	소방응원	소계	병원 배치	차량 기지	상황 근무	대기 근무				
	1,046	906	212	425	127	142	140	35	17	81	7	339	220	54	65

사고현장 동원인원 임무별 현황

(단위 : 명)

계	현 장 지 휘	지휘소 운영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 급		장비지원		기타
			진입	보조	진입	보조	소방 응원	구급차 탑 승	현장 보조	장비 조달	현장 보급	
906	11	40	57	97	209	52	142	83	48	27	70	70

사고수습관련 동원장비 현황

(단위 : 대)

총계	대구소방본부								소방응원			
	소계	펌프	탱크	배연	조명	구조	구급	기타	소계	중앙구조대	경북	경남
158	119	11	21	2	4	6	42	33	39	8	22	9

개인장비 동원현황은 공기호흡기 등 휴대용 8종 883점과 라이트라인 등 현장설치용 2종 950m를 동원하여 사고수습활동에 임했다. 사고현장에 동원된 소방공무원 3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개인장비 활용빈도는 공기호흡기, 연기투시기(랜턴) 순으로 향후 지하화재 발생시 소방작전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장비별 사고현장 활용빈도

(단위 : 명)

구 분	공 기 호흡기	연기투시기 (랜턴)	들것	수관	로프	파괴 장비	무전기	기타
사용인원	225	199	132	73	65	15	11	81
활용빈도	61.3%	54.2%	36.0%	19.9%	17.7%	4.1%	3.0%	22.1%

현장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23명으로 그 중 10명은 화상, 파로·질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진료자는 68명으로 나타났다.

나. 유관기관 동원

119상황실에서 사고상황 접보 후 현장통제를 위한 경찰력 동원을 요청하는 등 군·의료·전기·가스·통신·봉사활동 단체 등 19개 기관·단체 2,308명을 동원하여 해당기관별 긴급 구조활동을 수행토록 하였다.

유관기관 동원현황

구 분	계	경찰	군	의료	전기	가스	통신	봉사	기타
기관·단체수	19	1	1	2	2	4	1	3	5
동원인원(명)	2,308	1,020	214	94	19	14	4	435	508
동원장비(대)	153	45	11	84	2	4	1	2	4

다. 상황관리

09:54경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119신고 접보를 받아 09:55경 사전 편성된 5개대(구조 2, 파출소 3)에 대한 출동지령 후 추가 출동조치 및 상황관리에 임했다. 소방응원 요청 및 유관기관 동원으로 취약한 수습분야를 해소하였으며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현장통제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현장지휘소 등을 운영하였다.

현장 수습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Fire-Line 및 Police-Line을 설치하여 혼잡한 사고현장을 통제해 나갔으나, 유가족, 취재기자, 시민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수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현장지휘소 및 상황관리 현황

계	현장지휘	지휘소 운영		병원배치	상황관리
		중앙로	월배차량기지		
184명	11	40	17	35	81

시간대별 주요 현장지휘·통제사항

시간별	현장지휘·통제사항	비고
2. 18 09:59	○ 소방본부장 및 현장지휘소 요원 현장 출동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통제 요청	
10:02	○ 소방본부장 및 중부서장 현장지휘 (각 소방서장 소집 및 방면지휘 지시)	
10:10	○ 한전 출동 요청	
10:12	○ 대구 시내 병원 구급차 동원 요청	
10:17	○ 중부소방서 비번직원 비상소집	
10:25	○ 경북소방본부 소방응원 요청	
10:26	○ 중부소방서 현장지휘소 운영	
10:30	○ 소방본부, 중부소방서 현장지휘소 통합 운영	
10:43	○ 방면지휘관(소방서장) 소집 회의	
10:52	○ 본부 산하 비번자 비상소집	
11:30	○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경남소방본부 응원출동 지시	
13:33	○ 중앙119구조대 헬기 도착	
13:38	○ 화재 진화 완료	
14:11	○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현장 지휘	
17:00	○ 인명검색 완료 및 전동차 주변 낙하구조물 제거	
19:00	○ 월배차량기지내 달서소방서 현장지휘소 운영	
2. 21 13:30	○ 현장지휘소 철수 및 사고대책본부 관련자료 인계	



현장지휘소 설치



주변지역 교통통제



POLICE LINE 설치



소방차 출동



구급차 출동



군병력 투입



자원봉사활동



희생자 가족들의 모습



취재진들의 모습

3. 화재진압

대구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54명과 차량 38대를 동원하여 사고발생 당일 09:57경 진화활동에 임하여 13:38경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서문로파출소 등 선착대가 도착한 후 곧바로 호스를 전개하여 화재지점인 4번 출구로 진입하였으나, 지하에 가득 찬 농연과 지하 1·2층에 있는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작업과 공기호흡기 교체 등으로 소방력이 약화되었다.

화재진압을 위한 추가소방대가 도착하였으나 전동차의 급격한 연소확대에 수반된 고열로 인해 지하 3층에서 연소중인 전동차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지하 1·2층내 고열 제거작업(분무주수)과 인명 구조활동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기구, 인근역사 선로 등을 통한 지하 3층으로의 진입시도, 연결 송수관설비 등 자체 소방시설 활용 등 다각적인 진압방법이 시도되었으나 발생하는 고열과 소요시간의 한계로 조기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1:30경 환기구 및 내부를 통해 화재진압 소방력이 지하 3층으로 진입하여 전동차 및 역사에 집중 주수하여 13:38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



연기 배출



소방호스 투입

화재진압활동 총괄현황

계	지하층 진입 방수				지상에서 보조		
	소계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소계	경방	기관
154명	57	0	14	43	97	39	58

화재진화 부서별 활동내역

출 구 별	진화부서	투입호스	방수구역	사용량 (톤)	소화전 점령여부
계		· 40 _{mm} 165분 · 65 _{mm} 10분		93	
1번 출구	삼덕대	· 40 _{mm} 13분 · 40 _{mm} 15분	지하 2·3층 전 동 차	10	○
2번 출구	남산대	· 40 _{mm} 13분	지하2~3층계단	13	○
2번 출구	칠성대	· 40 _{mm} 15분 · 65 _{mm} 10분	지하 1·2층		×
4번 출구	서문로대	· 40 _{mm} 12분 · 40 _{mm} 12분	지하2층 개찰구	6	○
4번 출구	신천대	· 40 _{mm} 18분	지하 1·2층	2	×
환 기 구 (대구역)	침산대 (대현대)	· 40 _{mm} 27분	지하 2·3층 전 동 차	18	○
환 기 구 (중앙파출소앞)	대명대 (달서구조대)	· 40 _{mm} 40분	지하 2·3층 전 동 차	9	○
SK송수구 (하나은행앞)	이현대	-	지하 2층	35	○

4. 인명 구조·구급

가. 구조활동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261명을 동원하여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호스로 지하철역내의 연기를 뽑아내면서 09:57~17:30까지 구조활동을 전개하여 사상자 209명(실제 소방공무원이 구조한 인원은 190명으로 추정됨)을 구조하였다.

인명구조 투입 소방인력현황

계	지하층 진입 인명구조				지상에서 보조		
	소계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소계	경방	기관
261명	209	13	49	147	52	24	28

지하층 내에 있는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고열·농연 등 악조건 하에서도 상당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특히, 다수의 요구조자가 발생되어 중앙119구조대, 경북·경남소방본부 등의 소방응원 요청과 더불어 진압대원 및 비상소집된 소방공무원 들도 현장에 투입하였다.



인명구조활동 모습

층별 인명구조 현황

구 조 활 동 내 역			인 명 구 조 현 황(명)			
층 별	시 간	출구별	계	부상	사망추정	사망
계		-	209	98	65	46
지하 1층	09:57 ~ 10:37	소계	27	27	0	0
		1	9	9	0	0
		2	4	4	0	0
		3	0	0	0	0
		4	14	14	0	0
지하 1 ~ 지하 2층	10:01 ~ 10:58	소계	35	35	0	0
		1	7	7	0	0
		2	26	26	0	0
		3	0	0	0	0
		4	2	2	0	0
지하 2층	10:10 ~ 15:00	소계	56	28	11	17
		1	4	0	0	4
		2	25	18	4	3
		3	0	0	0	0
		4	14	6	5	3
		기계실(대구역)	13	4	2	7
지하 2 ~ 지하 3층	10:10 ~ 16:00	소계	71	7	43	21
		1	30	0	30	0
		2	33	7	13	13
		3	0	0	0	0
		4	8	0	0	8
지하 3층	11:40 ~ 15:10	소계	19	0	11	8
		1	7	0	1	6
		2	10	0	10	0
		3	0	0	0	0
		4	2	0	0	2
선 로 상	중앙로 ⇔ 반월당		1	1	0	0

나. 구급활동

소방본부 소속 구급차량 45대중 42대가 사고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원활한 구급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공무원 48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현장보조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구급활동투입 소방력 현황

구급활동 인원(명)			구급차량 동원(대)		
계	구급차탑승	현장보조	계	동원	미동원
131	83	48	45	42	3

주요 의료장비 동원현황

총계	심실제세동기	수 동 식 인공호흡기	자 동 식 산소소생기	인공호흡기	들 것
626점	11	162	143	167	143

10:02~18:00까지 117명의 사상자를 응급처치하고 시내 15개 병원에 65회(1회 평균 2.8명)이송 조치하였다.

사고발생 초기에는 많은 구급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여 이송에 곤란을 겪기도 했으나 추가 구급대 편성과 의료기관 소속 구급대의 확보로 장애요인을 해소하였다.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병원별 이송현황

병 원 별	환자이송 소요시간	이 송 자 현 황(명)		
		계	부 상	사 망
계		117	78	39
경북대학교병원	5분 이내	17	11	6
곽 병 원	"	15	15	0
동 산 병 원	"	24	22	2
영 대 병 원	"	20	16	4
적 십 자 병 원	"	2	1	1
카 톨 릭 병 원	"	5	2	3
파 티 마 병 원	"	15	8	7
한 성 병 원	10분 이내	3	3	0
대 구 의 료 원	"	1	0	1
노 인 치 매 병 원	20분 이내	3	0	3
배 성 병 원	"	3	0	3
조 광 병 원	"	2	0	2
허 병 원	20분 초과	2	0	2
논공카톨릭병원	"	2	0	2
대 구 병 원	"	3	0	3

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활동

2월 18일 10:04경 119상황실로부터 “09:53경 중앙로역 화재발생으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현재 부상자 약 50여명 구조중”이라는 상황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 응급의료기관 및 사설이송단체에 구급차량을 대기시켜 줄 것과 응급실 여유병상 확보를 요청하고, 10:06경 정보센터요원 2명이 응급의료 무선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한편, 10:08경 정보센터 전 요원을 비상소집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현장상황을 전파하고, 적십자 구급봉사대에 사고현장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적십자 구급봉사대와 응급의료정보센터요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지하철역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과 유독가스 등으로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고, 역사내부 상황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상자 구조가 지연됨에 따라 10:15경 전 응급의료기관 및 사설이송단체의 구급차량을 아카데미 극장 앞으로 출동할 것을 지령하고, 1339정보센터요원의 통제지시를 받도록 통보하는 한편, 전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병상확보와 의료진이 대기할 것을 추가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사고관련 사상자에 대한 병원정보를 응급 의료무선통신망 및 1339를 통해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통보토록 요청하였으며, 현장지휘소와 1339무선통신망, 응급의료기관과 응급 의료무선통신 일제지령망, 119상황실과 1339정보센터간 비상 hot-line 등으로 의료기관 정보를 수시 통보하여 사상자를 분산배치하였다.

응급의료정보센터요원들은 권역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합류하여 중증도 분류에 의한 환자 분산배치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중증도 분류는 긴급, 비응급, 지연환자 순으로 환자 후송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정보센터 상황실과 통신망을 통하여 긴급환자는 경북대학교병원, 동산병원으로 지연환자는 후송보류, 비응급환자는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후송토록 후송병원을 선정하여 후송하였다.

第2章 事故收拾體制構築

第1節 火災事故對策本部 設置・運營 ...	115
第2節 特別災難地域 指定・宣布	145
第3節 事故收拾源 對策	152
第4節 中央特別支援團 派遣	158

第2章 事故收拾體制 構築

第1節 火災事故對策本部 設置·運營

1. 사고대책본부 설치

가. 긴급 사고대책상황실 체제

2003년 2월 18일 10:04경 안심행 1079열차가 반월당에서 중앙로역으로 진입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소방본부로부터 통보받은 대구시에서는 시장과 교통국장이 즉시 사고현장으로 달려가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진두 지휘 하였으며, 청내방송을 통하여 시청 전직원에게 긴급상황을 전파하고 비상대 기하도록 하였다.

기획관리실장을 상황실장으로 6개반 83명으로 긴급 사고대책상황실을 설치 하여 사고상황 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우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사고대책상황실에서는 재난재해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하고 있던 재난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 등 지휘 체계에 따른 상황보고를 함과 동시에 소방본부, 대구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상황통보와 지원요청을 하였다.

시장은 재난의 수습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중앙지점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긴급구조 및 지원업무에 주력하고, 소방본부장은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지하철공사사장은 사고지역 현장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국장의 보조하에 소관 부서별로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부시장은 대구광역시재난관리규정에 의거 도시건설국장에

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국장에게도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행정관리국장은 직원 비상근무와 통신망 구성, 차량지원, 자원봉사자를 총괄 관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망자 및 실종자 신원파악과 대한적십자사에 구조요청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체육국장은 부상자 수용을 위한 의료기관 협조요청, 교통정책과장은 사고지역인 중앙로역 부근의 교통통제 및 우회교통 소통대책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지하철 화재사고 당시 현장은 정전으로 지하철 중앙로역(지하) 일대가 암흑천지로 변하고, 중앙로역 일대 지상 출입구마다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었으며, 방송을 통해 사고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사고현장으로 몰려 들어 중앙로역을 중심으로 대구도심의 지상교통은 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각급 재난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긴급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이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사분란한 지휘 및 통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사고대책본부 체제

2월 18일 22:00경 대구시는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긴급 사고대책상황실 체제에서 총괄지원반, 부상자대책반, 유족대책반, 대외협력반, 시설복구반, 공보반 등 6개반(각 3개조) 205명으로 사고대책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각 부서에서 차출된 근무자는 반별 3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씩 3교대로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사고수습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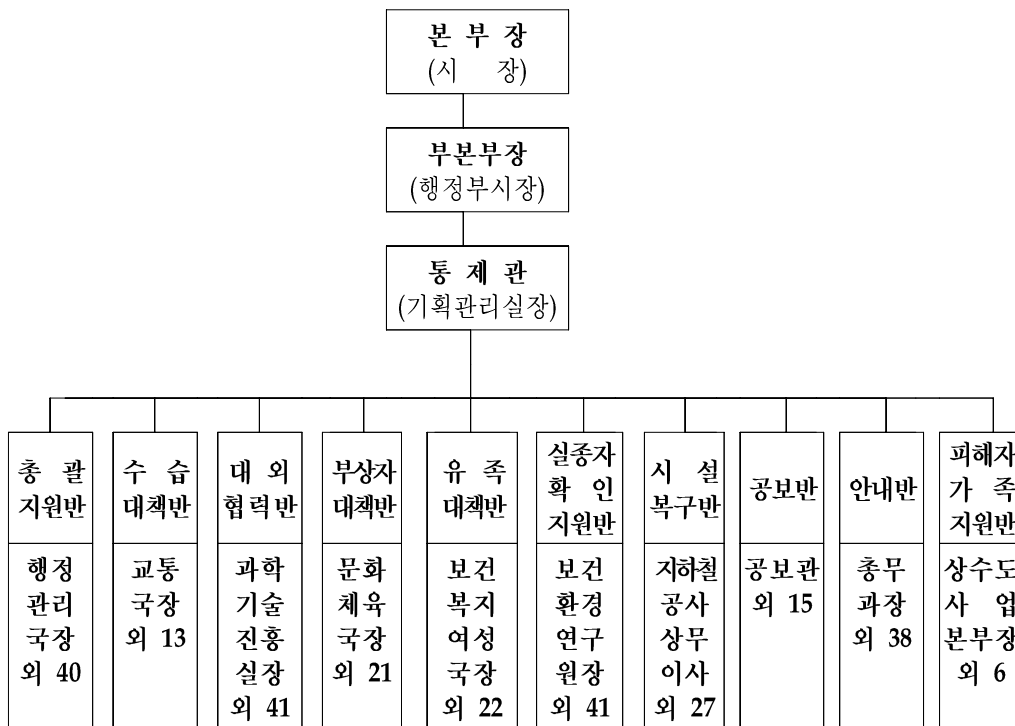
또한, 실종자 신고 등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대책상황실을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시민회관 별관으로 이전하고, 별관 1층에는 실종자 가족의 대기소 및 사무실을 함께 설치하였으며, 별관 2층 소강당에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 화재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로역 시설복구 등은 지하철공사에서 전담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수습업무는 대구시가 전담하기로 하였다.

2월 20일부터는 사고의 종합수습대책 수립 및 시행을 전담할 수습대책반, 실종자 확인을 위한 서류접수와 자료검토를 위한 실종자확인지원반, 외부인사의견업무 등을 수행할 안내반 등 3개반을 추가로 신설하고 조직을 보강하는 등 총 9개반 274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2월 24일에는 총괄지원반 내에 피해자금융지원상담팀을 신설하고, 2월 28일에는 피해자가족지원반을 신설하여 피해자 대표 및 가족과의 대화, 가족 애로사항 수렴 등 피해자 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반별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총 10개반 248명으로 개편하였다.

대구지하철화재사고대책본부



실무반별 업무분장

반 별	임 무
총괄지원반	○ 전체 상황관리 ○ 각종 보고서 및 상황판 작성
수습대책반	○ 종합수습대책 수립 및 시행 ○ 피해보상 및 보상재원 대책수립 ○ 피해보상관련 법률적 검토 및 조례제정 ○ 지하철 사후 안전대책 강구 및 보상금 정산 총괄
대외협력반	○ 구호물품(위문금품) 접수 ○ 자원봉사자 운영 ○ 실종자 접수 및 유가족 대기소 운영 ○ 물적 보상관리
부상자대책반	○ 부상자 관리(현황, 인원 등) ○ 부상자 위문 및 가족 지원 ○ 위로금 지급 및 부상자 보상에 관한 사항
유족대책반	○ 사망자 장의 등 관리 ○ 사망자 위문, 가족지원 ○ 합동분향소 운영 ○ 위로금 지급 및 사망자 보상에 관한 사항 ○ 신원 미상자 확인
실종자확인지원반	○ 실종자 확인을 위한 서류접수 및 검토 ○ CCTV, 유품 등 실종자 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 실종자 확인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시설복구반	○ 지하철 1호선 종합안전점검(전기전력 등 7개분야) ○ 중앙로역 시설물 복구공사
공보반	○ 주요 수습상황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 피해, 수습상황에 대한 현장 촬영 및 보존
안내반	○ 의전업무 ○ 주요인사 등 안내
피해자가족지원반	○ 피해자 대표 및 가족과의 대화 ○ 피해자 대표 및 가족 애로사항 수렴 대책본부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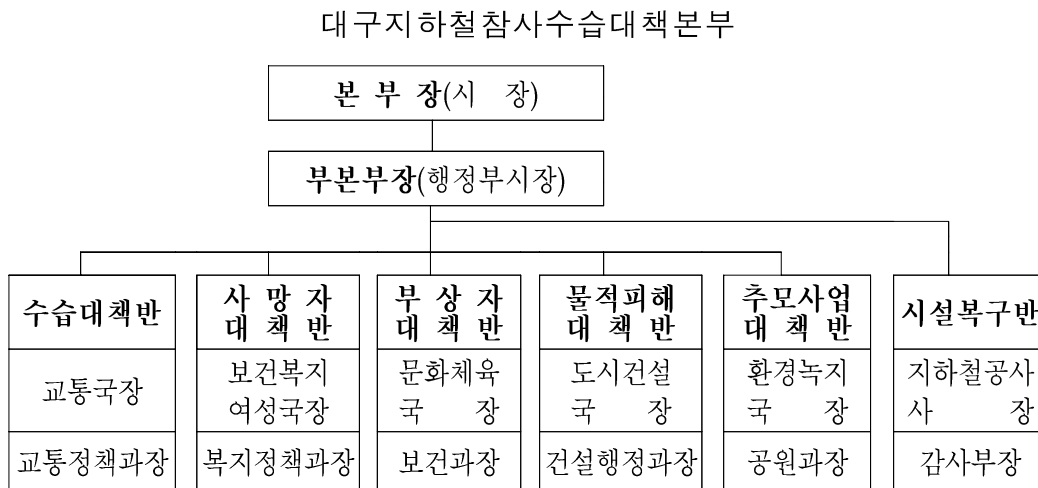
3월 10일에는 사무관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유족대책반 내에 신원확인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한 전담팀(30명)을 구성하여 유가족들에 대한 장례절차 안내, 장례비 전달, 시립화장장 등 무료사용허가, 기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지원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확인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보도지원 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실종자확인지원반 및 공보반 기능을 총괄지원반으로 흡수·조정하는 등 조직을 수습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사고대책본부 사무실을 시민회관 별관 1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고 1층은 유가족측의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였다.

또한, 사고 초기에는 시민회관 소강당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많은 조문행렬이 줄을 이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 정도 지나서는 조문객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됨에 따라 4월 17일부터는 안내반을 총괄지원반으로 흡수하여 안내팀(6개반 214명)으로 축소·조정하였다.

3월 14일 20:30 중앙특별지원단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들이 사고대책본부의 명칭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3월 15일부터 「대구지하철화재사고대책본부」를 「대구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5월 1일 수습대책본부에서는 사망자 장례 및 피해자 보상협의, 추모사업 협의, 중앙로역 복구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습체제 구축을 위해 대책본부 조직을 6개반 214명에서 6개반 87명으로 개편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근무방식을 3교대 근무체제에서 상시 근무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대책본부 사무실을 시민회관 별관 3층에서 소방본부 5층으로 이전하였다.



수습대책본부는 6월 29일 합동영결식을 계기로 장례문제가 해결되었고, 피해자 보상문제도 부상자의 경우 법적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6월 26일 보상심의를 거쳐 지급되었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도 6월 25일 보상협의를 타결됨에 따라 7월 7일부터 대책본부의 조직을 6개반 87명에서 6개반 33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대책본부 사무실도 소방본부 5층에서 U대회조직위사무실(구 대구은행 동지점) 2층으로 이전하였다.

9월 5일, 수습대책본부는 보상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잔여 수습업무가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추진됨에 따라 각 반의 업무를 대구시 관련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이관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형식상의 수습대책본부 조직은 기존의 6개반 33명에서 6개반 21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실제로는 1개반 8명이 상시 근무하는 체제였다. 대책본부 사무실도 U대회조직위사무실에서 시민운동장(체육시설관리사무소)으로 이전하였다.

12월 12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6개반 21명)를 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철사고수습단(1반 12명)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그동안 수습의 1단계인 장례와 2단계인 법적보상이 마무리되고, 수습의 3단계인 성금배분 업무 중 부상자특별위로금 배분기준이 11월 28일 확정됨에 따라 직접 지원경비 배분 및 집행과 추모사업 등 잔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지하철사고수습단은 수습대책본부의 수습대책반(교통정책과) 업무 및 추모사업대책반 업무(추모사업 협의·결정)를 인계받아 처리하도록 하였고, 수습대책본부 각 반의 잔여업무는 복지정책과(사망자대책반), 보건과(부상자대책반), 건설행정과(물적피해대책반), 지하철공사(시설복구반) 등 소관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모사업의 경우 지하철사고수습단에서 운영하는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시행하되, 추모묘역 조성은 복지정책과, 위령탑 건립 및 추모벽 설치하는 지하철공사, 안전교육관 건립은 소방본부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사고대책본부 운영

가. 수습상황

2월 18일 22:00~23:30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장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갖고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대책상황실 체제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대책본부 사무실과 합동분향소 및 실종자가족 대기소를 시민회관 별관에 설치하며, 검찰·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수습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실종자 신고·접수처리,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등 구체적인 사고수습방안을 논의하여 즉시 시행하였다. 당일 24:00경에는 중앙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

2월 19일 15:30 중앙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설치한 중앙사고대책본부 주관으로 지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대구시의 건의를 수용하여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20일 사고대책본부의 대책회의에서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가족 대표와 협의하여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으며, 실종신고자가 계속 늘어나는 등 인명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대책본부의 행정력을

실종자 확인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2월 24일 10:0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국가정보원대구지부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주재로 실종자 처리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화재로 인한 높은 열과 연기가 발생되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신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시신을 찾지 못하는 희생자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실종자 처리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지난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사고사례와 같이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종자 확인 절차를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일 밤 전동차 전인과 다음날 지하철공사에서 중앙로역 현장 잔재물 정리 및 수거작업으로 인한 현장훼손 논란으로 실종자 가족들과 사고 대책본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하철공사와 대구시가 현장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시를 불신함에 따라 대화가 단절되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다.

2월 27일 취임 첫날 대구를 방문한 고건 국무총리가 시민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대표 등은 국무총리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을 요구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구시가 신뢰를 상실하여 사고수습이 담보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특별지원단 파견을 약속하였다.

3월 1일 대구시에 파견된 중앙특별지원단(단장 김중양 소청심사위원장)은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측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피해자측을 이해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앙특별지원단 업무를 처리할 것을 천명하였다.

3월 3일 10:00경 중앙특별지원단은 중앙로역에 모여있는 200여명의 실종자 가족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중앙특별지원단이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있는 주체임을 설명하였고, 실종자 가족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실종자·사망자·부상자 문제는 중앙특별지원단과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월 3일 11:00 사고대책본부 각 반장회의를 주재한 행정부시장은 피해자 가족과 중앙특별지원단장과의 대화내용을 전달하고, 피해자 가족과의 대화창구는 중앙특별지원단으로 일원화하도록 각 반장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와 중앙특별지원단의 관계는 중앙특별지원단장이 사고대책본부를 지휘하며, 중앙특별지원단이 사전에 대구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의사결정권도 가지게 되었다.

3월 10일 15:00 대구지방검찰청, 중앙특별지원단,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신원확인 사체 인도절차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유전자 감식, 신체특징과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의 유전자 감식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체 신원을 확인키로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신원이 확인된 사체에 대한 명단을 합동수사본부와 사고대책본부, 유가족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합동수사본부에서는 문서작성 절차를 최소화하여 일괄 변사 보고하면, 검찰은 신속하게 변사지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체인도 시기와 절차는 유가족측의 의사에 일임키로 하였다.

그러나 실종자 신원확인 절차 등에 불만을 가진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 50여명은 3월 13일 오전 대구중부경찰서에 마련된 지하철 사고수사본부를 방문하여 7시간여 동안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측은 사체 신원확인이 종료된 후 일괄 인수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총회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관으로 1080호 전동차에서 수습해 신원 확인작업을 끝낸 20여구를 가족에게 개별 통보하려 한다고 하며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사본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가족들과 전·의경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나 3월 14일 10:00에 중앙로역 지하 1층에서 경

찰이 향후대책을 설명하기로 약속한 후 17:00경에 해산되었다.

3월 14일 10:00~14:25 중앙로역 실종자 가족 대기실에서 합동수사본부의 공동본부장인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중부경찰서장이 유가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사체 신원확인 통보방법은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월 18일 16:00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사고 조기수습을 위한 제1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앙특별지원단장은 이번 사고가 하루 속히 수습되어 대구시와 시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각 기관별 추진상황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특별지원단장과 5개 부처 파견국장이 참석하였고,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단장 및 지하철공사 상무이사 등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3월 20일 8:30~9:30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지하철 화재사고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외 27명이 참석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 대구시장, 중앙특별지원단장의 보고가 있었다.

중앙특별지원단장은 실종자·사망자·부상자 처리대책 및 향후 활동계획, 사고 진상규명 및 지하철 안전대책 지원, 사태 수습재원 확보대책 및 민심 안정 지원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중앙정부의 사고수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건의하였다.

특히, 대구시장이 “대구시가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하철공사나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건설비 80%와 운영비 50% 이상을 10년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중인 다른 도시도 같은 사정이므로 장·단점을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날 협의된 주요내용은 대구지하철 전차량(204량)을 선진국 수준의 불연

성 재료로 교체하는 작업은 4월부터 착수하고, 대구지하철 전구간에 대한 안전점검(3.19~3.26)을 실시한 후 대구시와 협의하여 지하철 운행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등 대구시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여 국비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시청앞 광장에는 전날(3월 19일) 시장퇴진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시청에 계란세례를 퍼부은 데 이어, 희생자대책위원회(3월 18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로 개편)의 실종자 가족들이 국무총리 도착시간에 맞추어 ‘사고의 조기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구시 청사를 향하여 계란세례를 퍼부었고, 총리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에 진입을 시도하여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고건 국무총리는 당초 13:10쯤 군용기편으로 서울공항으로 가려던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K-2 비행장 귀빈실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13:15~13:50까지 이루어진 면담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실종자에 대한 포괄 사망인정, 부상자 평생진료, 안전한 지하철 추진(지하철 운행중지, 중앙로역 완벽한 건설 등), 지하철 화재참사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차원의 49제(4월 7일) 추모행사 추진 등을 요구하였다.

3월 20일 14:00부터 15:30까지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여·야·정 공동대책협의 회도 개최되었다. 이날 국회측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외 5명,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외 5명,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외 1명 등 14명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장관과 대구시장, 중앙특별지원단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 대책과 상가피해 보상문제, 사고 진상규명, 지하철의 안전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3월 24일 17:00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대구시에서는 행정부시장외 5명,

중앙특별지원단에서는 단장외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보상문제와 부상자 진료대책, 영업손실 피해보상 민원 검토, 수습대책본부에서 중앙특별지원단에 협조 요청할 사항 등 사고수습관련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3월 27일 15:00 중앙특별지원단장, 각 부처 파견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지방검찰청 수사지휘검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관계기관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지하철 안전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4월 3일 15:00에 개최된 제3차 관계기관 합동회의에는 중앙특별지원단장과 각 부처 파견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및 수습대책반장, 대구지방검찰청 수사지휘검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대구지하철공사 상무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기관별 주요 수습대책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대구시 수습대책본부의 사망자 장례, 보상, 추모공원 조성 등 당면 현안사항 보고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원확인자 통보방법 협의, 지하철역사 복구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4월 5일 16:00~19:30 중앙특별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구시 수습대책본부와 중앙특별지원단, 희생자대책위원회 등이 중앙로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앙로 교통통제로 동성로, 중앙로 등 인근 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인 입장을 고려하여 늦어도 오는 10일부터 차량통행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차량통행은 재개하되 지하철 보강작업을 계속 실시하며, 통행재개에 따른 법적 책임은 대구시장이 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4월 5일 중앙특별지원단과 대구시 수습대책본부, 희생자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지하철 참사 추모공원 조성과 합동장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희생자대책위원회측은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절차와 일정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추모공원 조성과 장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4월 8일 합동회의를 열어 세부계획을 결정하

사고 제의하였다.

4월 6일과 4월 7일에는 시장과 행정부시장이 중앙특별지원단장을 만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부상자 치료 및 보상대책,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4월 10일 14:00 제4차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는 지하철 역사 복구, 정밀 안전진단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원확인 결과 통보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4월 17일 14:00 제5차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는 중앙특별지원단장, 각 부처 파견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지방검찰청 수사지휘검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 대구지하철공사 상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 사고수습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점검, 향후 수습방향 및 공조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4월 19일 중앙정부에서는 시신 신원확인 및 실종자 인정사망 업무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피해복구 등 사고수습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특별지원단을 해체하였다.

4월 22일 10:00 행정부시장은 사고 조기수습을 위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앞으로 대구시의 합동장례식 추진계획과 피해자 보상원칙 등 향후 사고 수습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합동장례식은 신원확인 사망자 가운데 시신인수 대상자가 확정된 후 치를 계획이며, 장례방법은 4월 18일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회의에서 논의된 3가지 방안중 ①안(개별 신원확인후 화장하여 납골당 안치후 추모묘역에 안치) 또는 ③안(신원확인후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후 추모묘역에 안치)이 협의될 경우 대책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치를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장제비 지급 및 보상금 협의는 검찰 지휘 하에 시신을 인수받아 매장 또는 화장절차를 완료한 유가족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법적 손해배상액은 각각의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의 평가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협의 조정하여 산정하고, 특별위로금은 타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유가족 및 부상자

와 협의 결정토록 하겠으며, 공정한 성금배분을 위하여 필요시 전체 보상협상체로 가칭 「협상중재단」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의 핵심사안인 장례 및 보상협의를 “수창묘역을 조성할 때까지 미루고, 시신도 냉동고에 계속 보관하라”는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의 요구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을 인수하지 않고 계속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념상 있을 수 없다”는 수습대책본부의 입장이 달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4월 23일 밤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민회관 별관 소강당의 합동분향소를 시민회관 대강당 또는 시민회관 주차장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희생자대책위원회와 이전할 수 없다는 수습대책본부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불만을 가진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들이 시민회관 3층에 설치된 수습대책본부를 점거하여 근무중인 공무원 30여명을 억류한 채 4월 24일 밤까지 농성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습대책본부의 사무실 기능이 마비되고 사실상 폐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4월 26일 12:00경에는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시민회관 광장 주차장에 별도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함에 따라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200여명이 철거에 나섰으며, 감정이 격화된 유가족 4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일부 유가족들이 경찰차에 타고 있던 행정부시장을 시민회관 별관 1층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실로 데려가 8시간 동안 감금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날 20:30경 풀려난 행정부시장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탈수증세를 보여 인근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정년을 불과 1년 2개월 앞두고 4월 30일자로 퇴임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시의 간부(사무관 이상)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분향소 철거에 나선 사실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과 유가족들이 수습대책본부를 점거하고 고위공직자를 감금하고 하는 것은 수습의 본질에서 벗어난 지나친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대구시와 유가족간의 대립국면이 계속되면서 수습의 진전이 없자 대구시의 수습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졌으며, 유가족과 슬픔을 같이하던 시민들조차 유가족들이 너무 심하게 대구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쪽으로 정서가 바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원로들이 대구사회의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5월 1일 15:30~16:50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지역 원로인사 12명은 시민회관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4명과 간담회를 갖고, 유가족들이 추모공원이 완공될 때까지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하고 시신 인도없이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루려는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대구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성금을 보내준 국민들과 대구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조속히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루어 주기를 당부하고, 대구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면 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임박해 있는 만큼 이제는 사고수습에 유가족들도 협조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희생자대책위원회측에서는 “대구시가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장례식 등 일방적 내용을 담은 사고수습 자료들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니 대구시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대구시에서 약속을 지키고 추모공원만 마련해준다면 언제든지 장례를 치루겠다”고 하면서 지역 원로들께서 문제해결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기도 하는 등 사고수습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인지 이전과는 달리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지는 분위기였다.

이날 16:30 원로경제인들은 대구시장을 방문하여 “지하철 참사에 따른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분위기를 쇄신해 대구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건의도 하였다.

5월 2일 14:00 중앙특별지원단의 수습지원반장으로 활동하였던 조기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1급)이 대구시 행정부시장(수습대책본부 부분부장)으로 부임하여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조기현 행정부시장은 가장 먼저 시민회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대

책위원회와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위로하였으며, 5월 4일 19:00 희생자대책위원회, 5월 5일 12:00 유가족연합회, 5월 5일 19:00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릴레이식 간담회를 갖고 사고 조기수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수습활동에 나섰다.

5월 3일 10:30~11:40 지역 원로인사 9명은 시민회관에 있는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7명과 간담회를 갖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수창공원의 경우 관련법이나 여론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장지를 추모묘역이 조성되기 전까지 대구지역 유공자 묘역 부지에 안치하고 위령탑과 안전교육관을 설립하겠다”고 한다면서 하루 속히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루도록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희생자대책위원회측에서는 “추모공원 조성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여 공원조성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월 10일에는 지난 4월 18일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 간에 합의한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구시에서 추천한 인사 3명, 대구시 공무원 2명,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3명, 희생자대책위원 2명 등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김준곤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추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5월 13일 19:00 행정부시장은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대책위원 6명과 시청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정부시장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장례를 치른 후 월배차량기지의 냉동고에 시신을 재안치하는 문제를 대구시가 수용할테니 합동영결식을 치르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합동장례식 전까지 시신을 확인, 인도하고 5월 22일 시민회관에서 전체 희생자 가운데 월배차량기지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 75구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75구의 시신 가운데 40~50구 가량은 장례식을 치른 후 냉동고에 재안치할 움직임이어서 파행적인 장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하였지만, 일부 여론은 유가족들이 너무나 비통해서 대구

시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심에서 주장하였던 말로 이해하며, 과연 우리 국민의 정서상 장례식을 치른 후 시신을 다시 냉동고에 재안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희생자 합동장례식은 무산되고 말았다. 일부 유가족들이 행정부시장을 찾아와 ‘부시장님께 드리는 진정의 글’을 전달하고 “묘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합동장례를 할 수 없다”, “묘역의 장소만큼은 유가족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이기에 대표들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파기하고 합동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동안 대구시는 상리·장기·학산공원 등 3곳을 추모공원 부지로, 경북 칠곡군 소재 대구시립공원 묘지를 묘역 후보지로 제시해 왔으나, 희생자대책위원회는 수창공원, 대구대공원, 팔공산자연공원, 앞산공원 등 4곳을 추모공원 및 희생자 묘역조성 후보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5월 14일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수습대책본부 각 반장, 보좌관, 관계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습관련 종합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습대책반의 총괄보고에 이어 사망자대책반, 부상자대책반, 물적피해대책반, 추모사업대책반, 시설복구반 등의 순서로 추진상황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시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수습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희생자대책위원회측의 유가족들이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이 자리에서 행정부시장은 수습대책본부 근무자들에게 “사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사고수습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 과거의 방침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수정해서라도 수습을 할 것.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주는 언행은 절대 삼가고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 후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유가족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지 않을 것. 대구시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가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자”고 당부하였다.

5월 16일 대구시는 사망자에 대한 제1차 보상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였다. 5월 22일 합동장례일자가 무기 연기됨에 따라 수습의 1단계인 합동장례식과 수습의 2단계인 법적인 보상업무를 동시에 진행시키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5월 21일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상인대표, 손해사정인, 수습대책본부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영업손실 보상 등 물적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12일 중앙지하상가 대현프리몰 입주상인 50여명이 수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지하철 운행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손해사정결과 개별열람, 행정부시장 면담 요구 등에 따른 것이었다.

5월 31일 11:00 사고수습반장 주재로 소방본부 3층 회의실에서 지하철 복구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에서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지하철공사에서 상무이사, 차량운영부장, 토목보선팀장 등과 지하철건설본부의 건설1부장 등이 참석하여 지하철 사고복구, 지하철 1호선 종합 안전점검 및 중앙로역 가처분 신청에 따른 조치문제, 5월 27일 검찰의 지휘통보(사고관련 피고인들이 공판 진행중에 있어 현장검증 등이 예상되므로 복구공사 보류)로 인한 중앙로역의 8월 1일부터 무정차 운행 차질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6월 2일 09:00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추모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준곤)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추모묘역 조성부지를 수성구 삼덕동 118-1번지 일대(천주교 공동묘지 인근)로 정하였다. 이 부지는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곳으로 이 날 추모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7대 3)를 거쳐 묘역조성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인근지역에 추모묘역을 조성하기로 한 내용이 알려지자 인근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은 대구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다며, 추모묘역 조성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수성구의회 의장단, 고산지역 주

민 등 20여명이 시청에 항의 방문하여, 묘역조성을 반대한다는 주민 7,962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대구시에 제출하였으며, 고산지역 주민들도 대구시청 앞에서 추모묘역 조성 반대를 위한 집회 및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6월 7일 15:00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유가족 1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사항인 장례, 보상, 추모사업 등 수습대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일부 유가족들로 인해 험악한 분위기도 있었으나, 그동안 사려깊지 못한 수습업무에 대해 사과하고 조기수습을 위해 유가족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6월 17일 17:00 행정부시장실에서 수습대책본부와 희생자대책위원회(위원장 등 7명)간에 합동장례일자와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며, 합동장례일자는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중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6월 29일에 합동장례를 치르기로 확정하고, 6월 25일 수습대책본부에 통보함으로써 그동안 수습의 걸림돌이었던 장례문제가 해결되어 보상 등 수습업무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6월 17일 피해보상을 위해 대구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3월 대구시의회에 상정한 보상조례가 심의과정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5월 30일 보상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구성하게 되었으며, 6월 26일 제1차 보상심의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6월 18일 15:00 정부중앙청사 별관 5층 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심의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수습관련 재정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대구시 수습대책본부와 국고지원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조

정을 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였다. 대구시에서는 열악한 시 재정형편과 사고 수습의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날 회의의 주요쟁점은 3가지였다. 첫째, 대구시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의거 지원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인 사망자 1인당 1억2,340만원, 부상자 1인당 3,850만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법적인 보상금을 대구시가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중앙정부는 사망자·부상자 가릴 것 없이 손해사정 후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한도액으로 하고, 초과가 되지 않는 경우는 초과되지 않은 손해사정 금액으로 하여 정부에서 재난예비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둘째, 수습비용분담률은 수습비용 총액의 70%는 정부예비비, 15%는 행정자치부 교부세, 15%는 대구시비로 하자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물적피해는 15%지원이 가능하지만 인적피해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부예비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셋째, 부상자 평생진료비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하다가 국무조정실에서 부상자들 모두가 호흡기 등 내상 환자인 점을 감안하는 등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확보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6월 25일 18:00 시청 4층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국민성금 배분계획 통보에 따른 유가족 특별위로금 기준 등 국민성금 배분기준에 대한 협의를 처음으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습대책본부에서 교통국장, 문화체육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교통정책과장 등 4명,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 등 6명, 유족연합회에서 회장 등 3명이 참석하였으며, 부상자대책위원회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6월 29일 10:00 시민회관 광장에서 희생자 192명의 합동영결식이 거행되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들과 시민, 공무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하였고, 정치계, 학계, 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비명에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정 각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국무총리의 추도사(국무조정실장 대독)에 이어, 대구시장이 “죄 없이 희생된 영혼들이 편히 잠드시길 바란다”는 추도사를 하였다. 유가족을 대표하여 딸을 잃은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언니의 추모의 글 낭독이 이어지면서 유족들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각 종교단체의 종교의식과 헌화와 분향을 끝으로 합동영결식은 11:40경 막을 내렸다. 영결식이 끝난 뒤 유가족들은 사고지점인 중앙로역 지상에서 제 올리기, 진혼굿, 조시 낭독의 순으로 논제를 거행하였다.

그동안 사망자 신원이 확인되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월배차량기지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유해 63구는 6월 27일부터 6월29일까지 합동영결식을 전후하여 유가족들에게 모두 인도되어 개별적인 장례가 이루어졌으며, 신원미확인 유해 6구를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함으로써 1단계 수습인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8월 2일 11:00 수습대책본부 회의실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수습대책본부 각 반장 및 보좌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태수습관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성금(특별위로금) 배분문제와 관련하여 7월 31일 성금관련 원로 자문회의 결과를 설명하였다.

사망자는 1인당 221백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간접 지원경비 및 추모사업 추진경비 사용문제 등 향후 국민성금 배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8월 19일 10:30~11:35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9층)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장관이 참석하는 제17차 중앙안전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총리,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기획예산처 장관,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민정수석, 재정경제부·법무부·산업자원부 차관, 철도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사회수석조정관, 공보수석비서관, 경찰청차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하여 그동

안 실무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관련 소요재원을 확정하는 회의였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었으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관계로 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최종집계와 수습체계에 대한 보고를 하고 사망자 장례, 부상자 치료, 보상업무 추진, 국민성금 배분기준, 추모사업 추진, 중앙로역 복구사업, 안전운행 대책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특히 수습관련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수습대책비로 지난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차 국고지원안(302억원)에 이어 2차 국고지원안(478억원)을 의결함으로써 수습대책비를 총 1,605억원으로 확정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정부예비비 780억원, 특별교부세 167억원, 증액교부금 200억원 등 1,147억원을 지원기로 하였으며, 대구시에서 458억원을 부담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아울러 대학생 법적인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인 126만원을 적용하는 반면, 교대생, 사범대생 등 졸업 후 교사로 재직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높게 사정이 되는 것은 같은 대학생인데 차별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유가족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또 성금 사용용도에 실종자 유가족 휴업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사항과 추모사업에 대한 유가족 단체와 부상자 단체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8월 28일 11:00~13:00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사고수습관련 대책회의에서 향후 수습과제,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문제, 지하철 운행적자 지원 문제, 8월 19일 국무총리주재 회의시 논의된 사항 및 결과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 23일 17:00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수습대책회의에서는 부상자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사망자 특별위로금 배분액의

80~50% 지급), 실종자 유가족 휴업손실분 보상 문제, 피해자 단체의 직접 지원경비 지원문제, 추모사업 추진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1월 28일 수습대책본부와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가 부상자 특별위로금 관련 제6차 협의에서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합의함으로써 국민성금 배분 가운데 특별위로금 배분관련 협의를 종결하였다.

2004년 2월 4일 피해자 단체 직접 지원경비 배분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희생자대책위원회, 2·18유족회,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에 통보하였다. 2003년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유가족·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경비의 지원기준, 지원기한 등을 확정하여 통보함으로써 국민성금 배분이 마무리되었다.

2004년 2월 18일 09:30 중앙로역 지상도로에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주기 추모제를 거행하였다.

이날 추모제는 대구시가 후원하고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유가족 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1주기 범시민추모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날은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기는 조기를 달도록 권장하고,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추모 뺏지나 리본을 달기로 하였다. 추모행사는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하철참사의 교훈과 안전대책 관련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나. 주요 합의사항

3월 31일 10:00~14:25 시민회관 소강당 귀빈실에서 수습대책본부와 유가족 단체인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수습관련 협의회가 있었다.

수습대책본부에서는 행정부시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공원과장이 참석하고,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외 대책위원 2명과 K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모공원 조성, 보상, 합동장례 등 8개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합의내용(행정부시장, 희생자대책위원장 서명)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 질의 및 개정 건의(2003. 3. 31 중 건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 : 보건복지부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 건설교통부
 - 추모공원(위령탑, 안전교육관, 공원묘역 등) 부지를 현 KT&G부지(수창공원)로 한다.
2. 수창 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추진
 - 시 도시계획과, 공원과(관계법령 개정후 추진)
3.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확보
 - 확보방안 : 시비 우선 확보, 부족분 국비 보조 요청
4. 공원주변 주민 이해설득
 - 묘지공원 조성 차원을 넘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 교육장」화로 운영 한다는 내용을 시민에게 설득
 - 안전생명 도시 대구건설 추진
5. 유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 이전 - 1층
6. 복지재단 설립
 - 유가족대책위에서 계획안 제출, 시에서 검토,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조정
7. 보상금 지급
 - 손해사정인 선정
 - 유가족대책위 임명 1명과 시에서 임명한 1명(검정) 손해사정인 동시 손해사정 실시
8. 합동장례의식 추진 - 세부계획서 작성 후 차후 유가족대책위와 다시 협의
 - 장례식 계획
 - 일 시 :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결정 이후 바로 시행(3일장)
 - 분향장소 : 시민회관 대강당
 - ※ 대책위 미가입자의 분향소 설치 장소는 별도
 - 시민회관 소강당 전 층 : 조문객 장소로 제공
 - ※ 장례의식은 시 작성 안을 검토 협의 결정
 - 시신 안치 방법
 - 일괄 화장 후 시 납골당 임시 안치 후 → 수창공원 재안치
 - 화장 반대 유가족의 경우에는 냉동고 안치 후 → 수창공원 재안치

이러한 합의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합동장례후 냉동고 재안치 문제는 우리나라 장례문화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았으며, 도심지역인 중구 수창공원 예정지(연초제조창 부지)에 묘역이 들어서 는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이 대구시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는 등 반대 여론이 높았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인근에 윤락가가 있는 마당에 묘지까지 들어서면 이곳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묘지가 들어서면 일대 상권이 모두 죽는다”면서 심하게 반발하였다.

대구시 중구의회에서는 4월 4일 긴급의원 간담회를 열고 “수창공원 예정지 추모공원(묘역)조성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역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공원내 묘역조성을 위한 법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구)연초제조창 부지의 공원지정을 해제하고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밤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중구 D동사무소에서 중구 구민일동 명의의 진정서가 발견되었다면서 진정서 출처 및 목적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의뢰 요청서를 대구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희생자대책위원회들은 일부 지역민들이 소수의견을 마치 전체 의견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문서를 제작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반대서명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4월 7일 16:00경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 50여명이 중구청을 방문하여 중구의회의 수창추모공원 조성 반대결의와 동사무소에서 발견된 진정서에 대해 구청의 개입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은 구청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1층 로비에서 밤을 새우며 농성을 하였다.

4월 8일 출근시간에는 중구청(15층) 1층 로비 현관문이 잠겨 중구청 공무원,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및 교육생,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민방위교육에 참석하러 온 중구 구민 200여명 등이 건물안으로 들어가지 못하

였으며, 8:30경에는 출근을 못하게 된 데 항의하던 중구청 소속 H 공무원이 일부 유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날 16:10경에는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 K씨가 중구청 앞에 주차돼 있던 모 교회 소유 자원봉사 승합차에 올라탄 뒤 현장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의무경찰대(90여명)를 향해 돌진하여 ○○○일경 등 의경 3명이 크게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해자 K씨를 긴급 체포하여 4월 9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측정 거부혐의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8일 13:00경에는 600여명의 중구 주민들이 전매청 연초제조창 부지와 국채보상공원에서 집결하여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시가행진을 한 후 15:00경 대구시청 주차장에 도착하여 수창공원 조성 합의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주민대표들은 진정서를 대구시장에게 전달했다.

주민대표들을 만난 대구시장은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안전교육의 장으로서 이번 참사 추모공간을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시민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연초제조창 부지에 수창 추모묘지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600여억원이 필요하며, 현재 대구시의 재정 형편상 이를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9일 16:30~18:20 중구청 7층 상황실에서 중구청장 및 구청 간부 등 8명과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7명이 수창 추모공원 조성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합의하고 유가족들은 농성을 중단하고 철수하기로 하였다.

1. 4. 5 ~ 4. 9까지 구청장과 면담성사 미이행, 경찰인력 투입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구청장 사과
2. 구청직원, 공익요원의 부상에 따른 고소 등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설득하여 고소 취하 등 원만한 해결 노력
3. 의경 3명 부상 건에 대하여는 중부경찰서에 선처 요청 등
4. 수창공원부지에 추모공원 조성관련 문의에 대한 구청장 입장을 4. 12까지 회시 요구

4월 18일 17:00부터 4월 19일 03:00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대구시에서는 시장,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공원과장이 참석하고,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등 대책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공원 조성,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합동영결식 등 현안사항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내용(행정부시장,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명)은 다음과 같다.

1. 추모공원 조성방안 관련

- 3월 31일 양측이 합의한 내용 중 추모공원을 수창공원으로 한정된 것은 대구시의 행정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공표방법은 행정부시장의 기자회견으로 하고 회견 문안은 대책위와 사전 상의하며 TV토론 이전에 함
- 추모공원 조성내용은 추모탑, 안전 교육장, 묘역 등으로 한다.
- 추모공원 조성관련 TV 토론을 실시하며 토론 주제는
 - 추모공원을 수창공원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곳으로 하는 방안
 - 수창공원으로 할 경우 묘역을 포함하는 방안과 제외하는 방안
 - ※ 토론자는 시측 3명(시 공무원 1인 이상 포함), 대책위측 3명
- TV 토론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여론조사는 대구시민을 상대로 하되 중구 구민의 여론을 중시한다.
 - ※ 여론조사는 별도의 실무진(양측 각 3명)을 4월 19일 중으로 구성한다.
 - TV방송국의 토론회 불응 시에는 별도의 토론방법을 강구한다.
- 여론조사 결과 추모공원이 수창공원이 되지 않을 경우와 수창공원에 공원 묘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묘역 선정방법
 - 대책위원회에서 대구시 인근 3개 공원 추천, 대구시에서 3개 후보지 추천 하여 6개 후보지 중 추모사업 추진위에서 선정
- 추모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시 예산과 국비로 하되, 국비확보에 양측이 노력한다.
- 양측이 합의한 추모공원 조성기한은 3년 2개월내로 하며 후보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양측과 위원회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2.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적구성은 양측의 인사 중 시 공무원 2명, 시가 선정한 전문가 3명, 대책위 2명, 대책위가 선정한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다.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추모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일자는 4월 25일 이전으로 한다.
3. 합동영결식은 4월 24일로 하고 장례방법은
 - ① 개별 신원 확인 후 화장하여 납골당 안치 후 추모묘역 안치
 - ② 신원확인 후 냉동고 보관 후 추모 묘역 안치
 - ③ 신원확인 후 시립공원 묘지에 가매장 후 추모묘역 안치
 - ②, ③번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수렴한 후 4월 19일 16:00에 회의 개최

4월 26일 21:40부터 4월 27일 01:30까지 대구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공원과장이 참석하고,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3명의 대책위원들이 참석하여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합동장례 등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며, 협의결과 합의내용(기획관리실장,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명)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4월 18일 회의시 합의된 내용 중 제 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시행하되 아래사항을 추가한다.
 - TV토론은 4월 28일 14:00부터 양측이 공동으로 방송 섭외한다.
 - 제2항 추모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은 2003년 5월 3일까지 완료한다.
 2. 제3항은 2003년 4월 28일 15:00 회의시 협의하되 양측은 다음사항을 준비한다.
 - 대구시
 - 추모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추모사업관련)에 대한 시행 담보방안
 -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대구시 방안
 - 희생자 대책위
 - 합동영결식 후 영결식장 수일 내 철거 가능여부 의견수렴
 - 합동장례 후 시 대책본부 요구인 현 냉동고에 안치된 전체 시신의 화장 또는 시신처리방안에 대한 유가족 의견 수렴 제시
- ※ 합동 장례일정 협의는 상기 2항 합의 후 논의

4월 28일 15:30~19:00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기획관리실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공원과장,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대책위원 3명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기획관리실장,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명)하였다.

1. 추모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추모사업관련)에 대한 시행 담보방안
 - 연대보증인 선정
 - 대구시(2명) : 시의회의장, 방송3사 및 2개 언론사(매일영남) 대표 중 1명
 - ※ 대구시 측 연대보증인은 협의 후 선정
 - 유가족(2명) : 시민단체(YWCA, 경실련, 참여연대 등) 대표 중 1명, 종교단체(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대표 중 1명
2.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29일까지 희생자대책위에 서면 통보
3. 분향소 철거 시기 및 냉동보관 시신 처리 방안
 - 대구시의 추모사업 담보방안 및 장례, 손해보상관련 업무가 현실성이 있다면 희생자대책위원장과 대표들이 유가족들을 책임지고 설득

위와 같이 거둬진 협의결과 여러가지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었으나,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들의 강한 주장에 이끌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은 합의내용이 많았다.

또한 수습의 절차상 신원이 확인된 시신의 인도 및 장례 → 법적보상금 합의 → 국민성금 배분협의 → 추모사업 추진 등의 순서로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장례를 추모공원 조성 문제와 연계하여 쟁점화함으로써 사고수습의 담보상태가 계속되었다.

6월 16일 행정부시장실에서 수습대책본부와 희생자대책위원회간의 추모사업관련 회의가 있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6월중으로 합동장례를 치르기로 하였으며, 장례일자는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회의 개최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추모사업 내용은 추모공원(위령탑, 안전교육전시관, 묘역) 조성과 추모벽 설치, 기념(복지)재단 설립으로 한다.
2. 묘역 위치는 2003년 6월 2일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수성구 삼덕동 118-1) 일대로 하며, 위령탑은 유족이 희망하는 위치에 건립하고, 안전교육전시관은 묘역 인근 대구대공원 안팎의 적정 위치(시민의 접근용이성, 활용도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 후 추모사업추진위에서 결정)에 건립한다.
3.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묘역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령탑 및 안전교육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4. 대구시는 기 합의한 3년 2개월 내에 추모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수행하며 사업비용은 국비, 시비, 성금으로 한다.
5. 1항부터 4항까지 대구광역시와 희생자대책위가 완전 합의함에 따라 합동장례일자는 6월 일로 한다.

第2節 特別災難地域 指定·宣布

1. 지정배경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할 때 선포된다. 이는 지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난 다음달 19일 정부가 제정한 재난관리법¹⁾에 발령근거를 두고 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47조에는 대규모 재난²⁾,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당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기업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재정 및 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의 안녕질서 및 산업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며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한 사건·사고는 총 7건이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동해안 산불사고 뿐이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요청된 재난에 대한 조치

재 난 명	발생일	피 해 내 용	검토내용
삼풍백화점붕괴	1995.6.29	· 인명 : 1,440명(사망 502, 부상 938) · 재산 : 건물 1동, 차량 310대, 869개 업체 물품파손 등	선포(1995.7.19)

1) 재난관리법은 2004. 3.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통합

2)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재 난 명	발생일	피 해 내 용	검토내용
여천씨프린스호 좌초 기름유출	1995.7.23	· 인명 : 1명(사망) · 재산 : 선박 1척, 방카씨유 700톤	불 가 (사고선박 보험가입 으로 변제가능)
여천공단환경 오염	1996.1월	· 주민 4,071가구, 15천명 56백만원	불 가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타당)
고 성 산 불	1996.4.23	· 산림 3,762ha, 건물 277동 · 유실수 21,052본, 집기류 12,133점	불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가능)
경기·강원지역 수해피해	1996.7.16 ~7.18	· 730mm의 집중호우로 재산 2천여억원 정도 피해	불 가 (정부지원대책으로 복구에 어려움 없음)
부천LP가스 충전소 폭발	1998.9.11	· 인명 : 84명(사망 1, 부상 83) · 재산 : 공장건물 등 12동, 충전소, 차량 122대 등	불 가 (선포요건 미흡)
동해안 산불	2000.4.7 ~4.15	· 인명 : 17명(사망 2, 부상 15) · 재산 : 건축물 801동, 가축 6,068두, 농기계 1,328대 등 · 산림 : 23,138ha(632억원)	선포(2000.4.17)

2.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장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맡고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구시에서는 사고발생 당일 24:00경 지하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앙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이튿날 사고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에게도 재차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9일 16:30부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지역인 중앙로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177호)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신원확인 및 장례 및 보상, 부상자 치료 등 조속한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통령 공고 제17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고

재난관리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2. 18 대구지하철 1호선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9일

대 통 령 김 대 중

1. 재난의 사실

2003. 2. 18 09:55경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43-1번지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의 승강장에서 전동차 1079호(6량) 및 1080호(6량)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2.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34-1번지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피해 발생 지역

3.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가.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내 지하철 전동차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업체 등

나. 지원내용

- 응급대책 및 재해구조지원 등
 -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 피해자(실종자)의 신속한 신원확인 등 대책강구
- 행정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파견지원

- 금융지원
 - 피해자에 대한 서민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및 관련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 재정지원
 - 피해 및 복구규모,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 소요에 따라 지방비, 관련부처 예산, 특별교부세 및 재해대책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
 - 긴급구조활동의 원활화 등을 위한 경비의 일부보조 등
- 세제지원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및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의 징수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
 - 보상금, 위로금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
 - 대구광역시 등에 지급하는 성금, 구호물품의 기부금 손비인정

4.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응급구조, 사고수습 등을 시행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사고수습단계별로 중앙사고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가. 중앙정부의 지원

김대중 대통령이 “유족들의 요구를 감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습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2월 28일 중앙사고대책본부 관계국장회의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관계부처의 지원대책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상자 신원확인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행정·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은 관계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1) 응급대책 및 재난구조 지원

법무부와 경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 경북대 법의학고실 등

으로 「사체신원확인반」을 편성하여 사체 신원확인, 시신의 신속한 검시 및 유족인도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은 대구 시에서 사상자 장제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망자는 6천만원, 부상자는 5백만원 한도지원을 승인하였다.

2) 행정지원

「중앙특별지원반」을 대구시에 파견하여 사고수습을 지원하고, 인명구조시 사망한 시민 등의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유가족의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징집연기와 함께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강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언론사 및 ARS를 통한 국민성금 모금을 적극 홍보하고, 대구·경북지역 국·사립대학에 피해 대학생에 대한 학교차원의 지원방안(장학금 지급, 등록금 면제) 등을 협조 요청하고, 초·중등학교 피해 학생에 대한 납입금 감면 및 급식비·인터넷 통신비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사망자·실종자 중 대구 이외지역 거주자의 신원확인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대구시에서 신원확인 요청시 신속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3) 재정지원

2월 20일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사상자 신원확인 진전에 따라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액, 피해복구비 지원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4) 금융지원

사상자 및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조치하고,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피해액 범위내에서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통하여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관, 보험사별로 가

까운 지점에 「현장 특별지원대책반」을 설치하여 현지 금융지원 서비스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5) 세제지원

피해업체, 피해자 또는 동거 가족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재해로 인한 자산손실이 30%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낼 소득세·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한편,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등 지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족 및 피해자가 지급받는 지원금(유족보상금과 국민성금 포함)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장례비(1,000만원 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며,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 및 구호물품에 대하여 기부금 특별공제 및 기부금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지방세의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자중 재산세 미납자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조사로 6개월간 징수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8월 납기인 주민세 균등할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정부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자연재해법, 재해구호법, 재난관리법)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2004.3.11)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정의(법 제3조제1호)
-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법 제9조 및 제10조)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법 제14조)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법 제22조 내지 제25조)
- 소방방재청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 대통령은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법 제59조 내지 61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법 제73조)
-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법 제7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第3節 事故收拾財源 對策

1. 시 재정여건

사고 당시인 2003년도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6,207억원이며, 지하철 화재 사고 수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재해대책관련 예비비 53억원, 사고관련 보험액 10억원, 재난관리기금 24억원 등 87억원에 불과하였고, 과거 대형사고와는 달리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어 사고수습비용을 모두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대구시는 지하철건설, 하수처리장 확충, 월드컵경기장 건설 및 도로망 확충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시기와 IMF 외환위기가 겹쳐 2002년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 2조 8,876억원 달해 매년 5,000여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운영비도 매년 36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2003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되는 하계U대회 지원경비 마저 부족한 시점에서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대책비 마련은 정부지원과 기채발행 외에는 대안이 없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2. 수습재원 대책

가. 소요재원 판단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액과 사고수습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원만한 사고수습을 위해 국비확보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사고직후부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게 되었다.

사망자 관련 경비는 복지정책과, 부상자는 보건과, 소방·구조·구급관련 경비는 소방본부, 지하철 시설복구·차량불연성 개조, 인접상가 피해보상과 경찰 수사활동비 등 기타경비는 교통정책과에서 분담하여 파악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하여 사고수습대책반과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게 하였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수합하여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에 대한 보상액은 1995년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사고시 보상액(사망자·실종자 147.4백만원, 부상자 33.4백만원)에 물가상승률(30.4%)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상자 위로금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는 1인당 20백만원, 부상자는 1인당 10백만원씩을 계상하여 인적보상금으로 85,642백만원으로 집계하였다.

또한, 인접상가 피해 보상비 2,200백만원, 시설복구비 84,689백만원, 영업수익손실분 13,618백만원, 기타 경비 9,058백만원 등 사고수습에 따른 총소요경비로 195,207백만원을 잠정적으로 산출하였다.

나. 재원확보 노력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재원 확보를 위해 2003년 2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를 33회 방문하여 대구시의 재정여건과 이완된 민심수습, 8월에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재난수습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하철 화재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대구시에서는 8회에 걸쳐 예비비 30억 1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희생자 장제비, 부상자 위로금 및 치료비 등 재난수습비용으로 우선 집행하였으며, 수습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2003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400억원)을 받고, 11월 27일 재특자금 200억원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여 수습대책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다. 국비지원

대구시에서는 3월 15일 건설교통부에 전동차관련 비용과 중앙로역 시설보수비를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3년 6월 4일 건설교통부에 재난수습에 따른 총소요액 130,981백만원 가운데 98,455백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하철사고 수습비용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요 액	국비신청액	비 고
합 계		130,981	98,455	
인명보상	사 망(194명)	48,500	23,940	· 보상추정액 250/인 · 국비지원규모 123.4/인 · 대구시 추가부담 126.6/인
	부 상(133명)	13,087	5,121	· 보상추정액 98.4/인 · 국비지원규모 38.5/인 · 대구시추가부담 59.9/인
물적보상	인접상가피해(174건)	4,891	4,891	물품손해사정액 기준
	중앙로역 시설복구	23,098	23,098	역복구기본설계 기준
	역내임대 시설보상	1,508	1,508	물품손해사정액 기준
수 습 관 련 경 비		8,961	8,961	긴급구조활동 2,338 부상자치료비 1,086 재난수습대책 5,537
부상자평생 진료대책		17,327	17,327	평생진료 16,344, 진료평가용역 983
지하철 운송 결손금		13,609	13,609	승객감소(1일) 15→3만

이와 더불어 재난관리법상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사상자 보상비의 초과액과 지하철 일부구간 운행중단에 따른 지하철공사 세입결손분에 대한 시비보전 분 등을 대구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여 줄 것도 건의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3월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대구지하철 사고수습과 관련하여 소요액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하철 화재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피해규모가 확

정된 분야부터 국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적 보상은 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보상액을 지원한다는 원칙아래 중앙정부의 지원금액(재난관리법상 1인당 최대 123백만원)은 예상되는 보상금액 수준을 감안해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원시기는 실종자의 신원확인 및 보상액 합의가 이루어진 뒤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실된 전동차 구입비, 중앙로역 복구비, 중앙로역 상가피해 등 물적보상은 대구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고, 중앙로역 복구비는 안전진단비용, 설계용역비, 공사비가 있으나 복구공사 공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진단비와 설계용역비는 우선 지원하고, 공사비는 실시설계후 소요액을 파악하여 추후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실된 전동차 구입비는 차량발주 계약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우선 지원하고, 피해상가 보상은 정확한 손해사정 후 추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전동차 204량의 내장재 교체는 화재에 취약한 바닥재, 의자, 연결주름막 등을 교체하기로 하고 교체비용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건설중인 지하철 2호선은 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 설계변경과 차량사양 변경조치를 하고 예산은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4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7일 1차적으로 전동차 관련비용 30,162백만원(전동차 구입비 13,171, 전동차 불연성 개조비 16,991백만원)을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8월 19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지하철사고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상자 보상, 긴급구조, 부상자 치료, 이재민 구호 및 피해시설 복구 등에 소요되는 총경비의 70%인 47,819백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심의·의결하고, 9월 24일 일괄 지원하였다.

이와 별도로 2월 20일 특별교부세 2,000백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4월 9일에

는 전동차 구입비 2,822백만원과 불연성 내장재 개조비 3,640백만원 등 6,462백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였으며, 10월 16일 사고관련 재난 수습비용 10,247백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한편, 9월 3일에는 특별재난지역 증액교부금 20,0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114,689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7,981백만원, 특별교부세 16,708백만원, 증액교부금 20,000백만원 등이며, 항목별로는 피해자(사망자·부상자) 보상금으로 44,076백만원(국고보조금 19,827, 특별교부세 4,249, 증액교부금 20,000), 긴급구조경비 470백만원(국고보조금 387, 특별교부세 83), 부상자 치료비 4,450백만원(국고보조금 3,665, 특별교부세 785), 이재민구조경비 3,835백만원(국고보조금 3,159, 특별교부세 676), 피해시설 복구경비 25,234(국고보조금 20,781, 특별교부세 4,453), 전동차 관련 수습경비 36,624백만원(국고보조금 30,162, 특별교부세 6,462) 등이다.

지하철사고 수습비용 국비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 원 분 담 기 준				
	계	국고지원	특별교부세	대구시	증액교부금
합 계	160,482	77,981	16,708	45,793	20,000
□ 피해자보상	60,951	19,827	4,249	16,875	20,000
○ 사망자(192명)	47,811	16,188	3,469	8,154	20,000
○ 부상자(134명)	13,140	3,639	780	8,721	
□ 긴급구조경비	2,371	387	83	1,901	
○ 긴급구조활동경비	115	80	17	18	
○ 수습경비	2,256	307	66	1,883	
□ 부상자치료비	5,236	3,665	785	786	
○ 부상자치료비	1,086	760	163	163	
○ 후유증진료비	3,550	2,485	532	533	
○ 후유증관찰연구비	600	420	90	90	

항 목	재 원 분 담 기 준				
	계	국고지원	특별교부세	대구시	증액교부금
□ 이재민구호비용	5,540	3,159	676	1,705	
○ 유가족지원 등 수습대책	3,655	2,321	497	837	
○ 집단사망자관리	889	581	124	184	
○ 합동분향소설치 운영	975	242	52	681	
○ 사망자 신원확인경비	21	15	3	3	
□ 피해시설복구경비	29,688	20,781	4,453	4,454	
○ 중앙로역내시설 복구	24,606	17,224	3,691	3,691	
○ 인접 지하상가 피해	5,082	3,557	762	763	
□ 전동차관련수습경비	43,087	30,162	6,462	6,463	
○ 전동차구입비(12량)	18,816	13,171	2,822	2,823	
○ 불연성내장재개조비(204량)	24,271	16,991	3,640	3,640	
□ 지하철운송수익결손금	13,609			13,609	

第4節 中央特別支援團 派遣

1. 구성과 임무

가. 발족배경

2월 25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에 따라 2월 27일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은 고건 국무총리는 바로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날 18:05경 시민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사망자유족 및 실종자가족 등을 찾아 위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실종자가족 대표 등은 국무총리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을 요구하였다.

이즈음 대구시는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측과의 대화통로가 단절된 사태였다. 사고수습과정에서 중앙로역 청소와 전동차 견인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을 둘러싸고 사건의 축소 및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피해자측은 대구시를 가해자로 간주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날 국무총리는 대구시가 신뢰를 상실하여 사고수습이 담보상태에 있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중앙정부차원의 사고수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측에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특별지원단 파견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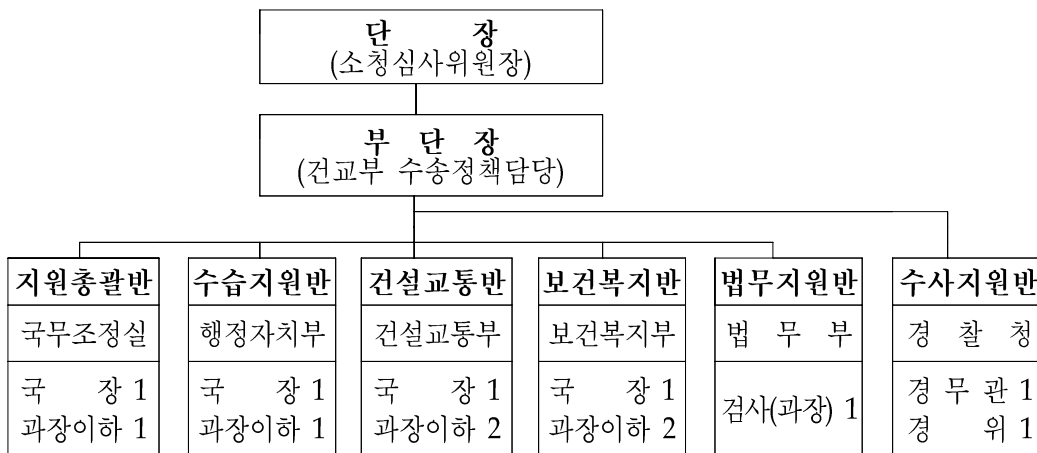
나. 조직 및 역할

다음 날인 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지 민심이 크게 악화되어 대구시의 협상력으로는 원활한 사고수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기로 하였다.

중앙특별지원단은 대구시장이 맡고 있는 지역사고대책본부장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직급인 중앙부처 차관급을 단장으로 보임하고, 부적절한 초기대응 조치 등으로 초래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의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단원을 구성하기로 원칙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아래 3월 1일 단장은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회 김종양 위원이 맡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국장급과 법무부 검찰국 과장급 등 5인을 단원으로 하여 중앙특별지원단이 구성되었으며, 3월 6일부터는 국무조정실 국장급 단원 1인을 보강하였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 과장급이하 사무인력을 포함하여 15명의 중앙특별지원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게 되었다.

중앙특별지원단 조직



중앙특별지원단은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서 현지에 파견된 중앙 사고대책본부의 Task-Force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임무는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습대책본부를 지원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월 28일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앙특별지원단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보상문제, 실종자 신원확인 문제,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문제 등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 대표들과의 협상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
- 현장훼손 경위, 사건은폐 경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단으로 피해자들의 불신 해소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재난관리법상 지역사고대책본부장인 대구시장과 중앙

에서 파견되는 중앙특별지원단장간의 역할분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국무총리와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지휘를 받는 중앙특별지원단은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지휘하고, 지역사고대책본부가 풀기 어려운 일을 처리하되, 집행은 지역사고대책본부가 한다는 원칙하에 업무를 시작하였다.

2. 주요활동 내용

가. 실종자 처리대책 논의

대구지하철 사고는 화재로 인한 높은 열과 연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로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신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시신을 찾지 못하는 희생자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수습대책본부에 접수된 실종자수도 619명이나 되는 등 실종자 처리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있었다.

실종자 접수 및 처리 현황

실종자 접 수	사 실 확 인					인 정 사 망 심 사					
	소계	생존	사망	부상	기타	계	사망인정판결			불인정	판단 유보
							소계	확정 사망	인정 사망		
619명	498	380	60	4	54	121	100	99	1	20	1

※ 사망 60명은 지하철 화재사고와 무관한 사망으로 확인된 인원임.

중앙특별지원단 김종양 단장은 3월 2일 14:00경 시민회관에 마련된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종자 가족대표단을 만나 실종자 처리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실종자를 사망자로 우선 인정해 줄 것과 지하철은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에 운행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앞으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망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중앙특별지원단에서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특별지원단장은 실종자 처리문제는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하여 억울한 사람이 한사람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3월 3일 중앙특별지원단장과 실종자가족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실종자 가족 대표 10여명이 소방본부 5층에 마련된 중앙특별지원단장실에서 실종자 전체회의와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가진데 이어, 10:00경에는 중앙로역 지하 1층 실종자 가족대기소에서 실종자 가족 및 일반시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특별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실종자 처리문제는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와 중앙특별지원단이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중앙특별지원단과 대구지방검찰청 및 대구지방경찰청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사망자 신원확인, 시신의 유족 인도절차, 실종자의 사건관련 유무에 대한 확인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나.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

중앙특별지원단은 3월 1일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를 방문, 위로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일, 3일 이틀간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청취와 중앙특별지원단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대화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실종자의 인정사망을 심사할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중앙특별지원단은 실종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4회(3.5, 3.7, 3.8, 3.9)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합의·도출하게 되었다.

-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중앙특별지원단과 대책위가 각각 5 : 5비율로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
- 위원회 발족시기는 양측에서 추천인사를 선임하는(결정하는)때로 한다.
- 위원장은 대구지역에서 명망과 신망이 두터운 자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3월 7일 중앙특별지원단에서는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심사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분야별 전문가 7명을 추천 받았다.

- 대구지방변호사회 : 임규옥 변호사
- 경북대학교 : 곽정식 법의학 교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이원태 법의학부장
- 대구시의사회 : 서경진 의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부 : 서재익 안전조사과장
- 대구지방경찰청 : 이현희 수사1계장
- 천주교 대구대교구 : 류승기 신부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을 추천하였다.

- 위원장 : 김준곤 변호사
- 위원(7명)
 -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
 - 상주대학교 이광우 교수
 - 덕영치과병원 이재용 부원장
 - 영남신학대학교 정경호 교수
 - 은혜사 주지 법타스님
 - 남호진 변호사

중앙특별지원단은 3월 8일 양측에서 추천된 위원장 및 위원(14명)을 중앙사고대책본부(본부장 : 건설교통부장관)에 상신하였으며, 3월 10일 원안대로 승인을 받아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0차례에 걸친 실종자인정사망위원회 개최 결과, 당초 실종신고자 201명에 대하여 인정사망심사를 시작한 이후 80명은 생사가 확인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121명중 100명은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에서 사망인정 판정을 하였으나, 그중 99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원확인 결과 확정사망으로 분류되었고, 최종적으로 사망인정 1명, 판단유보 1명, 인정사망 불

인정 20명으로 판정되었다.

다. 활동의 시사점

1) 참사수습의 전기 마련

중앙특별지원단이 현지에 상주하여 피해자 가족 및 시민들에게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의지를 강력히 심어주고 사태를 수습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던 점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부상자 위문, 실종·사망자 유가족들과의 수시 면담, 실종자 가족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진지한 자세로 사고수습에 임함으로써 조기수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부상자 치료대책 강구, 관계기관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강화, 민심수습을 위한 종교계 인사 간담회 등은 사태의 원만한 수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 실종자 대책 추진

중앙특별지원단이 발족될 무렵, 실종자 인정사망 등 실종자 처리문제가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다. 3월 10일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고수습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이후 단계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는 상호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는 일이 필요했다. 중앙특별지원단은 발족한 지 3일만에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화에 임함으로써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도 짧은 기간내에 구성할 수 있었다.

3) 부상자 치료대책 마련 및 실종자 가족 등 의료지원

엄청난 참사를 직접 체험한 부상자들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여 있었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어 있었다. 중앙특별지원단은 입원환자 한사람 한사람을 모두 찾아가 위문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현장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현장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단 기간내에 이를 해소해 주고, 평생진료 등 후유증 치료 방안도 검토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었다.

특히, 실종자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기다리는데 따른 건강이 염려되어 이들에게 무료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사고 관련 질병에 대한 무상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의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었다.

4) 관계기관 공조 및 민심수습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수습대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중앙특별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5차례에 걸쳐 각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협조할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유례없는 대형사고였기 때문에 희생자 대책 이상으로 대구시민들의 민심수습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종교계 원로 등 여론 지도층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불교·기독교·천주교지도자와의 간담회 개최 및 각 언론사 방문 등을 통한 민심수습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5) 보완되어야 할 사항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조기수습을 위하여 처음으로 조직된 중앙특별지원단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발족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발견되었다. 우선, 조직의 법적 근거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중앙특별지원단이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의 의문이 있었다. 중앙특별지원단의 활동영역이 너무 커지게 되면 정상적인 수습주

체인 지역사고대책본부의 역할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지역사고대책본부의 위축을 우려하여 중앙특별지원단의 활동을 자제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의지가 퇴색되는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수준의 활동이 쉽지 않았다.

한편, 중앙특별지원단이 2개월 가까이 활동하였음에도 운영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대외활동은 제약이 따르게 되며, 조직 운영의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은 지하철 화재화재 수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차출·구성해야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습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중앙특별지원단과 같은 조직을 필요로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유사한 조직이 구성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第3章

分野別 事故收拾

第1節 失踪者 確認	169
第2節 死亡者 葬禮	182
第3節 負傷者 對策	193
第4節 物の被害 調査	213
第5節 被害者 金融支援	217
第6節 民心收拾 活動	221

第3章 分野別 事故收拾

第1節 失踪者 確認

1. 신고·접수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상당수의 시신들이 화재로 인해 완전히 훼손되어 육안으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사고이후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실종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당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종자 신고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 당일 지하철공사, 소방본부, 대구시 사고대책본부 등 3개소에서 실종자를 신고·접수함으로써 중복신고 등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혼선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혼선은 2월 20일 사고대책본부내 실종자 확인반을 설치하여 실종자 명단을 일괄 관리함으로써 CCTV·사진·유품 등 자료수집, DNA 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 휴대폰 위치 추적,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 등 실종자 처리문제가 급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된 실종자는 619명이었으나, 수사결과 생존확인 380명, 사고로 인한 사망 159명, 허위·이중신고 및 신고취소 58명을 제외한 미확인 실종자는 22명에 불과하였다.

실종자신고 접수현황(누계)

일 자	계	생존확인	사망확인	기타	실종자
2. 22	517	123	22	21	351
2. 24	541	183	22	26	310
2. 28	598	255	23	32	288
3. 08	611	312	23	48	228
3. 18	619	346	43	51	179
3. 28	619	362	56	57	144
4. 08	619	376	147	58	38
4. 16	619	380	159	58	22

향후 대형사고 발생시 나타나는 실종자 접수과정에서의 혼선과 신고자에 대한 신빙성 및 책임성 확보와 중복·허위신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초기 접수창구의 일원화와 함께 실종자의 연고자에 한해 일정한 서식에 의거 신고·접수를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실종자 확인

지하철 화재사고는 높은 열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로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신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시신을 찾지 못하는 희생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실종자 처리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사고수습과정에서 중앙로역 현장청소와 화재 전동차 견인으로 인한 현장훼손 문제 등을 놓고 유가족측과 사고대책본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어 대화가 중단되는 등 사고수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고발생 2일째인 2월 19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시민회관 1층에 실종자가족 대기소와 사무실을 설치하고,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와 실종자 가족대표들간에 실종자 인정사망 기준, 인정사망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종자 확인과 관련하여 유가족 대표들은 일부 실종자의 경우 사체가 전소되었거나 유실되어 잔재조차 없을 가능성을 들어 화재사고 사망자로 추정되는 실종자 전원에 대해 “포괄사망 선 인정”을 요구한 반면,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성격상 선 포괄 사망인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섬으로써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은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대상자 가운데 장기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선 포괄 인정사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실종자 인정사망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구시와 유가족 측에서 5:5의 비율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양측의 주장은 일단락 되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발신지 추적, 실종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확인수사 등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경북대학교 법의학 감정팀이 공조하여 부검 및 법치의학적 검사, 방사선 촬영,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법을 동원하여 사체들의 신원확인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도 구성·운영하였다.

가. 실종자 조사

실종자에 대한 실제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발신지 추적조사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2월 27일 경찰관 31명으로 실종자 전담수사반을 구성한 후, 3월 2일 경찰관 61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대구시에서 제출한 실종자 명단에 대한 진위 여부를 수사하였다.

실종자 확인작업은 초기에는 주거지, 직장, 지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와 실종 당시 행적수사, 휴대폰 발신지 추적, CCTV 확인 등을 통해 실종자가 사고 발생당시 중앙로역에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추정 신원 미확인 사체가 140여구에 불과함에도 619명이 실종자로 접수되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출자로 밝혀짐에 따라 인터넷 접속자료, 휴대폰 통화내역, 건강보험관리공단 진료내역, 취업여부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출국 또는 수감여부 확인 등 실종자의 생존자료를 확인하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실종신고·접수자 619명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확인자는 597명으로 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확정사망 99명을 포함한 159명은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가출 등 생존확인자 380명, 부상자 4명, 이중 신고 33명, 신고각하 및 허위신고 15건, 신고취소 6건 등이었다.

특히 실종자 신고·접수 및 조사와 관련하여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실종신고한 사례가 400여건으로 이는 1995년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허위신고자가 30~40명이었던 것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이들은 대부분 장기 가출 또는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지하철 화재사고로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실종신고를 한 가족들도 있었으나, 일부 가족은 보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채소행상을 하는 ○○○의 경우 보상금을 노리고 2회에 걸쳐 ○○○외 2인을 허위 신고한 후 실종자 가족으로 행세하다가 유가족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넘겨져 즉심에 회부되기도 하였다.

나. 휴대폰 발신지 추적

신고된 실종자들이 전동차에 탑승하였을 개연성을 확인하고 인정사망 심사의 물증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고대책본부에서는 각 이동통신 사업주와 협조하여 휴대폰 발신지 추적작업을 실시하였다.

휴대폰 통화위치 및 시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299건 가운데 중복신고와 휴대폰 미소지자로 판명된 자를 제외한 239건에 대해 발신지 추적작업을 실시한 결과 중앙로역 구내 78건, 중앙로역 인근지역 9건 등 87건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생존하고 있는 자 102건, 가출 16건, 미확인 실종 27건, 사망 2건, 허위신고 1건, 이중신고 2건, 휴대폰 미소지 2건 등이었다.

3. 집단사망자관리단 운영

가. 현장수습

희생자에 대한 개인식별은 전동차내에 다수의 시신이 뒤엉킨 상태에서 고도로 탄화하였고 사고와 관련한 실종자의 수가 확정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동차가 정지된 상태로 운동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탄화된 시신이 비교적 3차원적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고 사고 전동차가 월배차량기지로 이동되어 더 이상의 손괴없이 시신 발굴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처음 전동차 내부의 시신에 접근하기 전에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참여한 팀

들의 업무분장, 현장에 대한 좌표설정 및 코딩작업, 업무지침 및 주의사항 전달하고 선도팀을 투입한 후 발굴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신원불상자 식별

지하철 화재사고에서 희생된 신원불상자에 대하여 2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개인식별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여 총 136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신은 수습되었으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이 6구로 이 가운데 3구는 유전자형은 확보되었으나 유전자형을 비교할 수 있는 신고된 유족이 없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3구는 시신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가 불가능한 시신이였다.

집단사망자관리단에서는 2월 19일 월배차량기지에서 실종자에 대한 개인식별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신 발굴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2일 간격으로 정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유류품 전시회도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개최하였다.

다. 신원확인자 인도

1) 신원확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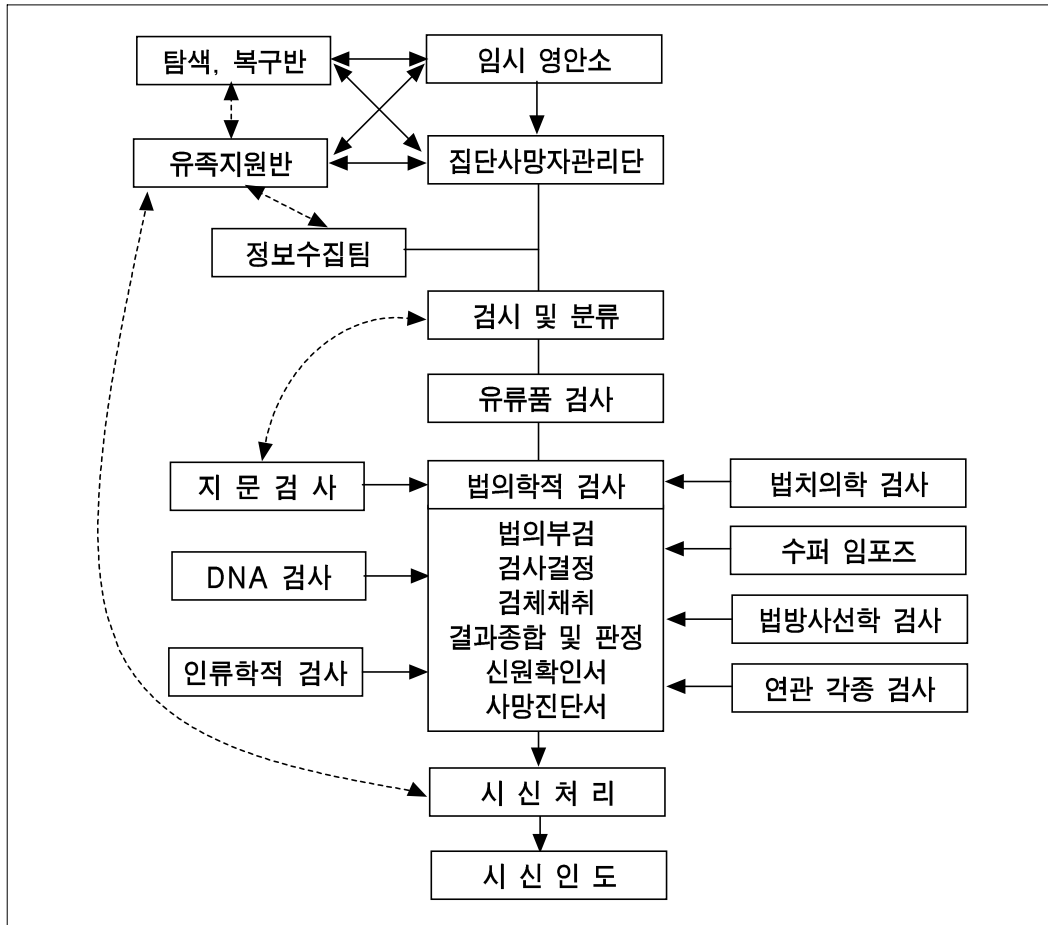
집단사망자관리단의 신원확인 절차는 ①희생자나 시신편 또는 소지품 등의 물체를 현장에서 원칙에 따라 수습하고 이송하는 탐색 및 복구 관련사항 ②시신안치 및 개인식별의 과정이 수행되는 시신안치소 관련사항 ③사고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개인식별을 위한 신원불상자 및 사고관련 제반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유가족 지원사항의 세 분야로 나눈다.

탐색 및 복구반에서 수습된 시신들은 임시영안소로 보내져 개인식별이 진행되며, 유족지원반에서는 각종 정보의 수집이 진행된다. 부검당시 적절한 검사방법을 선택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시신 수습상황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종합되면 신원확인을 완료하고 공식감정서를

작성한 후 시신을 인도하게 된다.

신원확인 업무흐름도



2) 신원확인결과 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집단사망자관리단에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면 수사본부로 명단을 통보하여 수사본부에서 검사지휘를 받아 개별유족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유가족측에서는 단체의 와해 등을 우려하여 개별통보를 반대하고 3월 10일 유가족회의시 유가족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시신인도에 관한 위임장을 유가족대표단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실종자 유가족 자체 투표결과 시신인수 및 장례절차에 대해 개별인수 및 합동장례를 66명이 찬성하였고, 일괄인수 및 합동장례를 78명이 찬성하였으며, 장지와 관련하여 개별장지 안치에 26명이 찬성하였고, 추모공원조성 안치에는 118명이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유가족대표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족에게 개별통보하지 않는다”는 수사본부의 발표후 개별유족에게 인도되어야 할 시신이 인도되지 않았으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유가족이나 우여곡절 끝에 위임장을 철회한 유가족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신이 인도됨으로써 수습이 장기화되는 선례를 남겼다.

3) 시신인도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개인식별감정서, 시체검안서, 시신인수서, 유류품인수서 및 유가족서약서 등을 작성한 후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였다.

대구시에서는 사망자별 장례지원반을 편성(5급 1명, 6급이하 1명)하여 장례비(6백만원) 및 위로금(1백만원)을 지급하고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장례방법과 장례식장을 협의하고 필요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기증한 장례용품(접시, 향 등)을 지원하는 등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시신운구를 위하여 소방서의 구급차량 또는 해당병원 구급차량을 사전에 협의하여 제공하였다.

그러나 시신인도 당시 유가족들의 격한 감정으로 인해 제반절차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돌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화재로 시신이 변형되어 일반관에는 들어가지 않아 특수관을 주문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는 유가족이 기물이나 관을 부수는 과격한 행위도 있었다. 또한 오열 속에 졸도하는 유가족이 속출하기도 하여 사전에 보건소의 구급차량과 응급의료반을 편성하여 상시 대기하기도 하였다.

운구는 달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시신별 의경 7명씩 조를 편성하여 운구하였다.

일자별 시신 인도현황

구 분	인도일	인도시신수	구 분	인도일	인도시신수
1차	'03. 3.22	4	8차	'03. 5.26	12
2차	'03. 3.24	3	9차	'03. 6.27	11
3차	'03. 4. 4	9	10차	'03. 6.28	30
4차	'03. 4. 8	4	11차	'03. 6.29	16
5차	'03. 4.17	5	12차	'03. 6.30	4
6차	'03. 4.19	9	13차	'03. 7. 5	2
7차	'03. 4.28	27	계		136

4.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실종신고자와 신원 미확인 시신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등 실종자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유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기타 상황증거 등을 토대로 미확인 실종자에 대한 사망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3월 2일 중앙특별지원단 김중양 단장과 실종자가족 대표단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3월 3일 중앙특별지원단장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 10여명이 실종자 전체회의와 관련한 사전협의를 가지고, 향후 실종자 문제는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와 중앙특별지원단이 상호 협의·처리키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3월 5일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중앙특별지원단 7명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9명이 참석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양측 대표단이 5 : 5의 비율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발족시기는 양측 추천인사가 선임되는 때로 하였다.

3월 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선정문제와 함께, 위원장은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를 중앙특별지원단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3월 8일 제3차 회의에서는 중앙특별지원단 추천인사 7명과 실종자대책위원회 추천인사 8명(위원장 1, 위원 7)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중앙사고대책본부에 상신하였다.

3월 9일 제4차 회의를 거쳐 3월 10일 양측 추천인사가 승인됨에 따라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가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연 령	비 고
위 원 장	김 준 곤	48	변호사
위 원	곽 정 식	55	경북대 의대교수(법의학)
"	이 원 태	4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
"	서 경 진	47	의사(대구시의사회 법제이사)
"	이 재 용	48	덕영치과 부원장
"	서 재 익	5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부안전조사과장
"	이 광 우	43	상주대교수(화재전문가)
"	임 규 옥	42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	남 호 진	35	변호사(")
"	이 현 희	45	대구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	김 태 일	47	영남대교수
"	이 정 선	48	대구여성회회장
"	법 타	56	은해사 주지
"	정 경 호	54	영남신학대교수
"	류 승 기	43	천주교대구대교구 신부

나. 위원회 활동

1) 제1차 심사위원회 개최

3월 10일 오후 5시 김준곤 위원장과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

본부 3층에 마련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4인 소위원회(이재용, 임규옥, 남호진, 이현희 위원)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회의규칙을 제2차 전체회의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사정족수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실종자중 신원 미확인자 전원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대언론관계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위원장이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간사는 대구시 공무원 1명을 참여토록 하였다.

2) 제2차 심사위원회 개최

3월 13일 오후 7시 북부소방서 회의실에서 김준곤위원장의 14명이 참석하여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효율성 제고 및 정밀심사를 위해 2인 1조로 7개팀을 구성하고, 인정사망 심사기준과 근거로 CCTV, 휴대폰 추적, 유류품, 참고인 진술, 탑승했을 개연성 등을 참고하여 위원들이 판단하기로 하였으며,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사무지원팀도 선정(팀장 1명, 팀원 5명)하였다.

3) 제3차 심사위원회 개최

3월 18일 오후 3시 제3차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유가족측이 요구해 온 선 포괄 인정사망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자중 장기가출자, 행방불명자 등이 실종신고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선 포괄 인정사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날 현재까지 미확인된 실종자 201명 전원을 인정사망 심사대상자로 확정하고, 사망 개연성이 높은 76명에 대하여 팀별로 배당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추가로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사망자유가족대책위원회와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희생자유가족대책위원회로 통

합하기로 하였다.

4) 제4차 심사위원회 개최

3월 21일 오후 4시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심사위원회 회의시 배당된 76명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신원이 확인된 12명을 제외한 64명을 상정하였으며, 상정결과 64명 모두 휴대폰 통화내역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인정사망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또한 잔여심사대상 56명을 추가로 배당하여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정토록 하였다.

5) 제5차 심사위원회 개최

제5차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3월 28일 오후 4시에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회의에서 배당된 56명이 심사대상이었으나 경찰로부터 4명이 생존자로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심사대상이 52명으로 축소되었고, 이 중 35명을 상정하여 CCTV, 직장, 병원, 학원 등 행동반경에 해당하는 정황근거를 참조하여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35명 전원을 인정사망 대상자로 가결·확정하였다.

6) 제6차 심사위원회 개최

4월 9일 오후 6시에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는 최종 배당된 45명중 생존확인 14명, 신고취하 2명, 사망확인 4명을 제외한 25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1명은 인정사망, 6명은 보강조사하기로 하였으며, 18명은 인정사망을 불인정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강조사 및 불인정 24명에 대해서는 공개조사를 거쳐 제7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미확인 실종자 24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7) 제7차 심사위원회 개최

4월 16일 오후 6시에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는 미확인 실종자 24명중 지난 10일 공개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3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19명에 대하여는 인정사망을 불인정하고, 2명은 판단유보를 하였으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재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하기로 하였다.

8) 제8차 심사위원회 개최

6월 9일 오후 5시에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는 판정 유보된 전○○에 대한 인정사망 재심여부를 놓고 위원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의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확인 요청한 데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검토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전○○의 부(父)의 진술 및 상황 근거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결과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경찰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제9차 회의시 결정하기로 하였다.

9) 제9차 심사위원회 개최

9월 2일 오후 4시에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는 제8차 회의에서 인정사망 판정이 유보된 전○○에 대한 인정사망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들이 관련자료와 참고인 진술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

심사위원 13명이 분야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근거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판단유보 3명, 불인정 9명, 인정 1명으로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10) 제10차 심사위원회 개최

실종자 전○○의 재심청구에 의거 2004년 3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준곤 위원장의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 조사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참석위원들의 표결결과 사망불인정 7명, 판단유보 7명으로, 심사결과 정황 증거 불충분으로 사망불인정 처분을 하고,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종결하고 향후 불인정 처분관련 재심청구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004년 3월 10일자로 위원들을 일괄 해촉함으로써 위원회가 구성된지 1년만에 해산되었다.

다. 인정사망 심사결과

인정사망이란 호적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시·읍·면장에게 사망통보를 함으로써 사망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인정사망 심사는 사망자의 유골이나 유류품, 지하철 역사내 CCTV 화면, 휴대폰 통화기록 및 위치추적 등 실종자가 전동차에 탑승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증과 서증, 참고인의 진술, 기타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참작하기로 했다.

실종자 심사결정은 사망인정, 사망 불인정, 판단유보 등 3종류로 결정하기로 하고, 사망불인정, 판단유보 결정자는 위원회 업무가 종료되기 전까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실종 신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발생 당시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에 접수된 619명의 실종신고자 가운데 경찰조사 등에 의해 498명은 금번 사고와는 무관하게 사망 또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121명은 심사결과 100명이 사망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이 중 99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감식에 의한 신원확인자로 밝혀짐으로써 사실상의 인정사망자는 1명이며, 인정사망 불인정 20명, 판단유보 1명 등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실종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실종자 접 수	사 실 확 인					인 정 사 망 심 사					
	소계	생존	사망	부상	기타 (중복 등)	계	사망인정			불인정	판단 유보
							소계	확정 사망	인정 사망		
619	498	380	60	4	54	121	100	99	1	20	1

第2節 死亡者 葬禮

1. 개별장례

가. 장례식장 현황

장례식장은 법률상 규제되지 아니하는 자유업종에 속한다. 따라서 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사설 장례식장은 영업상의 손실을 이유로 시신안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다.

다행히 대구시에서는 2002년 11월 장례식장에 대한 일제조사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요금징수에 대한 계도, 시체 약품처리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 점검 등을 통해 행정지시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상태여서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을 위한 대구시의 요청에 대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별 장례식장의 시체안치용 냉동고와 빈소는 대형병원은 10~16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나 대다수 병원의 냉동고와 빈소는 10개 미만의 시체를 수용할 수 있어 대형사고 발생시 시신보관을 위한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장례식장 현황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게시요금(천원)			빈소수	냉동고
			안치료	빈소(1일)	염습료		
경북대학병원 장례식장	중구 삼덕2가50	420-6465	2.5/h	264~600	200	9	16
동산의료원 장례식장	중구 동산동194	250-7144	60/일	144~240	150	10	12
대구적십자 병원장례식장	중구 남산2동 937-1	252-4711	48/일	180~240	150	4	4
곽병원 장례식장	중구 수동18	252-1023	30/일	120	200	2	4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동구 신암4동 302-1	940-7494	60/일	168~ 1,080	200	7	14
효심병원 장례식장	동구 효목2동 629-1	746-9310	2.5/h	13~24/h	200	6	8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게시요금(천원)			빈소수	냉동고
			안치료	빈소(1일)	염습료		
미래병원 장례식장	동구 신암동 820-7	951-0444	2.5/h	120	200	3	4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서구 중리동1162	560-7490	30	120~180	150	6	10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남구 대명5동 317-1	620-4647	30/일	110~350	60~150	10	12
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	남구 대명4동 3056-6	650-4444	3/h	8~14/h	200	7	10
성심병원 장례식장	남구 대명11동 1126-1	651-1024	30/일	120~200	200	4	7
배성병원 장례식장	북구 검단동 986-2	382-1600	2.5/h	11~15/h	200	5	8
조광병원 장례식장	북구 노원3가762	341-4444	2.5/h	10.5/h	200	3	4
대구병원 장례식장	북구 태전동 796-3	311-4488	2.5/h	10.5/h	200	4	6
가톨릭대칠곡 병원장례식장	북구 읍내동1140	326-5995	3/h	11~13/h	200	6	6
동경병원 장례식장	수성구 만촌2동 1037-9	755-4114	4.2/h	16.8~29.5/h	200	5	8
노인병원장례 식장(모레아)	수성구 옥수동 48-1	801-9999	72/일	288~780	200	7	12
성삼병원 장례식장	수성구 신매동 567-9	790-0531	48/일	144	200	4	6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달서구 도원동 748	634-0566	30/일	240	150	3	9
가야기독병원 장례식장	달서구 송현동 183-12	653-6565	30/일	100	150	4	4
대구기독병원 장례식장	달서구 두류동 470-5	627-4447	52.8/일	216	200	3	3
허병원 장례식장	달서구 본동1144	654-4404	30/일	180~250	200	4	6
남강병원 장례식장	달서구 두류1동 807-3	653-1024	30/일	4.52~12.5/h	200	6	6
논공가톨릭병원 장례식장	논공읍 남리 717-2	610-3644	30/일	150	200	4	4

나. 장례지원

사고초기 장례 지원활동은 일부 부서단위로 이루어졌으나, 사망자에 대한 영안실 확보대책이 수립되고 시민회관에 임시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사고당일 22:00경에는 상황반이 6개반으로 확대 편성되어, 2월 19일부터 장례 지원 활동이 시작되었다.

사망자 유가족들에게는 특별위로금 100만원과 함께 장례비용 5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월 20일 유가족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장례비용은 100만원 추가되었다.

또한 시립화장장, 공설묘지, 납골당 등 대구시 장사시설 무료사용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편의제공에 대한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유족편의를 위한 장의차량 이용요금도 60% 할인하는 선에서 협의되었다.

사망자의 장례는 2월 20일 장○○외 7명의 장례를 시작으로 6월 29일 합동 영결식까지 32회 173명이 개별장례를 치루었고, 그 이후 13명의 장례도 개별적으로 치루어졌으며, 7월 15일 시신인도후에도 딸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한 부정(父情)을 끊지 못해 대구의료원에 딸의 시신을 안치하고 있던 ○○양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신원사망자 186명의 개별장례는 마무리되었다.

일자별 장례실시 현황

일 자	인 원	일 자	인 원	일 자	인 원	일 자	인 원	일 자	인 원
2. 20	8	3. 22	4	4. 10	2	4. 29	2	5. 28	7
2. 21	10	3. 24	1	4. 17	2	4. 30	10	6. 27	8
2. 22	27	3. 26	2	4. 19	6	5. 1	1	6. 28	28
2. 23	1	4. 4	2	4. 20	1	5. 2	1	6. 29	16
2. 26	1	4. 5	2	4. 21	3	5. 4	2	6. 30	4
3. 3	1	4. 6	5	4. 24	2	5. 26	3	7. 5	6
3. 5	1	4. 8	2	4. 28	10	5. 27	2	7.6~16	9

7월 16일 무연고 사망자 6명을 대구시립공동묘지에 안장함으로써 신원확인 사망자 186명과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 등 총 192명의 장례가 완료되었으며, 장례유형별로는 매장 61기, 납골당 안치 106기, 산골 25기 등이었다.

희생자별 장례현황

계	시 립 납골당	시 립 묘 지		개 별 매 장	사 설 납골당	산 골	인 정 사 망
		낙산리	동명				
192기	49	14 (무연고 6기 포함)	5	41	57	25	1

2. 합동영결식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는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에 대한 장례는 합동 장례를 원칙으로 정하고 3월 31일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4월 19일 합동장례식을 거행하기로 하였으나, 희생자대책위원회측에서 수창공원을 조성하여 매장 또는 시신안치를 주장하여 합동장례가 1차 무산되었다.

4월 19일 희생자대책위원회와 협의에서 4월 24일 합동장례식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희생자 유족측에서 합동영결식만 거행하고, 시신을 입관형태로 냉동실에 재안치하였다가 추모공원 조성 후 장례식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여 다시 합동장례식이 연기되었다.

5월 9일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제3차 협의에서도 5월 22일 합동장례식을 거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묘역결정」없는 장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또 다시 합동장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구시에서는 추모사업추진위원회와 추모묘역 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6월 4일 16:00 합동장례식 협의를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희생자대책위원회 대표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이날 협의에서는 장례일자는 장례형태 조사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장례주관은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맡으며 시신인도 결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에 통보하고 합동장례식전 「시민에 대한 시장담화문 발표」를 언론에 보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6월 29일 10:00 시민회관 광장에서 유가족연합회 소속 32명과 일부 희생자 등 63명을 제외한 129명의 합동영결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참석인원은 약 1,500여명 정도였으며, 합동영결식은 10:00에 시작하여 13:00 노제를 끝으로 영결식을 마쳤다.

진행순서는 경과보고(희생자대책위원장)와 추도사(국무조정실장, 시장, 시민단체상임대표, 대구대총장), 종교의식(불교, 기독교, 천주교), 헌화 및 분향순서로 이어졌으며, 대구시에서는 합동분향소 설치 및 제 경비 지원과 자원봉사, 장의차량 확보, 교통통제, 군악대와 시립합창단, 시신 및 유가족 운송을 위한 앰블런스 배치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국무총리 추도사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가시는 영령들이시여!

청천벽력 같은 사고로 국민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했던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넉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슴속까지 차오르는 비통한 심정으로 삼가 머리 숙여 영령들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영령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참혹한 상황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구조에 임했던 대원들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이제 영원히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영령들의 사연은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졸업식장에 가던 일가족 세분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엄마 살려줘”, “여보 사랑해”라며 전화에 남긴 목소리가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된 영령들도 계십니다.

어린 3남매를 집에 두고 지하철을 탔다가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대학에 합격해 놓고 입학을 몇일 앞둔 학생..., 모두가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이요, 형제자매들입니다. 금방이라도 환한 미소로 다가와 손을 내밀 것처럼 생전의 모습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령들이시여!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슬픔을 삼키면서 영령들의 희생이 주는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진단을 통해, 대구지하철을 전국의 모범이 되는 안전지하철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재난방지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구조·구난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장대응 능력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정 각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제일주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영령들 앞에 다짐합니다.

영령들이시여!

님들의 조국은 지금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동북아시아의 주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21세기를 주도하는 지식·문화·정보·산업 도시로 웅비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8월에는 이곳에서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립니다. 벽을 허물고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장(場)이 펼쳐질 것입니다.

영령들이시여,

이제 모든 근심을 떨쳐 버리고 사랑하던 이곳 대구의 아늑한 터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길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크나큰 슬픔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희망과 안정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영령들께서 가시는 길,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2003년 6월 29일

국무총리 고 건

대구광역시장 추도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슬픔에 잠기신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크나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벌써 4개월(132일)이 지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영영 먼길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합동영결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날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92위의 영령들을 250만 시민의 이름으로 추모하면서,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천만 뜻밖의 사고로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했던 그 날의 충격과 슬픔을 달래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온 국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18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우리 250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을 멎들게 하고 처절한 상흔을 남긴 사고로, 소외된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를 오늘날 이 비정한 사회에 가르쳐 준 인재(人災)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그 날의 충격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귀여운 아들, 딸, 그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얼굴과 함께 차마 돌이켜보기조차 싫은 비극의 참상들이 지금도 악몽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이 슬픈 합동영결식을 치르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원히 잊지말고 이 처절한 비극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난 날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참사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시장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린 유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단 한 점의 유류품이라도 찾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러다 지치면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노숙을 해가며 격심한 고통을 참아내셨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묻고 슬퍼하면서도 DNA 검사 등 신원확인 작업에 기꺼이 응해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신 일에도 경의를 표하며, 250만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피해자 보상문제 등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사랑하던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하던 소녀의 목소리가 4개월이 지난 아직도 제 귓전을 맴돕니다. 그러나 저의 회한과 아픔이 아무리 크다한들 여러분의 그것과 어찌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곳곳한 삶의 의지와 건강한 모습만이 먼저 가신 영령들의 바램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부디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일어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이 슬픈 영결식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언제 어느 일에서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저 세상에 가신 영령들도 안심하고 잠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삼가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빕니다.

구천에 계신 영령들이시여, 부디 영면하소서!!

2003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념

3. 무연고 시신처리

가. 무연고 시신 및 잔여물 인계

2월 18부터 4월 12일까지 개인식별 과정을 거쳐 확인된 시신수는 총 192구로 이 중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은 6구였다.

신원불상 6구 가운데 3구는 유전자형은 확보되었으나 유전자형을 비교할 수 있는 신고된 유가족이 없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3구는 시신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가 불가능한 시신이였다.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영결식(6월 29일) 이후 인도되지 않은 무연고 시신 처리방안에 대하여 6월 30일 월배차량기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무실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주재로 대구시, 수사본부, 유가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신수습과 행정처리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연고 시신 및 잔여물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다.

무연고 시신과 탄화골편 인수절차는 집단 사망자관리단→수사본부→대구시의 순서로 이루어졌고, 미확인 잔여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사본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장소 등의 문제로 대구시에서 관리하기로 협의하였다.

무연고 시신중 DNA감정이 가능한 시신3구에 대해서는 검사지휘서가 발부되었으나 DNA감정이 불가능한 3구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본부에서 조치하기로 하고 인수되었으며, 시신과 탄화골편에 대한 처리는 검사지휘서에 따라 행정처리하기로 유가족과 협의하였다. 잔여물품은 유가족 대표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일정기간 보관하고 희망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기로 하였다.

무연고시신 묘비

2.18대구지하철참사
신원확인불능
A26-ca03, A24-ca08의 묘

2.18대구지하철참사
신원확인불능
K42의 묘

2.18대구지하철참사
신원확인불능
K14의 묘

2.18대구지하철참사
DNA감정확인 미신고
K35(여)의 묘

2.18대구지하철참사
DNA감정확인 미신고
K05(여)의 묘

2.18대구지하철참사
DNA감정확인 미신고
D08-ca01(남)의 묘

대구광역시공고 제 호

무연고시체 처리공고

2003년2월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사망한 자중 무연고시체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시체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행정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1. 인적사항

구 분	사망자의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시체 구수	사망일	사망원인	기타 특징
유전자분석 가능	미 상	3구	2003.2.18	지하철화재	특이사항 없음
유전자분석 불능	미 상	3구	2003.2.18	지하철화재	유전자분석자료 별도관리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일시 : 2003. 2. 18. 09:55경
- 발생장소 :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내
- 발생경위 : 전동차내 화재로 인한 사망
- 사망당시 복장 : 미상

3. 매장장소 : 대구광역시동명공동묘지

4. 매장기간 : 공고기간 종료 후 10년간

5. 공고기간 : 3개월(2003. 7. 5 ~ 2003. 10. 4)

6. 신 고 처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429-2441)
- 대구지하철방화사건 수사본부(☎053-252-9664)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등을 수사본부에 제출하여 연고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003. 7 . 4 .

위 공고인 : 대구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장
대 구 광 역 시 장

조 해 념

나. 무연고 시신관리

우여곡절 끝에 7월 16일 10:00에 무연고 시신과 탄화골편에 대한 장례일정을 정하고 월배차량기지에서 유가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유가족대표의 반대로 진행이 지연되었으며, 시신처리에 대한 방해시 시신을 모독하게 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흥분한 유가족대표들은 설명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설명회 개최요구” 공문 제출과 함께 설명회 개최 후 탄화골편 처리를 합의하고 가까스로 장례를 치렀다.

탄화골편에 대한 행정처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설명회(8월 7일)를 거쳐 8월 29일 화장후 시립납골당에 봉안하였다.

무연고 시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안치후 화장하여 일정장소에 집단 매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안에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수사본부의 확인과정을 거쳐 인도하게 된다.

第3節 負傷者 對策

1. 부상자 확인

가. 의료기관 공무원 배치

사고 발생 직후 사상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과장과 보건과 직원 2명이 상황을 유지하고, 보건과 및 보건소 직원들을 중심으로 2명씩 1개조로 편성하여 피해자들이 후송된 12개 병원에 배치하였다.

이어서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고 부상자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대책반이 편성됨에 따라 문화체육국장 등 2명이 부상자대책반장이 되고, 1개반 20명씩 3개반으로 편성하여 24시간씩 교대 근무토록 하였다.

부상자대책반은 부상자 현황관리, 부상자 위문 및 가족지원, 위로금 지급, 부상자 보상(개인보험), 기타 건의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요업무로 하였으며, 의료기관별 부상자 진료현황을 병원 외근조가 6시간 단위로 보고하고 상황반에서 수합 정리하여 사고대책본부에 보고하였다.

입원중인 대부분의 부상자는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여부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였으나, 사고 후 귀가한 탑승자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와 보상금을 목적으로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이 없는 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부상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계공무원과 의료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시 내원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물론 흉부 C.T, 기관지 내시경, 객담검사 등을 통하여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병증의 발생관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황기록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차후 부상자 의료지원과 보상금 지급 등 부상자 관리에 적극 대비토록 하였다.

그러나 부상자들의 입원 중 타병원 전원과 퇴원 후 재입원, 증상의 호전 또는 악화 등으로 일자별·의료기관별 사상자 진료현황은 변동이 많았다.

의료기관별 사상자 진료현황

(2003. 3. 2 현재기준)

의료기관명	총계	퇴 원			입 원			비고
		소계	사망	귀가	소계	중상자	경상자	
합 계	149	33	3	30	116	3	113	
가야기독병원	1	0		0	1	0	1	
경북대병원	27	4	1	3	23	1	22	
광 병 원	30	11		11	19	0	19	
남 강 병 원	1	0		0	1	0	1	
동 산 병 원	32	4	2	2	28	1	27	
세 동 병 원	3	3		3	0	0	0	
영남대병원	24	8		8	16	0	16	
대구가톨릭병원	3	1		1	2	0	2	
파티마병원	14	1		1	13	1	12	
한 성 병 원	11	0		0	11	0	11	
허 병 원	1	0		0	1	0	1	
포항성모병원	1	0		0	1	0	1	
현대연합의원	1	1		1	0	0	0	

나. 추가신고자 확인

대다수 부상자는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차량과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기능과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분산 이송하였다. 그러나, 일부 부상자의 경우 지하철 선로를 따라 탈출하여 가까운 병원에 스스로 입원하였다.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의사가 환자의 농연 흡입상태, 즉 기관지 상태, 폐기능, 객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여부를 확인한 후 입원함으로써 사고 당일 대부분의 부상자를 파악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부상자가 사고 발생이후 추가 신고함에 따라 부상자의 법적보상금, 국민성금 배분 등의 과정에서 부상자와 희생자 유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 부상자 인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사례 1** : ○○○(여 25세)는 사고 당일 지하철 동대구역 인근에 위치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지하철 상인역에서 사고 전동차에 탑승하여 화재가 발생하자 무사히 탈출하여 출근하였고, 당시에는 살아 나온 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흡곤란과 정신이상 증세가 있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신고를 사고 발생 76일이 경과한 5월 4일 모친을 통해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휴대폰 통화 상세내역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통화자 진술서, 본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부상자 관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결과,

사고 당일 대경교통카드를 이용하여 1079호 전동차를 탑승(2월 18일 09:33경 상인역 6번 개집표기 확인)하였으며, 중앙로역 화재로 인하여 출구개찰 집계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상인역에서 중앙로역까지 약 18~20분 정도 걸린다는 지하철 관계자의 진술과 사고시간이 거의 일치하며

화재현장으로부터 탈출하여 직장동료에게 지하철화재가 발생하여 출근시간이 늦는다는 당시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당일 09:58에 덕산동 동아쇼핑에 설치된 016기지국을 통하여 동료직원에게 통화한 사실과 10:03에 메시지를 보낸 통화내역서가 확인되었고,

고려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이 임상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안표출 90%, 우울증, 편집증 등 임상증상으로 나타나 6개월 이상의 정신의학적 전문치료를 요한다는 진료소견과 경찰 수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부상자로 인정하였다.

◆ **사례 2** : ○○○(남 42세)는 지하철공사 직원으로서 사고당일 지하철 화재사고시 기계점검을 나간 동료직원으로부터 화재 발생사실을 통보 받고,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하려다가 레일부근에 넘어져 우측하지에 외상을 입고 자가 치료하던 중 3월 18일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고가 발생한지

51일이 경과한 4월 10일 본인의 근무처인 지하철공사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결과 사고 당일 동료직원, 119구조대원과 함께 공기호흡기 등 구조장비를 갖추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 전동차에서 나는 폭발음을 터널붕괴로 착각하여 구조대원들과 함께 급히 달려나오다 레일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을 목격자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사고로 인한 시민의 희생과 분소 동료직원 3명이 입원치료 상태에 있어 죄스러움과 함께 책임감, 각종 시설물 보강, 안전진단 등 자체 긴급업무처리 관계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연고 및 소독약을 구입하여 자가에서 치료하였으나, 상처가 악화되어 봉합시술 등으로 입원하게 되었으며, ○○○의 활동이 보도된 2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제명 : 지하철공사 직원 4명 돈보인 용기와 채치.... ‘선로’통해 10여명 탈출시켰다/사회면 A9) 등을 참조하여 4월 30일 지하철공사 직원 부상자(11명)와 동일한 부상자로 인정하였다.

◆ **사례 3**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거주하는 ○○○(남 45세)는 지하철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이 소홀할 것으로 생각하고 2월 18일 20:00경 중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 지하철 화재사고 차량에 탑승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입원하였으나, 사고발생 이후 병원에 배치된 대구시 공무원으로부터 의복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부상자가 아닐 수 있다는 보고와 함께, 진료의사의 “지하철 부상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진료소견서를 근거로 중부경찰서 지하철사고수사반에 수사의뢰를 하여 조사하였던 바, 금번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 피해가 전무함을 시인받고 차후 이런 일로 공무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자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훈계조치하였다.

◆ **사례 4** : ○○○환자는 사고당일 18:15경 119 구급차량에 의해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로 관리하였으나, 2월 19일 01:20 퇴원한 후 2월 19일 가야기독병원 재입원 2월 22일 퇴원, 2월 22일 허병원 재입원 3월 5일 퇴원, 3월 12일, 3월 19일 통원치료, 3월 25

일 동산병원에 재입원하는 등 반복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원특이자로 분류하여 병원별 진료내역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는 2001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있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병력이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을 접한 이후로 두통, 불안, 불면증 등으로 재발되어 과거와 같은 보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간접적인 피해자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이후 최초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의 경위(행적) 및 보상금을 받기 위한 허위신고인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4월 18일 중부경찰서 지하철사고 수사반으로부터 사고당일 목격자를 찾지 못하였고, 연기를 마시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팠다는 본인의 진술과 최초 진료의사의 진술을 볼 때 허위 부상자로 판단이 되나 ○○○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수사결과 회신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부상자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가 당시 입원진료를 받았던 동산병원 정신과에 당시의 정신적 장애가 지하철 화재사고 경험의 결과로 인한 것인지 판단 요청한 바, “환자가 호소하는 불안, 불면, 지나친 걱정 등이 지하철 화재사고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여 5월 17일 부상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 사례 5 : ○○○는 사고당일 09:25경 지하철 큰고개역에서 탑승하여 중앙로역에 도착하여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큰 딸을 기다리던 중 지하철 화재사고시 발생한 매연을 흡입하였으나 당시에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므로 귀가하였다.

그러나 사고이후 잦은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목이 아프고, 속이 답답해서 2월 20일 인근 내과의원에서 매연흡입에 의한 기침증상으로 2일분 약 처방을 받았고, 2월 21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지하철 화재사고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진료결과를 확인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후유증을 염려하여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딸이 장애자인 관계로 상시 간병이 필

요하여 입원이 불가하다고 귀가하였다”는 등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추가 신고자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2월 24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을 진료한 진료의사로부터 흉부 C.T, 기관지 내시경, 객담검사 등을 통하여 지하철 화재사고시 발생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병증의 발생관계가 명확하다는 진료소견에 따라 부상자로 인정하였다.

2. 부상자 치료

가. 진료편의 제공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많은 부상자들은 대부분 사고현장에서 119 구급차량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량에 의해 경북대학교병원 등 12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진료를 받게 되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부상자들의 신원확인 및 정신적·심리적 안정, 보호자의 간병 등 환자의 작은 불만 하나라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보건과장은 각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장을 면담하는 한편, 응급의학과장 및 원무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부상자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는 각 병원 원무과장 및 부상자 가족대표와 협의한 결과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일체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여 대구시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교수업, 직장출근 등을 위하여 퇴원한 부상자에 대하여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발 또는 후유증 발생시 재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입·퇴원과 관계없이 병증의 정도가 향후 보상(손해사정)의 주요기준이 될 수 있으며, 합병증 등 후유증을 고려한 배·보상을 부상자 가족대표단과 충분히 합의하여 보상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퇴원여부는 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입·퇴원, 통원을 결정하여야 하나 본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퇴원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부상자가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진료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병원

에 협조 요청하였다.

부상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이하 모든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치료 진행상황과 예견되는 후유증에 대하여 부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진료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는 한편, 많은 부상자들이 불안, 불면증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있으므로 신경정신과적 진료를 병행하는 등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전문과목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를 갖추었다.

나. 치료비 지급

사고대책본부에서는 부상자의 입원진료, 통원치료 등 일체의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에 구애받지 말고 가능한 최선의 진료를 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부상자 치료에 소요되는 예산은 1,086백만원(국비 70%, 특별교부세 15%, 시비 15%)이 확정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대구시의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9월 18일 배정받아 수습경비로 사용되었다.

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개인별 진료내역을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진료비명세서 식으로 대구시에 청구하였고, 대구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심사를 받아 확정된 금액을 진료기관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부상자가 화재사고로 인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담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부상자 간병에 따른 비용은 향후 피해자 손해보상금 산정시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제외하였다.

3월 17일부터 부상자를 진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있어 4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①의료보험수가 적용 ②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은 일반수가 적용 ③환자 치료비중 이중 청구된 치료비 삭감 ④혈액대금은 제외하되 수혈처치는 계산 등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찰료, 주사료, 물리치료비에 대한 산정기준과 수가적용 오류와 산소흡입시간을 1일 720시간으로 착오 입력하는 등 일부 병원이 과다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4월 21일 부상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 및 의료기관 진료비 35,411,190원을 지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953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부상자 치료비 지급내역

(단위 : 원)

지급일	청구금액	삭감금액	지출금액	삭 감 사 유
계	970,395,920	17,195,020	953,200,900	
4. 21	49,488,280	14,077,090	35,411,190	- 산정기준 및 수가적용 착오 - 전산입력 착오, 간병료 제외 등
6. 3	477,532,440	2,130,940	475,401,500	- 소방공무원 산재처리 삭감
8. 29	438,468,660	986,940	437,481,720	- 산정기준 및 수가적용착오 - 합의 이후 예약 및 진료비
10. 28	4,187,840	50	4,187,790	- 10원 미만 단수 절사
11. 21	23,000	0	23,000	
12. 18	183,300	0	183,300	
12. 30	512,400	0	512,400	

부상자 치료비는 사고당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대구시에서 일괄 부담하였으나, 그 이후 치료비는 손해보상금 지급시 신체감정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향후 치료비로 일괄 보상하였다.

다. 위로금 지급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입원치료에 따른 간병과 생활에 도움을 주고, 부상자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하여 2월 19일 사고수습대책반에서 부상자 1인당 30만원씩 1차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병원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부상자 본인 또는 가족 145명에게 총 43,500천원을 전달하였다.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상자와 가족들이 입원치료와 간병으로 인하여 생업에 복귀하지 못함에 따른 생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차 특별위로금으로 2월 24일 현재 입원중인 부상자 12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12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차 특별위로금 지급시 1차 위로금을 전달할 때까지 부상자로 신고되지 않아 누락되었던 부상자 2명에게도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하였다.

2차 위로금은 부상자가 입원중인 병원별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 또는 부기관장이 보건소장과 함께 병실을 방문하여 부상자 또는 가족을 위로하고 직접 전달하였다.

또한, 사고수습이 장기화되면서 부상자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다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미 모금된 국민성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향후 법적보상금 수령시 선지급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합의하고, 3월 13일 현재 전체 부상자 146명중 입원기간 5일 이하인 부상자와 수사대상자, 소방관 등을 제외한 121명으로부터 영수 및 서약서를 받고 1인당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4월 3일에도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입원기간 8일 이상 부상자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113명에게 1인당 5백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후 부상자 법적보상금 지급시 3월 13일 지급한 605백만원과 4월 3일 지급한 565백만원은 전액 공제후 지급하였다.

부상자 위로금 지급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일자	지급인원	1인당지급액	지급총액	비 고
2. 19	145	300	43,500	
2. 25	2	300	600	1차 위로금 미 수령자에게 지급
2. 25	125	1,000	125,000	5일 미만 입원부상자 17명, 수사대상자 3명, 방화범 1명 제외
3. 13	121	5,000	605,000	부상자 146명중 5일 이하 입원자, 형사입건자, 소방관 등 25명 제외
4. 3	113	5,000	565,000	부상자 146명중 7일 이하 입원자, 형사입건자, 소방관 등 33명 제외

3. 만성후유증 관리

부상자 가족측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사고시 환경과 동일한 상황에서 모의 화재실험을 실시하여 화재 당시의 고온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가스의 성분과 인체영향을 실험하여 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보상과 평생진료료를 보장하는 평생진료증 발급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환자치료에 대한 지원과 보상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지역을 위로차 방문한 국회의원, 관계부처장관에 제도 요구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슈화하였다.

가. 전문가 회의

사고대책본부 부상자대책반에서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3월 17일 지역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동국대학교 임현술 교수, 영남대학교 사공준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양재호 교수와 허용 교수,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김병익 박사 외 2명의 연구원, 대구시 환경정책과 정병근 사무관, 보건환경연구원 윤현숙 연구관, 안문영 보건과장이 참석하여 모의 화재실험 실시에 대한 것과 유해물질의 만성적 신체영향 평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종합되었다.

첫째, 모의 화재실험 실시에 대해서는 지하철 화재 당시와 동일한 상황의 재현은 불가능하므로 실험이 실제 상황과 다를 경우 특히, 정량적 평가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부상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연소 소재가 동일한 화재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가스는 문헌 검토만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이들이 일으키는 유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모의 화재실험의 불필요성을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둘째, 유해가스의 성분분석 및 만성적 인체 영향평가 연구에 대해서는 유해

가스의 성분으로 휘발성이 낮은 물질, 검댕 등은 현 시점에서 환경평가를 시행하여 화재현장 지하실내 공기환경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화재관련 각종 독성인자의 노출에 대한 국제적 연구결과 및 사례를 분석하여 부상자들의 향후 건강장애에 대한 추론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부상자들의 각종 증상을 중심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하며, 가능한 오랜 기간동안의 임상기록 분석을 실시하여야 만성적 장애의 인정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토론을 거쳐 ①화재현장 지하실내 공기환경평가 및 부상자들에 대한 생체학적 검체 채취 및 검사 ②부상자들의 임상기록 분석 ③ 화재관련 독성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장애에 대한 국제적 연구결과의 종합 및 분석 ④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한 만성적 건강장해 추론 및 평가 등 4가지로 연구조사 분야를 최종 도출하였다.

부상자들의 모의 화재실험 실시 요구와 만성후유증에 대한 평생진료 보장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 방문시 약속한 사항이고, 중앙특별지원단의 약속 등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나. 중앙부처 대책회의

보건복지부에서는 4월 15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중앙특별지원단, 관련 전문학회 소속 전문가, 대구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의 화재실험과 유해가스 성분 분석연구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론과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후유증 진료보장 방안

회의개최 당시 추진 중인 손해사정에서 향후 치료비가 산정되고 보상되는 호흡기, 정신과 등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부상자들에게 일괄 보상이나 지속적

후유증 진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괄 보상을 선택한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후유증이 발생되어도 진료보장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지속적 진료를 선택한 부상자들의 경우 보상금에서 후유증 진료비를 공제하여 대구시가 관리하고, 추후 관련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보장을 하기로 하였다.

반면, 손해사정에 반영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후유증은 대구시에서 적정한 예상 진료비를 산정하여 법률에 명시된 적절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상자 전향성(Cohort)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후유증 심사를 통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진료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2) 모의 화재실험 및 유해요인 분석

전문가들은 동일 상황의 모의 화재실험은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재현률이 낮아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실제보다 과소 평가될 수 있으며, 피폭 정도도 개인적인 변이가 커 유해성 분석결과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모의 화재실험을 실시하는 대신 동일 소재의 연소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상 장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권유하였다.

3) 부상자 추적관찰 연구

그 외에 전문가들은 대구시에서 제안한 부상자들의 위험물질 노출정도와 유해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잔류량 등의 생물학적 관찰연구와 국내·외 관련문헌 조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부상자 전원에 대한 후유증 발생 등 건강상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2~3년간 부상자 전향성(Cohort) 연구를 권유하였다. 이 회의결과를 토대로 부상자 가족측에서 요구하는 차량 연소실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부상자 가족측을 설득하였으나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의 일부 대표들은 많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납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6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대구지하철 화재사

고 부상자 진료비, 만성후유증 진료비, 부상자 추적관찰 연구지원' 관련회의를 거쳐 중앙사고대책본부에 보고되었으며, 손해사정에 포함되지 않은 유독물질로 인한 만성후유증 진료비로 3,550백만원과 만성후유증 관련 연구용역비로 600백만원의 예산이 결정되었다.

다. 연구용역 추진

연구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소요예산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9월 9일 만성후유증 연구용역 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사업 수행에 앞서서 서울대학교 조수현 교수, 한양대학교 송재철 교수, 영남대학교 정종학 교수 등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 3명에게 연구사업 과업지시서 내용을 검토의뢰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부상자측과 연구용역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부상자 특별위로금의 협상타결 지연과 부상자 단체의 내부적 갈등 등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12월 하순경 보상합의가 일단락 됨으로써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12월 20일 시행방침을 확정하였다.

만성후유증 연구용역은 2004년 1월 16일에 경북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북대학교와 수의계약으로 하되 동국대학교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4년 1월 29일부터 2006년 7월 23일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여연구진은 부상자 치료에 종사한 전문과목별 전문의, 전향성(Cohort) 연구 등 관련 분야 연구경력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측정이 가능한 실험실을 갖춘 연구소 근무 전문연구원으로서,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6개 의과대학과 대구파티마병원, 광병원 등 2개 종합병원, 1개 연구소 등 9개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0명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연구책임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태훈 교수가 맡고, 세부과제별로 자문연구원을 선임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였다.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①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들의 만성후유증 발생 및 질병 경과에 대한 3년간의 추적관찰 및 개인별 건강관련 기초자료 구축 ②사

고시 발생가능한 유해가스의 추정 및 지하철 화재 등 화재관련 국제적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부상자들에게서 발생할 건강장애의 정도와 규모에 대하여 추론하고, 진료보장 및 관리방안 제시 ③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현장 실내 공기질과 혈액중 다이옥신 농도 등 환경·생체학적 측정을 통한 부상자들의 다이옥신 노출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독성평가 ④본 과제 종료 후 추후 연구과제의 도출 또는 제안 ⑤재난피해자의 관리를 위한 data base model 제시 등으로써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3개의 세부과제를 과업목표로 선정하였다.

- 제1과제 : 임상적 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3년간의 전향성 추적조사
- 제2과제 : 만성적 건강장애에 대한 평가추론 및 시료보관
- 제3과제 : 화재현장 실내공기질 평가 및 부상자 혈액내 다이옥신 측정

만성후유증 연구진 명단

연번	과제구분	성명	역할	소속	비고
1	제1 세부과제	정태훈	연구책임자	경북의대 호흡기내과	
2		김창호	공동연구원	경북의대 호흡기내과	
3		한승범	"	계명의대 호흡기내과	
4		이관호	"	영남의대 호흡기내과	
5		김연재	"	대구파티마병원 호흡기내과	
6		박준식	공동연구원	경북의대 이비인후과	
7		송시연	"	영남의대 이비인후과	
8		최홍식	"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9		송달원	"	계명의대 이비인후과	
10		박영우	"	대구파티마병원 신경정신외학과	
11		김정범	"	계명의대 신경정신외학과	
12		서완석	"	영남의대 신경정신외학과	
13		방필영	"	곽병원 신경정신외학과	

연번	과제구분	성명	역할	소속	비고
14		김창윤	공동연구원	영남의대 산업의학과	
15		사공준	"	영남의대 산업의학과	
16		임부돌	"	경북대학교건강증진연구소	
17		천병렬	"	경북의대 예방의학과	
18	제2 세부과제	임현술	세부과제책임자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19		정철	공동연구원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20		양재호	연구원	대구가톨릭 약리학교실	
21		허용	"	대구가톨릭 산업보건학	
22		신동훈	"	계명의대 예방의학교실	
23		민영선	연구보조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24		이현교	"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25		문설희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26	제3 세부과제	김병익	세부과제책임자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27		김민균	선임연구원	"	
28		사영삼	주임기술원	"	
29		최우건	위촉연구원	"	
30		박진호	"	"	

2004년 2월 6일 경북대학교병원 10층 대강당에서 부상자 및 가족 80여명과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대다수의 부상자들이 연구용역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였으나, 평생진료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못한 일부 부상자들의 반발로 건강검진 일자와 검진병원

은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구체적 일정은 2차 설명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2차 설명회는 3월 4일 개최되어 37명이 연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3월 23일부터 건강검진이 시작되었다. 이후 연구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부상자들을 위하여 3차례의 추가 설명회¹⁾를 개최함으로써 123명의 부상자가 연구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2004년 12월 21일에는 연구사업 1차년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상자 123명에 대한 임상검진 및 심층 면접조사 실시현황, 만성적 건강장애 추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시료 확보상황, 다이옥신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수행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라. 진료기금 운용·관리

손해보상시 포함되지 않은 유독물질로 인한 만성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하여 3,550백만원²⁾의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 만성후유증 진료비를 전출시켜 관리할 것을 행정자치부 및 대구시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였으나, 기금운용 체제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 계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 2월 5일 조례 제정방침을 정하고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부상자단체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시민여론은 정기 건강검진 실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모든 질병에 대한 평생진료, 연금지급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부상자측에서도 후유증 조기발견과 예방차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비롯한 9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제정 목적과 배치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례안에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04년 5월 31일 공포하게 되었다.

1) 설명회는 총 5회가 개최되었다. 제1차 설명회시 병원10층 대강당은 “폐쇄공포”를 느끼는 부상자가 많아서 부적절하다는 부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2차 설명회부터는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의실이 설명회장소로 활용되었다.

2) 당초 대구시에서는 만성후유증진료비로 16,34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는 기금규모를 지방비 포함 3,550백만원으로 확정하였다.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지하철화재사고(이하 “화재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자들의 만성후유장애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관리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대구광역시의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사고 부상자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재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된 부상자의 진료비
2. 기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후유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비 등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보건과 약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5조(진료비 지급대상자 결정 등) ①화재사고 부상자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료비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되, 심의시에는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관리를위한연구용역사업”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요양기관의 지정 등) ①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부상자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관은 시내 소재 의료기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시외 소재 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다.

②시외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상자나 그 대리인이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 지급)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부상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되, 그 진료비는 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상자 단체와 시가 관련 학회에서 전문지식과 연구업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 받아 선임한 자
2. 부상자측을 대표하는 자 2인
3.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1인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진료비 지급대상자 결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6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보건과장이 간사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제15조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1인, 부상자측 대표 2인, 부상자측 추천 관련학회 전문가 5인, 대구시 추천 관련학회 전문가 5인 등 13인의 위촉직과 2인의 당연직 등 1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정하였다.

2004년 9월 16일 대구시장이 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0월 5일 개최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경북대학교 정태훈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4년도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였다.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직 위	성 명	소속·직위	비 고
위 원 장	조 기 현	대구시 행정부시장	당연직
부위원장	정 태 훈	경북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 원	김 옥 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직
"	김 정 범	계명대학교 교수	위촉직
"	빅 종 열	부상자측 대표	"
"	백 남 원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	송 달 원	계명대학교 교수	"
"	양 재 호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
"	이 동 우	부상자측 대표	"
"	이 종 태	인제대학교 교수	"
"	임 규 옥	법무법인아성 변호사	"
"	임 현 술	동국대학교 교수	"
"	천 병 렬	경북대학교 교수	"
"	최 홍 식	연세대학교 교수	"
"	허 용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

2004년 12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 받아 12월 29일에 기금예치은행을 우리은행 대구지점으로 결정하고, 12월 31일에 기금을 전출하여 관리하고 있다.

第4節 物的被害 調査

1. 피해신고·접수

지하철 화재사고로 중앙로역 구내와 중앙로역과 연결된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출입구 부근의 지상상가 등에서 각종 광고물과 상품, 비품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들이 2월 19일부터 개별적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엄청난 인명피해로 전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곧 바로 물적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2월 24일경부터 피해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피해신고를 함에 따라 공식적인 피해신고 및 접수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대책본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물적피해를 접수하다가 이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관련 피해접수 공고」를 3월 6일 일간신문(매일신문, 대구일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 및 중앙 지하상가 등 10개소에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 신고대상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 따른 물적피해
- 접수기간 : 2003. 3. 7 ~ 3. 20(14일간)
- 접수장소 : 대구지하철화재사고대책본부 대외협력반
- 피해지역의 범위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관련 피해 발생지역
- 보상절차 : 물적피해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손해사정인의 사정 후에 대구지하철화재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을 실시

그러나 이용객의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 등 간접 피해신고 접수여부와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피해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사고대책본부의 근무자들이 3교대 전일근무를 하고 있

어 근무자들이 매일 교체됨에 따라 간접피해와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 외의 피해신고를 거부한 근무자와 이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근무자가 있는 등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접피해 신고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 외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많은 민원도 야기되었다. 그리고 신고자들도 피해신고 접수후 인접 상가의 신고내용을 비교한 후 처음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여 추가 신고하는 사례와 이중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물적피해 신고는 총 21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이중 또는 추가 신고한 41건을 제외한 174건 8,340,213천원이 유효한 신고였다. 이들 피해신고자들의 대부분은 중앙로역사내의 광고업체, 각종 편의시설 임대업체, 중앙로역사와 연결된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의 입주점포, 중앙로역사 출입구 부근의 지상 점포의 영업주들이다.

구역별 피해신고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중앙지하상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구내	지 상	기 타
건 수	174	95	13	47	16	3
금 액	8,340,213	4,274,379	464,085	2,870,682	684,349	46,718

가. 중앙지하상가 및 경남프라자

중앙지하상가와 경남프라자는 지하철 중앙로역사와 바로 연결된 지하상가로서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는 각종 의류, 식품류, 신발류, 카메라, 시계, 귀금속, 안경, 액자, 가방, 모자, 조화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경남프라자는 대부분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화재로 인한 매연, 악취 등이 통로 및 환풍구를 통하여 유입되어

장기간 상가내부에 잔류함으로써 진열된 물품과 비품 등에 오손이 있어 피해를 신고하였으며, 지하철 운행중단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중앙로역사 내·외에서 거행된 각종 추모행사 등으로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신고는 중앙지하상가에서 95건 4,274,379천원, 경남프라자에서 13건 464,085천원을 신고하였다.

나. 지하철 중앙로역 구내

지하철 중앙로역 구내의 피해자들은 대구지하철공사와 시설물 임대차 계약자이며, 화재시 고온과 매연 등으로 피해물품들이 대부분 오손되었고,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전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47건 2,870,682천원의 피해를 신고하였다.

다. 중앙로역 주변 지상상가 등

중앙로역 출입구 주변 지상의 상가는 화재시 출입구를 통하여 뿔어져 나온 매연, 악취, 열기가 상가로 유입되면서 상품과 비품이 오손되었고, 일부는 간판이 오손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재난수습을 위하여 투입된 소방관들에게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함으로써 매연과 악취의 유입이 많았다.

이 지역도 장기간의 지하철 운행중단과 중앙로(중앙네거리~대구역)의 교통통제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16건 684,349천원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전동차 화재발생시 상의를 벗어 불을 끄다가 지갑을 분실하여 신고한 사례, 지하철 대구역사내에 진열된 중국공예 미술품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신고한 사례, 시민회관 대관취소로 사전에 준비된 공연을 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 등 3건 46,718천원도 신고하였다.

2. 피해조사

신고된 피해물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피해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고 15일이 경과된 후 조사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중앙지하상가, 경남프라자 및 중앙로역 주변 지상상가의 상품이 피해상태로 보존된 것이 드물어 피해조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피해조사는 사고수습대책본부 대외협력반 근무자와 피해신고자가 입회하고, 손해평가사정인이 피해신고한 장소를 일일이 확인,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4월 11일 조사를 완료하였다.

중앙지하상가, 경남프라자 지하상가 및 중앙로역 주변 지상상가는 상가별로 그 피해신고액이 각기 다르며, 또한 직접손해 외에 간접손해인 영업손실 부분을 신고한 경우가 많았으나, 비품수리비의 과다신고와 상품의 매입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린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중앙로역 지하에는 편의시설인 매점과 자동판매기, 광고용 시설물 등이 있었으나 화재시 화염 등으로 인하여 천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피해가 큰 지역으로 광고용 시설물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철재시설물도 외형이 변형될 정도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서 대부분 전소되어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第5節 被害者 金融支援

1. 금융지원상담센터 운영

지하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유가족, 기업 및 점포에 대한 대구시,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생명보험협회, 시중은행(대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등)에서 기관별로 각각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금융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2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민회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구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한 곳에서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였다.

주요기능으로는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금융지원 안내·상담, 보험가입 조회(사망자 및 생존자에 대한 보험가입여부 조회·통지),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예금, 대출, 보증, 증권, 신용카드 등), 보험관련 상담 등이다. 기관별 금융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았다.

기관별 금융지원제도

기 관 명	항 목	지 원 내 용
대구광역시	경영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점포 • 업체대표자 사상 등으로 장기간 경영에 차질이 있는 업체 ○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 융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리 : 대출금리의 4% 이차보전 • 융자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기 관 명	항 목	지 원 내 용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점포 • 업체대표자 사상 등으로 장기간 경영에 차질이 있는 업체 ○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 융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리 : 연 3.0%(변동금리)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대구은행	경영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피해 기업 및 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 융자금리 : 연 4.5% • 융자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 간접피해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한도 : 최고 5천만원이내 • 융자금리 : 5.7%(변동금리) • 융자기간 : 1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피해 기업 및 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 융자금리 : 연 3.0%(변동금리)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피해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액 : 2천만원 범위내 • 대출금리 : 연 4.5%(확정금리) • 대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증 신용, 보상금 수령시 상환 - 피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협중앙회	생활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인명사고(사망·부상) • 대출한도 : 2천만원이내 • 대출금리 : 연 4.5%(확정금리) • 대출조건 : 무보증 신용

기 관 명	항 목	지 원 내 용
농협중앙회	피해복구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 금액내 • 대출금리 : 연 4.5%(확정금리) • 대출조건 : 신용보증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대출금리 0.5% 우대 적용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실종자에 대해 각 금융기관 거래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 및 제적등본 -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가족 - 직계가족외 신청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카드사용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에 대해 카드사용 중지 요청(카드사별)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특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 상가 등의 물적피해 기업 • 보증한도 : 최고 5천만원(피해금액 범위내) • 보증료율 : 1% → 0.1%(보증료 0.9% 인하) • 연대 보증인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입보대상(경영실권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는 경우)의 경우에만 연대입보 - 기타는 생략
생명보험협회	보험가입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관련 사망자·부상자 대상 ○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피해 중소기업(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한도 : 최고 5천만원이내 • 융자금리 : 4.5% • 융자기간 : 1년

2. 지원실적

3월 13일 오후 3시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소방본부 5층)에서 금융지원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국세청,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안정자금 이자는 1%로 검토(대구시와 금융기관간 협의)
- 부상자 가족에 대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대구시)
- 지하철사고 관련 간접피해업체 지원방안 강구
-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망확인 또는 인정사망 확정시 추진

특히,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실종·사망자 유가족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중앙특별지원단장은 4월 6일, 4월 7일 대구시장과 협의하여 사망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대구지역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이 지역 중소기업과 중앙로역 인근 피해상가에 대한 금융지원도 시급하였다. 이에 중앙특별지원단은 신용보증채와 협의하여 3월 31일부터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을 시행하였다.

금융지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형별 상담실적은 총 174건으로 사망자 상담 21건, 실종자 상담 58건, 부상자 상담 13건, 기타(금융조회 등) 82건으로 금융지원 실적은 총 89건 3,203백만원으로써 피해기업 및 점포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75건 2,943백만원, 피해자의 가계생활안정자금 14건 260백만원이었다.

또한, 기관별 금융지원상담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된 지원내용은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추천 75건 2,943백만원,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중앙회) 가계생활안정자금 추천 14건 260백만원,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 조회 44건, 카드발급사용정지 요청 41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실적은 대구광역시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의 추천을 받은 63개업체 1,993백만원이다.

第6節 民心收拾 活動

1. 지역사회의 동요

가. 지역민심

미증유의 사태를 맞은 대구는 이 지역을 오랫동안 지탱해 온 공동선, 가치관, 도덕률의 붕괴와 절망감으로 크게 술렁거렸다. 특히 짧은 지하철 역사에도 불구하고 8년의 간격을 두고 연이어 터진 대형참사로 대구시민이 받은 충격과 좌절감은 대단한 것이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참사는 화재(火災)가 아닌 인재(人災)요, 방화(放火)가 아닌 방종(放縱)과 방관(傍觀)과 방심(放心)의 재앙이요 저주다.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는 가장 핵심적 사태는 그러한 안전을 위한 물리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리적 조건을 운영하고 있는 인간들의 대처능력, 생명의 존엄성 앞에 하시(何時)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도덕성의 상실, 그리고 모든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간들의 무책임성에 있다.”³⁾라고 하는 등 언론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시스템 이전에 사람의 문제이며 인간 방종이 빚은 결과라고 진단하였다.

어떤 사고든 사람의 실수와 무능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이번 사고는 어처구니없는 방화로부터 최악의 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지하철 운용자의 무책임한 행위 등에서 사람의 문제가 특히 돋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이심전심으로 확산되어 “선비의 고장이 하루아침에 사고의 고장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비분한 감정이 들고, 피해지역에 거주한다는 자체가 모두 용의자라는 생각이 들어 수치심과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⁴⁾, “사회

3) 문화일보(2003.2.20)

4) 대구신문(2003.2.21)

각계각층에 걸출한 인물을 수도 없이 배출했다는 자긍심이 안전사고 다발지역 거주자라는 자괴심으로 바뀌었다.”⁵⁾는 자기고백이 속출했다.

한마디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인간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실망을 낳았고, 이것은 80년대 이후 침체 분위기에 젖어있던 지역정서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 가닥 남아 있던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긍지마저 빼앗아 갔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하철 화재사고가 시민정서에 심각한 상흔을 남기는 등 파장이 깊은 만큼, 이번 사고로부터 역사적 교훈과 시대적 과제를 읽어내고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기원하는 움직임 또한 활발했다.

지역언론은 기고문과 사설, 시론 등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그러나 잊지는 말자’는 교훈을 되새기며 오늘의 슬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날 것을 주문하였고, 노회찬 대구상의회장 등 지역의 경제 원로들도 지역경제 회복과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자로 나섰다. 많은 사회·경제단체들은 앞다투어 ‘제도약을 위한 시민 결집’을 호소했다.

한편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20여 일만에 희생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 달리 사고에 대한 기억을 빠르게 잊어 가는 무심한 세태와 ‘참사성금’ 모금에 인색한 대구지역 기업들의 분위기를 꼬집는 보도도 있었다.

언론은 대구시가 U대회와 대외 신인도를 들먹이며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 복구치중을 강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당수 시민들도 이 같은 논리에 동조하여 “2.18 비극을 벌써 잊었는지 추모의 발길마저 뜸해지고 있다”⁶⁾고 했고, 대구지역 기업들이 역외기업보다 지하철성금 모금에 인색하다며 “힘들 땐 도와달라더니 큰일이 터지니까 외면하기 바쁘다”⁷⁾고 지역기업의 처신을 힐난하기도 했다.

5) 중앙일보(2003.3.17)

6) 영남일보(2003.3.10)

7) 매일경제(2003.3.4)

언론에 비친 지역사회의 모습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지역사회 동요	동아일보	2.20	○ “너무 어이없어” 통곡의 대구
	대구신문	2.21	○ 대구시민 정신적 공동화, 가치관 대혼란
	조선일보	2.24	○ 대구는 눈물의 바다였다
	매일신문	2.28	○ 시민들 정신적 공황 빠져
	조선일보	3. 5	○ “지금 대구는 심리적 공황상태”-국무회의
	매일신문	3. 5	○ 조문객 발길 줄고 영정만 쓸쓸히...
	영남일보	3.10	○ ‘이젠 덮자’ 이해 못할 논리 확산 ○ 벌써 잊혀지나...3차 추모대회 열기 시들
	대구일보	3.11	○ 대구 심리적 공황 치유 시급
	중앙일보	3.17	○ 대구 거리 곳곳 ‘근조’...“고립된 섬 같아요(르포)
	매일신문	3.17	○ 심리적 공황...경기 위축 가속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캠페인	매일신문	2.24	○ 무뚝뚝한 대구인은 옛말, 봉사신청 몰려
	조선일보	2.26	○ 슬픔 속 용기 심는 ‘온정행렬’
	대구신문	3. 7	○ 시민정신 승화로 사고수습 마무리
	한국일보	3. 7	○ “대구여 일어나소서” 문화계 추모행사 잇달아
	영남일보	3. 8	○ 대구는 기죽지 않는다(영남시론)
	매일신문	3.14	○ 대구 살릴 길을 찾아야 한다(특별기고)
	조선일보	3.18	○ 대구여! 다시 일어서자(기고)
	동아일보	3.18	○ ‘대구의 마음’을 보듬어 안자(사설)
	대구일보	5. 1	○ 이젠 아픔 딛고 일어설때, ‘대구 자존심’회복을
	영남일보	5. 1	○ “대구 희생 힘모으자”, 경제계·검찰 침체분위기 쇄신
	대구일보	5. 3	○ 지역경제계 원로들 ‘대구 참사’중재 나섰다
	영남일보	5.28	○ 지하철참사 100일...고통 딛고 일어서야(사설)

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지역경제의 침체와 국제행사 차질을 우려하는 보도도 잇따랐다. 언론은 사고직후부터 대구 이미지 추락에 따른 외국인과 역외 투자자들의 투자기피, 2003하계유니버시아드, 국제섬유박람회 등 국제행사의 차질, 중앙로역 인근 도심상권의 위축, 역내업체의 수출 및 관광객 감소 등을 들며 지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암울하게 그렸다.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중앙로역 인근 상인들은 중앙로 차량통제와 잦은 희생자 추모행사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달동안 집회신고를 내고 「상가 및 주민수호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행행사에 나서 우려했던 도심상권 위축이 우려만이 아닌 현실의 문제임을 반증했다.

그러나 지하철 화재사고로 고통과 슬픔, 좌절에 빠진 대구시민에게 2003하계유니버시아드는 준비된 하늘의 선물이었으며, ‘공동체 붕괴의 절대 위기’에 빠진 대구를 건져낸 ‘재도약의 기회’ 구실을 톡톡히 했다.

많은 사람들이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반신반의했지만, 온 시민이 하나로 결집하여 “외형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실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했다⁸⁾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무너진 ‘대구의 자존심’ 회복은 물론, 전 세계에 ‘선진 시민의식’을 선포는 계기가 된 것이다. 200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자칫 무너져 내릴 위기에 봉착한 대구시민에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한편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이 되는 등 지역발전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지역경제 관련 언론보도 주요내용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국제행사·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	대구신문	2.19	○ 지하철...“경제까지 불 몰고 간다”
	매일신문	2.19	○ 롯데 대구점 오픈 연기, 지하철참사 유통가 ‘불똥’ ○ 대구 이미지 실추...U대회 ‘먹구름’
	대한매일	2.21	○ 지하철참사 대구 지역경제 ‘휘청’

8) 한겨레(2003.9.1)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국제행사·지역경제에 대한 우려	CBS,조선	2.24	○ 지하철참사 U대회 등 국제행사 차질 우려
	한 겨 레	2.25	○ 국제행사·시민주 차질 우려, 관심밖으로 밀려나
	매일신문	2.25	○ 지역 스포츠계, 지하철참사 ‘불똥’ 20여 개국 U대회 우려 메시지
	대구일보	2.26	○ 대구FC공모장 ‘썰렁’, 지하철참사로 시민발길 뚝
	매일신문	2.28	○ 경제적 손실 7천억, 도시 신뢰 추락...국제행사 차질
	KBS,경향	3. 6	○ 국제행사도 잇단 차질 불가피, 일부국가 ‘불참’ 표명
	TBC,한국	3.6/10	○ 대구U대회도 ‘침울’, 관광객 ‘6천억 효과’ 타격 우려
	조선일보	3.10	○ 얼어 붙은 경기...“일할 곳이 없다”
	KBS,영남	3.19	○ 이라크전 중동수출 ‘직격탄’, 지역경제계 ‘초비상’
	한국경제	5.29	○ 대구경제 추락...바닥이 안보인다.
경제살리기 및 U대회 성공개최	KBS,경북	3.7/8	○ U대회 성공예감, 참사 불구 163개국 참가의향서
	조선일보	3.11	○ U대회 사상 최대규모 전망, 애도 속 참가신청 잇따라
	KBS,영남	3.7/14	○ U대회 성공개최 ‘파란 불’, 범정부 차원 지원
	대구,TBC	3.15/20	○ 정부, 지역경제 회생 앞장, 대구서 관계장관회의
	세계일보	8.20	○ 달구벌 ‘젊음의 축제’ 막오른다, 역대최대 170 개국 참가
	대구신문	9. 1	○ U대회 대구도약의 전기 마련(사설)
	경북일보	9. 1	○ U성공 후폭풍...대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대구일보	9. 1	○ 성공적 대회...대구가 도약, 경제효과 1조3천8 백억원
중앙로인근 상가 동향	한 겨 레	9. 1	○ 온 세계에 하나된 꿈, 대구시민엔 자긍심 ‘선물’ 지하철참사 아픔 딛고 선 시민의식
	대구신문	3. 8	○ 중앙로역 차량통제 상인들 ‘울상’
	TBC,영남	3.22	○ “생계위협 더 못참아”, ‘상가·주민수호대회’ 개최
	매일신문	3.24	○ “영업 대타격...생존권 위협” ‘통행재개’ 촉구결의
	동아일보	3.24	○ 유족-상인 마찰 조짐, “추모집회 장기화로 생업지장”
	KBS, 대구일보	3.28	○ ‘차량통행 즉각 재개하라’, 상권회복결의대회
	대구신문	3.28	○ “초상집서 돌잔치하나”, 상권회복결의대회 비판
	TBC,경향	3.29	○ 대구 중앙로 통행재개 논란, 희생자대책위-상인
	KBS,MBC 대구일보	4.10	○ 중앙로 41일만에 차량 완전 통행 동성로상가번영회, ‘지하철 희생자 진혼제’ 개최

2. 담화문 및 간담회

대구는 사고직후 중앙로역 인근 우리은행 앞에 사고수습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에 나섰으며, 이 날(2.18) 오후에 시장이 내·외신 언론을 대상으로 사고개요 및 수습방향에 대한 첫 기자회견을 하고, 이튿날에는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대구시장은 사고초기 현장 출동시부터 공보관으로 하여금 사고수습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유족이나 실종자 가족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유언비어 예방을 위해 언론의 인터뷰에 적극 대응토록 지시하였다.

대구는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 원활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위하여 사고대책본부에 공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사고대책본부와 중앙특별지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사고수습 유관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연락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담화문 발표

1)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담화문

대구는 사고발생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2월 19일 지역사회의 조기 안정과 원만한 사태 수습을 위하여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시장 명의의 담화문을 지역 5개 일간지(매일, 영남, 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일보)에 발표하였다.

담화문 내용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2월 18일 오전 10시경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건을 접하며 놀라움과 슬픔을 금할 수 없으며,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께 삼가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장애자에 의한 방화로 밝혀지고 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용의자를 체포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우리 시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좁고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사망자의 장례문제와 부상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련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운행이 중단된 지하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당국과 함께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방화자를 의법조치하고 향후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구시의 전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의 수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가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2. 19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념

2) 중앙로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과 관련한 사과문

중앙로역 지하공간의 구조물 안전문제로 3월 1일 반월당네거리 ~ 대구역 구간에 내려진 교통통제 조치가 한달 가까이 계속되자 중앙로 및 동성로 일대 상인들은 영업손실에 따른 생계위협을 이유로 차량통행 재개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상인들은 3월 20일 동성로상가번영회장외 157명의 연서로 대구시와 중구청, 국무총리실 등에 차량통행 재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3월 22일에는 오후 3시부터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120여명의 상인이 「상가 및 주민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피해상가 영업손실 보상, 차량통행 재개, 중앙로역 주변 추모집회 금지, 중앙로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월당 네

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와 더불어 상인들은 4월 21일까지 한달간 중앙로역 주변지역에 집회신고를 내는 한편, 3월 27일 오후에도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로·동성로 인접상가 상권회복 및 차량통행재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홍보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언론은 이 같은 상인들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조속한 통행 재개’를 주장하는 상인들과 ‘유족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진단팀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뒤 통행 재개’를 주장하는 희생자대책위원회의 상반된 입장을 부각하며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앙로 차량통행 재개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희생자대책위원회는 중앙로역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희생자대책위원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차량통행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대구시가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3월 31일 석간(매일, 영남) 및 4월 1일 조간(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일보)신문에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사과문 내용

- 중앙로의 장기간 교통통제로 시민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합니다 -

- 지난 2월 18일 지하철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인 중앙로역 지하3층 상층부 구조물이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긴급진단의견에 따라 시 수습대책본부에서는 경찰에 협조 요청하여 3월 1일부터 중앙로(반월당네거리~대구역간) 교통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지하3층의 중앙기둥 28개소에 가받침을 설치하는 안전보강공사를 시행하고 3월 17일 재하시험을 거친 바 있습니다

- 시 수습대책본부는 3월 17일 지하철공사로부터 재하시험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견통보를 받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종 안전진단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통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행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마치 실종자대책위원회측의 사유로 교통재개를 못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점 대책위원회에 깊이 사과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물론 특히 인근상가 및 종사자 여러분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시 수습대책본부에서는 빠른 기간내에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받아 경찰 및 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조속히 통행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지하철참사는 우리시민 모두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희생자 및 그 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사후수습에도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3. 3. 31

대구지하철참사사고수습대책본부장

3) 합동영결식을 마친 후 민심수습을 위한 담화문

추모공원 조성문제로 표류하던 사망자 192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사고 발생 132일만인 6월 29일 오전 10시 대구시민회관 광장에서 유족들과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대구는 합동영결식을 계기로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에 큰 가닥을 잡아 나감에 따라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온 국민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는 한편, 이번 참사가 대구를 안전의 성지로, 세계 속의 선진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시민의 역량 결집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내용

지하철 참사의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섭시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18일은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참사로 인해 무려 3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삼가 그 날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희생자 가족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사 즉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사고수습에 적극 앞장서 주신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 드리며, 전국 각지에서 슬픔을 함께 하며 직접 조문해 주시고 많은 성금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유가족들을 가까이에서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시 전 공무원은 사고의 조기수습은 물론 시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대구시는 사망자의 신원확인 and 부상자의 치료, 지하철 안전운행 등 각 분야별로 중앙정부와 협조하면서 사고수습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29일 사망자 모든 분에 대한 영결식도 거행하여 사고수습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희생자 추모사업, 피해자 보상 등의 문제를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며, 이번 참사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대구를 안전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집단이기주의와 지역간·계층간의 갈등, 세대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보다 수의 논리와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 경기침체와 안보위기에 겹쳐 사회전반의 불안과 경제의 위축 등 국가적 위기를 조성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오랜 기간의 침체로 경제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하위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번 지하철 참사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여러 장애들이 침체를 벗어 던질 기회를 맞았는데도 지역역량을 결집시키고 지역혁신을 가져올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국난 극복과 지역혁신에 앞장서 왔던 위대한 대구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중에서도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제전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바로 당면 과제입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구가 세계 속의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대구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알찬 이정표를 세우고 착실히 매진해야 합니다.

이 지역을 동남권의 연구개발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세계한방바이오산업의 본산으로 육성하고,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를 통한 섬유산업을 도약 발전시키고,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기술선진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희망의 시정 현안들을 달성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역량을 집결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역경을 딛고 우리의 모든 저력을 발휘하여 대구의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시민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그 동안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2003. 7. 1

대구광역시장 조해녕

나. 기자회견 및 간담회

1) 현장상황 1차 브리핑

대구시장은 2월 18일 오후 4시 40분경 현장지휘소 인근 우리은행 3층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사고 상황설명을 위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사고경위와 사고현장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브리핑하였으며, 전동차 내부 피해상황과 사고전동차 견인, 사고상황과 관련한 기자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고, 소방본부장과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상황, 사고차량 운행 등에 관하여 각각 부연설명을 하였다.

기자회견 내용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다. 오늘 아침 9시 55분경 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경위는 방화로 추정되고 방화용의자는 정신병력이 있는 56세의 김대한으로 확인되고 있다. 방화동기는 조사 후 경찰에서 상세히 답변할 것이다.

사고직후 시는 경찰·소방·봉사단체를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하 밀폐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중경상자가 130여명, 사망이 2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전동차 외부는 구조가 완료되었으나, 전동차 내부에 상당수 미확인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가 완전 단전되어 시신상태가 한 사람 한 사람 구별이 어려운 상태다. 검찰지휘를 받아 사고차량을 월배차량 기지로 견인하려고 한다.

다시 한번 시민과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수습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 유족에게는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모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세한 상황은 소방본부장을 통해 말씀드리겠다.

2) 현장상황 2차 브리핑

대구시 소방본부장은 2월 18일 오후 10시 5분경 중구 남일동 우리은행 앞 현장지휘소에서 현장상황에 대한 2차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기자회견 내용

사상자는 20여개 병원에 분산 안치되어 치료중이다. 현재 전동차 객차내 미확인 사체는 7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고 전동차량 중 1대는 월배차량기지로 이송 완료했고, 나머지 1대는 현재 이동중이다.

미확인 사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 검찰,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감식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유전자 감식 등으로 사체를 확인하는데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서는 시민회관 소강당에 설치된 유가족 합동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실종자는 실종자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

3) 대구시장과 실종자 유가족과의 간담회

대구시장은 2월 19일 오전 9시 45분경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한 뒤, 사망자 신원 확인과 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아침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전화를 걸어와 “초기 사고수습은 현 정부의 몫이나 사후수습은 새 정부의 몫이다. 새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합동분향소가 설치되면 곧바로 대구를 방문하여 유가족들과 부상자를 만나고, 사고현장을 둘러볼 계획”임을 밝혔다고 통화내용을 소개했다.⁹⁾

대구시장은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만나 “합동분향소

9) CBS-R(2003.2.19)

는 시민회관 소강당, 유족대기실은 별관 1층 전시실에 설치하는 것이 최적”이라며, 아직까지 소강당에 머무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1층 전시실로 자리를 옮겨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대구시가 실종자 중심의 수습대책을 추진해 줄 것”과 실종자 확인을 위해 “지하철역 CCTV 녹화 테이프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유가족 대표와의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월 20일 오전 8시 20분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대구시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영남대의료원으로 이동한 후 의료원장의 안내로 입원중인 부상자들을 위로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오전 10시 20분 합동분향소에 분향한 후 시민회관 2층 회의실에서 부상자 및 유가족 대표 10여명과 만나 지하철 방재시스템 교체, 장례비 지급, 최대한 보상, 위령탑 건립 등을 건의받고 “실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유족들도 협조해 달라. 보상대책과 관련해 중앙정부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이 “대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종자 수와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종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종자 파악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자 “실종자 확인에 관해서는 대구시와 사고대책본부의 판단이 있겠지만 법의학 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과학기술요원과 조사장비를 총동원해서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고, 그래도 혹시 부족하다면 유족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 실종자를 사망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지하철 운행재개와 관련해서도 “즉각 대책을 세워 운행중단이나 안전진단을 임시로 하고 대구가 중요 국제대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지하철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거쳐 이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¹⁰⁾

10) 매일신문·영남일보(2003.2.20)

5) 대구시장과 유가족 대표와의 간담회(2월 20일)

대구시장은 2월 20일 오후 3시 30분 시민회관 별관 소회의실에서 백승홍 국회의원과 유가족대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고수습대책에 대하여 협의했다.

시장은 대구시가 희생자 장례절차에 최대한 지원할 방침임을 밝히고, 특히 사고 피해자의 공원묘지 안치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구시의 거주자는 안치가 불가능하나 이번 사고피해자의 경우는 안치를 허용해 주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납골당·화장장 수수료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장의차량도 장의조합과 합의하여 정상가격보다 6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장례비용도 기지급된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7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조해녕 대구시장과 유족대표와의 간담회

6) 대구시장과 유가족 대표와의 간담회(2월 21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1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구 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실종자로 신고된 사람들 중 휴대폰 위치 추적결과 지하철 탑승이 확인된 사람이나 기타 객관적인 정황상 사고열차 탑승이 유력한 사람들은 모두 사망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감식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에서도 뼈까지 불타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만큼 반드시 시신이 발견돼야 사망자로 인정하겠다는 태도는 실종자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지하철공사측이 사고당시 탑승객을 430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망자로 추정되는 133명과 부상자 140여명을 제외하면 150여명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유가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린 만큼 법의학적으로 사망자로 인정받아야만 한다”¹¹⁾고 유족들의 이해를 구했다.

7) 시장과 유가족·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와 간담회(2월 23일)

시장은 2월 23일 오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지하철참사 실종자 가족 500여 명과의 간담회에서 “호적법 중 큰 화재나 수난(水亂), 난리 때문에 사망이 분명해도 유체를 찾지 못할 경우 조사기관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사망확정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오는 24일 법원, 검찰, 국과수 등이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사고당시 전동차에 탑승했지만 유체나 유품이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 정황증거로 사망을 인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황증거를 예로 들면 휴대전화 최종 위치 확인이나 지하철역 폐쇄회로 TV화면을 통한 탑승확인,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 관계자 조사 등이 있다.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망인정 기준을 만들고 실종자 가족이 원할 경우 신뢰할만한 법률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하겠다”¹²⁾고 말했다.

11) 영남일보(2003.2.22)

12) 경북일보(2003.2.24)

또 시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구지하철참사시민사회 단체대책위원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지하철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합 의 문 안

1. 지하철 복구 공사는 유족대표들과 합의후 재개한다.
2. 실종신고자의 사망인정제도(호적법 제90조)에 따른 제반조치를 시장이 적극 추진한다.
3. 전동차 제작시방서와 지하철 1·2호선 설계도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보안 상 문제점을 감안하여 대표 수명에게 공개한다.
4. 추가 협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적극 협조한다.

사 고 수 습 대 책 본 부 장 조 해 념
지하철참사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김 중 철

8) 고건 국무총리와 유족대표와의 간담회

고건 국무총리는 2월 27일 취임식을 마치고 마자 오후 6시 20분경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시민회관을 방문하여 희생자 영정에 헌화한 뒤 유가족 대표와 30여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총리는 간담회에서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지원단을 구성, 파견하고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억울한 유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하면서 사고책임문제는 사고수습 이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사태를 원만하게 풀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대표들은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시장이 주관하는 대책본부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실종자인정심사위원회도 관계기관과 유가족들이 동수로 위원을 추천,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건 총리는 3월 20일 대구에서 개최한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귀경길에 K-2공군비행장 귀빈실에서 오후 1시 15분부터 30여분간 희생자가족대책위원장, 시민단체대책위원 4명을 면담하고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들은 실종자 선 포괄 사망 인정, 부상자 평생진료 보장,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운행 중지 및 중앙로역 완벽 건설, 지하철 화재참사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범국민 추모행사 개최, 추모사업추진위원회와 성금운용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였다.



고건 국무총리와 유족대표와의 간담회

9) 중앙특별지원단장과 기자간담회

김중앙 중앙특별지원단장은 지원단 활동 개시와 함께 합동분향소 분향 및 유족대표를 면담한 후 3월 1일 오후 5시 50분부터 15분간 시민회관 별관 3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특별지원단

의 구성과 활동방향, 대구시와의 관계, 인정사망심사위 구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기자간담회 내용

“중앙특별지원단은 행자부 2명, 보건복지부 1명, 건교부 1명, 법무부 1명, 경찰청 1명 등 5개부처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8일 사고 발생 후 현재 까지 열흘이 넘도록 매듭지어지지 못한 유가족의 문제, 실체적 진실 규명, 보상, 실종자 가족처리, 인정사망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상주 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중앙건의 사항 등의 원만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 중앙특별지원단의 활동방향은?
- ＝ 사망자, 부상자 보상, 실종자 인정사망 등의 처리에 중점을 두고,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 － 대구시와 중앙특별지원단의 역할 분담은?
- ＝ 중앙특별지원단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임무로 파견된 것이므로 지역에 서 해결 못하는 사항 해결에 노력하겠다.
- － 유족측에 대한 공식창구는?
- ＝ 특별지원단에서 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 － 앞으로 사고수습에서 대구시는 제외되나?
- ＝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대구시에서 계속 처리하고, 중앙특별지원 단은 대구시에서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 － 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 ＝ 행정사항, 분위기 등 파악한 후 유족측 대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
- － 지하철 관련 각종 의혹은 어떻게 처리하나?
- ＝ 대검차원에서 경찰청, 법무부 합동으로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 － 정례적으로 브리핑할 계획이 있나?
- ＝ 진행상황을 설명하겠다. 세부적인 사항은 차차 마련하겠다.

10) 소방본부장과 유가족과의 간담회

대구시 소방본부장은 3월 14일 오후 7시 사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시민회관 별관 4층)에서 유가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방본부장은 지하철 화재사고 당시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상황, 지하상가 방화셔터의 구조상 의문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유족들은 방화셔터 설치의 적법성을 따지고 설계도면과 지하철 화재 진압시 비디오 촬영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방화셔터 작동관련 수사를 촉구하며 시장, 지하철공사 사장, 대현실업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11) 국회 보건복지특별소위와 부상자·유가족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지하철참사대책특별소위원회 소속 이원형(위원장), 박시균, 김명섭 의원은 3월 25일 오전 10시경 합동분향소에 들러 헌화·분향한 뒤 10시 50분부터 시민회관 별관 5층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과 2층 접견실에서 부상자 및 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부상자가족대책위원들은 부상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가차원의 평생 진료권 보장, 전동차 화재 모의실험 실시, 충분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였고, 희생자가족대책위원들은 희생자의 원만한 처리, 사고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대책 없는 지하철 불법 운행 즉시 중단, 전매청 부지내 추모공원 조성 등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형 위원장은 “부상자 문제는 보건복지위 관련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부상자측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동차 화재 모의실험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시”할 것이나, “보상문제는 대구시가 보상주체인 만큼 지원에 한계가 있다”¹³⁾고 말했다.

12) 지하철의 운행여부 관련 민·관·정 간담회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대구시장, 한나라당 백승홍·안

13) 영남일보·경북일보(2003.3.26)

택수의원과 민주당 박상희의원, 김영창 지하철공사사장 직무대행, 정수일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관련 교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하철의 운행여부 관련 민·관·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교부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운전·전기·차량·통신·토목·건축 등 6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한 안전실태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17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휴대용 무전기 설치방안 등 10건은 연구 검토과제로 선정해 건교부 안전기획단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하철운행을 중단할 만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은 “이번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차량 내장재와 비상조명 설계, 환풍기 작동여부, 소화전 설비점검, 열감지기센서 작동여부, 내연설계 여부 등 소방안전과 관련된 점검이 없었다”며, 조사결과 발표를 철회하고 대구시가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수일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은 “최근 안전점검 결과는 점검시점에서 지하철의 안전운행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건교부 안전실태점검이 종합점검으로는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기존 35개 이외 항목에 대해 대구시 주도로 추가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구시장은 “다수편익과 안정성 문제를 두 축으로 전문가를 통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구지하철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간담회 후 건교부와 대구시, 대구지하철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했다.

대구지하철안전진단관련 공동보도문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중앙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2003. 3. 19(수) ~ 3. 25(화) 7일간 안전운행과 관련한 각종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점검은 내부적으로 정한 35개 점검사항을 8명의 전문가가 확인하였고 그 결과 지하철 운영을 중단할만한 긴급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2003년 4월 1일 대구시 주관 관련 전문가회의 토론 결과

- (1) 대구참사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차량 내장재의 불연성 등 안전성 문제는 이번 점검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 (2) 그 외 역사 설비, 전동차 및 방화설비 등에 대한 문제도 아래와 같은 부분은 점검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① 역사내 화재에 대한 연기감지기 오작동 여부
 - ② 비상조명 설계 및 시공상의 적정성 여부
 - ③ 비상유도등 설계 및 시공상의 적정성 여부
 - ④ 소화전 설비 적정 시공 및 운영 여부
 - ⑤ 환풍기 작동 여부
 - ⑥ 스프링클러 적정시공 및 작동 여부
 - ⑦ 배연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
 - ⑧ 전동차 회로의 내연, 절연, 내화피복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 ⑨ 역사 출입로 폭 등의 시공 적정성 여부
 - ⑩ 비상대응 체계상의 적정성 여부(재난 응급체계 및 구호체계, 소방체계 등)
 - ⑪ 기타 방재 및 화재 관련 체계상의 문제점들
- (3) 지하철 안전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의 문제
 - ① 역 상주인원의 적정성 여부
 - ② 1인 승무제 운영의 안전성 문제
 - ③ 교육원 폐지에 따른 각종 교육 미비의 문제
- (4) 1호선 차량 주문 사양서의 안전수준에 대한 검토 및 기능개선 여부에 대한 사항 등
- (5) 이번 점검결과는 대형참사에 따른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점검으로는 미흡합니다.
- (6) 건설교통부는 대구시가 전문가, 시민, 유족대표 등이 참여한 종합안전점검단을 구성, 지하철 1호선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안전개선대책을 마련할 때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대구지하철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
대구광역시 교통국장

13) 지하철 화재사고 조기수습방안 발표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희생자 합동영결식과 보상 문제 등 주요사안에 대해 희생자대책위원회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업무가 답보상태에 머물자, 대구시는 사고수습의 가닥을 잡아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4월 22일 11:00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행정부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부시장은 “사고대책본부의 기능을 보강, 희생자대책위원회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 그 동안 대구시가 행정의 미숙함을 보여준 데 대해 유족들은 물론 대구시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 또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추모공원 조성에 합의해 주는 등 혼선을 빚어 유가족들이 이를 믿고 기대를 갖게 해 송구스럽다”고 밝힌 후 「지하철 화재사고 조기수습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조기수습 방안

I. 합동장례식

- 합동장례식은 지난 4월 12일 국과수로부터 명단 통보된(현 월배차량기지 안치시신) 신원확인 사망자 중 시신인수 대상자가 확정된 후에 치를 계획임.
 - 지난 4월 18일 대책위원회와의 회의에서
 - ① 개별 신원확인·화장하여 납골당 안치 후 추모묘역 안치하는 안
 - ② 신원확인 후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추후 추모묘역에 안치하는 안
 - ③ 신원확인 후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하였다가 추모묘역에 안치하는 안 등 3가지 장례방법이 논의되었으나, 이중 ②안과 같이 유족측에서 신원확인 후 냉동고에 보관한 채로 장례를 치르는 방식은 우리의 전통장례 관습상 시신을 매장, 화장하지 않는 장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시에서는 수용하기가 불가능함.
- 따라서 위 장례방법이 ①안 또는 ③안으로 원만히 협의된다면 합동장례식은 대구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와 희생자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치를 계획임.

II. 보상원칙 및 방향

- 유가족과의 장제비 지급 및 보상금 협의는 검찰지휘하에 시신을 인수 받아 매장 또는 화장의 장례절차를 완료한 유가족부터 착수할 계획임.
- 통상보상금은 법적 손해배상액과 특별위로금으로 구성됨.
법적 손해배상액 산정은 양측의 협의에 따라 각각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을 선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나이, 직업, 월소득 등)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양측의 손해사정액에 차이가 있으면 협의에 의해 조정됨.
특별위로금은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타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유가족 및 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만, 사망자의 특별위로금은 차등지급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부상자의 경우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협의를 거쳐 특별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해당사자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금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협의대표단 구성시 이해당사자(시측, 유족측, 부상자측)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시 「전체보상협상체」 또는 가칭 「협상중재단」 구성에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또한 법적인 보상금 수령권자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000조~제1004조에서 규정한 법정상속인 상속순위를 적용토록 하겠음.

※ 민법상 보상금 수령권자 우선순위(민법 제1000조~제1004조)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국 가 : 위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국가 귀속

14) 대구시장 기자간담회(5월 27일)

대구시장은 5월 27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100일째를 맞은 지하철 화재사고에 대한 소회와 향후 수습대책에 대하여 피력했다.

시장은 사고발생 후 참사현장을 둘러보고는 “희생된 영혼들이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해 3일 동안 물만 마셨다”면서 “지하철 화재사고

는 대구시가 당연히 책임져야할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딛고 일어서 대구가 도약해야만 하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모공원 조성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대공원부지는 공원구역인데다 주민 반대가 있고 공원조성 비용도 시민에게 부담지우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구 시립공원 묘역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퇴진 요구와 관련해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도 들었다. 그러나 시장직을 훌훌 털고 물러나면 내 마음은 가벼워지겠지만 책임있는 민선단체장의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원만한 사고수습과 시정에 계속 전념할 뜻을 내비쳤다.

대구시장은 “참사 이후 시장이 제일 큰 상주(喪主)라는 생각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해 왔으나, 200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대구시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¹⁴⁾고 각오를 다졌다.

기자간담회 내용

- － 추모사업은 어떻게 돼가나?
- ＝ 시민들의 재난체험과 교육기능을 맡을 안전교육장과 위령탑의 경우 시가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추모묘역인데, (추모사업위원회가 선정한) 대구대공원은 공원구역이라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원구역 밖이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렵다. 또 추모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 －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시장퇴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 ＝ 도의적 책임과 민선시장으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고심했고 주변과 의논도 많이 했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수긍하지만 시장으로서 형사고발까지 당해 참담한 심정이다. 훌훌 털고 물러나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관임시대와 달리 민선시장은 시정을 끌어갈 책임이 있다. 온갖 난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4) 조선일보·한겨레·매일신문(2003.5.28)

- － 유족들이 대구시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시가 원칙없이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 ＝ 사고현장을 청소했다는 유족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사고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다른 대형참사와 비교해 볼 때 유족들의 행동이 그렇게 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갈등을 해결하는 매커니즘이 취약하다고 본다. 갈등을 추스르기보다 더 악화시킨 사회전반의 분위기 탓도 있다.
- － 행정부시장이 시내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나?
- ＝ 그래서 행정부시장에게 책임을 물어 교체했다. 당시 김 부시장이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까지 합의해서는 안된다.
- － 북한의 U대회 참가 가능성은?
- ＝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고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어 북한 선수단의 U대회 참가를 자신한다. 북한의 참가에 대비해 숙소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15) 지하철참사 1주년 기자회견

대구광역시는 지하철 화재사고 1주년(2월 18일)을 앞두고 조기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04년 2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하철참사와 관련, 초기에 미숙하게 대처함으로써 시정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차차 안정을 되찾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연구해서 인재든 자연재해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1년간의 사고 수습상황과 지하철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했다.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상황 및 지하철 안전대책

I. 지하철사고 수습상황(생략)

II. 지하철 복구 및 안전운행대책(생략)

1. 중앙로역 복구공사
2. 지하철 종합 안전개선대책

III. 방재·안전 거점도시 구상

〈추진 개요〉

☐ 필요성(당위성)

- 방재·안전 거점도시 육성계획은 대형재난·재해 발생으로 팽배하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적·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간중심의 선진방재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도시-대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됨.

☐ 지역여건

- 한반도 지진 위험성이 가장 큰 양산단층대에 가까이 위치
- 인근에 국가 주요생산기지 구축과 지역간 공간 기능 분담
 - 구미(전자), 대구(IT·섬유), 창원(기계부품), 포항(금속), 울산(정밀화학 등)
- 지역 우수 대학 밀집으로 방재 기술분야 전문인력 배출

☐ 추진내용

- 『소방방재청』 대구 유치
- 『방재테마공원』 조성
- 『방재산업단지』 조성
- 『지역방재연구소』 설립

☐ 향후계획

- 「방재·안전거점도시추진기획단」 구성 : 시, 학계, 경제계 등
- 「치수방재기본계획」 수립시 연계추진 : '04.4 용역발주 예정
- 『방재·안전 거점도시 육성계획』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1. 방재테마공원 조성계획

☐ 조성개요

-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화원유원지 일대
- 부 지 : 271,000평(895,700㎡)
- 내 용 : 학습관, 전시관, 국민안전체험관, 훈련관 등

☐ 추진방향

-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체험시설(안전·방재체험관) 마련
- 안전·방재체험관을 통해 온몸으로 느끼는 시민 교육장화
- 소방박물관, 안전마을 등 과거경험을 통해 미래 재난방지 교육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안전·방재교육 및 체험종합교육으로 시민의식 강화
- 방재종합공원으로 전국학생들의 학습체험 수학여행지로서의 교육적 효과기대
- 급박한 재난상황에 대한 국민 방재교육으로 생명과 재산 보호
- 살아 있는 교재로서 국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Mecca의 중심적 역할

□ 향후계획

- 추진기획단 구성 : 시, 학계, 경제계 등 (방재관련거점도시)
- 조성사업비 확보 : 200억원 국비 지원요청
- 「치수방재기본계획」 수립시 연계추진 : '04.4 용역발주 예정
- 추모사업의 일환인 시민안전교육관 건립은 방재테마공원기본계획과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2. 방재산업단지 조성계획

□ 조성개요

- 위 치 :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일원(개발제한구역)
- 부 지 : 690,000평(2,280,700㎡)
- 방재산업 R&D 지원 정보센터 : 1,000평
- 유 치 : 재난·재해관련 특허·신기술·우수제품 생산업체 유치
-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방재산업단지 조성팀 구성·운영

□ 추진방향

- 정부 방재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 RIS 시범산업 등 R&D(연구·개발)중심산업 기반형성
- 지역대학·대학방재연구소 등 산·학·연과 연계 기술집적도 제고
- 과학적 방재기반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방재산업단지 조성

□ 기대효과

- 첨단산업, IT산업, 기계·섬유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방재EXPO 개최를 통한 국제적 관심유발과 협력도모
 - 방재시스템 시연회, 신기술발표회, 방재관련 기자재 전시 등
- 국가 재해대응역량 강화와 동남아·중동등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향후계획

- 추진기획단구성 : 시, 학계, 경제계 등 (방재관련거점도시)
- 입법중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에 의거 정부가 지원하는 『방재특화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
- 국가공단지정 및 방재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노사분규 없는 공단 조성 지정 요청
- 「치수방재기본계획」 수립시 연계추진 : '04. 4월 용역발주 예정

3. 소방방재청 대구 유치계획

□ 유치개요

-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화원동산(방재테마공원내)
- 부 지 : 연건평 12,000평(40,000㎡)

□ 추진방향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
- 정부기관과 지방간의 연계성 강화로 재난·재해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유치내용

-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 통합
- 재난·재해 최소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 혁신
-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재난관리업무의 기능적·합리적 재조정
 - 중앙정부는 예방중심의 국가방재정책수립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 지자체는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제로 조직 정비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재난관리로 생산적 방재관리행정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기능 강화 및 재난관련사업 육성으로 지역사회발전
- 국가적인 안전사회 구현과 정부기관의 지방분산

□ 향후계획

- 추진기획단 구성 : 시, 학계, 경제계 등 (방재관련 거점도시)
- 정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등이 확정되면
-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추진차원에서 대구에 유치·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

4. 지역방재연구소 설립 추진

□ 설립계획

- 산·학·관을 연계한 재해안전교육·정보센터 연구팀 구성(03. 6월)
- 연구소 건립 : 방재산업단지내
 - 시설면적 : 10,000평정도(33,000m²)중
 - 시설내용 : 방재연구소 및 교육·정보센터

□ 추진방향

- 지역별 재해특성을 고려한 방재과학기술 개발
 - 일본은 Nagaoka 및 Shinjo지역에 폭설피해연구분소 운영 또한, Kyoto 지역의 방재연구소(DPRI) 운영
- 지역방재연구소와 지역대학 방재연구센터의 교류협력으로 연구네트워크 구축
- 방재연구기능 강화로 지역 우수 전문연구인력 양성

□ 기대효과

-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연계된 실용적인 방재연구 기능
- 국가 차원의 방재 연구·개발로 획기적인 예방대책 강구
- 재해·재난 경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축적

□ 향후계획

- 추진기획단 구성 : 시, 학계, 경제계 등 (방재거점도시)
- 입법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에 의거 연구소 설립 및 운영비 연차적 지원 요청
- 「치수방재기본계획」 수립시 연계추진 : '04. 4월 용역발주 예정

5. 국제소방안전엑스포 개최

- 행정자치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초 소방·안전 전시회인 「2004 대구국제소방·안전엑스포」를 오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EXCO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함.
- 6개국 100개사가 참가하는 이번 소방·방재관련 국제전시회 및 전국 소방관대회,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관련산업의 육성과 함께 시민의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방재관련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모습을 세계에 알림으로서 대구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임.

□ 추진배경 및 목적

- 급변하는 사회정세와 안전육구 증대에 발맞춘 종합적 방재기능의 확충과 소방 행정환경 발전에 기여
- 국내외 기업의 최신 소방·방재기기 및 시스템을 전시 소개하여 제품 정보 제공 및 기술교류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진흥
- 2.18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널리 세계에 전파하여 인간중심의 선진적 도시 방재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 촉구
- 지하철사고 다발로 인한 국제적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도시발전의 계기 마련

□ 행사내용

- 기 간 : 2004. 3. 18(목) ~ 3. 21(일) / 4일간
- 장 소 : EXCO 옥내외 전시장, 컨벤션홀
- 주요행사
 - 전시회 : 600부스 1,1601㎡(실내 7,744㎡, 옥외 3,857㎡), 소방장비분야, 화재예방분야, 구조구급분야, 안전관리분야, 도시·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분야
 - 이벤트 : 도전119 체험코너, 구조구급 시범훈련, 소방박물관 운영, 그림그리기대회
 - 부대행사 : 전국소방관련찬대회/대형재난대응사례발표대회, 제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소방과학기술 심포지엄, 화재예방세미나
- 주 최 : 대구광역시
- 주 관 :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
- 후 원 : 행정자치부, 산림청, 조달청, 노동부, 경찰청, 한국소방안전협회, KOTRA,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
- 특별후원 :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점검정비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IV. 자원봉사활동 및 미담사례(생략)

다. 언론 인터뷰 및 대담

대구시는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 주요시점 및 돌출사안 발생시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 방송대담 출연을 통하여 사고상황, 보상대책 및 추모사업, 지하철 복구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시의 입장과 대책을 설명하고, 시민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거듭 사죄의 뜻을 표하며 민심수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언론과의 인터뷰·대담 현황

매 체 명	일시	프로그램명	출연자 (대담자)	내 용
교통방송	2.18 20:00	특집방송	이재욱 공보관	○ 사고경위 및 수습 추진상황
YTN-TV	2.19 09:00	"	"	"
KBS-R	2.19 12:40	박찬숙입니다	"	"
MBC-R	2.19 16:15	지금은 라디오시대 최유라입니다	"	"
제주 MBC-R	2.19 18:15	제주 비전- 열린 이야기	"	"
KBS-R	2.19 18:20	생방송 오늘	"	"
MBC-R	2.19 18:40	라디오특급작전	"	"
KBS-R	2.19 19:10	특집방송	"	"
TBC-TV	2.19 19:40	"	"	"
MBC-R	2.19 20:10	재해 특별방송	"	"
불교방송	2.20 08:45	현장 생방송	"	"
KBS-R	2.20 11:20	사고 특별방송	"	"

매 체 명	일시	프로그램명	출연자 (대담자)	내 용
KBS-TV	2.21 10:07	추적 60분	이재욱 공보관	○ 사고경위 및 수습 추진상황
요미우리 신문(일본)	2.21 10:50	인터뷰	"	"
마이니찌 신문(일본)	2.21 11:25	"	"	"
TBC-R	2.21 18:00	사고 특별방송	"	"
KBS-TV	2.24 11:40	사고 특별방송	"	○ 사고현장 정리 관련
NHK (일본)	2.25 21:00	인터뷰	"	○ 사고수습 전반(국과수 활동)
MBC-TV	2.26 20:00	사고 특별방송	"	○ 사고수습 전반
MBC-R	2.27 07:35	손석희의 시선집중	"	○ 사고현장 청소, 전동차 이동경위 ○ 실종자 처리대책 등
마이니찌 신문(일본)	2.27	인터뷰	"	○ 사고경위, 수습대책 등
TBC-TV	2.27	인터뷰 (프라임뉴스)	"	○ 실종자 처리 대책
KBS-TV	2.27 12:40	9시 뉴스	"	○ 중앙로역사 통행관련(현장관리)
KBS-R	2.27 12:50	박찬숙입니다.	"	○ 사고경위 및 수습 진행상황
CBS 대구방송	2.28 17:35	라디오 세상읽기	"	"
매일신문	3. 2	긴급 좌담회	김기옥 행정부시장	○ 대구지하철화재사고-원인과 대책
K-TV	3. 3 16:15	인터뷰	이재욱 공보관	○ 사고대처 및 자원봉사 ○ 미담사례 등
매일신문	3. 6	인터뷰	조해녕 시 장	○ 중앙특별지원단 파견 및 시장 퇴진론에 대한 입장
한국일보	3. 7	인터뷰	"	○ 책임사퇴론에 대한 입장 ○ 향후 사태수습방안
KBS-TV	3.14 11:00	화요진단	"	○ 사고원인 및 지하철안전대책 ○ 지하철 재정 개선대책 등

매 체 명	일자	프로그램명	출연자 (대담자)	내 용
KBS2-TV	3.16 11:30	세상의 아침	이재욱 공보관	○지하철사고 향후 수습방안 (실종자 처리 등)
중앙일보	3.18	인터뷰	조해녕 시 장	○유가족과의 불신, 현장훼손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 ○지하철확충사업의 지속여부 등
한 겨 레	3.18	인터뷰	"	○사건 축소·은폐, 현장보존 문제 ○지하철 운행, 사퇴요구에 대한 입장
MBC-TV	5.16 16:00	"대구지하철 참사 그후"	김종환 복지정책과장 외 3명	○합동장례식 및 보상대책 ○추모사업추진상황, 지하철안전대책
SBS-TV	5.22 10:00	그것이 알고싶다	조기현 행정부시장	○참사후 지하철안전대책 ○대구시민에게 당부 말씀
MBC-TV	5.26 14:00	아주 특별한 아침	이재욱 공보관	○지하철참사 100일을 맞이한 시점 에서 수습관련 추진상황
TBC-TV	5.27 10:50	뉴스 인터뷰	조기현 행정부시장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시 입장
SBS-TV	5.27 15:00	생방송 모닝와이드	유승경 교통정책과장	○진행상황 및 미해결 문제점 ○사고재발방지대책 등
SBS-R	5.28 07:25	정진홍의 SBS전망대	이승호 교통국장	○사고이후 100일간의 수습노력 ○미해결된 현안들과 대책
MBC-TV	5.28 11:00	아주 특별한 아침	유승경 교통정책과장	○인정사망 심사관련 ○성금 집행 및 보상계획
KBS-R	5.28 18:05	생방송 오늘	이승호 교통국장	○유가족과의 협상과정 및 향후계획 ○추모공원조성문제 해결방안
교통방송	5.28 21:10	엄길청의 "지금 서울은"	조기현 행정부시장	○지하철참사 100일- 수습현황
매일신문	6.18	시장취임 1주년 특집	조해녕 시 장	○지하철참사 수습상황 및 향후계획 ○사고수습관련 행정신뢰 회복방안
연합뉴스	6.19	인터뷰	"	○수습대책 추진상황 ○지하철안전대책 및 당부말씀
CBS 대구방송	6.24 14:30	라디오 세상읽기	조기현 행정부시장	○추모공원 조성 및 보상대책 ○향후 추진과제
K-TV	7.19 10:00	e-Korea 아침 현장인터뷰 플러스	조해녕 시 장	○지하철참사이후 시련극복 노력 ○U대회 의의 및 준비상황
TBN (교통방송)	7.29 13:00	인터뷰	유승경 교통정책과장	○지하철 사고구역 복구현황 ○2·3호선 계획 및 추진상황

3. 언론 보도내용

지하철 화재사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주로 사고의 발생 및 진행상황, 원인과 문제점, 유사사고 사례와의 비교, 국내·외 지하철의 운영실태, 책임자 처벌,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사후대책 및 수습상황, 사고관련 기관·단체의 동향,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지역민심의 추이, 자원봉사와 온정의 손길 등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 형성이후 초유의 대참사를 맞은 대구의 표정과 사고발생 및 전 수습과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보도하였다.

엄청난 대형참사가 지역사회에 몰고 온 정신적 충격과 혼란, 그리고 산업, 경제, 교통, 문화 등 시민생활 전반에 미친 파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언론보도에 비친 온 국민의 시선과 반응, 대구지역 사회의 동요와 반향 등을 살펴본다.

가. 대형참사의 원인과 대책

언론은 구조구급 관계자와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고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은 방화로 일찌감치 알려졌지만, 언론은 전동차 운행관리시스템의 부실, 화재에 취약한 객차 내장재, 역사내 안전설비 미비, 지하철 직원의 비상조치능력 부족, 불합리한 지하철 역사구조 등 작은 사고를 대형참사로 키운 2차적 사고원인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이 본 대형참사의 원인과 대책

매체명	일자	사 고 원 인	대 책
영남일보	2.18	○내장재 유독가스	○내장재 교체(난연재, 불연재)
MBC-TV 조선일보	2.19 "	○내장재 유독가스 ○출구위치 야광표지판 미비 ○비상대비 훈련·설비부족	○내장재 교체(난연재, 불연재) ○안전설비 보강 ○비상대비 훈련 강화
KBS-TV 중앙일보	2.19 "	○영성한 방재체계 ○방염처리 내장재 없었다 ○인명구조 비상장치 미비	○비상상황 대처체계 확립 ○내장재, 방염처리 재료 사용 ○출입문 수동조작 손쉽게, 비상탈출구 야광표지판 설치

매체명	일자	사 고 원 인	대 책
대구신문	2.19	○방재관리시스템 부실 ○소화장비 부족 (소화기1대, 스프링클러 미설비)	○방재시설 보강 및 시스템 정비
MBC-TV 매일신문 TBC-TV	2.19 " 2.21	○재난방지시스템 마비 ○자동운행 시스템 맹점 ○전동차 출입문 수동조작 지연 ○탈출구 봉쇄(방화벽 차단) ○전기시설 화재시 대비책 전무 ○소방훈련 형식적 ○납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단전대비책 수립 ○출입문 수동조작요령 숙지 ○방화벽 통과요령 숙지 ○전기시설 소방점검대상 포함 ○승객 포함한 화재대비훈련 ○배연설비 등 소방시설 확충
영남일보	2.19	○단전으로 출입문 미개방 ○내장재 화재 취약(유독가스) ○지하철공사의 안일한 대처 ○불합리한 중앙로역사 구조 (타역보다 깊고 통로 협소) ○직원안전교육훈련 형식적	○비상대피방법 시민 홍보 ○비상상황대비훈련·시스템 확립
TBC-TV 조선일보	2.20 "	○사고감시 시스템 부족 ○조기 상황대처 시스템 결여 ○불에 약한 전동차	○역사내 감시능력 강화 ○종합사령실-전동차 통신체계 및 대피유도등 설비 보강 ○유독가스 기준 마련
MBC-TV 경북일보	2.19 2.20	○안일한 사고 대처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 ○화재취약 내장재 및 유독가스 ○안전불감증(안전수칙 미준수)	○종합상황실 기능 강화 ○기관사 상황조치능력 강화 ○내장재 불연성 교체
문화일보	2.20	○지하철 연락체계 부실 -수직적 연락체계 ○가연성 마감재 유독가스	○전동차-역무실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체계 마련 ○전동차 내장재 제작기준 강화
KBS-TV 동아일보	2.19 2.21	○사고초기 미숙한 대응 ○소방안전수칙 미준수	○비상대비 조치능력 강화

매체명	일자	사 고 원 인	대 책
MBC-TV 매일신문	2.20 2.21	○119구조대 사고신고 접수시 초기대응 미흡	○재난대비 종합시스템 구축 - 예)미국 E911 시스템
매일신문 영남일보	2.21 “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따른 부실공사와 관리 소홀	○(가칭)한국지하철공사 설립 및 국가관리
MBC-TV 동아/조선 매일의	2.21 2.22	○마스켄키 분리로 인한 전동차 기능 마비 ○사령실 CCTV감시 소홀	○비상대비 조치능력 강화 및 직업윤리 교육
CBS-R 경향신문	2.20 2.22	○종합사령실 대처능력 미흡 - 모니터 감시능력 부족 - 긴급상황대비 수칙 미비 - 훈련부실	○종합상황실 상황대처훈련
영남일보	2.22	○지하철 테러 무방비 - 보안검색, 보안요원, 대피 시설 전무 ○지하철 소방점검 형식적	○지하철 테러대책 수립 - 검색체계와 인력보완, 전문 구조시스템 구축 ○소방대책 강화
KBS-TV 조선/영남	2.23 2.24	○종합사령실, 화재경보 무시 ○종합방재훈련 미 실시	○종합방재훈련
TBC-TV 경향신문	2.22 2.24	○중앙로역 설계 졸속 - 계단, 출입구 협소 - 지하3층 구조(타역보다 깊어)	○지하철역사 설계기준 개선
매일신문	2.24	○재난관리계획에 지하철사고 미포함	○재난관리계획 개선
대구일보	2.26	○전동차 납품방식 문제 - 저가낙찰이 품질저하 초래	○공공시설 납품방식 개선 - 전동차 안전관련 사양 명확화
동아일보 매일신문	2.26 “	○지하철경영진 낙하산 인사 - 전문경영 미흡, 비용절감 급급	○전문경영인 영입
TBC-TV 영남일보	2.26 “	○지하철사고 정부책임론 - 국비지원 부족, 사업승인 부적절 ○안전불감증과 무책임성	○국가차원 지하철부채 대책 마련 ○직업의식, 윤리의식 제고

나. 사고발생 및 수습관련

사고발생 4일째인 2월 22일부터 언론은 사고현장 물청소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함에 따라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의 최대 분수령이자 난제로 등장한 현장훼손 문제가 바야흐로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8월)를 앞두고 대회준비의 차질을 우려하여 조속한 사고수습 의지를 내비쳤던 대구시는 처음부터 사법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언론과 시민단체, 희생자대책위원회로부터 현장훼손의 당사자로 비판을 받았고, 검찰과 경찰은 현장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대한 따가운 여론의 질책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장훼손 문제로 인해 사고수습책임이 있는 대구시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과 반발이 깊어지고, 언론 또한 사고축소·은폐 및 책임회피 등을 거론하며 대구시의 사고수습 능력을 의심,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면서 급기야 중앙정부가 「중앙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사고수습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언론은 사고수습대책본부, 지하철공사,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이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나 수습상황과 관련하여 사고축소·은폐 등 갖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언론이 제기한 이러한 의혹들은 사실상 시중의 여론을 주도하며 사고수습 관련당국을 곤혹스럽게 했고, 이들 중 일부는 검·경의 수사나 관계기관에 확인 결과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종자 관련 추측보도 등 사실여부가 분명치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것들도 있어 사고직후의 불확실하고 어수선했던 혼란상이 언론보도에도 그대로 녹아 있었다.

지하철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관련 피고인들의 1·2심 선고형량에 반발하는 유가족들의 동향과 함께, 대형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민정서와는 달리 솜방망이 수준이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을 환기하기도 했다.

사고수습 관련 주요 언론보도 내용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실종자 처리관련	매일신문	2.21	○실종자 상당수 찾기 힘들 듯, 완전 소실 가능성
	TBC,영남	2.20/22	○사고본부·실종자대책위, 실종자 접수건수 큰 격차
	중앙일보	3. 4	○경찰, 실종자 행적 확인 본격화
	MBC,동아	3.3/5	○대구참사 실종자 가족들 ‘실종증명’ 애간장
	경북일보	3. 8	○‘인정사망심사위’ 오늘 발족, 15명으로 구성
	MBC,한국	3.7/10	○대구참사 실종 228명으로 줄어, 신고자중 다수생존
	CBS,영남	3.10/11	○인정사망심사위 3.10 첫 회의, 실종자 222명 전원 심사
	영남일보	3.14	○인정사망심사위 - 탑승 증거물 모두 활용, 선포괄 사망인정 불가
	TBC,매일	3.21/22	○1차 심사대상 실종자 76명 전원 사망 판정
	TBC, 대구신문	3.28/29	○인정사망심사위, 실종자 35명 추가 인정사망
	KBS,경북	4.16/17	○심사위 제7차 회의서 인정사망자 최종 1명 집계
	경북일보	6.20	○지하철참사 시신6구 무연고 처리
사고현장 훼손논란	대한매일	2.22	○참사 다음날 물청소 ‘사라진 현장’
	매일신문	2.24	○신원단서 유류품 ‘쓰레기’처리, 현장훼손 ○“복구공사 당장 중단하라” 들끓는 분노
	영남일보	2.24	○시민단체대책위, 안심차량기지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
	영남일보 TBC	2.25 2.27	○사고전동차 서둘러 견인 “현장훼손 심했다” ○대책본부-국과수 등 서로 책임 떠넘겨
	KBS,조선	2.26	○치운 잔해더미서 유해조각 나와, 손·발등 14점
	영남일보	2.26	○시대책본부 수습능력 상실했다-“조시장 사퇴하라”
	영남일보	2.27	○검찰, 현장보존 소홀 드러나
	매일신문	3. 1	○중앙로역 3차례 물청소, 당시 작업자 진술
	영남일보	4.16	○‘조시장 퇴진’ 시민운동, 대구57개단체 기구출범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각종 의혹 관련	동아일보	2.20	○발화지점 고의은폐 의혹, 대책본부 “5호차” 주장하다 “2호차”로 바뀌
	영남일보 MBC	2.24 3.11	○“지하상가 피해 우려 탈출로 막았다” ‘방화서터 조기차단’ 의혹 제기
	대구일보 TBC	2.25 3. 4	○테이프 녹취록 조작 흔적, 지하철공사-조직적 은폐·책임 축소 의혹 증폭
	MBC, 경북일보	2.26 2.27	○CCTV화면도 조작 의혹, 1080호 전동차 도착장면 녹화 안 돼
	영남일보	2.28	○대구시 전동차구매 특혜 의혹, 서울보다 작은 객차 가격은 더 주고 사들여
	매일신문 TBC	3.10 3.12	○전동차 납품 담합 의혹 증폭, 의도적 유찰-들리 리 입찰 없었나
	KBS,영남	3.2/12	○방화서터 ‘의혹’ 속속 드러나
	KBS, 대구일보	3.11/17	○원본테이프 조작 혐의 없어 사법처리 어려울 듯
	영남일보	6.30	○합동영결식 서둘러 열린다했더니...보상금+α ‘뒀거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경북일보	2.24	○대구지하철참사 수사 확대, 방화피의자·기관사 포함 10명 영장신청, 공무원 등 11명 추가수사
	MBC, 경향신문	2.24	○전동차 ‘내장재 납품비리’ 수사, ‘불연성’ 합격 판정 의혹 정밀조사
	대구신문	2.24	○‘늑장소방’ 의혹 전면수사, AVL자료 토대
	영남일보	2.26	○‘고위간부 은폐 사전모의’ 집중수사
	KBS, 대구신문	3.2/3	○지하철 참사 전면 재수사
	중앙,CBS	3.3/4	○1차수사결과 발표-사건 은폐·조작여부 규명 안돼
	한 겨 레	3. 7	○검찰 현장훼손 수사 착수-조시장·지하철공사·수 사기관
	KBS,경북	3.9/10	○실종자대책위, 대구참사 수사주체 교체요구
	CBS,매일	3.27	○검찰, 조 시장 전격소환 현장훼손 ‘미필적 고의’ 등 조사
	MBC,대구	3.27/28	○방화범·1079호 기관사 구속
	매일,MBC	4.15	○검찰 지휘책임 왜 수사않나, 시장만 소환 남발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CBS,매일	4.23	○조시장 무협의, 윤 전사장 불구속기소
	TBC,대구	5.20/21	○전동차 내장재 불량품 납품한 업자 셋 구속
	경북일보	6.16	○현장훼손 2차공판-조 시장 등 지휘라인 무더기 증인출두
	매일신문	8. 6	○대구지법 선고, 대구지하철 방화범 무기징역
지하철 안전진단 및 중앙로 소통재개	KBS,매일	2.25	○버스·승합차 중앙로 통금, 지하철구조물 손상 심각
	경북일보	3. 1	○오늘부터 중앙로역 지상구간 전면 통제
	조선일보	3. 3	○참사 다음날 일부 운행 시작한 지하철, 운행논란
	한국일보	3. 7	○대책위, “지하철 운행 실력 저지하겠다”
	매일신문	3.17	○실종자가족들 객차 점거 지하철운행 2시간 중단
	조선일보	3.24	○“중앙로역 안전 이상없어요”-경북대 박문호 교수
	KBS-R 대구일보	4. 1 4. 2	○건교부 엉터리 진단, 스프링클러 등 주요 항목 점검서 빠져
	MBC,동아	4.8/9	○중앙로 내일부터 통행재개
	경북일보	5.12	○10일부터 중앙로역 정밀안전진단 재개
	MBC 조선일보	3. 4 3.14	○화재참사 보상업무 본격화 19일 시 조례제정후 보상심의위 구성
보상 및 추모사업 관련	TBC,매일	3.18	○시, 중앙로역 벽면 ‘추모의벽’ 형태로 영구보존 추진
	TBC,조선	3.28/29	○대구시-대책위, 추모공원 조성 위치 갈등
	MBC,매일	4. 1	○시-대책위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추모공원 조성 합의
	매일신문	4. 2	○시 한복판에 웬 공원묘지, 인근 주민들 심한 반발
	영남,MBC	4.4/7	○추모공원 조성 저지 위해 관청서 조직적 여론 조작
	대구일보	5.22	○지하철 피해보상조례안 가결
	대구일보	5.31	○참사 추모공원 결사반대-월드컵경기장 인근 주민
	중앙일보	6. 3	○추모공원, 천주교 공원묘지 인근에 조성
	영남일보	6.27	○지하철참사 부상자 보상금 타결, 최고 3억3천만원

다. 중앙정부 및 정치권, 시민단체 동향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은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 연이어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수습과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2월 19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중앙정부는 고위인사가 사고현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수습상황 점검 및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전국 대도시 지하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및 긴급 시설보강, 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일선 공무원들에게 골프, 호화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토록 지시했다.

또 사고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하여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고, 중앙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사고수습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대구 현지에서 열어 민심을 추스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치권에서도 각 정당별로 「국회의원고충처리센터」를 마련하여 희생자 가족들의 민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이번 참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른 부실공사와 관리소홀이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대구·부산 등 지하철을 통합한 「(가칭)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가시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을 위한 움직임은 도·농간 형평성의 문제, 지방분권 역행,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추가지원을 이끌어내 지하철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처수준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후 근본대책 마련이 '감감'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지역적 문제', '돈 문제'로 파악하는 편협하고 제한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주체를 놓고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시의회가 2월 27일 “이번 참사 수습과 관련,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일부 목

소리는 지방화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우려가 있고, 이는 대구의 자존심을 또 한번 구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사태 수습에 반대한다”고 하자, 일부 지역언론은 “중앙집권 회귀와 지방분권화 역행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참사수습의 중심에 서야한다”¹⁵⁾고 거들었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희생자 가족들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구한 것은 대구시가 수습능력을 상실했고 이번 참사가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시의회가 “당리당락적으로 해석한다”¹⁶⁾고 비판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도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의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고수습에 중앙-지방을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¹⁷⁾고 이들을 지지하는 언론도 있었다.

한편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등 지역의 37개 시민·사회단체는 사고발생 다음날인 2월 19일 「대구지하철참사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를 결성, 2월 24일 사고현장인 중구 남일동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진상 조사활동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현장훼손과 관련한 대구시장과 경찰책임자의 사법처리 촉구, 근본적인 안전대책 없는 지하철 운행 중단, 사고현장 시설물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수사주체 교체 요구, 추모대회 개최 등의 사고수습 및 진상규명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3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지하철)안전시민점검단」을 구성키로 합의하고, 정부와 사회단체가 전면적인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은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참사수습활동에 대해 “촛불행사, 추모시민대회를 통해 실종자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미흡하고, 사고전동차 견

15) 대구신문(2003.3.4, 3.5)

16) 영남일보(2003.3.3)

17) 동아일보(2003.3.5)

인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으며, 진상조사단원의 전문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¹⁸⁾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정치권·시민단체 등 동향보도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중앙정부 활동	MBC,매일	2.19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수습·피해보상 만전
	KBS,MBC 매일신문	2.20	○노 당선자 참사현장 방문, “대구지하철 안전진단 최우선”
	매일신문	2.22	○지하철 안전기획단 설치, 전국 차량·시설 특별 점검
	매일신문	2.25	○대통령취임식-대구희생자 추모목념 초반 무거운 분위기
	매일신문	3. 4	○중앙정부 초기 대응 손놓았다, 현장상황보고가 고작
	대구신문	3. 5	○정부, 참사수습 대구시 홀대, 지방분권화 역행 지적도
	동아일보	3. 5	○사고수습에 중앙-지방 따지다니...
	조선,MBC	3.18/21	○“정부 한계 뭐냐” 분노의 도시
	MBC,영남	3.20	○대구참사 관계장관회의, ‘한방바이오’등 적극 지원
	영남일보	3.27	○정부, ‘가장 안전한 대구지하철’ 용두사미 그치나
정치권 활동	매일신문	2.19	○국회 재해특위 가동, 여야 대책반 구성
	영남일보	2.21	○대구권 국회의원-관계부처 장관 긴급대책회의
	매일신문	2.24	○국회재해대책특위, 대구지하철 감사원 특감 의뢰 재난관리청 신설도 촉구
	영남일보	3.12	○여야영수회담, 대구 살릴 근본대책 수립 촉구
	KBS,영남	3.14	○‘여야정대책위’ 구성 합의, 대구참사 초당 협력
	CBS,매일	3.17/19	○건교위, “지하철 내장재 국제기준 도입을”
	영남일보	4. 2	○대구참사까지 ‘당리당락’ 이용하나

18) 매일신문(2003.3.4)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대구시 활동 및 해외반응	경북일보	2.19	○대구시 비상근무 돌입, 조시장 담화문 발표
	중앙일보	2.19	○중·러·일 정상 애도 뜻 표해
	매일신문	2.19	○세계 주요언론 긴급뉴스 보도 ○“희생자들에 깊은 애도” 각국 지도자 잇단 메시지
	대구신문	2.20	○조해녕 대구시장, 구청장·군수회의 소집
	KBS,조선	2.19/21	○대구시, 23일까지 시민애도기간으로 정해
	매일신문	2.21	○일본 ‘유별난 관심’ 왜?-이번 사건서 교훈 얻어 외국 대형참사 발발 때 우리정부 ‘무관심’ 대조
	대구일보	2.28	○대구시의회 긴급총회, 지하철 사고수습 중재 역할
	영남일보	3. 4	○‘사면초가’ 대구시, 사고수습 중앙정부 이관 설 땅 잃어
	경북일보	3.13	○시의회상임위, 지하철피해보상심의위 구성 가결
	대구일보	5.22	○시의회, 지하철피해보상조례안 가결
희생자· 시민사회 단체대책 위	영남일보	2.24	○시민단체-안심차량기지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
	대구일보	2.27	○실종자대책위, 대통령직속 대책본부 구성하라 ○시민단체, 중앙상가 개발 주인공 김영창 사장대 행 해임하라
	대구신문	2.27	○시민단체, 현장훼손 책임자 법적처벌 요구
	매일신문	3. 4	○시민단체대책위 활동, ‘실종자 문제제기’ 호평 ‘구체적 대안 제시’ 미흡
	MBC,조선	3.5/6	○지하철참사대책위, 조 시장·윤 사장 고발
	영남,MBC	3.6/15	○시민단체 캠페인, 지하철 운행 즉각 중단하라
	대구일보	3.13	○200개 시민단체, ‘지하철안전시민점검단’ 구성
	KBS,매일	4.16	○“조시장 퇴진” 시민본부 출범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가칭)한국 지하철공사 설립 추진관련	영남일보	2.21	○지방재정으로 지하철 불감당 국가서 건설·운영 책임져야
	매일,KBS	2.26/3.6	○전국지하철 통합 운영, 관련법안 4월 국회 제출
	매일,MBC	3.13/17	○‘지하철공사’설립 급물살, 청와대 적극 검토
	매일,MBC	3.20/21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지하철공사화’ 난색
	대구일보 MBC,TBC	4. 5 4.10	○지하철공 설립 전국 공조, 전국 시도의회 합 의문 채택...정부에 건의키로
	경북일보	9.10	○지하철공사법 원안처리 “유력”, 법안심사소위 상정
	매일신문	11.21	○지하철빚 40% 줄어든다, 지하철공사법은 폐 기될 듯
중앙특별 지원단 활동	대구신문	3. 1	○오늘부터 중앙특별지원단 파견
	TBC,영남	3. 2/3	○중앙지원단 본격 활동, 유가족 입장서 해결 모색
	경향신문	3. 4	○중앙지원단 본격 활동, 참사수습 탄력받는다
	경북일보	3. 5	○중앙지원단, ‘인정사망’ 범위 대폭 확대
	KBS, 대구신문	3.22	○중앙정부 사고수습의지 의문, 중앙지원단 잦은 인사
	영남일보	3.26	○중앙지원단 발빠기 의혹, ‘사고수습주체’ 처음과 달리 갈수록 위축
	KBS,경북	4.19	○중앙지원단 해체, 추모공원 조성 등 결론 못내 아쉬움

第4章 施設復舊 及 電動車 内装材 交替

第1節 安全診断 269

第2節 施設物 復舊 291

第3節 電動車 内装材 交替 305

第4章 施設復舊 및 電動車 內裝材 交替

第1節 安全診斷

1. 긴급안전진단

가. 화재 잔재물 정리

안전진단에 앞서 작업통로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월 19일 09:00경 지하철공사 직원 20명이 현장 경비책임자에게 화재잔재물을 정리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 진입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팀에서 현장조사중에 있다는 사유로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10:00경 지하철공사 시설부장과 안전진단팀이 도착하여 재차 사고현장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11:3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팀이 현장을 철수한 후 출입을 허락받고 지하 3층 승강장으로 들어갔다.

13:00경 도착한 육군 00사단 소속 병력 200여명과 함께 사고현장 정리작업을 하고 수거된 잔재물은 안심차량기지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나. 구조물 안전진단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정도와 불안전 부위 존재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터널진단 전문기관인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박구준 공학박사의 12명과 대구지하철공사 토목분야 자문위원인 경북대 박문호 교수, 계명대 이승한 교수로 진단팀을 구성하였다.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동차 연소시 폭열을 직접받은 지하 3층 (L=277m, B=18m) 시설물 등에 대하여 상태조사, 정밀 외관조사,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조사¹⁾를 실시하였다.

1) 구조물 파괴하지 않고 결함 유무를 검사 또는 시험하는 방법

진단결과 전동차가 정차한 구간의 구조물에 박리·박락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급작스런 붕괴위험 등은 나타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가받침)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가 심한 구간의 지하 2층은 통행을 제한하고, 가받침 구조물 설치시까지 지상도로에도 중차량의 통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구기간중 구조물의 변위나 손상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계측관리와 수시점검이 필요하고, 구조물의 기능과 역할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근본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교통통제

2월 23일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지하철공사로부터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에 대한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안전진단(2.19~2.21) 결과에 따라 중앙로역 사 지하구조물이 손상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로역 지상부 도로(반월당~대구역)에 대한 교통통제 요청이 있어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중앙로역 지상부 도로에 대해 2월 26일부터 중앙로역 보강작업 완료시까지 승용차를 제외한 버스 등 중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로 구간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노선(19개 노선 426대) 가운데 중앙로 구간노선은 달구로와 서성로로 운행하며, 국채보상로~중앙로 노선은 동덕로로 우회하고, 서성로~중앙로 노선은 서성로~태평로로 우회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버스노선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시외곽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제구간 및 혼잡지역에 진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동대구 IC외 4개소에서 홍보지 배포, 지역교통방송(TBN)을 통하여 우회노선 등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신문 및 방송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시 홈페이지 및 교통안내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등 차량통행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이 중앙로역 지하 1, 2층을 점거하고, 현장보존을 요구함에 따라 지하 3층 기둥부분 가시설 보강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2월 27일(21:30~23:30) 시민회관 2층 귀빈실에서 사고대책본부 주관으로 지하철건설본부, 대구지방경찰청,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중앙로역 안전진단 및 가시설 보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로역 지하 3층 스라브의 심각한 손상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서울은행~아카데미극장간 지상부 도로에 대해 3월 1일 00:00부터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전면적인 통행제한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하 3층 기둥부분 가시설 보강공사를 완료한 후 차량통행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3월 17일까지 중앙로역 지하 3층에 있는 중앙기둥 28개에 가받침을 설치하는 등 안전보강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3월 17일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박문호 교수와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구조물의 처짐과 내력(耐力) 등을 측정하는 재하(在荷)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대책본부에서는 3월 20일부터 차량통행을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희생자대책위원회(3. 17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로 개편) 위원들이 재하시험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안전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 절차상 하자를 검증하기 전까지는 차량을 통행시킬 수 없다면서 차량통행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특히,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사고대책본부가 최종 안전진단보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통행재개 가능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한 시일내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받아 희생자대책위원회 및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통행이 재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표명하도록 요구하여 사고대책본부에서는 3월 31일 5개 일간지에 ‘중앙로 교통통제에 따른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한편, 중앙로 일대 상인들은 중앙로 교통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손실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였다. 3월 27일 오후에는 동성로 상가번영회 등 17개 상가번영회 회원 500여명이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대구 상권 다 죽이는 사고수습대책본부는 각성하라”, “상권 살려 주이소”,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의 차량통행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상가번영회 대표들은 시청을 방문하여 중앙로 차량통행 재개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차량통행 금지로 인하여 주변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며, “중앙로역 인접지역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중앙특별지원단과 협의하여 4월 5일 오후 4시부터 중앙특별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구시를 비롯하여 희생자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대구지방경찰청, 중앙로역 주변 상가번영회, 경북대 방재연구소 박문호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로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다툼도 있었지만 중앙특별지원단의 조기현 수습지원반장과 박승국 국회의원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여 겨우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4월 10일 00:00를 기해 차량통행을 완전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날 합의내용은 통행재개와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대구시장이 지고, 구조물 안정성에 대한 계측작업을 계속 실시해 나가는 한편, 인천전문대 교수가 제시한 보완 요구사항은 4월 9일 이전까지 조치하기로 하고, 보완이 빨라질 경우 통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었다.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3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되었던 중앙로역 구간의 지상 차량통행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40여일 만인 4월 10일 00:00부터 완전 재개됨에 따라 버스노선과 주변 교차로 교통체계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중앙로 일대의 차량통행이 완전 정상화되었다.

3. 긴급보강공사

지하철 화재사고로 손상된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지하철 시공실적이 있고, 재정상태 및 신용도가 우수한 지역 건설업체인 화성산업(주)을 추천받아 복구업체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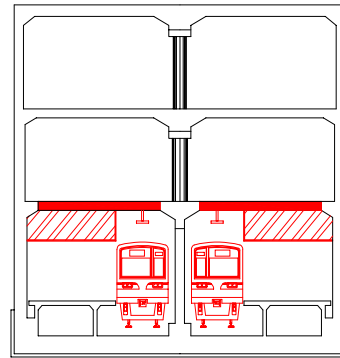
가. 구조물 가받침 설치

2월 27일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사고현장 및 유류품 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고현장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대구지하철방화사건수사본부, 중부경찰서, 중앙특별지원단에 안전보강공사 시급성을 설명하고, 3월 7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수사본부로부터 출입시 유족 및 시민단체에서 입회하고 현장 훼손금지 및 공사범위 최소화 등의 조건으로 출입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월배차량기지 작업장에서 H빔 강재를 받침틀로 제작한 후, 모터카로 운반하여 손상을 입은 승강장층 기둥사이에 가받침 28조를 설치하였다.



기둥사이 가받침 설치



중앙로역 단면도

나. 구조물 변위 계측기 설치

중앙로역 지하 3층 중앙기둥 상층부의 주보 및 스라브가 폭열을 받아 심하게 소손된 부분과 주 인장철근이 완전히 노출된 구조물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구조물의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안전진단과 보강방안에 활용하

고자 (주)아주지오ENG의 협조로 하중계 14대, 변형률계 28대, 경사계 13대, 균열계측기 9대 등 64대의 각종 계측기를 설치하여 자동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일 계측한 결과 관리기준치 이내로 안정적이였다.

관리 기준치 산정표

계측기명	설치부위	관리기준치	적 용 기 준
변형률계	기 등	48kg/cm ²	서울지하철 5호선 관리기준 적용
하 중 계	기 등 (가받침)	3ton/일, 10ton/주	구조물의 훼손정도가 심하여 대구지하철 2호선 가설지보에 설치한 계측기의 관리 기준 적용
건물경사계	기둥, 거더, 스라브	4mm	Bjerrum이 제한한 건물에 균열이 없도록 하는 안정한계(1/500) 적용
균열측정계	균열발생 개소	0.25mm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철근에 대한 일반환경(0.005C)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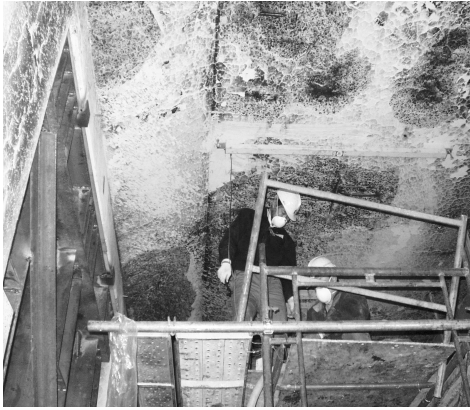


변형률계²⁾



하중계³⁾(가받침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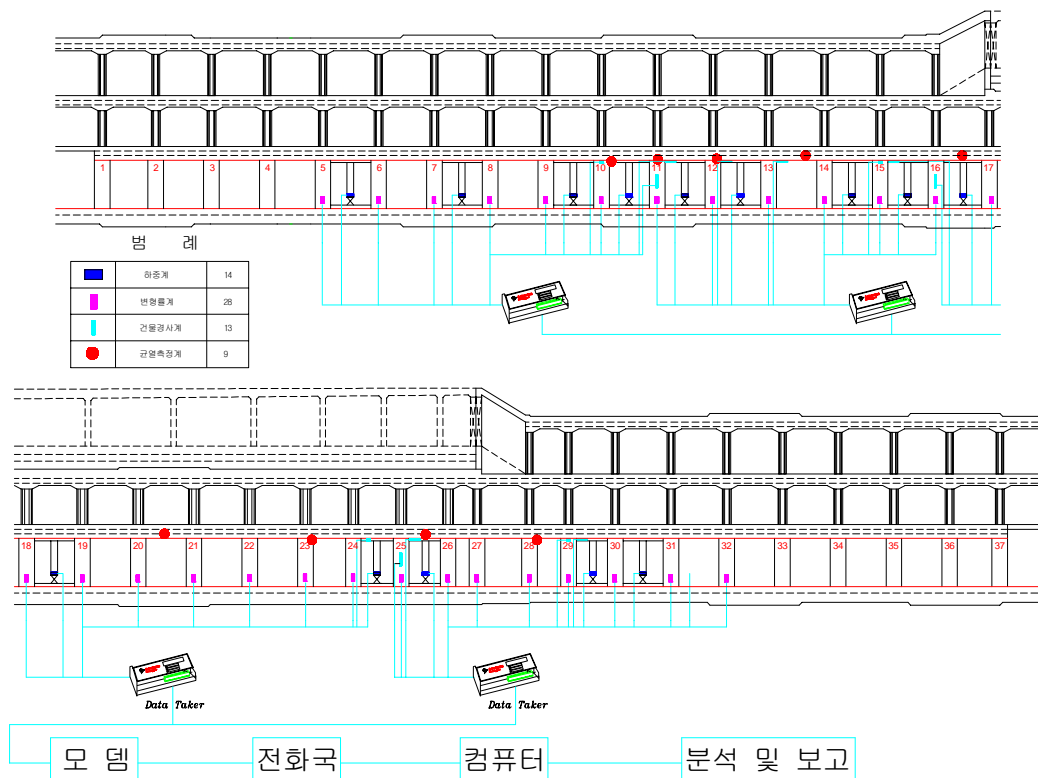
- 2) 콘크리트 구조체에 부착하여 구조물의 변형을 계측하는 장치
3) 가받침들에 설치하여 축하중 변화상태를 측정하는 장치



건물경사계4)



균열측정계5)



계측기 설치 및 시스템 구축도

- 4) 구조물의 경사 변형상태를 측정하는 장치
- 5) 균열개소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변형상태를 파악

다. 재하시험⁶⁾

중앙로역 지하 3층 구조물 주요 부재들의 구조적 기능이 저하할 정도로 손상을 입어 응급 가받침 철골구조물을 중앙기둥 사이에 설치하였고, 지상도로에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차량통행 재개 가능성 여부와 가보강된 중앙로역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3월 17일 경북대학교 방재연구소장 박문호 교수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물 내하력시험을 실시하였다.

중앙로역 지하 1~3층에 계측기를 설치한 후 서울은행~아카데미극장간 지상도로에 만재된 덤프트럭(31t) 2대가 동시주행(10~60km/hr, 6단계)하면서 지하 1~3층으로 전달되는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노면 차륜하중에 의한 진동 및 변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받침 보강구조물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차량통행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차량재하 시험



변위측정

3. 정밀안전진단

지하철 화재사고로 심각한 손상을 받은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보수·보강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

6) 지하 3층 구조물의 가보강 작업 후 일시적인 동적하중을 가하여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여 구조물 사용여부를 결정

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건설교통부 공고 제2000-94호) 시설물이므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가. 외관조사

1) 본선구간

본선은 중앙로역을 중심으로 반월당역 방향으로 98m, 대구역 방향으로 130m 구간이며, 본선환기실은 반월당역 방향으로 50m, 대구역 방향으로 72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본선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었으므로 안전진단 범위를 환기실을 포함한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본선 천정부분은 그을음이 짙게 덮여 있는 상태이며, 주된 변상으로는 횡방향 균열과 균열부위의 백태 및 누수이나 그을음을 제외하고는 지하철 화재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착터널에서 발견되는 변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선 스라브(천정) 그을음 및 망상균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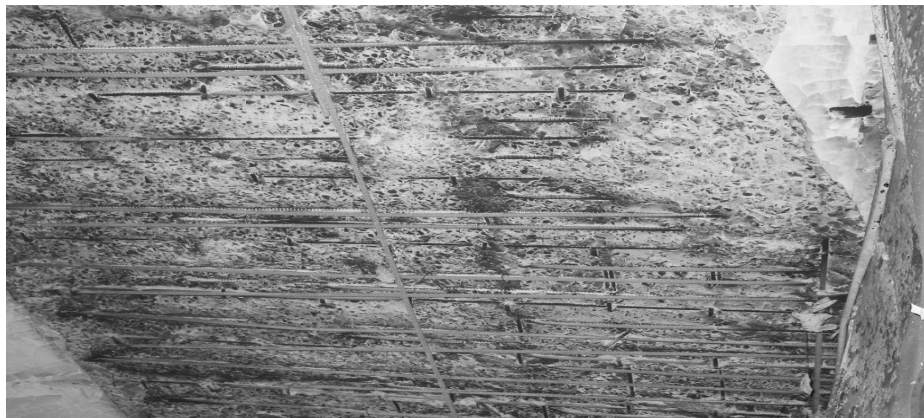
2) 정거장구간 스라브

지하 3층 스라브 하면은 전구간에 걸쳐 망상균열과 다수의 횡방향의 균열

도 발생되었으며, 전동차가 위치한 부분이 가장 뚜렷하며, 승강장 시·종점부의 균열폭은 대략 0.1~0.5mm이고, 승강장 중간부분은 0.5~1.5mm이다. 횡방향 균열이 기둥 주변부에서 많이 발생된 것은 기둥부위에서의 응력집중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박락의 양상을 보면 넓은 범위에 걸쳐 발생되었으며,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은 연결계단 위치로 횡단면의 공간이 협소하여 화재로 인한 열이 집중적으로 스라브 하면에 작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박리는 본선 헌치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박락주변에도 발생한 개소가 조사되었다.

콘크리트의 박락이 발생한 지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철근노출이 동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출된 지점을 통해 철근 배근상태를 확인한 결과 횡방향 주철근은 H16을 사용하였다. 간격은 20cm로 주철근 사이에는 휨 인장철근이 10cm 간격으로 배치되었으며, 설치위치는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하 3층 스라브 표면박락 및 철근노출

3) 정거장구간 보 및 기둥

보와 기둥은 화재가 발생한 상·하행 전동차 사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직접적이며, 장시간에 걸쳐 영향을 받아 망상균열, 횡방향균열, 콘크리트 박락, 박리 등의 변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기둥은 전동차보다 상부에 위치한 보와는 달리 기둥 상부에서의 변상이 하

부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다.



기둥, 거더, 보의 변상



기둥박락

4) 승강장

승강장 벽체는 건축내장 벽체공사(8" 블럭)를 실시하여 실내마감을 하였고, 승강장 바닥에서 약 50mm 높이를 제외한 전구간에 그을음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승강장 천정의 환기덕트만으로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다 배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승강장 바닥 연단쪽 타일은 길게 박리되어 있거나 화강석타일이 부분적으로 들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재에 의한 승강장 손상

나. 비파괴조사⁷⁾

1)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

손상콘크리트 구조물의 상부스라브, 기둥, 보에 대하여 비파괴 압축강도를 조사한 결과, 구조물의 평균 압축강도는 $196.9 \sim 269 \text{ kg/m}^2$ 로 나타나 구조물 설계기준강도(240 kg/m^2)의 82~112%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콘크리트 중성화시험

콘크리트의 조직변성 깊이는 0.3~3cm(탈락부분의 두께를 제외한 수치)정도였고, 전동차가 정차된 구간 이외의 그늘음 구간에는 중성화 깊이가 적게 발생하였으며, 화재로 인해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철근이 노출된 부위에는 1.5~3cm 정도로 중성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압축강도 조사



중성화 시험⁸⁾

다. 물성시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파업으로 진단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수행할 수 없어 시설안전공단의 추천을 받은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코어채취, 물성시험, 구조해석 부분에 대하여 진단을 의뢰하였다.

7) 구조체에 손상을 주지않고 결함여부는 파악하는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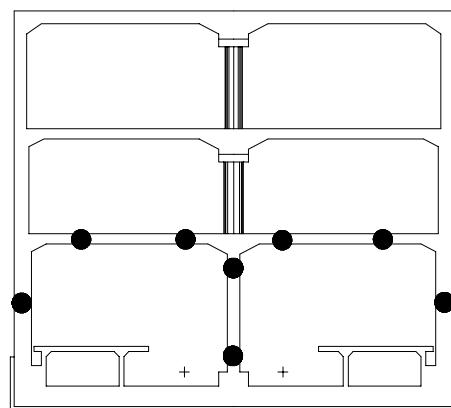
8) 알칼리인 콘크리트가 대기중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중성에 가까워 진 깊이를 파악하여 손상정도를 결정하는 시험

1) 시료(코어)채취

5월 10부터 3일간 한국콘크리트학회 김성수 박사의 9명이 코어채취 40조 (손상부위 스라브 24, 기둥 8, 벽체 3, 건전부위 벽체 2)와 철근시료 8개를 채취하였다.



손상부위 코어채취



코어채취개소 단면

2) 콘크리트 물성시험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사)한국콘크리트학회 김성수 박사의 9명이 철근 및 콘크리트가 받은 수화열 및 손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가) 일축 압축강도

건전부위에서 채취한 공시체의 경우 설계 기준강도인 평균 $240\text{kg}/\text{cm}^2$ 정도의 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밀한 철근배근 때문에 철근이 물려서 코어가 채취되었으며, 이는 코어의 강도를 약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강도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손상된 스라브에서의 압축강도는 $100\sim150\text{kg}/\text{cm}^2$ 정도이며, 비교적 건전했던 기둥부위의 압축강도는 $240\text{kg}/\text{cm}^2$ 을 약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직접 열에 노출된 부위의 압축강도는 크게 저하되지만 손상부위를 제거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건전부위와 비교했을 때 강도가 약간 적게 측정되었다.

나) 물성시험

① 시차열분석⁹⁾에 의한 화재온도 분석

화재 손상부분에 대한 시차열분석 결과 표면박락이 심한 곳에서는 고열을 받아 800℃ 정도에서부터 흡열반응이 발생하는 칼사이트의 반응이 완전히 진행되었으며, TGA의 경우 중량변화 현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700℃ 이상의 고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cm 깊이의 시료에서는 520℃ 정도에서 발생하는 수산화칼슘의 분해에 의한 흡열반응이 완전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중량변화의 현상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약 500℃ 정도의 고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깊이 6cm의 경우에는 520℃ 정도에서 발생하는 수산화칼슘의 분해에 의한 흡열반응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중량변화 현상도 뚜렷이 나타남으로 모세관수와 시멘트수화물의 결합수 탈수작용에 의한 흡열반응의 정도로 평가하면 약 200~300℃ 정도의 열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승강장 벽체의 경우는 상승온도에 따라 수화생성물의 변화로 에너지 흡수 및 방출현상이 두드러지며, 각각의 생성물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변화가 현저하게 관찰됨으로서 시료의 손상온도는 200℃ 이하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차열분석에 의한 콘크리트의 수화열 시험결과

손 상 깊 이	스라브 표면	3cm 깊이	6cm 깊이
콘크리트 수화열	700℃ 이상	500℃ 정도	200~300℃ 정도

② 회절분석¹⁰⁾에 의한 반응 생성물 분석

화재손상을 받은 스라브 부위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표면에서는 시멘트 수화생성물인 $\text{Ca}(\text{OH})_2$ 와 칼사이트인 CaCO_3 가 완전히 분해되어 피크가

9) 시차적으로 시료에 열을 가해 물질의 변화를 통해 구조물의 수화열 정도를 알아내는 시험

10) 고온에 의하여 콘크리트 중의 시멘트수화물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화재온도와 가열시간을 추정하는 시험

없어진 대신 CaO의 피크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약 700~800℃의 고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표면에서 깊이 2cm인 경우 Ca(OH)₂는 완전히 분해되었으나, 칼사이트인 CaCO₃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약 500~600℃ 정도의 온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표면에서 깊이 6cm인 경우에는 Ca(OH)₂도 전혀 분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 350℃ 정도의 온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콘크리트의 반응생성물에 의한 수화열 결과

손상깊이	반응 생성물	수화열
스라브표면	시멘트수화 생성물인 Ca(OH) ₂ 와 칼사이트인 CaCO ₃ 가 완전분해	700~800℃
2cm 깊이	Ca(OH) ₂ 가 완전분해 되었으나, 칼사이트인 CaCO ₃ 는 존재	500~600℃
6cm 깊이	Ca(OH) ₂ 가 전혀 분해되지 않음	350℃

스라브 표면이 4cm정도 박락된 부위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표면으로부터 약 4cm 깊이에서 Ca(OH)₂는 완전히 분해되었으나, 칼사이트인 CaCO₃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약 500~550℃ 정도의 온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표면으로부터 깊이 10cm인 경우에는 약 100~200℃ 정도의 온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폭열 당시의 콘크리트 표면에는 약 1,000℃ 정도의 고온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콘크리트 표면이 박락된 개소의 수화열 시험결과

손상깊이	반응 생성물	수화열
4cm 깊이	Ca(OH) ₂ 는 완전분해 되었으나, 칼사이트인 CaCO ₃ 는 존재	500~550℃
10cm 깊이	Ca(OH) ₂ 가 전혀 분해되지 않음	100~200℃
폭열당시 콘크리트 표면에는 1,000℃ 정도 고온을 받은 것으로 추정		

③ SEM¹¹⁾ 및 EDS에 의한 미세구조 분석

- 11) 전자빔을 시료표면에 주사시켜 2차 전자를 발생시켜 나타나는 콘크리트 경화체의 상을 건전부위와 비교하여 화재온도를 추정하는 시험

주사형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및 에너지 분산형 분속 장치(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화재온도에 따른 콘크리트 미세조직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였다.

화재 손상부위에서 시료 위치별 및 표면으로부터의 깊이별 SEM을 측정한 결과, 건전부위에서 채취된 표준시료를 고온에 노출시켰을 때 나타난 것과 같이 고열을 받은 표면부의 미세조직에는 다수의 미세균열 및 수화물의 탈수에 의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고열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가 감소되어 표면으로부터 6cm 깊이에서의 SEM 측정결과는 표면과는 달리 양호한 수화물의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면깊이 4cm 시료의 경우 수화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균열도 크게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X-선 회절분석으로부터 추정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철근 물성시험

가) 철근 인장강도 시험

본 대상구조물에서 채취한 철근과 같은 규격으로 생산된 철근의 항복강도 및 극한강도는 제조회사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철근의 항복강도는 $4,200 \sim 4,500 \text{ kgf/cm}^2$ 정도, 극한강도는 $6,000 \sim 6,400 \text{ kgf/cm}^2$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철근이 노출된 부위에서 채취한 철근의 항복강도는 $4,205 \sim 4,457 \text{ kgf/cm}^2$ 정도(본 구조물 설계시 철근의 항복강도 $f_y = 3,500 \text{ kgf/cm}^2$), 극한강도는 $5,730 \sim 6,246 \text{ kgf/cm}^2$ 정도로 나타나 건전한 철근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강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력-변형률곡선도가 전형적인 강재의 것과 유사하며, 노출된 철근에서 채취된 철근의 항복강도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철근이 고온에 노출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이 고강도 철근임을 감안하면 보통강도의 철근에 비해 고온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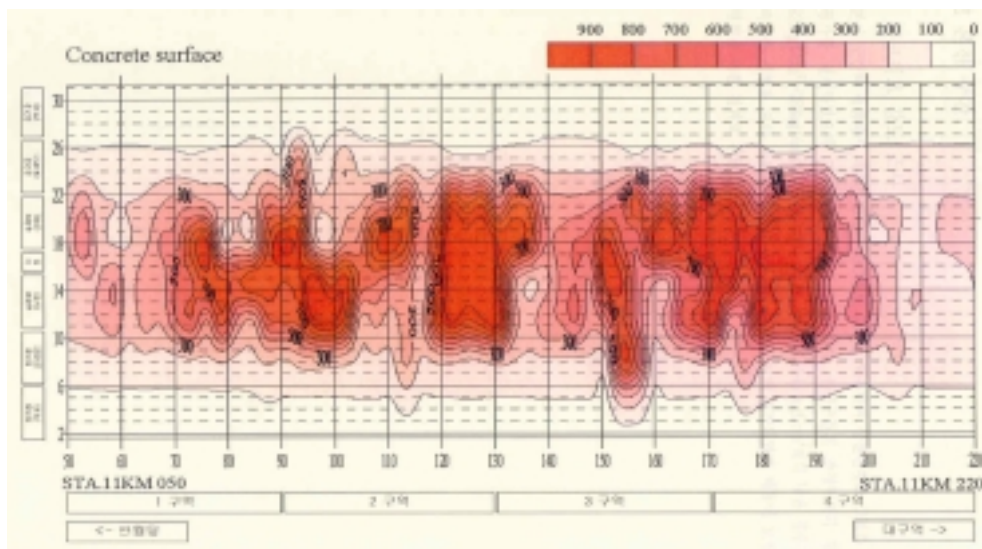
나) 철근 미세조직 검사

화재로 인한 철근의 조직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편광현미경에 의한 철근의 조직을 촬영한 결과, 철근의 가장자리에서 미세조직이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화재시 고온으로 인해 조직이 약간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변화된 면적의 크기는 미미하여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4) 화재손상 종합평가

화재가 발생한 지하철역사 내부 전구간에 걸친 구조물의 표면에서 받은 화재온도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을 보면, 전동차가 위치하여 전소된 선로 위의 스라브에서는 최고 1,000℃ 이상의 고온을 받은 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선로 위의 스라브는 전체적으로 500~1,000℃ 정도의 고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직접 전동차가 있지 않았던 승강장 상부 콘크리트 스라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화재온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200~500℃ 정도의 온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승강장 벽체의 경우는 외벽이 시멘트 블럭에 의해 2중으로 되어 있어 구조체가 받은 화재온도는 100℃ 미만으로 추정된다.



표면에서의 화재온도 분포도

라.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

1) 상태평가

조사된 결함 내용과 콘크리트 및 철근의 물성시험 결과, 변상의 발생 규모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구조 부재별로 상태평가를 실시하였다.

정거장구간의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는 건교부고시 제1995-245호(3-7-2항)의 상태평가 기준에 의거 조사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구조물 상태는 E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구조물 상태평가 결과

구 분		상 대 식 승 강 장 위 치 (11k)									
		50	70	90	110	130	150	170	190	210	220
외 관 조 사	균 열	b	c	d	d	e	d	e	d	c	
	누수, 백태	a	a	a	a	a	a	c	a	a	
	박리, 박락	a	d	e	e	e	e	e	e	a	
	손상 (철근노출)	a	d	e	e	e	e	e	e	a	
물 성 시 험	철근 인장강도 (kgf/cm ²)				5,999 ~6,001			5,730 ~6,246	6,191 ~6,208		
	코어 강도 (kgf/cm ²)	스라브		193							
		기둥					241			243	
		벽체									
	표면 수열 온도 (℃)	스라브		500 ~600		500 ~550	700 ~800			500 ~550	
		기둥					500 ~550		500 ~550	450 ~500	250 ~300
		벽체					130				
종합평가		E									

구조물 손상등급

등급	시 설 물 의 상 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경미한 손상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조부재의 결함이 있어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의 결함발생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의 결함이 심각하여 즉각 사용 금지하여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 안정성평가

정거장 구간 화재손상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시험결과를 근거로 구조물의 기본물성과 손상구간의 최고온도 및 시간을 추정하였으며, 2차원적인 열응력 해석을 실시하여 현장 손상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초기 설계, 화재손상 및 복원된 단면을 고려하여 정거장 10단면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가) 열응력에 의한 화재손상 분석(2단면)

화재를 입은 지하 3층 구조물의 화재손상 정도를 해석적 방법으로 추정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손상이 가장 심하고 폭열을 받은 부위에서 콘크리트 표면온도가 최고 800℃인 지점의 시간에 따른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의 깊이별 온도변화를 추정한 결과, 온도가 500℃를 도달하는 깊이는 표면에서 대략 4cm 정도이다.

온도가 300℃에 도달하는 깊이는 7.5cm 정도로 콘크리트의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8cm 깊이까지 콘크리트가 화재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열응력 해석은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변화 등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제시된 값과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고려하였으며, 자중 및 외부 하중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온도에 의해 발생하는 열응력 해석을 수행한 결과, 화재발생 후 30분경에 최대 압축응력이 상부 스라브의 하면에서 6cm 깊이 까지 11MPa(110kgf/cm²) 정도 발생하였고, 최대 인장응력은 상부 스라브 하면에서 1.06MPa(10.6kgf/cm²)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온도가 800℃에 이르는 상부 스라브 하면의 압축과괴강도가 평상시 설계 기준강도인 240kgf/cm²에 비하여 1/2 정도인 120kgf/cm²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는 계산된 응력보다 겨우 10%정도 큰 값으로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재시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열응력과 더불어 공극수의 증발로 인한 급격한 수축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어 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조해석에 의한 안정성 검토(8단면)

화재로 인한 손상깊이와 물성치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 화재전과 비교할 때 다소의 강도저하, 계수모멘트 및 계수 전단력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구조물 안정성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재로 인한 폭열로 콘크리트의 광범위한 박락이 발생한 부위는 구조물의 사용성 및 장기적인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철근과의 부착을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보수 및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의 구조 설계기준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 지하 1·3층에 휨 및 전단 내하력의 취약부가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내하력 부족은 단면설계시 적용된 안전율 등을 고려할 때, 구조물 붕괴에 대한 우려 및 보강을 요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종방향 거더 및 기둥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기둥과 하부 종방향 거더의 내하력 부족을 확인하였으며, 부재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장기적인 구조물의 수명 및 사용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보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안전진단 결과

1) 전문가 자문

6월 4일 구조물 화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전문가(일본토목학회 오오츠카, 다카하시)와 진단업체, 시험업체 등 관련자 11명이 중앙로역 화재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 자료(외관조사, 물성시험, 구조해석)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 결과 지하 3층 상부 스라브는 철거하여 재시공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노출철근에 대한 인장강도는 일반적으로 철근의 인장강도와 동일한 값을 보여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보수·보강에 대한 범위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중성화시험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일반적으로 500℃가 기준이다.

보수재료와 원 콘크리트와의 일체화를 이룬 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손상 콘크리트 취평작업에 있어 충격이 크게 전달되지 않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고, 단면 복구방법에는 스프레이방식과 미장방식이 있는데 시공성을 고려하여 스프레이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6월 17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방안 선정을 위해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자문회의에서 지하철 구조물의 내구성은 100년 이상이므로 보수재료의 내구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손상된 구조물 철거시 열화깊이를 정확하게 산정후 워트젯공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지하철 구조물은 진동이 있는 구조물이므로 단면 복구시 신·구 콘크리트 부착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보수·보강이 되어 있는 구조물이 지하철 운용 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므로 완벽한 보수·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보수 보강방안

화재로 인한 손상은 지하 3층 구조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주요 손상으로는 박리·박락 및 철근노출, 횡방향 균열이 조사되었으며, 외관조사, 비

파괴조사 및 물성시험 결과를 토대로 구조물의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거장 구간은 E등급, 본선 구간은 C등급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E등급으로 판명되었다. 콘크리트 물성시험 결과 화재에 의한 최고온도는 1,00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손상깊이는 약 10cm정도로 확인되었다.

열응력 해석 및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구조물의 직접적인 붕괴가 발생할 정도인 것은 아니지만 부재의 손상에 의해 내하력이 저하되어 구조물의 사용성에 대한 제한과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재별 보수·보강방안(정거장구간)

부 위		결함 및 손상	보수·보강방안	비 고
스 라 브		박리·박락, 철근노출, 균열 등	단면복원 균열보수	철거 : 워트젯트공법 복구 : MDF공법
보		박리·박락, 철근노출, 균열	단면복원 균열보수	
기 등		박리·박락, 균열	단면복원 균열보수	
승강장	벽체 및 기둥	내장재 박락	교 체	
	플 랫 홈	내장재 박리 및 균열	교 체	

第2節 施設物 復舊

1. 선로복구

중앙로역 복구공사를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 5월 26일 지하철방화사건수사본부, 지하철참사회생자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등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수사본부에서 공사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월 10일 복구공사 추진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련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중앙로역 무정차 통과전까지 예정 공사기간을 105일 정도로 추정하고, 6월 24일 지하철방화사건수사본부 등에 복구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판종결시까지 공사를 보류해 달라는 회신이 있었다. 7월 9일 수사본부로부터 사고현장을 인계받아 다음날부터 토목분야 시설물 복구공사에 착수하였다.

가. 복구설계

피해시설물에 대한 복구설계를 하기 위해 4월 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삼안건설기술공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공동이행방식(건축 : 동우, 설비 : 설화, 소방 : 남도소방, 전기 : 동산)으로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245백만원)하였고, 통신분야는 문엔지리어링(주)에서 설계를 지원하였으며, 신호와 역무설비 분야는 자체적으로 설계에 착수하였다.

6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분야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요공법 및 자재의 결정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하였고, 감사원 및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안전점검 결과(승강장과 대합실 바닥에 피난유도시설 설치)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였다.

나. 복구공사

시설물 복구를 위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화성산업(주)를 주관사로 선정하여 중앙로역 지하 3층 구조물(3,000㎡)과 건축시설물(10,400㎡) 등에 대한 토목, 건축, 전기, 신호, 설비공사를 7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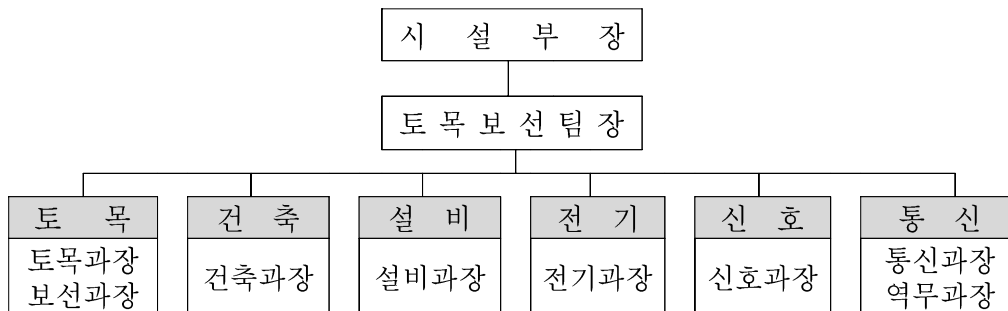
시공업체 현황

토 목	건 축	설비·소방	전기·전력	신 호	통신·역무설비
화성산업(주)	화성산업(주)	화성산업(주)	화성산업(주) 경성전기	(주)시그텍 C & A테크	우일정보기술(주) (주)동산통신

감리업체 현황

분 야 별	토 목	건 축	설 비	전 기	소 방
감리업체	(주)삼안	(주)동우	(주)설화	(주)동산	(주)남도
투입인원	4명	2명	1명	1명	1명

복구담당 체계도



1) 잔재물 및 보강시설 철거

7월 10일부터 9월 20까지 역사내 화재잔재물과 가받침(H빔 28조) 등 1,900톤을 모터카 견인 트레일러 4대로 운반하여 명덕역 상·하선 승강장에 임시 집하하였다가, 전동차 1편성당 60톤 정도를 적재하여 월배차량기지로 반출하였다.

반출할 물량을 집하하기 위해 명덕역 상·하선 승강장에 고무 보호깔판을 깔고 출입 계단부에 비산먼지 차단막을 설치하고, 전동차 1량에도 내부칸막이와 비산먼지차단막을 설치하여 운반함으로써 지상반출시 보다 10배 정도의 작업효과가 있었다.

2) 손상콘크리트 깨기

7월 25일 스라브 시공업체인 (주) 콘크리닉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시공업체에서는 철도청으로부터 Water Jet 장비 1대를 임대하여 천장 스라브 손상표면 깨기 (2,751㎡)작업에 착수하여 손상된 콘크리트 표면을 제거하였다.

이 공법은 Water Jet 장비가 950bar 내외의 압력으로 구조물에 충격·진동이 없이 표면을 요철방식으로 제거하여 콘크리트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등 안정성과 시공성을 확보하였다.

기둥·거더·현치 부분은 시공업체인 (주)태광이 C & P(2대) 장비를 사용하여 손상된 콘크리트 표면을 제거하였다. 이 공법에 사용되는 C & P장비는 공기타격식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분제거 및 취약개소 작업에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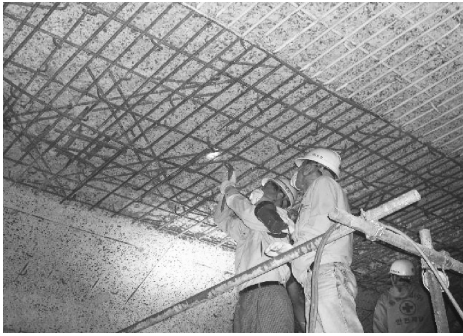
Water Jet 장비로 손상콘크리트 표면깨기



C & P 장비로 손상콘크리트 표면깨기

3) 지하 3층 단면복구

지하 3층 단면을 복구하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고압세척 및 철근·와이어매쉬 보강(6톤) 작업을 실시한 후 방청 (2,900㎡)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차선을 설치하기 위해 스라브에 매립전(76조)도 설치하였다.



스라브 철근보강



철근 방청작업

단면복구를 위해 시공업체인 (주)동원건설이 고압습식 스프레이기(8m³/일) 장비를 사용하여 8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공사를 추진하였다.

MDF공법은 고압스프레이 방식으로 복구면 압축·부착강도를 증대시키고, 현장에서 일정 물만 혼합하여 사용함으로 시공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고압스프레이 방식으로 단면복구

분말형 폴리머 모르터(독일산, 409톤 사용) 재료의 특성으로는 무기계 재료로서 기존 구조체와 일체성에 유리하며, 압축강도는 600kgf/cm² 정도이며, 부착강도는 30kgf/cm² 정도이다.

4) 건축 외장재 교체

중앙로역 지하 3층 천정판 2,080m², 바닥 마감석(화강석, 연단석) 1,200m² 및 벽체 범랑판넬 310m²를 교체하였으며, 역무실·매표실 바닥 액세스후로아 설치 352m²와 출입통로에 방범셔터 3개소를 설치하였다.

5) 전차선 설치

설치업체인 (주)경성전기에서 훼손된 460m구간에 대하여 전차선을 설치하고, 지하철공사에서 설치된 전차선의 편위측정 및 전열내력·급전시험과 열차 집전시험을 실시하였다.

6) 전기설비 교체

대합실, 승강장 분전반 32면과 케이블 및 전선 63,993m를 설치하였으며, 고압반, 변압기반, 저압반 점검 및 세척과 전력 케이블 방화도료 도포작업을 실시하고,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전차선 설치

7) 신호설비 교체

선로전환기 제어회로 보완 및 전자연동장치(VPI)용 Module과 전자기판, 정위치 정차안테나, 마커코일, 신호랙 냉각팬, 변압기 등을 교체하고 신호설비의 연동검사 및 개별시험을 실시하였다.

8) 기계·소방설비 교체

환기·공조 덕트설치 1,700m², 건전부 덕트청소 8,690m² 및 소방, 자동제어 배선·배관 등을 설치하였다.



공조덕트 설치

9) 역무자동설비 교체

전원 및 정보케이블 4,222m를 포설하였으며, 자동개집표기 덕트 및 받침대 등을 교체하였다.

10) 중성화 방지제 도포 및 도장

시공업체인 (주)신행건설이 단면복구 구간 콘크리트의 중성화 예방을 위하여 방지제를 도포(11,922m²)하고 부착력시험을 실시한 후, 승강장층 노출된 구조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도장공사(4,400m²)를 하였다.



중화 방지제 도포



승강장부 중앙기둥 및 스라브 등 도장

다. 중앙로 무정차 열차운행

10월 8일 전문가 7명을 초빙하여 중앙로역 복구시설물 및 열차운행 기반시설에 대한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무정차 통과전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상시계측이 필요하며, 신·구 콘크리트 접착부위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바닥석과 계단에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기계설비 분야는 닥트청소, 디퓨저부위 재손질, 배관부 미교체 부위 도장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장소에도 독자형 비상등을 설치하고, 전선 및 케이블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 불연성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앙로역 무정차 개통에 대비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판명되었다.

중앙로역 무정차 개통시 작업장을 확보하고 안전을 위해 상·하선 승강장 연단에 가설 칸막이(340m, 986㎡)를 설치하였다.



승강장 안전칸막이 설치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132개 편성 전동차를 투입하여 전구간 종합 인터페이스 시험을 실시하고, 10월 21일 중앙로역 무정차 운행을 시작하였다.

종합시운전 결과

분야별	시 험 내 용	결과
건 축	건축한계 측정	양호
전 기	내전압시험, 가압시험, 전차선 집전시험	"
신 호	연동검사, 종합 인터페이스 상태	"
통 신	열차무선, 화상설비, 종합 인터페이스 상태	"
차 량	열차방송, 종합 인터페이스 상태	"
종합사령	TTC 스케줄 삽입, 종합 인터페이스 상태	"



중앙로역 무정차 운행

2. 역사시설물 복구

가. 공사개요

- 공사기간 : 2003년 10월 21일 ~ 2004년 1월 31일
- 공사내용

구 분	복 구 내 용	소요예산 (백만원)	복구기간 (개월)	투입인원 (명)
계	지하 1·2·3층 시설물	16,687	8	13,225
토 목	긴급복구공사, 구조물 보강 등	5,515	8	4,932
건축	건축 마감재 교체 및 설치	3,466	7	3,194
기계·소방	공조덕트, 소방, 승강설비 등	2,114	7	2,850
전기 설비	전차선, 일반전기	1,140	7	1,140
신호 설비	신호시설물	2,460	4	409
통신·역무	통신, 역무자동설비	1,992	4	700

- 시공업체 : 화성산업(주) 외 4개사
- 감리업체 : (주)삼안건설기술공사 외 4개사

나. 복구공사 추진

1) 역사외장재 교체 및 개선

건축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바닥 마감석 248㎡, 계단통석 561㎡, 천장판 4,847㎡, 방범셔터 4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화재 및 정전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축광형 유도타일 및 입체안내도를 설치하였다.



대합실 AL천장판 및 배연경계벽



대합실층 기둥 결정화유리 마감



승강장층 벽체 범랑판넬



승강장층 안전휀스



계단석, 난간대, 축광형 유도표지



장애인 화장실



방범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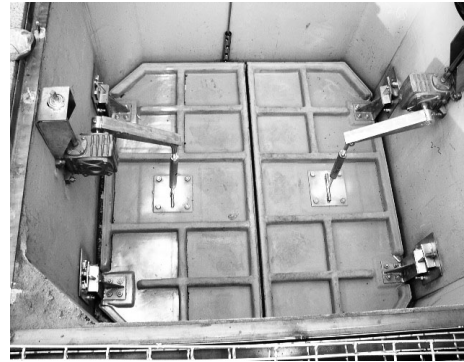
역이용 안내도

2) 토목시설물 보수 및 교체

본선환기구 차수문 4개소 및 그레이팅 교체(61㎡)와 잔재물 반출에 사용한 모터카 및 트레일러 정비·도색 7대, 균열·누수보수작업(2,852m)을 실시하였다.



환기구 그레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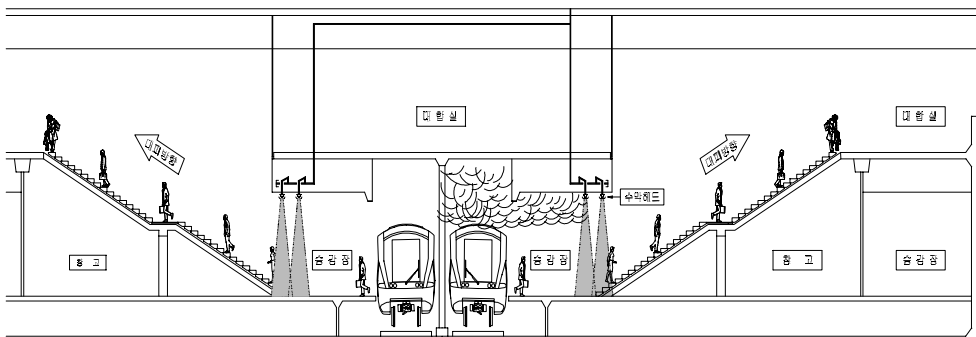


환기구 차수문

3) 소방·기계설비 교체 및 개선

기계·소방설비분야는 공조설비덕트 3,429m², 소방설비 851m,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8대를 교체하였으며, 환기·제연방식을 변경하여 연기배출량을 증대시켰고, 승강장 출입구에 제연경계벽(7mm 망입유리) 8개소 및 수막차단벽 8개소를 설치하여 화재시 방사열 경감, 가스·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소화용수를 상수도배관에 연결하여 지속적인 소화용수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였으며, 마감재 재질을 불연성으로 개체하고, 시운전 및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상태로 판명되었다.



화재시 수막설비 작동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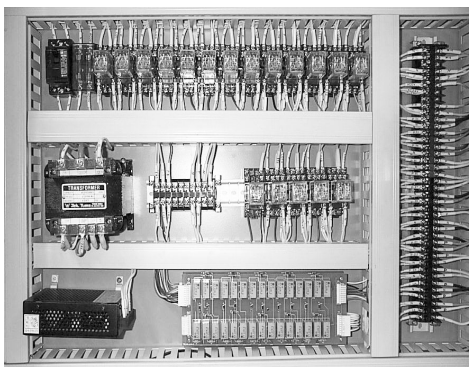
소화전(사용방법 형광표지판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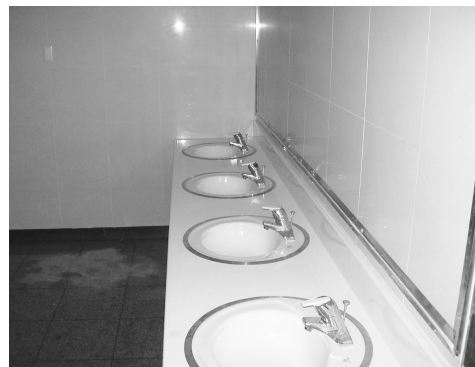
연기·열 감지기



화재 경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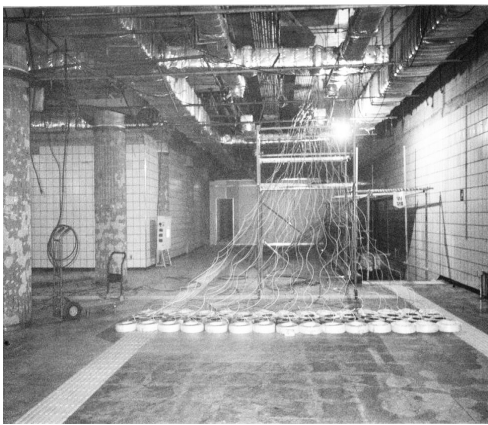
자동제어 기계설비



위생설비 설치

4) 전기설비 교체 및 개선

전선관 및 전선 설치 13,922m, 조명등기구 설치 2,030등, 고압차단기 점검 및 보수 10대,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였으며, 본선 터널에도 축전지 내장형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 비상시 대피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전선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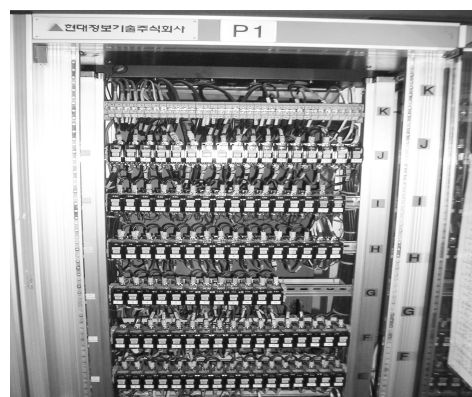
승강장 조명등기구

5) 신호설비 교체

신호시설물 완전복구를 위해 전원공급장치, 랙 터미널, 배선용 차단기 등을 교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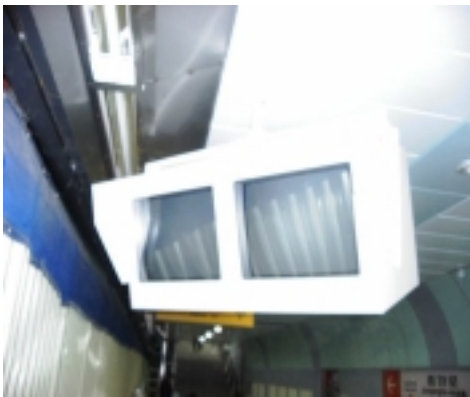
전원 공급장치



배선용 차단기

6) 통신설비 보완교체

통신시설물로는 감시용 디지털카메라 15대, 행선안내게시기 4개, 여자화장실 비상호출 Call Phone 10개소, 경찰청 통신망,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보완 설치하였다.



화상전송모니터



감시용 카메라



행선안내게시기



화장실 비상호출장치

7) 역무설비 교체

자동개집표기 등 9종 72대를 설치하여 개별 및 종합시험을 실시한 결과 작동상태가 양호하였다.



승차권 자동발매기



자동개집표기

다. 복구완료 및 개통

7월 10일 토목분야 복구공사를 시작으로 분야별 복구공사를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물이 복구됨에 따라 정상영업을 위하여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동차 4개 편성을 투입하여 12회(621.6km)에 걸쳐 전구간 시험운행을 실시하면서 종합인터페이스 시험을 병행 실시하고, 12월 31일부터 전구간 정상운행을 하였다.

종합시운전 결과

분야별	시 험 내 용	결과
신 호	신호설비 및 차량간 인터페이스 상태	양호
차 량	방송 및 안내게시기, 열차 정위치 정차, TWC 송수신 상태	"
설 비	소방설비 등 시설물상태	"
전 기	역사 전기설비 상태	"
통 신	통신·역무설비, 현장설비 및 사령설비간 연결상태	"
종합사령	현장설비와 사령설비간 인터페이스 상태	"

第3節 電動車 內裝材 交替

1. 교체배경

가. 제작실태

대구 지하철1호선 전동차 제작당시에는 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작규격서(구 매시방서, 제작사양서, 특수제작서)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사가 설계도와 세부 규격을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설계도서 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형식이었으며, 철도차량 화재안전기준에 대하여서는 국가차원에서 법, 제도적인 안전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시기였다.

서울 및 수도권의 지하철 건설과 각 지방도시의 지하철 건설 및 개통시기 인 1991~1998년 무렵에는 국내 전동차 제작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 철도차량 제작3사(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정공)의 설비투자 확충과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저가입찰이 성행하는 등 이 무렵 국내에서는 전동차의 기술투자에는 관심없이 신기술 도입의 과도기라 할 수 있었다.

기술도입 내용을 보면, 차체(차체골조 및 외판)의 재료는 연강(Mild steel)에서 내부식성이 강하고 무도장(無塗裝)의 장점인 스테인리스강(STS301 계열) 차체로 변경하였고, 저항제어차 및 초퍼 제어차에서 전력반도체의 발전에 따른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제어장치의 도입으로 직류전동기에서 교류전동기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컴퓨터의 발전으로 회로집적의 무점점화와 각종 기기의 컴퓨터화 및 열차운행 정보의 컴퓨터(TCMS, TIS)화 등으로 고장률이 감소하고,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수비 절감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운전장치는 수동운전(ATS 및 ATC)에서 자동운전장치(ATO/ATC)의 도입으로 2인 운전이 1인 운전 체제로 전환되는 등 획기적인 Version up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서울 2기 지하철 건설 및 부산 2호선, 인천, 광주, 대

전 등 대도시 지하철 건설의 시대적인 태동기로서 당시 전동차제작 구매시방서는 대동 소이하였으며, 내장재 관련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전동차 구매시방서 주요내용

1. 일반사항

1.2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대구직할시 지하철 1호선용 통근형 직류전동차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납품 및 시운전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차체

4.1.1 일 반

차체구조는 불연성 재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 및 기능상 불연성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난연성의 화재방지 구조로 한다. (...중략...)

4.1.5. 실내내장

4.1.5.1 상판(床板)

상(床) 구조는 키스톤 플레이트에 유니텍스(Unitex)를 채워 단열 및 방음 처리하고 그 위에 리노리움(Linoleum)을 붙인다.

4.1.5.2. 내장

1) 측벽, 차량 단부벽, 천장 및 칸막이 벽의 내장에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고, 화재에 강한 무도장형(FRP)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 무몰딩 시공하여야 한다.

2) 내장재 접합부에는 외관이 미려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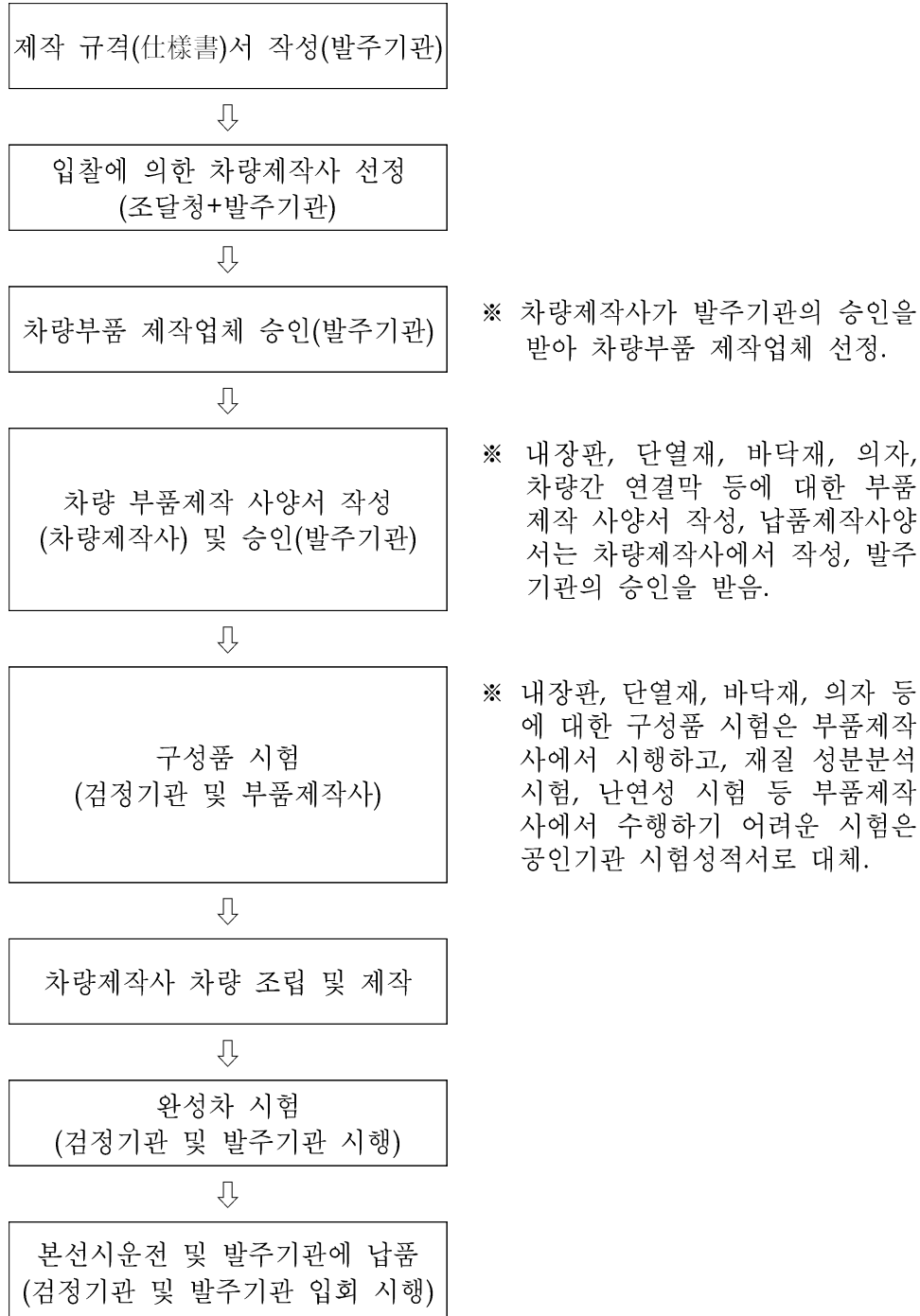
3) 차량 내부로의 방음 및 단열을 위해 차체외판과 내장판 사이에는 두께 50mm이상의 단열재를 넣어 방습이 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단열재는 방음효과도 우수하여야 한다.(...중략...)

4.1.5.5 의자

1) 객실의자

가) 의자의 안장은 철제프레임과 스프링으로 조합구성하고 의자의 플라스틱 프레임 위에 고탄성 발포제를 충진시켜 쿠션을 좋게 하고, 모켓트(Moquette)카바를 씌워야 하며 모켓트의 재질과 색상은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전동차 제작당시절차



나. 언론의 발표

지하철 화재사고 이튿날부터 전동차 제작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내장재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내장재 유독가스에 지하철 승객 치명타’, ‘의자·바닥재 순식간에 타면서 피해확산...’, ‘사상자의 상당수는 화상으로 인한 직접사망이 아니라, 전동차가 불타면서 내뿜은 맹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등이 그 내용이었다.

건설교통부에서 2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내부 자료에 의하면 “사고가 난 대구지하철 전동차가 제작된 1995년 당시 전동차 실내설비의 화재방지기준은 KS규정에 의한 난연성(亂燃性)시험 수준이며, 독성가스나 화염전파성, 연기밀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었다”며 “유독가스가 발생한 재질이 사용된 게 이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¹²⁾

전동차가 처음 도입된 1974년 이후 20년간 내장재 사용기준은 없었으며, 서울시 등이 외국 사례와 국내현실을 감안해 시방서에 형식적으로 담았을 뿐이다. 1994년 정부가 처음 만든 도시철도건설규칙에도 내장재 화재안전에 관한 것은 “불연재로 하되, 난연재도 가능하다”라는 있으나 마나한 구절이 있을 뿐이었다. 이 기준은 2000년에 다소 보완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허술하기 짝이 없다. ‘화재에 취약한 전동차가 수십년 사용된 데는 국민안전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과 무지 이외에 1990년대 전동차 제작3사(현대, 대우, 한진)의 출혈 덤핑도 한 몫 했다’¹³⁾라고 언론은 비판하였다.

또한, ‘값싼 지하철, 안전 위협한다’, ‘최저가 낙찰실시, 수출비용의 절반 값..., 품질도 엉망’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전동차 제작업체나 부품생산업체에 요구하는 품질기준 자체가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었다. 현재 국제기준에 맞춰 제작되는 수출용 전동차 1량 단가는 16~18억 원인 반면 대구지하철 1호선에 납품한 전동차는 7억원 선에 불과하다. 대구

12) 동아일보(2003.2.20)

13) 조선일보(2003.2.25)

지하철 화재참사를 빚은 전동차도 1993년 5~6억원대 주문된 것이 확인됐다¹⁴⁾는 내용을 보도했다.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내장재를 시료 채취하여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연구원에 성분 의뢰한 결과, 벽면재와 천장재는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검찰은 밝혔다.

다.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국회 재해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철도청 등 6개 기관과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3. 2. 24부터 3. 23까지 국내·외 도시철도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2003. 3. 24부터 5. 29까지 감사원 직원,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인력 25명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도시철도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시 인명피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요인이 전동차 내장재라고 지적했다.

1) 내장재 난연성 시험

철도청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1992년 이후 납품되어 운행 중인 전동차 4,421량 가운데 단열재를 폴리에스틸렌 폼으로 제작한 전동차 구매계약 단위별로 3량 정도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내장재와 단열재의 시료를 무작위 채취하여 KS M 3015¹⁵⁾ 및 KS M 3808¹⁶⁾ 시험규격에 따라 내장판 및 단열재의 난연성 시험을 하였다.

시험결과 난연성능이 부품규격서에 정해진 난연성능에 미달되게 제작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동아일보(2003.3.5)

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방법(1997년)

16)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시험방법(1997년)

내장판 난연성능 시험결과

운영기관별 불합격 현황				납품업체별 불합격 현황			
운 영 기 관 명	시험 횟수	불합격 횟 수	불합격률 (%)	납품업체명	시험 횟수	불합격 횟 수	불합격률 (%)
계	165	93	56.3	계	165	93	56.3
철 도 청	63	38	60.3	A주식회사	81	40	49.6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46	16	34.8	B주식회사	23	16	69.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4	25	73.5	C주식회사	21	15	71.4
부 산 교 통 공 단	13	8	61.5	D주식회사	12	7	58.3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6	6	100.0	E주식회사	9	9	100.0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3	0	0.0	F주식회사	16	6	37.5
				G업체	3	0	0.0

단열재 난연성능 시험결과

운영기관별 불합격 현황				납품업체별 불합격 현황			
운 영 기 관 명	시험 횟수	불합격 횟 수	불합격률 (%)	납품업체명	시험 횟수	불합격 횟 수	불합격률 (%)
계	123	73	59.3	계	123	73	59.3
철 도 청	52	27	51.9	1995년 이전	61	54	88.5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43	33	76.7	1996년	14	9	64.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9	6	66.7	1997년	14	2	14.3
부 산 교 통 공 단	9	2	22.2	1998년	9	1	11.1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7	5	71.4	1999년	14	3	21.4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3	0	0.0	2000년 이후	11	4	36.4

2) 지적사항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면서 전동차 내장재의 난연성능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대구지하철공사 등 전동차 구매기관에서도 구매규격서를 만들면서 내장판, 의자커버, 의자쿠션, 바닥재의 난연성능이나 단열재의 재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전동차 제작업체에서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내장재를 만들어 납품해 오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동차 구매기관에서는 처음 제작되는 전동차에 대해서만 내장재의 난연성능시험을 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리고 전동차 제작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에서는 내장재에 대한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지 않고 전동차 제작업체로 하여금 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전동차 제작업체가 최초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개인사업자 등에게 재하청하여 내장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도 그대로 두었으며, 개인사업자들이 시험에 합격된 것과 다른 내장재를 만들어 납품하였는데도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제도적 장치의 미비, 그리고 전동차를 제작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의 도덕성 부재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감사원에서는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국 등 외국의 전동차 내장재 재질 및 난연성능 기준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화재에 취약한 내장판, 단열재, 의자 등을 먼저 교체하도록 조치하는 등 국고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전동차 제작검정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거나 각종 부품을 부실하게 제작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쳤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철도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직접 또는 관하의 지하철건설본부장이나 산하의 지하철공사 사장 등으로 하여금 전동차 구매규격서에 내장재의 재질, 난연성능을 명확히 정하고 난연성능 검사방법과 시험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전동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불량제품으로 밝혀진 내장재는 하자보수 조치(전동차 제작업체와 제작비 분담 등을 협의하여 상향조정될 난연성능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전동차의 경우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상향될 기준에 맞는 자재로 교체하거나 구매규격서에 정한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납품한 전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제작 중에 있는 전동차의 경우에도 상향될 난연성능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

3) 구상권 청구

감사원 통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와 지하철공사가 공동으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제작 3사(한진중공업, 현대, 대우)로부터 전동차 제작부문을 포괄 승계받은 (주)로템과 실제 납품업체인 (주)한진중공업에 변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승계업체인 (주)로템은 포괄 승계받은 것이 아니고 전동차 제작 부문만 양수·양도 계약한 상태이므로 변상할 책임이 없으며, 만약 변상하게 되면 국내 유일의 전동차 제작업체로서 전국 6,000여 량에 대해서도 변상하게 되어 업체 도산의 우려가 있고 부당업체로 제재시 국내시장 마비는 물론 국제신인도 실추 및 법적 근거없는 상태에서의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으나, 대구의 정서를 고려하여 내장재 교체비용 중 일부를 성금형식(5~7억원 정도)으로 출연할 의사만을 나타내었다.

실 납품업체인 (주)한진중공업은 내장재를 기준에 미달되게 제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사양서를 대구시 및 지정검사기관(ROTECO)의 승인과 국가공인기관의 합격성적서를 받아 시공하였고, 또한 당시 동일한 제작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내장재 관련 제비용에 대한 변상조치 요구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시 승복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하철공사와 공동으로 전동차 계약서에 명시된 (사)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를 신청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초 계약대로 원상복구 시 소요될 비용에 대하여 원가계산, 변호사 선임 등 중재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하여 2004년 12월 중재신청을 하였다.

2. 내장재 교체

가. 내장재 시험

지하철공사에서는 제작당시 승인된 부품규격에 따라 전동차 내장재의 난연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전동차 1801호 및 1120호에서 내장판, 바닥판, 의자 구성품(의자패드 및 펠트지, 스폰지, 의자커버지), 단열재 등 7개 품목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및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토건재료센터에 난연성 시험을 의뢰한 결과, 2003년 5월 7일 내장판은 「가연성」으로, 단열재는 「이상있음」이라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았다. 내장판(FRP)은 KS M 3015, 6.24항의 내연성 시험에 따른 결과이다.

내장판(FRP) 시험 결과

시 험 항 목	판 정 기 준			시 험 결 과			판 정
	가연성	불연성	자 기 소 화 성	시험체 No.1	시험체 No.2	평균	
내연성 A 법	180초 이상 불꽃이 꺼지지 않았을 때	연소거리가 25mm이하	연소거리가 25mm이상 100mm이하	180초 이상	180초 이상	180초 이상	가연성
				180초 이상	180초 이상	180초 이상	가연성

객실 바닥판은 KS M 3305¹⁷⁾ (5.2.9항의 내연성, 장치 및 시험편 KS M 3015의 A법)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이다.

객실 바닥판 시험결과

시 험 항 목	판 정 기 준		시 험 결 과						판 정
	난연성	자 기 소 화 성	시험체 No.1	시험체 No.2	시험체 No.3	시험체 No.4	시험체 No.5	평균	
내연성 A 법	연소거리가 25mm 이하	25mm초과 100mm 이하	11	8	9	11	8	9.4	난연성
			7	9	8	7	7	7.6	난연성

17)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1996.

단열재는 KS M 3808, 6.11항의 연소성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한 결과이다.

단열재 시험 결과

시험항목	단위	시료구분	결 과 치	시 험 방 법
연소성	-	1220	이상있음(*)	KS M 3808 : 1997
	-	1801	이상있음(**)	KS M 3808 : 1997

※ (*)는 3초 초과 및 연소한 한계선 초과, (**) 3초 초과

의자 구성품(의자패드 및 펠트, 폴리우레탄 폼)은 FMVSS No.302¹⁸⁾으로 시험한 결과이다.

의자 구성품 시험 결과

시 험 항 목	시 험 결 과						
	시험체 측정항목	품 명	No. 1	No.2	No.3	No.4	No.5
자동차 내장재 연소성 시 험	연소속도 (inch/min)	의자패드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펠 트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스 폰 지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연소하지 않 음

의자 커버지는 JIS Z 2150에 의해 시험한 결과이다.

의자 커버지(moquette) 시험 결과

시 험 항 목	판 정 기 준				시험결과(2분가열)			
	구분	탄화길이	나머지 불 꽃	나머지 분 진	탄화 길이	나머지 불 꽃	나머지 분 진	난연성
난연성 시 험	방염1급	5cm이하	없음	1분후에 존재 하지 않을 것	11.7	0	0	방염3급
	방염2급	10cm이하	5초 이하	1분후에 존재 하지 않을 것				
	방염3급	15cm이하	5초 이하	1분후에 존재 하지 않을 것				

18) FMVSS, Federal Motor Vehile Safety Standards, No. 302 내장재의 가연성 기준

나. 교체범위

지하철 화재사고 후 내장재로 인한 피해확산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성 내장재로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목표 아래 교체비용, 교체범위, 소요기간을 파악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지하철공사에서는 전동차 34편성(204량)에 대한 5개 품목(바닥재, 객실의자, 연결통로막, 내장판, 단열재)을 전면 교체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적용기준과 교체범위 축소, 예산부족 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교체범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바닥재, 의자, 통로연결막만 교체하자는 입장이고, 대구시와 시의회 및 관련단체는 전면적인 교체(바닥재, 의자, 통로연결막, 내장판, 단열재)를 요구하는 등 교체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6월 20일 감사원에서 전국 관계기관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철 안전실태 감사시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에 대한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전동차 내장재의 발열량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발표가 있었다.

대구지하철 전동차의 경우에도 연결통로막은 아미드섬유와 줄타포린의 구조로 화재시 발열량은 전체의 약 1%정도의 위험성이 있고, 전동차 통로문이 있는 구조로서 차량 외장재이기 때문에 내장재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 발열량 분석결과(2001년)

재 료	내장판	단열재	의 자	바닥판	연결통로막
발열량	FRP	폴리에틸렌폼	폴리우레탄폼 폴리에스테르	PVC	아리미드섬유 줄타포린 수지
26,843 MJ (100%)	13,640 (50%)	6,336 (24%)	2,889 (11%)	3,740 (14%)	238 (1%)

※ 전동차 1량 기준 총발열량은 26,843 MJ로 휘발유 813 l 정도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량에 해당

정부에서는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소실 전동차 2개 편성 구입비, 전동차 불연성 내장재 개조비로 30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전동차 34편성(204량)의 불연성 내장재 개조경비로 국비 170억원과 지방교부세 73억원 등 총 243억원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전동차 내장재 교체품목은 객실의자, 바닥판, 통로연결막으로 부분교체를 권고하였다.

6월 27일 대구지하철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전동차 내장재(의자, 바닥판, 통로연결막)를 화재위험성에 따라 내장판, 단열재, 의자, 바닥판 등의 순으로 교체할 것을 건의하였고, 8월 2일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철공사 의견대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통보해 왔다.

교체품목 조정 및 대상재료

구 분	기 준	교 체
내장판	폴리에스테르 계,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	페놀 계, 유리섬유 강화, 라미네이트 방식
단열재	발포폴리에스테르 폼(P.E. Foam)	유리섬유(Glass wool)
의 자 구성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재 : 폴리에스테르 모켓 · 쿠션 : 폴리우레탄 폼 및 펠트 · 등받이 받침 : P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재 : 방염모켓 · 쿠션 : 소량 극난연성 · 프레임 : 알루미늄 또는 불연성 플라스틱, 압축성형
바닥판	PVC (염화비닐수지)	불연성 합성고무 판
통 로 연결막	폴리에스테르 편직물에 PVC코팅 난연성 처리, 보호막은 합성고무	향후 보수교체시 불연성으로 교환

1) 내장판

내장판 재료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BS 6853의 Vehicle category I a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장판 설치에 따른 기타 부속류는 NF F16-101 또는 NFPA-130

을 적용하였고, 측벽, 차량 단부벽, 천장 및 칸막이 벽의 내장판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는 구조로 하도록 하였다.

내장판은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고 표면은 평활도가 우수하고 변형·변색이 없어야 하며, 특히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곡선처리를 미려하게 하여야 하고, 냉방덕트나 디퓨저 등 내장판에 관련되는 기존 FRP재료의 부속품도 교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밖에 창틀 고무재료는 화재방지를 위하여 NF F16-101 또는 NFPA-130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2) 단열재

단열재는 화재방지를 위하여 KS L 9102¹⁹⁾의 유리면(GW) 2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에 적합한 판재 형상으로 성형하여 표면을 알루미늄 박(KS D 9003)으로 포장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난연성 시험은 NFPA 130에 따르고, 가스 유해성시험은 KS F 2271²⁰⁾에 의해 하도록 하였다.

3) 객실 의자

의자재료는 BS 6853의 Vehicle category I a 또는 NFPA-130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자와 등받이는 기존 설치 받침대를 감안하여 제작·설치하며, 외부로부터 훼손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의자 하부에 각종 기기(ACM, 각종 밸브류 등)가 배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자의 분해·조립이 쉬운 구조로 하도록 하였으며, 의자하부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도록 하였다.

4) 바닥판

기존 바닥판(염화비닐 PVC)의 접착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바닥판 재료는 BS 6853의 Vehicle category I a에 적합하여야 하고 여객용 철도차량의 조건과 특성을 만족해야 하며 특히, 접착제는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19) 인조 광물섬유 보온재 시험방법(1997년)

20)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1998년)

내장재 신·구 재료 및 시험기준 비교

구 분		기 준	개 선
내장판	재료	폴리에스테르계 FRP	벽체 : 불연성 페놀계 FRP 천장 : 알루미늄
	화재 시험	KS M 3015(내연성 시험)	BS 6853(영국 표준규격) - 화염전파, 연기밀도, 연기독성
단열재	재료	폴리에틸렌 폼(P.E 폼)	유리섬유
	화재 시험	KS M 3808(연소성 시험)	NFPA 130(미국 화재예방협회 규격) - 화염전파, 연기방출 KS F 2271(가스 유해성 시험)
바닥판	재료	염화비닐(PVC)	불연성 합성고무
	화재 시험	KS M 3305(내연성 시험)	BS 6853 I a - 화염전파, 연기밀도, 연기독성
의 자	재료	폴리에스테르 모켓 폴리우레탄폼 + 펠트 금속스프링 + 금속 및 PVC 프레임	Wool 모켓 안티반달 패드 알루미늄 프레임
	화재 시험	FMVSS No.302 (미국 자동차 규격)	NFPA 130(미국 화재예방협회규격) - 화염전파, 연기밀도

5) 안전설비 개선 및 리모델링

비상인터폰을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설하여 객실 전후 양쪽 1.5m 높이에 설치하고, 기관사와 통화가 불가능할 때는 사령실과 통화할 수 있는 응답 최대 시간을 기본 13초에서 8초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전시를 대비하여 비상용 객실 안내명판을 불연성 축광식 또는 야광식으로 개선하고, 객실소화기는 기존 가압식에서 축압식(압력계기 부착형)으로 개선하였으며, 그 밖에 승객 구난용 산소호흡기(약 17분용), 구급용 들 것, 메가폰 등을 운전실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객실 리모델링 개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석 상단 양쪽을 제외한 기존 선반은 제거하도록 하고, 승객편의를 위해 유모차 및 휠

체어 사용공간을 맨 앞 및 뒤 TC차에 각 1개소, 열차 중간부분 T차에 2개소 등 모두 4개소에 신설하였다. 그리고 객실 형광등의 플라스틱 커버를 제거하고, 절전형(40W→32W) 3파장 형광등으로 교체하여 실내 조명을 향상시켰다.

다. 교체작업

내장재 교체규격서를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2003년 11월 29일 (주)로템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설계와 구체적인 재료의 선정, 교체장소, 작업공정, 교체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실내 색상선정을 위한 시민여론 조사 및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설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2004년 1월 14일부터 월배차량기지에서 시제차(試製車)의 내장재 교체를 위해 10호 편성(6량)을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내장재 제작·교체에 대한 제3자 검정을 위해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과 검정용역을 계약하였고, 지하철화재참사 희생자유가족대책위원회 및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7명을 시민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교체과정을 검정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12일 월배차량기지에서 참사유가족, 시민단체, 학계, 관계기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18 참사이후 추진한 내장재 교체 설명회와 강화된 불연성 내장재의 신·구 부품전시회, 화재실연(實燃)행사를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지하철공사의 그간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기존 및 교체 내장재의 연기밀도와 발열량의 재료시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장재 교체로 발열량이 기존에 비해 62%, 연기발생량이 76%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신·구 부품에 700℃ 고열로 30초간 불을 붙이자 시트, 바닥, 단열재, 내장판 등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기존 내장재는 쉽게 불이 붙고 검은 연기를 내뿜었으며, 유독가스로 냄새도 맡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로 교체한 내장재는 불이 붙지 않고 연기 등은 거의 나지 않았다.

또한, 실제 전동차의 3분의1 크기로 제작한 모의전동차에 대한 화재시험도

이뤄졌다. 시험은 시트, 바닥에 시너 4ℓ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방식이었다. 불을 붙이자 전동차는 3초만에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에 휩싸였으며, 유독가스 냄새도 났다.

그러나 2분 30초가 지나면서 불길은 사그라들었고 3분 35초가 지나자 저절로 꺼져 버렸다.



모의전동차 실연(實燃)

2004년 4월 12일에는 내장재를 최초로 불연재로 교체한 전동차에 관계기관, 시민단체, 명예감시관, 언론기관 등 100여명이 승차한 가운데 월배차량기지 → 진천 → 송현역(회차) → 월배기지 구간에 대한 시승회를 가졌다.

2004년말까지 22편성(132량)에 대한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교체 전동차를 우선 투입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2005년 6월말까지 34편성 204량에 교체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불연 내장재로 교체된 전동차 내부

第5章

自願奉仕活動

第1節 奉仕活動 參與..... 323

第2節 奉仕活動 内容..... 330

第3節 美談垂範事例 333

第5章 自願奉仕活動

第1節 奉仕活動 參與

대구시는 2002년 7월 조해녕시장 취임이후 「하나되는 복지도시」라는 시정 방침 아래 자원봉사를 시정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먼저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구시민의 성향을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변모시켜 나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

지하철 화재사고 당시에 대구시는 조직개편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과를 신설하여 자원봉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조직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 있었다.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많아지면서 사고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봉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70여일간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에 71개 봉사단체 26,509명과 개인봉사자 546명이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편의제공, 사고대책본부 지원 등 사고수습활동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사고 당일인 2월 18일에는 적십자사, 지역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등이 참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봉사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여 2월 23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1,30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참가인원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마감한 4월 23일에는 2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일자별	2월 19일	2월 23일	2월 28일	3월 5일	3월 20일	4월 1일	4월 10일	4월 20일
참여인원	910명	1,310명	740명	590명	301명	209명	157명	27명

기업체, 종교단체, 의료단체,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원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주었다.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에 사상 최대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대구지역 사회가 보수성·배타성을 탈피하고 개방적·진취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었고, 나아가 「자원봉사 모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1. 자원봉사단체

지하철 화재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든 자원봉사의 물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2월 18일 오전 중앙로역 사고현장에는 적십자사 봉사단을 비롯하여 대구여성회관 자원봉사단, 대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이 나와서 구조활동을 펴고 있는 소방관 등 관계자들에게 간식과 음료수를 지원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각급 봉사단체에서 주·야간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어졌다.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대구시민회관 광장에는 2월 19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각급 자원봉사단체 소속 봉사자들이 몰려들어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실종자 유가족에게 식사 및 음료수 제공을 비롯하여, 진료 및 투약, 심리상담, 생필품 제공, 예배 인도, 합동분향소 참배객에게 국화꽃 제공, 실종자의 휴대전화 통화위치 확인, 유가족의 편의를 위한 무료 충전기 및 무료이용 전화 설치 등 봉사분야도 다양하였다.

이들 봉사단체중 하나님의 교회, 삼성사회봉사단, KT사랑의 봉사단, 적십자사, 대구농협임직원 봉사단, 새생명 복지회 등의 봉사단체에서는 약 2개월 동안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24시간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특히, 시민회관과 중앙로역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건강을 우려하여 대구시 의사회와 약사회를 비롯하여 대구의료원, 한국건강관리

협회 대구시지부 등에서 유가족들에게 무료 진료 및 투약 봉사를 하였으며, 카운피아 닷 컴 봉사단에서는 심신이 극도로 지친 유가족들에게 심리상담을 해 주는 등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였고, 녹색환경봉사단에서는 중앙로역 지하 1층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1회용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이색적인 봉사활동도 펼쳤다.

봉사단체별 활동상황

봉사단체명	기 간	참여인원(명)	주 요 활 동
삼성사회봉사단	2.19 ~ 4.18	4,200	1일 평균 900명 급식 컵라면 200개 제공
KT 사랑의 봉사단	2.18 ~ 4. 7	950	1일 평균 950명 급식 커피 등 제공
KT 대구지사	2.18 ~ 4.23	142	무료전화 70대 설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2.18 ~ 4.19	2,004	1일평균 400명 급식제공 환자간호, 혈액검사 등
대구시 종합자원봉사 센터	2.19 ~ 4.12	1,320	커피, 우유 등 제공 봉사활동 총괄지원
시 새마을회	2.19 ~ 4.21	2,116	컵라면, 커피, 녹차제공
대구의료원	2.25 ~ 4.30	472	실종자 유가족 진료 및 건강검진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2.20 ~ 3.20	415	유가족 고충처리 및 상담 컵라면 등 제공
민주당 대구시지부	2.20 ~ 4. 9	300	유가족 애로사항 상담 유가족대기실 청소 등
카운피아 닷 컴	2.20 ~ 4.23	150	유가족 및 부상자가족 심리상담
대구시 의사회	2.19 ~ 3.25	230	임시진료소 운영
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2.20 ~ 2.25	150	커피, 음료수 등 제공
구세군 대구경북지방 본영	2.19 ~ 2.28	248	커피, 녹차, 음료수, 컵라면 등 제공
지체장애인협회 한마음여성봉사회	2.20 ~ 4.12	120	커피, 녹차, 음료수 등 제공

봉사단체명	기 간	참여인원(명)	주 요 활 동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2.19 ~ 2.20	60	급식 제공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2.20	25	커피, 녹차, 음료수, 컵라면 등 제공
침산 동부교회	2.19 ~ 2.22	35	커피, 녹차, 음료수, 컵라면 등 제공
충북 보은군 자원봉사센터	2.21	25	청소 등 노력봉사
롯데백화점 사랑나눔봉사단	2.20 ~ 3. 9	190	커피, 녹차, 음료수 제공 주변 교통정리
홈플러스 대구점 한사랑회봉사단	2.20 ~ 3.10	120	커피, 녹차, 음료수, 컵라면 등 제공
여성회관 여성 자원활동센터	2.19 ~ 2.25	280	커피, 컵라면 등 제공 조문객 안내
동부여성문화회관 자원활동센터	2.20 ~ 2.25	260	합동분향소 조문객 안내 대기실 청소 등
KTF 대구사업본부	2.19 ~ 3.17	128	무료충전기 설치 통화위치 확인
(주)LG텔레콤 경북사업부	2.22 ~ 3.10	48	무료충전기 설치 통화위치 확인
SKT 스피드사랑 나눔봉사단	2.19 ~ 3.12	120	무료충전기 설치 통화위치 확인
대구농협임직원봉사단	2.18 ~ 3.17	1,230	1일 평균 100명 급식 음료수 등 제공
대구은행 DGB봉사단	2.19 ~ 3.15	490	컵라면, 과일, 어묵, 음료수 등 제공
대한불교제9교구 봉황자원봉사단	2.19 ~ 3.21	480	유가족 대기실 청소 간식 등 제공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봉사단	2.19 ~ 4. 9	1,000	컵라면 등 제공 무료 49제 봉행
대구시 약사회	2.20 ~ 3.16	279	임시약국 설치 구급약 등 제공
경상북도 약사회	〃	-	〃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2.20 ~ 4.15	1,900	1일 평균 800명 급식 떡, 계란 등 제공

봉사단체명	기 간	참여인원(명)	주 요 활 동
(사)새생명복지회	2.20 ~ 4.15	1,450	1일 평균 500명 급식 떡, 어묵 등 제공
한국기독교 연합회봉사단	2.19 ~ 3.21	755	치약 등 생필품 및 음료수 등 제공
(주)대구백화점 한마음봉사단	2.19 ~ 3.15	335	컵라면, 커피, 빵, 녹차 등 제공
동아백화점 해돋이봉사단	〃	320	컵라면, 커피 등 제공 분향소 주차관리
시종합복지회관 자원활동센터	2.21 ~ 4.21	306	커피, 컵라면 등 제공 유가족 수지침봉사
원봉교회 대구경북지회	2.21 ~ 3. 3	140	약차, 찹쌀떡 제공 대기실 청소 등
한국담배인삼공사 한마음주부봉사단	2.21 ~ 3.17	424	분향소 조문객 국화꽃 제공
계명대학교사회봉사단	2.21 ~ 2.24	86	화장실 청소 등 노력봉사
대구지방변호사회	2.22	3	무료법률 상담
(사)대구시 여성단체 협의회	2.23	10	분향소 안내 및 청소 등
대구가족치료센터	2.26 ~ 4.23	230	심리적 고통상담 노약자 보호 등
한울인봉사단	2.25 ~ 3.18	150	피로회복제 제공 한방 진료
대구시 한의사회	3. 1 ~ 3.16	128	침구시술, 한약제 투약, 마사지 등
대구경북 모난돌	3. 1 ~ 3.11 3.11 ~ 3.31	220	유가족에게 1회용 산소 공 급
녹색환경봉사단	3. 1 ~ 3.11 4. 1 ~ 4. 7	120	유가족에게 1회용 산소 공 급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	3. 5 ~ 3. 6 3.18 ~ 3.21	40	무료 건강진단
코오롱가족사회봉사단	3.10 ~ 3.14	30	분향소 안내, 화장실 청소 등
국민은행 대구사회 봉사단	3. 9 ~ 4.13	200	컵라면, 꿀 등 제공 정육 250kg 지원

봉사단체명	기 간	참여인원(명)	주 요 활 동
(주)신세계이마트 월배점	3.21 ~ 4.21	30	커피, 음료수, 빵, 컵라면 등 공급
중구지역 자원봉사센터	2.20 ~ 3.12	279	음료수 등 제공 물품지원 등 봉사
동구지역 자원봉사센터	2.20 ~ 3.14	140	〃
서구지역 자원봉사센터	2.20 ~ 3.20	185	〃
남구지역 자원봉사센터	2.20 ~ 3.17	541	음료수 등 제공 물품지원 등 봉사
북구지역 자원봉사센터	2.20 ~ 3.20	140	〃
수성구지역 자원봉사센터	2.21 ~ 3.13	180	〃
달서구지역 자원봉사센터	2.20 ~ 2.26	169	〃
달성군지역 자원봉사센터	3.21 ~ 4.21	172	〃
부산자갈치 아지매봉사단	3. 8부터(6회)	70	유가족 식사제공
충북 종합자원봉사센터	2.21	25	떡 1,500명분 제공
동화사	2.20 ~ 4. 7	28	합동분향소에서 천도불공
불교조계종 지장선원	2.20 ~ 4. 7	35	희생자 49제 봉행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3. 8	4	유가족 산소공급(600켤)
인천시 서구 검단1동 새마을부녀회	3.21	3	커피, 녹차 등 제공

봉사단체명	기 간	참여인원(명)	주 요 활 동
부산가야라이온스클럽	3.21	6	유가족 식사제공
이랜드 사회봉사단	2.21 ~ 2.22	8	화장실청소 등 노력봉사
TGI FRIDAYS	2.21 ~ 2.23	15	간식 등 제공
대구연애인협회	2.23	13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곡 연주
달서구공무원자원봉사단	2.22	8	유가족 대기실 청소 등 노력봉사
중구 공무원자원봉사단	3. 8	27	〃

2. 개인봉사자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을 위한 봉사활동에는 단체에 소속된 봉사자뿐만 아니라 개인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사고발생 다음날부터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2개월 동안 546명이 참여하여 사고수습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자원봉사 참여자의 연령층도 초등학교생에서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 이르고 참여계층도 학생,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현역군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봉사활동 내용도 물품운반 및 관리, 유족대기실 정리 정돈, 주차질서 지도, 화장실 청소, 합동분향소 방문객 안내 및 장내 정리,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실 업무지원, 접수된 성품 이동 및 정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면서 10일간 휴가를 나온 한 장병은 휴가기간 동안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대구시민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봉사활동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포상휴가를 받아 대구에 와서 다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당시 64세의 한 노인은 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중앙로역과 사고대책본부에서 노력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희생자 유가족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第2節 奉仕活動 内容

1. 희생자 가족지원

가. 숙식지원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실종자 신고를 한 가족들이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시민회관과 사고현장인 중앙로역 지하 1층에서 장기간 숙식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에서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단체와 개인봉사자들은 실종자 가족 돕기에 적극 나섰다.

특히, 유가족들이 24시간 계속 대기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식사문제가 우려되었으나 참여봉사단체 중에서 삼성사회봉사단, KT사랑의 봉사단, 하나님의 교회, 새생명복지회, 대구농협의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등의 봉사단체에서 70여일간에 급식 연인원 204천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소요경비만 해도 940여백만원에 달하였다.

또한, 적십자사에서는 사고현장인 중앙로역 지하 1층에서 숙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동급식을 하여 이들의 식사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등 급식 자원봉사는 지하철 화재사고 봉사활동의 핵심으로서 사고수습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대구은행 DGB봉사단, 기독교연합회봉사단, 원봉공회봉사단 등의 단체에서도 24시간 계속 봉사활동을 통해 라면, 어묵, 과일 등의 간식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였다.

나. 의료지원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아픈 상처를 다소나마 달래주고 치료해 주기 위한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대구광역시의사회에서는 2월 19일부터 사고대책본부에 임시진료소 2개소를 설치하고 연인원 359명(의사 135, 간호사 148, 행정요원 76)의 의료진이 유

가족과 자원봉사요원 등 2,404명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약사회에서도 2월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희생자유가족, 자원봉사요원, 행정요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회원 279명이 유족 대기실에서 「봉사약국」을 운영하여 10,600여명에게 자체 구입한 의약품(6,772천원 상당)과 제약사 협찬 의약품(54,000천원 상당) 등을 무료로 투약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희생자유가족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여 3월 5일부터 2일간 1개팀 14명으로 자원봉사 검진팀을 구성하고 검진차량 1대를 동원하여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유가족 58명에게 진찰 및 혈액검사 등 10여종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대구의료원에서는 3월 5일부터 중앙로역에서 실종자 등 피해자 가족 161명에게 간 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혈당검사, 심전도검사, 흉부X-선촬영 등 30여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53명에게 무료투약을 하고, 유소전자 75명에게는 대구의료원 가정의학과에서 초음파검사, 위내시경, 유방암검사 등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카운피아 닷 컴, 한울인 봉사단, 대구가족치료센터 등의 의료봉사단체서는 심신이 허약해져 있는 유가족 등 13,000여명에게 심리상담을 해 주어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녹색환경봉사단에서는 중앙로역 지하 1층에서 장기간 숙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1회용 산소공급 봉사활동을 펼쳐 유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다. 기타 지원활동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통신서비스 봉사는 다른 봉사활동과는 좀 특이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에서 실종자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확인작업과 무료이용 전화기를 설치하여 유가족과 분향소를 찾은 방문객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천도제와 49제, 예배 인도 등으로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반의 사체손상과 유골확인에 필요한 의료장비인 C-arm(시가 45,000천원)을 장비제조업체 (주)메디슨에 지원 요청하자 회사측에서 당일 제조한 장비를 월배차량기지 현장에 즉시 이송,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원확인에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반에서 2월 20일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구한 DNA 채혈용 주사기 및 채혈용기 6,000개(시가 1,500천원 상당)를 남북의료기상사(남구 대명동 50-17, 박한웅)가 무상 기증함으로써 사태수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 부상자 지원활동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대구시내 경북대학교병원 등 12개 병원에 분산 입원하였으며, 이들 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소홀함 없이 전개되었다.

부상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중 33개 자원봉사단체에서 연인원 1,212명이 참여하였고, 개인봉사자 76명이 참여하였다. 봉사활동내용은 부상자 가족들에 대한 도시락 및 간식제공, 생필품 지원, 식권 및 무료 주차권(월주차) 제공, 부상자 식사보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대구광역시이용사회에서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중인 부상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회원 6명이 이발자원봉사팀을 편성하여 3월 11부터 4일간 광병원 등을 방문하여 부상자 25명에게 이발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부상자와 이들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은 각 구청별 해당지역에 있는 병원별로 전개되었다. 주로 부상자에게는 간병봉사, 휠체어 제공, 병실방문 위로, 전문간병인 알선 조치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환자 보호자에게는 음료수 및 생필품(치솔, 치약, 비누, 화장지 등) 지원, 간식부름 등을 해 주었으며, 문명손님 안내 봉사활동도 펼쳤다. 특히 자원봉사자 중에는 간병인을 자진 신청하여 주·야로 번갈아 가며 24시간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 어려울 때일수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였다.

第3節 美談垂範事例

1. 언론보도 내용

지하철 화재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과 좌절감이 큰 만큼이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사연 또한 적지 않았다. 위험하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자신을 내던져 이웃을 구했던 의인들의 용기와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온정의 손길이 언론을 통해 속속 알려졌다.

“‘무뚝뚝한 대구인은 옛말’, 참화 속에서도 시민정신은 빛났다. 참사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발길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무뚝뚝한 대구 정서를 다정다감하게 바꾸고 있다”¹⁾고 전하며, 이번 사고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또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구가 자원봉사 모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이번 참사수습에 대구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기반이 확충됐고,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의식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²⁾이라는 분석과 함께, “올해 처음 자원봉사과를 신설한 대구시는 이들 자원봉사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자원봉사를 체계화하는 실험장이 되고 있다”³⁾고 보도했다.

대구는 유사 이래 가장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기를 맞아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의 높은 이상에 다가가려는 몸짓을 수많은 시민들이 몸소 실천해 보임으로써 대구시가 표방한 「자원봉사의 메카」가 구호만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구현될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시민사회의 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은 셈이다.

1) 매일신문(2003.2.24)

2) 영남일보(2003.3.28)

3) 대구MBC(2003.3.10)

언론보도 주요내용

구 분	소개언론		미담·자원봉사 사례	
	언론사	일 자	주인공	내 용
사고 관련 미담 사례	조선/한국 매일신문 KBS/MBC TBC	2.19 " " "	장대성 (34세)	○ 지하철공사 안심차량기지 검수팀 ○ 사고직후 승객을 대피시키다 순직
	조선/한국 매일신문 KBS/MBC TBC	2.19 " " "	김상만 (30세)	○ 지하철공사 월배차량기지 검수팀 ○ 사고직후 승객을 대피시키다 순직
	조선일보 매일신문 TBC MBC	2.19 " " 2.26	정연준 (35세)	○ 지하철공사 통신역무사업소 ○ 사고당시 중앙로역에 신호체계 점검차 방문하여 구조활동 도중 순직, 대명초교 박모군에게 3년간 월 10만원 장학금 지원
	조선일보 매일신문 TBC	2.19 " "	최환준 (32세)	○ 지하철공사 통신역무사업소 ○ 사고당시 중앙로역에 신호체계 점검차 방문하여 구조활동 도중 순직
	한국일보	2.19	황윤찬(44) 외 6명	○ 북부소방서 구조대 ○ 지하2층에 고립된 10여명을 구조하면서 실신자에게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물림
	KBS MBC	2.19 "	권춘섭 (45세)	○ 대구선철도 금호역장 ○ 사고 전동차(1080호)에 타고 있던 중 수동으로 출입문 개방후 승객대피
자원 봉사 활동	매일신문	2.24	이현종 이성옥 김인철	○ 지하철 전기신호사업소 ○ 화재소식을 듣고 인근 대구역 선로를 통해 현장에 접근, 10여명을 구출함.
	매일신문	2.22	미국USO 회원, 20지원단 장병	○ 21일 사고대책본부 앞에 부스를 마련,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줌.
	매일신문	2.22 2.24	대한생명 대구지원단 10여명	○ 중앙로역 2번 출입구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행인들에게 「근조」리본 1만 2천개 를 나눠줌.

구 분	소개언론		미담·자원봉사 사례	
	언론사	일 자	주인공	내 용
자원 봉사 활동	매일신문	2.22 2.24	대구음악협회 회원 5명	○ 21일~23일까지 아카데미 시네마 앞에서 30분~1시간 가량 추모음악 연주
	매일신문	2.24	화성산업 자원봉사단	○ 김경용 과장외 10여명 ○ 희생자 가족들에게 음료수 제공
	TBC MBC 매일신문 중앙일보 대구신문 영남일보 세계일보	2.20 2.21 2.24 3. 8 3.27 4. 7 4. 9	대구KT사랑 의 봉사단	○ 합동분향소, 유족대기실에 전화기 30대 를 설치하여 무료로 사용케 함. ○ 매일 60여명이 음료 및 음식 제공
	MBC TBC 매일/영남 영남일보	2.21 2.23 2.24 3.13	대구시의사회 대구시약사회	○ 임시진료소 설치, 3.13일까지 40여명의 의사가 희생자가족 1,200여명 치료 및 약품지원
	매일신문	2.24 3.13	카운피아닷컴	○ 유가족 심리상담 봉사
	매일신문	2.24	권영국(26) 이창희(24) 주효진(21)	○ 경북대학생 ○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구호품 운반 및 보관소 관리
	MBC 매일신문 중앙일보 대구신문 영남일보 조선일보	2.21 2.24 3. 8 3.27 4.17 4.19	삼성사회 봉사단	○ 매일 90~100명씩 24시간 교대로 봉사 ○ 1일 3000명분의 식사와 과일, 음료제공
	매일신문	2.24	현대기아 자동차	○ 장의용차량, 제수용품 100박스, 헌화용 국화 2000송이 지원 ○ 직원 1천500명여명 동원, 복구활동 참여
	매일신문	2.24	동아백화점	○ 직원 25명이 24시간 교대로 컵라면, 빵, 음료 등 구호물품 제공 ○ 사고대책본부 주변 주차관리 지원

구 분	소개언론		미담 · 자원봉사 사례	
	언론사	일 자	주인공	내 용
자원 봉사 활동	매일신문	2.24	롯데백화점 사랑나눔봉사단	○ 밤낮 2교대로 구호물품 1천명분 제공 ○ 주차도우미 10여명 차량안내
	매일신문	2.24	홈플러스 한사랑회	○ 20일~28일까지 대구·칠곡·성서점 합동 으로 컵라면, 빵, 음료 등 제공
	KBS/TBC 매일신문	2.19/20 2.24	대구은행 DGB봉사단	○ 대구은행부인회와 함께 3교대로 24시 간 라면, 음료와 따뜻한 국물, 어묵 등 제공
	KBS TBC 매일신문	2.19 2.20 2.24	대구농협봉사 단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 서대구농협식문화센터에서 식사와 간 식을 조리하여 제공
	매일신문	2.24	현대오일뱅크	○ 임직원 2천여명은 21일 사내 헌혈캠 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와 5천만원 상당 유류상품권 유가족들에게 제공
	영남일보	2.24	이상국(37) 외 20여명	○ 대구시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 후원품 운반 및 대책본부·희생자가족 대기실 주변 청소
	영남일보	2.24	조용철	○ 서울 강남에서 식당 운영 ○ 추어탕 400인분을 대한적십자사 자원 봉사팀에 전달
	KBS MBC 대한매일 중앙일보 대구일보	2.23 2.25 " " 2.26	이달식 (45세)	○ 실종자 이현진(19)양 아버지(대구시직원) ○ 사고대책본부에서 유가족들의 신원확 인 작업 지원 ○ 실종된 딸을 합격(서울대) 취소시키 고 차점자에게 입학기회 주도록 요청
	대한매일	2.25	배은호 (49세)	○ 실종자 배소현(20)양 아버지(약사) ○ 희생자대기실 내 임시약국에서 봉사 활동
	대구일보	2.26	북구여성문화 대학봉사단 (회장 강복순)	○ 25일 한성병원을 찾아 지하철 부상자 간병 및 잡무처리

구 분	소개언론		미담 · 자원봉사 사례	
	언론사	일 자	주인공	내 용
자원 봉사 활동	대구일보	2.26	수성구자원 봉사센터 봉사자 6명	○ 25일 광병원에 입원중인 지하철 부상 자 간병활동
	대구신문 영남일보	3. 6 "	담배인삼공사 한마음주부 봉사단	○ 21일부터 매일 10명씩 윤번제로 합동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에게 헌화용 국 화 6만송이 제공
	KBS/TBC 동아일보	2.19/20 3. 6	적십자대구 지사봉사자 50여명	○ 18일부터 급식용 차량을 배치, 구조대 원과 부상자, 실종자 가족 등에게 급식
	동아일보	3. 6	새생명복지회, 대구지체장애 인협회한마음 봉사회 50명	○ 대책본부 관계자 등 1000여명에게 하 루 3끼 식사 및 음료수 제공
	동아일보	3. 6	대학생봉사 단체“신망애”	○ 경북대 봉사동아리 ○ 유가족 뒷바라지
	동아일보	3. 6	영남중학교 재학생	○ ‘95년 상인동도시가스폭발 당시 43명의 희생자를 낸 영남중 재학생들도 윤번 제로 사고현장을 방문, 급식활동 지원
	동아일보 중앙일보	3. 6 3. 8	한국기독교 연합회 봉사단	○ 정기적 추모예배 개최 ○ 실종자가족에게 칫솔·속옷·면도기 등 제공
	동아일보 중앙일보	3. 6 3. 8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봉사단 등 불교봉사단	○ 합동천도제 봉행 ○ 따뜻한 어묵 등 국물 제공
	중앙일보 대구신문	3. 8 3.27	하나님의교회 자원봉사대	○ 희생자 가족, 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어묵과 국밥 등 식사와 절편·부침개 등 간식 제공
	MBC TBC	3.13/24 3.13	이희국 (21세)	○ 육군 충일부대 상병 ○ 휴가중 실종자가족 대기실에서 청소 및 위문품 나르기 등 봉사활동
	대구일보	4.21	대구시새마을 자원봉사팀 10여명	○ 유가족 등에게 컵라면과 커피, 음료 등 제공
	경북일보	5.23	오진우 (27)	○ 아시아나항공 서울지사 직원 ○ 지하철참사로 부상을 입은 친구를 찾 아 왔다가 3개월여 동안 희생자대책 위원회에서 자원봉사

2. 수범사례

① 60대 노인이 사고수습 전 기간 봉사활동 참여

동구 신천3동에 거주하는 박양인씨는 2개월 이상(2.19~4.23) 사고대책본부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였다. 박씨는 10여년전 양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다리를 잃고 현재 의족으로 지탱하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한 노력봉사로 유가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으며, 장애인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② 분식점 영업도 중단하고 5일간 봉사활동

경북 영주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윤로씨는 지하철 사고 소식을 듣고 분식점 문을 닫기까지 하면서 대구에 와서 5일간 봉사활동을 하였다. 윤씨는 서울에 거주하다가 2002년 11월 연고도 없는 영주로 내려와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시민회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성품관리, 물품운반 등의 노력봉사를 하였다.

③ 휴가나온 장병이 봉사활동 참여

육군 73사단 의무대에 근무하는 이희국 상병은 정기휴가와 포상휴가 기간 동안 유가족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상병은 첫 휴가인 2003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시민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후 귀대하였으며, 이 상병의 선행이 언론에 공개되어 부대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포상휴가를 받고 다시 대구에 와서 헌신적인 자원봉사를 하였다.

④ 부산 「자갈치 아지매봉사단」에서 유가족에게 식사 제공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의 「자갈치 아지매봉사단(대표 : 신길순)」에서는 6회에 걸쳐 부산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중앙로역 지하 1층에서 나쁜 공기를 마시면서 장기간 숙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해독에 좋다는 복어국과 해산물 등을 제공하고 위로하였다.

⑤ 30대 미혼남이 2개월간 회사 휴가내고 봉사활동

수성구 범물동에 거주하는 이상국씨는 다니고 있던 정비공장에 2개월간 휴가를 내고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씨는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전사하고 현재 큰어머니 댁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밤낮없이 사고대책본부와 중앙로역을 오가며 유가족들에게 식사와 생활용품 제공, 후원물품 운반 등 수범적 봉사활동을 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다.

⑥ 미군장병 3명 봉사 활동

서울 용산에 있는 미8군봉사회(United Service Organization)소속 장병 제리부르노의 2명은 2월 21일부터 2일간 사고대책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생수, 빵, 음식료 등을 직접 준비해 와서 유가족에게 나누어 주어 국경없는 봉사정신을 실천하였으며, 한·미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⑦ 대전시 구의원이 장의차 지원 등 봉사활동

대전 중구의회 정진국(대전보건대 교수)의원외 9명은 2월 20일부터 7일간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 장례식 지원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동료교수 및 학생들과 대구에 머물면서 대전에서 직접 몰고 온 장의버스 4대로 희생자 4명의 장례식을 무료 지원하였다.

⑧ 충북 종합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떡 제공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속회원 25명은 2월 21일 대책본부를 방문하고, 준비해 온 단호박떡 1,500명분을 대책본부와 중앙로역에서 유가족들에게 직접 나누어주었다. 이들은 1998년 충북 보은군의 수해피해시 복구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대구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⑨ 담배인삼공사 한마음주부봉사단에서 헌화용 국화꽃 제공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본부 한마음주부봉사단(회장 이성애)은 시민회관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에게 헌화용 국화꽃을 무료로 제공해주었다. 이들은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매일 10명씩 윤번제로 24시간 합

동분향소를 관리하면서 80,000여 송이의 국화꽃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봉사단 회원들은 국화꽃 송이 포장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운동에도 기여하였다.

⑩ 「녹색환경봉사단」과 「모난돌」에서 유가족에게 산소 공급

녹색환경봉사단과 모난돌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산소를 공급하였다. 이들은 유가족이 나쁜 공기를 마시며 장기간 노숙하고 있는 중앙로역 지하 1층에서 1회용 산소호흡기를 비치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에게 산소를 제공하였다.

⑪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가족에게 「맑은공기」 공급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고영구) 직원 4명은 3월 8일 참사현장인 중앙로역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제주 삼라 맑은 공기」와 생수를 공급하였다. 이들은 한라산 중턱 700m 지점에서 채취한 맑고 깨끗한 공기 600캔과 생수 4,500병을 가지고 와서 유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건강회복을 기원하였다.

⑫ 유가족을 위한 예배 인도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단장 김정태목사)은 2월 23일부터 3월 21일까지 시민회관 대강당 분향실에서 매일 2회(06:00, 20:00) 유가족들을 예배에 인도하였다. 개신교 목사들이 윤번제로 인도하는 예배에는 매회 20~30명의 유가족들이 참여하였다.

3. 자원봉사자 격려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화재사고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고수습에 크게 기여한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봉사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간의 노고를 위로·격려하였다.

삼성사회봉사단 등 46개 봉사단체에 대하여는 감사패를 전달하고 개인봉사

자 5명에 대해 표창을 하였으며, 사고수습지원에 참여한 봉사단체 및 개인봉사자에게 감사서신을 발송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감사의 인사말씀

지난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되신 영령들께 먼저 삼가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와 유가족 및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송구스런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이번에 따뜻한 인정과 두터운 사랑을 바탕으로 참사의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밤낮없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귀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은 많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께 큰 위안이 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어 주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귀하의 수범적이고 조직적인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의 참 모습과 봉사의 가치와 보람을 새롭게 일깨워주어 새시대 밝고 아름다운 봉사의 경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불의의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자원봉사의 대열에 흔쾌히 참여하여 슬픔에 잠긴 이웃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나누어주신 귀하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고장을 자원봉사의 수범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더욱 훌륭하게 공헌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귀하의 직장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크고 보람찬 발전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03년 5월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념 드림

第6章 國民誠金・救護物品

第1節 國民誠金 募金…………… 345

第2節 救護物品 接受・處理 …………… 361

第6章 國民誠金·救護物品

第1節 國民誠金 募金

1. 성금모금

가. 모금배경

사고 당시의 관련법에 의하면, 태풍, 호우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는 재해로,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피해는 재난으로 구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과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재해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에 성금 모금주체(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명시되어 있고 정형화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으나, 재난으로 인한 성금에 대하여는 모금주체 및 지급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았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책임소재가 명확한 일반 재난사고(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등)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강원도 산불사고처럼 사고의 원인이 인위적인 사고인지 자연현상인지 불명확한 특별재난과 자연재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재해구호절차에 준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인위적인 사고이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성금을 모금한 최초의 사례로서 특별재난사고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 많은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TV 및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각계 각층의 국민들로부터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를 위로하기 위한 문의가 대구시 사고대책본부, 각 언론사로 쇄도하였다.

엄청난 피해를 낸 대형사고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정부에서는

희생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국민성금 모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여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를 위한 국민성금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나. 모금현황

성금모금의 주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되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 2월 20일부터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당초 모금액은 200억원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실종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인명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1차(2.28)로 성금목표액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차(3.12)로 모금기간을 연장(20일→40일)하고 성금목표액도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모금기간 및 모금허가액

구 분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모 금 기 간	2.20~3.11	2.20~3.11	2.20~3.31
모 금 허 가 액	200억원	500억원	700억원

성금은 주로 언론기관을 통한 기탁모금 및 ARS 모금과 사고대책본부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으로 모금되었으며, 각 방송사 및 신문사, 사고대책본부 등에 기탁된 성금은 모금기간 종료 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관되었다.

모금기간 중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및 경제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및 학생, 일반국민, 해외동포,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많은 국민들이 성금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사고대책본부를 직접 찾아와서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3월 31일 모금 마감결과 4,000여개의 기업과 단체, 450만명의 국민이 참가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50억원에 이르는 성금이
답지하여 총 67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민성금을 모금하게 되었다.

모금기관별 성금 모금액은 사고대책본부 264억원, 방송사 248억원, 신문사
111억원, ARS 39억원, 전국재해구호협회 9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계층별 성
금기탁 현황은 기업체가 57.9%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반인
21.9%, 공무원 7.5%, 학생 7.3%, 종교계 4.6% 등으로 나타났다.

모금기관별 성금모금 현황

(단위 : 천원)

계	사고대책본부	방송사	신문사	ARS	재해구호협회
67,169,179	26,437,973	24,806,864	11,110,976	3,909,555	903,811

계층별 성금기탁 현황

(단위 : %)

구 분	기업체	일반	공무원	학생	종교	기타
금액기준 구 성 비	57.9	21.9	7.5	7.3	4.6	0.8

고액기탁자 현황(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기탁자	금액	연번	기탁자	금액
1	삼성그룹	5,000	12	S-OIL	500
2	LG그룹	3,000	13	신한은행	340
3	SK그룹	3,000	14	대구은행	303
4	현대자동차	2,000	15	두산그룹	300
5	국민은행	1,000	16	신세계	300
6	롯데그룹	1,000	17	우리은행	300
7	현대중공업	620	18	CJ그룹	300
8	포스코	500	19	금호그룹	300
9	한진그룹	500	20	기독교대한감리교회	250
10	한화그룹	500	21	사회복지법인한국복지재단	220
11	KT	500	22	전국새마을금고연합회	203

(단위 : 백만원)

연번	기탁자	금액	연번	기탁자	금액
23	교보생명	200	45	동국제강	100
24	기업은행	200	46	동부그룹	100
25	농협	200	47	동서식품	100
26	대한건설협회	200	48	동아백화점	100
27	(주)풍산	200	49	동양그룹	100
28	효성	200	50	성신양회	100
29	KCC	200	51	(주)대상	100
30	서울특별시	150	52	(주)부영	100
31	외환은행	150	53	(주)태영	100
32	한미은행	150	54	(주)태왕	100
33	현대백화점	150	55	코오롱	100
34	대우건설	120	56	태광그룹	100
35	시네마서비스 강우석 감독	100	57	테원엔터테인먼트	100
36	강원랜드	100	58	파라다이스 그룹	100
37	경기도	100	59	포스코건설	100
38	박지은(골프선수)	100	60	한국마사회	100
39	국민건강관리공단	100	61	한국전력	100
40	농심그룹	100	62	한국타이어	100
41	대교눈높이	100	63	한솔	100
42	대구백화점	100	64	한진중공업	100
43	대순진리회	100	65	SBS	100
44	대우조선	100			

2. 국민성금 배분

가. 정부 배분기준

정부에서는 5월 13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대구시,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관련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성금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5월 17일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에 통보하였다.

성금 배분계획을 보면, 정부는 모금된 성금 가운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모집비용(신문 광고비)을 제외한 전액, 즉 당시 총모금액 657억원중 모집비용 152백만원을 제외한 약 655억원을 대구시 사고대책본부로 조기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성금 배분대상은 사고 피해자인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로 하며, 성금 배분주체는 대구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에서 사망자 유가족 등 사고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성금용도는 우선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는 차등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고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경비와 추모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추모기념관 건립 또는 복지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관련단체의 입장

사고대책본부는 정부의 성금배분계획에 따라 세부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족 단체와 부상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당시 유가족 단체는 희생자대책위원회(86명 정도)와 2.18유족회(95명 정도)로 양분되어 있었고, 부상자단체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로 단일화되어 있었으나, 성금배분에 대한 입장은 각 단체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는 1인당 250백만원, 부상자는 사망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잔여성금은

추모사업에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2.18유족회에서는 국민성금 전액을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의 특별위로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추모사업 비용은 추후 세부계획 확정 후 유가족 등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에서 자체적으로 거두어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국민성금 전액을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의 특별위로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추모사업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부상자 특별위로금의 규모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특별위로금으로 배분한 금액의 80% 정도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마련

1)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6월 18일 중앙 관계부처 및 대구시 등이 참석한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에서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망자 특별위로금은 대형사고 사례 가운데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지급한 1인당 170백만원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 권고안으로 사망자 1인당 2억원 정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대형사고시 지급한 사례와 부상정도에 따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망자 1인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1인당 특별위로금 지급 사례

(단위 : 백만원)

구 분	아현동 도시 가스폭발사고 (‘94년)	상인동 도시 가스폭발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95년)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99년)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99년)
사망자	123	170	170	80	80
부상자	-	국가배상법 노동력상실률 적용 지급	국가배상법 노동력상실률 적용 지급	미지급	미지급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정부의 성금 배분계획과 특별위로금 권고안을 기준으로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대책위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전체 설명회(2회)를 개최하고 시장서한문을 발송(2회)하였으며, 지역원로자문회의(7.31)와 지역 고액성금기탁자 간담회(8.1)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사망자 특별위로금으로 1인당 250백만원을 요구하는 희생자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형사고 사례 가운데 최고금액인 170백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1인당 221백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2.18유족회와는 일부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부상자대책위원회와는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희생자 단체간의 이견으로 완전한 합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고대책본부에서는 현재까지 각 단체와의 협의내용과 고액성금기탁자 간담회, 지역원로자문회의, 대구시 실·국장회의, 시민 여론 등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성금배분 기준안을 마련하여 8월 6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고, 8월 8일 확정된 성금배분 기준안을 각 대책위에 통보하였다.

대구시 성금배분 기준안 내용은 사망자 특별위로금의 경우 과거 대형사고 사례 가운데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지급된 170백만원을 참고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사망자 1인당 221백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자 특별위로금의 경우 사망자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직접 지원경비의 경우 사고수습경비 중 지하철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을 위하여 집행된 경비(식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를 지원하며, 추모사업비의 경우 특별위로금 및 직접 지원경비를 제외한 성금잔액 전부를 추모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추모벽 설치, 안전교육관 건립, 기념(복지)재단 설립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러한 성금배분 기준을 각 단체에 통보한데 이어, 8월 11

일과 8월 23일 2차례에 걸쳐 국민성금 배분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유가족 모두에게 발송하였으며, 부상자의 경우에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내문 발송을 보류하였다.

사고대책본부는 8월 12일 특별위로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었던 2.18유족회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대구시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2.18유족회는 실종자가 사망자로 신원 확인된 날까지 유가족 휴업 손실분에 대해 성금으로 추가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사고대책본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 따라 사고대책본부에서는 8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실종자 유가족 휴업 손실분을 성금 사용용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하고, 8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에 재차 건의하였다.

그러나 9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특별위로금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정신적 충격, 그로 인한 시간적 손해 등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금으로서 여기에는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위로금 외에 별도의 생업중단에 따른 손실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와 실종자 유가족 휴업 손실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 유가족 관련대책위와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는 여전히 대구시의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거부하고 계속 협의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8월 15일 사고대책본부와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가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측은 부상자 특별위로금 규모를 당초 요구한 사망자 유가족 특별위로금으로 배분한 금액의 80%수준에서 50% 정도로 낮추어 책정하되, 보상금 지급후 증세가 악화되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성금으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한 협의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2003.8.21~8.31) 이후부터 2개월 정도 중단되었다가 피해자 직접지원 경비관련 협의가 먼저 진행된 이후인 10월 24일부터 다시 협의에 들어갔다.

사고대책본부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과정에서도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안으로 부상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기준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¹⁾ 가운데 부상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28일 7차 협의에서 사망자 특별위로금 지급액(221백만원)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부상정도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가운데 부상자 개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일부 부상자들이 별도의 단체(‘가칭’ 부상자권익쟁취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단체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남으로써 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의 지급이 상당기간 지체되었고,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 지원하기로 한 운영비 등 직접 지원경비의 집행이 약 7개월 정도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 법적보상 비대상 부상자

사고현장에서 화재진화와 인명구조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전투경찰 등 법적보상 비대상자(15명)와 법적보상 대상자이나 노동능력 상실률이 0%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부상자(1명) 등 16명이 있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가족 단체와 부상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고현장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

1)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 브라이드(Mc Bride)가 쓴 「노동능력 상실평가와 배상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에 기재되어 있는 신체장애 평가방법으로 장애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 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요소, 손잡이(좌·우측)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과학적으로 이를 조합화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책은 제6판(1963)이다

행하다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전투경찰 등에 대하여 격려 및 위로차원에서 국민성금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성금 배분기준에 대한 자문과 중앙안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에 따라 2004년 5월 4일 개최한 보상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지급기준에 대한 자문을 구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대상은 소방공무원(12명), 전투경찰(1명), 신문기자(2명) 등 법적보상 비대상자 15명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0%인 법적보상 대상자 1명 등 16명이며, 이들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적보상 대상자 중 최저 법적보상금(560만원) 수령자(노동능력 상실률 0%인 자)의 순수 위자료분 500만원을 최고액으로 정하고 투약일수 및 입원일수에 따라 3등급(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직접 지원경비 배분 협의

사고수습활동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단체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직접 지원경비의 배분과 관련하여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대책위원회, 2.18유족회,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와 7차례 협의를 통해 직접 지원경비의 항목, 지급기한, 기준, 금액 등을 결정하였다.

1차 협의(10. 18) 및 2차 협의(11. 19)에서 사고이후 11월말까지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단체에 직접 지원된 경비 중 대구시 예비비로 우선 집행한 식비, 물품구입비 등 517백만원은 국민성금으로 대체하여 집행하기로 관련단체와 합의하였고, 12월부터 향후 1년간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총 19개 항목 가운데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비, 식비, 통신료 및 공과금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변호사 자문료, 사고보고서 발간비, 추모행사비, 실종자 확인 실비보상, 대책위원 활동 제경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의견차이로 상당기간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19일 3개 단체와 가진 7차 회의에서 직접 지원경비의 지급기준, 지원기간, 소요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2004년 1월 27일 대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지원경비 규모를 확정하였으며, 2004년 2월 4일 직접 지원경비 확정안을 관련단체에 통보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확정된 직접지원경비의 총 소요액은 2,726백만원이며, 2주기 추모행사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지원기간은 2003년 2월 18일 사고이후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

마. 추모사업비 배분

특별위로금 및 직접지원 경비를 제외한 잔여성금 14,099백만원 정도는 추모사업 재원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현재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추모벽 설치, 안전교육관 건립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국민성금 배분관련 주요일지

일 자	내 용
'03. 5. 13	○ 관계부처 회의시 성금배분 계획 확정(보건복지부)
5. 17	○ 정부의 성금배분 계획 통보(보건복지부→대구시)
6. 18	○ 국무조정실주재 회의시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정부권고안 확정 - 사망자는 1인당 2억원, 부상자는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6. 25	○ 성금배분관련 협의(희생자대책위·유족연합회)
6. 30	○ 국민성금관련 시장서한문 발송(유가족)
7. 19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및 보상관련 유가족 설명회(행정부시장)
7. 31	○ 성금관련 원로자문회의 개최(시장, 행정부시장, 원로 14명)
8. 1	○ 고액성금기탁자 간담회 개최(행정부시장, 고액기탁자 6명)
8. 6	○ 보건복지부와 협의후 市 성금 배분기준 확정
8. 7	○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건의(보건복지부)

일 자	내 용
8. 8	○ 국민성금 배분 기준 통보(유가족·부상자대책위)
8. 9	○ 국민성금 배분관련 유가족 설명회(행정부시장)
8. 11	○ 국민성금관련 안내문 발송(유가족)
8. 12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관련 협의(2. 18유족회) - 추모사업 관련 유족회 참여 요구 - 실종자유가족 휴업손실분에 대한 보상(성금) 요구 - 사망자특별위로금을 221백만원으로 합의
8. 15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관련 협의(부상자대책위) - 특별위로금은 사망자 배분액의 50%인 21,216백만원 요구 - 보상후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 추가보상(성금) 요구 - 추모사업에 부상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8. 19	○ 제17차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개최(위원장: 국무총리) - 실종자유가족 휴업손실분에 대한 성금지급 건의(복지부 검토) - 소방공무원 등 특별위로금 지급건의(대구시 검토)
8. 23	○ 국민성금 특별위로금 관련 안내문 발송 (유가족)
8. 26	○ 실종자유가족 휴업손실분 보상(성금) 건의 (보건복지부) - 실종기간 중 휴업손실분에 대해 성금으로 보상 건의
9. 9	○ 실종자유가족 휴업손실분 보상(성금) 관련 회신 (보건복지부) - 특별위로금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성금 지급은 불가
10. 18	○ 직접지원경비 관련 1차 협의 (3개 대책위) - 기집행경비 및 향후 지원경비 관련
10. 24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1차 회의) - 사망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상자 개인별 180%~10%정도 차등지급할 수 있는 소요액 21,216백만원 요구
10. 28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2차 회의) - 특별위로금의 일정금액을 부상자 몫으로 지급 요구

일 자	내 용
11. 13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3차 회의) - 부상자 개별 노동능력상실율에 25.81%를 일률적으로 가산한 수치에 사망자 지급액을 곱하여 지급 요구 - 부상자 고통비 2,000만원 추가지급 요구
11. 17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4차 회의) - 11.13 회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협상결렬
11. 19	○ 직접지원경비 관련 2차 협의(3개 대책위) - 기집행경비(사고 이후 11월말까지) 규모 확정 - 향후('03.12~'04.11) 대책위운영비 19개항중 13개항 합의
11. 20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5차 회의) - 부상자 개별 노동능력상실율에 25.81%를 일률적으로 가산한 수치에 사망자 지급액을 곱하여 지급 요구
11. 24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6차 회의) - 부상자 개인별 노동능력상실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부상자 몫으로 총 12,486백만원 배분요구
11. 28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합의(7차 회의) - 사망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부상정도는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과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중에서 부상자 개인별 유리한 기준 적용
12. 9	○ 직접지원경비 관련 3차 협의(3개 대책위) - 향후('03.12~'04.11) 대책위 운영비 중 6개항
12. 11	○ 직접지원경비 관련 4차 협의(3개 대책위)
12. 30	○ 직접지원경비 관련 5차 협의(3개 대책위)
'04. 1. 12	○ 직접지원경비 관련 6차 협의(3개 대책위)
1. 19	○ 직접지원경비 관련 7차 협의(3개 대책위) - 향후('03.12~'04.11) 대책위 운영비 6개항 최종 협의
1. 27	○ 대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직접지원경비 심의 결정
2. 4	○ 직접지원경비 확정 통보(3개 대책위)

3. 국민성금 집행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5차에 걸쳐 대구시(세입세출외 현금)에 이관된 국민성금 총액은 67,017백만원이다. 대구시에서는 국민성금을 당초 공금예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2004년 1월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위로금 집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추모사업의 경우 조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금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접지원경비 등 조기집행 소요액을 제외한 잔여성금을 3개월 및 6개월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민성금 이관 현황

(단위 : 천원)

모금액	모집비용	대구시 이관액					
		1차 (‘03.2.26)	2차 (‘03.5.20)	3차 (‘03.6.16)	4차 (‘04.3.4)	5차 (‘04.9.17)	계
67,169,179	152,000	5,055,000	60,605,000	1,162,061	192,014	3,104	67,017,179

이관된 국민성금 67,017백만원은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50,192백만원, 유가족 및 부상자와 관련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경비로 2,823백만원, 추모사업비로 14,002백만원이 배분되었다.

국민성금 배분 및 집행현황

(2004. 12. 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배분액 (소요액)	집 행 액	잔 액
합 계	67,017,179	51,231,859	15,785,320
특 별 위 로 금	50,191,850	48,701,426	1,490,424
사 망 자(192명)	42,432,000	41,106,000	1,326,000
부 상 자(148명)	7,759,850	7,595,426	164,424
보상대상자(133명)	7,722,850	7,558,426	164,424
소방공무원등(15명)	37,000	37,000	-
직 접 지 원 경 비	2,823,493	2,521,333	302,160
추 모 사 업 비	14,001,836	9,100	13,992,736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성금 집행현황은 사망자 특별위로금의 경우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을 제외하고 186명에 대해 41,10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망자 1인당 221백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부상자 특별위로금의 경우 법적보상 대상자(133명) 중 소송계류 중인 4명을 제외한 129명에 대해 7,55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기준은 사망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 또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다만, 노동능력 상실률 0%인 1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령한 법적보상금(560만원) 중 간병료(60만원)를 제외한 순수 위자료분(500만원) 만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또한, 법적보상 대상자가 아닌 소방공무원(12명), 전투경찰(1명), 신문기자(2명) 등 15명에 대해서는 투약일수 및 입원일수에 따라 3등급(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하였으며, 총 지급액은 37백만원이다.

직접 지원경비의 경우 총 소요액 2,823백만원 중 유가족 및 부상자와 관련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2,521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실종자 확인 실비보상(137명)으로 840백만원, 유가족과 부상자의 급식 및 생필품 지원에 523백만원, 대책위사무실 운영 제경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비, 공과금 등) 345백만원, 대책위원 활동 실비 등 제경비(식비, 교통비 등) 477백만원, 추모행사 관련 경비(합동영결식, 1주기 추모제 등) 303백만원, 법률자문료 33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실종자 확인 실비보상의 지급기준은 실종자로 분류되었던 사망자 138명에 대해 실종기간(사고일~신원확인일)에 해당하는 교통비 성격의 실비보상으로 사망자 기준으로 1일 120천원씩 지급되었다

직접 지원경비의 집행잔액(302백만원)은 2주기 추모행사, 유가족 및 부상자 단체의 사고보고서 발간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직접지원경비 집행현황

(2004. 12. 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2,823,493	2,521,333	302,160	
실종자(138명)확인 실비보상	842,160	840,000	2,160	1명 미수령
피해자 급식, 생필품 지원	523,528	523,528	-	
대책위사무실운영 제경비	344,699	344,699	-	
대책위원활동실비 등 제경비	476,960	476,960	-	
법률자문료	33,550	33,550	-	
추모행사 지원	452,596	302,596	150,000	2주기 추모행사
사고보고서 발간	150,000	-	150,000	

第2節 救護物品 接受·處理

1. 접수창구 운영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구호물품 및 위문품을 사고대책본부에 기탁하겠다는 문의가 잇달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사고대책본부 조직내에 「대외협력반」을 두어 구호물품 및 위문품을 접수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리·배분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구호물품 및 위문품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였다.

전국 각계·각층에서 답지한 구호물품 및 위문품은 사고 직후부터 4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되어 의약품, 생필품, 의류품, 식음료 등 총 259여종, 108,330여점의 물품이 접수되었다.

구호물품(위문품) 접수 현황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총 계	108,330점	국 화 꽃	5,000송이	과일 등	517세트
의 약 품	744세트	헌혈증서	2,637장	모 포	450장
생 수	7,364박스	빵	3,566세트	양 말	12,625세트
우 유	42,226개	음 료	5,420병	TV	6대
라 면	215박스	생필품 등	19,490세트	향	111갑
김 치	277봉	티 슈	609갑	주유권	5,000매(1만원)
쌀	597kg	김	1,475박스	기타(239종)	25,188점

2. 구호물품 배분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지하철사고 이후 접수된 식음료, 생필품, 의약품 등 구호물품(위문품)을 접수하는 대로 당시 시민회관 별관 1층 및 중앙로역 대합실

에서 밤낮으로 대기하며 생활하던 실종자 가족 등 유가족들과 가야기독병원의 9개병원에 분산 입원치료 중이던 부상자들에게 배분하였고, 일부는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단체와 자원봉사단체 등에 배분하여 유가족 및 부상자들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주유상품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호물품 배분이 6월 20일 경 완료되었다.

7월중에는 현대오일뱅크주유소(북구 산격2동 1552번지 소재)로부터 기탁받은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0매(5천만원상당)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관련 대책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배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게 1인당 12매씩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잔여분은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이번 사고는 실종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의 신원확인 작업이 상당기간 소요되었고, 신원확인 이후에도 추모묘역 조성문제로 시신인도 및 장례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 등 유가족들이 중앙로역 및 시민회관에서 숙식하면서 장기간 대기함에 따라 생수, 빵, 라면, 음료수, 생필품(모포, 의류, 세면용품) 등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생필품 등 일부 품목은 부족하여 국민성금으로 긴급 구매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다.

第7章

被害 補償

第1節 補償業務 推進	365
第2節 死亡者 補償	386
第3節 負傷者 補償	407
第4節 物の被害 補償	418

第7章 被害 補償

第1節 補償業務 推進

1. 법률검토

가. 보상주체 및 법적 책임관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조기수습과 희생자 보상 등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고문변호사(5명)들의 자문을 받아 보상주체 및 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보상주체와 관련해서는 이미 밝혀진 사고 경위로 볼 때 대구시와 지하철공사가 보상 및 배상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관리법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범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구시와 지하철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49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 ①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피해보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부상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상관련 법적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는 개인의 방화로 시작된 사건이나 지하철공사 직원의 주의의무 해태 및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 등이 결합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하철공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상법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지하철이라는 공공의 영조물에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하철공사와 대구시의 관계에서 볼 때 법적으로는 지하철공사가 대구시에 서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로서 별도 법인이므로 지하철을 점유하여 그 운영·관리할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대구시는 지하철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자 내지 지하철의 설치자로서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지하철공사의 책임과 대구시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라는 것이 고문변호사들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보상업무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구시는 지하철공사로

부터 지하철 화재사고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액의 산정, 피해자와의 협의 및 합의 등 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대구시가 보상을 완료한 후에는 지하철공사에 추후 정해지는 손해 분담비율에 따라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임 장

“갑” 대구광역시

“을”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1. “을”은 “갑”에게 대구광역시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액의 산정, 피해자와의 협의 및 합의 등 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보상업무를 편의상 합의서 작성 및 보상금 지급은 “갑” 단독명의로 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추후 정해지는 손해분담 비율에 따라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3. 위임장 작성일 이전에 이루어진 지하철사고피해보상과 관련한 “갑”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 위임장에 의한 것으로 본다.

2003년 6월 26일

위임하는 자

“을”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이 훈 (인)

나. 보상원칙

대구시는 사고직후 보상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1995. 4. 28),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6. 29) 등 대형사고 사례 등을 참작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고 그 원칙에 따라 보상업무를 추진하였다.

보상원칙은 ①피해자측에서 추천한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대구시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검증하며 ②양측의 손해사정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해서 결정하고 ③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며 ④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또한 보상액의 산정, 피해자와의 협의 및 합의 등 보상관련 업무는 사망자 대책반, 부상자대책반, 물적피해대책반별로 추진하였고, 수습대책반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다. 조례제정

사고당일 긴급 개최한 사고수습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 및 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 대형사고 사례 중 1995년 「대구광역시상인동도시가스 폭발사고관련보상조례」와 2001년 「화성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화재사고사상자 보상금지급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조례로서 2월 28일 대구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3월 5일 대구시의회 제119회 임시회(3.11~3.19)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3월 12일 상임위원회(경제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 및 실종자 가족 100여명은 3월 14일 17:00부터 대구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회가 피해보상 관련 조례안을 만들면서 희생자 가족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하며 5시간여 동안 농성을 하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27명의 시의원 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의회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중 30여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의장실에 진입하여 의장 등 의원 11명을 억류한 채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날 22:00경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1명과 대구시 교통국장 등은 실종자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실종자가족대기소(중앙로역)를 방문하여 지난 2월 27일 ‘중앙정부는 사태해결에 전권을 행사하지 말고 지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요지로 발표했던 성명서의 철회를 약속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도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23:25분경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기 의결된 피해보상 관련 조례안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유보시켰으며,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수습대책반장(교통국장), 경제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정책과장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3월 17일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 개편된 희생자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보상 관련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구시에서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구시와 피해자측과의 협상에서 합의된 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대구시가 주도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고대책본부에서는 희생자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중 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자측이 추천하는 외부인사의 참여 요구는 다소 무리한 요구로 판단되었으나 지하철 화재사고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희생자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7건) 가운데 위원회 명칭(지하철중앙로역화재사고보상심의위원회 → 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구성(각 실·국장, 기획관, 변호사 2인 → 시 추천인사와 피해자측 추천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 회의·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등 3건은 수용하였으며, 부위원장 선임(기획관리실장 → 피해자 추천 외부인사), 간사 선임(복지정책과장, 보건과장, 건설행정과장, 교통정책과장 → 희생자대책위원회 인사 참여), 보상금 수령권자(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법정상속인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인정상속인 포

함), 추모공원 조성 근거 마련 등 4건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협의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제121회 임시회(5.13~5.22) 회기중인 5월 21일 경제교통위원회에서 번안동의(전에 의결했던 내용을 수정하는 것임)하여 5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5월 30일 동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구 남일동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이하 "화재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라 함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화재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법적 보상금과 특별 위로금을 말한다.

제 3 조(보상금등의 지급)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2. 보상금액
3. 보상금 수령권자의 적격성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구시 추천인사와 피해자 추천 외부인사를 각 동수로 하여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4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보건과장·건설행정과장 및 교통정책과장이 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한다.

제 6 조(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시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 7 조(보상결정의 통지) 시장은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제 8 조(보상금 지급청구)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공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보상금의 구상) ①시장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할 경우에는 보상에 소요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제11조(환수)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구성

5월 30일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이 확정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구시 추천인사와 피해자 추천 외부인사를 각 동수로 하여 구성하되 시 추천 인사는 사망자대책반장(보건복지여성국장), 부상자대책반장(문화체육국장), 물적피해대책반장(도시건설국장), 수습대책반장(교통국장), 고문변호사(2), 의사(1) 등 7인으로 하고, 피해자측 추천 외부인사는 희생자대책위원회(2), 유족연합회(1),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2), 물적피해대책위원회(2) 등 7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 및 피해자측이 추천한 인사를 6월 17일 시장이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 26일 부상자 법적보상금 지급안 심의·의결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위원장	조 기 현	행정부시장	당 연 직
위 원	류 정 무	변호사류정무법률사무소 변호사	대구광역시
“	박 진	변호사박진법률사무소 변호사	“
“	박 상 운	대구광역시의사회 의무이사	“
“	노 병 정	문화체육국장(부상자대책반장)	“
“	김 옥 자	보건복지여성국장(사망자대책반장)	“
“	김 돈 회	도시건설국장(물적피해대책반장)	“
“	이 승 호	교통국장(수습대책반장)	“
“	김 현 익	변호사김현익법률사무소 변호사	희생자대책위
“	최 현 복	대구홍사단 사무처장	“
“	전 종 필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유족연합회
“	이 성 환	계명대학교 교수	부상자대책위
“	김 문 수	경북손해사정사무소 소장	“
“	이 동 우	우일손해사정사무소 소장	물적피해대책위
“	채 석 호	우진손해사정사무소 대표	“

나. 위원회 운영

1) 제1차 회의(6월 26일 15:30, 시청 상황실, 15명 참석)

제1차 회의에서는 부상자 127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지급안을 심의하였으나 일부 지급기준에 대한 위원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재사정을 권고한 2명을 제외하고 125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125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총액은 11,937,646,700원으로서 위자료 1,470,470,000원, 간병료 1,146,366,640원, 향후치료비 643,063,990원, 휴업손해액 1,465,025,240원, 일실수익액 7,135,612,130원, 일실퇴직금 77,108,7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상자에 대한 법적보상금 산정의 기본원칙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였고, 기타 국가배상법과 재난관리법을 감안하였으며, 부상자측이 선임한 평가손해

사정인이 부상자 개인별로 법적보상금을 산정하고 시에서 선임한 검증손해사정인이 검증하였다.

각 항목별 산정내용을 보면 위자료는 장애등급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사망자 위자료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상자 개인별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 해당비율로 산정하였으나, 추후 확정되는 사망자 위자료 기준에 따라 추가 조정 지급하기로 하였다.

간병료(개호비)는 일용노동자 보통인부 임금인 1일 50,683원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15.45%이하는 90일, 17.35%이상은 181일의 간병료를 인정하였다.

향후 치료비는 의사가 진단한 추정 신체감정서에 의하여 6개월 내지 1년간의 치료비를 산정하였다.

휴업손해액은 부상자 본인의 월급여액이나 월 실수익액 또는 평균임금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간을 인정하였다.

일실수익액은 직업별로 산출된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맥브라이드식 평가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정년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호프만식 계수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일실퇴직금은 장애, 상해로 발생한 급여소득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으며, 가동연한(정년)은 60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60세에 가까운 55세이상 59세미만까지는 5년, 59세이상 65세미만까지는 4년, 65세이상은 3년을 인정하였다.

2) 제2차 회의(8월 1일 15:00, 시청 상황실, 11명 참석)

제2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30명과 물적피해자 163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사망자에 대한 법적보상금 총액은 6,468,004,010 원으로서 일실수입금 4,105,109,150원, 일실퇴직금 42,894,860원, 장례비 210,000,000원, 위자료 2,11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망자에 대한 법적보상금 산정의 기본원칙은 국가배상법과 법원의 판례를

참작하여 유가족측이 선임한 평가손해사정인이 사망자 개인별로 법적보상금을 산정하고 대구시에서 선임한 검증손해사정인이 검증하였다.

각 항목별 산정기준을 보면, 장례비는 유가족대표단과 협의에 따라 기 지급된 700만원을 적용하였으며, 위자료는 망자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되는 배상금으로서 법원 판례는 최고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세미만과 60세이상은 6,500만원, 20세이상 60세미만은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일용근로자 월 노동일수는 관련 증빙자료에 의한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 학생, 주부, 노약자 등은 도시일용인 및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되 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월 22일을 인정토록 하였다.

취업 가능기간은 관계법령 및 판례에 의거 만 60세를 원칙으로 하고 단체협약, 정년규정 등 별도의 정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국가배상법상 60세 이상인 자는 향후 취업 가능기간을 전면 불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60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2~4년 정도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에 준거하여 사망자의 연령별 손해배상의 형평성과 고령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유가족대표단과 협상한 결과, 55세 이상 60세 미만은 5년,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4년, 65세 이상은 3년을 적용토록 하였다.

일실수입액 산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국가배상법 및 법원판례에 따라 5%를 단리식 할인법인 “호프만”식 방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생활비 공제율은 국가배상법상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30%를 공제토록 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부양가족과 상관없이 33.33%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유가족대표단과 협상시에 법원의 판례인 33.33%를 적용기로 하였다.

물적피해에 대한 법적보상금 총액은 4,271,784,000원으로서 물품 1,740,354,000

원, 비품 1,364,421,000원, 청소비 145,551,000원, 휴업손해 1,021,45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적피해에 대한 법적보상금 산정의 기본원칙은 국가배상법 및 재난관리법을 적용하였고, 타 유사 사례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상당성, 차등성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였으며, 대구시에서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선임한 평가손해사정인이 물적피해자 개인별로 법적보상금을 산정하고 대구시에서 선임한 검증손해사정인이 검증하였다.

또한 보상의 범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내의 피해와 직접피해만 인정하고, 이용객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최소한의 기간인 출입 통제기간(3일), 청소기간(7일)은 직접피해로 간주하여 인정하였다.

각 항목별 산정기준을 보면, 물품손해는 대부분 식품, 의류, 모자, 가방, 구두, 카메라, 귀금속 등 진열된 각종 상품으로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시설 및 비품손해는 구입가격의 영수증, 견적서 등을 참작하여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재구입가격으로 산정하였고, 경미한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청소비는 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의 경우 지하상가인 관계로 환풍구를 통하여 계속 그을음과 악취가 유입되어, 기본 점포 1개소당 일용인부 2인이 7일간 청소하는 인건비와 청소용품비 7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휴업손해는 임차료, 수도광열비, 종업원 인건비 등의 고정경비와 노동부 통계소득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에 대하여 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는 사고당일부터 3일간의 출입통제기간과 7일간의 청소기간을 포함한 10일간을 인정하여 고정경비와 영업이익을 반영하였고, 중앙로역 구내의 광고업 등은 사고당일부터 지하철 복구공사 완료예정 시점인 2003년 12월 31일까지인 317일간을 인정하되 영업이익만 반영하였으며 지상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3) 제3차 회의(8월 11일 11:30, 시청 상황실, 13명 참석)

제3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60명에 대해 국민성금으로 배분되는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특별위로금 총액은 13,260,000,000원으로서 사망자 1인당 221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사망자 및 부상자에게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6월 18일 전국 재해구호협회로부터 성금을 이관받은 대구시에서 유가족 대표단 등 피해자측과의 협의, 시민여론 수렴, 지역원로들의 자문, 지역내 성금 고액기탁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성금 배분기준을 토대로 중앙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사망자 특별위로금은 사망자 1인당 221백만원으로 결정되었고, 부상자 특별위로금은 사망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개인별 부상정도는 화재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 상실률과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망자 특별위로금 221백만원은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및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의 170백만원보다 51백만원이 상향된 금액으로서 대형사고 사망자에게 지급된 특별위로금 중 최고금액이다.

4) 제4차 회의(8월 14일 17:30, 시청 상황실, 11명 참석)

제4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54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보상금 총액은 15,704,814,77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9,958,814,770원(41건)이며 특별위로금이 5,746,000,000원(26건)이다. 법적보상금은 일실수입금 6,606,500,595원, 일실퇴직금 70,314,175원, 장례비 287,000,000원, 위자료 2,995,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한 대학생들의 손해사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하여 사망자대책반의 검토보고와 유가족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검증사정 결과 교대생, 사범대 특기생, 대학원생, 졸업예정자중 취업확정자 등 20명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1,267,075원)보다 높게 사정하였고,

일반대학생 27명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사정하였으나, 일부 유가족들은 전공, 나이, 학년, 취업유무를 불문하고(대학입학예정자, 기제적자 포함) 전문대학 졸업학력의 전체 산업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인 1,591,165원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일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인정할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한 무직자, 주부 등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모두 전체 산업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망자대책반의 검토보고에 이견이 없었다.

5) 제5차 회의(8월 22일 17:30, 시청 상황실, 11명 참석)

제5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56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보상금 총액은 15,661,522,58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10,136,522,580원(43건)이며 특별위로금이 5,525,000,000원(25건)이다. 법적보상금은 일실수입금 6,692,575,070원, 일실퇴직금 37,947,510원, 장례비 301,000,000원, 위자료 3,105,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제6차 회의(8월 29일 17:30, 시청 상황실, 12명 참석)

제6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47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과 부상자 92명에 대해 기지급된 법적보상금 중 위자료 조정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14,193,190,12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9,552,190,120원(36건)이며, 특별위로금이 4,641,000,000원(21건)이다. 법적보상금은 일실수입금 6,672,911,500원, 일실퇴직금 57,278,620원, 장례비 252,000,000원, 위자료 2,57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상자 92명에 대해 기지급된 법적보상금 중 위자료 조정지급액(추가인정액)은 501,121,500원이다. 이는 지급당시 사망자 위자료 기준 미확정에 따라 50,000,000원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사망자 위자료 지급기준이 20세 미만과 60

세 이상은 65,000,000원,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75,0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확정됨에 따라 위자료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 된 것이다.

7) 제7차 회의(9월 5일 17:30, 시청 상황실, 15명 참석)

제7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51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부상자 25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재사정을 권고한 1명을 제외한 법적보상금 지급대상자 2명과 22명에 대한 위자료 조정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사망자 보상금 총액은 13,394,641,40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3,891,641,400원(13건)이며 특별위로금이 9,503,000,000원(43건)이다. 법적보상금은 일실수입금 2,865,641,400원, 장례비 91,000,000원, 위자료 935,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상자 2명에 대한 법적보상금은 65,125,290원으로서 위자료 12,500,000원, 간병료 8,202,840원, 휴업손해액 14,210,860원, 일실수입액 30,211,59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명에 대한 위자료 조정지급(추가인정)액은 113,784,000원이다.

8) 제8차 회의(9월 26일 17:30, 시청 소회의실, 13명 참석)

제8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22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보상금 총액은 6,974,893,70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5,427,893,700원(18건)이며 특별위로금이 1,547,000,000원(7건)이다. 법적보상금은 일실수입금 3,890,919,440원, 일실퇴직금 130,974,260원, 장례비 126,000,000원, 위자료 1,28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 제9차 회의(11월 7일 16:30, 시청 소회의실, 10명 참석)

제9차 회의에서 첫째 안건인 부상자 7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지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부상자 보상총액은 65,655,940원이며 이중 법적보상금(1건)은 45,954,940원, 법적보상금 중 위자료 조정(추가인정)액은 19,701,000원(6건)이다.

둘째 안전인 사망자 7명(신원 미확인자 6명 포함)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보상금 총액은 3,213,360,21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1,666,360,210원(7건), 특별위로금 1,547,000,000원(7건)이다.

신원미확인자(6명)에 대한 법적보상금은 개별 보상금 산출이 어려우므로 사망자 보상예산 가운데 잔여예산을 보상총액으로 의결하여 연고자 확인 등 지급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이월 조치하고, 지급사유 발생시 연고자와 합의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급기로 하였다.

신원미확인자(6명)에 대한 특별위로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잠종금)으로 5년간 보관 후 지급사유 미발생시 관계법(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셋째 안전인 물적피해자 2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지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적보상금 총액은 204,697,000원이며 시설·비품 178,898,000원, 휴업손해 25,799,000원이다.

10) 제10차 회의(12월 10일 16:30, 시청 상황실, 12명 참석)

제10차 회의에서 첫째 안전인 사망자 3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보상금 총액은 1,148,272,510원으로서 법적보상금(3건)은 485,272,510원(일실수입금 259,272,510원, 장례비 21,000,000원, 위자료 205,000,000원), 특별위로금(3건)은 663,000,000원이다.

둘째 안전인 부상자 52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보상금총액(52명)은 3,956,856,100원으로서 법적보상금(8건)이 943,410,600원(위자료 94,875,000원, 간병료 23,212,800원, 일실수입액 772,800,560원, 일실퇴직금 52,522,240원), 특별위로금(44건)이 3,013,445,500원이다. 특히, 이 날 이후 합의자에 대하여는 동일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차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11) 제11차 회의(2004년 2월 26일, 서면심의, 15명 서명)

제11차 회의에서는 부상자(1명) 법적보상금 지급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법적보상금 총액은 163,601,120원(위자료 14,925,000원, 간병료 9,173,620원, 일실수입액 130,445,050원, 일실퇴직금 9,057,450원)이다.

12) 제12차 회의(2004년 5월 4일, 시청 상황실, 12명 참석)

제12차 회의에서는 부상자 59명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위로금 총액은 3,351,796,500원이다.

본안 심의후 법적보상 비대상 부상자 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법적보상 비대상자와 법적보상 대상이지만 노동능력 상실률이 0%로 인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부상자에 대하여 유가족 및 부상자의 뜻에 따라 국민성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기준은 법적 보상대상자중 최저 법적보상금(560만원, 장해율 0%)에서 간병료(60만원)를 제외한 순수 위자료분 500만원 이내로 하고, 투약일수 및 입원일수에 따라 3등급(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대상자는 16명이며 특별위로금 총액은 4,200만원이다.

다. 보상금 지급

사상자 및 물적피해에 대한 법적보상 대상은 총 492명이며, 이들 가운데 481명과 보상에 합의하여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64,079백만원이 된다.

사망자의 경우 보상대상 192명 중 신원 미확인자 6명을 제외하고 186명에 대하여 46,475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사망자 1인당 평균지급액은 250백만원이며, 최고금액은 662백만원, 최저금액은 100백만원이다.

부상자의 경우 151명 중에서 소방공무원(12명), 기자(2명), 전경(1명), 기소자(방화범 1명, 공사직원 2명) 등 18명을 제외한 법적보상 대상 133명 중 소송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한 132명에 대하여 13,215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부상자 1인당 평균지급액은 100백만원이며, 최고금액은 341백만원, 최저금액은 6백만원이다.

물적피해자의 경우 보상대상 167명 중 선의의 뜻으로 보상금을 포기한 자(1명),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금을 수령한 자(2명), 미합의자(1명) 등을 제외한 163명에 대해 4,389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물적피해자 1인당 평균지급액은 27백만원이며, 최고금액은 432백만원, 최저금액은 8만원이다.

국민성금에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자 및 부상자 등 총 340명으로서 이 중 330명에 대해 48,701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사망자의 경우 법적보상 대상 192명 중 신원미확인 6명을 제외하고 186명에 대해 41,106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사망자 1인당 지급액은 221백만원이다.

부상자의 경우는 법적보상 대상자(133명) 중 소송계류 중인 4명을 제외한 129명과 법적보상 대상자가 아닌 소방공무원 등 15명을 포함한 144명에 대해 7,595백만원이 지급되었다.

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법 적 보 상 금				특 별 위 로 금			
	대상 (명)	지 급		미지급 (명)	대상 (명)	지 급		미지급 (명)
		인원 (명)	금액 (백만원)			인원 (명)	금액 (백만원)	
계	492	481	64,079	11	340	330	48,701	10
사 망 자	192	186	46,475	6	192	186	41,106	6
부 상 자	133	132	13,215	1	148	144	7,595	4
물적피해자	167	163	4,389	4	-			

3. 구상권 행사

가. 배상책임보험

대구시는 지하철공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9개 보험사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금(보상한도액 10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지하철공사와 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지하철공사에서는 7월초 주관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 수령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으로부터 “상법 제724조 및 대법원 판례(94다28094)에 의하여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종결 및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23일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청하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가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확인서, 사망자 손해보상금 지급내역 확인, 위임장, 공인대장 사본, 대구광역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지하철공사를 통해 10월 9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10월 28일 배상책임보험금 10억원이 대구시 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구시는 사상자 중 지하철공사 소속직원에 대한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노동부 및 고문변호사 등에게 질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하철공사 직원은 업무상 재해였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부족한 부분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절차상 순서라는 것이 고문변호사들의 판단이었다.

지하철공사 소속 직원 가운데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17명 중 사망자 4명은 모두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의 손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상자 13명 가운데 퇴근 중에 부상한 1명을 제외한 직원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처리대상 2명을 제외한 11명의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7월 14일 지하철공사에 구상관련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7월 24일 지하철공사에서는 산재처리대상인 사망자(4명) 및 부상자(12명)에 대해 산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8월 20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는 관련자료 제출 등 산재처리 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25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사망자 4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받아 9월 8일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결정하였다.

대구시는 산재보험 급여지급이 결정된 사망자 4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 손해사정에 의해 합의된 보상금 중 산재보험 급여액(466,231천원)을 공제한 차액을 9월 26일 보상심의를 거쳐 지급하였다.

부상을 입은 공사직원에 대해서는 사고대책본부, 지하철공사,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등이 참석한 부상자 보상관련 대책회의(2회)에서 산재 처리방법을 협의하였으며, 11월 7일 근로복지공단의 수급권 대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지하철공사가 대구시로부터 재난관리법에 의한 정부지원자금을 교부받아 소속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하고, 지하철공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민사상 손해보상대상 11명 가운데 산재대상이 아닌 자로서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1명을 제외하고 10명에 대해 보상합의 및 보상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지하철공사 소속 부상자 10명은 2004. 3. 22 근로복지공단에 부상자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58,021천원은 2004. 11. 17 대구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되었다.

다. 방화범의 재산

대구시는 사고발생 직후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방화범(김대한)의 재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였다. 지하철공사는 방화범의 소유로 확인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 3월 4일 대구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3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가압류 결정된 방화범의 재산 중 부동산은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소재하는 대지 181.6㎡, 건물 186.23㎡(1층 소매점, 2층 주택)로서 압류금액이 200백만원이며, 자동차는 베르나 99년식으로서 압류금액이 5백만원이다.

지하철공사에서는 방화범의 가압류재산(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의 경우 2004년 9월 16일 85,700천원에 매각되어 2004년 12월 14일 57,764천원이 배당되었으며, 자동차의 경우 2004년 9월 24일 3,000천원에 매각되어 2004년 11월 26일 2,443천원이 배당됨으로써 강제집행이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하철공사에 배당된 방화범의 가압류재산(부동산 및 자동차) 경매 배당금 총 60,207천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여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하였다.

방화범의 가압류재산 강제 집행현황

구 분	부동산		자동차	
	일 자	금액(천원)	일 자	금액(천원)
가 압 류 결 정	'03. 3. 6	200,000	'03. 3. 6	5,000
지급명령 확정	'04. 1. 17		'04. 1. 17	
강제경매 결정	'04. 3. 23		'04. 4. 13	
매 각	'04. 9. 16	85,700	'04. 9. 24	3,000
배당(지하철공사)	'04. 12. 14	57,764	'04. 11. 26	2,443
市입금(세외수입)	'04. 12. 22	57,764	'04. 12. 9	2,443
채권자(배당처)	지하철공사, 근로복지공단, 서구청		지하철공사, 북구청	

第2節 死亡者 補償

1. 보상대상

한 사람의 어이없는 방화가 불러온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학생 47명을 비롯하여 회사원 15명, 주부 26명, 자영업 종사자 11명 등 총 192명이 희생된 유례없는 대형사고였으며, 국민 모두에게 경악과 충격 그리고 대구시민에게는 영원히 씻지 못할 커다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다.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192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집단사망자관리단에 의한 신원확인 사망자가 185명이었으며,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인정사망자 100명 중 집단사망자관리단의 신원확인자로 분류된 99명을 제외한 최종 인정사망자 1명,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6명 등으로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은 DNA 확인자 3명, DNA 확인 불가능자 3명 등이다.

사망자 192명에 대한 법적손해배상금은 유가족대표단과의 협상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보상금 산정, 유가족과의 보상금 합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망자 중 산재보험 급여지급 대상자인 지하철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을 공제한 차액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2. 보상협상

가. 협상 지연사유

사고발생 이후 시신소훼에 따른 신원확인, 실종자 처리 및 희생자 추모사업, 보상금 산정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이로 5월 16일 1차 보상협상이 있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신원확인 및 장례를 완료한 유가족 등 일부 유가족들로부터 보상지연에 대한 불만과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등이 잇따랐다.

1) 실종자 확인 및 인정사망

지하철 화재사고는 사고의 특성상 화재로 인한 밀폐된 공간의 높은 열과 연기 등으로 대부분의 시신이 심각하게 소훼되어 신원확인이 어려운 시신들이 다수 발견되고, 사고당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에 대한 인정사망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와 중앙특별지원단과의 4차례(3.5, 3.7, 3.8, 3.9)에 걸친 협의 끝에 3월 10일 김준곤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4월 16일 제7차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개최시까지 실종자 201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재심신청자에 대한 3차례의 재심 등 모두 10차례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희생자 추모사업은 3월 8일 대구를 방문한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엄신길외 7명의 사망자 유족대표와의 면담에서 사망자에 대한 위령탑과 추모공원, 추모관 건립 등이 공식 거론되었으며, 3월 20일 고건 국무총리와 희생자대책위 대표와의 면담 등을 거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추모사업 협의과정에서 위령탑과 안전교육관 건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수창공원 등 묘역부지 선정, TV토론, 여론조사, 장례방법 등 수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간의 확연한 견해차이로 5월 17일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난항을 거듭하였다.

특히, 유가족들의 시청 및 구청 항의방문, 추모공원 조성반대 주민집회 등 묘역조성 예정지를 둘러싼 유가족측과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또한 희생자대책위원회의 추모사업과 사망자의 장례연계 등으로 인해 보상협의를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보상금 산정방식 및 사정요율 관련

사망자의 보상금 산정은 통상적으로 관계법령 및 민사상 판례 등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사정금액 등을 근거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을 하고 보상금

추정을 위한 손해사정 수수료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가족대표단(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법령과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한 신 할인계수라는 새로운 이자공제방식을 사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유가족대표단과 손해사정업체간에 계약한 5.75% 또는 7.00%의 손해사정 수수료를 대구시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유가족대표단의 발족 등으로 보상금 산정기준 및 사정수수료율 등 보상관련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 보상범위 및 절차

통상 특별위로금을 제외한 법적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및 장례비 부문 등만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기타 부문은 손해사정사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유가족대표단이 2개 그룹으로 분리되고 대표단에 가입하지 않은 유가족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보상금액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사정전 유가족대표단과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되었으며, 협상전 사망자 보상원칙과 범위에 대한 자체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보상금 협상 및 합의는 시신을 인수받아 매장이나 화장 등의 장례절차를 완료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그룹별 또는 개인별로 협상을 실시한 후 보상금액 결정은 유가족측 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에 대해 대구시측 검증사정인이 검증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개인별 유가족대표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중 법적배상금의 보상항목은 위자료, 장례비, 월 노동일수, 가동년한, 이자 공제방식, 취업 가능월수, 생활비 공제율 등 7개 항목으로 결정하고, 국민성금인 특별위로금은 성금배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합의된 보상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유가족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기로 결정했다.

다. 협상경위 및 유가족대표단 구성

대구시는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2차례(4.26, 5.3) 보상관련 설명회를 개

최하여 대구시의 보상기준에 대한 설명과 향후 보상협상 관련 그룹별 또는 개인별 보상원칙을 밝힘에 따라 유가족대표단도 2월 26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의 후신인 지하철참사회생자대책위원회(대표 : 윤석기)가 발족된 데 이어, 4월 28일 지하철참사유족연합회(대표 : 신태영)가 새로이 발족하는 등 보상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먼저, 유족연합회에서 4월 28일 손해사정인 선정결과(이동수 손해사정)와 사망자 보상협상 참여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5월 15일 대구시측 검증사정인을 통보하고 유족연합회측 보상사정 기준시안을 제출받았다.

아울러 희생자대책위에도 대책위가 선정한 사정업체 및 보상사정 기준시안 제출을 통보했다. 또한 유가족대표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대표요건이 불분명한 대표에 대해서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한 선 순위자 교체 또는 위임장 제출을 요청하여 5월 21일(유족연합회)과 6월 18일(희생자대책위) 등 2회에 걸쳐 보완을 하였다.

이후 유가족들의 조기 보상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양측 유가족대표단의 서류보완을 전제로 5월 16일 유족연합회를 시작으로 6월 25일까지 유족연합회와 2차례, 희생자대책위와 7차례 등 총 9차례의 보상협상을 실시하였다.

라. 보상설명회 개최

신원확인 사망자 유가족 10여명이 4월 11일 대구시청을 방문하여 조속한 보상을 요청하는 등 조기 보상을 희망하는 유가족이 늘어나고, 4월 16일 실종자 중 판단유보 2명을 제외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인정사망 심사가 완료되어 신원확인 사망자 192명이 확정됨에 따라 이미 장례를 치른 유가족 대표 83명을 대상으로 보상관련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고 대구시장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월 26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서는 보상관련 대구시측의 설명, 유가족들의 질문과 답변, 참석 유가족들간의 토의 순으로 진행이 되면서 보상금 산정방식과 손해사정인 선정, 보상협상 등 유가족들의 궁금증에 대한 많은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또한, 이 날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신인도와 장례를 완료한 유가족에 대한 그룹별 또는 개인별 보상협상이 공식화되는 날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장례완료 유가족대표 47명은 설명회 개최시기(합동장례식 확정 또는 1주일 후), 장소(시 외곽지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시민회관 대강당), 참석대상(192명 전원) 등의 부당성을 들어 대구시에 설명회 연기를 공식 요청하였으나, 설명회 안내문을 이미 발송하였고 언론보도 등으로 연기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하고 대책위소속 연기요청 유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기로 했다.

또한 희생자대책위에서는 1차 설명회가 열린 4월 26일 유가족 보상협상대표단의 인정기준과 대구시 대표단의 명단통보 및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보상설명회에서 밝힌 그룹별 또는 개인별 보상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표단 구성은 유가족 중 상속순위 선 순위자 또는 위임장을 첨부한 대표단 명단을 제출할 경우 보상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2차 보상설명회는 희생자대책위의 요청으로 5월 3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사망자 유가족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대구시측 보상 기준안 설명 및 질문·답변 등 1차 설명회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마. 보상협상 추진

1) 유족연합회와의 협상

사고이후 사망자 보상기준 확정을 위한 유족연합회와의 공식적인 협상은 5월 16일 협상을 시작으로 이후 5월 19일 등 2차례 실시되었다.

5월 16일 대구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1차 보상협상에서는 대구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관 등 5명이 참석하고 유족연합회에서는 신태영 대표 등 5명이 참석하여 대표단 소개 및 대구시측 사정시안 7개 항목과 유족연합회측 사정시안 8개 항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여 대구시와 유족연합회가 제시한 공통 7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타결되었으며, 그 밖의 유가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기로 하고 다음 협상은 5월 19일 개최

기로 하였다.

협상타결 2개 항목

구 분	합 의 내 용	비 고
장 레 비	· 기지급 700만원(위로금 100만원 포함)	
월노동일수	· 25일로 하되 기술직 종사자는 22일로 한다.	

5월 19일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시 미합의된 위자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양측의 사정기준 수정안을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3개 항목을 타결하였다. 차후 협상은 보상기준의 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유족연합회와 합의된 항목은 대구시 보상기준으로 확정하여 여타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기로 하되, 최소한의 시한을 정하여 협상을 유도한 후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합의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유족연합회와 협상을 재개하여 최종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유족연합회와의 협상은 종료하였다.

협상타결 3개 항목

구 분	합 의 내 용	비 고
가 동 년 한	· 가동년한은 60세, 정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 적용 단, 55세 이상은 취업가능월수 적용	
이자공제방식	· 국가배상법상 호프만계수 적용	
취업가능월수	· 55~60세미만(60개월), 60~65세미만(48개월), 65세이상(36개월)	

보상협상 합의사항(대구시·유족연합회)

구 분	대구시 기준안	유족연합회 기준안	합 의 내 용
① 장례비	· 500만원	· 700만원	· 기지급 장례비 700만원 -위로금 100만원 포함
② 위자료	· 5,000만원	· 최저 8,000만원 - 국가배상법 적용 8,000만원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미합의

구 분	대구시 기준안	유족연합회 기준안	합 의 내 용
③ 월노동 일 수	· 25일 기준 - 직종에 따라 탄력 적용(22~25일)	· 25일 일괄적용	· 기술직 종사자 22일 - 이외 25일 적용
④ 가동년한	· 60세 기준 - 정년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적용	· 65세 일괄 적용	· 60세 기준 - 정년기준 있는 경우 별도 적용 - 55세이상은 ⑥번 적용
⑤ 이자공제 방 식	· 호프만계수(단리 5%) - 계수 240이상 판례 적용	· 호프만계수(단리 5%) - 법에 따른 계수적용	· 국가배상법에 의한 호프만 계수 적용
⑥ 취업가능 월 수	· 56~59세미만(48개월) · 59~67세미만(36개월) · 67~76세미만(24개월) · 76세이상(12개월)	· 55~60세미만(60개월) · 60~65세미만(48개월) · 65세이상(36개월)	· 55~60세미만(60개월) · 60~65세미만(48개월) · 65세이상(36개월)
⑦ 생활비 공제율	· 33.33%(일괄적용)	· 33.33% - 부양가족 있을시 30%	미합의
⑧ 특별손해	없 음	· 2인 90일(9,112천원)	미합의

2)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협상

그 동안 합동장례 및 평가기준 통일, 추모사업 등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던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보상협상은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보상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4일 희생자 93명의 손해사정서를 대구시로 제출하여 검증사정을 요청함으로써 보상협상 및 기준마련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날 제출된 손해사정서 93부는 총 사정금액 41,008백만원으로 단리 1%의 이자 공제율과 장례비 1,200만원, 위자료 8,000~8,500만원 등을 적용하는 등 대구시 보상기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고 또한 대구시의 접수불가 의견을 무시한 대책위의 일방적인 제출이므로, 대구시에서는 대책위의 요구인 대구시 검증기준에 의한 사정을 실시하되 보상합의는 유가족 대표가 아닌 유가족 개인별로 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하여 개별합의를 실시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5월 30일 93명의 손해사정서를 대구시측 사정사에게 검증 의뢰하였다.

아울러 5월 31일 희생자대책위원회에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검증의뢰 사실을 통보하고 남은 사정서도 조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6월 4일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업무착오로 잘못 제출된 것이라는 사유로 검증사정 중인 손해사정서의 반환을 요구해 옴에 따라 대구시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반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6월 13일 검증사정 중지와 함께 반환 조치를 하는 등 보상협상이 있기까지는 서로간 오해와 불신이 팽배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양금을 해소하고 유가족들의 뜻에 따른 보상문제를 조기 타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키로 하고, 6월 11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대구시측 대표단 3명과 희생자대책위측 대표 3명이 상견례를 가졌다.

지금까지 협상지연에 따른 책임소재, 대구시 협상대표단의 권한,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 93부의 반환 등에 대한 의견 충돌로 상견례는 무산되었으나, 의사결정권과 관련한 희생자대책위의 대구시 협상대표단 교체요청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국장 중심에서 5급 사무관 중심으로 대표단을 개편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7차례의 보상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 제1차 보상협상

6월 12일 북부소방서 회의실에서 열린 1차 협상에는 대구시측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4명이 참석하고, 희생자대책위에서는 5명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날 협상에서는 보상기준과 관련한 대구시 설명에 이어 손해사정서 93부에 대한 반환, 대책위측 사정사인 한백손해사정법인의 보상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대구시에서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공문서 사본 제출, 대구시 협상대표단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양측 대표단간 한동안 격렬한 논쟁과 고성이가 오갔다.

이어서 양측이 제시한 사정시안에 대한 항목별 협상을 진행하여 보상기준

8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4개 항목과 희생자대책위가 주장하는 유가족 여비, 대책위 운영비 등 특별손해 부문은 추후 논의기로 하고 차기 협상시에는 대구시 고문변호사와 대구시측 검증사정인도 참석기로 했다.

협상타결 3개 항목

구 분	합 의 내 용	비 고
월 노동일수	· 25일로 하되 기술직 종사자는 22일로 한다.	
가 동 년 한	· 가동년한은 60세, 정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 적용	
생활비공제율	· 33.33% 일률적 적용(판례)	

나) 제2차 보상협상

6월 14일 제2차 보상협상에서는 기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장례비, 위자료, 월 노동일수, 이자 공제방식 등 4개 항목은 계속 협상하였다. 대책위가 제시한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대구시 고문변호사와 검증사정인의 설명 등 특별손해 인정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다음 협상에서는 이자 공제방식에 대해 한백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인의 설명을 듣기로 하였다.

다) 제3차 보상협상

6월 18일 제3차 보상협상에서는 기존 합의사항 중 정년 가동년한의 정년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적용에 판례를 포함토록 하고, 기타 장례비, 위자료 등은 변호사 자문, 판례 등을 재검토한 후 협상을 재개기로 했다.

라) 제4차 보상협상

6월 19일 제4차 보상협상에서도 협상의 진전이 없었으며, 위자료의 경우에는 부상자에 대한 대구시의 사정기준을 검토해 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법규정을 주장하는 대구시측과 재검토를 주장하는 대책위원회측과의 견해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마) 제5차 보상협상

6월 21일 제5차 보상협상에서 대구시는 장례비의 경우 실손해 배상은 할 수 없고, 이자 공제방식도 할인을 5%미만의 주장은 현행 국가배상법 및 민사판례에 위배되어 수용이 불가하며, 유족의 휴업손해도 법률상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어 법적배상금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일부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확정된 소득액을 매월 또는 매년 증가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동연한까지 정기금 형태로 일실수익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판례 등 법리적으로도 불합리한 주장이라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다.

대구시의 설명에 대해 대책위측에서는 장례비 1,200만원은 실손해가 아닌 현실을 감안한 요구이며, 할인을 5%는 가해자가 정한 일방적인 기준으로 열린 마음으로 양보를 해야 하고, 유가족 휴업손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이며, 일실수익 정기금 지급 주장도 거대배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반론에 이어 양측 대표단간 항목별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희생자대책위원회측에서는 대구시측 보상기준이 국가배상법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할 때 40%정도 높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후 총액의 140%를 보상금액으로 지급할 것과 한백손해사정법인과 사정계약도 조속히 체결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손해사정법인과 계약체결은 보상기준 협상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총액대비 140% 지급에 대해서는 양측이 법령과 판례 등을 참고하여 연구·검토한 후 최적의 안을 가지고 6월 23일 협상을 재개기로 하였다.

바) 제6차 보상협상

6월 23일 제6차 보상협상에서는 총액대비 140% 보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날 대구시에서는 장례비는 700만원으로 판례금액 대비 233% 상향, 가동 일수는 22일 대비 25일로 113% 상향, 중간이자 공제의 경우에도 호프만계수 240 초과분 인정 등 대구시 기준안은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정하였으므로, 개인별 총액대비 법원판결 금액에 대한 일률적인 140% 적용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개별적으로 40% 상향 또는 총괄적으로 40% 상향 보장을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맞섰으나 최종적으로 대책위측에서 ①대구시 기준 보상금액 총액의 130%, ②이자 공제방식을 기존의 5%에서 4% 적용, ③장례비를 900만원으로 하고 위자료는 일괄적으로 1인당 7,500만원 지급 등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③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장례비는 700만원, 위자료는 최저는 6,000만원으로 최고는 7,000만원을 제시함으로써 이날 협상은 결렬되었다.

사) 제7차 보상협상

6월 25일 제7차 보상협상에서는 6차 협상때 논의되었던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장례비는 700만원으로 하고 위자료는 최저 6,500만원, 최고 7,5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보상기준 7개 항목 중 장례비, 이자 공제방식, 생활비 공제율 등 6개 항목은 대구시 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위자료 부문만 20세 미만과 61세 이상의 사망자에게는 6,500만원, 20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는 7,500만원을 적용기로 하였다.

또한 합의내용의 이행은 대구시 및 희생자대책위의 손해사정인이 사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양측간 사정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측 사정인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최종 합의서를 작성·서명 후 교환함으로써 그 동안 사망자 보상기준과 관련한 유가족대표단과의 협상이 일단락 되었다.

보상협상 합의사항(대구시·희생자대책위)

구 분	대구시 기준안	희생자대책위 기준안	합 의 내 용
① 장례비	· 기지급 장례비 700만원 -위로금 100만원포함	· 1,200만원	· 기지급 장례비 700만원 -위로금 100만원 포함
② 위자료	· 최저 : 5,500만원 · 최고 : 6,500만원 (20~60세까지)	· 최저 : 8,000만원 · 최고 : 8,500만원 (실종자)	· 최저 : 6,500만원 (20미만, 61세이상) · 최고 : 7,500만원 (20이상~60세이하)
③ 월노동 일 수	· 25일 적용 -기술직 종사자는 22일	· 25일 일괄적용	· 25일 적용 -기술직 종사자는 22일
④ 가동년한	· 60세 기준 -정년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적용	· 65세 일괄 적용	· 60세 기준 -정년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적용(판례포함)
⑤ 이자공제 방 식	· 국가배상법상 호프만 계수 적용	· 단리 1%	· 국가배상법상 호프만 계수 적용
⑥ 취업가능 월 수	· 55~60세미만(60개월) · 60~65세미만(48개월) · 65세이상(36개월)	· 우리나라 평균수명의 1/2 적용	· 55~60세미만(60개월) · 60~65세미만(48개월) · 65세이상(36개월)
⑦ 생활비 공제율	· 33.33%(일괄적용)	· 판례(1/3) 적용	· 33.33%(일괄적용)

3. 손해사정

지금까지 대형사고 발생시 사망자 보상을 위한 손해사정은 통상적으로 유가족대표단과의 합의 하에 하나의 사정업체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일부 평가사정업체가 유가족을 상대로 법과 판례에도 없는 신 할인계수를 주장하는 등 대구시 단독으로는 손해사정 등 보상협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상금 사정금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족대표단이 선정한 사정업체를 인정하되 유가족측 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을 대구시측 사정인이 검증을 실시키로 하고 두 금액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보정절차를 거쳐 최종금액을 산정기로 했다.

가. 손해사정인 선정

1) 대구시측 검증사정인

유가족측 사정인의 사정금액을 검증할 대구시 검증사정인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한국손해사정인회 대구지회를 통해 지역내 업체로서 유가족측 손해사정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를 신청받아 선정기준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기로 하였다.

4월 30일 대구지회를 통해 신청·접수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 유가족 사정인의 사정금액에 대한 검증시안 등에 대한 서류심사결과에 따라 5월 12일 지역업체인 천마손해사정사무소(대표 : 이천성)를 대구시 검증손해사정업체로 공식 결정하였다.

5월 30일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과 판례, 그간 2차례 협상으로 유족연합회와 타결된 보상기준 5개 항목을 참고한 7개 항목의 대구시 검증사정 기준을 확정하고 검증손해사정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유가족측 사정인의 사정금액에 대한 검증, 유가족

개인별 협상 희망자에 대한 보상금액 사정, 검증사정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보상심의회 등에 대한 검증손해사정 업무의 진행과정 설명 및 의견서 제출 의무 등이며, 검증사정 수수료는 여타 대형사고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가족측 손해사정수수료의 50%정도인 1.50%로 결정하였으나 협약시에는 1.48%로 체결하였다.

2) 유가족측 평가사정인

대구시에서는 보상설명회에서 밝힌 그룹별 또는 개인별 보상협상 원칙과 사정수수료의 대구시 부담약속 등으로 유가족대표단과의 보상협상 타결 및 사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유가족측 평가사정인 선정·협약계획을 수립하였다.

7월 18일에 희생자대책위가 선정한 “한백손해사정법인”과 유족연합회가 선정한 “이동수손해사정사무소”, “평화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무소” 등 유가족 대표단이 선정한 3개 업체와 손해사정협약을 체결하였다.

평가사정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유가족측 평가사정인은 보험업법상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보상금 총결정액의 5.75~7.00%를 주장하였으나, 7월 8일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한백손해사정법인과 면담을 통해 전국의 대형재난 사고시 수수료 지급현황, 사정총액에 대한 차등 수수료를 적용 등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한백손해사정법인측의 입장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한백 등 유가족측 선정 3개 업체대표와의 합동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부시장의 면담과 병행하여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복지정책과장과 유가족측 사정업체인 한백, 이동수, 평화 등 3개 업체와 수수료를 통일을 위한 개별면담이 3~4차례 실시되었다.

당초 대구시에서는 평가사정 수수료율은 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증사정 총액의 2%를 주장하였으며, 유가족측 사정인은 당초 5.75%에서 4.5%, 4% 등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3.6%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금번 사고의 손해사정은 보험업법상의 손해사정이 아닌 사적계약에 의한 손해사정으로 전국 대형사고 발생시 수수료 책정사례 등을 참고하기로 하고, 보상의 장기화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조속한 생업의 복귀를 위해 7월 16일 이동수 손해사정사무소와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평화·한백사정법인과 협상을 타결하여 7월 18일 3개 업체 공히 배상금 총 결정액의 2.85%로 수수료 요율을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손해사정

1) 손해사정관련 쟁점

사고발생 초기 희생자대책위로 일원화되었던 유가족대표단이 유족연합회 등으로 분리되면서 기존 대책위 소속 유가족들의 이탈과 함께 대책위측 사정사인 한백손해사정법인에 대한 사정위임 철회 및 유족연합회측 사정사에 대한 신규위임 등으로 중복 손해사정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하였다.

대구시에서는 중복 손해사정서의 처리는 유가족의 의사가 최우선이라는 판단과 함께 유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유가족측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협약시 “중복 손해사정서 및 유가족에 대한 처리” 조항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복 사정서가 제출되면 대구시가 해당 유가족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유가족이 인정한 업체의 손해사정서에 대해서만 검증사정 및 산정수수료를 지급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유가족측 사정인이 제출한 손해사정서는 221건으로(사정대상 184건) 37건이 중복 사정된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에서는 전화 및 유가족 확인서 등으로 유가족들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37건의 중복 사정서에 대해서는 이동수손해사정 26건, 평화손해사정 11건을 인정기로 하고 한백손해사정법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8월 8일 3개 업체에 통보하였다.

중복손해사정 현황

구 분	계	단독사정	중 복 사 정		비 고
			한백·이동수	한백·평화	
계	221 (184)	147 (147)	52 (26)	22 (11)	
한 백	138 (101)	101 (101)	26	11	
이동수	71 (71)	45 (45)	26 (26)	0	
평 화	12 (12)	1 (1)	0	11 (11)	

※ ()는 제출된 손해사정서 가운데 인정된 건수이며, 사망자 186명 중 2명은 개별신청으로 평가사정 제외

그러나 한백손해사정법인에서 사정수수료와 관련하여 위임을 철회한 유가족 35명(사망자 37명)의 보상금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유가족과 개인별 보상합의 및 보상금 지급시 부득이 가압류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압류해제 후 위임장 등 보상금 수령을 위한 제반서류를 다시 제출받아 공제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유가족들의 편의와 가압류 공제금액의 조기 지급을 위해 3개 사정업체에 시에서 지급하는 사정수수료와 유가족 35명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연계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압류해제 및 수수료 지급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보상금 채권가압류 신청내역

일 자	사 건 명	채 권 자	채 무 자	가압류금액	비 고
'03. 8. 4	채권가압류	한백손해사정	000외 18명	201,926천원	
'03. 8. 23	"	"	000외 15명	82,806천원	

또한 사정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대표단에서 해당업체와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대표단과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손해사정수수료의 대구시 지불보증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대표단과 업체간의 계약은 사적인 계약으로 대구시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한 지불을 보증할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2) 손해사정 내역

5월 30일 대구시 검증손해사정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손해사정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6월 7일 유족연합회의 손해사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8월 26일 까지 사망자 186명에 대한 평가사정과 검증사정이 이루어졌다.

손해사정 내역을 보면 유가족측 평가사정은 개별신청자 1명과 법원 조정신청자 1명을 제외한 184명으로 총 금액은 54,490백만원으로 사정하였으나, 대구시측 검증사정에서는 8,441백만원이 감액된 46,049백만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기타 2명에 대한 검증사정액은 427백만원으로 확정하여 유가족 개인별 보상합의를 실시하게 되었다.

3) 검증사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사망자 186명에 대한 검증사정이 완료되고 유가족 개인별 보상금 사정내역을 통지한 결과 검증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유가족은 모두 9명으로 이중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한 3명에 대해서는 인용이 되었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한 6명은 기각 처리되었다.

이의신청자(검증사정) 처리내역

제출일	성명	생년월일	직업	요청사유	재심결과	비고
'03. 7.22	○○○	'84. 4. 3	학생	일용노동임금 부당	기각	
'03. 8.20	○○○	'84. 2.19	학생	"	"	
'03. 8.20	○○○	'72.11. 9	회사원	기초수입액산정 부당	"	
'03. 8.20	○○○	'84. 7.27	"	"	"	
'03. 8.21	○○○	'79.10.26	"	일실퇴직금 인정	16백만원 상향	추가제출
'03. 8.21	○○○	'77. 7.22	"	일용노동임금 부당	32백만원 상향	"
'03. 8.23	○○○	'38. 2. 9	농업	기초수입액산정 부당	기각	
'03. 8.25	○○○	'80.11.10	학생	호프만계수 수정	"	
'03. 8.26	○○○	'73. 3.20	회사원	일용노동임금 부당	27백만원 상향	추가제출

4. 보상금 지급

가. 보상금 합의서 작성 및 지급계획 수립

유족연합회 소속 33명에 대한 검증사정이 7월 2일 완료됨에 따라 7월 5일 보상금 합의서 작성 및 보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가운데 법적손해배상금은 유가족측 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을 토대로 대구시 검증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으로 하고, 국민성금인 특별위로금은 성금배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합의서 작성은 대구시와 개인별 유가족대표가 합의·서명토록 하되 합의를 원하지 않는 유가족은 관계법령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합의된 보상금은 사망자 장례시 지급된 장례비 7백만원과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지급한 20백만원 등은 법적손해배상금과 특별위로금에서 각각 공제하기로 했으며, 보상금 지급은 개인별 유가족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기로 했다.

나. 보상금 내역 통보 및 보상합의

개인별 유가족대표와의 개별협상 원칙에 따라 검증사정이 완료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검증 사정금액과 보상금 합의일자, 장소, 구비서류 등을 통보하고, 7월 9일부터 7월 11일 1차 보상합의를 시작으로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2차 보상합의,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3차 보상합의를 통해 개별 보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8월 8일 성금배분위원회에서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결정(1인당 221백만원)함에 따라 합의서 추가 작성 및 대학생 사망자 유가족들의 월 기초수입액 재산정 요구, 유가족 특별손해 인정문제 등으로 일부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지연되어 사망자 186명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서 작성은 12월 3일 완료되었다.

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결정

사망자 보상금은 보상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적 손해배상금과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였다.

개인별 유가족과의 합의를 근거로 하여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8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차례 개최하였으며, 이로써 신원확인 사망자 186명과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 등 총 192명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금과 특별위로금이 결정되었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명)

일 자	장 소	참석위원	심 의 내 역					
			계		법적손해배상금		특별위로금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9회		331	90,277	192	47,845	192	42,432
'03. 8. 1	시청상황실	행정부시장외 10	30	6,468	30	6,468		
'03. 8.11	"	행정부시장외 12	60	13,260			60	13,260
'03. 8.14	"	행정부시장외 10	54	15,705	41	9,959	26	5,746
'03. 8.22	"	행정부시장외 10	56	15,662	43	10,137	25	5,525
'03. 8.29	"	행정부시장외 11	47	14,193	36	9,552	21	4,641
'03. 9. 5	"	행정부시장외 14	51	13,395	13	3,892	43	9,503
'03. 9.26	"	행정부시장외 12	22	6,975	18	5,428	7	1,547
'03.11. 7	"	행정부시장외 9	1	517	1	296	1	221
			6	2,696	6	1,370	6	1,326
'03.12.10	"	행정부시장외 11	6	1,148	3	485	3	663
법원조정신청('03.7.31) 결정			3	258	1	258		

※ '03.11.7 심의한 법적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 각 6명은 신원미확인 사망자임.

※ 심의란의 합계인원과 법적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 인원수가 상이한 것은 심의대상자중 2가지 보상금을 일괄 합의·심의한 경우와 분리 합의·심의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9차례의 보상심의 가운데 8월 14일 개최된 제4차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학생 사망자의 월 기초수익액 산정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유가족대표와 대구시측 검증사정인 등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대학생 사망자 47명에 대한 검증사정 결과를 보면, 교대생, 사범대 특기생, 졸업예정자 중 취업확정자 등 20명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인 126만원 이상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일반대학생 27명은 학력에 따른 산업체 근로자 초임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높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령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유가족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가족측이 요구한 대학교 입학·졸업자를 포함한 대학생 사망자 47명 전원에 대해 전문대 졸업 전체 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인 159만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부·무직자 등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망자 전원을 인정하여야 하는 등 여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다.

대 학생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계	성 별		재 학 생						입학 또는 졸업생			
	남	여	대학원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1년	2년	3년	1년	2년	입학	졸업	입학	졸업
47	17	30	1	8	11	8	4		5	5	1	4

사망자 보상금은 국·시비로 지급하는 법적손해배상금 47,845백만원과 국민성금인 특별위로금 42,432백만원 등 총 90,277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신원미확인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192명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법적 손해배상금 249,194천원, 특별위로금 221,000천원 등 470,194천원이며, 최고보상액은 학원 인기강사로 활동하였던 ○○○으로 883,096천원(법적손해배상금 662,096 특별위로금 221,000)이며, 최저보상액은 ○○○외 17명으로 대부분 65

세 이상의 무직자로서 321,279천원(법적손해배상금 100,279 특별위로금 221,000)으로 나타났다.

라. 보상금 지급

사고발생 당시 신원확인 사망자의 장례비로 2월 25일부터 합동장례식 전일인 6월 28일까지 1인당 7백만원씩 186명 전원에게 1,302백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였으며, 보상의 장기화에 따른 유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4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105명의 유가족에게 특별위로금 중의 일부인 2,090백만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장례비 및 유가족 생활안정자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003년 7월 31일 법원 조정신청자인 김○○의 법적배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2004년 3월 11일까지 법적배상금 45,173백만원, 특별위로금 39,016백만원 등 84,189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사망자 192명의 보상금 90,277백만원 중 신원 미확인자 6명에 대한 보상금 2,696백만원(법적손해배상금 1,370 특별위로금 1,326)을 제외한 186명 전원에게 대한 보상금 87,581백만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신원 미확인자 6명에 대한 보상금은 연고자 출현에 대비하여 보상금 처리계획을 10월 31일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배상금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보상금액, 지급시기, 처리방법 등에 대해 11월 7일 제9차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을 받았다.

이날 심의에서 법적배상금은 사망자의 신원 미확인으로 직업, 연령, 월소득액 등의 파악이 불가함에 따라 6명 전체에 대해 1,370백만원으로 총액 결정하고, 특별위로금은 1인당 지급액인 221백만원씩 1,326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법적배상금은 연고자 확인 등에 대비하여 2005년까지 이월 관리토록 하고, 특별위로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5년간 보관 후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第3節 負傷者 補償

1. 보상대상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해 탑승객을 비롯하여 사고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시민 122명, 지하철공사 직원 13명, 소방공무원 12명, 기자 2명, 전투경찰 1명, 방화자 1명 등 15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탑승객인 시민 122명과 화재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피난 안내활동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지하철공사 직원 11명 등 133명을 손해보상 대상자로 하였다.

지하철공사 직원 11명 가운데 퇴근 중 부상을 당한 1명은 일반 시민들과 같이 처리하고, 10명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본인들이 민사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대구시에 동일하게 요구하여 부상자대책반에서는 관련기관 협의와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후 이를 수용하였다.

전투경찰 1명과 소방공무원 12명은 각각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상처리하고 별도 보상은 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현장 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출입한 기자 2명과 방화자, 화재현장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사법 처리된 지하철공사 직원 2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부상자 보상대상자 현황

(단위:명)

합 계	손해보상 대상			손해보상 비대상					
	소계	시민	지 하 철 공사직원	소계	소 방 공무원	전경	기자	기소자	방화자
151	133	122	11	18	12	1	2	2	1

2. 보상협상

가.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구성

사고 수습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부상자측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와 부상자측은 병원별로 부상자 대표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부상자가 10인 이상 입원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수를 고려하여 1~3인씩 대표를 선발함으로써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6개 병원에서 10명의 대표가 선발되었다.

병원별 부상자 대표단으로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3일 김성길(남, 59세)씨를 위원장¹⁾으로 선출하여 부상자들의 치료와 보상에 관한 협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3월 4일부터 대구시와 부상자 대표단은 치료와 보상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나. 보상 협상회의

1) 제1차 회의

사고수습과 부상자 진료를 위하여 3월 4일 10:00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병원별 입원환자 가족대표 10명,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 원무과장 6명, 그리고 부상자대책반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부상자 대표단은 부상자의 질병경과와 진료수준에 대해 많은 염려를 표명하고 ①환자 후유증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②유독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정도 및 이에 대한 진료대책 ③개별환자에 대한 특진이상의 진료서비스 보장 ④질병경과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 ⑤환자별 증상에 따른 MRI 촬영 등 전문적 검사 ⑥환자 퇴원 후의 진료대책 ⑦환자 진료기록의 상시열람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에서는 ①, ③, ⑥항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진이상 최상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⑦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질병경과를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②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문과 자료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④, ⑤항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전문 의사들의 설명을 들은 후 결정토록 하였다.

1) 위원장은 3월 25일에 이동우(남, 59세)씨로 변경되었음

2) 제2차 회의

3월 7일 개최된 제2차 보상협상에는 병원별 부상자 대표 9명, 자문교수 2명, 병원별 원무과장 6명,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환자 가족 및 취재기자 등 다수가 참석하였다.

부상자 대표단은 참석한 자문교수로부터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뇌 손상, 만성인후두염, 성대장애 등 질병경과에 관해 설명을 들은 후 대구시측에 대해 부상자들에 대한 최선의 진료, 시장의 부상자 병실 위로방문, 화재 모의실험 실시 후 유독가스의 종류와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실험자료 요구, 향후 후유증에 대한 평생진료 등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환자들의 보상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부상자들에게 특진이상의 진료가 되도록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부상자 대표단에서 손해사정인을 선정하여 보상협상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하겠으며, 평생진료 문제 등에 관해서는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는 등 부상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중앙특별지원단 주재회의

3월 12일 중앙특별지원단 주재로 부상자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상자 대표 10명, 중앙특별지원단 5명, 부상자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부상자 대표들은 ①지하철사고와 실제 환경이 유사한 여건에서 모의 화재실험을 실시하여 유해가스의 성분검사와 후유증 등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줄 것 ②환자들에게 특진이상의 평생진료권 발급 ③손해사정시의 장애등급을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해줄 것과 특별위로금 지급시 사망자의 80% 인정 요구 ④부상자들이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줄 것 ⑤퇴원 1~2년 후 정신과 감정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회의에 배석하였던 부상자 가족들은 ⑥부상자들이 선정하는 손해사정인 경비는 대구시에서 부담할 것 ⑦부상자 가운데 징집자 병역문제 해결 ⑧부상자 진료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⑨한방진료의 병행 ⑩퇴원 후 통원치료는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 중 ②, ③, ④, ⑦항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⑥, ⑧, ⑨, ⑩항 등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해결하고, ①, ⑤항 등 기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장기적인 문제도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하였다.

이후 부상자 대표단과 부상자대책반은 부상자 치료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와 손해보상과 관련한 손해사정 실시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면담형식, 간담회 형식의 비공식 회의를 십여차례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상자들이 요구한 화재 모의실험에 의한 유해가스 성분분석과 이로 인한 후유증 등 인체 유해영향, 그리고 이들 후유증에 대한 보상과 평생 진료증 발급문제는 3월 17일 대구시의 전문가 회의와 4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대책이 마련되었고, 만성후유증 연구용역과 만성 후유증 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였다.

다. 손해사정 절차 등

대구시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손해보상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과 부상자 치료에 대한 지원방향을 도출·정리하였다.

이러한 공식·비공식 회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짧은 면담형태의 간담회, 소규모 현장회의를 통해 보상관련 추가사항 협의와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자 불편을 해결하였다.

손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신체감정의 조기 실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상, 맥브라이드식 신체장해율 산정, 일실수입액 산정시 호프만 방식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 위자료는 사망자의 위자료 결정시 추가로 조정, 부상자측이 추천하는 손해사정인에 의한 손해사정 실시, 손해사정 수수료는 대구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손해사정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라. 보상협상관련 쟁점

부상자 보상을 위한 수차례의 공식회의에서 부상자 대표들은 많은 요구를 하였는데 부상자대책반에서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한 것은 전동차에서의 모의 화재실험과 평생진료증 발급 문제였다.

부상자 측에서는 전동차 내부의 화학물질 연소에 따른 유해·유독가스와 고온에 부상자들이 노출된 채 단전으로 암흑상태인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탈출하기까지 성분을 알 수 없는 유독·유해물질을 흡입하였으므로 지하철 화재사고와 유사한 여건에서 모의 화재실험을 실시하고, 다양한 온도별로 가스를 채집하여 성분을 분석하는 실험을 즉각 실시할 것과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하여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 보상과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평생진료증 발급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일면 타당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발생하지 않은 질병의 치료와 보상에 관한 요구로서 이번 사고 보상 시에 처음 제기되었고,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학문이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특히 이러한 요구의 수용방식은 이후의 유사한 대형 사고 수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다.

3. 손해사정

가. 손해사정인 선정

1) 부상자측 평가사정인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3월 17일 부상자측 평가사정인으로 영남손해사정사무소를 추천하여 왔으며, 대구시에서는 사고관련 부상자 보상을 위해 평가사정(검증사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 31일에 부상자의 손해조사 및 손해액 사정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부상자 가운데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가 선정한 손해사정인의 사정업무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한백손해사정법인을 선정하여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8월 27일 추가로 이 업체와 사정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대구시측 검증사정인

대구시에서는 부상자측 손해사정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부상자측 손해사정작업 진행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효성손해사정사무소를 대구시측 검증손해사정인으로 3월 31일 선임하였다.

나. 손해사정 실시

부상자 평가사정인과 대구시 검증사정인과의 사정 및 검증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상자 개인별 손해보상을 위한 평가 및 검증작업이 착수되었다.

이에 따라 5월 2일 평가사정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어서 평가사정에 대한 검증결과 보고서가 5월 7일 제출되었다. 손해사정보고서 및 검증사정결과에 의한 세부사항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자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부상자 가족의 수와는 관계없이 부상자 1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망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장해율(노동능력 상실률)에 비례하여 산정하였다. 당초 기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하였으나 추후 6,500만원과 7,5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2) 간병료

간병료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간호 또는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일률적으로 90일(장해율 15.24% 이하)과 181일(장해율 17.35% 이상)을 인정하였으며, 2003년도 전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인 1일 50,683원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3) 개호비

개호비는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에 의거 2003년도 전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인 1일 50,683원을 인정하여 향후 대상 부상자의 기대여명(78세)까지 산정하였으며, 지급대상자는 1명이 있었다.

4)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사고일 이후 손해사정 당시까지의 치료사실과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에 의한 향후 치료기간을 고려하고, 실제소득의 상실여부를 판단하여 산정하였으며, 부상일로부터 향후 12개월간(2004. 2. 18)의 휴업손해를 인정하였다.

5) 일실수익액

일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세금액은 공제하지 않고 취업가능 연령은 만20세(남자는 군복무 기간이 끝나는 22세)로 인정하되 초·중·고·대학생인 경우 학교 졸업 후부터 취업시기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취업가능 연령 종기는 만60세로 하고 중간이자 공제방법은 호프만식으로 하고, 과실비율(상계)은 사고경위 등을 감안하여 전체 피해자들에게 무과실로 처리하였다. 단, 55세 이상 부상자에 대한 취업가능 월수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55세 이상자 취업가능월수 인정기준표

구 분	취업가능년수	취업가능월수	호프만계수	대상자
55세이상~59세미만	5	60	53.4545	1명
59세이상~65세미만	4	48	43.6739	2명
65세이상	3	36	33.4777	8명

6) 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은 사업장의 제 규정 등에 의하여 일실퇴직금 산정이 가능한 부상자에 대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여 산정하였다.

다. 손해사정 결과

1) 노동능력 상실률

손해보상 대상자 133명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국가배상법과 재난관리법 및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부상자 노동능력 상실률 현황

○ 국가배상법상

등 급	계	3급	5급	6급	8급	9급	10급	11급	13급	14급
인원수	133명	1	4	4	4	12	2	19	39	48

○ 재난관리법상

등 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무등급)
인원수	133명	1	17	22	44	43	4	2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 실 률	인원	노동능력 상 실 률	인원	노동능력 상 실 률	인원	노동능력 상 실 률	인원	노동능력 상 실 률	인원
계	133명								
0.00%	1	17.35%	3	27.10%	1	34.31%	1	43.61%	1
5.00%	2	18.83%	1	27.91%	1	34.41%	1	44.89%	1
10.00%	1	19.90%	37	28.80%	19	35.11%	1	46.60%	4
11.00%	2	21.70%	3	30.66%	3	35.36%	1	51.94%	2
11.65%	3	23.10%	1	31.51%	2	35.92%	1	59.17%	1
15.45%	35	24.70%	1	31.64%	1	43.11%	1	74.19%	1

2) 손해보상금

부상자측 평가사정인에 의해 제출된 손해보상금 총액은 13,354,835,800원이었으며, 검증사정인에 의해 일실수입금 과소 산정 등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1차로 확정된 부상자 손해보상금 총액은 13,376,851,650원이었으나, 부상자 가운데 1명(지하철공사 직원)이 사고와 관련하여 사법처리 됨에 따라 손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조정되어 최종 손해보상금은 13,276,547,540원으로 확정되었다.

개인별 손해보상금 최고액은 341,487,000원이며, 최저액은 5,608,190원으로
서 평균 99,987,530원이었다.

4. 보상금 지급

가. 보상금 내역통보 및 보상합의

손해보상 대상자 133명중 손해사정보고서가 제출된 129명에 대한 검증사정이 5월 7일 완료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참고하고, 과거 재난시 피해보상 사례 및 그간의 물가상승률, 사고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합의과정을 거쳐 6월 10일 보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6월 17일 손해보상대상 부상자에게 보상내역과 손해보상금 신청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호적등본 등)를 통보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하여 6월 25일 보상합의자 12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침이 확정되었다.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법적보상금은 부상자측 평가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을 대구시 검증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위로금은 추후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나. 부상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손해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부상자 127명에 대하여 6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보상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보상심

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법적보상금 지급을 위한 6차례의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손해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안전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원안 의결되었으나, 6월 26일 노동능력 상실률 0%인 부상자 2명에 대한 심의가 유보되어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재심의한 후 지급하였다. 심의유보자 1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당일 외래진료 후 귀가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로 위자료 1,000,000원과 간병료 4,561,470원으로 산정된 것을 위자료 5,000,000원과 실제 치료기간의 간병료 608,190원으로 조정한 후 9월 5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가결되었다.

나머지 1명 또한 경미한 부상으로 손해사정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능력 상실률 0%로 합의하였던 부상자로 신체 감정결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11%로 나타났으나 사고후 6개월이 경과되었고, 입원기간을 제외하고는 업무에 복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손해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9월 5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휴업손해액 464,590원이 다른 부상자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었다는 재사정 권고가 있어 11월 7일 개최된 제4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휴업손해액을 15,204,900원으로 조정하여 보상총액 45,954,94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결정내역

(단위 : 명, 백만원)

일 자	장 소	참 석 위 원	심 의 결 과					
			계		법적보상금		조정위자료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3. 6.26	시청상황실	행정부시장 등 15명	125	11,937	125	11,937		
'03. 8.29	"	행정부시장 등 12명	92	501			92	501
'03. 9. 5	"	행정부시장 등 15명	24	179	2	65	22	114
'03.11. 7	"	행정부시장 등 10명	7	65	1	46	6	19
'03.12.10	"	행정부시장 등 12명	8	943	8	943		
'04. 2.26	서 면 심 의	행정부시장 등 15명	1	163	1	163		

※ 조정위자료는 사망자 위로금이 확정되기 전에 법적보상금이 지급되었던 부상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었음.

다. 보상금 지급

보상합의자 132명의 법적보상금은 13,215,343,030원이었으며, 선 지급된 생활안정자금 1,175,000,000원을 공제하고 개인별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차례의 “지하철공사 부상자 보상관련 회의”결과와 근로복지공단의 회시에 따라 일반 부상자와 동일한 절차로 손해액을 사정한 후 손해보상액에 상당한 예산을 대구시가 지하철공사에서 받을 것을 전제로 교부함으로써 지하철공사에서 재해를 당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한편, 12월 31일까지 보상합의에 응하지 않은 부상자 1명에 대하여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한다는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보상액 71,204,510원 중 선지급액 10,000,000원을 공제한 61,204,510원을 부상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 처리하였다.

第4節 物的被害 補償

1. 보상범위 결정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제3항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때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와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 화재사고와 유사한 대형 재난사고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 7. 19 특별재난지역 선포)시에는 구조작업 및 유가족 지원으로 영업이 불가하였던 백화점주변 주유소(2개소) 및 식당(1개소)만 간접피해보상을 인정하고, 백화점 입주상가에 대하여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95. 4. 28)시에는 직접피해를 입어 영업이 불가한 업소(60건)만 간접피해보상을 인정해 주었다.

간접손실 보상과 관련한 우리 시의 질의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장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난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응급복구 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나, 중앙로역 인근 교통통제로 인한 피해보상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보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도철91140-256. 2003. 7. 28)를 받았다.

따라서, 이용객 감소로 인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배상법, 유사사례, 중앙정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배상법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지하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물품, 비품 등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의 휴업손해만 보상하기로 하고, 공간적인 범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내의 피해만 보상하기로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용객 감소에 따른 간접보상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 외의 피해신고자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다.

구역별 보상대상

계	중앙지하상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구내	지 상	기 타
168건	95	13	47	12	1

2. 보상협상

중앙로역 구내와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출입구 부근의 지상상가 등으로부터 2월 24일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중앙지하상가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수차례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물적피해 보상을 위한 협상내용

일자	참 석 자	상인대표 요구내용	답 변 요 지
3. 4	상인대표 14인 행정부시장외 2인	- 물적피해를 포함한 정신적 피해와 간접손해까지 보상요구	- 손해사정계약 후 손해사정인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3. 27	상인대표 6인 대외협력반장	- 영업손실(간접손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구	- 손해사정서가 접수되면 추후 협의할 계획임
4. 4	상인대표 14인 대외협력반장외 2인 사정인 2인	- 개인별 사정내역 공개요구 - 물적피해 및 영업손실액 산정방법 설명 요구	- 현재 손해사정 중으로 공개 곤란 -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5. 12	상인대표 53인 물적피해대책 보좌관외 2인	- 영업손실 보상 요구 -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요구	- 영업손실보상 법적근거 미흡 - 면담일정 추후 통보

일자	참 석 자	상인대표 요구내용	답 변 요 지
5. 21	상인대표 9인 행정부시장외 5인 사정인 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일로부터 3일간의 출입 통제와 분진, 악취 등으로 1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함 - 처음 신고시 경황이 없어 누락된 피해가 많아 추가 신고를 하였으나 접수 거부 - 지하철 운행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요구 - 특별위로금 지급 요구 - 손해사정 내용 개별열람 및 보상금 조속 지급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보상 - 사고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피해로 간주 - 손해사정 내용 개별열람시 이의신청을 받아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사정 하겠음 - 이용객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은 보상 불가 - 특별위로금은 성금모금 목적에 맞지 않아 지급 곤란

3. 손해사정

가. 손해사정평가

사고대책본부 대외협력반에서는 신고된 피해물품의 조속한 손해사정을 위해 3월 4일 손해사정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대구손해사정사무소 및 평화손해사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손해사정평가인들은 피해보상지역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신고가 접수된 174건에 대하여 손해사정평가를 하였으며, 손해평가사정은 형평성, 상당성, 차등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즉, 손해의 정도, 화재발생지점과의 거리, 유동인구, 영업실적, 업종 등을 감안하여 각 상가별, 업체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손해액에 상당하는 사정평가를 위하여 간접피해인 영업손실액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정하되, 직접적인 응급조치비, 비품손해, 상품손해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상당성과 피해지역별 차등과 간접피해 산정시 기간을 단계별로 차등하는 차등성을 고려하여 사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4월 28일 제출하였다.

그러나 손해사정평가사와 사고대책본부간에 사전 협의하여 보상범위와 보상기준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법, 국가배상법, 재난관리법, 대법원판례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간접피해를 산정하였다.

그 대신 직접피해는 매우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보상기준과는 상이한 사정평가가 되었으며, 특별재난선포구역외의 피해신고에 대하여도 손해사정평가를 하였다.

나. 이의신청 및 재사정

5월 21일 대구시 행정부시장, 상인대표, 손해사정인이 참석하여 협상한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인이 사정한 내역을 5월 27일부터 5월 30일 열람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를 한 168명에게 개별 통지하였다.

보상은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로 직접피해를 입은 물건과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에 한하여 손해사정인의 사정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손해사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열람기간 동안 총 160명이 열람하였으며, 열람시 사고대책본부 직원과 손해사정인이 보상기준과 손해사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보상기준과 손해사정 결과에 대하여 많은 불만과 항의가 있었고, 대부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의 신청건수가 136건에 달했다.

구역별 이의신청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중앙지하상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구내	지 상	기 타
건 수	136	96	13	18	9	-
금 액	5,969,880	3,539,044	597,147	1,206,239	627,450	-

※ 당초 신고한 금액을 포함하여 재신고한 건도 있음

6월 13일 손해사정평가사에게 피해신고자가 제출한 이의신청 136건과 지하철공사에서 보상을 요청한 중앙로역 구내의 광고틀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평가사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중앙로역 구내의 피해신고에 대하여는 피해업체와 지하철공사와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영업손실에 따른 간접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손해와 직접피해로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의 휴업손해, 그리고 공간적인 범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내의 피해만 보상하기로 보상기준을 정함에 따라 각종 입증서류를 근거로 하여 재사정을 실시하였다

물품손해에 대해서는 점포별, 물품별로 격락 손해율을 차등 적용하고, 비품손해에 대해서는 조달가격 또는 수리비를 적용하였으며, 청소비는 매장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다.

휴업손해는 임차료, 수도광열비, 종업원 인건비 등의 고정경비와 노동부 통계소득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에 대하여 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는 사고당일부터 3일간의 출입통제기간과 7일간의 청소기간을 포함한 10일간을 인정하여 고정경비와 영업이익을 반영하였고, 중앙로역 구내의 광고업 등은 사고당일부터 지하철 복구공사 완료예정 시점인 2003년 10월 31일까지인 256일간을 인정하되 영업이익만 반영하였으며 지상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사정 결과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중앙지하 상 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구 내	지 상	기타
건 수		167	95	13	46	12	1
금 액	계	4,482,401	2,124,406	270,103	1,932,424	155,268	200
	직접손해	3,463,350	1,999,662	254,250	1,053,970	155,268	200
	휴업손해	1,019,051	124,744	15,853	878,454		

※ 재사정 과정에서 중앙로역 구내의 피해자 1명이 보상금 수령 포기

다. 검증평가

7월 9일 대구동아손해사정사무소, 공정손해사정사무소, 필립화재손해사정을 검증사정인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검증사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하철 복구공사를 당초 10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복구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중앙로 역사내 광고업체와 임대 점포에 대한 휴업손해보상을 복구공사 완료예정일인 12월 31까지 추가하여 줄 것을 지하철공사에서 요청하여 휴업손해를 추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평가 결과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중앙지하 상 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구 내	지 상	기타
건 수		167	95	13	46	12	1
금 액	계	4,476,867	2,110,076	267,165	1,961,682	137,744	200
	직접손해	3,429,610	1,985,332	251,312	1,055,022	137,744	200
	휴업손해	1,047,257	124,744	15,853	906,660		

4. 보상금 지급

가. 보상합의서 작성

물적피해 신고자중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대상자 167명과의 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1일 보상협의계획을 통지하고, 중앙지하상가 및 경남프라자는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별 방문을 통해 협의하였고, 중앙로역 구내, 지상 및 기타지역은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고대책본부에서 협의하였다.

물적피해 보상대상자와의 합의서는 손해사정평가사가 사정한 개인별 사정서와 검증평가사정인이 검증한 개인별 검증서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특히, 중앙로역 구내의 보상대상자와 합의서 작성시에는 지하철공사와의

계약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공사직원이 입회하였다.

11월 7일까지 보상대상 167명 가운데 163명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미합의자 4명 가운데 1명은 선의의 뜻으로 보상금을 포기하였으며, 개인이 별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기수령한 사람이 2명이었으며,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합의를 거부한 자는 1명(화재를 진화하다가 양복이 불에 탔다고 하며 보상요구) 이다.

나. 보상금 지급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신고자와 합의 후 대구광역시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쳤다.

8월 1일 개최한 제2회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163건 4,271,784천원을 심의·의결하였고, 11월 7일 개최한 제9회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2건 204,697천원을 심의·의결하였다.

보상금은 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바로 피해보상 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를 하고 개인별 계좌에 입금 조치를 하였다.

8월 6일 159건 4,180,264천원을 지급하였고, 11월 12일에 4건 209,167천원을 지급하는 등 163건 4,389,431천원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

第8章

追慕行事 吳 事業

第1節 追慕行事..... 427

第2節 追慕事業..... 443

第8章 追慕行事 및 事業

第1節 追慕行事

1. 합동분향소 설치

대구시에서는 희생자 가족들과 전국에서 찾아드는 참배객들을 위하여 2월 19일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2층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1층에는 유가족대기실과 성금접수처, 3층에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날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하여 5월 6일 합동분향소 철거시까지 분향소를 방문한 참배객은 86,486명(일반시민 57,995명, 학생 17,297명, 공무원 6,870명, 정치인 등 4,324명)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젖어 있는 희생자 가족들과 대구시민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슬픔을 함께 하였다.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대구시민과 대구·경북에 산재한 570여개 종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월 23일 10:00에 추모 묵념의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달구벌대종 타종과 더불어 각 종교단체에서 1분 동안에 걸쳐 타종을 하면서 고인이 되신 희생자의 영령에 대하여 일제히 추모하는 묵념을 하였다.

2. 종교·사회단체 추모행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시민, 유가족, 종교·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혼제, 시민대회, 추모음악 연주, 종교단체 추모제 등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가 2월 22일부터 6월 29일 합동영결식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하게 개최되었다.

2월 22일 대구광역시연예협회에서 사망자를 위한 진혼곡(조곡)을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3차례 연주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음악협회에서는 2월 22일과 23일 중앙로역 사고현장(아카데미극장 앞)에서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2월 23일 10:00에는 희생자의 추모 묵념 사이렌이 1분간 대구시 일원에 취명

되었으며, 사이렌 취명에 맞추어 달구벌 대중을 타종하고, 불교계 60여개 사찰, 기독교계 500여 교회, 천주교계 10여개 성당에서도 타종의식을 시행하였다.

2월 26일 09:20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신자 200여명이 중앙로역 지하 2층에서 추모기도 행사를 가졌고, 2월 28일 18:00에는 동성로에서 대구국악협회 및 대구문인협회 주관으로 추모시 낭송 및 탈춤공연 등을 하였다.

3월 2일에는 유가족, 시민단체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화재 사고 희생자 추모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사고관련 사과 및 지하철 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월 6일 14:30부터 17:15까지 아카데미극장앞에서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와 (사)사물놀이 한울림 주관으로 천도제, 살풀이 춤, 씻김굿, 달구벌의 울림(사물놀이)등을 공연하였다.

3월 7일 15:00에는 시민회관 합동분향소에서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 주관으로 종정, 부종정 예하 총무원장 등 스님 30여명이 희생자를 위한 위령대제를 봉행하였다.

3월 8일에는 대구화교협회 주관으로 중구 종로2가 대구화교소학교 운동장에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가 개최되었다.

3월 10일 19:00부터 21:00까지 경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사)문예진흥원 후원으로 지하철참사 추모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제1부에서는 “천국에서 쓰는 편지”(신형원, 인순이, 비, 별 출연), 제2부에서는 “어머니에게”(안치환, 주현미, 설운도 출연), 제3부에서는 “희망의 싹을 틔우며”(박진영, 이승철과 부활, GOD 출연)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공연수익금 전액은 추모사업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였다.

3월 14일에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법원연 대구법당 주최로 불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하철참사 위령제를 봉행하고, 성금으로 17,557천원을 기탁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동구 신천3동 제일감리교회 주관으로 신도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참사 기도회를 갖고 성금 250백만원을 기탁하였고, 3월 25일에는 포항시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추모음악회를

개최하였다.

3월 28일 시민회관 합동분향소에서 한국불교 태고종 주관으로 스님 50여명과 불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가 열렸으며, 3월 31일에는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2대리구 1지역 사목협의회 합동으로 지하철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미사를 개최하고 국채보상기념공원을 거쳐 중앙로역까지 촛불행진을 하였다.

4월 6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등 간부스님, 신도, 희생자 유족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영산대제를 봉행하였으며, 4월 7일에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국악협회 대구시지회 주관으로 추모시 낭독, 영혼 인도굿 등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49제 추모제 행사를 가졌다.

4월 9일 17:00부터 중구 동성로 상가번영회 등 16개 상인단체는 중앙로 아카데미극장앞 도로에서 회원 및 유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참사 희생자 진혼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진혼제는 추모사, 남도민요, 살풀이,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이 더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였다. 같은 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유가족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주관으로 지하철참사 희생자 영가추모 및 왕생극락 발원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4월 13일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사랑의 문화봉사단이 주최하고, 여성신문사 대구지사가 주관하는 대구지하철참사 추모음악회를 어린이회관 피꼬리극장에서 유족 등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4월 23일에는 지하철참사 희생자를 위한 “영가위령대제”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경북 5개 교구와 희생자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신도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 행사는 반야심경 봉독, 분향 및 헌화, 추모사, 애도사, 유족대표 인사말로 이어졌으며, 제2부 행사는 영가천도제 및 안녕 기원제 순으로 개최되었다.

3. 1주기 추모행사

가. 추진경위

지하철 화재사고 1주년을 맞아 2004년 1월 30일 14:00 범어천주교회 마리아관에서 6대 종단(원불교, 기독교, 유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대표 각 1명과 유가족 대표 6명, 사회단체 경실련 등 6개 단체 대표 각 1명,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 김충환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지하철참사1주년범시민추모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1주년 추모행사 일체를 동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2월 9일 14:00 범어천주교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모위원회 명칭을 「2.18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 1주기 범시민추모위원회」로 결정하고 종교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60여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추모행사는 2월 18일 09:30~12:00 중앙로역(반월당↔중앙로역)에서 거행하며 추모행사 세부내용은 별도의 실행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추모식

2004년 2월 18일 반월당과 지하철 중앙로역 입구(아카데미극장 앞) 사이의 도로상에 거행된 대구지하철참사 1주기 추모식 행사장에는 192명의 희생자 위패를 안치하고, 정당,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주요인사 80여명과 유가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000여명의 시민들은 한 손에는 국화를 들고 한 손에는 하얀풍선을 들고 속속 모여들어 추모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추모행사는 희생자의 넋 모시기의 진혼북 공연으로 시작되어 09:53 참사회생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 싸이렌이 울리자 대구 시내 모든 차량은 운행을 멈추고, 시민들은 일제히 희생자에 대한 추모묵념을 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희생자들에 대한 분향 및 헌화가 유가족, 정부인사, 추모위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고건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참석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과 조해녕 대구시장, 6개 종단 대구종교인 평화협의회의 추도사에 이어 유가족대

표 김재율씨가 목이 메인 채 추도사를 낭독하자 추모행사장은 온통 눈물바다로 변했다.

이어서 유가족대표의 경과보고가 있는 후 문인수 시인이 지은 추모시를 박봉란씨가 낭독한 데 이어 대구지하철공사사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안전한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선언을 하고 참사의 도시 대구를 안전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민협약문을 낭독하였다.

끝으로 희생자 뉘 보내기 행사로 뉘을 기리는 추모공연과 천도굿이 있었으며, 일반시민들의 분향 및 헌화로 1주기 추모행사를 마쳤다.

이날 시 산하기관은 모두 기관기(旗)를 조기로 게양했고, 시민들은 추모뺨지를 달고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헌화하는 등 추모 물결이 온 종일 이어졌다.

대구광역시장 추도사

250만 시민 여러분,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쓰라린 아픔을 안겨주었던 지하철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만에 다시 역사의 현장에 모였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지하철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지금도 유가족과 부상자 분은 그 날의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 앞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250만 시민과 더불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슬픔을 이기고 사고수습에 협조해 주신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는 이 같은 참사를 초래하였던 우리 자신들의 잘못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 안전불감증을 절감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사망하신 분들과 부상자 분들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국민들께서 한 마음으로 모아주신 성금배분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추모사업으로 추모묘역, 추모벽, 위령탑, 안전교육관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 여러분의 위로와 성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대구시민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억누르며 사고수습에 협조하여 주신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추모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대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지하철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과 회한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화재참사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뼈아픈 사고이며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가신 넋들은 우리 대구와 대구시민이 아픔을 딛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염원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참사의 아픔 속에서도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치뤄 대구시민의 저력과 아픔을 승화시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지난 반세기동안 특유의 기질과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대구정신으로 참사의 아픔을 이기고 새로운 대구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참사1주기 추도식이 범시민 행사로 치루어지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대구는 사고의 오명을 지닌 도시가 아닌 방재·안전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또한 대구정신을 바탕으로 전통과 첨단이 함께 하는 세계 속의 일류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령들이 주신 희생의 의미를 가슴에 되새기며, 우리 모두 방재·안전도시, 전통과 첨단이 함께 하는 일류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합시다.

그래서 저 세상에 가신 영령들을 안심시켜 드리고 우리 도시의 영광을 되찾읍시다. 다시 한번 삼가 머리 숙여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념

다. 추모관련 행사

1) 지하철참사의 교훈과 대구혁신 심포지움 개최

지하철참사 1주기를 맞아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참여연대, 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 주최하고 대구사회연구소가 주관한 “대구지하철참사의 교훈과 대구혁신의 과제”란 심포지움이 2004년 2월 13일 13:00 경북대학교 복지관 3층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대구지하철참사, 무엇이 원인이었나?”란 과제를 홍덕률 대구대 교수(대구사회연구소 부소장)가 발표를 하고, 윤대식 영남대 교수(대구사회연구소 부소장)와 후보돈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운영위원장이 이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제2부에서는 “대구지하철참사의 수습 : 무엇이 문제였나?”란 과제에 대해 성상희 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표와 김경민 대구YMCA중부지회 관장과 김태일 대구사회연구소 정책평가센터 본부장이 토론을 하였고, 제3부에서는 “종합토론 : 대구지하철 참사가 남긴 교훈 : 대구,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란 과제를 김규원 대구사회연구소장의 사회로 백승대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주호 새대구경북시민회의 공동대표, 정혜진 영남일보 사회부 기자, 조기현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토론이 있었다.

2) 국제심포지움 개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 YMCA와 (사)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대구지하철참사 1주기 추모 국제심포지움”이 2004년 2월 16일(월) 9:30부터 14:00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 306호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최대 희생자를 발생시킨 대구지하철참사의 핵심 의문점에 대한 조사연구”란 의제로 민·관종합안전점검위원회인 경원대학 박형주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영국의 유로터널 전동차 화재 및 킹스크로스역 화재사건 및 영

국전동차량의 화재안전 기준 현황”에 대해 영국 화재연구원(BRE/FRS)의 수석연구원인 Dr. Steven Fordham의 발표가 있었다.

제2부에서는 “대구지하철역사의 소방·방재설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제로 민·관종합안전점검위원인 대구보건대학 최영상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대구지하철역사의 인접통로사이의 방화셔터의 조기폐쇄에 따른 폐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소방안전협회 고택수 연구실장이, “비상시 홍콩 지하철 재난관리 체계와 대구지하철 사례에 대한 비교발표”를 의제로 윤석기 희생자대책위원장이 의제발표를 하였다.

제3부에서는 우광성 영남대교수, 김종구 지하철공사 운영이사, 정혜진 영남일보 기자의 논찬 및 종합토론이 있었다.

또한,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경북대학교 방재연구소, 경일대학교 소방방재IT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국제심포지움이 “대구지하철참사의 교훈과 과제”란 주제로 2004년 2월 17일 14:0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관계자 인사 및 대구시장의 축사가 있었고, 제2부에서는 이상홍 경북대교수의 사회로 “대구지하철 화재의 진행과정 및 수습체계”란 과제에 대해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홍원화 교수가 발표하였고, “대구지하철 화재의 피해자 응급처치 및 응급의학적 대응”이란 과제로 정제명 대구권역 응급센터 소장이 발표하였으며, “소방측면에서의 대구지하철 화재의 분석”이란 과제로 제진주 중앙소방학교 교장이 발표하였으며, “소방방재청 대구유치의 당위성”이란 과제를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다.

제3부에서는 “방재 선진국의 사례”란 주제로 윤인 계명문화대 교수의 사회로 “일본 지하철 안전을 위한 실험과 노력”이란 과제를 야마타 쓰네토시(山田常圭) 일본 소방연구소 상석연구원이 발표하였고, “일본소방연구소의 화재진압을 위한 노력과 역할”이란 과제로 아베 노부유키(阿部伸之) 일본 소방연

구소 수석연구원이 발표를 하였으며, “일본 지하철의 화재억제 노력과 대책”이란 과제를 코야마 타다오(小山忠雄) 일본 교통영단 과장이 발표하였다.

3) 지하철 안전 시민대토론회 개최

대구지하철안전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소방방재청 대구유치위원회, (사)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 대구경북협의회가 후원한 “지하철 안전 시민대토론회”가 2004년 2월 17일 13:30~15:30 대우아트홀(영남일보 24층)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최경집 대구지하철안전시민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와 조해녕 대구시장의 축사, 서성철 시민운동 연합신문 발행인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제2부에서는 박용규 영남일보 논설고문의 사회로 토론이 있었다.

발표자로는 권형우 소방방재청대구유치위원장, 법조스님, 백승홍 국회의원, 손종익 대안련공동대표, 이순자 대구보건대학 교수, 윤주태 매일신문 논설위원, 이훈 대구지하철공사사장이 참석하였다.

4) 참사추모 어린이 그림공모전 개최

희생자대책위에서 주최하고 어린이미술교육 프로젝트팀 주관으로 2004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서울,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구내에서 어린이의 눈을 통해 본 참사의 의미를 되돌아 보고 미래의 메시지를 담은 어린이 그림공모전 “하늘 땅 그리고 해”를 개최하였다.

5) 추모음악회 개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추모음악회를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계명대학교 음대에서 주관하여 2004년 2월 18일 19:00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국립합창단에서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2004년 2월 19일 19:30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추모음악회를 개최하여 죽은 자를 위한 4개의 노래 “독일 진혼곡”을 공연하였다.

4. 2주기 추모행사

가. 추진경위

지하철 화재사고 2주기 추모행사와 관련하여 2005년 1월 26일 11:00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사무실에 김충환 시의원 주재로 박정우 대구종교평화회의 사무총장, 최현복 대구홍사단 사무처장, 조광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강달원 2.18유족회장, 황순오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재욱 대구지하철사고수습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주기 추모행사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2주기추모행사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2차 회의는 최현복 홍사단사무처장이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2주기 추모행사 세부내용은 두 유족단체(희생자대책위원회, 2.18유족회)에서 마련한 행사계획을 준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고, 대구시는 후원형식으로 행·재정적 지원을하기로 하였다.

2005년 2월 2일 13:30 대구홍사단사무실에서 최현복 홍사단 사무처장, 조광현 경실련 사무국장, 김경민 YMCA관장, 박재욱 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국장, 강달원 2.18유족회장, 황순오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사고수습반 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준비위원회 명칭을 「2주기추모행사준비위원회」로 결정하고, 5개 시민단체(홍사단, 경실련, YMCA, 민예총, 참여연대)와 2개 유족단체(희생자대책위원회, 2.18유족회)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추모행사는 2월 18일 09:30~12:00 시민회관 광장에서 거행하며, 2월 17일부터 2일간 사고장소인 지하철 중앙로역 구내에 헌화·분향소를 설치하여 유가족 및 일반시민이 헌화·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모행사 준비는 대구YMCA에서 담당을 하고, 추모행사 당일 행사진행은 각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기로 하였다. 행사내용은 1주기 추모행사 내용에 준하여 추모식을 준비하되, 2주년인 점을 감안하여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간소하게 준비(당일행사 50백만원 범위내)하고, 사고 발생시간

(09:53)에는 1분간 추모사이렌을 취명하기로 하였으며, 경과보고는 두 유족단체의 이해관계로 추모행사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생략하고, 유족대표 추도사는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맡기로 하였으며, 당일 추모행사시 조화는 일체 사절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추모식

2005년 2월 18일 09:30~12:00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민회관 광장에서 거행된 대구지하철참사 2주기 추모식장에는 사고당시 희생된 192명과 사고후 지병으로 사망한 2명을 포함한 194명의 위패를 안치하였고, 정당,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주요인사 70여명과 유가족 400여명, 시민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희생자들의 넋을 부르는 식전행사 ‘진혼북 울림’에 이어 참사 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을 알리는 사이렌이 사고 시각인 9시 53분부터 1분간 시내 전역에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일손을 놓은 채 숨진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묵념이후 시작된 이날 추모식은 넋 모시기, 3대 종단의 종교의식, 유가족 대표와 참석 내빈들의 헌화와 분향, 추도사와 추모시 낭독, 추모의 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구시장과 시민모임 참길회 대표의 추도사에 이어 유가족 대표 임연지씨가 “고운 천사가 된 엄마 딸 정경에게”라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추모사를 낭독하자 유가족은 오열을 터뜨렸으며, 추모식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이어서 대구민족문화회장인 김용락 시인의 추모시 낭송, 추모의 노래, 넋 보내기 추모공연이 있었으며, 유가족 및 일반시민의 분향 및 헌화로 2주기 추모행사를 마치고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풍선편지를 하늘로 날려 보냈다.

이와 함께 2주기 하루 전인 2월 17일부터 사고현장 중앙로역 입구 아카데미극장 앞 환기구에는 희생자 192명을 기리는 촛불 192개가 ‘생명의 별밭’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추모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지하철 중앙로역에 마련

된 분향소에는 추모행렬이 이어졌고, 역사 기둥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글들이 나붙어 시민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대구광역시장 추도사

존경하는 255만 시민 여러분,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쓰라린 아픔을 안겨 주었고, 다시는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지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전 오늘,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지하철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했고 부상의 고통에서 절규하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생이별과 부상의 크나큰 아픔을 삭이면서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어려움 속에서도 자원봉사를 마다하지 않았던 많은 시민들, 그리고 아픔을 위로하는 각계 각층의 국민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고수습을 위해 열과 혼을 다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2주기 행사를 가지면서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께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숙여 명복을 빌며, 그 동안 크나큰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여러분께도 255만 시민과 더불어 마음 속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대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제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애통함을 느껴오면서 지하철참사 2주년을 맞이한 오늘,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과 회한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2년전 발생했던 우리지역의 지하철화재참사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뼈아픈 사고이며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이 같은 참사를 초래하였던 우리 자신들의 잘못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 안전불감증을 절감하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우리 대구가 안전한 도시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해외동포들께서 한마음으로 모아 주신 성금과 자기의 생업을 내팽겨 치고 자원봉사를 해 주신 많은 시민들의 박애정신으로 크나큰 아픔과 넓은 사랑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지하철을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2007년까지 총 660억원을 투입하여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 75개 안전개선과제를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전동차에 불연성 내장재를 갖추어 시민 여러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가족 여러분과 약속했던 추모묘역, 추모벽, 안전교육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위하여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들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대구를 방재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7만평의 화원유원지에 방재테마공원의 조성을 추진하면서 그 공원내에 1만여평 규모의 「추모전시관」을 건립하여 지하철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을 추모하고, 사고의 교훈을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 여러분과 약속하고, 우리시가 추진중인 추모사업의 일부는 현재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된 추모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하철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중앙 정·관계 인사님, 시민단체, 자원봉사를 해주신 많은 시민여러분 그리고 지역인사들께도 255만 시민을 대신하여 머리 숙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억누르며 사고수습에 협조하여 주신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 그리고 255만 시민여러분!

2년전의 이 사고가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먼저 가신 넋들은 우리 대구와 대구시민들이 현재의 아픔을 굳게 딛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참사의 아픔 속에서도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치러 대구시민의 저력과 아픔을 승화시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지난 반세기동안 특유의 기질과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국가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온 자긍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대구정신을 바탕으로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구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우리 모두 확 트인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참사 2주기 추도식이 범시민 행사로 치루어지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대구는 사고의 오명을 지닌 도시가 아닌 방재·안전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또한 대구정신을 바탕으로 전통과 첨단이 함께하는 세계 속의 일류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가신 영령들을 안심시켜 드리고 우리 도시의 영광을 되찾읍시다.

끝으로 다시 한번 삼가 머리 숙여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5. 2. 18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념

다. 추모관련 행사

1) 「메모리즈 II」 영화상영

지하철 화재사고 2주기를 맞이하여 사고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잊혀져 가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고통을 담은 영화 「메모리즈 II」를 2005년 2월 17일 19:00 대구 MMC에서 무료 상영하여 지하철 화재사고 희

생자 유가족, 부상자, 일반 시민 등 170여명이 관람을 하며 사고의 교훈을 되새겼다.

2)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시연회

2005년 2월 18일 시민회관 광장에서 추모행사 직후 11:50경 부터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방방재신문사가 주최하는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전동차용 바닥재 및 시트카바의 화재 시연, 전동차 내부 화재시 강화액 스프링클러 방식의 화재진압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가 있었다.

3) 심포지움 개최

서울내러티브연구소,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희생자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그날의 아픔을 넘어서”란 심포지움이 2005년 2월 18일 14:00~18:00 엑스코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참사 2주년을 맞이하는 감회와 각오”란 주제에 대해 최남희 서울내러티브연구소장의 사회로 대구시장(행정부시장 대독), 소방방재청장, 유가족대책위원장의 감회와 각오를 다지는 인사말씀이 있었다.

제2부에서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비추어보는 재난관리”란 주제를 가지고 경북대학교 홍원화 교수의 사회로 “현대사회의 재난과 예방·관리”에 대하여 박광길 소방방재청 혁신인사기획관의 발표가 있었으며, “위험사회의 재난 - 대구지하철사고의 특성”에 대하여 노진철 경북대학교 교수, “대구지하철화재 후 일본지하철방화안전대책팀의 기술적 검토”에 대하여 일본 야마다 도키요시(山田常圭) 소방연구소 프로젝트연구부장, “동경소방청의 지하공간 화재예방 대책”에 대한 스즈키히로(鈴木浩) 동경소방청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제3부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삶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구대학교 이종한 교수의 사회로 “재난 피해자의 사회복귀 - 삶의 이야기”에 대하여 최

남희 서울내러티브연구소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뇌 영상학적 근거”에 대하여 김석주 서울대학병원 임상연구원, “유가족을 위한 위기개입 전략”에 대하여 이성희 울산대학교 교수, “대형재난사고 조사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에 대하여 이동유 CBS방송국 프로듀서가 발표를 하고 18:20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4) 안전기원 시민연날리기 개최

2005년 2월 19일 14:00~17:00 수성교에서 대봉교사이 신천둔치에서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와 거리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대구지하철참사 2주기를 추모하며 대구시민의 안전을 염원하는 액막이 연날리기를 행사를 개최하였다.

第2節 追慕事業

1. 추진경위

가. 희생자대책위원회의 요구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국무총리 면담시 추모공원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3월 26일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주요 요구사항은 추모공원을 참사현장에서 가깝고 활용도가 높은 수창공원에 설치하여 줄 것과 추모공원내에 합동묘역(납골당 조성), 위령탑, 안전교육 위주의 추모기념관 건립 등이며 재원은 국비 혹은 국민성금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는 추모사업은 “대구시가 유가족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경우 관련부처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내용을 회시하였다.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추모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수창공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230-1일원 39,242㎡(11,870평)로 1999년 4월 20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사무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희생자측에서 요구한 수창공원내에 묘역조성, 추모탑 및 안전교육관 건립 등 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별표2)에 묘역공원 조성은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공설묘지(공동묘지) 설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별표1 바항)에 의거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거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0조(공동묘지의 결정기준) 제1호에 의해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 련 법 령 내 용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도시공원은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안에서의 새로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별표 2의 기준이하로 할 수 있다.

[별표 2]

- 공원구분 : 묘지공원
- 설치기준 :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 녹지 지역에 설치
- 유치거리 : 제한없음
- 규 모 : 10만제곱미터이상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수창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으로 관련법령 개정없이 묘지공원 설치가 불가능하며, 인근 아파트, 상가, 학교 등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거리제한을 완화하기 곤란하고, 장래에 확장 가능성도 없는 지역이므로 공설묘지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수창공원을 조성한 후 추모탑, 안전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원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업비를 일시에 투

입하여야 하는 등 대구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하면 사업비의 일시확보가 불가능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건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현실적으로 추모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나.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협상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3월 31일 희생자대책위원회와 협상한 결과, 수창공원 부지에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계법령 개정 후 도시계획변경 추진, 공원조성사업비를 시비로 우선 확보한 후 부족분은 국비보조 요청, 묘지설치에 따른 주민반대에 대해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로 하였다.

4월 18일 협상에서는 추모공원에 묘역, 추모탑, 안전교육장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조성기간은 3년 2개월내로 하며, 추모묘역 선정은 대책위에서 3개 후보지, 대구시에서 3개 후보지를 추천하여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추모사업추진위원회는 총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공무원 2명, 대구시 선정 전문가 3명, 대책위 2명, 대책위 선정 전문가 3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고 합의하였다.

4월 28일에는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의결사항 시행에 대한 담보방안을 강구하였고, 이행보증인으로는 대구시측에서는 강황 시의회 의장, 이성호 시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대책위측에서는 법타스님(불교방송국 이사, 은혜사 주지)과 전호영 대구경실련 공동대표를 선정하였다.

5월 21일 협상에서는 희생자대책위에서 5월 20일 대구대공원 주변 그린벨트에서 물색한 묘역후보지에 대하여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합의하였다.

6월 16일에는 추모사업 내용을 추모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추모벽 설치, 안전교육관 건립, 기념(복지)재단 설립으로 하고, 추모묘역의 조성위치는 수성구 삼덕동 118-1번지 일원으로 하며, 추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

비, 성금으로 하고, 추모사업을 3년 2개월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추모묘역 조성관련 반대민원 제기

1) 중구주민 및 의회의 반대민원

3월 31일 지하철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희생자대책위원회와 대구시가 추모공원 부지로 중구 수창공원을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조성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중구지역 주민 및 구의회에서는 “계속적인 추모집회와 중앙로의 차량 통행제한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으며, 급격한 상주인구 감소 및 도심외곽 신개발지역의 새로운 상권 형성 등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대구역 건립과 함께 중심상권으로의 재도약에 꿈이 부푼 구민들에게 도심 한가운데 묘역을 포함한 추모공원 조성은 중구 구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들은 구한국담배인삼공사 제조창부지의 수창공원 조성계획은 인근에 달성공원,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공원으로서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수창공원의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철회하고, 수창공원의 공원부지 지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4월 7일 중구의회에서는 추모묘역 조성을 위한 법개정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공원지정을 해제하여 상권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전달하였다.

4월 8일에는 구한국담배인삼공사 제조창 부지(수창공원)의 추모묘역 조성계획 철회, 공원부지를 해제하여 주상복합건물이나 경제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는 추모묘역 조성반대 민간추진위원회 장영관 외 13,217명의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인근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에서는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수창공원에 묘역을 포함한 추모공원 조성을 요구하여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추모묘역 조성에 대한 현실성과 법적타당성,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예산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희생자대책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계획이 결정된 것은 없으며, 근린공원에 묘역을 설치하려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변경시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녹지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근린공원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회시하였다.

2) 수성구민 및 의회의 반대민원

당초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검토되었던 중구 수창공원이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법령 개정문제 등에 부딪히면서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대안으로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부지 인근의 사유지 2곳과 대공원부지 내 시립미술관 부근 등 4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제3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제4후보지인 대구대공원내 시립미술관 예정지 주변을 후보지로 채택하였으나, 이 부지는 공원부지인데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추모공원 부지 선정은 여전히 난항을 겪어 오다가 제5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회의(6. 2)에서 제5후보지(수성구 삼덕동 산 118-1번지 일원)를 상정하여 제1·2·5후보지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5후보지가 추모묘역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수성구 삼덕동 주민들과 수성구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등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 대구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추모묘역 조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6월 7일에는 수성구 고산지역 주민 400여명이 추모묘역이 중구에서 수성구로 오는 것은 부당하며, 대구시립공원묘지가 있는 곳에 묘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6월 18일에는 고산지역 자생단체 및 수성구민 7,962명의 날인을 받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수성구내 묘지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7월 18일에는 수성구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 9명, 지역출신 시의원 2명, 주민대표 8명이 대구시를 방문하여 수성구 삼덕동에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며, 칠곡 낙산리 시립공원묘지에 안치하고 묘지설치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는 먼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언론에 보도된 묘지 설치규모(890평)는 시에서 계획하여 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추모묘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묘지설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묘지위치는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묘역조성 규모는 안장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어야 결정되는 것으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회신하였다.

대구시에서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묘역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함에 따라 공람 공고전에 해당구청 관련부서장과 구의회 및 지역주민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수차례 노력을 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2004년 6월 4일에는 대구시의회 손병윤 부의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12명과 대구시 관련국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대구시에서 추모묘역 설치 당위성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 훼손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주장하였다.

2004년 6월 11일 지역주민 230명과 2004년 7월 8일 고산지역 주민 150명이 추모묘역 조성반대 집회를 시청 주차장에서 잇따라 개최하였다.

2.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구성

1) 구성배경

지하철참사회생자대책위원회에서 3월 26일 지하철참사 희생자의 혼백과 희생자 유가족의 상흔을 위로하고 대구시의 각종 재난에 대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위령탑 및 안전교육 위주의 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 추진을 전담할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무조정실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는 3월 31일 “대구시가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모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경우 관련부처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함에 따라 추모사업 추진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구성문제가 전격 대두되었다.

2) 위원회 구성

위령탑 및 안전교육관 건립, 희생자 묘역 등의 위치선정, 규모, 시행시기, 시행방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대구시 공무원 2명, 대구시에서 선정한 인사 3명, 희생자대책위원회 2명, 희생자대책위에서 선정한 인사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5월 10일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결권이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안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추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무리 해 나가기 위하여 제15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04. 6. 2)에서 부상자 단체 2명, 대구시 관련국장 2명, 민간 전문인사 2명을 추가로 참여시켜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10명에서 16명으로 확대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모사업추진위원회는 희생자대책위원회 2명, 부상자단체 2명, 희생자대책위원회 추천인사 4명, 대구시 간부공무원 4명,

대구시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추천기관	비 고
위원장	김 준 곤	변 호 사	대구광역시	
위 원	이 현 택	경북대 교수	〃	
〃	최 상 복	경산대 교수	〃	
〃	김 태 일	영남대 교수	희생자대책위	
〃	최 현 복	경산대 교수	〃	
〃	이 재 용	전 남구청장	〃	
〃	심 수 택	대구환경보전협회사무국장	대구광역시	추가위촉
〃	성 상 희	변 호 사	희생자대책위	〃
〃	이 종 진	대구시 환경녹지국장	대구광역시	
〃	강 재 형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	〃	
〃	이 승 호	대구시 교통국장	〃	추가위촉
〃	김 옥 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	〃
〃	윤 석 기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희생자대책위	
〃	황 순 오	희생자대책위원	〃	
〃	김 동 우	부상자가족대책위 위원장	부상자가족대책위	추가위촉
〃	김 성 길	“가칭”권익쟁취위 위원장	“가칭”권익쟁취위	〃

나. 위원회 운영

1) 제1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5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임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김준곤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추모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인 추모묘역 조성위치에 대한 대구시의 검토안(상리, 장기, 학산공원)과 희생자대책위의 검토안(대구대공원, 팔공산, 앞산공원)에 대한 심의 및 토론이 있었다.

2) 제2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5월 22일 추진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5월 21일 희생자대책위와 대구시간 추모묘역 조성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양측이 준비한 후보지 설명을 생략하고, 대책위에서 선정한 대구대공원 북편 인근 개발제한구역내 후보지 2개소(삼덕동 408-2, 170-2)에 대한 설명을 들어 줄 것을 요구하여 위원회에서 5월 23일경 현장을 답사하기로 하였다.

3) 제3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5월 26일 개최한 회의에서는 희생자대책위에서 제2차 회의시 제시한 후보지 2개소 외에 삼덕동 산 34번지와 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 주변을 추가로 제시하여 이들 4개 후보지에 대해 1·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4후보지인 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 주변지역을 추모묘역 조성 대상지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4차 회의시 심의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공원부지내 묘지설치가 불가능한 사유와 공원부지 해제절차 및 소요기간을 검토하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제4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제4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제4차 회의는 추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9일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21일 대구대공원 그린벨트구역내 묘지설치에 대한 합의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고, 추진위원회 결정사항을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시행 가·부 논란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5) 제5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6월 2일 제5차 회의에는 추진위원 8명이 참석하여 5월 22일 희생자대책위가 제시한 제1·2후보지와 추가후보지로 제시한 수성구 삼덕동 118-1번지 일원(범물천주교회 공동묘지 인근) 제5후보지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제5후보지를 추모묘역 조성 예정지로 결정하였으나, 제5후보지가 공원구역내 부지일 경우 무효화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다.

6) 제6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6월 16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제5차 회의에서 묘역위치를 결정한 이후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묘역, 주차장 및 휴게공간으로 각 1,000평 정도를 조성하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안전교육관 건립은 여러가지 재난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단계부터 추모사업 추진위원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7) 제7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6월 24일 개최된 제7차 회의에는 추진위원 8명이 참석하여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하였으며, 위령탑 및 안전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8차 회의시 청취하기로 하였다.

8) 제8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7월 4일 제8차 회의에서는 안전교육관 건립을 위한 기획단에 추모사업추진위원 2인(최상복, 최현복)을 위촉하고, 추모벽, 위령탑 건립을 위해 지하철공사에 추진기획단을 만들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9) 제9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7월 21일에는 추진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2.18유족연합회에서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심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대구시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측과 합의토록 하였다.

또한, 이날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추모벽 설치장소와 방법을 결정하였다. 지하철 중앙로역 지하 1층에는 아카데미극장앞 지하횡단보도내 기둥 1개, 지하 2층에는 벽면 전화부스 1개소, 패널 6개, 기둥 4개를 보존하기로 하였으며, 지하 3층에는 승강장이 협소하여 설치필요성을 향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7월 22일 추진위원회 위원, 소방본부 및 지하철공사 관계자 등이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보존 잔재물 선정을 위한 조사를 하였다. 화재전동차 전량(12량)은 안전교육관 건립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보존하고, 위령탑 건

립, 추모벽 설치를 위한 자체자문위원회에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위원 2명(이 재용, 황순오)을 선임하였다.

10) 제10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8월 6일 개최한 회의에서는 제9차 회의에서 추모벽 설치 위치 및 방법결정 사항을 대부분 재확인하고, 안전교육관은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안전교육관에 전시할 물품은 지하철공사에서 보관하기로 하였다.

11) 제11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10월 18일 개최된 제11차 회의에는 추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업 추진현황(묘역 조성, 안전교육관 건립, 추모벽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교육관에 전시할 지하철사고 관련 보관 내용물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 상태에서 부상자대책위 및 2.18유족연합회의 추모사업위원회 참여는 곤란하므로 대구시에서 지하철사고 3개 대책위와 협의하여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재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2) 제12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2004년 3월 8일 개최된 제12차 회의에는 추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복지정책과장이 그 간의 추모묘역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추모사업추진위원회의 확대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13) 제13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4월 28일 추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는 제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추모사업추진위원회 확대개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14) 제14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6월 2일 개최된 제14차 회의에서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초 10명이던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대구시 간부 2명, 부상자측 대표 2명, 민간전문가 2명을 추가로 영입하기로 하여 총 16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15) 제15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6월 16일 개최된 제15차 회의에서는 확대 개편으로 추가로 위촉한 위원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추모사업추진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과 추모묘역 조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기 회의시 삼덕동 추모묘역 조성반대 주민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16) 제16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개최

6월 30일 개최된 제16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안전교육관 건립예정지가 당초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인근에서 화원유원지로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과 추모묘역과 연계하여 수성구 삼덕동에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7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삼덕동 추모묘역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추모사업 추진

가. 추모묘역 조성

3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사고현지인 대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참석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국무총리에게 유족대표들은 면담을 요청하여 K-2공군비행장 귀빈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시 유족대표단은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묘역 조성과 위령탑 및 안전교육관 건립을 건의하였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져 감에 따라 추모묘역을 전제로

한 시신인수 등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족대표단이 회의개최를 요구하여 3월 31일 시민회관 귀빈실에서 유가족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행정부 시장과 사망자대책반장 등 대구시 관계자와 유가족대표가 참석하여 다음사항을 협의하였다.

1. 관련법령 질의 및 개정건의(2003. 3. 31 건의)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단서조항 : 보건복지부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 건설교통부
 - ※ 추모공원(위령탑, 안전교육관, 공원묘역 등) 부지를 현KT&G부지(수창공원)로 한다.
2. 수창묘지공원 구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 시 도시계획과, 공원과에서 관계법령 개정 후 추진
3.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확보 : 시비우선 확보, 부족분 국비 보조요청
4. 공원주변 주민 이해·설득
 - 묘지공원 조성차원을 넘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교육장」화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시민에게 설득
 - 안전·생명 도시 대구건설 추진
5. 기재생략
6. 복지재단 설립
 - 유가족대책위에서 「계획안」 제출, 시에서 검토,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조정
7. 이하 기재생략

그러나, 유가족들의 중구청 점거농성, 중구지역 주민들의 추모공원 조성반대집회 등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추모묘역 조성을 위한 대구시와 유가족대표간의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진통이 거듭되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수창공원내 묘역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4월 18일 대구시와 유가족대표단은 제2의 장소를 후보지로 추천하고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추이, 안장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공설묘지의 안장여력이 충분하고 공원

묘지내 선열묘지로 사용계획중인 미개발지 700여평 정도의 적합한 공간이 있으므로 이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대구시 공설묘지 현황

묘지명	위 치	면 적 (㎡)	설치일	안 장 현 황(기)		
				안장능력	안장기수	안장여력
계		1,834,405		37,568	9,186	28,382
시 립 공원묘지	지천면 낙산리 산167	141,818	'74.4.16	7,600	3,932	3,668
동 명 가족묘지	동명면 금암리 산25일원	931,627	'35.4.20	15,620	2,965	12,655
동 명 공동묘지	동명면 학명리 산145-1일원	760,960	'64.6.11	14,348	2,289	12,659

5월 26일 제3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회의시 유가족측의 요구사항인 수성구 삼덕동 408-2번지의외 2개소에 대해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인근에 주택지(외환마을 43가구, 대덕마을 및 아래각단 32가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예정지가 인접하여 묘지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다.

5월 31일 수성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반대의견 표명이 있는 후 6월 2일 제5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성구 삼덕동 산118-1번지에 추모묘역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러나 고산지역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잇따르고 6월 18일에는 고산지역 주민 7,952명의 연명으로 추모묘역 조성의 부당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대구시에서는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성구 삼덕동 산118-1번지 일대에 추모묘역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04년 6월 21일에는 수성구청에서 추모묘역 조성을 위한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결과를 대구시에 제출하였다.

수성구청에서는 “지역주민 7,813명 전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수성구의회에서도 추모묘역 설치반대 특위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추모묘역 조성은 주민과 구의회의 반대는 물론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004년 7월 8일 개최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모묘역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 추모묘역 조성부지에 대한 현장확인만 하고 결정은 차기 회의로 유보하였으나, 2004년 8월 20일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추모묘역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을 해당지역 주민과 유가족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한 후 재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유보하였다.

나. 추모벽 설치

1) 화재현장 보존지역 지정 답사

2월 22일 대구시장과 동구청장, 지하철공사사장이 중앙로 사고현장 방문시 “화재참사 현장을 영구 보존하여 동종사고 방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동구청장의 건의에 따라 지하 1층 아카데미 극장앞 지하 횡단보도 중앙부 기둥 1개소와 지하 2층 서편 공중전화부스 주위 벽면 15m정도를 보존지역으로 임시 지정하였다.



지하1층 기둥



지하2층 벽면

2) 추모벽 설치관련 협의

3월 2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회의(3. 25)에 앞서 추모벽 설치에 대한 시민의견과 지하철공사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추모벽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화재현장을 전면 재건설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화재현장을 보존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 등 의견이 상충되어 시신수습 등 기본사항들이 정리된 이후 보존의 위치, 범위 등을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에서는 지하역사의 공간적 제약으로 보존 의미와 효과가 미흡하므로 별도 추진중인 추모공원 조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앙로역구내 별도 조성문제는 검토하여 복구공사시 반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월 14일 대구시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와 추모벽 설치 합의가 이루어졌다. 추모벽 설치에 유가족과 협의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사고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지원이 용이하므로 향후 추모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기로 하였다.

6월 16일 제6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의 추모사업에 관한 기관별 업무분장에 따라 그 동안 대구시에서 주관해 온 추모사업 업무중 추모벽 및 위령탑 건립 업무를 지하철공사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7. 4), 제9차 회의(7. 21), 제10차 회의(8. 6)를 거치는 동안 현장 보존지역 조정, 안전교육관 전시물품 지정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중앙로역 지하 1층 아카데미극장앞 지하횡단보도 중앙부 기둥 1개, 지하 2층 중앙계단 북편과 매표소 사이 벽 1개소, 지하 2층 중앙부 기둥 4개 등 총 6개소를 추모벽 설치를 위해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에서 8월 14일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위원 2명, 부상자대책위원회 위원 1명, 전문작가 4명, 대구시 공무원 및 지하철공사 임원 각 2명

등 총 11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4일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추모벽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에 부딪히면서 회의진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추모사업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업무성격, 업무한계, 의결구속력 등 운영규약부터 먼저 제정한 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하2층 벽보존



지하2층 기둥보존

3) 추모벽 설치관련 민원제기

추모벽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찬·반 의견도 잇따랐으며, 대구 참여연대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다양하게 보존·형상화하자는 찬성의견 쪽이고, 부상자대책위원회는 화재당시의 잔재물에 대한 혐오감과 안전사고 유발위험 등으로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부상자대책위원회에서는 한 맺힌 잔재물을 그대로 보존할 경우, 잊고 싶은 악몽의 재현으로 정신적 충격과 이에 따른 돌출적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추모벽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안전교육상 필요시 다른 장소에 잔재물을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추모벽 설치가 진행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반대하며 3차례 추모벽 설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안전교육관 건립

1) 추진경위

지하철 화재사고 직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론식·주입식 일변도의 안전교육을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연일 언론보도를 타고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학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국민 안전교육 체계의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구소방본부에서는 「2.18지하철참사 소방안전기획단」을 가동하여 유사재난 재발방지와 시민 재난현장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을 제안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준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었다.

사고이후 유가족측과 대구시는 희생자들에 대한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으로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운영을 합의하였으며, 추모공원 조성 내용 가운데 안전교육관 건립을 명시하였다.

또한, 안전교육관 건립재원으로 국비 또는 성금을 적극 지원해 달라는 유가족측 요구에 대해 국무총리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경우 관련부처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안전의식 생활화와 재난현장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국민 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구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지원계획에 힘입어 대구시(소방본부)에서는 6월 21일 안전교육관 건립사업과 중앙정부의 국민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을 연계한 「시민 안전테마파크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사업내용

6월 21일 확정된 「시민 안전테마파크 건립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내 부지 15,000평, 연건평 3,000평 규모로 2006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억원(국·시비 각 200억원, 국민성금 100억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주요시설은 교육관, 학습관, 전시관, 체험관 등을 비롯한 건축물 5~7개동과 훈련관 등의 옥외시설물로 구성하여 건축물 상호간 또는 주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주요 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연건평)	주 요 시 설 및 내 용
계		3,000평	
교육·학습관		500평	영상교육장, 안전테스트실, Q&A코너, 교육인증코너 등
전 시 관		400평	추모실, 전시실, 지하철유물관 등
체 험 관	자연재난	300평	지진·강풍·폭우 체험실 등
	지하재난	300평	지하철·유해업소·건축물붕괴 사고 체험실 등
	화 재	300평	위험물폭발·농연·화재 체험실 등
	가 상	300평	시뮬레이터영상체험실, VR체험실 등
종합훈련관		500평	산업안전·교통안전·피난 훈련장 등
기 타 시 설		400평	오리엔테이션시설, 휴게시설, 조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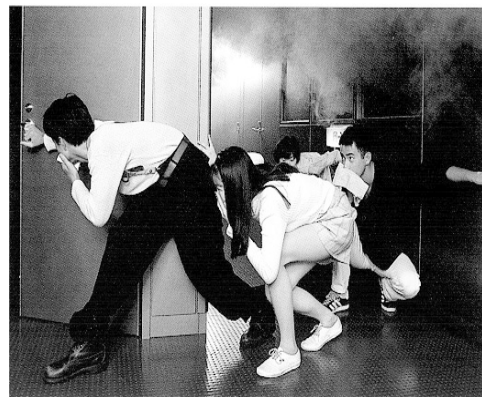
【교육 · 학습관】



【전 시 관】



【자연재난체험관】



【지하재난체험관】



【화재체험관】



【가상체험관】

3) 타당성조사용역 실시

2003년 10월 27일부터 2004년 1월 14일까지 전문학술용역기관에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한 결과 대구 시민 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종 재해·재난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대형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율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당성 분석 결과

구 분		타당성 분석 검토내용
위 치 적정성	대구대공원 (원안)	대구대공원내 시설지구와의 연계성이 높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시민설문조사 결과 약 80%가 찬성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회원유원지 (대안)	위치·접근성·부지확보에 대한 용이성이 높은 편이며, 특히 사업비 확보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높게 분석됨
건축 타당성		대상지의 건폐율, 시설률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규모·공사비 적정성		교육·전시동을 포함한 총 6개동(연면적 9,937㎡, 부지면적 49,685㎡)이며, 5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사업기간의 적정성		사업기간은 2006년 말까지 계획하였으나, 재원확보 및 부지매입 등의 고려시 2007년 이후까지 신축적 운용 필요
단계별 투자비 분석		공정별·단계별 투자비 분석 결과 2004년 5억원(1%), 2005년 217억원(42%), 2006년 290억원(57%)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경제성 및 파급효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익적·사회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재원조달계획		국비 203억원, 지방비 208억원, 성금 100억원을 조달하며, 국가적 재정지원과 후원,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 검토

4) 국비확보 추진

2004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2003년 6월부터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사업설

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관련 중앙인사 방문시 현안사업 설명회를 통해 2004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하여 대구지역에 우선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신규사업 억제와 지방고유사업이란 기획예산처의 입장에 부딪혀 결국 2004년도 중앙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2003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안전체험관 설치사업 추진사항 알림’을 통하여 2004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국 시·도에 전파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민 안전테마파크 건립일정은 신축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다.

200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2004년 4월 28일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으며, 2004년 9월 15일 당초계획보다는 축소된 국비규모이나 중앙부처와의 협의·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 방재거점도시계획 연계

시민 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04년 1월 16일 대구지역 발전을 위한 소방방재청·지방방재연구소 유치와 방재산업단지·방재테마공원 조성이란 4개 사업을 담고 있는 「방재거점도시 육성계획」을 중앙에 건의하였다.

2004년 3월 29일 대구시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방재관련 거점도시 추진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시민 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은 방재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연계하여 화원유원지에 추진하되, 다만 방재테마공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10월 26일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비확보 및 시설규모 축소조정을 통한 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후 추진’이란 조건부 승인내용과 대구시의 재정여건, 국비지원 축소 등 변화된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시민 안전테마파크 건립규모(당초 500억원 → 250억원)를 조정하였다.

2005년도에는 선진국의 안전체험시설 비교연구 결과와 방재테마공원 조성 사업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건축물 배치, 체험시설별 구현, 사업일정,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수립하여 구체화할 계획이다.

라. 유사사고의 추모사례

1) 상인동 도시가스 사고

1995년 4월 28일 07:1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네거리 남쪽 77m지점에서 대구백화점 상인지점 신축공사를 위한 그라우팅 천공작업중 100mm 도시가스관이 파손되어 유출된 가스가 하수관을 통하여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되었다. 약 40분후인 07:52경 원인불명의 화인으로 도시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01명, 부상 202명, 건물 346건, 차량 150대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추 모 행 사

추모행사명	일 시	장 소	주관단체
희생자 영령들을 위한 탑돌이	'95. 4. 29 19:00	시청 연등탑	대구광역시 봉축위원회
달서공고 추모식	'95. 5. 2 11:30	달서공고 교정	달서공고
상인동천주교회 합동 위령미사	'95. 5. 4 11:30	상인천주교회	상인천주교회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 및 가스사고희생자 합동 위령제	'95. 5. 6	대구시민운동장	동 화 사
영남중 가스사고 희생자 위령 추모식	'95. 5. 6 10:00	영남중학교정	영남중학

250만 대구시민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러한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28일 가스폭발사고 유족대표단과 대구시 사고수습대책본부간에 위령탑을 건립기로 합의하고, 가스폭발사고 희생자 위령탑건립계획을 수립(대구시청 사회과)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②달서구 본리공원 내 위령탑 건립장소 선정, ③위령탑 건립은 1996년 4월 28일 이전까지 준공, ④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에게 도안을 의뢰하고 제출된 도안을 심의결정한 후 제작의뢰, ⑤위령탑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민성금으로 충당 등이다.

이에 따라 1995년 9월 5일 유족대표 3명, 대구시 3명, 미술전문가 2명(도안, 조각분야) 등 총8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대구시 이희태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에 신갑식 유족회장, 간사에는 김우홍 대구시 사회과장이 선임되었다.

추진위원회는 1995년 9월 5일부터 1995년 11월 28일까지 총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①위령탑 건립방향 결정, ②위치선정 및 조형물 제작설치 전문팀 결정, ③기반조성 설계와 조형물(탑, 조각, 조형물) 분리설계, ④조형물 설계모형(안) 심의결정, ⑤위령탑 기반조성 용역설계 및 조형물 제작설치 방안 등을 결정하였다.

위령탑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산 6·7번지 학산공원(당시 본리공원 - 명칭변경 2003. 3. 1)에 건립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건립공사는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였다. 1995년 11월 18일 기본용역을 완료하여 1996년 7월 6일 부지 2,722㎡, 진입로(폭 8m, 길이 125m), 좌우 옹벽 및 조경 등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용역비 14백만원, 기반조성비 330백만원, 조형물 868백만원, 기타 24백만원 등 총공사비 1,236백만원(성금)을 들여 1996년 7월 29일 주탑, 향로대, 안내석, 동상, 사망자명단석, 파고라 등을 제작 설치 완료하고, 1996년 11월 12일 10:00 유가족 및 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위령탑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2)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 6월 29일 17: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3번지 연면적 22,386평 규모의 고급백화점이 잘못된 설계, 부실시공, 무자격자에 의한 감리, 무리한 매장증설과 증축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인하여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502명, 부상 937명 등 총1,439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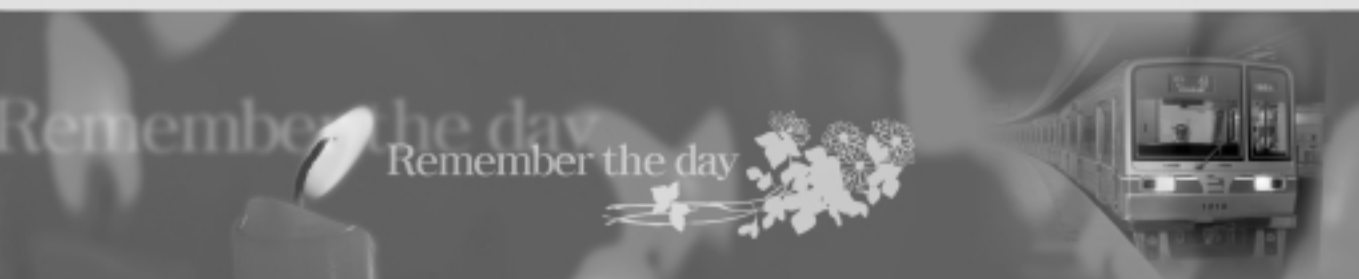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희생되신 고인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보상합의서 제 9조('96. 3. 20)에 의하여 위령탑을 건립기로 하였다.

1997년 5월 8일 희생자 위령탑 건립방침을 결정하고 삼풍사고희생자 위령탑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음 날 제1차 건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령탑 조형물 모형안, 건립위치, 조형물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고, 12월 26일 위령탑 건립규모 및 위치 등에 대해 서울시와 유족대표간에 최종합의를 하여 양재동 “시민의 숲”내 KAL위령탑 남단에 백마충혼탑 규모면적의 주탑을 건립기로 하였다.

1998년 2월 20일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심의결정을 하고 위령탑 건립부지 사용승인을 서초구의회로부터 받고, 1998년 2월 26일 제2차 건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령탑 조형물, 건립규모, 위치, 계약 및 공사비 집행방법, 사업시행부서 지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위령탑 조형물 모형은 유족측에서 추천한 이화여대 교수의 모형안을 채택하였다.

건립업무는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위원회에서 총괄하고, 건립공사는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였으며, 위령탑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성금 18억원으로 하였다. 규모는 탑면적 201.06㎡, 높이 8m이며 건립공사는 1998년 3월에 발주하여 동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준공 후에는 “시민의 숲” 관리기관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토록 하였다.

第3編 反省과 教訓



第1章

事故原因 反省

第1節 危機管理能力 不足 473

第2節 地下鐵 施設未洽 477

第3節 地下鐵火災 特性 482

第1章 事故原因 反省

第1節 危機管理能力 不足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는 사회에 불만이 많은 한 개인의 방화에서 비롯되었으나, 한 개인의 방화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게 된 원인은 전동차의 내장재 불량, 역사 소방설비의 미비 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지하철공사와 소방관서 등 외부대응기관 직원들의 위기대처 능력 부족 등도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화재발생 초기에 기관사, 역무원, 종합사령실 직원들이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하철공사와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간의 화재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형사고에 대한 대처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1. 초기 대응미흡

이번 사고가 대형사고로 확대된 주요원인은 지하철공사의 초기대응 미흡을 들 수 있다. 초기대응만 신속하고 적절히 이루어 졌다면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대응이 중요함에도 화재가 발생된 1079호 기관사는 운전사령에 화재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화재를 진화하려다 실패하고 당황하여 사고보고를 누락하였으며, 화재발생을 최초로 보고한 중앙로역 역무원은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자세히 보고하지 않고 단순하게 중앙로역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함으로서 사령실 근무자들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초동대처에 실패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화재발생 초기 1079호 기관사가 화재상황을 보고하였거나 중앙로역 역무원이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더라면 1080호 전동차가 중앙로역

승강장에 진입하는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종합사령실 근무자의 경우, 화재경보가 울렸는데도 이를 운전사령에게 통보해 주지 않고 중앙로역에 화재경보가 동작한 원인을 확인하지 않는 등 평소에 자주 일어나는 오작동일 것으로 판단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기계설비사령이나 역무원의 화재발생 보고를 받고 확인 절차없이 단순히 열차무선 전체 호출을 통하여 기관사들에게 주의 운전할 것만을 지시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사령의 경우에도 초기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1080호 기관사의 경우, 운전사령으로부터 “중앙로역 진입시 조심해 운전하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중앙로역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고 정거장 외방에 정차한 다음 재차 지시를 받는 등 주의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큰 화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진입하였고, 중앙로역 진입시 연기가 자욱하고 1079호 전동차에서 불길기 번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면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더라면 1080호 전동차 승객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중앙로역에 정차한 다음 유독가스가 심하여 곧바로 열차출발을 시도하였으나 전동차 동력전원 단전으로 출발하지 못하였다면 곧바로 승객을 대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계속 출발을 시도함으로 대피시기를 지연시켜 희생자가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이번 사고에 관련된 두 전동차의 기관사, 중앙로역 역무원 및 종합사령실 근무자 등 관련담당자 대부분이 제규정을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지하철공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시에 따라 1999년 자체 교육원을 폐지하였고, 안전이나 사고예방, 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서울 등 타 도시의 지하철 운영기관처럼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식습득과 경험축적은 매우 중요하며, 평상시 훈련을 통해 습득한 위기대처 능력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위기대처능력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관련 사법처리자 현황

구 분	직급	성명	검찰 송치	공소 제기	1심		2심		대법원	
					판결 일자	형량	판결 일자	형량	판결 일자	형량
방 화 범		김대한	3.4	3.21	'03. 8.6	무기징역	'03. 12.4	무기징역		(상고포기)
지하철공사 임·직원	안심기지 승무팀 (1080호)	차량 운영 6급	〇〇〇	"	"	금고 5년	"	금고 5년	'04. 4.16	금고 5년
	안심기지 승무팀 (1079호)	차량 운영 7급	〇〇〇	3.27	4.11	"	금고 4년	"	금고 4년	"
	중 합 사령팀	차량 3급	〇〇〇	3.4	3.21	"	금고 3년	"	금고 3년	"
		차량 4급	〇〇〇	"	"	"	금고 4년	"	금고 4년	"
		차량 4급	〇〇〇	"	"	"	금고 3년	"	금고 3년	"
		기계 3급	〇〇〇	"	"	금고1년6월 (집유 3년)	"	금고1년6월 (집유 3년)	"	금고1년6월 (집유 3년)
		기계 8급	〇〇〇	"	"	금고 2년 (집유 3년)	"	금고 2년 (집유 3년)	"	금고 2년 (집유 3년)
		반월당 관리역	역무 5급	〇〇〇	3.27	4.11	"	금고2년6월 (집유 3년)	"	금고2년6월 (집유 3년)
		사장	〇〇〇	7.29	4.23	'03. 7.29	징역 3년 벌금 5백만원	'03. 12.18	징역1년6월 벌금 3백만원	'04. 5.14
		시설 부장	〇〇〇	4.1	4.23	"	무죄	"	무죄	"

※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방화범 김대한(58세)은 '04. 8. 30(월) 09:10경 진주의료원에서 지병인 정신질환 및 뇌졸중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

2. 상황전파 및 협조체계 미흡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2월 18일 09:54:40경 중앙로역 화재사고를 최초로 접보한 후 09:59경부터 10:30경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119신고를 추가로 받았으나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 신고자들로부터 사고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으며, 지하철공사로부터 현장상황, 피난·대피경로, 비상시 출입문을 여는 방법과 대피방법 등을 알아내어 신고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이 같은 급박한 상황이 현장에 전파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상황전파 노력이 미흡하였다.

또한, 지하철공사 종합상황실에서도 사고현장에 두 대의 전동차가 정차해 있다는 사실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통보해 주지 않았고,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승객들이 전동차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갇혀 있는 사실을 현장 지휘본부에 알려주지 않는 등 부서간, 기관간 화재 상황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소방본부장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결정할 화재초기 30여분 동안 현장 상황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지 못해 현장지휘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사고와 관련있는 기관에서는 현장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되지 않아 신속하여야 할 정보교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였고, 유관기관 상호간의 무선채널도 달라 기관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第2節 地下鐵 施設未沿

1. 전동차 내장재

지하철 화재사고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전동차 불량 내장재로 인하여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연소시 발생한 맹독성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었다.

대구지하철 전동차 내장재는 불연성 난연재로 제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제작구매시 처음 제작되는 전동차에 대해서만 내장재의 난연성능 시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작사 ○○중공업(주)에서는 최초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없이 (주)○○항공정밀 등 전동차 내장재 생산업체 2개 회사에 하청을 주어 내장판과 단열재 등을 제작하였다.

하청업체에서는 난연성시험에 합격된 동일성분의 재료로 내장재를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된 것과 다른 재료로 내장재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불연성시험에는 별도 제작한 시편을 제출하여 통과하였다.

이와 같이 전동차를 제작한 업체의 도덕성 부재와 관리·감독기관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객차내부는 불에 타기 어려운 난연재가 아닌 불에 잘 타는 내장재로 제작되어 연소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아황산가스와 같은 유독성가스를 발생시키면서 연소하게 되었다.

취발유에 의해 발화된 화염은 착화되는 순간 불연재가 아닌 전동차 내부의 바닥 및 내장재, 의자, 광고판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미처 진화할 틈도 없이 객차내부로 빠르게 확산되어 모든 객차를 전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불량내장재로 확산된 강력한 연소열은 다량의 가연성 가스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전동차 내부를 고온으로 만들면서 터널내의 실내온도가 1000℃ 이상에 달해 이로 인한 강력한 복사열은 곧 이어서 도착한 1080호 전동차에도 전파되고 승강장의 안내판, 승강장 천장부분을 태우면서 연소가 확산되었다.

내장재 제작시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제작하였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

였더라면 화재확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제작구매 및 공사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2. 역사 소방설비

가. 배연설비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는 자체부력에 의해 상승하면서 개방된 개구부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므로 지하의 경우 연기의 유동경로와 피난방향이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연기는 강제로 다른 통로를 통하여 빠져나가도록 유도하여야 대피와 소화활동이 용이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의 경우 에어컨, 난방 등 공조설비가 배연시설과 겸용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시에는 급기구가 배연구로 전환되어 급기는 차단되고 배기구만 배연구 역할을 한다. 배연시설로 기능전환을 하더라도 한순간에 내뿜게 되는 유독가스를 완전하게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배연용량이 부족하여 발생한 연기가 계단을 통해 위층의 대합실로 이동하고 대합실을 거쳐 지상으로 부력에 의한 자연배출로 인하여 계단과 지상으로 통하는 대합실의 통로 등 피난로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피난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스프링클러

화재가 발생한 중앙로역의 지하 1·2층 사무실과 대합실에는 소방법에 규정된 간격으로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다. 스프링클러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가 모두 작동되었을 때 준비 작동식 밸브가 열려 헤드까지 소화수가 공급되고 화재로 인한 열로 헤드가 용융되면 소화수가 방사되는 방식으로 제작·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하 3층 승강장은 소방법에 규정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살수시 고압 전차선과 접촉우려 등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연소 확대방지 기능 외에 뜨거운 열기류를 냉각하는 효과도 있으며, 쏟아진 물로 형궤를 적셔 호흡에 도움을 줘 피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잇점도 있음을 감안하여 승강장에도 고압 전차선 접촉에 대한 안전조치 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비상유도등

지하천장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벽면에는 통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감지기 작동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어 피난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유도등은 2선식과 3선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로역은 3선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3선식은 평상시 소등되어 있어 승객들에게 피난경로 표시에 의한 안전교육 역할이 미흡하고 고장난 채로 방치되는 등 관리상태도 소홀하였으며, 유도등의 비상전원의 용량도 대부분 20여분에 불과하였다.

대형 화재시 발생한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조도가 떨어져 유도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화재확대로 열의 발생이 많아지면 유도등과 배선이 소손되어 점등을 유지하지 못한다.

지하철 역사는 심도가 깊고 피난동선이 길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지상으로 탈출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규정에 명시된 조도와 시간으로는 피난의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음성유도 방식뿐만 아니라 바닥 및 벽에 설치되는 점멸식 유도라인 등을 함께 설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무선통신망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역무원들이 기관사에게 직접 상황을 전달할 통신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기관사는 오직 종합사령실을 통해서만 모든 상황을 통보 받을 수 있었다. 전동차 운전실에 설치된 무선전화기는 기관사와 운전사령간의 통화만 가능하고, 다른 열차의 기관사 및 역무원들과는 통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당시 1080호 전동차가 대구역을 출발하기 전에 중앙로역 역무원이 사령실에 화재발생 보고를 하였지만, 1080호 기관사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운전사령의 전체호출을 통하여 통보받았다.

1080호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진입하면서 종합사령실에 통화시도를 하였지만, 종합사령실은 다른 열차와 통화하고 있어 통화하지 못하였고, 중앙로역에 정차한 후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다른 열차와 통화하느라 종합사령실과 기관사는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대피시간을 지연시켰다.

따라서, 긴급상황 발생시 기관사, 역무원, 사령실이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는 TRS방식의 무선통신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4. 전력 공급시스템

지하철 1호선 전력 공급시스템은 전동차 운행에 필요한 직류전원 공급시스템과 역사조명, 냉난방, 환기설비 운영 등에 필요한 교류전원 공급시스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교류전기를 지하철 각 변전소에서 직류 1,500볼트로 변환하여 전차선을 통하여 전동차에 공급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동차에 급전장애가 발생되면 고장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나 3회 자동으로 재급전이 시도되며, 재급전 도중 장애가 해소되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급전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1079호 전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지 4분후에 반월당~신천역 구간의 전차선 전기공급이 차단되어, 이 시간대에 중앙로역에 도착한 1080호 전동차는 승강장에 연기가 가득차 있어 바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전동차에 전기공급이 끊어져 출발하지 못하고, 자동재급전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종합사령실과 기관사는 계속 출발시도를 하다가 대피시기를 지연시켰다.

전원차단에 따른 비상전력 확보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 도입은

시스템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방화셔터

중앙로역 지하 1층 중앙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남북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건축도면상 설계되어 있지 않은 불법구조물이라는 의혹과 함께, 화재발생 당시 중앙지하상가 보호를 위해 지하 1층까지 연기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방화셔터를 내려 대피통로를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방화셔터는 화재 확산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제39조 제2항(방화구획)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5호(복도 또는 통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에 의거 설치한 것으로 중앙지하상가 관리주체인 대현실업에서 관리하고 있다.

방화셔터는 시공 및 건축설계 회사인 (주)시공테크(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설계한 것으로 설계당시에는 중앙로역 1층 만남의 광장 동서방향 방화셔터만 설계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남북방향으로 설치한 것으로 방화셔터 설치와 같은 경미한 설계변경은 준공신고시 일괄 신고하면 되고, 준공도면에 남북의 방화셔터를 표시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불법구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감지기는 열감지기로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소방설계회사인 SH엔지니어링(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최초 소방설계도면에도 동서방향으로 방화셔터와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었다.

지하철 화재사고로 지하철역 비상벨이 울릴 때 대현실업 전기실 근무자가 지하철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화재수신기를 정지상태에서 연동상태로 변환시켰고, 화재수신기가 연동상태로 변환되자 6번 출구에 설치된 연기감지기와 5번 출구에 설치된 연기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여 방화셔터가 작동되어 닫힌 것이며, 화재수신기의 기록이 조작 또는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第3節 地下鐵火災 特性

1. 송풍효과

지하층의 화재만으로도 우리의 소방능력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지하철에서의 화재는 지하철 역내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배기하는 공조 설비와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공기의 유동은 화재시 화염의 전파 및 확산을 급속화 시킨다. 이와 더불어 지하공간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한 연기는 외부로의 배출이 어려워 질식사예 의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해 발생한 고온의 기류는 일정 온도이상이 되면 불완전 연소된 가스를 재 연소시키게 되어 지하철 역사의 폐쇄공간은 고온의 용광로와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된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경우 1079호 전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진입해 온 1080호 전동차의 송풍효과에 의해 대형사고를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중앙로역에 정차한 1079호 전동차의 1번 객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반대편 방향인 대구역 쪽에서 진입해 온 1080호 전동차는 지하터널내의 공기를 화재가 발생한 1079호 전동차의 1번 객차에서 6번 객차방향으로 밀어내면서 화재의 급속한 전파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효과는 밀폐된 아궁이에 풍로로 공기를 공급하는 현상과 유사하다.

2. 대피 및 소방활동 애로

지하공간은 창이 없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산소공급의 불충분으로 불완전 연소가 되어 연기 및 일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많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 전원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배연설비 등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로의 자연배연도 불가능하여 지하내부로 연기가 확산되어 증만하게 된다.

또한, 창이 없어 정전시 주간에 암흑상태가 되기 때문에 피난방향과 피난통로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방향감각을 상실

하고,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에서 피난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피난속도가 느리고, 대피방향이 연기의 이동과 일치하여 대피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또한, 창으로부터 분출하는 화염과 연기 등의 상황은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소화 및 구조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되고 있으나 지하공간은 대부분 외부에서 볼 수 없고 창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소화 및 구조를 기대할 수 없다. 즉, 화재지점의 확인, 내부에 남은 사람의 파악, 화염과 연기의 확대상황 등의 모든 정보는 소방대가 지하내부로 진입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건물 화재의 경우에는 화재층 바로 아래에 소방대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그 곳에 상부방향으로 소화활동을 전개하는 전술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하화재의 경우 화염이나 연기는 위로 분출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은 화염이나 연기가 분출하는 계단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하 내부에서 진화중인 소방대와 지상에 있는 지휘대와의 무선연락이 곤란한 것도 소방활동 및 정보수집에 불리한 조건이 된다.

第2章

收拾過程 評價

第1節 火災鎮壓・救助活動 487

第2節 事故收拾對策本部 運營 491

第3節 被害 補償 業務 496

第4節 遺家族 支援 504

第2章 收拾過程 評價

第1節 火災鎮壓·救助活動

지하철 화재사고 발생시 화재현장에서 직접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실시하였던 소방공무원들과 일부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암흑의 공포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소방공무원들과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고 직후 화재진압 및 구조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에서 인명구조가 이루어 졌으며, 119 구급차와 각 의료기관에서 모여 든 앰블런스 차량들은 화재현장에서 실려 나오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현장 관계자의 통제없이 자기병원이나 인근병원으로 후송하기에 급급하여 사고대책본부나 현장지휘소에서 사상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1. 현장지휘체계 혼선

사고직후부터 화재 진압장비 및 사고 수습차량 등이 속속 현장에 집결하여 사고현장은 일시에 대 혼잡을 이루었으며, 현장상황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 취재기자, 유관기관, 시민들의 사고상황에 대한 문의까지 쇄도하여 119종합상황실 업무 및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을 가중시켰다.

특히, 교통통제 및 현장주변의 인력통제가 화재초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방, 군부대, 경찰,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통합 지휘체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역할분담이나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장지휘체계 혼선은 사고수습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화재 초기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중앙로역 주 출입구 대신 대구역 또는 반월당역에서 선로를 따라 진입하고 소방호스는 사고전동

차와 가까운 환기구를 통해 진입하는 등 다각적인 현장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따라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재난관련기관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제상황 발생시 재난수습능력을 배양하여야 하겠다.

2. 인명구조체계 미흡

화재당시 농연 및 유독가스와 열기가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배출됨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이 전동차가 있는 지하3층 승강장까지 진입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광범위한 지하공간에 대한 동시적인 인명구조활동이 요구되었으나 투입될 구조대원의 부족으로 화재발생 초기에는 농연이 많이 발생하는 출입구 등 가장 위험한 특정지점 또는 요구조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상 출입구에서 지하 승강장까지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구조대원들의 급격한 체력소모까지 문제가 되었다.

소방본부 산하에 6개 구조대 84명의 구조대원이 있었지만 화재발생 직후 10분 이내 투입된 구조대는 인근지역의 3개 구조대(북부·중부·서부) 뿐이 있으며, 나머지 구조대는 소방서별로 배치되어 10분이 경과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화재초기 대량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구조대원의 부족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응급의료체계의 경우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전담인력·장비의 부족과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이 곤란하였고, 현실적으로 중증도 분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응급처치나 경·중상자, 사망자 등의 분류없이 무조건 병원으로 이송되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사고현장 인근병원에 사상자들이 집중됨으로써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통신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무선망을 운영하고 있어, 무선망을 갖추고 있는 119구급차 이외의 일반병원 구급차량 등이 부상자를 어느 병원으로 후송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의료기관별 수용실태를 집계하는데 혼선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건소 및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인력·장비 동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와의 무선채널 공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응급의료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구조장비 부족

구조장비는 공기호흡기, 라이프라인, 연기투시기 등 10종 2,265점의 개인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현장상황 및 장시간 활동에 따라 공기호흡기의 용량과 예비용기가 부족하였으며, 연기투시기·라이프라인 등은 농연·고열속에서 성능상의 한계 등으로 구조활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특히, 일부 라이프라인의 경우 길이가 짧아 지하3층 승강장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인명구조 로프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각 소방서에서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현장까지 수송하기 위해서는 교통체증 등의 장애요인과 마주쳐야 했으며, 구조장비를 한꺼번에 지하3층 승강장까지 선로를 통해 신속히 이송하는데 필요한 레일이송장치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하 심층부로 구조장비를 효과적으로 이송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그리고 화재초기 및 최성기에는 지하화재에 적합한 구조장비가 다른 기관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거의 없어 지하 심층부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고 나서야 수습활동에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펌프차와 같이 3,000리터 정도의 소방용수와 호스·관창을 적재

한 궤도용 소방 전동차량을 개발·보급하고, 소방력기준 개정을 통한 구조대원의 증원방안과 지하 침층부 및 특수 화재사고에 효용도가 높은 구조장비를 확충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제도적 보완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건축법은 대부분 지상 건축물 위주로 제도화되어 있고 지하 건축물의 재난예방을 위한 기준, 특히 지하철 역사와 같이 지하공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들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역사의 경우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방안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전동차·열차 등 궤도용 차량과 선박·항공기 등 동체의 경우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개별법상의 소방안전기준이 있으나 추상적이고 규제효과도 낮아 소방법상의 규제기준 마련과 전동차량 실내설비에 대한 불연·무독성재료 사용 의무화 및 성능검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관계자의 이용객에 대한 비상구 고지, 대피유도 및 소화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동차내에 설치된 불박이창(강화유리)으로 인해 고열·유독가스의 배출이 어려웠고, 파괴 등에 의한 탈출로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괴 기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등 소방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第2節 事故收拾對策本部 運營

1. 사고현장 관리

사고 초기 사고현장 관리가 미흡하여 대구시가 유가족들로부터 불신을 받음에 따라 상당기간 사고수습에 진통을 겪는 원인이 되었다.

2월 18일 사고 당일 20:3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범의감정팀 및 물리분석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면서부터 검찰지휘로 1차 합동 현장감식(검찰 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2명, 경찰 12명)이 이루어졌다.

당시 사고현장은 전동차 2대가 나란히 소실된 상태로 천장과 벽에서 떨어져 내린 전선 및 환기통 등 시설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승강장 바닥에는 철골물, 각종 부스러기 등 잔재물이 20~50cm 정도 쌓여있는 곳도 있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열기가 빠지지 않아 후끈거리고 잿가루 등 분진이 상당히 많아 공기가 몹시 매캐한 상태였으며, 스탠드형 조명등 5~6개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어 큰 물체는 식별이 가능하였으나, 보행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기도 어려운 정도여서 손전등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은 비추어 보는 정도였다.

당시 현장을 둘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범의감정팀은 위와 같은 조명상태와 현장상황 하에서는 원활한 사체수습 및 감식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물리분석팀 또한 사고 전동차가 현장에 없더라도 화재원인 및 발화점 등을 분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의 수사지휘검사는 1차 합동 현장감식을 마친 범의감정팀 및 물리분석팀의 의견을 토대로 대구시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전동차 내부의 사체수습과 감식을 위하여 사고 전동차를 월배차량기지로 이동함과 동시에 사고현장에 대한 2차 현장감식을 실시하도록 지휘하였다. 그리하여 사고 당일 22:00경 1080호 전동차의 견인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날인 2월 19일 01:00경에는 1079호 전동차의 견인이 마무리되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사고 전동차의 견인이 진행될 무렵, 지하 3층 사고현장에서 이를 함께 지켜보고 있던 대구시장으로부터 사고현장에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있을지도 모르니 사고현장을 수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중부경찰서장에게 사고현장에 대한 수색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전동차 견인 직후인 2월 19일 01:00경 기동대원 23명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을 수색하였고, 중부경찰서에서도 소속 경찰 1개 중대 100여명을 동원하여 지하 3층 사고현장 선로와 승강장을 추가 수색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체나 유류품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2월 19일 09:00경부터 수사지휘검사는 월배차량기지로 이동된 1079호, 1080호 전동차내 유골의 상태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감정팀의 유골감식 방안에 대하여 직접 지휘하였고, 09:00경부터 11:30경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팀과 경찰이 합동으로 중앙로역 화재현장에 대한 발화점, 발화원인 및 확산경로 등에 관한 현장검증 및 감식을 실시하였다.

한편, 지하철공사사장은 사고 당일 대구시장에게 지하철공사에서는 중앙로역 시설복구를 전담하고, 대구시에서는 피해자 보상문제 등 사고수습을 전담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건의하였고, 대구시장이 건의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하철 운행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신속한 현장복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육군 ○○사단에서 언제라도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병력을 지원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고 전동차가 월배차량기지로 이동되면서 사고현장에 대한 2차례의 대대적인 수색 및 합동 현장감식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9일 11:30경부터 지하철공사에서는 안전진단팀을 투입하여 중앙로역 지하 3층 사고현장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13:00경부터 17:00까지는 작업준비팀(20여명)은 육군 ○○사단 소속 병력 200여명을 지원받아 사고 현장에 대한 잔재물 정리 및 수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잔재물은 마대포대에 담아 안심차량기지 야적

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2월 23일 02:00경 일부 실종자 가족이 중앙로역 지하 3층 사고현장에서 손가락마디 크기의 뼈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 5~6개와 유류품으로 보이는 안경테, 신발, 손수건 등을 발견함에 따라 유가족들의 사고 현장에 대한 재감식 요구가 거세지고, 언론기관에서도 잔재물 수거작업을 문제삼기 시작하자, 수사본부에서는 2월 24일 지하 3층 선로 부분에 대한 재감식을 실시하여 일부 유류품 등을 발견하였고, 2월 25일 안심차량기지에 보관하고 있던 사고현장 잔재물에 대한 대대적인 재감식에서도 뼈조각 등 시신편 14점과 안경, 모자 등 유류품 169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은 “대구시 및 지하철공사가 증거인멸을 위해 서둘러 청소한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하였고, 현장훼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책임 논란이 일어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어 지하철공사사장과 대구시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¹⁾

이로 인해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던 대구시가 상당기간 실종자 가족 등 유가족들로부터 불신을 받음에 따라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로 인해 사고수습을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하철 화재사고의 수습과정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사고수습을 책임진 기관이 피해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다는 점이다. 현장감식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현장훼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현장에 대한 잔재물 정리 및 수거작업은 서둘러 하지 말았어야 했었다. 사고 초기부터 현장보전 등 사고수습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 실종자 가족 등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더라면 사고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1) 수사결과 대구시장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지하철공사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증거인멸죄는 무죄로 확정되었다.

2. 수습체계와 의사결정과정

사고 당시 대구시재난관리규정(훈령)에 따라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사고 당사자의 위치에 있는 대구시 공무원들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대구시에서는 사고대책본부만을 구성하여 각 반별 수습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장, 부시장, 관련국장 등이 의사를 결정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신공격과 무리한 요구사항은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강압에 못이겨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반복하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는 불신을 받고 시민들로부터는 신뢰를 잃게 되었다.

대구시가 사고 수습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외부인사들을 위촉하여 중립적인 위원회를 운영하였더라면 사고대책본부의 각 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토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수습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당사자간의 현격한 의견차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고를 원만히 수습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문변호사들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사고대책본부의 주요 대책회의에 참여시키고, 일부 고문변호사들을 협상대표로 선임하여 피해자 대표들과의 각종 협상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3. 직원의 근무체제

대구시재난관리규정에 의하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시 설치하는 사고대책본

부에는 업무기능별로 상황반, 부상자반, 유족반 등의 실무반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각 실무반의 반장과 반원은 현 직제를 기준으로 사전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하철 화재사고시 대책본부는 반장이나 반원 모두 각 부서에서 차출되어 온 직원들이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소속감이나 책임감 결여될 수밖에 없었고, 사고초기 사고대책본부의 근무체제를 3교대 근무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지하철 화재사고의 경우 실종신고자가 619명에 이르고, 고도로 탄화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이 많이 발생한 특수한 사고였으며, 이로 인해 사고수습 초기과정에서부터 실종자 확인, 사망자 신원확인, 시신인도 및 장례 등과 관련하여 실종자 가족 등 유가족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고수습이 장기화되어 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직후부터 4월말까지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일률적으로 반별 3개조로 편성하여 3교대 근무토록 함으로써 근무자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계 인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유가족 등 피해자측과의 마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대형사고의 경우 초기에는 많은 수습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각 반별 필수요원을 상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부가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교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第3節 被害 補償 業務

1. 손해사정 실태

통상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인적·물적인 피해보상은 국가배상법, 판례 등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피해가족 대표단과 협의에 의거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여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하철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선례에 따라 피해자 대표와 합의하여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손해사정인을 선정하여 피해자의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인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손해사정인은 업무영역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인(화재보험, 특종보험 손해사정), 제2종 손해사정인(해상보험 손해사정), 제3종 대인손해사정인(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제3종 대물손해사정인(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등으로 구분되어 지며,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인(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수행)과 독립손해사정인(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으로 구분되어 진다.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79조(보수)의 업무영역별(1. 2, 3종) 손해사정보수표에 의해 산정된 손해사정 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3종 대인손해사정 보수표

손해사정 금액	요율	누진가산세
1,000만원 이하	7%	0
1,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	6.75%	25,000원
3,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6.5%	100,000원
5,0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	6.25%	225,000원
7,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	400,000원
1억원 초과	5.75%	650,000원

※ 손해사정보수 산정예시 : 손해사정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2,000\text{만원} \times 6.75\% + 25,000\text{원} = 1,375,000\text{원}$

지금까지 대형사고 발생시는 물론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합의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보상금 산정을 제3종(자동차 대인·대물) 독립손해사정인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타 사고시에는 사고수습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단독의 손해사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였으나, 이번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추천한 손해사정인이 개인별 손해사정액을 평가하고, 이를 사고수습기관이 선정한 손해사정인이 검증하도록 합의(2003. 3. 31)함에 따라 복수의 손해사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였다.

손해사정인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에서 승인한 제3종 대인손해사정 보수규정이 있지만 이는 자동차 사고와 같은 소규모 손해사정에 적합한 수수료 규정이며, 대형사고와 같이 손해사정 규모가 큰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요율이 높아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수습기관과 손해사정인이 협의하여 손해사정금액을 감안하여 적정한 요율로 약정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사정수수료는 타사고 사례(2~3%)를 참고하고 손해사정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2. 손해사정의 문제점

가. 손해사정업체 난립

사고초기 손해사정인들이 손해사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지난친 경쟁양상을 보임으로써 손해보상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특히, 일부 손해사정인들은 유가족을 상대로 법과 판례에도 없는 ‘신할인계수’라는 새로운 이자공제 방식을 제기하였으며, 수수료도 보상금 총결정액의 5.75%~7.0%를 대구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상기준 결정을 위한 유가족 대표와의 협상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가족단체가 2개 단체(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연합회)로 분리되면서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 37명이 당초의 손해사정 위임을 철회하고, 유가족연합회가 선정한 손해사정업체에 위임하자 희생자대책위원회측 손해사정업체에서는 위임을 철회한 유가족들의 보상금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이들 업체에 대한 대구시의 중재로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유가족들은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

나. 손해사정수수료 부담 가중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 부상자, 물적피해자 등 각 대책반별 손해사정인 계약 현황을 보면 총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수수료율은 0.8%~4.6%수준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총 손해사정액은 검증액 기준으로 64,332,669천원인데 비해 수수료 지출액은 2,881,070천원으로서 평균 4.5%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대책반별로 손해사정인을 복수로 선임하여 평가수수료와 검증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한 데 기인한 것이며, 일부 수수료율이 타 사고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손해사정인 선정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손해사정인		계약기간	손 해 사정액	수수료율 (%)	수수료
			상 호	대 표				
사 망 자	평 독		한 백 손 해 사 정 법 인	안 방 옥	7.18~9.23	26,787,647	2.85	763,448
			평 화손해사정사무소	한 원 수	"	108,892	"	3,103
			이동수손해사정사무소	이 동 수	"	10,959,683	"	312,351
	가 중 복		한 백 손 해 사 정 법 인	안 방 옥	"	2,401,132	"	68,432
			평 화손해사정사무소	한 원 수	"		"	
			한 백 손 해 사 정 법 인	안 방 옥	"	5,791,187	"	165,049
	검증		천마손해사정사무소	이 천 성	5.30~9.6	46,475,436	1.48	756,620
부 상 자	평가		영남손해사정사무소	박 삼 수	3.31~4.29	12,836,119	3.5	501,714
			한 백 손 해 사 정 법 인	안 방 옥	8.27~11.7	518,717	"	19,971
	검증		효성자동차손해사정사무소	이 연 우	3.31~4.29	13,376,852	1.46~4.6	78,614
물 적 피 해	평가		계			4,476,481	3.5	172,344
			대구손해사정사무소	권 영 민	3.4~3.23		"	86,172
			평 화손해사정사무소	한 원 수	"		"	86,172
	검증		계			4,480,381	0.8	39,424
			대구동아손해사정사무소	박 칠 근	7.9~7.18		"	13,141
			공정손해사정사무소	나 상 수	"		"	13,142
			필 립 손 해 사 정 (주)	박 성 원	"		"	13,141

다. 보상액 산정기준 미흡

피해보상액 산정은 복수의 손해사정인에 의해 평가와 검증을 거쳤지만 일부 손해사정인의 자의적인 판단과 손해사정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자가족들의 강력한 주장에 이끌려 법원의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준에 의해 손해사정이 이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았다.

부상자의 경우 향후치료비, 간병료, 휴업손해, 정신과장해, 취업가능년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물적피해 보상의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보상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사정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직접피해와 관련이 없는 간접 영업손실 부문을 포함하여 손해사정을 함으로써 재사정을 하게 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피해자 보상기준과 법원의 판례 비교

구 분		합의된 보상기준 (손해사정 기준)	법원의 판례
사망자	위 자 료	20세이상 60세미만 : 75백만원 20세미만 60세이상 : 65백만원	5천만원
부상자	위 자 료	사망자 위자료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지급	사망자 위자료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지급
“	향후치료비	의사가 진단한 추정 신체감정서에 의해 6월 내지 1년 인정	입원, 통원, 자가요양(투약) 등 구체적인 구분에 의해 인정
“	간 병 료	노동능력상실률 15.45%이하 : 90일 노동능력상실률 17.35%이상 : 181일	입원일수에 따라 산정
“	휴 업 손 해	월수입액 또는 월평균임금을 적용 사고일부터 1년간 인정	입원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 일일수입에 가산
“	정신과장해	정신과 신체감정에서 모든 부상자에 대해 ‘경미’이상의 장해 인정	‘경미’의 정신과 장해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됨
“	취업가능 년수(정년)	60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55세이상 59세미만은 5년 59세이상 65세미만은 4년 65세이상은 3년을 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 까지로 인정

라. 보상추진체계 미흡

사고대책본부내에 사망자대책반, 부상자대책반, 물적피해대책반을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각 대책반별로 별도로 선임된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손해사정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부상자의 경우에는 취업가능년수, 일실수입금, 일실퇴직금 등 연관성 있는 기준이 다르게 산정되기도 하는 등 보상업무 추진체계가 미흡하였다.

3. 개선방향

가. 손해사정인 선임

첫째, 대형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금 산정업무는 자동차 대인·대물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손해사정인 보다는 민사상 손해보상의 전문가인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손해사정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수료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립손해사정인에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사고수습 주체는 법원의 판례에 따른 보상원칙을 명확히 정하여 피해자와 먼저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손해사정인을 선정하되 손해사정인을 단일화하여 복수선정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지하철 화재사고 같은 대형사고 관련 손해사정 수수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선례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손해사정금액 규모를 감안하여 낮게 책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나. 보상업무 전담부서

사망자와 부상자의 경우 위자료, 취업가능년수, 일실수입금, 일실퇴직금 등 손해사정 기준의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망자·부상자·물적피해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보상원칙 및 기준적용 등과 관련한 혼선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손해사정 관련 규정

1) 호프만계수의 군복무 공제기간 재조정

현행 국가배상법시행령은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 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 계수를 남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와 취업가능기간을 0년 0월(0세)에서 59년 11월(60세)까지 동일하다.

0년 0월에서 20년 0월까지 여자의 경우 취업가능 최고 기간을 480월(만20세~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0년 0월에서 23년 0월까지 남자는 취업가능 최고기간을 군복무 36월을 감안한 444월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에는 23년 0월 이전과 23년 0월 이후 사망자의 취업가능 월수는 호프만 계수에 의한 취업가능 월수와 실제 생존시의 취업가능 월수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실제 금번 사고로 23년 0월 이전 사망자로서 군복무를 필한 사망자는 4명으로 사망일로부터 59년 11월까지 취업가능 월수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11개월까지 차이가 나 일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군복무 공제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실제 취업가능월수가 남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되 과잉배상이 되지 않도록 호프만 계수의 재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월 기초수입액 산정기준

대학생 사망자의 경우 교대생, 사범대 특기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 후 초·중등교사로 재직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직종의 정년까지 기초수입액을 산정·결정하고, 졸업예정자 중 취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자는 월정급여를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 기초수입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기타 일반 인문사회학과의 대학생 또는 입학생은 재학중 학업성적, 학내·외 활동상황 등을 떠나서 특정한 기술이나 기능 또는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학력에 따른 산업체 근로자 초임을 적용함으로써 전공 학과별 사정금액의 차이가 심해 보상금액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일반 인문사회학과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은 재학시의 학업 성취도, 학내 활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취입이 보장된 학과출신의 학생들과 손해사정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第4節 遺家族 支援

1. 장례지원

대량재해에서는 구난, 의료, 장례 및 행정절차 등 급박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초기 수습단계에서 요구되는 생존자 탐색 및 구난, 환자수송 및 응급처치 등에는 처리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망자 관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칙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상황에서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사고수습의 중요한 열쇠인 유족과의 협상능력 부재로 이어져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였다.

대구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으로부터 사망자의 신원확인하고 함께 시신이 인도되어 개별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에 대해 사망자별 장례지원반을 편성하여 시신인도 일자의 확정과 동시에 장례지원 담당공무원이 유가족들과 장례일자, 매장 또는 화장 등 장례의 유형, 수의, 관의 형태 등 장례절차 전반에 대해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장례 당일에는 담당공무원이 장지까지 동행하여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장례지원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사전 면담시 높은 열과 연기 등으로 변형된 시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입관을 위한 관을 모두 일반관으로 주문토록 하는 등 화재사고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조사로 장례당일 일부 변형된 시신이 일반관에 입관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 긴급히 특수관을 제작하여 장례를 치르기도 하는 등 장례 지원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인도될 시신의 변형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대구시와 신원확인을 담

당한 집단사망자관리단과의 인도되는 시신별 특징에 대한 정보공유 등 사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서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린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금융지원

대구시에서는 사고발생후 긴급히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마련하여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된 피해업체와 상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피해시설의 복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피해지역의 범위 선정이다. 사고지역내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업체나 점포에 대한 대구시 정책자금 지원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사고로 인한 인근지역의 간접적인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기준이 애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집단적인 항의 및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구시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추천 후 대출에 따른 이자보전과 피해자의 무이자 대출 요구이다. 대구시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 자금으로 희망하는 피해업체·점포들이 은행의 대출금리 4.5%를 적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리에서 대구시에서 4%의 이자를 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0.5%의 이자도 무이자로 요구하고 있다

셋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피해가족들의 가계생활안정자금의 무담보·무이자 요구이다. 신용보증기금 및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을 하고 있으나, 피해가족들의 금융기관 대출상당시 신용불량 또는 담보능력이 없을 경우 신용보증서 발급을 기피하고 실정이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요구하거나, 담보력이 있어야 가계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지원대책에 대한 불평과 항의가 이어졌다.

넷째, 사망자·실종자들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및 카드발급·사용정지 요청 시 사망자는 조회 및 정지 요청이 가능하지만, 실종자에 대해서는 인정사망 판정시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불가능하여 금융거래 조회와 카드발급 및 사용정지 요청에 대한 확인에도 한계가 있었다.

3. 자원봉사활동

각급 자원봉사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의 물결은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도 훈훈한 인정을 느끼게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상 최대의 자원봉사활동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장기간 동안 24시간 지원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봉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수준 높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대구시 등 관계기관의 자원봉사 요청에 의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각 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봉사장소와 내용을 정하여 활동하였으며, 지하철 화재사고가 지하공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유가족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지원, 생필품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지하철 화재사고 이튿날 시민회관 소강당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되고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면서 기업체 자원봉사단을 비롯하여 많은 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회관 주변에 회사명과 단체명칭이 적혀

있는 천막과 현수막(플래카드)을 앞다투어 설치하였으나, 초기에는 이를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배치하는 전담팀 구성 등의 지원체계가 뒤따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각 봉사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봉사활동 내용이 정해짐으로 인하여 일부 영역의 경우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못하는 등 무질서한 면이 없지 않았다. 개인봉사자의 봉사활동 신청이 한꺼번에 쇄도하였을 때, 자원봉사 희망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하는데 차질이 생겨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각종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기업,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난·재해 긴급 자원봉사 지원시스템 구축과 자원봉사관련 유관 기관·단체간의 상호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며,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배치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문 구조구급요원, 부상자 관리를 위한 간병인 등 전문 분야별로 자원봉사 유경험자를 발굴하여 관리·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第3章 地下鐵 安全對策 講究

第1節 都市鐵道 綜合安全對策 推進 …… 511

第2節 大邱地下鐵 安全對策 推進 …… 516

第3章 地下鐵 安全對策 講究

第1節 都市鐵道 綜合安全對策 推進

1. 추진경위

건설교통부에서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학교수, 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 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철도청, 소방서, 자문위원 등 26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하철 안전기획단」을 구성하여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였다.

지하철안전기획단에서는 도시철도 안전실태 조사, 지하철 운영기관의 안전 및 방재현황 조사, 지하철 내장재 시편 샘플링 및 화재시험, 일본 및 영국 등 국내·외의 화재·안전 방재전문가 초빙 자문, 지하철역사 스모그 화재시험 등과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6월 25일 공청회를 거쳐 38개 중장기 개선과제로 구성된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필요한 법령정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건설교통부장관의 「안전시설개선명령」으로 동 대책을 추진토록 2003년 9월 4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 9월부터 “도시철도안전대책 추진팀”을 신설하여 추진상황을 특별관리 중에 있다.

2.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지하철을 만들기 위하여 향후 5년 이내 사고발생률을 30% 감축하고, 주행거리 1백만km당 차량·화재·설비사고 발생건수를 0.3건에서 0.2건으로 낮추며, 차량·설비·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제로화 한다는 목표아래 수립된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에 1,468억원을 투입하였고, 2004년도에 2,068억원을 투입하는 등 2007년까지 총 1조 654억원을 투입하여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개선과제 및 소요예산

분 야	개선과제	소 요 예 산(억원)		추진일정
		2004예산	총예산 (국고/지방비)	
계	38개	1,659	10,654 (2,275/8,379)	'03~'07
차 량 개 선	9개	1,659	6,806 (2,265/4,541)	'03~'07
시 설 개 선	16개	-	3,748 (0/3,748)	'04~'07
인적·제도 개선	13개	-	100 (10/90)	'03~'04

주요 개선과제는 차량안전기준 강화 및 기존장비 개선을 위한 전동차 내장재 시험기준 강화, 열차방호장치, 다자간 통화 무선통신망 도입 등 9개 과제와 지하철역사·터널 안전기준 마련 및 기존시설 개선 16개 과제, 기관사 면허제, 사령실 통합운영, 종합안전심사제, 비상대응매뉴얼 등 인적·제도 개선 1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3년 9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안전시설개선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철 안전기준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 및 신규 차량과 시설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지하철 안전기준 강화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차 량 안전 기준 개 선 내 容	내 장 재	연소성 시험(불연·난연재) 구체적 시험방법 제시 없음	연소가스 독성, 연기밀도, 화염 전파시험 추가, 시험방법 제시
	소 화 기	객실내 1개이상 비치 의무화	객실내 2개이상 비치 의무화
	무 선 통 신	성능규정 없음	기관사와 기관사 등 다자간 비상 통화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설치
	운전실내 승강장 감시모니터	규정 없음(8호선만 설치)	설치 의무화
	승객용 비상통화장치	규정 미흡 (인터폰 39%, 비상벨 61%)	양방향 인터폰 설치 의무화
	출입문 수동개방장치	설치위치 규정 없음 (일부는 선반 위에 설치)	설치위치 제시 (접근이 쉬운 출입문 옆, 의자 밑)

구 분		종 전	변 경
차량분야	안내표지(소화기 등)	부착위치나 재질 규정 없음	재질은 야광으로 통일, 부착위치는 발견이 쉬운 장소로 제한
	비상제동장치	규정 없음	사고 발생시 인근의 운행열차를 자동 정지시키는 시스템 구축
시설분야	승강장 추락방지시설	규정 없음(권고 사항)	설치 의무화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 설치)
	지하터널내 피난·소화설비	규정 없음	설치 의무화 (비상조명등, 소화용 연결송수관)
	유독가스 배출설비	성능 규정 없음	승객 대피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유독가스 배출(지능형 설비), 고온가스에 대비, 250℃에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재질 사용
	제연경계벽	규정 없음	설치 의무화
	승강장 비상인터폰	규정 없음	설치 의무화
	직통피난계단	규정 없음	설치 의무화(지하 3층 이하)
	유도등, 비상조명등	성능규정 없음(20분 지속)	정전시 지속시간 1시간 이상 유도등 조도는 5룩스 이상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성능규정 없음(지속시간 20분)	상수도과 연결 (지속시간 무한대, 정전시에도 작동)

가. 전동차 내장재 교체

전동차 내장재는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으로 교체에 있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내장재는 불에 잘 타지 않고 연소가스의 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도록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등 금속성 재질의 내장재로 계약을 체결했고, 서울 5호선 1량에 스테인레스 의자가 시범 설치되어 있으며, 2005년

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으로 있다.

철도청(2003년 11월 26일)과 대구지하철공사(2004년 2월 12일)에서는 실제 전동차에 신나 4리터를 연소시키는 화재시연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내장재의 불연성을 입증한 바 있다.

나. 승강장 안전설비

안전펜스는 2004년에 혼잡역사, 환승역 등 위험도가 높은 154개 승강장에 우선 설치한다. 나머지 285개 승강장에도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스크린도어 시설은 2004년 4월에 개통된 광주 1호선 2개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지하철 신길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고, 앞으로 건설되는 서울 9호선 37개역, 부산 3호선 17개역, 대구 2호선 2개역, 대전 1호선 3개역, 인천국제 공항철도 10개역 등 71개 신규역사에 도입된다.

이와 함께, 승강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익요원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향후 운전실내 승강장 감시 모니터, 곡선 승강장 실족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기타 시설 및 차량 개선

지하터널에 비상조명등과 소화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지하 3층을 넘는 신규역사에는 직통 피난계단을 설계하고 있다. 화재발생장소에 따라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조절하여 승객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지능형 제연설비와 연기확산을 지연하는 제연경계벽도 설치하고 있다.

정전시에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의 소화용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에 소화전을 직결하고 있으며,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의 지속시간을 20분에서 1시간으로 상향 조정중이다.

차량내 소화기를 종전 1개에서 2개이상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 및 출입문 비상개방탈출 등 승객탈출시 필요한 안내표지를 축광식으로 개선 완료하였다.

사고발생시 사고지점 인근 열차의 비상제동시스템과 비상시 다자간(多者

間) 통화가 자유로운 디지털 무선통신망(TRS)을 구축중에 있으며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승객용 비상인터폰을 전동차와 승강장에 설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각장애인 대피를 위한 점멸 유도등, 노약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설치 중에 있다.

라. 직원 및 승객의 위기대처능력 강화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기관사면허제 도입, 운전사령 자격기준 강화, 적성·신체검사,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철도안전법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는 철도안전종합계획, 종합안전심사제, 비상대응계획, 경찰·소방·군부대와의 합동 모의훈련에 대한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인화물, 폭발물 등 열차내로 위험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승객 금지행위 조항과 이에 대한 벌칙조항도 규정되어 있다.

각 운영기관은 화재, 독가스 살포 등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사고 이후 시민 체험훈련 및 민·관·군 합동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다. 또한, 승객들에게 전동차·역내방송 등을 통해 전동차 출입문 수동개방 등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第2節 大邱地下鐵 安全對策 推進

1. 추진계획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 이후 자체 및 외부전문가 점검, 건설교통부 종합 안전점검, 감사원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에 의거 지하철 종합안전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03. 2. 19~5. 13 : 자체 및 외부전문가 점검(자체 18회, 외부 16회)
- '03. 3. 19~3. 25 : 건설교통부 종합안전점검
- '03. 4. 28~5. 10 : 감사원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감사
- '03. 9. 4 : 건설교통부 도시철도안전대책 시달
- '03. 9. 22 : 감사원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시달
- '03. 10. 25 : 대구지하철 종합안전개선대책 추진계획 수립

종합안전개선대책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계	연 도 별 추 진 계 획				
		'03	'04	'05	'06	'07
계	75건	45건	16건	1건	5건	8건
	66,005	6,079	15,377	11,065	7,000	26,484
시 설 개 선	21건	9건	4건	-	4건	4건
	17,511	181	3,200	-	5,930	8,200
전 기 통 신 개 선	29건	16건	8건	1건	-	4건
	20,405	938	1,392	661	100	17,314
차 량 개 선	9건	5건	3건	-	1건	-
	26,959	4,674	10,061	10,284	970	970
인 적 제 도 개 선	16건	15건	1건	-	-	-
	1,130	286	724	120	-	-

2. 주요내용

가. 기존 운영시설 개선

1) 차량내장재 교체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개정 전에는 전동차 내장재는 불연 및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허용 기준 미비로 발주처의 제작사양에 의하여 KS 기준의 연소성 시험 평가기준으로 내장판·단열재는 BS, 의자 커버지는 JIS E 2150, 의자 쿠션재는 FMV SS 302, 통로연결막은 KS M 0580, 바닥재는 NFPA 130 등이었으나, 강화된 시험 기준에는 산소지수, 화염전파, 연기밀도, 독성지수가 추가되고, 통과수준은 선진국의 기준을 준용토록 하였다.

전동차 내장재 시험안전기준

구 분		산소지수 ISO 4589-2	화염전파 ISO 5658-2			연기밀도 ASTM E 662			독성 BS 6853 Annex B.2
		LOI	Qsb (MJ/m ²)	CFE (kW/m ²)	qp (kW)	Ds (1.5min)	Ds (4min)	Ds (max)	R (독성지수)
내장판		≥40	≥1.5	≥20	≤4	≤50	≤100	≤200	≤1.6
의 자	커버	28	-	-	-	100	200	-	2.0
	쿠션	28	-	-	-	100	175	-	3.2
	몸체	32	-	-	-	100	200	-	2.0
통로연결막		28	1.0	10	6	100	200	-	2.7
바닥재		28	0.25	7	10	100	200	-	5.0
단열재		40	-	-	-	-	100	-	1.6

※ LOI : Limited Oxygen Index

Qsb : Heat for sustained burning

CFE : 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q : Peak heat release rate

Ds : Density of Smoke

2) 전동차 객실 통신시스템 개선

객실내 승객과 기관사 및 사령실간 통신수단중 비상벨은 경보음만 발령하는 한계가 있고 인터폰 또한 성능이 낮은 것은 물론, 승객의 이용방법 숙지도 미흡하였다. 비상벨과 인터폰 설치위치도 객실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185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 접근성도 좋지 않았다.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전동차 바닥면 기준 1.4~1.5m 정도의 높이로 통로문 측벽에 각 1개씩, 2개의 Hand Microphone이 장착된 비상인터폰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승객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도 대폭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기관사와 통화 불능시에는 종합사령실로 자동전환이 되도록 하되, 그 시간도 최대 10초이내로 설정토록 하였다.

3) 전동차 안내방송 등 대시민 안전대책 홍보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소화기 사용법 등 긴급사태 대응요령을 녹음 또는 육성으로 방송하고 있으나, 동영상 장치가 미비하고 일관적인 교육방법 부재, 질 낮은 방송품질 등으로 교육효과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전동차 방송장치에서 시행되는 방송종류별 우선순위 지정과 열차방송장치 조작반 및 신호연계장치 설치, 사령실내 열차방송장치 조작반 설치, 홍보방송의 자동방송화 편집 등 안내 홍보기능을 강화하였다.

4) 수동식 소화기 증설 및 유지보수 방안 개선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 객실과 운전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차량내에는 수동식 소화기(ABC급 4.5kg)가 통로문 측면에 각 1개씩, 차량당 2개 설치하고 있으나, 소화기 설치위치 안내명판이 축광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정전 및 화재 발생시 농연으로 인하여 소화기 설치 위치 식별이 곤란하였다.

또한, 소화기 보관함의 경우에도 커버가 없는 개방형, 비닐카바식, 윈터치버턴식, 미닫이식 등 다양한 형태로 통일되지 않아 유사시 소화기 이용의 혼

란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차 1량당 2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유사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동차 검사기준에 소화기 비치·점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화기 안내명판을 축광식으로 제작하며, 소화기 보관함 형태를 통일(보관함 커버 철거)하고, 충전압력계가 달린 성능이 우수한 ABC급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였다.

5) 수동개방장치 설치위치 및 안내·위치표지판 개선

지금까지 전동차 제작시에는 수동개방장치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외부 수동개방장치는 승강장에서 조작이 곤란하고, 내부 수동개방장치도 위치가 높아 조작이 불편했으며, 안내표지판도 비상시 전등이 꺼진 상황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하여 사고발생시 안내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안내표지판은 출입구 측벽 120~160cm의 높이로 부착하되 출입문 수동개방장치 커버에 위치표지를 부착하고 수동개방장치의 경우 외부개방장치는 레일상면 126~150cm 사이 외측벽에 설치하고, 내부개방장치는 승객 의자 밑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6) 긴급상황시 승객구조를 위한 직원용 응급장비 비치

인명구조 등을 위한 직원용 구조장비 비치가 미흡함에 따라 비상시 승객 구조장비로 지하역사 역무실에는 공기흡입기, 메가폰, 손전등 각 2개 이상, 들것 1개 이상, 방독면은 일일 근무자수 이상을 비치하고, 전동차내 운전실에도 공기흡입기, 메가폰, 손전등, 방독면, 들것을 각 1개 이상 비치토록 하여 승객구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지하철2호선 설비 보완

1) 전동차 제작

지하철2호선에 투입될 전동차 168량(6량×28개 편성)은 국제입찰(조달청)을 통하여 2001년 12월 6일 (주)로템과 구매계약을(금액 147,090백만원) 체결하여 제작중에 있으며, 제작검정은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전동차는 1호선 전동차와 비교할 때 제작절차 및 제원은 비슷하나 1호선 전동차의 열차제어방식이 지상속도 코드방식(Speed step)인데 반해 2호선 전동차는 차상거리 연산제어방식(Distance to go)을 도입함으로써 열차운행시 선로로부터 수신되는 구배, 곡선, 정차지점, 제한속도, 선행열차 위치, 비상정지 등 각종 선로운전 제한정보를 운행차량에서 수신·검출하여 실제속도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 및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2호선 전동차의 내장재 검사 및 시험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내장재의 재질 등 전동차 규격서 등을 정할 때는 영국 등 외국기준을 조사한 후 그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크게 강화하였다.

전동차 화재안전 설비 보강

품 명	당초사양		개선적용		추가비용 (백만원)
	재 질	시험규격	재 질	시험규격	
내 장 판	페놀계하니컴	BS6853 (영국규격)	당초규격	-	-
단 열 재	글라스 울	NFPA (미국규격)	당초규격	-	-
바 닥 판	염화비닐	KS	합성고무	BS6853 (영국 규격)	622
의 자	P·E모켓 + P·U폼	JIS(일본규격) FMVSS(미국 자동차규격)	P·E모켓 + 안티반달쿠션	BS(영국규격) NFPA (미국규격)	2,755
통로연결막	염화비닐	KS	합성고무	BS6853 (영국 규격)	3,528
화재감지기	없 음	-	열·연기감지	-	655
객실전광판	없 음	-	LED 표시기	-	1,411

2) 열차 무선통신시스템 개선

기존 열차 무선통신시스템이 1주파수에 1채널(주로 사령실-기관사)만 가능하여 비상시 필요한 다수의 통화수요를 해결할 수 없었고, 열차사고에 대비

한 외부기관과의 연계된 비상무선 통신 체계가 없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선 역무원에게 휴대용 무전기를 지급하여 기관사와 역무원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사와 기관사, 사령실, 역무원 및 소방서 등 외부기관과의 비상무선 통신이 자유로운 TRS방식의 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지휘통신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2) 열차방호기능 확대

전동차 운전실내 승강장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열차가 승강장 진입에서부터 출발후 승강장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관사가 승객상황을 감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열차가 운행중 탈선 및 충돌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후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거리 이내의 다른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열차 방호기능이 철도청소속 차량에만 설치되었고, 도시철도 분야에는 이러한 기능이 도입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하철에도 열차 자동정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승객의 안전을 더 한층 강화하였다.

3. 세부 추진실적

가. 총 괄

(2004. 12. 31 현재)

분 야 별	계	추진현황(건)		향 후
		완 료	추진중	
계	75	39	23	13
차 량 개 선	9	4	4	1
시 설 개 선	21	9	6	6
전기통신개선	29	16	7	6
인적제도개선	16	10	6	-

나. 분야별 추진실적

1) 차량개선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추진기간	진도 (%)
1	전동차 시트 방염 처리	의자, 등받이, 시트 204량 6,256개	25	'03. 2 ~ 3	100
2	전동차 출입문 비상 열림 장치 안내표지 개선	사용설명 표지판 축광형 스티커 부착 (5,190매)	15	'03. 2	100
3	전동차 안내방송 등 대국민 안전대책 홍보	전동차내 자동안내 방송 6종, 6회 시행	비예산	'03. 3	100
4	긴급상황시 승객 구조를 위한 직원용 응급장비 비치	역사 공기호흡기 31대, 방독면 840개 비치	78	'03. 10 ~ 11	100
		역사 메가폰 30개 비치	2	'04. 1 ~ 3	
		전동차 들것, 메가폰 70개 비치(예비 2포함)	6	'03. 10 ~ 12	
		전동차 공기호흡기 70대 비치(예비 2포함)	35	'04. 3 ~ 11	
5	전동차 내장재 교체	내장판, 단열재, 의자, 바닥판 교체(204량)	24,300	'03. 11 ~ '05. 6	38 (96량)
		'03년 : 착수	4,500		
		'04년 : 96량	9,300		
		'05년 : 108량	10,500		
6	전동차 객실 수동식 소화기 교체	압력계부착 소화기 비치 (486개) ※내장재 교체와 병행	10	구매 : '03. 11 비치 : '04. 3 ~ '05. 6	38
7	전동차 객실통신 시스템 개선	객실 비상인터폰 핸드 마이크 타입으로 교체 ※내장재 교체와 병행	330	'04. 3 ~ '05. 6	38
8	전동차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TRS방식)	정부 예산	'04 ~ '07	-
9	전동차 방호기능 확대	사고발생시 인접열차 정지를 위한 운전실내 열차방호기능장치 설치	1,940	'06 ~ '07	-

2) 시설개선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추 진 기 간	진도 (%)
1	피난구유도등 보완	피난구 유도등 이설 및 증설(86개소)	15	'03. 4 ~ 5	100
2	소방시설 시각장애물 이설	피난구 유도등 인식 장애물 이설(72개소)	15	'03. 4 ~ 5	100
3	소방시설물 축광형 표지부착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1,600매	8	'03. 8 ~ 12	100
4	소화기 추가비치	역사, 본선 437개	15	'03. 2 ~ 11	100
5	승강장 하부 배기팬 운용개선	화재시 승강장 하부 배기팬을 활용하여 연기 배기	비예산	'03. 7	100
6	가스소화설비 설치 장소 칸막이 개선	상인, 월배역 통신 기계실 천정에서 바닥까지 밀폐되도록 차폐시설 설치	비예산	'03. 7 ~ 8	100
7	터널내 연기감지기 이설	본선 급기환기실내 감지기 터널내 이설 (30개소)	24	'03. 10 ~ 11	100
8	본선기능실 안전 시설 설치	출입구손잡이, 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	13	'03. 11 ~ 12	100
9	축광형 유도타일 설치	화재 등 정전시 대피로 확보(29개역)	1,300	'04. 2 ~ 12	100
10	CCTV와 화재수신반 연계운용	29개역 화재수신반 단자대 개선	30	'03. 11 ~ 12	100
		화재시 개집표기 도어 자동 개방	46	'03. 12 ~ '04. 2	100
		화재수신반과 CCTV, 승강설비 연동	3,434	'06	-
11	제연설비 개선	실시설계	300	'04. 7 ~ '05. 5	설계중
		제연경계벽 설치	150	'04. 12 ~ '05. 4	5
		제연송풍기 개선	500	'05. 5 ~ '05. 12	-
		제연시스템 개선	2,000	'07	-

관리 번호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추 진 기 간	진도 (%)
12	유도등 개선	상시 점등되도록 개선	비예산	'04. 3	100
		유도등 개선 (20분→60분유지)	1,450	'07	-
13	역사, 전동차내 광고물 재질 개선	역사광고물 방염처리 플렉스 원단 사용	비예산	'04. 12	100
		전동차 광고틀 개선 ※내장재 교체와 병행	-	'03. 11 ~ '05. 6	38
14	승강장 안전설비 개선	승강장 추락방지용 안전펜스 설치(30개역)	2,300	'04. 11 ~ '05. 6	입찰 공고
15	상수도직결 소화설비 설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를 상수도와 직결	200	'04. 12 ~ '05. 4	5
16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역과 역사이에 소방용 송수관 설치	2,800	'05	-
17	역사화재탐지설비 개선	지하역사에 적합한 감지기로 교체	290	'06	-
18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대피통로 확보	환기구내 수직사다리 개선 및 역사내 인력 운반용 장비 비치	1,970	'06 ~ '07	-
19	역사구조물 안전 점검구 확보	토목구조물 점검구 설치	300	'06 ~ '07	-
20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설치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설치	70	'06	-
21	환기구 개구부 그레이팅 설치	개구부 점검, 보수시 점검자 안전성 확보	660	'07	-

4) 전기통신개선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기 간	진도 (%)
1	전차선로분진제거	T-바 31.319km, 애자 7,488개 청소로 절연성능 확보	53	'03. 5 ~ 7	100

관리 번호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기 간	진도 (%)
2	임피던스본드 내부 구조 개선	단면PCB를 양면PCB로 교체 및 방수작업(42개소)	2	'03. 5 ~ 8	100
3	응급복구용 광케이블 비치	광케이블 및 접속장비 등 비상복구 자재 10종 117점 확보	31	'03. 10 ~ 11	100
4	신호기계실 회로 보호용 차단기 교체	차단기내부 소자 오동작 방지용 신형 차단기 1,314개 교체	9	'03. 9 ~ 10	100
5	CCTV 녹화 장치 개선	역사 및 운전사령내 녹화장치 디지털방식 으로 교체(총 31대)	197	'03. 11 ~ 12	100
6	전동차 옥상감시용 CCTV설치	월배, 안심기지 검수고내 설치(13개소)	37	'03. 12	100
7	선로전환기 제어 계전기 설치	연동장치(VPI)내 제어 계전기를 설치 직접 제어(3개소)	9	'03. 12	100
8	통신케이블 트레이 덮개 설치	승강장 시종점부 케이블 회선보호	7	'03. 12	100
9	선로전환기 유동 방지	본선구간 선로전환기 49대를 기본레일과 연결하여 유동방지	117	'04. 3 ~ '04. 5	100
10	변전소 제어회로 개선	변전소 화재시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어회로 보완	8	'04. 4	100
11	운전취급 노후설비 교체	운전취급역, 신호 기계실 모니터 교체 '03. 15대, '04. 22대	37	'03. 11 ~ '04. 5	100
12	역사전기시설 개선	2개역 변류기 교체	1	'03. 12	100
		29개역 봉형 타입의 비상콘센트로 교체	7	'04. 2 ~ 3	
13	신호사령 X-터미널 개선	산업용 PC로 교체하여 열차운행 감시 시스템 운용	134	'04. 5 ~ 7	100
14	운전사령실 CCTV 교체	노후모니터 15대 교체	6	'04. 3 ~ 6	100

관리 번호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기 간	진도 (%)
15	전력사령 워크스테이션 개선	단종부품의 호환 가능품 개발 및 대체 시스템 운영 '03년:1대, '04년:2대	27	'03. 4 ~ '04. 12	100
16	비상조명등 개선	국부화재시 점등 되도록 개선(29개역)	21	'04. 4 ~ 5	100
		기준조도 5룩스 이상 유지(14개역)	100	'04. 3 ~ 12	80
17	변전소 예비품 확보	HSCB 2대	53	'03. 11 ~ '04. 5	100
		보호장치 5대	140	'04. 3 ~ 9	100
		부속품 54대	100	'06	-
18	전력케이블 방화도로 도포	공동구 1개소	67	'03. 11 ~ '04. 3	100
		변전소 4개소	120	'04. 6 ~ 12	100
		전기실 38개소	500	'05	-
19	터널구간 대피로 확보	본선 터널내 비상 조명등 설치(751개)	377	'04. 6 ~ 10	100
		승강장에서 선로출입 계단 경사로 완화	116	'05	-
20	신호기계실 인터 페이스단자 개선	블록터미널을 링크 분리형 단자로 개선 (14개소)	38	'04. 3 ~ 12 '05. 3(초과)	30
21	전력사령 전처리 장치 예비품 확보	터미널 서버, 라우터 및 전원장치 1대	30	'04. 6 ~ 12 '05. 3(초과)	60
22	종합사령실 운용 장비 개선	사령실내 전화 상시 녹음 방식으로 개선	비예산	'03. 7 ~ 8	100
		민방공 수신설비설치	60	'04 ~ '05	검토중
23	역무실 휴대용무전기 비치	역사순회중 기관사, 사령간 통화 및 비상 안내방송 시행	정부 예산	'04 ~ '07	-
24	열차무선녹음장치 개선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방식 개선(1식)	45	'05	-
25	승강장 비상비디오폰 설치	승강장내 비상연락용 비디오폰 설치(60대)	794	'07	-
26	신호사령 TTC설비 개선	윈도우시스템 개, 보수로 기능의 안정성 확보(1식)	1,500	'07	-

관리 번호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기 간	진도 (%)
27	운전실내 승강장 확인용 CCTV설치	열차 역구내 진입, 진출시 승강장 상태 감시(68량)	14,520	'07	-
28	전력사령 주컴퓨터 보수	단종품의 국산제품으로 대체(2대)	500	'07	-
29	통신기계실 무정전 장치 증설	정전시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기능 3시간 이상 확보(30개역)	400	시행시기 조정 '04→'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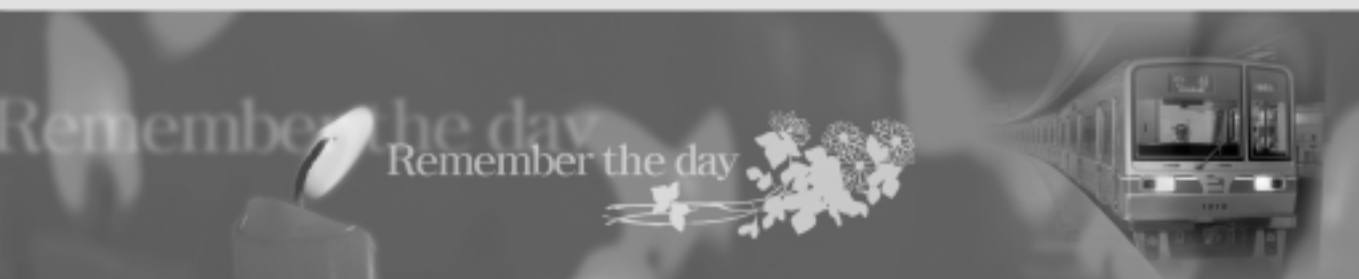
5) 인적·제도개선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기 간	진도 (%)
1	사고수습·복구 종합 체계 확립	사고수습·복구종합 편람200부 제작	2	'02. 11 ~ '03. 4	100
2	전동차 검사 정비 업무 개선	차량부품 33품목의 표준규격서 제정	비예산	'03. 11 ~ 12	100
3	승객의 긴급 신고 수단 개선	역사내 긴급신고 연락처 안내표지 부착(860매)	4	'03. 10 ~ 12	100
		전동차내 긴급신고 연락처 안내표지부착 (1,800매)	2	'03. 9 ~ 10	
4	자동운전구간 기관사 기량 향상방안 개선	비상시 통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비예산	'03. 11 ~ 12	100
5	정기설문조사방법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시 안전관련 항목 추가	20	'03. 11 ~ 12	100
6	사령실 통합운영	사령실 격벽철거 및 열차운행상황표시반에 선로경사도 표시	23	'03. 6 ~ 12	100
7	대국민 안전교육 강화	안심기지내 시민 안전 체험장 운영	비예산	'03. 4~계속	100
		공사 홈페이지에 안전 가이드란 개설		'03. 12. 1부터 운영	

관리 번호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기 간	진도 (%)
8	모의 운전연습기 개선	신규채용 기관사 기초 훈련	-	'04	100
9	안전요원 보강	공익근무요원 300명배치 간부급 안전활동 시행	691 비예산	'03. 6 ~ '04. 12 '03. 11. 27~계속	100
10	지하철 관리조직 보강	기술이사 신설 안전관리조직 개편	비예산	'04. 1 ~ 12	100
11	소방계획서 수립 내용 개선	30개역사 소방계획 내용보완	비예산	'03. 8 ~ 12	100
		29개역 역이용 안내도 부착(중앙로역 완료)	232	'04. 11 ~ '05. 1	5
12	비상대응매뉴얼 개발	건교부 통합표준 매뉴얼 확정 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	5	'03. 11 ~ '05. 12	-
13	비상안내방송 체계 등 개선	역사내 화재시 안내 방송 자동송출 완료	8	'03. 6	100
		유형별 안내방송 녹음 테이프 비치(화재, 침수 독가스, 지진,터널붕괴)	2	'05	-
		열차내 안내 방송 자동송출 완료 (화재,침수, 독가스, 지진, 터널붕괴)	4	'03. 12 ~ '04. 1	100
14	역사내 안전관리 인력확보 미흡	교통카드 및 역무자동 기기 이용홍보 매표업무(무인) 자동화 추진	비예산	'04~ '05. 12	-
15	소방안전대책추진 관련 재원확보 대책 수립	중장기 요금 현실화 ('05.1.20부터 200원 인상)	비예산	'03. 9 ~ '04. 12	-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비예산	'04. 1 ~ 12	-
16	안전관련 직원들에 대한 적성검사, 보건 복지 업무개선	고충처리시 개인적인 비밀 누설에 따른 제재 규정 신설 상담전문가 운용 질병자, 유질환자 상시 관리	비예산	법적제재조항마련 '03. 11부터 시행중 '04. 1부터 시행중	-

附 錄



事故收拾 状況日誌

事故收拾 状況日誌

일 자	내 용
'03.2.18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 화재사고 발생(09:53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에 정차한 안심행 1079호 전동차에서 김대한의 방화로 화재 발생, 09:56:45경 맞은 편에 정차한 1080호 전동차로 화재 확산 ※ 방화범 : 김대한(대구 서구 내당동, 1946년생, 지체장애 2급) ○ 지하철공사 전구간 지하철 운행중단(10:17) ○ 대구시 임시지휘본부(우리은행 중앙지점) 운영(10:30) ○ 중부경찰서에 수사본부 설치(본부장 : 서장,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21 수사본부장을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격상 ○ 대구지방검찰청 전담수사반(반장 : 형사5부장) 설치, 수사지휘 ○ 대구시 사고수습대책본부(본부장 : 시장) 설치 : 6개반 205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KDMORT)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요원(범죄감정팀 및 물리분석팀) 현장투입(20:30) ○ 검찰 지휘로 1차 현장검증 및 감식 실시(20:30~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2명, 국과수 12명, 경찰 12명 ○ 1080호 전동차 월배차량기지로 이동(22:00~22:42) ○ 대구시 사고수습대책회의 개최(22:00~23:30)
2. 1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9호 전동차 월배차량기지로 이동(01:01 완료) ○ 일부구간(동대구~안심, 대곡~교대) 열차운행 개시(0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 중지구간 : 명덕~신천(6개역, 4.8km) ○ 실종자 가족 대기소(시민회관 별관 1층) 설치(07:45) ○ 김석수 국무총리 현장 방문, 유가족 및 부상자 위로(08:30~09:50) ○ 검찰지휘로 2차 현장검증 및 감식 실시(09:00~11:30) ○ 지하철공사에서 중앙로역 안전점검 실시(11:30) ○ 중앙로역 군지원병력(200명) 투입, 잔재물 정리 작업(13:00~17:00) ○ 중앙사고대책본부(건교부) 구성(4개 대책반) ○ 중앙사고대책본부(건교부) 주관 지원대책협의회 개최(15:30) ○ 지역방위협의회 개최(16:00) ○ 중앙로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6:30, 대통령공고 제177호)

일 자	내 용
2. 1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가(행정자치부) ○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 윤석기, 위원 21명, 회원 202명) ○ 합동분향소 설치(22:00, 시민회관 2층 소강당)
2. 2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대책본부 확대 개편(9개반 274명)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현장방문, 유가족 및 부상자 위로(08:40) ○ 중앙로역 사고현장 복구작업 및 정밀안전진단 착수(09:00) ○ 국과수 집단사망자관리단(단장 이원태, 46명) 파견(0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배차량기지내 감정장비 및 인력배치 완료, 시신수습 작업 ○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3명) 월배차량기지 방문 수사(11:20)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명) 월배차량기지 방문 수사(12:50) ○ 시장과 유가족대표 면담, 장례 등 협의(15:00) ○ 실종자 유가족대표 월배차량기지 방문 및 국과수 설명(16:00) ○ 신원확인 사망자 장례 : 9명(파티마병원 외 6개소) ○ 실종자 유가족 중앙로역 사고현장에서 촛불 추모행사(18:00)
2. 2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감식반 본격적인 사체수습작업 실시(09:00, 월배차량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수 법의학팀(43명), 경북대 법의학팀(16명) - 대검 과학수사과 유전자 감식팀(2명), 경찰청 과학수사반(15명) ○ 중부경찰서 수사관(6명) 지하철공사 방문조사(10:00~14:20) ○ 사고수습상황 종합브리핑 실시(11:00, 시민회관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중부경찰서장, 실종자 가족, 부상자 가족 등 500여명 ○ 국과수 주관 유가족 설명회(16:00, 시민회관 대강당) ○ 신원확인 사망자 장례 : 9명(보광병원 등)
2. 2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장례 : 27명(경대병원 등) ○ 대만 지하철관계자(10명) 현장 방문(08:55) ○ 실종자 유가족 220여명 가두시위(10:40) 및 중앙로역(1·2층 대합실 및 승강장) 점거 농성(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운행 전면 중단 및 사고현장 공사중지 요구

일 자	내 용
2.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시설복구작업 중지(00:45) ○ 신원 확인된 사망자 장례 : 1명(영대병원) ○ 희생자 추모 묵념(10:00) : 사이렌 취명 및 타종(달구벌대중, 종교계) ○ 검찰 지하철건설본부 압수수색(전동차 발주 및 시험관련 서류) ○ 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 압수수색(11:25) ○ 한국은행에서 긴급자금 100억원 지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피해자 또는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피해상가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5억원 한도(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 중앙로역에서 뼈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5~6개) 및 유류품이 발견되자 시민단체 및 실종자가족 시청앞에서 항의시위(16:00) ○ 국과수 주관 시신수습상황 설명회(16:10, 중앙로역) ○ 시장과 실종자 가족들과의 면담(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의 청소 및 공사중지 요청 - 지하철시방서 및 1·2호선 설계도 공개요구
2. 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주재 실종자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10:00, 시청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검 검사장, 경찰청장, 국정원지부장, 국세청장 등 - 내용 : 삼풍사고와 같이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종자 확인절차를 추진키로 논의 ○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장명의 서한문 전달(유가족 46명) ○ 사망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378백만원(54명) ○ 부상자 방문 위로 및 실태파악(12개 병원) ○ 부상자가 입원중인 병원장에게 협조공문 발송(경대병원 등) ○ 국과수에서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가족 혈액 채취(424명) ○ 유족 입회하에 국과수·경찰 합동 중앙로역 재감식(14:15~22:25) ○ 일본 나고야 소방국 관계자(7명) 현장 방문(14:10) ○ 국과수에서 유가족에게 시신수습상황 설명(15:00, 중앙로역)

일 자	내 용
2. 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 휴대폰 위치추적 및 실종신고자 확인 의뢰 ○ 지하철 차량기지 현장지휘소 소방력 배치(차량 2대, 인력 10명) ○ 사고수습대책본부 총괄지원반내에 피해자금융지원상담팀 신설
2. 25(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소된 전동차내 신원 미확인 시신 128구 수습 ○ 물적피해대책위(프리몰피해대책위) 구성(회장 정경태, 위원 14명) -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중심으로 대표 구성 ○ 중앙특별지원단(행자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구성 파견 ○ 지하철운영 안전대책 수립(지하철공사) ○ 지하철 승강장 안내원 배치계획 수립(지하철공사) ○ 지하철 구간운영으로 인한 임시유실물센터 확대 운영 ○ 월배차량기지내 C-ARM기기 설치(X-ray투시검색기) - 메디슨대구지사 2명, 경북대 채종민 교수 ○ 안심차량기지에 보관중인 현장잔재물 정밀 감식(10:30~22:50) - 감식요원 : 28명(국과수 2, 경찰 26) - 감식결과 : 시신편 14점(뼈조각 3, 치아장치 1, 머리카락 7, 신체 미상 1, 기타 2) 및 유류품 169점(안경, 모자 등) 수거 ○ 방화용의자, 기관사 등 구속영장 신청(총 10명) ○ 윤진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해임
2. 2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창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장이 지하철공사 사장에 취임 ○ 중앙로역 지상부 도로 교통통제 실시 - 통제기간 : 2. 26 ~ 보강작업 완료시 까지 - 통제대상 : 승용차 이외의 차량 ○ 지하철참사관련 시민단체(YMCA등 37개) 기자회견(09:30) - 대구시, 지하철공사, 지방경찰청이 수습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선언 - 사건은폐, 물청소 등 책임자 사퇴요구 및 관련자 수사 촉구 ○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대책회의(10:00, 시민회관 대강당) ○ 피해자금융지원팀 구성·운영(2.26~4.3, 시민회관 4층) - 참 여 : 9개 기관 - 기 능 : 금융지원안내·상담, 보험가입 조회 및 금융거래 조회 등

일 자	내 용
2. 2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구성(변호사 회관 1층) ○ 지하철 운전분야 직원(175명) 특별교육(2. 26~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 관 : 한국철도전문대학 안승호 교수 ○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추모집회(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 전원에 대한 사망인정 요구 ○ 실종자유가족 등 1차 시민 촛불추모행사(19:00~2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네거리~아카데미극장
2. 2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한의사회 유가족 건강검진 및 봉사활동(10:00~22:00) ○ 지하철참사관련 유가족 기자회견(13:10, 중앙로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 정부차원의 대책본부 구성 요구 - 실종자 유가족과 대책본부 공동위원회 구성 요구 - 실종자 전원을 먼저 사망으로 인정하고 추후 개별조사 요구 ○ 고건 국무총리 조문 및 유가족·부상자 위로(18:05) ○ 신원 확인된 사망자 유족대표 회의개최(19:00) ○ 지하철 중앙로역 안전진단 및 가시설보강 대책회의(21:30~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 대구시 수습대책본부, 지방경찰청, 실종자유가족대책위 -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위험 상부구간(서울은행~아카데미극장) 차량운행 전면 통제 · 지하3층 기둥부분 가시설보강 공사 완료후 통행재개
2. 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대책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11:00~1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국무총리실 대회의실(국무총리 주재)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차원에서 특별조사단 구성 직접 지휘 · 중앙특별지원단 구성 대구지역 파견(단장 차관급) · 실종자 인정사망자심사위원회 조속 구성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대구지하철을 안전에 관한 전국 시범지역으로 격상 · 가구당 최고 2,000만원의 생활안전자금 지원 및 피해업체에 대하여는 복구자금 융자, 세제지원 강구 등

일 자	내 용
2. 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의회 의원 부상자 위문(14:00, 경대병원, 한성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환경위원회(최문찬 의원, 박주영 의원, 이덕천 의원) ○ 사고수습대책본부 일부기능 조정 개편(10개반 248명) ○ 대구지검 전담수사반을 수사지휘본부(본부장 : 2차장검사)로 확대 ○ 검찰총장 실종자대책위 대표와 면담(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귀빈실 2층 - 참 석 : 검찰총장, 대책위대표 3명, 정무부시장 - 대책위 요구사항 및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훼손 책임은 대구시장이 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차원에서 보강수사로 빠른시간내 처리 · 현 수사팀 전원 교체, 중앙정부차원에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겠음 · 신원 미확인 사체 및 실종자에 대한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으로 최대한 지원 · 지하철사고와 관련없는 실종자를 확실히 구분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에 대해 인정사망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 ○ 건설교통부장관 실종자대책위 대표와 면담(16:50~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귀빈실 2층 - 참 석 : 건교부장관, 복지부장관, 백승홍 국회의원, 실종자대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 요구사항 및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책위 추천인사 50%를 위원으로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위에서 선정기준 제시 및 전문가 추천 참여 비율문제는 최대한 의견 존중 ○ 지역예술인 지하철참사 추모제(18:00) ○ 중앙사고대책본부 관계국장회의 개최(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 건교부차관, 8개 부처·청 담당국장,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 안 건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사항 협의 ○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기자회견(10:00~10:41, 월배차량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에 대한 사죄, 희생자 명복 및 부상자 빠른 쾌유 기원 - 지하철운행 즉각중단, 안전운행 보장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요구

일 자	내 용
3. 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덕역 ~ 월배차량기지 구간 수색작업(00:00~0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명덕역 ~ 월배차량기지 왕복구간 - 참 여 : 52명(국과수·경찰 25, 공사 2, 유족 12, 시민단체 4, 기자 9) - 내 용 : 유해 및 유류품 수색작업 실시 - 결 과 : 사상자 유류품 미수거 ○ 사고 현장수거 유류품 공개(08:00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내 용 : 유류품 230점 ○ 대구지하철화재사고수습 중앙특별지원단 설치·운영(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 및 인원 : 단장, 부단장, 6팀장 등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장 :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장 김중량 부단장 :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김세호 - 장 소 : 소방본부 5층 - 기 능 :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사고 수습 ○ 중앙로역 지상부 도로 전면 교통통제(00:00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구간 : 서울은행 ~ 아카데미극장 - 제한대상 : 모든 차량(긴급 및 상가 영업차량 제외)
3.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유가족대책위 안심차량기지 방문(10:10~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 실종자 유가족대표 8명, 변호사 2명 - 내 용 : 재판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잔존물 확인 및 비디오 촬영 ○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김성길, 위원 10명, 회원 133명 ○ 화재사고 관련 지역신문사 좌담회(15: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매일신문사 회의실 -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시장 김기옥 · 실종자 대책위원장 윤석기 · 대구지하철참사 시민단체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중철 · 보건전문대학 소방안전과 교수 최영상 - 토론내용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원인과 대책 진단 등

일 자	내 용
3.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희생자 추모 제2차 시민대회(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 일대 - 참 석 : 1,500여명(유가족, 시민단체, 시민 등) - 내 용 : 추모행사 및 시가지 행진
3.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특별지원단 실종자유가족대표단 면담(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지하1층) 실종자 유가족 대기소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유가족대표 : 대구시 대책본부가 사태수습능력이 없으니 중앙지원단에서 책임지고 사태수습 요망 · 중앙특별지원단장 : 중앙특별지원단은 대구시 대책본부를 지휘 하며, 필요시 대구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고 별도 협의하겠으며, 피해자 가족과의 대화통로는 중앙지원단이며, 최종 의사결정권 은 중앙지원단에서 행사하고, 대구시의 의견을 참고하겠음 ○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수사과장 조두원)에서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설명회 개최(11:00, 중앙로역 유가족 대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확인 사체 149구에 대한 조사 완료 - 실종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확인 - 조사자료는 향후 구성될 실종자 심사위원회 제출
3. 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본부 중간수사 결과 발표(09:30) ○ 물적피해 보상관련 회의(10:00, 시민회관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 행정부시장, 대외협력반장, 건설행정과장, 손해사정인 4명, 프리몰피해대책위 14명 - 내 용 : 물적·정신적, 영업피해에 관한 보상 요구 ○ 현장보전 가처분 2차 심리(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피해자 가족 4명 - 피신청인 :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 대 상 : 전동차 및 중앙로역사 시설물 ○ 방화용의자(김대한) 재산 가압류 - 지하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내당동 소재 : 대지 181.6㎡, 건물 186.23㎡ - 베르나 승용차 1대(99년식)

일 자	내 용
3. 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가족대책위 및 시민단체대책위 공동 기자회견(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 - 참 석 : 실종자가족대책위, 시민단체대책위, 기자단 등 100여명 - 내 용 : 안전점검없이 지하철 부분운행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즉각 운행중단 요구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관련 협의(11: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 - 참 석 : 중앙특별지원단 7명, 실종자유가족대책위 9명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계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 중앙특별지원단과 대책위원회의 추천비율은 5:5로 한다 · 발족시기는 양측 추천인사가 선임되는 때로 한다 ○ 대구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제119회 임시회) 제출
3. 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차내 수습사체 장례절차 관련 대책회의(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국과수 상황실(월배차량기지) - 참 석 : 국과수 1명, 장의사 1명, 실종자대표 1명, 유가족대표 1명, 보건복지여성국장외 3명, 수사관 1명, 검사 1명 ○ 지하철참사 시민사회단체대책위 대표 회동(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홍사단 강당 - 참 석 : 시민단체 대표 40여명 - 내 용 : 활동사항 평가 및 향후 활동방향 논의 ○ 지하철참사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촉구 결의대회(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경북대학교 대강당 - 주 최 :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 지하철화재 희생자 “진혼제” 개최(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아카데미극장 앞 - 주 관 :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사물놀이 한울림 - 내 용 : 천도제, 살풀이 춤, 씻김굿, 달구벌의 울림

일 자	내 용
3. 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지하철 레일부근 집수정 감식(12:06~1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 경찰감식반 4명, 유가족 2명, 시민제보자 1명, 공사직원 4명 - 결 과 : 감식결과 특이사항 없음 ○ 시체인도관련 국과수와 유족대표간의 면담(14:0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월배차량기지 - 참 석 : 국과수, 유족대표 3명, 중앙특별지원반 1명, 실종자확인반 1명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주 중 국과수에서 30여구 신원확인자 인도 예정 · 실종자 대책위에서 인도방법 협의후 통보 ○ 실종자가족 대표와 중앙특별지원단간 2차 회의(16:15~1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지원단 회의실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 사망인정심사위원회 위원 선정문제 협의 · 위원장은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를 중앙지원단에서 추천하여 총리 재가후 통보 ○ 실종자 대책위 시민들에게 전단지 배포(17:00~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 ~ 안심역 - 매 수 : 2만매 - 내 용 : “왜 대구지하철은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지?”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일행 합동분향소 참배(16: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가 : 30명 정도(총무원장외 전국 25개교구본사 주지)
3. 8(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운행중단구간 무료 셔틀버스 운행(3. 8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간 : 교대역 ~ 동대구역 - 내 용 : 차량 30대 투입, 3~6분 간격으로 왕복 운행 ○ 소방·경찰인력 지하철 탑승 순찰(3. 8~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인력 : 소방·경찰 각 32명 - 근무방법 : 소방·경찰 2인 1개조로 전동차 순찰 및 유사시 대응 방법 홍보(05:20~24:00)

일 자	내 용
3. 8(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사망자유족대책위 면담(11:30~1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사망자유족대책위 사무실(4층) - 참 석 :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의 7명, 엄신길 사망자유족대표의 7명 - 내 용 : 부상자, 사망자에 대한 대책 강구, 위령탑 및 추모공원조성 요구 등 ○ 중앙로역 지하철 레일부근 집수정 감식(10:10~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 국과수, 실종자가족대책위 대표 - 내 용 : 쓰레기와 메탄가스로 인해 감식불가능 안심기지창으로 운반 ○ 대구화교협회 추모제(10:00~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대구화교소학교 운동장(중구 종로2가) ○ 금융감독원 임시 금융민원센터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 3. 8 ~ 3. 11(4일간) - 상 담 자 : 소비자보호센터
3.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17: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 - 참 석 : 김준곤 위원장의 14명 - 내 용 : 위원 위촉 및 운영방향 논의 ○ 실종자 확인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월배차량기지 - 참 석 : 국과수 총괄팀장, 지방경찰청 수사팀장, 수습대책본부 실종자확인지원반장 ○ 신원확인사체 인도관련 대책회의 개최(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대구지방검찰청 소회의실 - 참 석 : 검찰, 경찰, 국과수, 수습대책본부(유족대책반장) 등 ○ 지하철참사 추모콘서트(19: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경북대학교 대운동장 - 출 연 : 신형원, 인순이, 비, 박진영, 안치환, 설운도, 주현미 등 - 후 원 : (사)문예진흥원 <p>※ 출연가수는 무료공연을 하며, 수익금 전액은 추모사업에 사용 예정</p>

일 자	내 용
3.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경찰서 주관 사고현장 유류품 전시(3. 1~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 류 품 : 총 254건 - 관람실적 : 5,200여명 - 조치사항 : 유류품은 유가족대표 입회하에 봉인하여 중부경찰서에서 보관 ○ 사고수습대책본부 유족대책반내에 “신원확인사망자장례지원팀” 신설(30명)
3. 1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가받침 설치공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간 : 3. 11 ~ 3. 12 - 작업내용 : 장비반입(모터카외 3종), 정밀안전진단(외관 및 비파괴조사) - 작업인원 : 17명(공사 9, 한국기술안전기술공단 8) ○ 대구시의회 「지하철사고관련진상조사및재발방지특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7명) : 이상기(위원장), 김충환(간사), 정영애, 박주영, 류규하, 구분향, 이재술 - 활동기간 : '03. 3. 11 ~ 8. 31
3. 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임시회(제119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 대구지하철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실종자유가족대책위의 항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유보 - 실종자유가족대책위의 의견 수렴후 번안동의 예정 ○ 중앙로역 가받침 시설공사를 위한 현장조사(09: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인원 : 27명(지하철공사, 한국기술안전기술단, 아주ENG, 화성건설, 유가족대표 등) - 작업내용 : 현장조명등 이설(선로→승강장) 정밀안전진단(외관조사, 비파괴조사 등) 계측기 설치를 위한 조사 등 ○ 국과수·실종자대책위 사체인도방법 협의(17:00~1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월배 차량기지내 상황실 - 참 석 : 7명(국과수 3명, 실종자 대책위 4명) - 협의내용 : 결론없이 의견교환(추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 : 일괄 인도 요구 · 국과수 : 일괄 인도 곤란(절차 등 사유)

일 자	내 용
3. 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대표단과 중앙지원단회의(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사고대책본부 부상자대책위원회 사무실(5층) - 참 석 : 65명(부상자 가족 60명, 중앙지원단 5명) ○ 시의회 의원 부상자 방문(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문 자 :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류승백)외 4명 - 위문내용 : 한성병원 입원자 11명 방문 위로 위문품 전달(과일세트, 생필품세트)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지원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원해 법무담당관 외 5명 ○ 피해자가족 건강검진 실시결과 및 향후계획 협의(16:10~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사무실 - 참 석 : 9명(지원단 2, 대구의료원장, 건강관리협회 사무국장 등 6명) - 내 용 : 이상 소견자 57명에 대한 2차 정밀검진, 피해자가족을 위한 진료소 설치·운영 및 구급차 상시 대기 등
3. 1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안전보강공사 작업(07: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5명, 지하철공사 4명 - 구조물 계측 : 아주지오엔지니어링 6명 - 가받침 설치작업 : 25명(지하철공사 10, 시공사 15) - 가받침공사 자문 : 2명(경북대 박문호 교수, 계명대 이승한 교수) ○ 실종자 유가족대책위 수사본부 항의방문(10:1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원 : 실종자 유가족대표 윤석기 등 30여명 - 내 용 : 신원확인결과에 대한 발표 반대 ※ 실종자 유가족 등의 반대 및 항의로 당초 계획된 신원확인 결과에 대한 발표 유보 ○ 부상자 위로금 선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인원 : 122명(입원 5일 이하, 입건자, 소방관 등 제외) - 지급금액 : 610백만원(1인당 5백만원)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대구지하철참사 대책특별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민주당 중앙당사 - 참 석 : 박상희 의원(위원장)외 6명, 장태완 의원, 박주선 의원, 전갑갈 의원, 함승희 의원, 이미경 의원, 안경옥 대구 북구갑 위원장 - 내 용 : 실종자 처리 문제, 유족 보상문제 등 논의 ○ 종교계(기독교)와 중앙특별지원단 간담회(12:00~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영남별장 - 참 석 : 15명(중앙특별지원단장외 1,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권오중 목사 외 12) - 내 용 : 중앙특별지원단 활동상황 설명, 사고 조기수습을 위한 기독교계 협력 요청
3. 1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15:00~1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소방본부 5층) - 참 석 : 중앙특별지원단, 대구시, 국세청,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 - 참 석 : 위원장 외 14명 - 내 용 : 운영규칙 의결 ○ 시민사회단체대책위 지하철 운행에 대한 공개토론회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일시 : 3. 14(금) 18:00 - 장 소 : 시민회관 3층 프레스센터 - 제안내용 : 지하철운행에 대한 토론에 사고수습본부 관계자 참석
3. 1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상황 실종자유가족 설명회(10:00~1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실종자 유가족 대기실) - 참 석 :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중부서장, 실종자 유가족 130여명

일 자	내 용
3. 1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토론회 무산관련 시민사회단체대책위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의 공개토론회 거부는 시민사회단체의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구시의 공개토론회 참여 재차 요구 ○ 실종자 유가족 시의회 항의방문(17:00~2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 유가족 등 100여명이 시의회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농성 - 실종자 가족 30여명은 의장실을 점거하여 의장 등 의원 11명을 억류하며 집기를 부수는 등 불상사 발생 - 시의회 의장 등이 실종자 유가족 요구사항 수용약속 후 해산 ○ 소방본부 주관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에 대한 간담회(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사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사무실 - 참 석 : 소방본부장외 5명, 유가족 다수 ○ 중앙로역 근무직원 조정 배치(12:00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직원 7명 → 13명(보강공사 현장통제), 청원경찰 4 ○ 시민단체·실종자 대책위 관계자 행정부시장 면담(13:1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관장실 - 면담자 : 시민단체대책위 2명, 실종자대책위 1명 - 내 용 : 공개토론회 관련 공문전달 및 입장설명 ○ 종교계(가톨릭)와 중앙특별지원단과의 간담회(12:00~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석정 - 참 석 : 6명(대구대교수 조한길 사무처장 외 5인) - 내 용 : 중앙특별지원단 활동상황 설명, 사고 조기수습을 위해 기독교계의 협조 요청 ○ 중앙특별지원단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와 간담회(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습대책본부 명칭변경(대구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 등 논의
3. 1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대책위 합동분향소 영정 뒤로 돌림(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셔터 책임자 처벌요구 - 시장, 지하철공사 前사장 구속 요구 - 실종자심사위원회의 실종자 문제 조속 처리요구

일 자	내 용
3. 1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안전보강 공사(10: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원 : 65명(공사 9, 화성산업 28, 한국시설안전기능공단 28) - 내 용 : 가받침 설치 20조, 정밀안전진단, 계측기 설치 ○ 지하철화재사고 희생자추모 제4차 시민대회(18:15~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 일대(아카데미극장 앞) - 참 여 : 500명 정도(유가족 150, 시민단체·재야인사 등 350) - 주 최 : 지하철참사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3.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 지하철 운행관련 설명회(14:0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 지하 1층 - 참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 행정부시장, 교통국장, 지하철공사 사장 등 4명 · 유가족, 실종자 가족, 시민단체 등 300명 정도
3. 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안전보강 공사(10: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원 : 67명(공사 8, 화성산업 7, 한국시설안전기능공단 16, 경북 대학교 30, 아주지오ENG 6) - 내 용 : 서울은행~아카데미극장 앞 재하시험, 구조물 정밀안전 진단, 계측기 설치 ○ 실종자 가족 대구지검 항의방문(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대책위 명의로 제출한(3. 13) 대검차원 수사촉구 진정서가 대구지검에 이첩된 데 대해 항의 - 진정서를 돌려 받기 위해 실종자 가족 80여명이 대구지검을 단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함 ○ 중앙특별지원단 대검관계관 등과의 간담회(14:0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사무실 - 내 용 : 엄정한 진상규명을 통한 의혹해소 방안 등 논의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중앙로역 방문, 유가족 등 위로(10: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 신영국 위원장외 8명(수행 5명)

일 자	내 용
3. 1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참사회생자대책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윤석기, 위원 26명, 회원 247명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15:00~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 - 참 석 : 김준곤 위원장의 13명 - 내 용 : 미확인 실종자 201명중 76명을 팀별 배당 심사 ○ 중앙로역 재하시험 실시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간 : 서울은행~아카데미극장 - 목 적 : 가받침 완료 후 지하구조물의 처짐, 내력 등 안전확인 - 방 법 : 지상도로 재하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톤 덤프 트럭 2대가 동시주행(10~60km/h, 6단계) · 속도별 지하 1·3층으로 전파되는 진동의 변화량을 계측기로 측정 - 시험인원 : 60명(지하철공사 15, 화성산업 15, 경북대학교수 등) - 시험결과 : 중앙로역 지하 3층에 28개소의 기둥보강으로 중요구조체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 ○ 제1차 관계기관 합동회의(16: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소방본부 5층) - 참석자 :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 : 단장의 5명 · 대구시 : 행정부시장의 4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기관간 업무협조 체제 강화 · 현지 애로사항에 대해 중앙지원단과 협의 · 실종자의 조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 입장에서 해결토록 기관간 공조 ·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 대구의료원 유가족 건강검진(3. 18 ~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장소 : 중앙로역(2일), 시민회관(2일) - 검진내용 : 심전도, 혈액검사 등 23종

일 자	내 용
3. 1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안전보강 공사(09: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원 : 24명(한국시설안전기능공단 16, 아주지오ENG 8) - 내 용 : 정밀안전진단(외관조사, 비파괴시험), 계측기 설치 등 ○ 전국궤도 노동자 추모대회(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아카데미극장 앞 - 참 석 : 전국 5개 지하철 및 철도 노조원 800명 정도 - 주 최 : 전국궤도연대(가칭) - 내 용 : 추모사, 추모공연 및 지하철, 철도안전을 위한 결의 발표, 진혼제, 공개서한문 낭독 등 ○ 제5차 추모 시민대회(19:15~2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일대(아카데미극장 앞) - 참 여 : 시민단체, 유가족, 일반시민 등 250여명 - 주 최 : 지하철참사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 대구시의회 지하철건설 및 운영 관련 결의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문 채택 - 대구지하철 건설 및 운영업무의 중앙정부 이관촉구 ○ 실종자 대책위 대표 등 사고대책본부 항의방문(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규명 촉구대회 행사시 계란(500판정도) 지원 요구 - 대형걸개 시청사 게시 등을 요구 ○ 대구지하철화재사건 특별수사본부 발족(3.19~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직 : 본부장(대검찰청 강력부장) <li style="padding-left: 40px;">1반장(대구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li style="padding-left: 40px;">2반장(대검찰청 강력과장) - 사무실 : 대구지방검찰청내
3. 2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참사 여·야·정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505호 - 참 석 : 19명 ○ 국무총리주재 대구현지 관계장관회의 개최(08:30 ~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 - 참 석 : 27명

일 자	내 용
3. 2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진상규명촉구 시민대회(0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주차장 - 참 여 : 유가족, 시민단체 등 70여명 - 요구사항 : 포괄 사망인정, 책임자 철저한 수사요구 등 ○ 국무총리와 유가족 대표 면담(13:15~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K-2공군 비행장 귀빈실 - 참 석 : 고건 국무총리, 유가족 대표 윤석기외 4명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에 대한 포괄 사망인정 요구 · 부상자 평생진료 요구 · 안전한 지하철 추진(지하철 운행중지, 중앙로역 완벽한 건설 등) · 지하철참사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 · 49제(4월7일)가 정부차원의 추모행사가 되도록 요구
3. 2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 - 참 석 : 위원장 외 13명 - 내 용 : 64명 인정사망 결정
3. 2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주변 상가 및 주민 수호대회 개최(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 주변 - 참 석 : 인근지역 상인, 주민 등 150여명 - 주 관 : 동일상가 번영회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피해로 따른 영업손실 보상 · 중앙로 차량통행 허용 · 중앙로역 주변 추모집회 금지 등 ○ 국과수 주관 유류품 사진 공개(3.2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월배차량기지 - 내 용 : 수습된 유류품 사진(4,200여장)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공개 ○ 대구·경북 공무원불자회 공동주관 추모법회(15: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동화사 - 참 석 : 대구·경북 공무원 불자 및 가족 200여명

■ 附 錄

일 자	내 용
3. 2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대책위와 간담회(11: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사무실 - 참 석 : 부상가족대책위원장, 중앙특별지원단 3명, 대구시 부상자대책반장 ○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임원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성길 → 이동우
3. 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 일괄인도 요구 시위(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부경찰서(경찰수사본부) - 참 석 : 40여명 - 요구사항 : 시신 일괄인도(개별 시신인도에 대한 불만)
3. 25(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립예술단 추모음악회(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 참 여 : 포항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152명) ○ 국회복지특별소위원회 실종자 유가족대표 면담(10:50~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별관 2층 - 참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회 : 이원형(단장), 김명섭, 박시균 의원 등 · 대책위 : 윤석기 위원장, 엄신길 위원장외 7명 ○ 사고수습 관계부처 차관회의(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국무조정실장실(1001호) - 참 석 : 건교부, 행자부, 복지부, 문광부,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 차관
3. 2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공기질 측정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3. 26(17:00)~3. 27(15:00) - 장 소 : 중앙로역, 큰고개역(각 2개소) - 측정기관 : 시 보건환경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내 용 :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측정 ○ 지하철 통신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 점검(3. 26~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기지 및 역사 통신기계실

일 자	내 용
3. 2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09:50~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 지하1층 실종자유가족 대기실 - 주 최 :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희생자대책위원회 - 참 석 : 시민단체 4명, 유가족 150명 정도 - 내 용 : 참사수습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시민안전점검단 구성 제안 ○ 제2차 관계기관 합동회의(15: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소방본부 5층) - 참 석 : 중앙특별지원단장, 지원반장, 행정부시장, 대구지검 수사지휘검사, 대구지방경찰청수사본부장, 지하철공사 사장, 국과수관계자 등 ○ 중앙로, 동성로 인접상가 상권회복 결의대회(16:00~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아카데미 극장 앞 - 주 최 : 중앙로, 동성로 인접상가 17개 번영회 - 참 석 : 700명 정도
3. 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중앙로역 안전보강공사(17: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원 : 11명(공사 9, 화성산업 2) - 내 용 : 현장점검 및 환풍기 가동 ○ 추모공원 조성관련 회의 개최(13:20~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2층 회의실 - 참 석 : 15명(시 행정관리국장외 7명, 유족대표 7) - 유족대표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창공원에 추모공원 조성 · 시에서 중앙로 상가 영업피해에 대한 사과문 요구 · 119구급대 운용체계 및 병원별 사상자 이송 현황 설명 ○ 시의회 지하철참사및재발방지대책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의회 2층 의정연구실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가 지하철 전동차 객실내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 · 중앙정부가 대구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 조속 수용 · 중앙정부가 이번 참사로 인한 모든 비용 적극 지원

일 자	내 용
3. 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16:0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 - 참 석 : 김준곤위원장 외 13명 - 심사배당 : 5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후 사망인정 35건, 심사제외(생존) 4건, 미상정 17건
3.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안전보강공사(06: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인원 : 6명(지하철공사직원 4, 화성산업 2) - 작업내용 : 현장점검 및 환풍기 가동 ○ 중앙로역 통신기계실 점검(10: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인원 : 6명(지하철공사직원 2) - 작업내용 : 통신장비 불안정에 따른 전화 및 FAX 점검
3. 3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 교통통제에 따른 대시민 사과문 발표(5개 일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최종안전진단보고서 제출 전 통행재개 가능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전진단보고서를 받아 희생자 가족 및 부상자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통행이 재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표명 ○ 지하철참사 희생자 추모행사(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참 석 : 6개 정당 500여명 - 주 최 :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2대리구 1지역 사목협의회 ○ 추모사업 추진관련 유가족대표와의 협의(10:00~1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소강당 귀빈실 - 참 석 : 시(행정부시장외 4명), 유가족(위원장이외 2명, 변호사 1명) -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공원(위령탑, 안전교육관, 공원묘역 등)을 현 KT&G부지(수창공원)에 조성 ·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유가족대책위에서 계획안을 제출하고, 시에서 검토한 후 이견에 대해 협의 조정 · 합동장례식은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결정 이후 즉시 시행 등

일 자	내 용
4. 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시설물 복구 설계용역업체 선정 심의위원회(14:00~1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지하철공사 5층 상황실 - 참 석 : 위원장 박문호외 9명 - 심의대상 : (주)유신코퍼레이션외 5개 업체 -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및 설계업체별 평가내용의 적정성 검토 · 설계업체 선정방법 결정(위원별 업체순위 직접 작성) ○ 대구지하철참사 백서발간 설명회(19:00~2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주 최 : 경북대 도시환경설비연구실 방재팀 (설명자 : 건축학부 홍원화 교수) - 참 석 : 희생자대책위 위원장 윤석기외 20여명 - 내 용 : 백서발간의 필요성과 방법 등 ○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 중앙지원예산 확정(국무회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금액 : 30,162,686천원(일반회계 목적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차 구입경비 : 13,171,200원 · 전동차 불연성 내장재 개조경비 : 16,991,486원 - 관련법령 : 재난관리법 제52조 및 예산회계법 제39조
4. 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장·중앙지원단장 면담 및 협의(14:15~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대구시장실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대부시행 · 신원확인 이후의 업무처리 관계 · 기타 조기수습에 관한 사항 협의 등
4. 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대정부 건의문 발표(10:30~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 현장 - 참 석 : 희생자 가족 등 100여명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에 따른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 철저한 참사원인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모사업 활동 지원

일 자	내 용
4. 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관계기관 합동회의(15:0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소방본부 5층) - 참 석 : 중앙특별지원단장 및 각 반장, 대구시 대책반장,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하철공사, 국과수 관계자
4. 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등 간접피해 보상관련 회의(17: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관장실) - 참 석 : 대외협력반(3명), 손해사정인(4명), 상가대표(13명) 등 20명 - 주요내용 : 영업피해 보상, 물적피해 조사 및 피해금액 산정방법 등 처리방향 논의 ○ 대구시 중구의회에서 수창공원 예정지에 지하철참사 희생자 묘역 조성을 반대한다는 결의문 채택
4. 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 차량통행 관련 간담회(16:00~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소방본부 5층) - 참 석 : 중앙특별지원단 3명, 백승홍 국회의원, 교통국장, 지방경찰청 교통과장, 희생자대책위원회 7명, 주변상가변영회 3명,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박문호), 시민단체 대표(김경민)
4.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원회 자체 설명회(10:20~1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 유가족 대기실 - 참 석 : 희생자 가족 등 100여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비서관과 면담(4. 5) 결과 설명 · 인정사망심사위원회 4.15일 모든 결과 발표 예정 · 4. 7 12:00까지 보건복지부 및 건설교통부에 추모사업 관련문건 답변요청 · 4. 7 16:00 중구청장 면담(추모공원 관련) 요청 ○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영산대제 봉행(14: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외 간부스님, 희생자 가족 등 1600여명 - 집 전 : 봉원사영산재 보존회 - 주최/주관: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 대구경북총무원)

일 자	내 용
4.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원단 활동상황 점검회의(11:00~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지원단장실(대구소방본부 5층) - 참 석 : 김중앙 단장, 각 부처파견 단장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수습대책 주요처리상황 점검 · 희생자대책위 대정부 건의사항 검토 ·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항 검토 ○ 대구지하철 희생자 49제 추모제(18:30~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주 관 : (사)한국국악협회 대구시지회 - 참 석 : 550명 정도 - 진 행 : 추모시 낭독, 천도, 영혼 인도굿 등 ○ 희생자대책위원회 중구청 방문 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4. 7(월) ~ 4. 9(수) - 장 소 : 중구청 1층 로비 - 참 석 : 희생자대책위원장 등 40여명 - 농성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창추모공원 조성반대 관련하여 중구청장 면담요청 · 면담에 앞서 청사에 배치된 전경 철수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면담 거부하고 항의 농성 · 4. 8부터 중구청장 및 직원들 출근 저지 등 ○ 희생자대책위 자체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4. 7(월) 23:25 ~ 4. 8(화) 00:45 - 장 소 : 중구청사 1층 로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와 긴밀한 연계 통한 추모공원 조성 추진 · 도시계획 변경 관련 시의원 전원(27명)에게 4. 8일중 개별적 서면 질의 ·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구 주민들이 시청 방문시(4. 8. 15:00) 대책위 대표들이 면담 설득 · 4. 9(수) 23:00 TBC에서 개최될 토론회에 市측 참석인사 3명을 지정하여 참석토록 요청

일 자	내 용
4. 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창추모공원 조성반대 주민집회(13:00~1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전매청부지(250명), 국채보상공원(250명) - 주 관 : 성내3동 통우회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전매청부지 집회인원은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시가 행진후 국채보상기념공원에 합류하여 시청까지 행진 · 15시경 시청 도착, 조성반대 구호제창 및 성명서 낭독 · 15:50분경 중구청 이동, 민원실앞에서 구호제창후 16:25분경 해산(희생자 유가족과의 마찰은 없었음) ○ 지하철 희생자 유가족 교통사고 야기(1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구청 동편 현관 입구 - 사고차량 : 대구 70가 7778(하나님의 교회 자원봉사차량) - 피해내용 : 경찰기동대 대원 3명 부상 - 사요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운전자가 중구청에서 농성중 유가족 간식배달 온 상기차량에 탑승, 경비중이던 기동중대원을 향해 돌진하여 사고 유발
4. 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원단 대구지하철참사관련 백서발간 협의(14:0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지원단 사무실(소방본부 5층) - 참 석 : 김중앙 단장, 안찬근 국장(건교반장), 김낙기 과장, 경북대 홍원화 교수 외 5명 - 주요내용 : 백서발간에 따른 조사 연구자료 협조요청 ○ 희생자 대책위 중구청장 면담(16:30~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구청 7층 상황실 - 참 석 : 구청 8명(구청장 및 간부), 대책위 7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5(토)~4. 9(수)까지 구청장과 면담성사 미이행, 경찰인력 투입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구청장 사과 · 구청 직원, 공익요원의 불상사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설득하여 고소취하 등 원만한 해결 노력 · 의경 3명 부상건에 대하여는 중부경찰서에 선처 요청 등 · 수창공원 추모공원조성관련 문의에 대하여 4. 12까지 회시요구

일 자	내 용
4. 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희생자 진혼제 개최(17:00~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 아카데미 극장 앞 - 참 석 : 동성로 상가번영회원 및 유족 300여명 - 주요내용 : 중앙로 교통소통 협조와 관련하여 희생자들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국악, 살풀이 등) ○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 제6차 회의(18:00~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심사위원회 회의실(소방본부 3층) - 참 석 : 김준곤 위원장 외 13명 - 주요내용 : 25명 심사(인정사망 1명, 보장조사 6, 불인정 18) ○ 희생자 영가추모 및 왕생극락 발원음악회(19:00~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주 최 :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참 석 : 1,600여명 정도 ○ 지하철 운행여부관련 TBC방송 특집 토론회(2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측 : 대구지하철 건설본부 기전부장 이용구외 2인 · 반대측 : 시민사회단체대책조사위원회 김경민외 2인 ○ 중앙로 차량통행 재개에 따른 안전펜스 철거(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간 : 아카데미 극장 ~ 하나은행
4. 1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 미확인 실종자 공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미확인 실종자 24명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조사하여 인정사망 여부 심사 결정 ·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원제보 당부 ○ 중앙로역 지상도로 차량통행 재개(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 노선 426대 시내버스 정상운행(우회노선 환원) - 셔틀버스 지하철 운행노선으로 변경 등

일 자	내 용
4. 1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관계기관 합동회의(14:0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소방본부 5층) - 참 석 : 중앙특별지원단장, 지원반장(각부처 파견 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지방검찰청 수사지휘검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 지하철공사 상무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관 등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주요 수습대책에 대한 공조방안 논의 · 지하철역사 복구, 정밀안전진단 추진상황 설명 및 제도개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원확인 결과 통보방법 논의 등
4. 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원단 활동상황 정례브리핑(10:30~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프레스센터(대구시민회관 4층) - 참 석 :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10여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수 신원확인 종료(4.12) 등에 따른 각 기관별 수습추진상황 점검 · 향후 추진방향에 따른 기관간 공조방안 협의 · 지하철 종합안전점검 방안 희생자대책위와 조속 협의 ○ 사망자 유가족 시청방문 및 면담(19:30~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민원실 - 방 문 자 : 유가족 10명 - 요구 및 답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장례 완료한 사망자 69명 명단요구 - 제출 · 보상협의 조속한 실시 요구 - 과반수이상 장례 후 협의 가능
4. 1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특별지원단과 지역국회의원과의 간담회(12:30~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 백승홍 국회의원, 중앙특별지원단장외 8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보상 및 피해복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문제 건의 · 시신인도 및 장례관련 문제 ·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문제 등

일 자	내 용
4. 1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주관 유가족 설명회 개최(15:0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유가족 100여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선정 손해사정인 피해보상관련 사항 설명 · 장례절차 및 방법은 4. 14(월) 최종 결정 · 합동분향소는 시민회관 대강당에 설치하고 유족별 조문실은 시민회관 1~3층을 사용 예정 · 장례방법은 합동장례 후 화장(납골당), 매장, 선산 안치 등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은 납골당에 안치 후 추모공원묘역 조성후 안치 ▶매장은 냉동보관 후 추모공원묘역 조성후 안치
4.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수 상주근무 요원 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장비 철수 및 자료정리 : 4. 11~4. 12 - 향후 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시신인도시 국과수 직원 출장 시신인도 · 서울 국과수 본원에 임시상황실 설치 · 월배차량기지 국과수 상황실 및 경찰경비 현행유지 ○ 추모사업추진관련 실무회의(16:0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소방본부5층) - 참 석 : 11명(백승홍 국회의원, 지원단 2, 시 3, 희생자대책위 5) - 내 용 : 공청회 및 여론조사 실시 등 추모사업 관련 실무 협의
4. 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자체간담회(10:20~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 지하 1층 - 참 석 : 120명 정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14(월)오전 검찰·법원 항의 방문(공사사장 영장기각 불만) · 법과 양심에 따른 사법부 판단호소 유인물 배부 · 간담회후 신원확인자 명단 유출경위 및 기타 수사 진행 상황 청취를 위해 중부경찰서 방문 · 추모공원조성 관련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일 자	내 용
4. 1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 제7차 회의(18:00~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 - 참 석 : 위원장 외 13명 - 내 용 : 21명 심사(19명 불인정, 2명 판단유보) ○ 국과수 신원확인작업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4. 16 ~ 4. 19(월배차량기지) - 인 원 : 국과수 단장외 9명 - 내 용 : 시신 일괄인도 준비 등
4. 1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사고수습대책본부 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내용 : 10개반 248명 → 6개반 7개팀 214명 ○ 제5차 관계기관 합동회의(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 - 참 석 : 중앙특별지원단장, 각부처 파견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지검,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공사
4. 1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 관련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4. 18. 17:00 ~ 4. 19. 03:00 - 장 소 : 시청회의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공원과장, 희생자대책위의 위원장(윤석기) 및 대책위원(5명) -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공원 조성내용은 추모탑, 안전교육장, 묘역 등으로 함 · 추모공원 조성관련 TV토론 및 여론조사 실시 · 양측이 합의한 추모공원 조성기한은 3년 2개월내로 하며, 후보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양측과 위원회가 슬기롭게 해결 노력 ·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25일 이전에 추모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함 · 합동영결식은 4월 24일에 함 · 장례방법은 ①개별 신원확인후 화장하여 납골당 안치후 추모묘역 안치 ②신원확인후 냉동고 보관후 추모묘역 안치 ③신원확인후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후 추모묘역 안치 등 3가지 방법으로 하되 ②안 및 ③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19일 16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

일 자	내 용
4. 1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자체 브리핑(10:40~1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앙로역 지하 1층 - 참 석 : 유가족 100여명 - 내 용 : 추모공원조성, 합동영결식 등에 대한 시와 논의내용 설명 ○ 중앙특별지원단 해체(지원단 구성 : 3. 1) ○ 대구시의회 의장단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위로방문(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문 자 : 시의회 의장, 특위위원장, 경교위원장 ○ 신원확인 사망자 장례방법 설문조사(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표 배부 : 120부
4. 2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조기수습관련 기자회견(10:00~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상황실(2층)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20여명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동장례식 추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장례식은 신원확인 사망자 중 시신인수 대상자가 확정된 후 치를 계획 · 장례방법은 지난 4. 18일 대책위와의 회의에서 논의된 3가지 방안 중 ①안(신원확인 후 화장하여 납골당내 안치하였다가 추모묘역에 안치) 또는 ③안(신원확인 후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하였다가 추모묘역에 안치)이 협의될 경우 희생자대책위와 공동주관으로 치를 계획임 〈보상원칙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제비 지급 및 보상금 협의는 검찰 지휘하에 시신을 인수받아 매장 또는 화장의 절차를 완료한 유가족부터 착수할 계획 · 법적 손해배상액은 각각의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양측 협의에 의거 조정 산정 · 특별위로금은 타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유가족 및 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 · 공정한 성금배분을 위하여 필요시 「전체보상협상체」 또는 가칭 「협상중재단」을 구성한 후 이해당사자와 협의추진

일 자	내 용
4. 23(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자체브리핑 및 기자회견(09:40~1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희생자대책위 사무실(시민회관 1층) - 참 석 : 75명(유가족 70여명, 기자 등 5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브리핑〉 · 4. 22 대구시 발표 “지하철참사 조기수습방안” 복사 배부 및 설명 · 유족 60~70명이 상복을 입고 시청 항의방문 〈기 자 회 견〉 · 희생자 문제의 완벽한 해결,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추모사업 추진 등 4대 과제 선정 추진 · 합동장례식은 유족의견을 존중하여 추진 · 추모사업은 텔레비전 토론회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 보상원칙과 방향제시 등 ○ 지하철참사 희생자를 위한 “영가위령대제” 개최(10:30~1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주 관 :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경북 5개교구, 희생자대책위 - 참 석 : 2,500여명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부 : 반야심경 봉독, 분향 및 헌화, 추모사, 애도사, 유족대표 인사말 등 · 제 2 부 : 영가천도제 및 안녕기원제 · 행사종료후 유가족 100여명 상복을 입고 반월당 보현사로 이동
4. 2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피해상인과 현지간담회(11: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우리은행 대구지점 4층 - 주 관 : 재정경제부, 백승홍 국회의원 - 참 석 : 110명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백승홍), 재경부(김영주 차관보외 3명) · 대 구 시(경제산업국장, 중구 부구청장외 2명) · 피해상인(100여명) · 관련기관(대구지방국세청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피해상황 실태파악 · 피해상인 금융·세제지원 방안 협의 등

일 자	내 용
4. 2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에서 시민회관 광장주차장에 합동분향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분향소 설치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시청소속 직원들과 마찰 - 행정부시장이 격앙된 유가족들에 의해 8시간 억류되는 불상사 발생 ○ 지하철참사 보상관련 설명회(15: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참 석 : 40명(기 장례자 38, 예정자 2) - 주요내용 : 보상관련 설명, 질의·응답, 유가족 토의
4. 3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수 요원 상주근무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시신 인수시 국과수에 최소 3일전까지 통보 ○ 김기옥 대구시 행정부시장(수습대책본부 부분부장) 퇴임
5. 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수습대책본부 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내용 : 6개반 7개팀 214명 → 6개반 1개팀 87명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체제 → 상시근무체제 - 사 무 실 : 시민회관 별관 3층 → 소방본부 5층 ○ 부상자대책위 주관 손해배상금 산정결과 설명회(14: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부상자 및 가족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동산의료원 정신과 추가심리 검사 실시 손해배상금 산정결과 설명회 등 ○ 대구시 원로인사 희생자대책위와 간담회(15:30~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대구시민회관 귀빈실 - 참 석 : 16명(원로인사 12, 희생자대책위 윤석기 위원장 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희찬(상의회장), 함정웅(상의부회장), 구정모(대백사장), 김홍식(금복주회장), 이윤석(전동아백화점사장), 강재조(동양주물회장), 김학봉(전한영요업회장), 박성형(신라섬유회장), 민병오(섬유산업협회장), 신익현(전신흥교통회장), 김종대(전교육감) 등

일 자	내 용
5. 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 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추모공원만 마련해준다면 언제든지 장례를 치루겠음. · 원로인사 : 시에서는 추모공원이 완공될 때까지 냉동실에 보관하고 시신 인도없이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루려는 유족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음. 많은 성금을 보내준 국민들과 대구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조속히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루어 주기 바람.
5. 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현 대구시 행정부시장(수습대책본부 부분부장) 취임 ○ 추모공원조성관련 TV 토론회(10:00~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대구 MBC - 참 석 : 시 수습대책본부(3명), 희생자대책위(3명) - 내 용 : 구 연초제조창부지 추모공원 조성방안
5. 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원로인사 희생자대책위와 간담회(10:30~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희생자대책위 사무실(시민회관 1층) - 참 석 : 16명(원로인사 9, 희생자대책위 윤석기 위원장 등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무연(전대구시장), 김홍식(금북주회장), 김학봉(전한영요업회장), 이윤석(전동아백화점사장), 강재조(동양주물회장), 박성형(신라섬유회장), 신익현(전신흥교통회장), 김종대(전교육감), 노희찬(상의회장)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 추모공원 조성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여 공원조성 문제를 결정하겠음. · 원로인사 : 수창공원의 경우 관련법이나 여론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에서는 장지를 공원이 조성되기 전 대구지역 유공자 시신을 모시는 유공자 묘역에 안치하고 위령탑과 안전교육관을 설립하겠다고 함. 하루 속히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루도록 했으면 좋겠음. ○ 희생자 유가족 보상설명회 개최(15:00~1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설 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복지기획담당 - 참 석 : 유가족 100여명 - 내 용 : 보상방법, 절차 및 보상대표단 구성내용 등

일 자	내 용
5.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와 행정부시장 간담회(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영남별장(금호호텔 동편) - 참석대상 : 12명(시 관계자 2, 희생자대책위 10)
5.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연합회와 행정부시장 간담회(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호남정(수성구 소재) - 참 석 : 10명(시 관계자 2, 유족연합회 8) ○ 부상자대책위와 행정부시장 간담회(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죽향(중구 삼덕동 소재) - 참 석 : 13명(시 관계자 6, 부상자대책위 7) ○ 희생자대책위, 손해사정 공개토론회(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참석대상 : 한백·영남 손해사정인, 유가족 등
5. 6(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주관 희생자 영정 안치식(18:30~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주차장(희생자측 설치 분향소) - 참 석 : 희생자 유가족, 시·의회 관계관 - 주요내용 : 위원장 인사, 안치식 행사 등
5. 10(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역 안전진단용 코어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기간 : 5. 10 ~ 5. 12(3일간) - 작 업 자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박시현외 8명 - 입 회 자 : 지하철공사 토목보선팀장 오상직외 3명 - 사용장비 : 코어드릴 2대, 작업대차 2대 등 ○ 희생자대책위 유족 진료 편의 지원(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유족중 설사증세를 보이는 6명에 대해 수습대책본부에서 대구의료원 앰블런스 1대를 요청하여 후송 - 검진결과 단순설사로 치료후 전원 귀가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위촉 : 10명(시 추천 5명, 희생자대책위 추천 5명) ※ 위원장 : 김준곤 변호사

일 자	내 용
5.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5. 11 ~ 7. 21 - 진단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5.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현프리몰 입주상인 방문결과(11:35~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수습대책본부(소방본부 5층) - 참석인원 : 60여명 - 요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운행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 손해사정결과 개별 열람 및 금주중 부시장과 면담
5. 1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습대책본부 종합보고회의 개최(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소방본부 회의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각 반장 및 보좌관 등 - 내 용 : 각 반별 추진상황 보고 및 현안논의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상견례(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대구시청 인근 센도리식당 - 참 석 자 : 위원 10명 - 내 용 : 위원 상견례 및 위원회 역할 설명
5. 1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장례에 따른 인력배치 및 사전교육(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인 원 : 장례지원 전담직원 150명
5. 1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훈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취임 ○ 지하철참사관련 취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5. 16(금) 16:00(방영 : 6. 1) - 매 체 : MBC스페셜 “대구지하철참사 그 후” - 주 관 : MBC 시사교양국(PD 김현중) - 주요내용(관련과장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장례식 및 보상, 부상자 대책 · 추모사업 추진상황, 지하철안전 종합대책 등 ○ 대구지하철참사 사망자 보상관련 제2차 협상(16:00~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수습대책본부 5, 희생자유가족연합회 5) - 합의사항 : 사정 및 검증 시안 8개항 타결 일용임금의 가동일수는 25일, 기술직종사자 22일

일 자	내 용
5. 1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1호선 종합안전점검 관련회의(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YMCA - 참석대상 : 9명(대구시·지하철공사 4명, 희생자대책위·시민단체 5명) - 내 용 : 점검항목 및 점검단 구성 등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10:30~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추진위원회 위원 10명 - 회의내용 :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및 추모사업 경과보고 등
5. 20(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국민성금 전달(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액 : 65,660백만원 - 성금전달 : 재해구호협회장→대구광역시장 - 성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 사고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 · 사고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경비
5. 21(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피해 보상관련 관계자 간담회(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소방본부 3층 상황실 - 참 석 자 : 21명(상인, 손해사정인, 시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영업손실보상 관련 사례설명 등 ○ 시의회 임시회(제121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화재사고피해 보상에관한조례안을 번안동의(기의결 내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2일 의결된 내용에서 희생자대책위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
5. 2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관련 취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5. 22(목) 10:00(방영 : 5. 31. 22:50) - 매 체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주 관 : SBS제작본부(PD 이광훈, 작가 김예미)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 부상자를 위한 대책과 추진상황 · 지하철 안전 종합대책 · 대구시민에 대한 당부 말씀

일 자	내 용
5. 2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상황실(2층) - 참 석 : 위원 10명 - 안 건 : 추모묘역조성 후보지 선정관련 논의 ○ 지하철 1호선 종합안전점검관련 회의(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지하철공사 5층 상황실 - 참 석 : 20명(전문가 14, 참관인 6) - 내 용 : 점검일정 및 항목 등 협의 ○ 시의회 임시회(제121회) 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공포 예정일 : 5. 30 -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 등의 지급근거 마련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포함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위원은 시 추천인사와 피해자 추천 외부 인사를 각 동수로 구성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간사는 복지정책과장·보건과장·건설행정과장 및 교통정책과장 · 보상금 수령권자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법정상속인 · 보상금은 시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보상금의 지급절차, 구상 및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
5. 24(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공원 조성관련 현장 2차 답사(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대구대공원 인근 삼덕동 일원 - 참여인원 : 추모사업추진위원, 유가족 등 20여명
5. 2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시신 추가인도(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지하철 월배차량기지 현장 - 시신인도 : 12구(당일 장례 3구)

일 자	내 용
5. 2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08:00~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재난상황실(7층) - 참 석 자 : 위원 10명 - 회의내용 : 추모묘역조성 후보지 선정관련 논의
5. 27(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참사 100일 추모전(5. 27 ~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내용 및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시민이 주인되는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 : 5. 27. 19:00 · 대구지하철참사 100일 추모식 : 5. 28. 09:53 · 대구지하철참사 100일 추모전 : 5. 28 추모식 이후 · 영상 및 기록 사진전 : 5. 28~6. 15 · 시사만화전 : 5. 28 ~ 6. 15 - 주관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지하철참사회생자대책위원회 ○ 피해신고 손해사정내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5. 27 ~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진석타워 1305호(손해사정인 사무소)
5. 2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관련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 정진홍의 <SBS전망대> - 방송시간 : 5. 28(수) 07:25~07:40(8분정도) - 방 식 : 전화 인터뷰 - 인터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의 사고이후 100일간 수습노력 · 미해결된 현안들과 대책 ○ 대구지하철참사 100일 추모식(09:53~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광장(합동분향소) - 주 최 : 대구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희생자대책위원회 - 참 석 : 300여명 정도(유족, 시민) ○ 영상 및 기록사진전(참사 100일의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기간 : 5. 28 ~ 6. 15 - 장 소 : 시민회관 2층 소강당 - 주 최 : 희생자대책위, 대구 YMCA

일 자	내 용
5. 2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화재참사자 위령대제(14: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광장 - 주 관 : 한국호국불교조계종 - 주 최 : 약사사, 여래선원, 용화사, 천왕종총무원, 팔공사 - 참 석 : 500여명 ○ 대구지하철참사 100일 국민추모음악회(20:00~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한강시민공원 특설무대 - 주 최 : 국민추모음악회 추진위원회, MBC 문화방송
5. 2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MBC "아주 특별한 아침" 인터뷰 방송(08:00~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인정사망 심사 관련, 성금 집행 및 보상계획 등 ○ 부상자대책위 복지시설 위문(5. 29 ~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정보재활원 등 7개 복지시설 - 위문내역 : 라면 145상자의 3종(시가 800만원상당)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재난상황실(7층) - 참 석 : 위원 9명 - 내 용 : 추모묘역조성 후보지 선정 관련 논의
5. 3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5. 3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방송(2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대구지하철 참사 원인 및 수습대책 추진상황 등 ○ 지하철 복구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담당 · 공사 : 상무이사, 차량운영부장, 토목보선팀장, 안전방재팀장, 지하철건설본부 건설1부장

일 자	내 용
5. 3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사고복구, 지하철 1호선 종합안전점검 및 중앙로역 가처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등 · 검찰의 “사고 관련 피고인들의 공판 진행중에 있어 현장검증 등이 예상되므로 복구공사 보류”지휘 통보 접수(5. 27)
6.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TV 대구지하철 참사관련 보도(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 대구지하철 참사 화재 100일 대구의 아픔은 지나지 않았다 - 내 용 : 지하철 사고의 원인, 수습상황 등
6.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재난상황실(7층) - 인 원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위원 10명 - 내 용 : 추모묘역조성 부지 선정 (수성구 삼덕동 천주교 공동묘지 인근)
6. 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 및 추모사업관련 설명회(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유가족 150명정도, 행정부시장, 교통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사시설부장 등 - 주요내용 : 추모사업, 보상 등 전반적인 사항
6.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제8차 회의(17:00~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재난상황실(7층) - 참 석 : 김준곤 위원장외 14명 - 내 용 : 인정사망 판단유보자(전○○)에 대한 재심사 결과 경찰청 추가조사 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
6. 1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보상관련 협의(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 - 참 석 : 8명(대구시 3명, 희생자대책위 5명)

일 자	내 용
6. 1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대정부 건의문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내용 : 지하철안전관련 대정부 정책건의서 - 조 치 : 청와대 관계관에게 건의문 전달
6. 14(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보상관련 협의(10:00~1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 - 참 석 : 14명(대구시 협상단, 희생자대책위, 손해사정인 등) -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사정 대구시 기준(안) 3개항 합의 재확인 [일용근로자 월노동일수, 정년(무직) 가동년한, 생활비 공제율] · 나머지 4개항 협상 추진 [장례비, 위자료, 이자공제방식, 55세이상 취업가능 월수]
6. 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화재 실제 종합소방훈련(13:50~1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 참여인원 : 452명(공사 127, 유관기관 125, 일반인 200) - 내 용 : 1단계(열차 화재발생), 2단계(사고열차 화재 확산), 3단계(유관기관 조치)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위원 10명 - 내 용 : 묘역부지 선정후 추진 경위와 안전교육관 관련 논의 ○ 수습대책본부와 희생자대책위간의 추모사업 관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희생자대책위 윤석기 위원장 등 -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은 추모공원(위령탑, 안전교육관, 묘역) 조성과 추모벽 설치 및 기념(복지)재단 설립 · 추모공원 조성 위치는 수성구 삼덕동 118-1번지 일원 · 사업기간은 3년 2개월, 사업비용은 국비, 시비, 성금 · 합동장례일자는 6월 일

일 자	내 용
6. 17(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위촉 : 15인(위원장 행정부시장, 위원은 시 및 피해자 추천 인사 각 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4, 교수 2, 의사 1, 손해사정인 3, 공무원 5 - 위원회 기능 : 각 반별로 피해자와 합의된 보상금의 심의·의결 ○ 합동장례 일정 등 협의(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희생자대책위 윤석기 위원장의 6명 - 내 용 : 합동장례일자를 6. 28, 6. 29, 6. 30 중에서 희생자 대책위가 유가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5일 희생자대책위측에서 합동장례일자를 6월 29일로 최종확정
6. 1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보상관련 협의(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소방본부 5층 회의실 - 참 석 : 10명(대구시 4, 희생자대책위 6) ○ 국무총리실 조정관 주재 정부 관계부처 지원방안 협의(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5층 회의실 - 참 석 :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국장, 보건복지부 심의관, 대구시 행정부시장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원대책과 도시철도 안전종합대책(건교부) · 예산 지원대책(행자부, 기획예산처) · 부상자에 대한 치료 등 지원대책(보건복지부)
6. 1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보상(장례비, 위자료 등)관련 협의(16:25~1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소방본부 5층 회의실 - 참 석 : 10명(대구시 4, 희생자대책위 6)
6. 2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보상(장례비, 위자료 등)관련 협의(10:00~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소방본부 5층 회의실 - 참 석 : 9명(대구시 4, 희생자대책위 5)

일 자	내 용
6. 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보상(장례비, 위자료 등)관련 협의(14:00) - 장 소 : 소방본부 5층 회의실 - 참 석 : 9명(대구시 4, 희생자대책위 5)
6. 2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09:00)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위원 8명 - 내 용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정
6. 2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금 배분관련 협의(18:00)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 : 윤석기외 5명 · 유족연합회 : 신태영 위원장외 2명 · 부상자대책위 : 불참 · 대구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체국장,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등 - 회의내용 : 유가족 전체의 의견수렴 건의 및 서신발송(시)
6. 2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15:30) - 장 소 : 시청 상황실(2층)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14명 - 내 용 : 부상자(125명) 법적보상금 심의
6. 28(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신원확인 및 시신인도(6. 27 ~ 7. 1) - 장 소 : 월배차량기지 현장 - 일자별 : 6/27(11구), 6/28(30구), 6/29(16구), 6/30(4구), 미신청 2구 ※ 재안치 : 6/27(3구), 6/28(2구), 6/29(1구) ○ 사망자 장례 및 보상관련 협의(09:00)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희생자대책위 윤석기 위원장외 5명

일 자	내 용
6.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참사 사망자 합동영결식 〈합동영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6. 29(일) 10:00~11:40(시민회관 광장) - 주 관 :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 대 상 : 사망자 192명 - 참 석 : 1,300명 정도(유족, 초청자, 일반시민 등) - 행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식, 국기에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 경과보고(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 추도사(시장, 국무조정실장, 경북대 총장, 시민단체대표 등) · 종교의식(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 헌화·분향 및 조가(시립합창단) ※ 주요 참석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고문, 강재섭 국회의원 등 지역국회의원 11명 · 국무조정실장, 건설교통부 차관 · 경북도지사, 시교육감, 경북대학교 총장, 시의회의장 등 대구시 의원, 구청장(중,동,서,수성구), 구의회의장(동,서구) 등 〈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6. 29(일) 11:40~13:30 - 구 간 : 시민회관 ~ 중앙로역
6. 3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인도 관련 업무협의(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월배기지사업소 국과수상황실 - 참여부서 : 국과수, 수사본부, 대구시 보건과 ※ 시신인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망자 : 192명(신원 확인 185, 신원 미확인 6, 인정사망 1) - 시신인도 : 183명(장례 176, 재안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청 2명 ○ 사망자 장례 및 보상관련 협의(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유족연합회 신태영외 2명 - 내 용 : 합동장례이후 향후 보상업무처리 방향 등 협의

■ 附 錄

일 자	내 용
7. 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위원 9명 - 내 용 : 안전교육관건립 기획단 위원(최상복, 최현복) 추천 등
7.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대책본부 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직 : 6개반 1팀 87명 → 6개반 1팀 33명 - 사 무 실 : 소방본부 5층 → U대회조직위(구 대구은행 동지점) 2층
7. 1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중앙로역 시설물 복구공사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 7. 10 ~ 12. 30(6개월) - 공사내용 : 토목, 건축·설비, 전기·통신 등
7. 1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고 시신 장례(09:0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대구시립공동묘지 - 대 상 : 6구(신문공고후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 ※ 잔여 골편(뼈조각)은 냉동고 보관중
7. 1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보상관련 협의(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희생자대책위 윤석기 위원장외 4명 - 내 용 : 국민성금 배분 및 사망자 특별위로금 협상 등
7. 1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및 보상관련 유가족 설명회(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행정부시장, 희생자 유가족 전체 - 내 용 : 국민성금관계, 추모사업 등
7. 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소회의실(4층) - 참석대상 : 위원 10명 - 주요안건 : 중앙로역 추모벽 위치결정 등 ○ 정밀안전진단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5.11~7.21 - 진단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일 자	내 용
7. 2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배분관련 협의(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희생자대책위 윤석기 위원장의 5명 - 내 용 : 국민성금 배분 및 사망자 특별위로금 협의
7. 2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참사 수습관련 대책회의(14: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수습대책본부 각 반장
7. 2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8대구지하철참사유족회 구성(회장 강달원, 위원 7명, 회원 9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대책위에서 등 50여명이 탈퇴하여 유족연합회(회장 신태영)와 통합 구성
7. 2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배분 협의(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2.18유족회 강달원 회장의 2명 - 내 용 : 국민성금 배분 및 특별위로금 협의
7. 3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성금관련 원로 자문회의(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수성구 산촌식당 - 참 석 : 16명(시장, 행정부시장, 원로 14명) - 주요내용 : 국민성금 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특별위로금 : 1인당 221백만원 · 부상자 특별위로금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 · 기 타 : 잔여액은 직접지원경비 및 추모사업비로 사용
8. 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보상심의회위원회 제2차 회의(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상황실(2층) - 참 석 : 행정부시장의 10명 - 내 용 : 사망자(30명) 및 물적피해자(163명) 법적보상금 심의 ○ 지하철참사 성금 고액기탁자 회의(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앞 센도리 식당 - 참 석 : 행정부시장, 고액기탁자 6명 - 내 용 : 국민성금 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특별위로금 : 1인당 221백만원 · 부상자 특별위로금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 · 기 타 : 잔여액은 직접지원경비 및 추모사업비로 사용

■ 附 錄

일 자	내 용
8. 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수습관련 대책회의(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수습대책본부 회의실(구 대구은행 동지점 2층) - 참 석 : 행정부시장, 대책본부 각 반장 등 15명
8. 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 석 : 위원 10명 - 내 용 : 추모벽 설치 결정사항 재확인 등
8. 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특별위로금 관련 협의(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부상자대책위 위원장(이동우)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배분관련 협의(17: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2.18유족회 위원장(강달원)외 6명 - 내 용 : 사망자특별위로금(221백만원)협의 실종자가족 휴업손실부분 인정 요구 추모사업추진에 2.18유족회 참여 요구 ○ 국과수 집단사망자관리단 활동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민회관(대강당)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최종 설명회
8. 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관련 유가족 설명회(17:00~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소방본부 대강당(5층) - 참 석 : 행정부시장, 2.18유족회 80여명
8.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중앙로역 시설물 복구공사 설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기간 : 6. 2 ~ 8. 10
8.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12명 - 내 용 : 사망자(60명) 특별위로금 결정(1인당 221백만원)

일 자	내 용
8.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금 배분 관련 협의(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부상자대책위 위원장(이동우) 등 - 내 용 : 국민성금중 부상자 특별위로금 상향지급 요구 추모사업 반대
8. 1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배분관련 협의(11:30~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재난상황실(7층) - 참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8유족회 : 강달원외 2명 · 시측 : 교통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교통정책과장, 세정담당관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에 대한 유족회 참여 확인 · 휴업손실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 국민성금배분 기본방향 및 사망 특별위로금 결정(221백만원), 향후 보상 절차 협조 당부
8. 1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14명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법적보상금 심의(42명 10,370백만원) · 사망자 특별위로금 심의(26명 5,746백만원)
8. 1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배분 관련 회의(12: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문화체육국장실 - 참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대책위원회 : 이동우 위원장외 1명 · 시 : 문화체육국장, 교통국장, 보건과장, 교통정책과장, 세정담당관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로금 : 사망자의 50% 정도 요구 · 증세악화자(30~40명)에 대하여는 노동상실을 상향조정 위로금 지급 · 추모사업에 대하여 참여 의견 권한 부여

일 자	내 용
8. 1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주재 중앙안전대책위원회 회의(10:30~1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9층) - 참 석 : 교육부총리, 건교부, 문광부, 복지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장관,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민정수석, 재경부, 법무부, 산자부 차관, 철도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사회수석조정관, 공보수석비서관, 경찰청차장, 행정부시장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습대책비 확정 : 총액 1,605억원(중앙정부지원금 1,147억원, 대구시부담금 458억원) · 수습상황·당면과제 보고 및 토의
8. 2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10명 - 회의내용 : 사망자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심의 결정(55명) (법적보상금:10,137백만원, 특별위로금:5,525백만원)
8. 28(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수습관련 대책회의(11: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각 반장 및 보좌관 12명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습과제 논의,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하철 적자치원 경비 · 8. 19 총리주재 회의시 논의된 사항 및 결과 처리
8. 29(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9명 -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법적보상금 심의(36명 9,552백만원) · 사망자 특별위로금 심의(21명 4,641백만원) · 부상자 법적보상금중 위자료 조정 지급(92명 501백만원)

일 자	내 용
9. 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제9차 회의(16:00~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재난상황실(7층) - 참 석 : 위원장외 12명 -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 전○○의 하차역인 칠성역 주변의 사진관 탐문결과 ○ 이웃주민들의 실종자 전○○에 대한 인지여부 조사결과 ○ 칠성역 CCTV에 나타난 증인 전○○의 헤어스타일 결과 ○ 실종자 부와 오빠의 진술내용 불일치 등 · 최종적으로 참석위원 표결 - 불인정 결정
9. 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14명 -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법적보상금 심의(13명 3,892백만원) · 사망자 특별위로금 심의(43명 9,503백만원) · 부상자 법적보상금중 위자료 조정 심의(22명 113,784천원) · 부상자 법적보상금 심의(2명 65,125천원) ○ 사고수습대책본부 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직 : 6개반 1팀 33명 → 6개반 21명 - 사무실 : U대회조직위 사무실(구 대구은행 동지점) 2층 → 시민운동장(체육시설관리사무소)
9. 2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수습관련 대책회의(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14명(각 반장 및 보좌관)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특별위로금 관련 부상자대책위 요구사항 논의 (요구안 : 부상정도에 관계없이 사망자 대비 80-50% 지급) · 실종자 유가족 휴업손실분 보상관련 · 유가족 및 부상자대책위 직접지원경비관련 · 추모사업 추진 관련 · 부상자 가족 심리 치료 관련 등

■ 附 錄

일 자	내 용
9. 2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14명 - 회의내용 : 사망자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법적보상금 : 18명 5,428백만원, 특별위로금 : 7명 1,547백만원)
10.18(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경비 배분 관련 제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희생자대책위, 2.18유족회, 부상자대책위, 교통정책과장, 세정담당관 - 내 용 : 기 집행경비 및 향후 대책위 운영비 지원 협의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재난상황실(7층) - 참 석 : 위원 9명 - 내 용 : 추모사업 추진현안 설명 등
10.2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복구공사 진척에 따라 중앙로역 열차 무정차 통과 운행(05:20)
10.2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백서발간 관련 회의(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45명(관련 부서 담당자 전원) ○ 지하철참사 수습관련 대책회의(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 석 : 행정부시장, 각 반장 및 보좌관 등 10명 - 내 용 : 부상자 특별위로금 배분 관련 등
11. 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10명 -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법적보상금 및 위자료 조정 지급 · 사망자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 물적피해자 법적보상금 지급

일 자	내 용
11.1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경비 배분 관련 제2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희생자대책위, 2.18유족회, 부상자대책위,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정담당관 - 내 용 : 향후 대책위 운영비(19개항) 중 미합의 6개항 협의
12. 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경비 배분 관련 제3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희생자대책위, 2.18유족회, 부상자대책위,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정담당관 - 내 용 : 향후 대책위 운영비(19개항) 중 미합의 6개항 협의
12.1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12명 - 내 용 : 사망자·부상자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12.1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경비 배분 관련 제4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희생자대책위, 2.18유족회, 부상자대책위,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정담당관 - 내 용 : 향후 대책위 운영비(19개항) 중 미합의 6개항 협의
12.1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수습대책본부를 수습단으로 축소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직 : 수습대책본부(6개반 21명) → 사고수습단(1개반 12명) ※ 수습단장(교통국장), 수습반장(서기관), 2팀장(사무관)
12.30(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경비 배분 관련 제5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7층 재난상황실 - 참 석 : 희생자대책위, 2.18유족회, 부상자대책위,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정담당관 - 내 용 : 향후 대책위 운영비(19개항) 중 미합의 6개항 협의 ○ 중앙로역 복구공사 완료 : '03. 7. 10~12. 30
12.31(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중앙로역 정상운영(05:00)

일 자	내 용
'04. 1. 13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경비 배분 관련 제6차 회의(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희생자대책위, 2.18유족회, 부상자대책위,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정담당관 - 내 용 : 대책위 활동 제경비 등 미합의 6개항 협의
1.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경비 배분 관련 제7차 회의(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10층 대회의실 - 참 석 : 희생자대책위, 2.18유족회, 부상자대책위,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정담당관 - 내 용 : 대책위 활동 제경비 등 미합의 6개항 협의
1. 27(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경비 배분관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시청 2층상황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10명 - 심의·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예비비로 우선 집행된 직접지원경비를 성금으로 정산 결정 · 유가족 및 부상자대책위에 지원될 향후운영비(19개항) 확정
1. 3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1주기 추모행사 관련 간담회(14: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범어천주교회 - 참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 대구종교인 평화회의(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유교) 각 1인 · 사회단체 : 경실련/참여연대/대구여성회/민중연합회/길거리시민연대 등 · 유가족 : 희생자대책위/유족회 각 3인 · 시의회 : 경제교통위 김충환의원 · 市 : 사고수습단 총괄팀장외 1인 -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8대구지하철참사1주기범시민추모위원회(가칭)」 구성 합의 · 희생자대책위와 2.18유족회에서 지하철 1주년 추모행사 관련 일체를 동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합의

일 자	내 용
'04. 2. 4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1주기 추모행사 관련 간담회(14: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중구 동인동 참여연대 사무실 - 참 석 :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 대구종교인 평화회의 2(사무총장, 신부) · 사회단체 : 경실련/참여연대/대구여성회/민예총/환경운동연합 각 1인 · 유가족 : 희생자대책위/유족회 각 3인 · 시의회 : 경제교통위 간사(김충환의원) · 市 : 사고수습단 총괄팀장외 1인 -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대 : 공동추모위원 명단 작성 및 운영방침 등 ○ 민 예 총 : 추모식 및 추모행사 초안검토 ○ 市 : 소요예산 편성·조정 및 지원 ·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공동추모위원회에 제출 최종 조정 ○ 직접지원경비 배분관련 최종 확정안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대책위(희생자대책위, 2.18유족회, 부상자가족대책위)
2. 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만성후유증관리 연구용역관련 제1차 설명회(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경북대학병원 대회의실(10층) - 주 관 : 경북대학교 연구진, 시 보건과 - 내 용 : 부상자 상해에 대한 3년간 추적조사를 수행하여 추후 부상자의 만성후유증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 활용
2. 1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참사 1주기 범시민 추모식 거행(09:3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아카데미 극장 앞) - 참 석 : 2000명 정도(유가족, 추모위원, 초청인사, 시민 등) - 주 최 : 2·18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1주기범시민추모위원회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유가족 대표 등 60여명) - 후 원 : 대구광역시 - 내 용 : 묵념(추모사이렌)/참회/분향 및 헌화/종교의례/추도사 (추모위원장, 장관, 시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 유족 대표)/경과보고/추모시 낭송/진혼무/대시민호소문 등

일 자	내 용
'04. 2. 26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서면심의) - 위 원 : 행정부시장외 14명 - 안 건 : 부상자 법적보상금(지하철공사직원) 지급안
3. 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제10차 회의(13:30) - 장 소 : 시청 상황실(2층) -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 전○○의 재심청구에 대해 경찰청 조사자료와 참고인(천○○) 진술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정황증거 불충분으로 위원표결에 의해 사망 불인정 처분 · 향후 불인정처분관련 재심청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음 ○ 부상자 만성후유증관리 연구용역관련 제2차 설명회(15:30) - 장소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301호) - 참석 : 부상자 및 가족 등 40여명 - 내용 : 부상자 건강검진에 대한 질의 및 연구참여 동의서 작성
3.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10:30)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위원 8명 - 내 용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확대개편안 논의
3. 1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해산 - 해촉위원 : 위원장 김준곤 외 14명 - 해촉일자 : 2004. 3. 10(위촉일자 : 2003. 3. 10) - 해촉사유 : 동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위원 해촉
4. 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만성후유증관리 연구용역관련 제3차 설명회(15:00) - 장 소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301호) - 참 석 : 부상자 및 가족 등 22명 - 내 용 : 부상자 건강검진에 대한 질의 및 연구참여 동의서 작성

일 자	내 용
'04. 4. 28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10:00~12:00)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위원 9명 - 내 용 : 묘역조성 설명 및 추모위원회 확대 개편방안 논의 등
5. 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보상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11:30)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 석 : 행정부시장외 위원 14명 - 내 용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안(59명, 3,352백만원) 심의
6. 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11:00)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위원 10명 - 내 용 : 위원회 확대개편안(10명 → 16명) 결정
6. 1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15차 회의(11:00) - 장 소 : 시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위원 16명 - 내 용 : 추가 참여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소개, 추진상황 설명 및 차기회의 안건 논의
6. 2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만성후유증 연구용역 관련 제4차 설명회(16:00) - 장 소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의실 - 참 석 : 18명(수장자 및 가족, 연구진, 관계공무원) - 내 용 : 검사과정 설명, 질의응답, 검진예약 등
6. 3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제16차 회의(15:00) - 장 소 : 시청 7층 재난상황실 - 참 석 : 위원 12명 - 내 용 : 안전교육관 건립예정지 변경관련 논의 등

地下鐵事故 死亡者 名單

地下鐵 火災事故 死亡者 名單

번 호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주 소	비 고
1	박 ○ 희	여	34	회사원	대구광역시 중구	
2	강 ○ 원	남	27	회사원	대구광역시 동구	
3	강 ○ 용	남	37	자영업	대구광역시 동구	
4	강 ○ 화	여	55	식당종업원	대구광역시 동구	
5	강 ○ 정	여	19	대학 1	대구광역시 동구	
6	강 ○ 숙	여	25	회사원	대구광역시 동구	
7	고 ○ 정	여	28	수의사보조원	대구광역시 동구	
8	곽 ○ 영	남	12	초등학생	대구광역시 동구	
9	구 ○ 자	여	44	식당업	대구광역시 동구	
10	구 ○ 회	여	24	대학졸업	대구광역시 동구	
11	구 ○ 선	남	79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12	구 ○ 자	여	60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13	권 ○ 옥	여	76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14	김 ○ 옥	여	61	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15	김 ○ 영	여	25	회사원	대구광역시 동구	
16	김 ○ 희	여	45	회사원	대구광역시 동구	
17	김 ○ 년	여	59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18	김 ○ 수	여	55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19	김 ○ 자	여	51	농 업	대구광역시 동구	
20	김 ○ 남	여	37	회사원	대구광역시 동구	
21	김 ○ 주	여	55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22	김 ○ 옥	여	29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23	김 ○ 숙	여	57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24	김 ○ 현	여	14	중학생	대구광역시 동구	
25	김 ○ 희	여	32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 附 錄

번 호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주 소	비 고
26	김 ○ 제	남	67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27	김 ○ 나	여	16	여고생	대구광역시 동구	
28	김 ○ 례	여	51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29	남 ○ 주	여	67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30	도 ○ 일	남	22	대학 1	대구광역시 동구	
31	도 ○ 진	여	18	대학입학	대구광역시 동구	
32	민 ○ 은	여	24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33	박 ○ 연	여	51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34	박 ○ 태	여	50	식당업	대구광역시 동구	
35	박 ○ 영	여	17	여고생	대구광역시 동구	
36	박 ○ 균	남	6	초등학생	대구광역시 동구	
37	박 ○ 옥	여	55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38	박 ○ 은	여	22	대학 2	대구광역시 동구	
39	박 ○ 현	여	29	피부관리사	대구광역시 동구	
40	박 ○ 지	여	57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41	방 ○ 순	여	46	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42	배 ○ 솔	여	13	중학생	대구광역시 동구	
43	변 ○ 연	남	32	세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44	서 ○ 수	남	2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45	서 ○ 자	여	48	식당종업원	대구광역시 동구	
46	서 ○ 경	여	26	학원강사	대구광역시 동구	
47	서 ○ 정	여	24	학원강사	대구광역시 동구	
48	신 ○ 희	여	40	보험설계사	대구광역시 동구	
49	안 ○ 희	여	23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50	엄 ○ 숙	여	34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51	엄 ○ 연	여	21	대학 2	대구광역시 동구	
52	오 ○ 영	여	23	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53	원 ○ 미	여	28	대학 1	대구광역시 동구	

번 호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주 소	비 고
54	원 ○ 용	여	74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55	유 ○ 수	남	28	관광업	대구광역시 동구	
56	유 ○ 희	남	70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57	윤 ○ 자	여	42	식당종업원	대구광역시 동구	
58	윤 ○ 정	여	18	대학입학	대구광역시 동구	
59	이 ○	남	29	회사원	대구광역시 동구	
60	이 ○ 숙	여	41	자영업	대구광역시 동구	
61	이 ○ 숙	여	28	대학강사	대구광역시 동구	
62	이 ○ 희	여	55	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63	이 ○ 희	여	53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64	이 ○ 우	남	68	부동산업	대구광역시 동구	
65	이 ○ 라	여	30	회사원	대구광역시 동구	
66	이 ○ 환	여	13	중학생	대구광역시 동구	
67	이 ○ 옥	여	51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68	이 ○ 경	여	41	회사원	대구광역시 동구	
69	이 ○ 숙	여	75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70	이 ○ 숙	여	33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71	이 ○ 영	여	25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72	이 ○ 영	남	56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73	이 ○ 희	여	50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74	임 ○ 선	여	39	운수업	대구광역시 동구	
75	장 ○ 성	남	34	공사직원	대구광역시 동구	
76	장 ○ 숙	여	35	보험설계사	대구광역시 동구	
77	장 ○ 경	여	19	대학 1	대구광역시 동구	
78	정 ○ 희	여	57	회사원	대구광역시 동구	
79	정 ○ 숙	여	34	가 사	대구광역시 동구	
80	정 ○ 희	여	20	대학 2	대구광역시 동구	
81	정 ○ 선	여	57	미화원	대구광역시 동구	

■ 附 錄

번 호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주 소	비 고
82	정 ○ 찬	남	22	대학 1	대구광역시 동구	
83	조 ○ 정	여	11	초등학생	대구광역시 동구	
84	지 ○ 윤	여	13	초등학생	대구광역시 동구	
85	차 ○ 석	남	72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86	채 ○ 수	남	70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87	최 ○ 자	여	61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88	최 ○ 남	여	56	자영업	대구광역시 동구	
89	최 ○ 식	남	73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90	한 ○ 임	여	18	대학입학	대구광역시 동구	
91	허 ○ 달	여	68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92	홍 ○ 진	여	61	무 직	대구광역시 동구	
93	황 ○ 미	여	27	방문교사	대구광역시 동구	
94	박 ○ 준	남	35	자영업	대구광역시 남구	
95	이 ○ 학	여	77	무 직	대구광역시 남구	
96	이 ○ 진	여	18	대학입학	대구광역시 남구	
97	정 ○ 준	남	35	공사직원	대구광역시 남구	
98	강 ○ 정	여	19	대학 1	대구광역시 북구	
99	김 ○ 자	여	50	미화원	대구광역시 북구	
100	김 ○ 식	남	52	일용직	대구광역시 북구	
101	박 ○ 목	남	71	무 직	대구광역시 북구	
102	우 ○ ○ 미	여	69	무 직	대구광역시 북구	
103	윤 ○ 은	여	23	대학원 1	대구광역시 북구	
104	이 ○ 윤	남	30	회사원	대구광역시 북구	
105	최 ○ 남	여	34	가 사	대구광역시 북구	
106	김 ○ 현	남	22	대학 2	대구광역시 수성구	
107	김 ○ 인	여	15	여고생	대구광역시 수성구	
108	김 ○ 희	여	23	대학졸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109	조 ○ 윤	남	50	세무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번 호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주 소	비 고
110	최 ○ 준	남	32	공사직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111	허 ○	남	27	대학졸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112	김 ○ 순	여	63	무 직	대구광역시 달서구	
113	노 ○ 준	남	31	대학졸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114	도 ○ 록	남	8	초등학생	대구광역시 달서구	
115	박 ○ 환	남	66	무 직	대구광역시 달서구	
116	이 ○ 자	여	62	무 직	대구광역시 달서구	
117	이 ○ 자	여	47	자영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118	이 ○ 우	남	55	무 직	대구광역시 달서구	
119	정 ○ 회	여	34	가 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120	구 ○ 출	여	39	식당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121	김 ○ 만	남	30	공사직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122	권 ○ 훈	남	20	대학 2	경상북도 상주시	
123	권 ○ 분	여	57	가 사	경상북도 상주시	
124	김 ○ 자	여	44	농 업	경상북도 상주시	
125	김 ○ 회	여	21	대학 3	경상북도 상주시	
126	박 ○ 영	여	35	식당종업원	경상북도 상주시	
127	박 ○ 대	남	55	농 업	경상북도 상주시	
128	이 ○ 영	여	18	대학 1	경상북도 상주시	
129	주 ○ 진	여	19	대학 1	경상북도 상주시	
130	한 ○ 자	여	61	무 직	경상북도 상주시	
131	김 ○	남	15	중학생	경상북도 영천시	
132	박 ○ 순	여	30	조리사	경상북도 영천시	
133	배 ○ 현	여	19	대학 2	경상북도 영천시	
134	정 ○ 혜	여	12	초등학생	경상북도 영천시	
135	정 ○ 현	여	26	대학 2	경상북도 영천시	
136	최 ○ 하	남	65	농 업	경상북도 영천시	
137	김 ○ 희	여	33	보험설계사	경상북도 경산시	

■ 附 錄

번 호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주 소	비 고
138	김 ○ 칠	남	46	버스기사	경상북도 경산시	
139	박 ○ 남	여	51	가 사	경상북도 경산시	
140	박 ○ 룰	남	31	미용사	경상북도 경산시	
141	박 ○ 영	여	12	초등학생	경상북도 경산시	
142	이 ○ 수	남	58	택송업	경상북도 경산시	
143	이 ○ 정	여	20	대학 2	경상북도 경산시	
144	정 ○ 진	여	22	대학 4	경상북도 경산시	
145	김 ○ 태	남	46	교 사	경상북도 안동시	
146	김 ○ 규	남	54	목 공	경상북도 안동시	
147	김 ○ 환	남	19	대학 1	경상북도 포항시	
148	김 ○ 진	여	21	대학졸업	경상북도 포항시	
149	방 ○ 휘	남	18	대학입학	경상북도 포항시	
150	손 ○ 찬	남	22	대학 2	경상북도 포항시	
151	박 ○ 영	여	36	가 사	경상북도 김천시	
152	손 ○ 원	남	24	대학 3	경상북도 김천시	
153	엄 ○ 정	여	28	미용사	경상북도 김천시	
154	전 ○ 진	여	6	무 직	경상북도 김천시	
155	정 ○ 영	여	26	회사원	경상북도 김천시	
156	허 ○ 영	여	34	가 사	경상북도 김천시	
157	박 ○ 진	여	16	여고생	경상북도 구미시	
158	신 ○ 정	여	25	학원강사	경상북도 구미시	
159	윤 ○ 자	여	42	학습지 강사	경상북도 구미시	
160	정 ○ 영	여	20	대학 2	경상북도 구미시	
161	박 ○ 환	남	66	농 업	경상북도 예천군	
162	이 ○ 금	여	64	가 사	경상북도 예천군	
163	최 ○ 우	남	65	무 직	경상북도 예천군	
164	박 ○ 은	여	21	대학 3	경상북도 의성군	
165	박 ○ 영	여	19	대학 1	경상북도 청도군	

번 호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주 소	비 고
166	주 ○ 주	남	27	무 직	경상북도 청도군	
167	이 ○ 영	여	17	여고생	경상북도 칠곡군	
168	이 ○ 립	여	21	대학 3	경상북도 문경군	
169	정 ○ 희	여	21	대학 3	경상북도 문경군	
170	강 ○ 영	여	18	회사원	충청남도 천안시	
171	김 ○ 현	남	22	대학 1	울산광역시 중구	
172	신 ○ 효	남	39	회사원	울산광역시 남구	
173	황 ○ 영	남	20	대학 1	울산광역시 울주군	
174	이 ○ 규	남	68	무 직	경상남도 마산시	
175	석 ○ 숙	여	19	대학졸업	경상남도 합천군	
176	손 ○ 호	남	23	대학 2	경상남도 밀양시	
177	김 ○ 순	여	70	무 직	서울특별시 강남구	
178	김 ○ 철	남	40	학원강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179	김 ○ 수	남	18	대학입학	서울특별시 강서구	
180	서 ○ 민	남	21	대학 1	서울특별시 강서구	
181	이 ○ 룡	남	29	회사원	서울특별시 중구	
182	김 ○ 석	남	21	대학 3	부산광역시 남구	
183	박 ○ 혜	여	23	대학 4	부산광역시 영도구	
184	최 ○ 경	여	21	대학 3	부산광역시 북구	
185	정 ○ 현	남	46	회사원	경기도 고양시	
186	천 ○ 수	남	23	대학졸업	강원도 춘천시	
187	○ ○ ○	-	-	-	-	신원확인불능
188	○ ○ ○	-	-	-	-	〃
189	○ ○ ○	-	-	-	-	〃
190	○ ○ ○	-	-	-	-	〃
191	○ ○ ○	-	-	-	-	〃
192	○ ○ ○	-	-	-	-	〃

各種書式

심 의 결 서

안 건	대구지하철화재사고 피해자(○○○) 보상금 지급안
주 문	피해자(○○○)와 합의한 아래 내용을 원안의결 한다.
의 결 내 용	<p><input type="checkbox"/> 2003. 2. 18. 대구지하철화재사고 피해자(부상자·사망자·물적피해자) 외 명과 대구광역시간에 합의를 통하여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 총액 : 금 원정(₩) • 법적보상금 : 금 원정(₩) • 특별위로금 : 금 원정(₩) ○ 보상금지급 심의조서 : 별첨
관 련 법 규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 제4조

2003. . . .

- 603 -

사망자 보상금 지급 심의조서

(단위 : 원)

[illegible]

(단위 : 원)

[illegible]

물적피해자 보상금 지급 심의조서

(단위 : 원)

[illegible]

<p>대구광역시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제 차)</p> <p>회 의 록</p>	
① 안 건	
② 일 시	
③ 장 소	
④ 참 석 위 원	
⑤ 회 의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⑥ 관 련 법 규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 제4조
<p>위 안전에 관한 우리위원회의 제 차 회의록을 작성하다.</p> <p>대구광역시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p>	

사망자 보상합의서

대구광역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망자유가족 대표_____ (이하 “을”이라 한다)는 '03. 2. 18 대구지하철참사로 사망한 고_____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갑”은 본 건 사망자에 대한 일체의 법적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대구시 검증사정인이 사정한 일금 _____ 원정(₩ _____)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기로 정히 합의한다.(상기 금액은 기 지급된 장례비 일금칠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2. “갑”은 제1호와 별도로 사망자 1인당 일금 _____ 원정(₩ _____)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을”에게 특별위로금(국민성금)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을 선 지급받은 자는 기 지급된 일금 _____ 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3. 이 합의서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을”은 이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자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향후 본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4. “을”은 이 사고에 관하여 향후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민법 제480조 제1항)을 “갑”에게 양도한다.
5. 손해배상금 수령을 위하여 “갑”에게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배상금 수령후 제3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나타나면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금 등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중 수령한 금액은 지체없이 “갑”에게 반납한다.
7. “갑”과 “을”은 이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대 구 광 역 시 장 (인)

"을" 고 의 유가족대표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상자 보상합의서

대구광역시(이하 “을” 이라 한다)과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상자대표(이하 “갑”)는 2003. 2. 18 대구중앙로 지하철 참사로 부상한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 은 영남손해사정인(박삼수)이 사정한 금액에 대하여 검증사정인(이연우)이 검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단, 손해배상금액 중 위자료기준은 향후 사망자의 위자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조정 지급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부상자에 대하여 특별성금이 적절히 지급 될 수 있도록 한다.
3. “갑”과 “을”은 본사고 관련 유해가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암과 경피증 등 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중앙부처 예산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치료비 지급 대상 질환과 각종 원인들의 기여 비율에 의한 지급 액수 결정 등은 대구시에서 구성한 가칭 「대구광역시 난치성질환치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갑”과 “을”은 3항의 원만한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상호 협조하여 실시한다.
5. “갑”은 모든 부상자가 이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한다.
6. “갑”과 부상자 및 그 가족은 이 사고에 관하여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구상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민법 제480조 제1항)행사를 “을”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에게 구상청구 등 기타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
7. “갑”과 “을”은 이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3. 6 . 26 .

“갑”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대표 이 동 우 (인)

“을” 대 구 광 역 시 장 조 해 념 (인)

청 구 서

대구광역시장 귀하

청구인은 2003. 2. 18일 대구지하철참사 사고와 관련한 사망자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003년 월 일

청구 금액	손해배상금 : 금 (₩) 특별위로금 : 금 (₩)	합계	금 (₩)
청구 및 수령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 관계 : 고 의 (☎) ※ 청구 및 수령인이 2인 이상으로 대표자나 변호사에게 지급청구를 위임 할 때에는 별지에 기재 - 뒷면		
사망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지급 방법	계좌입금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첨부 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2. 인감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계좌입금 통장 사본 등		

보 상 금 수 령 위 임 장	
연번	청 구 인 의 표 시
1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 관계 :
2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 관계 :
3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 관계 :
4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 관계 :
5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 관계 :

첨부서류 1. 호적등본 및 사망자의 제적등본

2. 인감증명서 1부

1. 위 청구인은 청구 및 수령인_____에게 사망자보상금의 지급청구 및 수령을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함.
2. 위 청구인은 대리인 변호사_____(인)에게 사망자보상 결정금액을 지급·청구토록 위임하고 위와같이 날인함.
3. 민법상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으로 한다.

사망자 손해사정업무 협약서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참사 사망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 손해사정대표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000유가족대표단 소속 사망자의 피해조사 및 손해배상액 사정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협약의 내용) ①“갑”은 대구지하철참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에게 의뢰한다.

1. 사망자의 손해에 대한 조사업무
2. 사망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사정업무
3. 제2호의 손해사정내용과 검증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갑”이 선정한 검증손해사정인과 보완·정정(이하 “보정”이라 한다)하여 손해액을 결정한다.
4.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제반업무

제2조(업무의 처리) ①“을”은 위탁받은 손해사정업무를 지체없이 관련법률에 따른 손해사정기준으로 관련자들과 협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요청하는 관련자료를 관련자 및 관련기관 등과 협조하여 지체없이 “을”에게 제공한다.

제3조(손해사정서의 제출) ①“을”은 신속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 협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자 개인별 예상되는 추정 손해사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추정 손해사정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자 개인별 손해액을 사정한 제반 증빙서류를 완비한 총괄 손해사정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사망자의 인적사항 및 직업, 소득내용 조사
3. 손해배상금 사정
4.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기간내에 추정 손해사정내역 및 총괄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출한 총괄 손해사정서에 대해 “갑”은 “갑”이 별도로 선정한 검증손해사정인에게 손해사정 내용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되, 두 금액간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측 손해사정인간의 손해사정서의 보정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④이 협약에 의한 손해액의 사정은 사망자손해배상 협상에 따른 합의내용과 관련법 및 민사판례에 의한다.

⑤“을”은 제1항의 손해사정서에 손해조사한 각 손해조사자와 손해사정인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조(검증업무의 협조) ①“을”은 “갑”으로부터 별도로 선정한 검증손해사정인의 검증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출된 사망자 개인별 손해사정서와 손해사정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선임된 검증손해사정인의 검증결과, 손해사정서의 보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사정의 보수) ①“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을”이 의뢰받은 업무에 대해 “갑”에게 최종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갑”이 별도로 선정한 검증손해사정인의 검증이 완료된 후, 사망자 개인별 검증사정 금액의 총 합계액의 2.85%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 보수의 지급은 “을”이 “갑”에게 제출한 사망자 개인별 최종 손해사정서에 대해 “갑”이 선정한 검증손해사정인의 검증이 완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손해사정 보수의 지급거절)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①“을”이 작성한 손해사정서가 적법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갑”이 별도로 선임한 검증손해사정인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7조(중복된 손해사정서 및 유가족에 대한 처리) “을”이 작성한 손해사정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검증사정 중이거나 완료 후에라도 해당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을”에게 위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내역을 “을”에게 통보하고 당해 손해사정서는 검증사정 및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을”이외의 다른 유가족대표단이 선임한 손해사정인의 사정서와 중복될 때
2. “을”이외의 다른 유가족대표단이 선임한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서의 위임 유가족 명단과 중복될 때
3. 대구시에 개별사정을 신청한 유가족 명단과 중복될 때

제8조(업무의 양도금지) “을”은 이 협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을”은 손해조사 및 손해배상액 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기간) 이 협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때로부터 “갑”이 손해사정 보수를 지급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제12조(재판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조문해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 7. 18

갑 : 대 구 광 역 시 장 조 해 념

을 : ○○○손해사정 대 표 ○ ○ ○

희생자 검증손해사정업무 협약서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사망자)에 대한 손해사정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손해사정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1조(“갑”의 의무)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약정보수의 지급
2. 공정한 검증손해사정 업무의 보장
3. 검증손해사정 업무에 필요한 개별 희생자에 대한 행정정보의 제공 및 관련기관 협조요청

제2조(“을”의 의무)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손해사정업무를 공정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통상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객관적이고 형평성을 유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희생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별도의 검증손해사정 기준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3. “을”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절차에 따라 각 희생자별로 검증의견서(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배상(보상)심의회에 참석하여 검증손해사정 업무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보상행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업무절차) “을”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측 선임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 일정 에 따라 검증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수행한 다음 희생자별 손해사정 조사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을”은 “갑”에게 제출된 유족측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추정 손해사정서를 검토 하여 전 1항에서 조사된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희생자별로 1차 검증 의견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을”은 “갑”이 유족측 손해사정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전 2항의 내용과 비교 검토한 다음, 희생자별로 손해사정서에 대한 보정 요구할 내용이 포함된 2차 검증의견서를 작성하여 유족측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을”이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갑”이나 유족측에서 소송, 조정신청 등의 법률구조행위를 할 경우에는 “을”은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목적에 맞게 별도로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족측에서 “갑”에게 검증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각 건별 검증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

1.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는 희생자 배상금 총결정액의 1.48%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갑”은 “을”이 최종 검증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다음 손해배상 결정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이 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수를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이 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계약이 중단된 경우에도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검증손해사정을 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
2. “을”이 제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갑”이 제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제1호 또는 제2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갑”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손해배상) “을”은 손해조사 및 검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검증손해사정을 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9조(기 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조문해석은 대한민국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 5. 30

갑 : 대 구 광 역 시 장 조 해 념

을 : ○○○ 손해사정 대 표 ○ ○ ○

부상자 손해조사 및 손해액 사정업무에 대한 협약서

대구광역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남손해사정사무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피해자(부상자)의 손해조사 및 손해액 사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내용) ① “갑”은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에게 의뢰한다.

1. 당해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개별적 신상 재확인
2.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액 사정업무
3. 제2호의 손해사정액 사정내용과 검증결과가 상이한 경우 검증손해사정인과 합의하여 손해액 결정
4.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제①항에 관련된 자료를 관련자 및 관련기관 등과 협조하여 즉시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업무의 처리) “을”은 “갑”으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자 등과 협 조하여 의뢰받은 업무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손해액 사정업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개인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개인별 손해액 사정을 위한 제반 증빙서류를 완비한 총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보고서 제출기한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손해사정 목적의 현황 및 손해 내용
3. 손해액 사정
4. 기타 손해사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

제4조(보수)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을”이 의뢰받는 업무를 완료하고 “갑”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기준”(손보 540-16565, 1993.12.23 별표)을 준용하여 손해사정금액 총합계액의 4.5%로 한다. 이 경우 당해사고의 특성상 관계전문인의 활용 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지급은 “을”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사정후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업무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손해배상) “을”은 손해조사 및 손해액 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갑”이 이 계약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지연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3. 기타 “갑”의 판단으로 “을”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9조(재판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조문해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년 3월 31일

갑 : 대 구 광 역 시 장 조 해 념

을 : ○○○ 손해사정 대 표 ○ ○ ○

부상자 손해조사 및 손해액 검증업무에 대한 협약서

대구광역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효성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무소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피해자(부상자)의 손해조사 및 손해액 사정(검증)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내용) ① “갑”은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에게 의뢰한다.

1. 당해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개별적 신상 재확인
 2. 손해사정인이 제출한 각 개인별 손해사정 보고서 검증
 3. 제2호의 손해사정보고서 내용과 검증결과가 상이한 경우 손해사정인과 합의하여 손해액 결정
 4. 기타 손해사정액 검증에 필요한 사항
- ② “갑”은 제①항에 관련된 자료를 관련자 및 관련기관 등과 협조하여 즉시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업무의 처리) “을”은 “갑”으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자 등과 협 조하여 의뢰받은 업무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손해액 사정업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개인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개인별 손해액 사정을 위한 제반 증빙서류를 완비한 총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보고서 제출기한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손해사정 목적의 현황 및 손해 내용
 3. 손해액 사정(검증)
 4. 기타 손해사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
- ② 이 계약에 의한 손해액의 사정은 관련법의 배상기준에 의한다.

제4조(보수)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을”이 의뢰받는 업무를 완료하고 “갑”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선임손해사정인 [별표1] 다. 3종을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지급은 “을”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갑”이 접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업무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손해배상) “을”은 손해조사 및 손해액 사정(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갑”이 이 협약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지연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3. 기타 “갑”의 판단으로 “을”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9조(재판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조문해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년 3월 31일

갑 : 대 구 광 역 시 장 조 해 녕

을 : ○○○ 손해사정 대 표 ○ ○ ○

부상자 특별위로금(국민성금) 보상합의서

대구광역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상자_____ (이하 “을”이라 한다) 는 2003. 2. 18 대구광역시지하철참사 보상관련 특별위로금(국민성금) 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특별위로금 배분은 사망자 1인당 지급한 특별위로금 일금 221백만원을 기준으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부상의 정도는 맥브라이드식 방법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일금 원)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일금 원)중 부상자가 결정한 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기준의 특별위로금(일금 원)에 합의한다.
2. “갑”은 합의한 금액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을”에게 특별위로금(국민성금)으로 지급한다.
3. 이 합의서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수령한 “을”은 지하철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 자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향후 본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4. “을”은 본 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민법 제480조제1항)을 “갑”에게 양도한다.
5. 특별위로금 수령을 위하여 “갑”에게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보상금 수령후 제3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나타나면,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갑”과 “을”은 보상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 . .

“갑” 대 구 광 역 시 장 조 해 녕 (인)
 “을” 지하철참사 부상자 (법정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원확인 사망자 장례절차 등 안내

실종자가 사망확인(DNA검사 등)이 되었을 경우 장례지원 등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사망확인이 될 경우

- 국과수로부터 확인된 시신을 인계받아 병원에 안치하시는 경우, 사고 대책본부 유족대책반(☎ 053) 429-2918 ~ 22)에서 즉시 안내공무원을 해당병원에 파견하여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장례지원(시 사고대책본부)

- 합동분향소에 안치할 영정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 유가족께서 합동분향소 영정안치를 원하실 경우 사진 1매를 (규격에 관계없음) 사고대책본부 유족대책반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입관시 보죽용(시신고정) 현옷(면종류)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1인당 장례경비 700만원(장제비 600, 위로금100)을 장례일정 확정시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하여 드립니다.
- 화장장 및 공설묘지, 납골당 이용시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 화 장 장 : 수성구 고모동 (대구구치소 뒷편) ☎ 053-743-5396
 - 시립납골당 : 칠곡군 지천면 시립공원묘지 내 ☎ 053-312-0348
 - 공 설 묘 지
 - 시립공원묘지 : 칠곡군 지천면 (☎ 053-312-0348)
 - 동명공동묘지 : 칠곡군 동명면 (☎ 054-976-8254)
- 장의차량은 정상가격의 6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조합과 합의)
- 조사용품(위패, 조의록, 식기류 등 소모품) 제공(☎유족대책반 429-2918~22)

3. 매장, 화장, 납골당 이용시 필요한 서류

- 무료사용확인서 1부, 상주도장(화장시 화장신고필증 추가-동사무소 발행)
- 확인서는 유족대책반에 비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고대책본부 유족대책반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失蹤者 確認關聯 書式】

실종자 신고서

☐ 실종자 인적사항

○성 명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휴대폰 번호 :

○특 이 사 항

－ 연락두절 일시 :

－ 실종당시 소지품 등

－ 기타 신체적 특징

· 키 : cm

· 흉터 등

☐ 신고자 인적사항

○성 명 : (실종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자택) : (휴대폰 :)

실종자 휴대폰 통화위치 및 시간확인 신청서

☐ 실종자

○성 명 : (남, 여)

○휴대폰 번호 :

☐ 신고자

○성 명 : (실종자와의 관계 :)

○연락처(자택) : (휴대폰 :)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차 회의록 및 의결

< 의 결 내 용 >	
① 심 사 건	사건번호 ○○번 ○○○
② 주 문	인정사망 ○○○한다
③ 이 유	조사자료 심사 후 위원표결
④ 증빙자료	증빙서류철 및 붙임 회의록
⑤ 근거법조	호적법 제90조
<p>위 심사건에 대하여 위원 투표결과</p> <p>재적위원 ○○명 중 인정 ○명, 판단유보 ○명, 불인정 ○명으로 결정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3. . .</p> <p>붙임 : 서명록 1부 및 투표용지 ○○매</p>	

奉仕活動 體驗手記

奉仕活動 體驗手記

“아빠, 뜨거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한울인봉사단 단장 김용화

칠곡같은 어둠속에서 매캐한 유독가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졌을 피해자 시신과 그 영정 앞에서 유가족들의 통곡 소리에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음은 우리 모두 부끄럽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들과 그 유가족 및 대구시민과 함께 함입니다.

큰 고통과 불행속에서 그래도 작은 힘이 되었던 것은 각종 자연재해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분연(憤然)히 일어나 자발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많은 자원봉사단체와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한울인봉사단원들의 봉사정신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2월 18일,

전국에서 한울인봉사단원들의 전화문의와 서신을 통한 안타까움과 애도의 뜻이 답지하였고, 우리 홈페이지(www.hanwoolin.com)를 통하여 많은 애도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울인봉사단의 창립자이신 『한울 김준원』 님께서는 대구지하철참사현장을 방문하시어 깊은 애도를 표하시면서 “한울인봉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주셨고, 이에 한울인봉사단에서는 전국적으로 700여명의 봉사단원들의 뜻을 결집하여 “한방의료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한울인봉사단원들은 합동분향소 참배 및 재난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대구시민회관 합동분향소와 참사 현장인 중앙로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17일(21일간)까지 전국에서 한울인 한의사(1일 2~3명)

50여명, 자원봉사자(1일 5~7명) 650여명은 유가족 500여명에게 한약재 35제, 침, 파스, 천왕보심단, 타이핑요법, 경옥고 30단지 등 1천여만원 상당의 의료 물품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정성어린 따뜻한 마음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울인 한의사들과 봉사단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대구한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많은 봉사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YTN, MBC, KBS, 영남일보, 유가족대표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한울인봉사단 활동소개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시민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울인봉사단 조창숙님의 대구지하철 재난현장과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보내온 시를 올려드립니다.

시대의 아픔

한울인봉사단 조창숙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꽃다운 흔들이어
하얀 국화 향에 숨막힌 채 빨갭게 웃고 있는
이제는 사진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청춘이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속의 터질 듯 가득한 이기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렇게 달리는 지하철 어느 공간
무작정 터져 버리는 시한폭탄이 되어 너를 그렇게 보내고야 말았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인생역전의 로또복권 사진도
풍만한 가슴을 내민 여인의 광고사진도
검은 돌무덤이 되어 말이 없고
설마가 부른 안일한 마음들이
이렇게 불덩이 되어 폭염 속에 산채로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구나
길게 늘어뜨려진 저 공중전화는
“엄마 숨이 막혀요, 엄마 사랑해요”
울부짖었던 마지막 노래가 되어 아직도 흔들리고 있고
살아남은 자여
살아남은 자여
2월 18일,
그 잔인한 달력 위에
영원히 멈춰버린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그 곳에 가면 천사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 이순필

2003년 2월 18일 화요일 아침 9시 53분.

꿈인가 싶었다. 설마 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지난 95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를 자연스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은 비애를 감추지 못해,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숨통을 죄이던 유독가스의 매캐한 내음이 가시지 않은 지하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 아픔을 함께 하는 시민들의 국화꽃 행렬도 연일 그칠 줄 몰랐다. 그 슬픔을 아는지 하늘까지 비를 내려 슬픔을 더 해주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비단 나만의 마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정성껏 성금을 모으고,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유족들이 마음놓고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급식봉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시민회관 광장 서편에 ‘ㄱ’자로 꺾여진 캠프가 설치되었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복음협회 자원봉사단’ 플래카드가 붙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후원하는 ‘새생명복지회’에서도 함께 봉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대구 지역 17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매일 24시간 풀가동으로 언제 어느때나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일 다른 메뉴의 식사를 준비해서 유족들이 입맛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드럼통 반 만한 크기의 국통에 물을 끓이고 정성껏 마련한 재료를 넣어 오징어새우해물탕, 곰탕, 시레기 된장국, 북어국, 갈비탕, 조개탕 등등 매일 종류를 바꾸어가며 맛있는 국을 끓였고, 2개의 커다란 밥솥에는 고슬고슬 맛있

는 밥이 지어졌다. 쌀쌀한 날씨에 입맛이 없을 사람들을 생각해 따끈한 국물이 시원하게 우려난 어묵을 준비해 놓고 맛깔스런 반찬도 서너가지 매일매일 바뀌서 갖춰놓고, 방울 토마토, 딸기, 귤, 달걀, 사과와 같은 과일들도 식탁 위에 먹음직스럽게 진열해 놓고, 커피, 녹차, 마차, 한차 등의 차종류도 기호에 따라 마시도록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수고와 손길이 그들의 상처를 조금이나 아물게 하는 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족들을 기다렸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었노라 고백하며 눈물과 후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낼 수 밖에 없는 형제자매를 혹은 다정했던 친구를 잃어버린 유족들은 식욕까지 상실했는지 처음 얼마간은 발길이 뜸했다. 식음까지 전폐한 채 슬픔을 떨칠 줄 모르는 유가족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어주고 싶은 봉사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나마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얼굴들도 차갑기만 했다.

그러나 봉사를 시작한지도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들의 진심을 알았는지 언젠가 부터는 “또 왔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국밥이 맛있어서 또 왔어요” 하며 먼저 인사를 건네는 유가족들.

식구들은 얼음장같이 차갑기만 하던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과 미소를 되찾은 모습에 오히려 고마웠고 작고 보잘것 없지만 진정 아픔을 함께 하고픈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생각에 오히려 다행스러워 했다.

“입맛이 없어도 먹고 힘을 내야 자식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어서 드세요” 하며 그저 물만 마시고 가겠다는 유족을 붙잡아 손을 꼭 잡으면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치 내 살불이가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돌아간 듯 가슴이 아팠다.

어떤 유족들은 눈물로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늘 미소와 친절로 대해 주는 우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표현하고 싶어했다. 우리들은 웃어도 웃는 얼굴이 아닌 그들에게 끼니 거르지 말고 꼭 다시 와서 식사하고

힘내시라고 말하면서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른 봉사자가 밥을 그릇에 소담스럽게 담아내 오면 국을 정성스럽게 담아 주는 일, 처음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그 일도 유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힘내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소중하게 느껴졌고,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에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에 수백번을 커다란 국자로 국을 푸고 또 퍼도 신명나기만 했다.

그리고 설 시간도 없이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식구들의 모습에 나 스스로도 큰 감동을 받고 있었다. 남을 위해 내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룬다는데 이제껏 이렇게 즐거운 일을 마음껏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일로 여겨지는 봉사현장.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는 것, 대학교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종일을 서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어느새 우리들의 봉사현장은 ‘미소와 친절’과 ‘정성과 사랑’으로 유족들과 관계자들간에 입소문이 났고 그 때문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현장을 찾았다. 각종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서로 취재를 하겠노라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어느 방송국 기자는 “원래 유족들을 취재하러 갔었는데 그 곳 유족들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 봉사현장에서 이미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으니 취재를 하려면 거기 가서 하라”고 말해 이 곳을 취재하러 왔노라며 취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유족들과 경찰들 그리고 시청의 관계자들이 서로 불편한 심사로 반목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봉사현장에서 만나는 그들은 모두 우리의 이웃이었고 한사람의 아버지였고 아들이었고 친구였고 동생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현장. 신분과 종교의 벽을 허물고 한 울타리가 되어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그 동안 우리 캠프를 경계하던 다른 단체의 자원 봉사자들도 소문 듣고 왔노라며 식사를 맛있게 하고는 ‘진정한 봉사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기까지 한다. “자원봉사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

이지. 참 잘한다. 서비스 최고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차마 우리 스스로 열거하기에도 너무 많은 찬사에 힘을 얻은 봉사자들은 지칠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다.

“처음에는 동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정말 당신들이 보여준 관심과 사랑에 감사한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이 곳이 사라졌을까봐 걱정이다”라며 언제까지 함께 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나도 이 일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이 곳 사람들처럼 봉사하며 살겠다”며 다짐을 하는 사람, 몇 십년 드나든 단골이나 되듯 “이 일이 끝나고 돌아가면 이 곳이 그리울 것 같다. 이 곳에 오면 고향에 온 느낌이 든다. 여러분들이 그리우면 어떻게 할까요?”하며 울먹이는 사람. 처음과 달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다가와 따뜻한 말로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봉사자들은 더 큰 도움과 위로를 주지 못하고 그 큰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줄 수 없는 현실만이 안타까울 뿐이었고, 우리가 준비한 작은 정성이 차갑던 마음을 녹여주고 쓰라렸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줄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언젠가 부터 그들은 우리를 일컬어 ‘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유족들간에는 ‘그 곳에 가면 천사가 있다’며, ‘천사들이 주는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밖에 대접할 것 없는 우리들을 그토록 아낌없는 찬사와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 이 일이 언제쯤 마무리되어 우리들도 우리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지 모르지만 기댈 곳 하나 없는 곳에서 그들이 맘껏 등을 기대고 있을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우리 천사들의 국밥집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끝나는 그 날까지 한결같이 슬픈 영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제발 다시는 우리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할 만큼 불행한 일이 이 곳 대구에서 생겨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 너무나 간절하다.

봄햇살 한줌으로 피어나는 목련처럼

하나님의 교회 김성희

“차라리 내가 그 곳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재가 되었더라면, 너를 잃고 내가 어찌 산단 말이나, 네가 보고 싶어서 눈에 밝혀서 내가 어찌 산단 말이나.....”

인터넷 추모 게시판을 열어보면 슬픈 내용들이 참 많다. 부모를 잃은 자식의 아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찢어진 가슴. 형제나 자매를 잃어버린 허전하고 슬픈 마음, 그 가슴들을 열어보면 전소된 전동차의 재보다 더 새까만 재들이 들어앉아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 같았다.

지하철사고대책본부에서 처음 급식자원봉사를 했을 때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는 유가족들이 봉사캠프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갈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었다. 제발 우리의 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맛있게만 먹고 힘을 내어준다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급식봉사를 시작하던 첫 날, 처음 시민회관내에 마련된 유가족실을 찾아가 보았을 때 유가족들의 눈빛은 너무도 황량했다. 마치 사막의 모래처럼, 오아시스조차 없는 삭막하기 그지없는 모래벌판을 동무하나 없이 횡단하는 낙타의 눈빛처럼 건조하기만 했다.

한 마디 위로조차 건네기가 두려운 곳, 그곳이 바로 유가족 대기실의 풍경이었다. ‘식사하러 오세요’ 라는 말조차 건네기가 서먹하기만 했었는데.....

“아유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네. 오늘 국밥 맛있던데, 이따가 또 식사하러 갈게요.”

오늘은 유가족 한분이 나를 알아보고는 아는 체 한다. 처음 유가족 대기실에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이다. “하나님의 교회” 로고가 새겨진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가면 유가족들은 그들이 먼저 따뜻한

한 마디 말을 건네줌으로써 익숙하지 않은 서먹함을 씻어준다.

처음 봉사캠프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신 분들은 다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적극 권했다고 한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었던 까닭일 것이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이 그랬다. 여느 단체처럼 의식적으로 치루는 행사가 아닌 정말 아프고 쓰린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는데 힘을 보태 줄 수 있는 진정한 봉사를 하자고. 그래서 모든 봉사자들은 늘 한결같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고 한끼의 식사라도 소홀하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그렇지 않아도 아프고 쓰린 그들의 마음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였을까. 친절과 서비스가 최고라는 찬사를 달고 보기 드문 봉사현장이라고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유가족은 물론이고 시 관계자들, 유가족 위로 차 방문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다른 단체의 봉사자들까지 와서는 국밥 한 그릇에 칭찬 몇 마디를 잊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되면 봉사자들은 늘 시민회관 구석에 모여서 내일의 메뉴를 걱정하고 유가족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자며 다짐했었다.

늘 깨끗하고 청결한 봉사현장을 유지하려고 애썼고 과일 하나를 내더라도 상한 것들은 식탁에 올려놓지 않고 봉사자들이 해결했다. 남은 반찬들은 아깝더라도 남김없이 버리고 행여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면서 밥과 국을 마련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은 잔뜩 긴장이 된 얼굴들이었다. 분리수거도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매일 점검을 나오는 식약청의 한 관리자는 다른 봉사단체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분리수거법을 배워 오라”며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더러는 와서 함께 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청년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며 물어오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우리 봉사자들이 힘들까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자신이 배운 마술을 선보이며 봉사자들이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급식 자원봉사를 시작한지 두달이 되어가니까 그 많던 자원봉사 단체들은 이미 대부분 해체되었고 시민회관에 남아 있는 봉사단체는 불과 서너 개.

“여러분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곳에 오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끝까지 있어 주세요.”

“매일 아침 이 곳에 와 보고 캠프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하루일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이 사라진다면 살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언제까지라도 함께 해 주고 싶은 마음 간절했다. 비록 육신은 피로하고 고단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부녀자들은 두 달 가까이 24시간을 봉사를 했지만 지친 기색이 없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이 들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봉사현장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 유족들의 밝은 모습 하나에 힘이 솟았다. 내가 대접한 한 그릇의 국밥이 그들에게 적잖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구나 처음 느껴보는 행복한 감정이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더니 정말 그 말이 진실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이런 만족감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아둥바둥 살았던 것이 반성이 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이미 배가되고 있었다. 떡을 준비하려고 떡집을 들르면 봉사에 보태라고 떡을 한아름 더 만들어주고, 반찬을 준비하려고 반찬가게에 들르면 봉사에 보태라고 반찬까지 한아름을 내놓는다. 또 과일가게에서는 과일을 덩으로 주거나 봉사에 쓰라고 많이 주고 국밥재료를 사러가

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만 입고 가면 알아서 듬뿍 준다.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된 봉사현장. 그곳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

어서 빨리 지하철 참사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은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빨리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인정받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들의 다짐처럼 그들도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며 살 수 있었으면.....

“국밥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끼니를 제대로 갖춰먹지 못한 유가족 몇몇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파끈한 어묵이나 달걀 같은 간단한 먹거리를 찾아 하나님의 교회 봉사캠프를 찾아왔다.

“벌써 봄입니다. 목련꽃도 많이 피었던데.....”

식사를 하다말고 전해주는 봄의 소식, 봉사현장을 오가느라 이미 봄이 온 줄도, 이미 목련이 흐트러지게 핀 것도 몰랐었다. 어느 누군가가 아프건 말건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잊지 않고 찾아오는 법이다. 따뜻한 봄햇살 하나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봄의 꽃들. 그 중에 가장 먼저 봄햇살을 받으며 피어오르는 목련.

그리고 보니 대구의 시화가 바로 목련이 아닌가.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 속에서도 목련은 햇살 한 줌만 있으면 너끈히 피어난다.

봄햇살 한 줌만 있으면 피어나는 목련처럼 지하철 참사로 아픔을 겪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으로 चु고 괴로웠던 혹독한 겨울을 잊고 따뜻한 봄을 맞았으면 좋겠다.

지하철참사 부상자 및 유가족 심리상담을 하면서

카운피아 닷 컴(유가족심리상담) 정상문

전직 교도관인 나는,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질러 참사가 났다는 보도에 혹시 전과자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며, 범인의 신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우울증 환자라고 했을 때 내심 부끄러움마저 느껴졌다.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나는 이게 바로 상담인이 제 구실을 못하게 한 이 사회의 자업자득이라고 여겼기에 억울하기도 했다. 지난 95년 상인동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폭발 사고 때 유족대표의 하소가 떠올랐다. 그 엄청난 충격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잊으려고 하는 몸부림은 모름지기 술과 약물로 길들여져 곤란한 사람이 많다는데 의사들은 무엇을 하며 상담자들은 왜 방관만 했던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다른 봉사단체의 '심리상담봉사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잘한 일이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럴 때 자원봉사로써 상담의 필요성과 효능을 보여주고 인정받을 기회이며 책무요 사명이다.

카운피아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상담인들이 손을 맞잡고 전국의 뜻 있는 상담인들이 후원을 하는 범 심리상담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두가 대학강의나 연구실 운영 등 각자의 할 일로 바빠서 업무를 영역별로 분담하고 총괄과 연계를 위하여 누군가가 매일 나와서 봉사를 해야 했기에 이 일을 내가 맡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나는 하던 일을 잠시 접고 상담현장 지킴이가 되었다.

당장 급한 과제는 충격과 분노, 절망, 우울, 공포, 불안, 죄책감, 슬픔, 피로와 무기력, 걱정, 악몽, 상실감, 불신, 혼란 등등 심리적 응급처치를 위한 위기상담이었다.

곧바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위기상담 연구팀을 초청하여 특강을 받고, 교

수진을 모시고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병상 상담을 시도했으나, 병원측에서 면회가 곤란하다고 하여 상담을 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상담의 현주소임을 실감하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부산팀은 내려갔다.

현장실습을 하지 못한 우리는 ‘위기상담 가이드라인’이란 유인물만 가지고 시민회관과 중앙로역으로 다니면서,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안내문을 뿌리며, 정보제공과 인간관계 및 연락망 형성에 주력하였다.

위기상황을 함께 느끼고 어려움을 같이하는 심정으로 삼가 다가가는 상담인을 한마디로 무참하게 무안을 주어 거절하기가 일수이고, 어쩌다 말을 건네면 원망이나 하소연을 퍼붓다시피 했다. 아마 구경 삼아 조롱한다고 여기거나, 뭔가를 노리고 하는 것이라며 억측하고 적대시하는 듯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정작 상담이 필요한 분은 바로 이들의 이런 심리증상이기에, 원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상담자의 사명이요 이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상담의 윤리이다.

한결 같은 자리 지킴과 메스컴의 중재로 서먹하던 사이가 점차 낮익고 말문이 열렸다. 많이 힘드시지요.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억지로라도 잡아 보려 했다. 사람마다 사연과 형편이 다르며, 힘들어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상담 요청에 전문가가 방문상담을 하고 관련 유인물을 만들어 돌려 우선 주위에서 도울 수 있게 했다. 나중에 가족치료를 따로 실시하겠지만 힘드는 중에도 누구를 돕는다는 사명이 주어질 때 스스로를 추스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특히 염려되는 점은 심각한 외상성 스트레스 증세와 우울증세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시하여, 스트레스 검사결과 느낌이나 생각이 병이 되어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집안 일이 걱정이 되나 집에 가기가 싫다는 이들, 이웃도 만나기 싫고, 집안 곳곳 빈자리가 눈에 밟히는 이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맥이 풀려 온몸이

아프고 속이 갑갑한 이들, 불안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들, 모두가 야속하고 섭섭한 이들, 술이나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들, 이들을 위한 약물상담과 각종 심리치료를 전문가들이 직접 분담하여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가족상담도 겸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문제는 어떻게 이들을 상담자리에 불러낼 것인가 이다. 정작 문제가 있는 이는 상담을 회피하니 옆에서 살펴 인도해 주기 당부한다. 특히 아동이 성격이 변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줄거나 늘면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미 잃은 것 말고 가족도 가정도 이웃도 친척도 자신도 잃을 수 있다. 잃은 걸 보상하고 더욱 보람되고 값진 삶을 누리도록 상담이 보장할 것이다. 인생은 어려움 없이 사는 것보다 어려움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지하철 참사 자원봉사활동을 마치면서

대전시 대덕구 와동 정진국
(대전보건대 겸임교수 겸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먼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대구 지하철참사 고인들에게 또 이 사회를 책임지는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고인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진심으로 빕니다.

이 글을 쓰기 전 앞으로는 이런 대형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가신 분들에게 마음의 약조를 하면서,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자기가 맡은 책무를 성실히 다하는 원숙한 국민의 자세로 임하자고 감히 역설합니다.

언뜻 보면 한 명의 실수와 방심속에서 대형 사고를 맞이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의 원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이렇게 큰 사고에 희생자가 많았는데, 보도를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내 직업이 특수한 전문장례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수가 아닌가. 그래서 나의 현장출동에 대한 본심이 발로된 것은 18일 오후 늦은 시각이었다.

아비규환의 대구 시민회관 사고대책본부에 들어선 순간, 아!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고를 주시는 겁니까? 하는 원망을 그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콕 막히는 가슴을 안고 우선 본부장한테 인사와 더불어 자원봉사 할 내역을 밝혔다.

대전보건대학 장례지도과 교수로서 학생들과 함께 장례지도 분야에 자원봉사가 가능한지와, 내가 운영하는 “마정천도 장의버스” 지원을 비롯한 장례절차 봉사, 그리고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봉사를 하였다.

장기간 주야 고된 업무에도 투철한 봉사의 마음자세와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고대책본부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구시청 관계 공무원들의 자

세에 감명을 받았고,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도 부드럽게 해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대구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신원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장례시 경험없는 직원 1~2명 파견으로 몇몇 빈소를 지키는 것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며” 울부짖는 유족들의 형상을 지울 수 가 없다.

장례를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이번 자원봉사를 통하여 집단 사망시에 대처하는 방법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열심히 참가해준 우리 대전 보건의대 장례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 중구 의회 의원으로서 원칙적인 점검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각종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게을리 대처하고 있지는 않나 하고 나를 점검해 본다.

끝으로 어느 유가족 한 분의 슬퍼하던 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보! 당신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황망히 떠나 버렸소. 어린 민수는 왜 데려갔소. 가는 길이 외로울까봐?

장모님까지 대동했구려. 왜.왜.왜 나는 데려가지 않았소.

그 무서운 불기둥 속에서 온몸이 타들어 가면서 얼마나 나를 불렀겠소.

여보!!!!

지금도 절규하는 민수 아빠의 목소리가 생생히 내 귓전을 때린다.

대구지하철참사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를 쓰면서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에 분노와 슬픔을 삭일 수 가 없다.

아픔과 슬픔을 잊을 수 없는 2월 18일

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 부회장 박영자

지난 2월 18일 비상연락을 받고 지하철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10분 벌써 노란 가운이 한눈에 들어온다. 재해구호 훈련이 평소에 잘 되어 있어 우리 봉사원은 늦어도 4시간 정도면 급식준비까지 모든 것이 완료된다.

사고현장인 중앙로역 차도에는 시민, 보도진, 구급차, 소방차의 붉은 물결이 가득하였으며, 중앙로역에서 반월당까지는 검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 희생자 시신들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곳은 일 마다 앓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봉사원들은 협동하면 못할 것이 없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픈 맘을 달래가면서

식사가 제공 될 때까지 따뜻한 차와 라면부터 준비했다. 주변의 상가에서도 필요한 생필품을 빌려왔다.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

구조작업으로 새까만 얼굴에 눈만 보이는 소방관 아저씨가, “아주머니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웃는다. 너무 경황이 없어 젓가락을 준다는게 일회용 커피팩을 두개씩 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관들의 들것에 실려 나오는 부상자 수는 늘어나고, 부상자들이 한 두명씩 지하철역 입구를 빠져 나오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나는 쟁반에 라면을 받쳐들고 대구은행과 중앙로역에서 반월당까지 수십 차례를 오갔다. 대기 중인 소방관, 구급요원 등 현장에서 구조작업에 한창인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다.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들을 생각하면 뭐가 고생이라. 하루빨리 시신을 찾고, 수습해야지 하는 맘에 피곤함도 모르고 새벽 1시가 되어서 집으로 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특히 이번 참사에서 더 슬펐던 것은 내가 최근 가족과 이별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이 두 배가 되어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는지 모른다. 엄청 힘들었다. 내 아픔은 이보다는 더 낫겠지 하며 혼자서 위로했다. 낮에는 봉사하고, 밤에는 아파하고 죽도록 봉사에 미쳐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처음 지하철 현장에서 배식을 할 때는 핑계도 댔다. 가서 참사 현장과 그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을 본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더한 아픔과 상처와 잔인함을 주는 것 같아서였다. 지난 95년 상인동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2000년 신남네거리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지하철 아니 지옥철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대구만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지하철을 운행해 주셨으면 하는 원망 아닌 바람도 있다.

봉사활동을 하는 도중에 우연히 사랑의 리퀘스트 인터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본다.

“봉사활동 하시느라 힘드시죠?” 하면서 격려를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인데 미안하다. 더 겸손해 지고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이제는 유가족 중에서도 친한 사람이 생겼다. 자주 만나서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편안해 졌다.

적십자 자원봉사원은 대구 시내 8개 구·군이 봉사를 하는데 가장 멀리 있는 달성군에서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식사준비를 위해 시민회관에 온다. 아무도 지쳐하는 사람이 없다. 평소에 남을 위하는 맘과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재난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노랑가운의 우리 봉사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다.

비록 유가족의 아픔을 1/100이라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슬픔에만 잠기지 말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고를 당한 가족들을 편안하고 행복한 하

늘나라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대구시와 모든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맘을 잘 읽어주셔서 상처 없는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강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구나.” 하며 오늘을 감사해 한다.

끝으로 앞서가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하루빨리 완쾌하시길 빌어본다.

지하철 화재참사 봉사활동을 마치고

적십자사 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장 김춘림

2월 18일 오전 무심코 텔레비전을 켜보니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발생”이라는 속보가 눈에 들어왔다.

중앙로역 주변에 검은 연기는 치솟고 소방구조대원들은 사력을 다투어 구조작업에 눈코 뜰 사이 없이 희생자와 부상자를 구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인명은 재천이건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들, 남매를 잃고 실신한 어머니, 부모님과 남편을 잃고 부인을 잃은 분, 눈 깜짝할 사이에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 삼남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철없이 뛰노는 모습, 눈물 없이는 차마 볼 수 없는 처참함이었다.

결혼을 몇 일 앞 둔 예비 신부가 결혼준비 차 언니하고 시장을 가다 변을 당해 부푼 꿈도 물거품 같이 사라졌는가 하면, 채 피하기도 전에 한줌의 재로 사라진 많은 사람들....

참으로 각가지 애절한 사연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족들의 영원한 슬픔을 가슴에 묻고 한으로 살아 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이의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또 적십자 가족중에 박말연 봉사원이 치료를 위해 영남대병원에 가다가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긋은일 마다하지 않는 착한 심성의 봉사원이었는데...’ 하는 탄식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일도 있었다.

새벽 6시에 나와 밤늦게 까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하면서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이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했었다.

또 정성스럽게 마련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 더욱 더 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악몽 같은 지하철 사고가 있는지 두 달이 지났다. 망각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결코 그날의 처참함이나 아픔을 잊지 말고, 소외된 계층에도 사랑의 손길을 펴고 부와 빈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아니하는 국민적인 사랑의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소에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며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꿈을 꾀본다. 또한 여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다는데 작은 기쁨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고인이 된 많은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땀, 눈물범벅, 입술 부르튼 채 봉사

적십자사봉사회 대구지사협의회장 서진주

대구지하철 참사 이번이 마지막 사고이기를.....

지하철사고 이번이 세 번째, 어찌 이런 일이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2000년 신남네거리 붕괴사고, 2003년 지하철방화 화재사고,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이제는 마지막이길 빌어본다.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 무관심과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에 의해 큰 사고로 이어져 많은 희생자와 국가적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더 안타까운 맘을 금할 수가 없다.

대구적십자 봉사원들은 여느 재난사고처럼 “며칠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사고 이튿날부터는 분향소가 차려진 시민회관 대강당 옆에서 적십자 급식차량을 이용하여 급식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많은 때는 약 3,000명분의 식사와 따뜻한 커피, 녹차 등을 유족들과 분향을 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조문객을 위해 준비했다.

쌀쌀한 날씨와 싸우며 자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며칠째 선잠을 자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담요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약품 등을 준비 해 현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봉사활동을 하였다.

며칠째 울음으로 실신 직전에 놓인 유가족들이 기운을 차리기 위해 겨우 한 술 뜨는 모습에, 가족을 잃고 시신마저도 찾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실신하고 오열하며 울부짖는 모습들..... 어떻게 하면 그 유족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노심초사하며 지내온 지 벌써 두 달, 이제는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도 조금은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듯 느껴진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나요. 처음엔 자신의 아픔이 너무 커 아무 말도 없던 유

가족들도 저희 봉사원들을 보면 입가에 작은 미소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곤 했다.

이제는 식사도 줄어서 처음 3,000여명 분을 준비하던 것이 지금은 하루 약 300명분이면 된다. 항상 적십자에서 식사하시는 유족 중에 대구대학교에 다니는 23세의 꽃다운 나이의 외동딸을 잃고 실신하다시피 한 엄마 박곡지(52세)씨는 이제 안정을 찾아 입가에 고맙다는 미소를 지어 보내곤 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지나치게 보이다가 얼마 안 가서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들이 많다. 지하철 사고로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내 이웃에게 변함없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십자사 봉사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방문해 주시고 위로금과 물품을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미력하나마 적십자를 통해 열심히 봉사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하철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명복을 빌며 사고 없고 아픔 없는 좋은 세상으로 가시길 기원해 본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봉사활동을 마치고

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장 하숙자

먼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동춘봉사회 박말연봉사와원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총재님과 전국의 많은 봉사원님,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님, 그리고 모든 적십자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하철화재가 대구에서...

지난 2월 18일 아침 식사 후 집안청소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발생”이라는 긴급속보 자막을 보았다.

화재장소가 중구소재 중앙로역이었기에 중구지구협의회 봉사원 명단을 찾아두고, 대구지사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긴급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상연락망을 통해 비상소집 명령을 받자마자, 우리 중구지구협의회 소속 봉사원들에게 핸드폰으로 비상연락을 취하면서 현장으로 달려갔다.

아!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한순간에 벌어지다니.....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대기하라는 장소에는 시커먼 연기가 지하도를 통해 연통을 가득 메우며 솟아나고 있었고, 유독성 가스 때문에 숨이 막혔고 목도 아팠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하나 둘씩 달려오는 회원들을 불러 바깥으로 대피시킨 후, 준비해온 마스크를 착용한 후 현장을 한바퀴 둘러보았다.

이미 소방관 아저씨들은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연통 속과 같은 사고현장으로 산소마스크와 중장비를 갖추고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뜨거운 열기에 익어 얼굴과 손이 빨갛게 익어 마치 그들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 봉사원들도 온몸이 연기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너무나 엄

청난 재해현장에서 긴장되고 떨렸지만, 봉사원들은 발 빠르게 사고현장을 오가며 매캐한 유독가스로 숨쉬기를 어려워하는 구조대원들에게 물과 음료수를 건넸고, 어수선했던 주변을 정리하고 적십자 급식차량을 이용한 급식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소방관 아저씨들의 땀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드렸고,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려는 119 소방대원 아저씨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봉사활동에 매진하였다.

식사, 모포, 물품지원도 해드리지만, 슬픔도 함께 해요...

첫날은 쇠고기 국밥을 3,000여명 분 넘게 국솥이 쉴 사이도 없이 끓여 “구조대원들이 생명을 담보로 구조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서 구조될 수 있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가족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어 안타까움에 울부짖었고, 우리 봉사원들은 유가족 대기실에 따뜻한 차와 적십자 모포를 긴급 지원하여 잃어버린 그들의 가족을 찾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편안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애를 썼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식단을 짜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유가족들과 구조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했다. 매캐한 연기가 아직도 사고현장임을 알려주는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그들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려고 여러날 밤을 지새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급식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기도 하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말상대가 되어주면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노력하였다.

가정보건강사회와 보건강사회에 소속된 봉사원들은 <무료건강상담센터>를 마련하여 가족의 참사로 인한 갑작스러운 쇼크로 인해 쓰러지거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유가족들을 위해 약을 지원해주었고

적십자 혈액원에서도 유가족 확인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혈액형 검사를 해주었다.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복구지원에 이와 같이 적십자 전 가족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봉사원 재해구호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모든 적십자 가족이 평소에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이 함께 하는 적십자의 사랑과 봉사.

전국에서 모여드는 구호물품과 조문객의 물결이 이어졌고, 우리가 급식봉사활동을 하는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적십자 봉사원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님을 비롯한 전국의 적십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적십자급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많은 봉사원들이 적십자 봉사활동에 동참해 주었다.

이러한 사고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사전에 철저하게 받아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구호활동을 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습하고 체험하면서 받은 교육만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고 있다.

취재 나온 기자들의 “봉사할 때 어떤 일이 가장 힘들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들은 적십자 봉사원들이기에 평소에 교육받은 것처럼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지만,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봉사활동도 급식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활동에서 더 나아가, 재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더욱 질 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삶을 고통스러워하며 자포자기하여 음식을 거부하던 유가족들도 봉사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면서, 봉사원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밥도 조금씩 먹고 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번 봉사원 활동에 참여한 것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군 복무중 휴가 나와 고향에서의 자원봉사의 보람

육군 충일부대 사단의무대 상병 이희국

3월 5일 오후! 인터넷으로 알아낸 번호로 지하철참사 대책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휴가 나온 군인인데, 며칠만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으니, 봉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며, 의무병이라 의료업무를 할 수 있고, 잡일도 잘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일단 와보라고 해서, 다음 날 아침 8시쯤 집을 출발하여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탄 뒤, 대구시민회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대구역 옆에 새로 생긴 롯데백화점 때문에 잠시 길을 헤매기도 하였다. 멀리서 보이는 첫 시민회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수많은 현수막들 그리고 적십자사, 삼성전자, KT, 하나님의 교회 등 수많은 봉사단체들, 또 바쁘게 일하시는 여러 봉사자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과연 내가 여기에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마저 들 정도였다.

그래도 이왕 결심하고 나선 걸음인데 발길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민회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 앞에서 간식을 배부하고 계시는 분에게 물어 자원봉사자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였다. “어느 학교, 몇 학년이세요?” 그 날 봉사팀장이 물었다. 잠시 고민 후, 사실대로 군인이라고 하자, 놀라는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의무병이라서 그 분야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의료지원이라고 적혀있고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다. 그 분들과 인사를 하고 잠시 얘기를 나눈 뒤 유가족 환자들이 한 두분씩 오시길래 혈압부터 재드리는 일을 도와드렸다. 그리고 나중에 약도 지어드렸다. 그렇게 몇 시간 지나자 환자분들이 꾸준히 오지 않아 할 일이 생각보다 적었다.

그러던 차에 청소를 하시는 할아버지 한분이 자주 눈에 띄었다. 한 두 번씩 그 할아버지의 일을 도와 드리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서 계속 청소하는 일

을 도와드렸다. 유가족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몰라서 청소만 열심히 하였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신문 치우고 바닥청소까지 하였다. 나름대로 땀까지 흘리며 열심히 하다보니, 몇몇 유가족분들이 “고마워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 한마디 말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였다.

오후 5시까지만 일하기로 마음먹고 왔던 터라, 여기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였다. 그렇게 하다가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청소를 마무리 한 뒤, 집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휴가를 나와서 잘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지만, 정말 기분은 좋았다. 땀 흘린 보람이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매일 8시 집에서 출발하여 10시쯤에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만큼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오랜 시간동안 봉사를 하고 싶어하였다. 봉사활동을 하며 훌륭한 분들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다. 사고 다음날부터 꾸준히 봉사활동 해 오시던 분들, 본인도 피해자이면서 다른 유가족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게서 많은 가르침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살아갈 만 하구나.” 라고 보는 반면에 유가족들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 지하철 참사와는 전혀 관심없이 아직까지 봉사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토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유가족들을 속이거나 헐뜯는 분들까지 생겼다는 얘기도 듣게 되어 화가 엄청 난 적도 있었다.

지하철 화재사고에 단지 자기주변의 피해가 없고 자신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은 지하철을 안타니 상관이 없다. “우리 도시도 아닌 대구서 일어난 사고인데 무슨 상관이람?”, 지하철 타고 다녀야 하는데 아직 원상복구 못했나? 빨리 좀 끝내지 왜 저러냐? 등..

본인들이 그 피해자였으면 더욱 난리를 부렸을 텐데 자기는 피해가 없고 남의 일이니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여러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고생하시고 열정있게 일하고 계시지만 그 중 일부는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름을 알리려

고 하는 모습, 봉사활동 하러와서 인상 찡그리고 마지못해 한 후 봉사시간만 채겨갈려는 모습은 다소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나조차도 지금은 너무 알려지게 돼서 부끄럽다.

그러나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알릴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그냥 열심히 하다보니 유가족들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 뿐이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제대 후에도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다.

봉사활동은 남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이지만 하다보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하고싶어질 것이다. 단 무언가를 바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우러나온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게 진정한 봉사활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이다.

계획된 가족여행 취소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북 영주시 하망1동 윤 로

女高앞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 나는 봄방학을 맞아 가족여행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학교앞 장사의 특수성 때문에 학생들의 학과일정에 맞춰 가게를 운영하기에 보충수업이나 동아리에술제 준비 등으로 바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봄방학 일주일에 거는 가족들의 기대는 대단하였다. 나는 1년에 한번씩은 꼭 가족여행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금씩 여행경비를 모아 놓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대구지하철참사가 터졌고...

난 가족회의를 통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아들(9세), 딸(6세)을 설득하여 여행계획을 취소했다. “우리의 이웃이 저토록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내 가족만 마음 편하게 겨울바다의 낭만을 찾아간다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빠를 이해했고, 난 아내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속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여행경비를 챙겨 대구에 왔다. 부끄럽게도 난 이제까지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른채 막연하게 무조건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중앙로역에서 난 어색하게나마 한가지 두가지 일을 찾아 시작했다. 쓰레기를 줍고 생수를 사다 드렸다. 지쳐있는 유족들 곁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구해다 주었다. 너무 울어서 눈이 툭툭뚓고 목소리도 쉬어버린 그분들에게 난 모든걸 주고 싶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유족분들에게 만큼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다. 그러던 중 적십자사조끼를 입은 어느 분이 시민회관에 가보라고 권하셨다. 시민회관에도 할 일이 엄청 많고 아예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민회관에서의 자원봉사는 의외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마땅히 배치할 만한 곳이 없어서였다. 처음부터 접수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던 나는 여기서도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았다.

유족들 숙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단체들의 심부름도 했다.

이튿날 아침, 대구시 관계공무원이 나를 찾았다.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면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은 전국 각지에서 답지하는 성품(라면, 음료, 속옷, 과일 등 각종 생필품)을 입·출고하는 창고관리였다.

창고관리 일은 나에겐 경험도 있는 만큼 자신있는 분야였다. 물품적재요령, 동선(動線), 물품의 특성상 먼저 처리해야 할 것과 비축해 뒀야 할 것 등 이론적으로도 나름대로 정립이 잘 되어 있었기에 책임자 분들로부터 잘한다는 칭찬도 받을 수 있었다. 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을 했다. 봉사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에 이곳에 있는 시간만큼은 모든 정열을 바치고 싶었다.

시민회관에는 각종 봉사단체 등에서 설치한 봉사부스와 천막이 수십개 정도 있었고, 나는 봉사단체에서 요청하는 물품들을 상황에 맞게 조달해주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많은 양의 물품이 답지하고 그것을 적지에 적재하고 출고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일을 더 찾아서라도 하고 싶었다.

한 3일쯤 지나니 발바닥은 부르토고, 물집이 잡히고 어깨 등 온몸 곳곳엔 근육통으로 시달리며 찜질파스를 덕지덕지 붙여야 했지만 이렇게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하루 2시간정도 자면서 꼬박 4일을 일했다.

며칠동안 불박이로 그 일을 하다보니 우습게도 터줏대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제법 많은 수의 가짜 봉사자(노숙자 등)들이 발견되었던 점이다. 실제로 몇몇 가짜들은 나를 피해 다녔을 정도였고, 실종자 대책위원회사무실에 이들을 가려내라고 건의도 했었다.

불과 며칠간 일한 걸 가지고 마치 자랑인양 떠든 듯 싶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하고싶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다. 잠깐동안 일 한 것에 비해 배

운 것도 많고 좋은 이웃을 많이 알게 된 것도 감사하다. 또한 그 일을 통해 십수년 만에 그리운 군대 친구도 만날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 이웃의 재난 앞에 방관자나 다름없던 내가 이제 적극적인 도우미, 진정한 이웃으로 다시 서게 된 것이다.

얼마 전에는 아내와 같이 수년간 망설여 왔던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도 기쁨으로 동참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들과 딸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감동과 교훈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더 더욱 감사한다.

요즘 교회에 새벽기도를 나가고 있는데, 예전엔 내 자신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가 벅찼지만 이젠 대구를 위해 기도한다.

『나도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해 주고 도와 줄거다』

(아들 일기중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원불교 대구경북 원봉공회봉사단 김세영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가슴 아픈 참극의 현장이었다. 200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한꺼번에 앗아간 그 자리에는 통곡과 절규가 끊이지 않았으며,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핏줄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기절해 버린 어느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들을 수 없이 목격하면서 함께 울었다.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유족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디 살아만 있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는 하늘에 닿았고 아직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게 바로 생지옥이라고 생각했으며 이처럼 하루아침에 자욱한 연기와 함께 떠나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저히 남의 일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의 곳곳마다 붙여지고 쓰여진 애끓는 사연들은 눈물 없이는 차마 볼 수가 없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우리들이 감히 피곤하다는 생각조차 하기가 부끄러웠다.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이처럼 씻을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생각에 모두들 몸을 떨었다.

2월 18일 원불교 봉공회에서는 사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상황 파악에 들어갔으며, 우선은 경북대학교병원의 영안실에서 실신해 있는 유가족들을 밤새 돌보다가 2월 19일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대구 시민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하였다.

유가족을 위한 식사와 커피, 녹차 대신에 다른 음식물을 찾던 중 유관기관인 대구원광한의원에 연락을 하여 약차 제공을 의뢰하였더니 고맙게도 약차를 달여서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문상선원장의 말씀에 크게 고무되었으며, 약차를 매일 시민회관까지 배달해야하는 과정에서도 시내 택시기사들의 무료운반 제의는 더 한층 감동적이었다.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체, 지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유족들에게 권하는 따듯

한 약차 한 잔과 찹쌀떡 공양 장면이 언론에 보도 되었을때 원불교 봉공회원들의 가슴에도 새로운 보람과 용기가 생겼다.

또한 음식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보살피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매일 독경으로 고인의 넋을 달래기도 하였다. 특히 김보현 대구경북교구장을 중심으로 여러 동지들의 헌신적 노력 없이는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 모두가 은혜로 맺어진 우리 이웃이었고 함께 마음 아파해야 할 동포이기에 피곤한 줄도 몰랐다. 이처럼 엄청난 사건을 접하면서 봉사단이 해야 할 일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남을 느꼈으며, 희열과 함께 작은 보람과 자부심도 느껴졌다.

이번 지하철참사를 계기로 전 국민 모두가 하나됨을 확인했으며, 아직도 온정의 손길은 계속 되고 있다. 다만 이 사고가 하루 빨리 수습이 되어 유족들의 슬픔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바라며,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우리 모두는 더욱 삼가고 조심하여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슬픔이 없기를 고대한다.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빌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어려울때 일수록 함께하는 자원봉사

영남중학교 3학년 8반 송제엽

2003년 3월 2일 일요일 오전 11시경에 친구인 정우환, 임종현, 박용택, 김찬우와 함께 지하철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시민회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가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 상인동 지하철 가스사고시 영남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희생되었을 때, 우리학교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기에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무엇을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척척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런지 봉사를 마치고 나서는 보람도 있었다.

내가 한 일은 물건을 나르고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밖에서 주차를 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 나는 처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못마땅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였기에 보람이 더 큰 것 같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에는 봉사활동을 조금 한 경험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보기는 처음이었으며, 지하철 사고에 대하여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과 친척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한 아주머니가 사진을 보고 울고 계셨다. 내가 보기로는 그 아주머니는 희생자의 친구 분인 것 같았다. 난 그 아주머니를 보고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으며, 내가 봉사활동을 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시민이 자원봉사자가 되었으면

영남중학교 3학년 7반 김찬우

지난 3월 2일 일요일, 우리학교 친구들과 지하철사고 대책본부가 설치된 시민회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이번 사고로 희생된 유가족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겠느냐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2학년때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5명과 같이 자원봉사를 하였는데, 지하철 참사가 있기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었지만 지하철이 없으니 버스를 타고 갔다. 그때 비로소 지하철의 편리함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차안의 라디오 방송에서 지하철 참사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왠지 모르게 슬픈 마음이 들었다. 대구에서 사고가 나서 그런지 더욱 그랬던 것 같았다. 대구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도 그때 지하철을 탔다면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에서 내려 대구역 앞 지하도로 내려가니,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글과 희생자들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다. 왠지 기분이 묘했다. ‘글들을 보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들이 많이 적혀 있었고 국화꽃도 걸어놓았다.

시민회관에 가서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 같은 학생들이 할 일도 꽤 있는 것 같았다. 우선 자원봉사활동 조끼를 입고 할 일을 배정 받았다.

5명중 2명은 시민회관 내에서 쓰레기통 비우는 것과 물건 옮기는 것을 했고, 3명은 밖에서 방문객들에게 주차할 곳을 안내하였다. 그러다가 화장실을 가는 길에 어린애와 할머니가 울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에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3시간 정도 주차안내를 한 후에 식사를 했다.

밖에서 먹는 것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고 난 뒤라서 그런지 밥맛이 꿀맛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는 다시 모여서 식품 옮기는 일을 하였다. 지난주에 와서도 해본 일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일답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쌀 10kg 짜리를 한 개씩 옮겼다. 그러다가 두 개씩 옮기게 되어 30분만에 일을 끝냈다. 그 다음으로 라면박스 옮기는 일을 하였는데 쌀보다는 가벼워서 기분이 좋았다. 창고에 가는 길에 희생자들의 유물들이 있었다. 모두 새카맣게 타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이 대충 상상이 가는 듯 했다.

라면까지 다 옮기고 힘들어서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힘은 들었지만 웬지 모르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았다.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힘은 들어도 봉사하는 보람과 아름다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오전 11시에 와서 오후 5시 30분에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희생자 유물이 있는 곳에 가보았다. 유물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나라 지하철이 안전성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재시 대피 교육을 해보지 못해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철 참사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지하철 참사가 대피 교육도 미흡했지만 사고 후 뒤처리에도 미흡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 발생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봉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해보니 힘은 들었지만 정말 뿌듯했다. 그리고 봉사활동 오신 분들을 보면서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이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보람있고 의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영남중학교 3학년 6반 임종현

나는 2003년 3월 2일, 대구지하철 사고가 일어난지 12일 후 친구들과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애도하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시민회관으로 갔다.

대구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갔으며 바로 옆이 시민회관이었는데, 길을 건너려고 하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너희 친구가 사고 당했니?" 하고 물으시길래 매우 당황스러웠다. 꼭 이곳에 오려면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다친 사람이 있어야 올 수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였다.

사고대책본부로 가니까 입구부터 플랭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꼭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영남중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 하니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 내 친구들에게 할 일을 정해주고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자원봉사" 라고 적힌 조끼도 주었다.

일단 힘이 좀 좋은 친구들은 무거운 물건 나르는 일을 봉사하고 나와 나머지 친구들은 주차요원으로 나섰다. 이미 주차장을 정리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에게 주차요원으로서의 근무하는 방법을 배웠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정리하였다.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점심때가 되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시민회관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해결하였다.

오후가 되자 우리에게 봉사활동지시를 하셨던 분이 오셔서 나와 내친구에게 모두 힘을 많이 쓰는 일에 봉사토록 하였다.

처음에는 쌀 20kg을 들어도 무거운지 몰랐는데 점차 힘이 빠졌다. 쌀을 들고 가다보니 사고현장에서 나온 물품을 공개하는 것을 보았다. 처참했다. 모두 불에 타고 흔적만 남은 것 들.... 정말 참담했었다.

봉사활동을 하던 중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사고 대책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참으로 보람있고 뜻깊은 날이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혹시 유가족이 내가 되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지적하자면, 무슨 연예인들이 조의를 표하러 왔는데 팬들이 따라오는 것이었다. 내가 주차 봉사를 하고 있을 때 남자그룹 연예인들이 온다고 여자 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참 한심했다. 꼭 이런 곳까지 와서 이런 것을 해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지도 모르게 열심히 봉사를 해서 피곤하기는 하였지만 하루종일 뜻깊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자 마음도 몸도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의 기쁨

영남중학교 3학년 1반 박용택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나던 2월 18일 오전, 학원에 가면서 지하철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학원을 마치고 빨리 집으로 와서 TV를 켜는데 불이 난 곳이 중앙로역이었다.

TV에서는 까맣게 얼굴이 그을린 사람과 시커먼 연기만이 보였다. 나는 서둘러 사망자 명단과 부상자 명단을 확인하였는데 다행히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심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괜찮았지만 희생을 당하신 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하철 사고가 난 후 몇 일 지나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시민회관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거기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 봉사활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아 보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입구로 들어가니 감독관 같이 보이는 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차안내 관리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몰랐고 거기서 주는 노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있으니 좀 어색했다. 내가 맡은 일은 정말 간단했다. 차가 들어오면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하고 안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이리로, 저리로 가세요” 라는 말 몇 마디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일을 하다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쉬운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 빠져나가질 않아서 할 일이 없었다. 차가 나가거나 들어와야 할 일이 있는데 차가 빠지지 않을 않아서 그냥 입구에 앉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서 놀러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차라리 이렇게 눈치보며 있는 것보다는 막노동이라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12시 30분 지나니까 점심시간이 되었는지 차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조금 지나자 또 많이 들어왔다. 내가 주차관리·안내를 해보니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빼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주차 할 자리가 없다고 말해도 중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것인지 그냥 들어와서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오랫동안 서있을 때면 다리도 많이 아팠다. 이 일을 몇 시간동안 하고 나서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휴식을 하였다. 쉬고 있는데 자원봉사 감독관 같은 분이 와서 짐을 옮기는 일을 하라고 하셨다.

짐을 옮기려고 따라 갔는데 한구석에 라면, 쌀, 음료수, 과자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 물건을 시민들이 보내주신 것이었는데 TV에서 말하듯이 대구가 인심도 좋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쌀을 한 봉지씩 옮겼는데 계속 일을 하다가 보니 다리, 허리, 팔, 어깨 온몸이 다 아팠다. 난 힘이 들어서 툼툼이 쉬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옮기니 산더미처럼 쌓인 것들도 금방 모두 다 옮겼다. 가장 힘들게 옮긴 것이 라면인데, 라면을 옮길 때는 별로 무겁지는 않았지만 2박스를 한번에 옮기려고 하니 미끄러워서 고생을 많이 했다.

물건을 옮긴 곳은 시민회관 대강당으로 들어가서 서편에 있는 창고에 옮겼는데, 창고로 가는 길에 시민회관 천장, 분장실 등을 보니 천장은 내 키의 50배쯤 되는 것 같이 보였다.

물건을 옮기면서 느낀 점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얼굴에 힘든 기색보다는 모두들 활짝 웃으며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물품을 다 옮기고 나니 또 다른 곳에 산더미처럼 쌓인 성품을 옮기라고 하여서 다시 계속 옮겼다. 이번에는 거리가 50m정도 더 멀리 옮겼는데, 온몸이 더 많이 피곤하였지만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해야 우리를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곳에 쌓인 물품을 다 옮기고 나니 이제 집에 가도 좋다고 하셨다. 나

는 정말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니 뿌듯함도 있었지만 힘든 일을 마치고 나서 먹는 음료수나 컵라면이 정말 맛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마치고 나니 다른 어른들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뿌듯했다.

나는 봉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나서 희생자 유품 전시관에 한번 들어 가보았는데 유품들을 보니 그 당시 불이 난 지하철내의 일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봉사 활동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잘 보살피 주고 봉사활동을 하면 힘들긴 하지만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느끼는 뿌듯함, 정말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 그런 점이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라는 것을 이번 봉사활동으로 잘 알게 되었다. 나는 다음에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한번 있으면 또 참여하여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슬픔도 함께, 나눔도 함께

대구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 회장 김말조

2003년 2월 18일 오전

청천벽력 같은 지하철 화재사고 소식을 듣고 우리 여성회관 봉사자들과 함께 생수, 컵라면, 커피, 녹차 등을 급하게 준비해서 대구역에서 중앙로 역으로 진입할 즈음 도로는 차단되었고, “여성회관 자원봉사”라는 표식을 차량 앞면에 부착하였기에 사고현장에 진입할 수가 있었다.

사고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20분, 막 중앙로역에 도착했을 때, 소방차 앰불런스, 119구조대 등 구조를 위한 차량들로 도로는 혼잡했으며 독가스의 매캐한 냄새와 치솟는 검은 연기로 인해 호흡조차 곤란한,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서 한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고자 애쓰는 119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구조활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었다.

전신에 흐르는 땀에 검은 분진가루를 반죽해 발라 놓은 듯 검붉은 얼굴, 검은 매연으로 뒤범벅이 되어 도로 위에서 주저앉아 망연 자살도 잠깐, 타는 갈증을 호소하는 119구조대원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따뜻한 커피와 컵라면을 제공하였을 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들을 보고 더 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는 시민회관 사고대책본부로 장소를 옮겨 유가족들을 보살폈다.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애타게 이름을 부르며 쓰러지는 분들, 사망자 명단에서 가족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절규하는 유족들, 그야말로 시민회관은 아수라장이었다.

우리 봉사자들은 그 분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오열 속에 떨고 있는 분들을 부축하면서 한 모금의 물이라도 드리려고 애썼으며, 실종자 가족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우리 봉사자들도 너나할 것 없이 그 많고 많은 가슴아픈 사연들에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 함께 울어 눈들이 빨갛게 토끼눈처럼 되었다.

밤이 늦어지면서 일가 친척들이 찾아와 초저녁 한산하던 것과는 달리 시민회관 소강당은 유족들과 그 친척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었다. 흐느끼는 유족과 친척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비통함으로 온통 눈물이 범벅이 된 시민회관 소강당 현장에서 우리 봉사단을 철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 주부들이라 철야봉사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철야봉사가 가능하다고 자원한 봉사자 3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봉사자는 밤 12시가 넘어 일단 귀가를 시켰다.

다음날 합동분향소가 시민회관에 마련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에 자원활동센터 운영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시민회관 대강당 로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팀별로 24시간 4교대로 분향소 앞에서 음료수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의를 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기에 힘든 24시간 봉사활동이지만 한마디 불평없이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봉사자들이 너무 고마웠다.

저녁에 시민회관 소강당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되었고 하얀 국화꽃이 분향소 3면 벽을 꽉 채웠다. 사랑하는 가족의 영정 앞에서 통곡하다 실신하는 유족, 울다가 지쳐 नी이 빠진 채 멍하니 앉아있는 유족들에게 차반에 우유와 녹차, 울무 등을 담고 일일이 유족들의 손에 들려주면서 기운을 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봉사자들에게만은 모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줄지어 들어오는 조화(弔花)를 보며 아주머니 한 분이 “꽃이 들어오면 내 자식이 돌아 오냐?, 저 꽃 보기 싫다 치워라”며 분향소가 떠나가도록 울분을 터뜨리더니 쓰러졌다.

나는 깜짝 놀라 아주머니 곁으로 달려가 “아주머니, 물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 이 꽃들은 시민들이 보내 준 것입니다” 했더니 “당신 누구요?” 하고 나를 노려보더니 봉사자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저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기운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달래고 위로하는 내 자신이 죄인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런 아주머니가 몇 일 뒤 분향소에 다시 오셔서 그 때의 거친 목소리가 아닌 얇전한 목소리로 우리 봉사자에게 “그 동안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합니다” 하며 정중히 인사를 하셨고, 나는 그 분의 등을 토닥거리주며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시라는 작별인사를 하며 헤어지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조문객으로 오신 70세정도 노령의 할머니께서 24시간 주야로 애쓰는 우리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고이 간직했던 25,000원을 꺼내어 음료 차 사는데 보태라고 내미셨다. 그러나 성금함에 넣으라는 봉사자의 권유를 뿌리치고 기꺼이 봉사자 손에 쥐어준 후 종종걸음으로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의 진한 감동을 받았다.

유족들을 위한 많은 구호품들이 각처에서 보내오고 언제든지 식사할 수 있도록 많은 봉사단체에서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남녀노소 많은 봉사자들이 유족분들을 도우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구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유족들과 대책본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유족 측에서 영정사진들을 돌려놓았을 때, 영정사진 뒷면을 보고 국화 한 송이 올리고 기도하는 조문객들을 보면서 분향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아직까지 뒤돌려진 영정사진 앞에서 국화꽃 정리와 조문객 안내 봉사를 하면서 씩씩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유족들과 대책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보아 고인들을 천당과 극락세계로 마음 편히 훨훨 보내드리고, 우리 대구시민 모두의 힘을 다시 한 번 결집시켜 국제행사인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면서, 참사를 당하신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하철사고 대책본부 주차봉사를 마치고

한국크리스천 대구경북아마추어무선사회 회장 박영배

한국크리스천 대구경북 아마추어 무선사회는 대구 경북지역의 기독교 크리스천아마추어 무선사들의 모임이다.

2003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대구 지하철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시민회관 광장에서 주차봉사를 하였다. 우리 회원들이 지하철 화재참사 유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여러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는데 협력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단체에서는 매년 부활절 연합 예배 때마다 주차봉사를 해 왔기에 이번에도 주차봉사를 했으면 해서 시민회관 입구에 직원 주차를 관리분에게 주차봉사 단체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해병 전우회에서 하고는 지금은 아무 단체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기에,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회 (종소리네트) 부회장 집사께 봉사활동을 제의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기에 별관 1층 자원봉사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였다.

신청을 하고서 우리회원들에게 무전기에(온에어) 봉사광고를 하고 메일로 봉사내용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당장 봉사팀을 맞추었다.

2월 25일에는 DS5UTF 이성락 증경회장, DS5YGB 명예회장 최윤락 집사, DS5WPH 서기, 장재호 집사, 6K5USB회계 박계형 장로, 6K5UIB 회장, 박영배장로의 5명, 핸디 무전기(4W)와 호각 불방망이 야광조끼를 하고서 근무를 했다. 봉사를 하다가 식사는 교대로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2월 26일에는 DS5UTF 이성락 집사, DS5WCZ 강성보 집사, 6K5UMS 박성하 집사, 6K5UIB 박영배 장로의 4명, 2월 27일 DS5WCZ 강성보 집사, 6K5UKQ 이용대 집사, 6K5USW 정상원 집사, 이상철 집사, 6K5UIB 박영배 장로의 4명이 봉사를 하였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은 여러 봉사단체(새마을 부녀회, 구세군 대구경북지방본영, 적십자사, 농협, 대구은행, 기독교연합봉사 단체, 삼성사회봉사단, KT대구본부 사랑의 봉사단 등)에서 정성을 다해 성의껏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또한 정문 주차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찰간부 등 내노라고 하는 인사들은 주차할 곳이 없는데도 운전자에게 눈치를 주면서 무조건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몹시 못마땅하였다.

이럴 때는 봉사고 뭐고 다 치우고 싶더라고요. 우리 회원들이 무전기로 주차공간이 몇 대 비었다고 연락하면 들여보내는데, 만차라고 해도 기어이 들어가겠다니 정말 안타까웠다.

그러나 봉사는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하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자의 임무이자 자세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참사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싶다.

지하철참사 현장에서 만난 분들께 많은 깨달음을 얻고서

경북예술고등학교 3학년 성은경

2003년 2월 21일(지하철참사 3일째)

TV로만 보던 곳.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던 곳. 그 곳을 개방했다기에 나는 학교 친구들과 칼라 꽃을 사 들고 가 보았다. 그 곳엔 흰 국화꽃이 많았고, 나도 내가 사 온 꽃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고로 숨진 녀를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지하1층에 내려가 보았다. 입구에 닿는 순간 남아 있는 유독가스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매캐한 냄새가 심하여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벽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내려가서도 너무나 끔찍한 현장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올라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웠다. 정말 유독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질식사했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고 친구와 나는 각자 학원을 가려고 서 있는데, 저 쪽에서 어떤 언니가 글씨 좀 써 달라고 부탁을 했다. 예술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글씨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명색이 경북예고 미술과 학생인데...라는 생각으로 아저씨들께서 불러 주시는 글씨를 써 내려갔다. 7시부터 기자 회견을 하는데 그때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정성을 다하여 약 7장쯤 되는 글씨를 다 쓰고 나서 나는 학원에 가야 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였다. 고 3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현장도 학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포기하고 기자 회견하는걸 보고 가기로 결정하고 7시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7시가 되자 기자들이 모였고 아저씨는 내가 글씨를 써 준 피켓을 들고 기자 회견을 시작했다. 내가 썼기 때문이었을까? 그 피켓을 남이 들기보다는 내가 직접 들고 싶었고 단체 측 언니도 피켓 좀 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기자 회견하는 동안 나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한 30분쯤 뒤에 기자 회견을 마치고 촛불 추모 행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촛불을 들고 있었는데, 아까 그 단

체 측 언니가 오셔서 이따가 중간에 편지글 좀 읽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처음에는 당황하여 망설였으나 유가족들의 슬픔이 너무 아파서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하는 마음에서 승낙을 하였다. 촛불 추모 행사가 시작되었고, 내 순서는 3번째이었는데 앞에 두 유가족들의 낭독에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내 차례가 되었는데도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이크에 대고 낭독을 시작하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잘 잊지 못하고 있는데, 눈앞엔 카메라 후레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주위가 조용해짐을 느꼈다. 그리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왔다. 다시 진정하고 낭독을 마친 뒤 내 자리로 돌아와서는 엉엉 우는데 내 눈 앞에선 몇 십번의 카메라 후레시가 또 터졌고 그 순간, 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슬퍼서 우는데 이런걸 이슈화시키기 위해 오직 취재 경쟁에만 힘쓰는 사진기자들...아무튼 그쪽 계 어른들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행사가 다 끝나고, 내일도 촛불 추모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오면서 오늘 학원엔 못 갔지만 그래도 인간 된 작은 도리는 한가지 한 것 같아 위안을 삼고 집으로 돌아왔다.

2003년 2월 22일.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고 3이라서 학원엘 가야 하나 오늘 추모 집회엘 가야 하나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정과 처지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잠시 지하철 참사 현장에 들어서 추모 집회에 참석하고 공부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고 참사현장 쪽으로 향했다. 저녁 6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아카데미 극장 앞에 갔다. 어제 그 마이크 아저씨(시민 단체)와 목례를 하고 나서, 나는 추모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서서 억울하게 가신 넋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착잡한 생각에 젖어 들었다.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는데, 나는 이 비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눈물의 비인가! 아니면, 하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다. 한시간이나 계속되는 추모 집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7시에..촛불 추모식이 끝나고 늦게라도 학원에 돌아가려는데 마이크 아저씨께서 "밑에 지하 1층에 지금 실종자 유가족들이 와서 계십니다" 라는 소리에

나는 너무 놀라서 내려가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제 지하에 내려갔을 때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팠는데 “글쎄 그곳에 사람들이 와 계시다니...” 나는 너무 놀라서 내려가 보니 어제와는 달리 나무판자로 막혀진 곳이 뚫려져 있었고, 몇십 명의 유가족들이 바닥에 스티로폴 비슷한 판자를 깔고 앉아들 계셨다. 거기엔 사람 있을 곳이 아닌데 정말 정신들이 없었다.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디에선가 "유가족 분들 중에 그림 그릴 줄 아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유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신 분한테 가서 "유가족은 아닌데 제가 도와 드려도 되겠냐"고 여쭙었더니 흔쾌히 좋다고 말씀하셔서 가방을 벗고 일을 도와 드리기 시작했다. 먼저 마스크에 해골을 그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매직이 없었다. 그 아저씨(유가족 대책위원장)께서 주신 돈으로 매직을 사 와서 유가족 분들 마스크에 해골을 그렸다.

잠시 후 가게에서 가져온 흰 판넬에 실종자와 사망자의 사진을 붙이고 사연을 쓰는 일을 하였다. 중앙로역 지하에 가득했던 판넬들이 그날 나와 유가족 중 한 언니가 처음 시작했던 것이다. 그날 밤 12시까지 5시간 동안 그분들과 같이 앉아서 판넬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그 5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큰 경험이었는지 모른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유가족 분들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온몸으로 알 수 있었고 내가 쓰는 글씨 하나 하나에는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서인지 정성을 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유가족 분들의 억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없었다.

일을 시작 한지 약 두 시간 후쯤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던 나한테 한 아저씨께서 오셔서 "학생 경북예고 다니지?" 라고 하셔서 나는 "예!"라고 대답했고 아저씨께서는 "우리 애도 예고 졸업했는데 이번에 사고 당했어." 하시면서 뒷말을 잊지 못하시고 고개를 떨구셨다. 나는 그 아저씨께 아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 너무 죄송했다. 내가 여기 괜히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그리고 이날 내가 들은 사연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사연은,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영대병원에 진료 받으시러 오시다가 두 분 다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난 그분들의 사진을 붙이며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진료 받으시러 다니셨던 때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집에 계신 할머니께 더욱 잘해 드려야겠다 는 생각을 하면서 글씨를 써 내려 가는데, 유가족 분이 끝에다가 '집에 97세 되신 노모께서 아들, 며느리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적어 달라고 하셨을 땐 정말 안타까웠고, 세상이 어찌되는 것이길래 이런 몹쓸 사고가 났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이 곳에 오기 전에 미술 학원 선생님께 한시간만 늦게 오겠다고 했는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에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시계가 10시를 지나면서 더 큰 걱정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다. 촛불 추모에 참석하려고 버스비만 가지고 왔던 터라 넉넉하게 1000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비는 내리고 학원에 가려면 적어도 지금은 일어나야 하는데.... 아저씨께서 바쁘면 가보라고 하셨지만 써 달라고 사진을 들고 오시는 유가족분들을 저버리고 그 자리를 일어 날수가 없었다. 그후 12시쯤 일을 끝마치고 학원까지 걸어서 갔다. 12시가 넘은 시간에 여학생 혼자 교복까지 입고 걸어서 가려니 조금은 무서웠지만, 그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문제부터 나 자신에 대한 문제까지 그리곤 운이 좋게 살아 있는 "나" 한테 다짐했다. 먼저 가신 분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자고. 그래서 대학간 다음에 꼭 다시 이분들과 만나서 친분을 계속 유지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학원에 도착해서도 여느 때 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새벽 3시쯤 학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이분들이 중앙로역에서 첫날밤을 보내시는데 걱정이 되어서) 다시 중앙로역으로 갔고, 유가족 분들이 누워 계신 모습을 확인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집에 오긴 했는데 늦은 새벽이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여기저기에 글을 올렸다. 나의 이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2003년 2월 23일

일요일이었다. 학원에 가야 하는데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팠다. (그곳에 유

독가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로 머리가 아파서 학원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앙로역에서 밤새 계신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신 것은 당연할 것이고.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또 내일 월요일부터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오전엔 좀 쉬었다가 오후 6시쯤 돼서 다시 중앙로역으로 나갔다. 이 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촛불 추모를 끝내고 밑에 잠시 내려가서 눈이 통통 부어 있는 유가족들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 거기 더 있고 싶었으나 어제 못다 그린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바로 학원에 갔다. 그림을 그리는데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았다. 중앙로역 지하 1층 그늘음과 매캐한 연기가 뒤덮인 그 속에서 누워있는 유가족들의 생각이 자꾸 떠올라 그림을 대충 그리고 집으로 갔다. 몸살기가 더욱 심하여 밤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생하였다.

2003년 2월 24일

아침에 몸이 빠근하고 눈이 잘 떠지지 않지만 억지로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어머니께서 몸살이 나서 어떡하느냐? 요즘 왜 늦게 다니느냐며 캐물었지만 중앙로역에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고 3이 공부 안하고 그런데 다니는 것이, 물론 의미있는 일이고 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말씀을 안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혼자 일로 숨졌다.

그날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는 기간(봄방학 기간이지만 고 3은 보충 수업을 한다)인데, 4교시쯤 마치고 이인성 선생님께서 부르셨다. 다름이 아니라 토요일 날 뵈었던 대책위원장님으로부터 온 연락 때문이었다. 토요일 날 내가 집으로 오기 전에 그분께 “저희 학교에서 도와 드릴일 있으면 도와 드릴테니 연락 달라”고 하면서 우리학교 이인성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려 드렸었는데 바로 그 연락이 온 것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2학년 애들 한 4명 정도 더 데리고 3시까지 가보라고 하시면서 나의 공부 걱정도 해주셨다.

나는 후배들과 함께 중앙로역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직으로 전지에

글씨를 쓰는 일을 시작했다. 유가족 분들이 A4 용지에 글씨를 써 주시면 전지에 옮겨 적는 일이었는데, 그 A4 용지를 하나 둘씩 받으면서 정말로 대구 시장님이 일을 잘못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직 고등학생 신분으로 어리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시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것도 속상한 데 대구시에서 유가족 분들께 또 한번의 상처를 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꼭 서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들을 줄 알고 서민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큰 인물이 되어 겠다고 또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밤 10시쯤 일을 다 끝내고 나는 미술 학원에 가서 2시까지 그림을 그리고 2시에 나와서 또다시 중앙로역에 가 보았다.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이 누워서 잠을 청하고 계셨고 그곳을 쭉 둘러보고 집에 가려는데 낮에 뵈었던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한 아저씨를 만나서 그 아저씨와 함께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대구 시민회관에 가 보았다. 이제 어느 정도 친분도 쌓였고 다 가족 같았다. 시민회관을 둘러본 후 벤치에 앉아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언제까지 이렇게 중앙로역에 계실 것이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먼저 가신 우리 가족을 사망자로 인정해 줄 때까지 6개월이 되든 일년이 되든 계속이라고 하셨다. 그리곤 덧붙여 말을 이으셨다. 우리도 집이 있고 가정이 있다. 직장도 나가야 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생업을 뒤로하고 살아 갈 수만은 없다며 목이 다 쉬어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힘들게 말씀하시는걸 들으며, 참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곧 있으면 경주에 식당을 차리니까 벚꽃 축제 할 때 꼭 한 번 오라고 하셨다, 너무 고맙다고 부모님하고 꼭 오라고 하셨다. 나는 그 와중에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 아저씨께 감사했고 왠지 씩씩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 3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은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무서웠다.

2003년 2월 25일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마치고 나는 또다시 중앙로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은 특별히 도와 드릴 일은 없고, 그냥 짐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거기 남아서 짐을 지키고 있었다. 어른들은 시민회관에 조해녕 시장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가셨고, 나는 거기 있으면서 유가족 분들과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분들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분들이 억울하면 나도 억울했다. 저녁 8시쯤 기다려도 어른들이 안 오시기에, 답답한 마음에 가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시민회관에 가 보았다. 전경들이 짝악 깔려 있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 많은 수백 명의 전경을 동원하다니...땃땃하면 되지않느냐! 고속으로, 분노하며 유가족 분들과 같이 조해녕 시장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술을 약간 드신 한 아저씨께서는 전경들을 향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셨지만, “그 전경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죄밖에 없는데” 옆에 있던 다른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서 기다린지 2시간째, 시장님은 끝내 나오시지 않으셨고,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말쑥을 끝내고, 나오시는 위원장님께서 “말 잘됐으니까 돌아가자.”고 하셔서 그분들은 그때서야 중앙로역으로 발을 옮겼고, 나도 집에 갈 수 있었다. 정말 또 한번 우리나라의 잘못된 현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고 1때 1년 동안 잠시 미국에서 살다 온 나는 과연 미국이라면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유가족들이 이렇게 2번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끝없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아! 이게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구나. 의식의 차이이고 복지 문제의 차이이고 제도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2003년 2월 26일

그날 갔을 때는 글씨도 다 썼고, 딱히 도와 드릴 일이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고 멍든 유가족 아주머니, 언니, 할머니들과 말동무를 해 드리면서 원망과 감사와 인생 역경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유가족 대표께서 유가족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나는 서명지 100장 정도를 받아서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서명을 받아서 다음날 갖다 드렸다.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께서는 기꺼이 서명을 해주셨고 칭찬도 함께 해주시고 나의 공부 걱정도 많이 해주셨다.

2003년 2월 27일

이 날에는 시민들과 함께 추모 대행사가 첫 번째로 있는 날이었다. 대구대 학생회와 대책위원회가 같이 주최하는 행사여서 규모가 상당했는데 나는 거기 중앙로역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리본을 달아주는 일을 하였다. 처음엔 옷 편을 뜯어서 리본에 꽂아서 사람들 옷에 직접 달아 드렸는데 너무 손이 모자라서 직접 달아 드리지는 못하고 리본에 옷 편을 꽂아서 “리본 달고 가세요.” 라고 말하며 리본을 드렸다. 3시간쯤 뒤 어디에선가 또 전경들이 몰려와 내가 리본을 달아 주는 곳 바로 중앙로역 입구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봉괴 위험이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다고 말이다. 솔직히 그 입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곳을 봉쇄해 버리면 어쩐단 말인가! 나는 15분정도 리본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유가족 아저씨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 아저씨께서 올라오셔서 경찰에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시민들이 와서 봐야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막느냐!”고 대장쯤 되어 보이는 경찰분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셨다. 처음엔 전경들도 규제를 하다가 그냥 해산해 버렸다.

그 뒤 밤 10시쯤에 리본도 다 떨어지고 해서 촛불을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하였다. 원래 그 자리에서 촛불을 나누어 드리는 일을 하는 아저씨께서 “학생 언제부터 이 일을 했냐” 라고 물으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시면서 이름과 연락처와 봉사 가능 시간을 적으라고 하셨다. 그러면 명단이 올라가서 명찰이 나온 다나? 나는 나가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또 이런데 명단이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아서 적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아저씨가 자꾸 적으라고 하였다. 나쁜 분들도 아닌 것 같고 함께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런걸 쓰면 책임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썼었는데 그 일이 내가 봉사 활동을 그만 두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왜냐하면 그날 거기에서 그렇게 촛불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점점 그분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 것 일 테고 그렇게 계속하시는걸 보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에 대해 말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아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안되겠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마

음이 도무지 편하지 않았다. 그리곤 계속 생각했다. 그 사람들 도대체 거기에 왜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서로 장난치고 떠들고 웃으며 핸드폰 벨소리 다운 받았다면서 들어보라고 하고 문 앞에 뻗히 유가족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인지 나로서는 참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나’ 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이 들었다. 진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봉사가 아닌 생색을 내기 위한 행동 인 것 같았다.(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고 난 후 한 2일 동안 중앙로역에 가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지 못함 이 내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고 큰 고민 거리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진짜 유가족들 생각을 하면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진 않았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었다.

2003년 3월 3일

약 3일 동안 고민 끝에 유가족 아줌마 아저씨들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내가 안 와서 혹시 부모님께 혼이라도 나는지 걱정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중앙로역에 찾아가 보았다.(이상한 아저씨들이 없는 다른 입구 쪽으로...)

한 아주머니께서는 부모님께 혼났냐고 물으셨고 나는 아니라고 학교에 개학을 해서 바빠서 못 왔었다고 안부를 나눈 후 돌아왔고, 그후로는 진짜 정신 없이 바빠서 따로 가 볼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죄송하다. 5차 추모때까지 갔다가 안가 본지 1달이 지나간다. 괜히 가서 그분들에게 걱정만 끼쳐 드린 것 같기만 하고...계속 가지 못 해서 너무 죄송하다. 이분들은 사고가 잊혀져 가는 것을 속상해 하셨는데 내가 가지 않는 걸보고 “잊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니라고 나는 그분들과 그때 있었던 일들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한테 시간 뺏겨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셨던 분들에게 그때의 일주일 동안의 경험이 19살 소녀에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얼마나 값진 경험이었는지를 말하고 싶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엔 진정으로 어

편걸 원한다면 안 되는 건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 6개월이건 1년이건 사망자로 인정받을 때까지 중앙로역에서 생활을 하실 거라는 그분들이 지금은 대부분이 사망자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참 잘됐고 그렇게까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좋아서 먼저 가신 임들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망자로 인정도 못 받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당국은 정말 그때의 유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들을 보면서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난다. “소망이 깊으면 이루어진다”는 말. 그리고 나도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이분들의 마음처럼 열심히 해 나간다면 꼭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또한 그날의 일주일의 경험이 공부하지 못하고 그림 그리지 못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 (-)시간이 아닌 오히려 한 걸음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음을 10개월 뒤에 당당히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고 싶다. 봉사는 남이 나한테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했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새생명복지회 이희정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복이 있나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서정시인 청마 유치환은 그의 시 “행복”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늘 남녀간의 사랑이든 박애주의적 휴머니즘이든 간에 일방적인 사랑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감정소요에 불과한 무용지물이라 여겨왔다. 그렇지만 지하철 참사 이튿날부터 계속되는 봉사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은 세상에 태어나 경험한 어떤 경험보다 값진 경험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정말 그랬다. 늘 받기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그 누군가에게 한끼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 박애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노동은 하루 종일 쉬지 않아도 피곤한 줄 모르게 하는 신기한 힘을 솟아나게 했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이상현상을 체험하게 만든다. 그 느낌은 바로 ‘행복’ 자체였다.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하지는 못했다. 대다수의 핑계가 그러하듯 먹고살기 바쁜 현대인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자신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며 살아왔다. 남을 돕는다는 것, 내 기쁨을 덜어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것, 아픈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따뜻한 한 마디 위로가 백 마디 연설보다 더 진한 감동으로 오가는 ‘새생명복지회’ 자원봉사의 현장에서 비로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진리로 빛나는 진정 값진 인생의 실체를 경험했다.

두달 가까이 운영되는 급식제공의 자원봉사 현장에서 지칠 법도 하건마는 자원봉사를 하는 회원들의 손길은 생기로 넘쳤다. 시작하던 날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행복하고 기쁜 얼굴들.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 대단하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그것도 24시간 종일 운영을 하면서도 늘 웃고 또 서비스의 친절도도 ‘며칠 저러다 말겠지’하는 몇몇 소수의 의구심을 뒤로 하고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으니 그런 말을 할 법도 했다.

회원들은 힘이 들어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피로를 떨쳐버린다. 아마도 모두들 ‘주는 사랑’이 갖고 있는 신비하고 기이한 능력에 동감하는 얼굴들이었다.

딸을 잃고 거의 반 실성한 어머니 한 분이 와서는 거의 수저질을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셔야 딸을 찾을 수가 있지요. 어서 여기 있는 국밥 국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어서요”하자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많이 울어 부은 눈에 눈물부터 고이신다.

“내 딸, 내 딸도 살아있었으면 자네같이 훌륭하게 클 수 있을 텐데. 아까워서 어떡하나. 내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식사를 하실 생각은 않고 내 손을 잡고 마냥 눈물만 흘리시는 어머니의 손이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덩달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야 만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딸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그러니 어서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지요. 딸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서요.”

수저를 손에 쥐어주고 국밥을 한 숟갈 떠서 그녀의 입으로 가져갔다.

“내가 먹을 게.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 지.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당신들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당신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쉬어진 목소리로 자꾸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등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북받쳤다. 국밥 한 그릇이 만드는 감동의 순간들. 비록 작은 사랑이라 할 지라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감동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랍기만 했다. 행복했다. 가슴이 찡한 그 감동.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나 보다.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갑절이나 행복하고 복된 일

이라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유족들은 아픈 사연을 담고 찾아와 국밥 한 그릇에 시름을 덜고 가고, 시청 관계자들은 격무에 지친 어깨를 쉬어갔다. 경찰들은 교대시간을 이용해 허기를 메우러 왔고 분향소를 들렀던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노라며 찾아왔다. 그리고 거리에서 헤매던 노숙자들도 한끼 식사를 배불리 먹고 돌아갔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든데. 이곳은 어떤 곳이길래 모든 부녀들이 마치 내 일처럼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봉사다운 봉사를 하는 곳은 이곳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서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봉사를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도와도 되겠습니까?”

“이 돈을 봉사하는 일에 보태 주세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이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저도 여러분처럼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원들과 내가 만든 국밥은 그저 한 그릇의 국밥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수만명의 회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었고 그 사랑과 정성으로 사람들은 슬픈 현실에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갔다. 기쁨과 행복의 바이러스를 품고 나갔으니 이제 세상도 행복으로 가득할테지.....

오징어와 새우가 헤엄치는 해물탕 진국을 떠담다가 문득 커다란 국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철제로 만들어진 국자가 아니었다. 끝없이 깊은 사랑의 우물에서 사랑을 길어 나르는 사랑의 두레박, 바로 그것이었다.

자원봉사는 나의 제2의 직업

삼성전자 광소재지원그룹 김영재

'97년 7월, 나는 부푼 꿈을 안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였다. 신혼의 단꿈이 무르익어 가고 있던 '97년 10월, 현장 자재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나는 업무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었다. 정신이 들기 시작한 즈음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턱, 얼굴 그리고 머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턱뼈 골절, 치아 15개 파손, 치조골 손상,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

사고가 나는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턱뼈 수술과 2개월 동안의 입원 치료 끝에 다시 출근을 할 수 있었다. 그 때부터 두번째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나의 업무중에 사회봉사 업무는 더욱 더 애착이 간다.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기고 보니,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사회봉사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남긴다.

대구지하철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지난 2월 19일부터 우리 삼성사회봉사단에서는 대책본부가 설치된 시민회관에서 2개월에 걸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였다. 나도 업무적으로 약간의 틈이라도 생기면 구미에서 대구로 내려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그 전에도 몇 번의 경험이 있었던 터라, 능숙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많이 드세요" 라는 말과 함께, 1,000여명 분의 배식을 하고 나니 손에 물집이 생겼다. 몸은 힘들지만 급식 부스를 찾는 유족들을 보니 설 수가 없었다.

봉사활동 마지막 무렵에는 상황이 많이 정리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희생자 가족들은 슬픔의 수렁에 빠져 있다. 우리의 봉사활동이 그분들의 아픔을 조

금이라도 덜어 줄 수만 있다면 언제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다짐해 본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이 부디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다시는 우리사회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봉사활동 참여와 참혹한 현장을 보고나서

삼성전자 인사그룹 박영란

얼마 전 나는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우리 삼성사회봉사단에서 사고 초반부터 무료급식 제공 봉사활동을 계속 해 왔었지만 나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였다.

내가 느낀 점은 참사 초반기 각종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다소 쓸렁한 분위기였다. 대구시민회관 앞에서 나는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내 주위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뻥 뚫린 듯한 슬픔이 밀려왔다.

밥을 시샘하는 듯 아주 쌀쌀한 날씨!! 저녁 배식이 끝날 무렵, 우리 어머니와 연세가 비슷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식사를 하러 오셨다. 한 눈에 보기에도 이번 참사의 희생자 가족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낮이 나간 날 초췌한 모습의 아주머니께 "맛있게 드세요, 힘내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 되려 슬픔이 될까 싶어서...

배식을 끝내고 사고가 났던 중앙로역으로 가 보았다. 역 입구에서 부터 사고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 할 수 있을 만큼 희생자들의 사진이며, 각종 사연, 그들의 혼을 위로하는 국화 다발이 놓여져 있었다. 올라오는 울음을 머금고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가시지 않아 숨쉬기가 불편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은 그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멍하니 그 곳을 지키고 있었다. 그 곳에서 처참히 숨져야 했던 자신의 피붙이, 남편, 아내를 생각하면 도저히 집에서 생활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기 이기심을 갖고 주변을 무시한 채 사는 것 보다는,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 여유가

없을지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인간의 목숨은 한 순간이라고 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운명의 굴레에선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인명이 재천이라지만 이렇듯 어이없는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저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지금 우리가 펼치는 작은 봉사활동이 유가족들이 새 희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날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 불교사회복지회에서는 희망의 집 무료급식 봉사팀과 관오사 봉사팀 30여 명의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시민회관으로 향했다.

우선 갑작스런 참사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을 고려해 소고기국밥을 준비했다. 또 탁자, 의자 등을 준비해 눈물로 밤을 지낸 유가족들이 잠시라도 와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따뜻한 녹차와 커피, 생수를 제공했다.

우리 봉사자들도 갑작스런 사고와 그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을 보면 눈물이 절로 나오고, 그들의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었다. 저녁시간이 지날수록 식사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으며, 우리 봉사회는 야간봉사활동까지 겸하였으므로 퇴근 후에 오는 분들이나 뒤늦게 소식을 듣고 밤늦게 오신 분들이 많았다. 밤새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봉사자들마저 뜬 눈으로 밤을 세우며 유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했다.

다음날 아침 또다시 봉사자들이 모였다. 총 40여명으로 어제보다 더 많은 봉사자들이 와 주었다. 어제 활동하신 봉사자들 중 유가족들의 아픔을 집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다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이 활동에 동참하고자 오신 분들도 계셨다.

이번에는 단지 앉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뜨지 못해 앉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 1층 상황실 옆 유가족들이 모인 곳을 직접 찾아가 '떡과 음료'를 드리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유가족들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에서의 봉사팀 난립은 오히려 혼잡스러움을

초래하기도 하여, 관계 기관에서 봉사단체간에 참여일정을 조절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도 우리 봉사단은 산하기관인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남구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주·야간에 계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너무나 어이없는 사고.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 이웃들의 희생. 함께 목놓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 주신 자원봉사자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봉사활동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봉황자원봉사단 신성자

2003년 2월 18일 지하철 중앙로역에 화재로 인한 대 참사가 발생했다. 19일 아침 일찍 동화사 주지스님께서 급하게 봉사단 간부들을 소집하셨다. 내용은 참사현장 봉사활동에 관한 지시가 내려지고 우선 현장에 인원투입부터하기로 결정하고 시민회관 분향소에 갔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질서는 없어 어수선했다.

먼저 대구시 자원봉사과에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문의를 했더니 청소하는 분이 계시지만 절대적으로 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청소 봉사부터 먼저 시작하였다. 앞치마와 고무 장갑을 준비하고 시민회관 본관과 전시관, 유족실, 분향소, 화장실 등 1시간에 한번씩 순회청소를 담당하였고, 현 상황이 오래 갈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회관 2층 동편에 텐트를 치고 라면과 과일, 빵, 각종 차 등을 준비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느껴 말사 사찰 봉사회를 8개조로 편성하고 1조에 15명씩 윤번제로 정하고 본사인 동화사 봉사단은 7명씩 매일 참가하여 봉사활동과 청소를 깨끗하게 하였다. 청소와 음식 제공은 그런대로 잘되어 가는데 유가족들의 위안과 실질 봉사에 애로가 많았다. 유족실은 슬픔에 잠겨 누워있는 분, 통곡하다가 기절하는 분,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분, 어떻게 도와야 될런지 막연했다. 말을 붙이기도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럽게 흩어진 모포를 조심스럽게 정돈도 하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권해보기도 하며 손을 잡고 울기도 하면서 함께 생활이 시작되었다. 유가족들은 차차 인사도 하고 위가 아파서 밥을 못 먹는다 하기에 급히 죽을 끓여서 드렸더니 흰죽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땀을 쥘 흘리면서 울면서 고맙다고 하실 때 봉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참사 현장인 지하철역에도 찰떡을 공급했었다. 매캐한 공기로 머리가 아팠고 호흡에 지장도 있었다. 급기야 15일이 지나면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링겔을 맞고 기운을 차려 또다시 봉사에 임할 수 있었다.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의 지시로 스님 다섯 분이 매일 같이 오전 11시, 오후 3시. 두차례에 걸쳐 혼신을 다한 왕생극락 기도가 계속 되었다. 왕생극락 축원이 30분간 진행되고 봉사에 투입되지 않은 우리 봉사요원과 분향소를 찾은 분향객,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불자와 함께 동참하여 지극 정성으로 기도 에 임하였다.

기도를 드려 비명에 가신 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봉사를 하고 철수했지만 스님들께서는 4월 7일 49재가 끝나는 날 까지 축원을 하신다 하셨다. 봉사기간 중 힘들어질 때도 있었으나 매번 방문해 주셔서 나의 일처럼 내 가족처럼 돌보라는 동화사 주지스님이신 지성스님의 격려와 사회국장스님이신 덕현스님의 후원에 힘을 얻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봉사단체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도 했지만 몇몇 이상한 단체도 있었다. 와 떠들며 와서는 텐트를 치고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여러 번 찍고는 곧장 철수를 하더군요. 주지 지성스님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믿음은 있으나 그 참다운 실천은 없다”고 말씀하신 생각이 났다.

불교에서는 영원한 선도 없고 영원한 악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 의식 수준이 크게 바뀌어야 된다는 절실한 현실을 실감하면서 아직도 슬픔에 잠겨 마음고생이 많으신 유가족들에게 한번 더 위안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마음임을 전한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시는 시 관계자님과 함께 동참한 모든 봉사자님 앞길에 부처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지침동우회 조문순

몇 년전 우연한 기회에 친구와 함께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지침반에 등록하여 수지침을 배우게 되었다.

그 후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생님과 선배들을 따라 복지관, 노인정으로 다니던 것이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그러한 날들이 이제는 내게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에 일어난, 생각하기도조차 싫은 대구의 지하철 참사였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불안해하면서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지침 동우회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수지침 회원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봉사활동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앞 다투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들이 많아 우리는 일단 조를 짜서 날짜별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첫날은 우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 경대병원과 파티마병원 영안실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선 나부터라도 하루하루를 무척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큰일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니 모든 일을 다 제치고 순식간에 모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는 파티마병원에 배치되어 119 구급차에 실려오는 사람들의 그을린 손과 얼굴을 닦아주고, 시트를 바꾸어 주고, 유족들에게 음수를 제공하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응급실 전체가 매캐한 냄새와 유족들의 오열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우리 봉사자들은 개의치 않고 환자들

을 돌보았다.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귀에 쟁쟁하여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다음날부터는 시민회관 입구에서 간식과 음수를 제공하는 일을 24시간 쉬지 않고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였다.

딸을 잃은 부모님이 우리 팀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을 지나가며 얼마나 슬피 우는지 우리 팀도 모두 같이 울어버렸다.

우리는 울음을 참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 저녁시간이 되어 우리는 직접 식사를 들고 가서 유족들에게 식사하기를 권유하였고, 그분들께는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일단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을 잊지 않고 드렸다. 그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가끔씩 우리에게 고생한다는 말을 잊지 않으시는 어느 유족의 따뜻함은 밤잠을 설치면서 계속 자원봉사를 하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최근에는 분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배치를 받았다. 분향소라는 말에 약간 두려움을 느꼈지만, 오시는 조문객들에게 국화꽃을 나누어 드리고, 꽃을 손질하는 일을 하는 동안 그런 생각은 순식간에 없어졌고, 분향소 가득한 슬픔들이 빨리 가실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영전 앞에 놓인 유족들의 간절한 소원과 위로의 편지를 하나 하나 읽어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끝까지 읽어 내려 갈 수가 없었다.

하나 같은 내용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저 세상에서 다 이룰 수 있길 바란다는 사연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게 유명을 달리 하신 그 분들을 위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그마한 봉사밖에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만, 봉사하는 일을 나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참여와 봉사의 힘

대구은행 DGB봉사단 간사 김건식

이번 대구지하철화재 참사는 한 시민의 사소한 감정에 의해 일어난 대형 사고로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긴 비극적 사건이었다.

우선, 우리 생활주변이 언제나 대형재난 사고로부터 절대로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또한,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 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봉사가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언제나 지역과 함께하는 대구은행 DGB봉사단은 2월 18일 지하철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60여명의 봉사단이 긴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우리가 갔을 때, 현장에는 사고수습 대원들과 언론사 취재진, 그리고 가족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몰려든 많은 시민들로 사고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처음 접한 비극의 현장은 차마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광경 그대로였고,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있다. 첫날부터 우리는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사고수습 현장에서 커피와 녹차, 생수 그리고 컵라면 등을 제공하고, 사고를 당한 가족들과 아픔을 같이하기 시작했다.

사고 이튿날부터는 사고대책본부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시민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시민회관 주변은 200여명 이상에 이르는 희생자의 유가족과 분향소를 찾는 전국 각지의 많은 참배객들로 온종일 발디딜 틈이 없었다.

우리 봉사단은 사고수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시간을 쪼개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주야 근무조를 편성해 3월 중순까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중 합동분향소를 찾는 참배객이 늘어나면서 어묵 3만개, 컵라면 150박스, 제빵류 120박스, 커피·녹차 8천개, 생수 3천병, 꿀 20박스 등 엄청난 물량의 음식류가 유가족과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제공되었다. 특히 대구은행 부인회에서 직접 끓인 어묵은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이외에도 본점 등 주요건물에 애도현수막 설치, 애도기간중 전직원 휴폐 폐용,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금융상담 및 지원, 대책본부 내에 조의금 접수처 개설 등 지역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경우에서 보듯이, 민간단체의 자원봉사는 사고수습에 큰 힘이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구은행봉사단 뿐만 아니라 3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해 식사와 커피·녹차, 생필품 등을 제공해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대형재난 사고에 대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난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좀더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지금부터라도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해 재난구조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했으면 한다.

또한 이번 참사에 많은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지만 아직도 이러한 사고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참여와 봉사의 생활화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최고의 원동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재난과 고난도 우리 시민이 힘을 모으고 참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 우리는 민관이 하나로 지혜를 모아 사고를 원만히 수습함과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은행 DGB봉사단은 설립 1년만에 200여명의 봉사단원이 1,300여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성숙한 봉사단체로 거듭날 것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 대구은행은 일본 스즈오카은행과 금융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하고 있어, 이번 지하철 참사와 관련 스즈오카은행의 “미츠우리 아스모” 은행장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여 옴에 따라 “김극년” 은행장이 유가족들을 방문하여 위로의 뜻을 전하였음

<애도의 뜻 전문>

大邱銀行 銀行長 金克年 様

前略, このたびは、御地における不慮のご災難を報道で承知し、驚いております。 銀行長様はじめ皆様方のご心痛のほど拜察し、 ころからご同情にできません。

今後の對應等, 多課題に直面されているかと存じますが, なにとぞお心落しなく, 事態の收拾に取り組まれ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まずは取り急ぎ書中をもってお見舞い申し上げます。

草草

2003年 2月 20日

株式會社 静岡銀行

頭取 松浦康南

대구 지하철참사 현장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대전보건대학 장례지도과 2학년 김완수

2003년 2월 18일, 그날은 온 국민이 하나의 큰 사고 앞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한 어른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재난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다.

사고 후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남은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마음속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하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손을 잡아주고 있다. 나는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런 사고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이 애통하게 느껴진다.

많은 국민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아픔은 그리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 혼자 살아서 미안하다고 먼저 가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이 말은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 남은 이가 자신도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어렵게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분들께 미안하다고 건넨 말이었다. 이처럼 이번 사고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슬픔에 고통받고 전 국민이 큰 충격에 휩싸였던 이 사건도 언젠가 부터 우리의 뇌리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과거에도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받았거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이 그러했듯이, 대구지하철참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일상 속의 일들과 함께 평범한 일처럼 잊혀져 가게 될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슬픔에 젖어 고통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사고가 있는 후 나는 대구지하철 사고현장에 봉사활동 가자는 학과장님의 전화를 받고, 방학기간이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있는 터라 망설였지만 나의 작은 도움이 유가족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흔쾌히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동기들과 함께 대구

지하철 사고현장으로 내려갔다. 대구역 부근 시민회관에 마련된 사고대책본부 주변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이 줄줄이 연이어 있었다. 모여든 사람들의 훈훈한 정을 느끼며 그곳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근엄한 마음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를 하였다.

헌화 후 사고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중앙로역 지하도로 차츰 내려가면서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욱한 연기와 불에 검게 그을린 검은 벽들이 그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대변 해 주는 듯 하였다. 더욱이 까맣게 그을린 벽 위에 쓰여진 그리운 이들을 위한 마음의 글들을 보았을 때는 차마 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울한 기분으로 사고 현장을 뒤로 하고 다시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시민회관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담당자의 말이 사고현장 뒷수습 과정에서 유골로 추정되는 것과 고인의 유품으로 판단되는 물건이 발견되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미루어졌다고 하여 봉사활동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 그 후 대구시립의료원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몇 명의 봉사요원들을 남겨두고 복귀하였다.

짧은 봉사기간이었지만 나에게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내가 선택한 장례지도과를 통해 이렇게 남을 위해 좋은 일도 하고 말이다.

언제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 주변엔 항상 그들과 슬픔을 함께 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이웃간의 정이 멀어지며 서로간에 삭막해져 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서로간의 따스한 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대구지하철참사는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또 다시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대구참사도 시간이 가면 많은 일들과 함께 잊혀지게 될 것이고 아련하게 먼 기억 속의 일처럼만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못된 모습은 그만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하철참사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국민은행사회봉사단 김철호

이웃 사랑회 활동을 4~5년 동안 계속해 오면서 나는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돕는다는 막연한 생각과 한 사회의 일원으로 누구를 돕고 있다는 마음 한구석의 위안으로 보낸 것이 사실이다.

고아원도 찾아가고 양로원과 지체장애아동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들 보다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며, 봉사활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느낌을 가졌었다.

굳이 말하면 이런 활동들이 나에게 사명감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웃에게 한번이라도 도와주었다는 나만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지만, 내심 남에게 나의 활동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대구지하철참사는 나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철없는 것이었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처음 사고 났을 때 흔히 있는 사고겠지, 사람 몇 명 죽고 안전불감증이니 초동대처가 늦었느니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그런 사고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런 사고 유형이긴 하나, 너무 크고 끔찍한 사고였다. 사고가 난 후 10여일이 지나 참사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참혹하고 엄청난 재난 앞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장을 찾기 전에는 큰 사고가 났다니 현장에서의 봉사활동은 어려울 것 같고 성금이나 내지 하는 마음으로 참사 돕기 성금으로 동참하였다. 또한 직장에 매여있는 몸으로 현장에서 무엇인가 돕는다는 것은 생각뿐이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 자신이 엄두가 나질 않았다.

하지만 은행과 여러 사람이 현장을 찾아 돕기 시작하고 우리 이웃사랑회의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돕기를 마음먹고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니 무엇

보다도 가족을 잃은 이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였고 이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게 더욱 좋았다.

현장에는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있었고 이들도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이들에 비해 나는 그 며칠동안의 봉사활동이 낯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현장에 쓰여진 구구절절한 사연 하나하나를 가족 잃은 슬픔이 담겨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다.

봉사활동을 하며 무언가 모르는 가슴 한구석의 허전함을 느끼며 내 가족의 아픔같이 함께 한 시간들이 짧은 시간의 봉사활동에서 그전의 많은 활동보다 더 가슴을 저미게 만들고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준 것 같다.

중앙로역 지하철참사 자원봉사활동 체험을 마치고

국민은행 대구사회봉사단 문정희 (사원가족)

2003년 3월 9일 일요일, 국민은행사회봉사단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사고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마스크를 통해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보고 듣고 했지만 선뜻 올 수가 없었던 곳. 그곳에 들어서면 순간 매캐한 냄새와 시커멓게 탄 벽 그리고 희생자들의 사진과 애절한 사연들로 가슴이 메여왔다.

우리는 현장을 둘러보고 국민은행 지역본부장님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사회봉사단활동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할 활동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그 결과 "국민은행 사회봉사단 직원부인회"라는 명칭으로 주말과 주중의 저녁시간에 활동하는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돕기로 하고, 8명의 회원들은 3월 10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번을 정해 활동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대구지역본부장님의 격려와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탕과 여러 가지 차(茶)류 그리고 라면을 실종자 가족과 참배객들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봉사였지만, 첫날은 노숙자들이 자주 와서 가져가는 일이 당황스럽고 알뜰기도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마음마저도 비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리 매김으로 시작한 마음이었는데 차차 조금이라도 실종자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해 보자며 우리는 몸에 좋은 한차를 끓이고 과자류와 껌을 사다놓았다.

캄캄한 곳에서 향내와 탄 내음 때문에 눈이 따가워지는 환경에서 하루종일 있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종자 가족들의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에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았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칭찬을 받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얻고 보람을 느꼈으며, 봉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가치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기성장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실종자가족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4월 11일 우리는 봉사활동을 끝냈다.

기업도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기업시민정신이 강조되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사회가 건강해야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업내 자원봉사모임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은행에서도 타 은행보다 앞서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직원가족들에게도 자원봉사 할 기회를 제공해 준 덕택에, 예전에는 남편이 다니는 은행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우리은행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고 얼굴만 알고 있던 부인회원들간에 함께 봉사하고 교류하므로 대인관계를 넓히고 팀워크를 다지는 훈련이 되기도 했다.

우리의 한 달간의 자원봉사활동은 적은 회원이라 힘은 들었지만 서로 갑자기 일이 생겨서 활동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주위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였다. 그들은 기꺼이 참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었다며 자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끝으로 이번의 활동은 내게는 참 큰 의미가 있는 봉사활동이었다.

뒤늦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사회봉사단의 일원이 되어 활동한 일들이 여러 단체의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전공 분야이니까 실습하는 마음으로 자신있게 해보라는 회원들의 배려로 사회봉사단 직원부인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장으로서 봉사단의 계획안도 만들고 매일매일 봉사일지도 쓰며 활동을 해나갔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언제나 남들 뒤에서만 있던 소극적이던 자신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회원들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자신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新聞報道資料

매일(1면) 2003. 2. 18

지하철 전동차 방화. ..120여명 死傷

오전 10시쯤 大邱중앙로역 진입 순간 50代 남자가 인화성 물질에 불붙여

대곡역 출발~안심역 향하던 중 발생 12시 현재 3명 숨져...사망자 더 늘듯

18일 오전 9시55분쯤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50대 남자가 신나가 든 플라스틱 통에 불을 붙여 전동차에 방화, 전동차가 불타고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20여명의 승객이 질식해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사고로 1호선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관계기사 31면

또 중앙로역 기계실 내에 작업인 부 6명 등 12명이 고립돼 있고 전동차 안에도 승객들이 일부 남아 있으나 연기때문에 구조대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목격자 전육남(64)씨는 대곡에서 안심으로 향하던 1079호 지하철 1호선 열차(기관사 최정환)가 중앙로역에 진입하는 도중 불이 났다고 말했으며, 맨 앞칸에 탔던 흥흥회(73·대명동) 할머니는 '열차가 중앙로 역에 도착한 뒤 50대 남자가 5되짜리 플라스틱통을 갖고 탄 후 자리에 앉으며 라이터의 불을 켜다꼈다 해 옆 승객이 말리는 순간 불을 질렀다'고 했다. 그 후 곧바로 열차 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안지랑역에서 탔다는 김호근(68·대명9동)씨는 '지하철 맨 앞칸에



타고 열차가 중앙로역에 도착할 즈음 1m쯤 떨어진 곳에서 불길기 치솟으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동산병원에 입원한 정영석(43·대구 산격2동)씨는 '열차가 중앙로역 부근에 다다랐을 때 전동차 안에 열기가 가득차 박을 보니 연기와 불기둥이 보였다'며, '기관사가 전동차 문을 열자 시커먼 연기가 전동차 안으로 들어와 기관사가 문을 다시 닫겠다고 방송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로 미뤄 열차의 앞부분 객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은 불을 낸 남자가 분신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50대 전후에 키 170cm 정도, 감색 운동복을 입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김모(56·내당동)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 중이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

리고 있어 열차가 정차한 후 승차한 승객이 불을 질렀는지, 아니면 이동 중인 열차에 승객이 불을 질렀는지는 불분명하다.

사건 후 다친 승객들은 광병원 22명, 경북대병원 26명(여자 16명, 아기 3명, 남자 7명), 동산병원 26명, 영남대병원 20여명, 보람병원(비산동) 2명, 파티마 병원 7명 등으로 나뉘어 옮겨졌으나 낮 12시30분 현재까지도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환자들은 대부분 혼절 상태였으며 거의가 온몸에 그을음을

뒤집어 쓰고 일부는 토하거나 의식 불명 상태여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승객 중 가톨릭병원에 입원했던 이창용(57·신암4동)씨는 곧바로 숨졌고, 경북대병원·동산병원 등에서도 각 1명씩이 숨졌다.

사고 열차는 이날 오전 9시29분 대곡역을 출발해 안심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열차는 정원 780명의 6량 짜리였으며, 대곡역을 출발, 9시52분 중앙로 역에 도착토록 돼 있었다. 이날 사고는 이 열차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9시56분쯤 반대편 차로의 중앙로역에 대곡 방향 열차가 도착, 피해가 더 커졌다. 사회1부

대구시 대책본부 설치 본부장 김기옥 부시장

지하철 화재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빚어지자 대구시는 시청 2층 밀라노 프로젝트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 사고 수습에 들어갔다. 시는 사고 직후 조해녕 대구시장이 사고현장을 방문해 지휘에 나서서 한련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김기옥 행정부시장을 사고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사회1부

대구지하철 200여명 사망·실종

전동차서 정신질환자가 放火... 138명 부상

조선(1면) 2003. 2. 19

맞은편 전동차에 옮겨붙어 객차12량 전소
50대범인 체포... 정부 특별재난지역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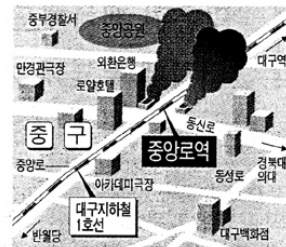
18일 오전 9시55분쯤 대구시 중구 남일동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구내, 진천동에서 안심동으로 운행하던 1079호 전동차(기관사 최정환) 안에서 한 정신질환자가 불을 질러, 이날 오후 11시 현재 적어도 승객 122여명이 사망하고 138명이 부상, 85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전동차 내에서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통에 라이터로 불을 일으킨 뇌병변 2급 장애인 김대한(金大漢·56·대구시 내당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화상을 입고 대구 조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체포됐다.

목격자 전용남(64)씨는 "전동차가 중앙로역 구내에 진입하기 전 김씨가 라이터를 지푸 켜려고 해 주변 승객들이 달려들어 제지했으나 전동차가 멈춰서는 순간 불이 났다"며 "처음에 범인 김씨의 몸에 먼저 불이 붙은 뒤 곧바로 전동차 전체로 번졌다"고 말했다.

불은 순식간에 전동차의 6개 객차에 번졌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역사로 진입하던 전동차가 단전(斷電)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여기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



맞은편 전동차의 기관사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5분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줘, 승객들의 대피가 늦어져 처음 불이 난 전동차보다 더 큰 피해를 낳았다.

사고 직후 정전으로 지하철 중앙로역 일대는 암흑천지로 변해 승객들이 서로 출입구를 먼저 빠져 나으려고 아우성을 지르는 등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불은 3시간반 만에 상·하행 전동차 객차 12량을 모두 태우고 이날 오후 1시30분쯤 진화됐으며 유독가스가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본격적인 구조와 시신 인양 작업을 벌일 수 있었다.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난 뒤 불에 탄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시신들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엉겨 녹아있었다.

정부는 방화사건이 난 대구지하철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건의키로 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에서 사고수습과 사후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邱=특별취재팀

주요(2면) 2003. 2. 19

맛은편 열차 ‘불구덩이 驛舍’ 진입

대구 지하철 참사

작은 불이 왜 큰불 됐나

대구 지하철 화재는 삼시간에 사상도 못할 정도의 재앙으로 변했다.

객차 한 칸에서 일어난 불길의 의자 등 가연성 물질을 태우면서 순식간에 규모가 커져 전동차는 물론이고 마주 오던 열차까지 모두 태운 것이다. 특히 대구지하철공사 차량실에서 “역사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전동차가 ‘불구덩이’ 역사로 진입하는 바람에 사상자가 늘었다.

◇양성만 방재 체계=대구지하철공

사의 운행시간표에는 화재가 발생한 하행선 전동차의 중앙로역 도착시간이 18일 오전 9시52분40초, 상행선 전동차는 오전 9시56분45초로 돼 있다.

뒤늦게 중앙로역에 도착하도록 돼 있는 상행선 전동차의 경우 이전 역인 대구역을 오전 9시55분35초에 출발하도록 돼 있어 최소한 3~4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상행선 전동차는 차량실로부터 아무런 정보나 지령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승객들을 불구덩이로 이끌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하철공사 측은 이날 오후 “하행선 전동차가 역에 들어

3분 여유 있었지만 정차 정보 못받아

선로사이 1m안돼 삼시간에 옮겨붙어

온 뒤 한참 지체하다 화재가 발생해 후속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지하철도에 서 화재라는 중대 사태가 발생했지만 승무원들이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안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상행선 전동차의 기관사가 제동장치를 제때 가동하는 등 역사 안에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도 의문이다. 역사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아무리 늦어도 역사에 도착해선 알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세웠기 때문이다.

신로의 전동차 도로로 옮겨 붙는 것은 너무 손쉬운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지하 경도의 경우 전동차가 이동하지 않아도 일정 풍속의 바람이 계속 불어 불길이 빨리 번졌다고 설명한다.

◇인명구조 비상정지 미비=이번 화재 피해자는 맞은 편 선로에서 들어온 전동차에서 많이 발생했다. 화재로 전동차가 정차한 뒤 전원이 자동적으로 끊기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데다 사방이 어두워 객차에서 재빨리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최소한 출입문이 수동으로 손쉽게 작동될 수 있도록 돼 있거나, 비상 탈출구를 나타내는 아광표지판이라도 제대로 설치했다면 이처럼 아쳐구로 내려가는 때죽음은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별취재팀

한국(31면) 2003. 2. 19

“한명이라도 더...” 목숨건 구조

“지금 사람들을 대피시키고...콜록 콜록...” 18일 오전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 승객을 구조한다며 현장에 남아있던 장대성(36)씨와 김상만(32)씨가 동료 휴대폰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다.

중앙로역에 파견 나왔던 차량정비공 장씨와 김씨는 사고 발생 직후 차량기사로부터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다. 부연 연기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승객들을 일일이 출구 쪽으로 대피시키던 이들은 더 이상 구조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급히 사무실로 대피했다. 하지만 유독가스는 방화벽이 차단 사무실마저 엄습했다. 마지막까지 승객구조에 나섰던 두 직원은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장씨와 김씨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된 대구 파타마병원 영안실은 가족과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통곡으로 뒤덮였다. 동료들은 “두 사람 모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도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키려다 화를 당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의 노부모는 “만약! 아이고! 만약!”라며 아들 이름을 부르다 실신,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 참사현장 의인들

소방관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구조활동이 수십명의 고귀한 목숨을 구해냈다. 참사 발생 직후 오전 10시께 가장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한 대구 북부소방서 구조대장 황윤천(44) 소방위를 비롯한 구조대원 7명은 곧장 대케한 연기가 치솟는 지하철 역사 안으로 내달렸다. 전등이 꺼져 칙칙함이 어두웠고 유독가스만 가득했다. 소방대원들은 지하철 사무실에 직원 10여명이 고립돼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서로 로프에 의지해 100m를 걸어내려

북부소방서 구조대원

“10명 고립”에 또 불길속으로

실신자에 산소호흡기 내취

간 이들은 이미 실신해 쓰러진 직원들을 발견했다. ‘이대로라면 구조해서 나간다 해도 모두 죽는다’고 판단한 소방대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자신의 산소 호흡기를 빼내 일일이 쓰러진 이들의 입에 물렸다. 자욱한 유독가스를 뚫고 실신자들을 업은 채로 구출하려면 정작 구조대원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산소호흡기를 교대로 물어가며 100여m를 되돌아가다 마침내 도착한 출구. 비좁은 공간에 상급한 공기가 밀려왔지만 이들은 잠시 호흡을 내쉬 뒤 다시 역사 안으로 내달렸다. /대구=특별취재반

한국(4면) 2003. 2. 19

대구鐵은 ‘사고鐵’

95년엔 가스폭발 101명 사망

“또 대구 지하철인가.”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를 잊지 못하는 국민들은 18일 또다시 발생한 대구지하철 대형 참사를 보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 시민들 사이에선 “대구에선 지하철 타면 안된다”는 지하철기피증마저 번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지하철과 관련해 사망자가 발생한 9건의 굵적굵적한 사고 중 4건이 대구지하철에 집중됐고, 100명 이상

이 사망한 국내 지하철 대형참사 2건 모두가 대구에서 발생해 ‘사고지하철’의 오명을 더하고 있다.

95년 4월28일 오전 달서구 상인동 1호선 상인역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101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부상을 당한 최대의 대형참사로 기록됐다. 이 사고로 등고 중이던 영남중고생 51명의 꽃 같은 생명이 스러졌다. 그 해 8월5일에는 1호선 12공구 공사장에서 폭약이 터져 4명이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었다.

■ 주요 지하철 사고 일지

일시	사고내용	사망·실종	부상
•1982. 4. 8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 건설공사장 붕괴	10	42
•1982.10. 8	서울지하철 3호선 반포 건설공사장 붕괴	4	4
•1992. 1.16	대구지하철 1호선 6공구 지지대 붕괴	0	1
•1995. 4.28	대구지하철 1호선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01	101
•1995. 8. 5	대구지하철 1호선 12공구 공사장 폭약폭발	4(사망)	
•1996. 1. 3	부산지하철 2호선 229공구 차량 전복	0	1
•1996. 9.17	서울지하철 8호선 3공구 차량 추락	4(사망)	
•1997.10.16	인천지하철 1호선 7공구 붕괴	4(사망)	
•1998. 8.24	부산지하철 2호선 공사장 붕괴 도로 7곳 침하		
•1999. 6.15	인천지하철 1호선 1공구 흙더미 붕괴	1	0
•2000. 1.22	대구지하철 2호선 북광명 붕괴	4(사망)	
•2003. 2.18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구내 전동차 화재	210여명	140여명

이에 앞서 92년 1월16일 1호선 6공구에서 공사장 지지대 붕괴로 1명이 부상했고, 2000년 1월22일엔 지하철 2호선 공사장인 신남대거리에서 북광명역 붕괴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지하로 추락해 4명이 죽거나 다쳤다.

대구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지

하철 대형사고는 10명이 죽고 42명이 중경상을 입은 82년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 공사장 사고를 꼽을 수 있을 뿐이다. 대구지하철은 1호선이 97년 11월26일 개통됐으며 현재 2호선이 2005년 완공목표로 공사 중이다.

/대구=특별취재반

매일(1면) 2003. 2. 19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하철 참사 피해 국가차원 지원 정부예비비 1조4천억원 활용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가 발생한 사고현장이 19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 지원이 이뤄지며 대구시의 피해보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관계기사 2~8, 13, 29~31면

정부는 이날 오후 광화문 청사에 서·김석수 총리 주재로 1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6차 중앙안전대책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대응본부장인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회의직후 청와대로 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공식 건의절차를 거친 뒤 대구 사고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정부는 관련 회의를 소집해 현지 사고 대책본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규모와 지원액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조4천억원의 예비비중 상당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 대도시 지하철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각종 사건·사고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등 2차례였다.

한편 정부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에게 최고 2천만원, 부상자에게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지난 1995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사례를 적용, 사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사망자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을, 부상자에게는 30만원을 줄 예정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aeil.com

국회, 재정지원 확정

상임위원장 긴급 간담회

국회는 19일 오전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임인택 건설부 장관과 조영택 행자부 차관, 김영진 국회재해대책특위위원장, 신영국 국회건교위원장, 한나라당 이재창, 민주당 유재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장단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피해 보상 및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방침을 확정했다. 김태완기자

매일(7면) 2003. 2. 19

사고 수습·피해보상 만전 지시

대구 지하철 참사

청와대·정부 움직임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18일과 19일 연이어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인력과 장비에 산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구시와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지원 비서실장과 조순웅 정무수석으로부터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를 관계부처가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의와 위로의 뜻을 표한데 이어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임인택 건교부 장관을 사고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 파악과 함께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김석수 국무총리에게 대구 현장을 방문,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 활동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군 당국에 대해서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지시했으며 노무현 당선자 측과도 협의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박지원 비서실장도 조순웅

정무수석, 현 정책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석회의를 주재, 사고 대책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행자부가 긴급 구조, 건교부가 수습 복구, 보건복지부는 응급 진료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동시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19일 오전 참사현장을 방문, 구조 및 피해상황을 둘러본 뒤 동산병원과 경북대 병원 등을 잇따라 둘러 유족과 부상자들을 위로했다. 또한 전날 밤 관련부처 장관 긴급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광화

문 청사에서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안전대책위를 소집,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18일 오후 대구 현지에 내려와 있던 이근식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구조활동 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행정부 제진주 방호과장은 '승객용 의자가 불에 약한 천으로 덮여있어 심한 연기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상자가 더욱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고에 대비, 현행 소방법의 각종 검사기준 등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2부

김총리 현장 방문 범정부적 협조 당부



19일 오전 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대구시지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하철 방화 사고수습과 사후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imaeil.com

매일(7면) 2003. 2. 19

정치권 움직임

여야 지도부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18일 긴급 대책반을 구성하고 일부 의원들을 현장에 급파한데 이어 19일 대구에 직접 내려가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선포 △진상조사단 구성 △국회 재해특위 가동 등 사고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조, 사고재발 방

지에 모든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여야는 이날 국회 재해특위를 긴급 소집, 사태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정부측에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 이날 국회 행자위와 건교위도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수습책 마련을 위해 20일 국회에서 총리, 행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 장관들을 불러 별도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 재해특위 가동

지도부 급파...여야대책반 구성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이상수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대구로 내려가 대구시지부에서 대구사고 관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과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대구 현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변경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사고현장과 병원, 그리고 시민회관에 마련된 빈소 등을 찾아 위로했다.

민주당은 19일 당 차원의 대구사태 대책특위를 구성, 단장에 박상희 대구시지부장을 임명하고 위원에 장태완·추미애·이미경·정세균·박주선·전갑길 의원을 선정했다. 이에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김석수 국무총리와 이근식 행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사고수습에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앞서 18일 저녁 당사에서 한 대표 주재로 긴급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 정세균 정

책위의장과 대구시지부장인 박상희 의원을 급파했다.

대구 현지 실사를 벌인 박 의장과 정 의장은 조해녕 대구시장과 함께 심야에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 지하철 객차를 직접 둘러봤다. 정 의장은 이같은 현지 상황을 19일 국회 건교위에 직접 출석, 김기옥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대신해 보고했다.

정 총무는 회의 직후 한나라당이규택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19일 국회 재해특위를 긴급 소집한 다는데 합의했다.

○...한나라당도 박희태 대표대행과 이상배 정책위의장 등이 대구를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유족들을 위로한 뒤 이 지역 국회의원·위원장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박 대행은 18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 당과 국회 차원에서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부상자 치료, 충분한 사상자 보상 등 모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 행자위와 건교위에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사고를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앞서 18일 대구 현지 진상조사단(단장 강재섭)을 구성, 사고 원인 파악, 사상자와 유족 위로 등 활동에 들어갔다.

또 대구 출신 의원 전원과 건교, 산자위원을 중심으로 재해특위를 구성, 정부의 철저한 사고 사후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강 지부장 등 지역 의원 7명은 전날 한나라당 연찬회 도중 사고소식을 듣고 대구로 급히 내려왔고 이들은 19일 오전 대구시지부에서 긴급 사고대책회의를 갖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법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이날 대구에 내려온 박 대행과 이 의장 등 당지도부와 함께 사고현장과 상황실, 경북대 병원 등을 방문했다. 강 지부장은 『사고 규모가 예상외로 엄청나게 크다』면서 『당 재해대책기구를 총동원해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1·2부

“너무 어이없어” 통곡의 대구

대구에는 거대한 눈물바다였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나면서 친척이나 친구, 직장동료, 이웃 주민 등의 사고 소식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구시민회관에는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희생자의 유가족과 친인척들로 통곡의 도가니로 변했으며 인터넷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방화참사가 일어난 중앙로역 출입구 계단 주변에는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헌화한 수천 송이의 흰 국화가 물결을 이뤘으며 일부 시민들은 고개 숙여 묵념과 기도까지 해 주변을 숙연케 했다.

공무원들은 일제히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았고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애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검은 리본을 나눠주기도 했다.

“한두번도 아니고 우째 이런일이” 망연
검은리본 달기-음주가무 자제등 호소
은행재개 지하철 승객 거의 없어 썰렁

방화참사가 일어난 중앙로역 주변의 학원가는 수강생과 강사 등 20여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통한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중앙로역 바로 위 A공인중개사 학원 수강생 이정숙씨(36·여)는 오전에 초등학교 3학년과 6세짜리 유치원생 딸을 등교시킨 뒤 바쁘게 학원으로 달려가다가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실종자 명단에 올랐다.

대구시민회관 유족대기실에서 탈진해 있는 이씨의 시어머니 안중술씨(63)는 “6세짜리 손녀가 ‘엄마는

언제 오느냐’며 자꾸 묻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열했다.

역시 공인중개사학원 수강생으로 실종된 김진희씨(33·여)의 남편 신승민씨(37)는 “아내가 휴대전화로 ‘지하철에서 불이 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문자메시지가 적힌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며 흐느꼈다.

대구시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분노와 애도의 글이 폭주했다.

L씨는 “어떻게 대구에서 이런 일

이...어이없는 사건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S씨는 “대구시민 여러분, 모두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어주자”는 의견을 올렸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대구시민 여러분, 당분간 음주가무를 자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TV를 보니 대구시민들의 슬픔이 서울까지 느껴집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격려의 글을 적었다.

대구의 대표적인 변화가인 중구 동성로는 인파가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아 침울한 대구의 분위기를 반영했고 은행이 재개된 지하철에는 승객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여서 대구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구=특별취재팀



눈물의 합동분향소

19일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대구 시민회관의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대구=특별취재팀

매일(1면) 2003. 2. 20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피해자 가족들이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정운칠기자

“대구 지하철 안전진단 최우선”

盧당선자 참사현장 방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정부가 비상을 건다는 심정으로 재발이 없도록 하고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재난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을 방문, 합동분향

소에서 희생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국의 지하철 안전 진단을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 대구를 가장 먼저 안전 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어 ‘정부가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사고 수습과 복구를 잘 하고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aeil.com

영남(1면) 2003. 2. 2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대구지하철 사고 현장인 중앙로역을 방문해 소방관계자에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묻고 있다.

盧당선자 대구 방문

“쫄지하철 안전점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 “전국 지하철을 상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구를 방문, 유족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대구 시민이 불안하므로 일단 대구에 예산을 지원해 대구 지하철의 안전점검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4면에 관련기사

노 당선자는 유족들의 ‘대구지하철 개통 중지’ 요구에 대해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조해병 대구시장에게 지시했다.

/박성현기자 parksh@yeongnam.com

매일(35면) 2003. 2. 20

“대구여, 울지마오” 전국서 애도 물결

대구지하철 참사

네티즌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
종교단체 위령 행사도 잇따라
23일 추모의 날 지정 일제묵념

대구는 울고 있다.
검은 연기가 온통 하늘을 가렸던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엔 내 이웃들의 슬픔에 함께 눈물흘리는 이름모를 시민들이 바친 하얀 국화꽃이 수북이 쌓여가고 있다.

참사 발생 이틀이 지난 지금, 희생자들에 대한 애끓는 추모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애도의 정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대구시 홈페이지가 18일 개설한 「사이버 추모 게시판」에는 이틀만에 2천여건에 이르는 추모의 글과 사연들이 올랐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5개의 추모카페가 개설돼 이틀만에 2천460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포털사이트 「야후」는 애도

의 뜻에서 초기화면을 검은 글자로 구성하고, 삼베 리본 「■대구■」을 달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시의회는 19일부터 23일 까지 5일간을 「시민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청·시의회·산하 사업소·구군청·동사무소 등에는 19일부터 반기가 게양됐고,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이날부터 추모 리본을 달기 시작했다.

또한 23일은 「시민추모의 날」로서 오전 10시 정각 시청은 사이렌을, 종교단체는 타종을, 차량운전자는 경적을 일제히 울리고 시민들은 묵념시간을 갖기로 했다. 대구시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시민추모의 밤」 행사를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지역 종교계와 대학들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사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지역 개신교회들은 19일 수요일예배에서 「유족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희생자를 추모했으며,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20일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 유족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을 호소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20일 오전 교구장인 이문희 대주교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데 이어 오후7시 계산성당에서 대구가톨릭대 교수신부단 공동집전으로 추모 미사를 봉헌하며, 23일엔 대교구내 모든 성당이 추모미사와 함께 성금을 모금한다.

대한불교조계종 본사주지연합회 회장 법장스님과 중진스님들은 20일 오전 9, 10시 참사현장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고, 대구 서봉사는 불자가족이 원할 경우 납골안치단과 평생위패단을 무료제공(053-475-6009)키로 했다. 영남불교대학·관음사는 23일 오전9시50분 4층 법당에서 희생자 천도재를 49재로 봉행키로 했다.

이번 참사로 4명의 직원을 잃은 대구지하철공사는 안심기지창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한편 전직원이 추모 리본을 달았다. 전국철도노조도 2월 한달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종철·조향래·김해용기자

대구일보(1면) 2003. 2. 21



◇20일 오전 대구지하철방화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현화하고 있다. 이근영기자 gylee@idaegu.com

동아(30면) 2003. 2. 21

“희생자들 영면을”

교황, 대구참사 애도 메시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사진)가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전문을 발송했다고 교황청 고위관리가 19일 밝혔다. 교황은 교황청 국무장관인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이 대신 작성해 대구교구 이문희 대주교에게 보낸 전문에서 “희생자의 영면을 빌고 오염하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신의 가호와 위로가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로마=DPA 연합뉴스

대구지하철 최우선 점검

재발막게 재난관리기구 설치

盧당선자 현장 방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 전국 지하철을 상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대구지하철에 대한 안전점검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구를 방문해 유족대표들과 만나 “대구 시민이 불안하므로 일단 대구에 예산을 지원해 대구지하철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새 정부에서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상을 건다는 심정으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방송사나 보건복지부에서 국

민모금운동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방해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고 강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했다.

노 당선자는 유족들의 “대구지하철 개통 중지”요구에 대해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조혜영 대구시장에게 지시했다. 노 당선자는 이에앞서 시민회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으며, 화재현장인 중앙로역을 방문, 사고수습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현황과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노 당선자는 영남대병원으로 이동, 부상자와 가족들을 위로한 뒤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대표와 면담했다.

임호·홍동희 기자
tiger35@idaegu.com

전국 각지서 성금 밀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문과 성금이 전국에서 밀려들고 있다. 삼성생명 이수빈 회장은 21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대책본부에 성금 50억원을 전달키로 했다. 포스코와 대구은행은 20일 각각 5억원과 3억317만원을 보냈으며 LG전자도 21일 성금을 보내겠다고 사고대책본부에 연락해 왔다.

이와 함께 부산시 경기도 경남도 등 각 시도의 자치단체장과 국제라이온스클럽 등 각계의 성금이 속속 답지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조선대 등 전국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또 사고대책본부의 성금모금 통장(대구은행 계좌 036-05-005208·예금주 지하철사고수습본부장 김기욱)에는 20일 오후 현재 전국에서 13억3000여만원의 성금이 입금됐다.

대구=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넋임은 대구...

대구지하철 참사

제모임등 잇단 취소 유홍가 인적 한산
관공서엔 조기... 분향소 추모인과 북적

도시전역이 의욕을 잃은 듯 '멍한 모습'이다. 평소 거리 곳곳에 넘쳐나던 활기와 생동감도 사라졌다. 소비도시의 명성을 대변하던 발 거리의 화려함을 빛을 바랬고 도심 골목에서 자주 눈에 띄었던 흥장만경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민들도 냉랭한 이 낯이든 슬픔에 몸을 웅었다.

20일 밤11시, 유홍가가 밀집돼있던 수성구 수산동의 이른바 '버저캄' 목요일에는 평소의 흥창거림은 간데 없고 한산하기만 했다. 평소 발만 댄면 만원시세를 보였던 택시승차장은 사람들이 들끓고 포장마차거리도 인적이 드물었다. 대구 수성구 상동 성림북에 주던 도정화(여)씨는 "각종 모임의 저녁 손님이 시고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황금배거리를 중심으로 다녔다며 붙어있는 유홍가는 개점휴업상태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B유홍주점 주인은 "들러 불경기 탓에 사고이전부터 손님이 약간 줄긴 했으나 사고이후에는 하등에 1~2명이 고작이다"며 "이들 손님들도 대부분 술만 마실뿐 노래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거나 북구

활동에 지법적으로 참여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잠시기가 벗어난 중앙로에는 사고 다습날 새벽 누군가가 처음 놓기 시작한 국화꽃이 수북이 쌓이는 등 추도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시민회관 별관 2층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도 매일 수백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 대구지역 관공서와 은행 기관 사무실 직원들은 조기를 내걸고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대구은행은 시내 5개소에 추모의 글을 담은 현수막을 내 걸고 전 지점에 반기를 게양했다.

대구 동구 신천동 정한봉(29·여·회사원)씨는 "이 날 밑에 예정된 게모임 등 각종 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마음에서 검은 리본을 만들어 사무실 직원들에게 팔게 했다"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19일부터 5일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은 시민 추도의 날로 정해 이날 오전 10시 대구전역에 사이린과 함께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기로 했다. /대구=특별취재반

거리마다 애도 물결



영결식서 오열 20일 대구지하철 공사직원 고 정대성씨의 영결식이 치러진 인심 차랑기지의 장씨 사무실에서 부인 정현 /대구=특별취재반

한국(30면) 2003. 2. 21

대구일보(1면) 2003. 2. 21

사령실·기관사 100여명 조사

경찰, 맞은편 전동차 불길속 진입등 추궁

대구지하철 참사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의 관련, 대구지방법경찰청은 20일 지하철 기관사와 종합사령실 직원들에게 대한 과실과 직무유기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불이 났는데도 종합사령실이 100호 전동차를 사고가 난 중앙도막으로 진입토록 한 사실 등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법경찰청은 사고 전동차 2대가 정차 즉시 모두 문이 열려 일부 승객이 대피한 뒤 문이 잠긴 것으로 사고 기관사 등 지하철 공사 관계자의 과실과 책임을 가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부상자와 기관사, 지령실 관계자 등 10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불이 난 107호와 반대편 100호

전동차 모두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00호 열차 기관사 최모(39)씨와 종합사령실 직원 사이에 오간 무전내용 녹음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오전 9시 55분부터 9시 58분까지 차량 이동이나 승객 대피를 둘러싸고 오라가라, 결정적인 때의 시기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와 사령실 직원 등을 포함한 지하철공사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정확한 고신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최씨가 사고 당시 사령실 관계자에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다는 부분과 사고이후 장시간 사고 내용을 보고했다는 부분 등 여간한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의자 김모(56)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행1부

사령실관련자 사법처리 방침

경찰, 화재 발생후 2~3분간 우왕좌왕

대구경찰청은 20일, 종합사령실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들이 불이 난 지 2~3분 뒤인 9시 55분께 한 여무원의 신고를 받고 뒤늦게 CC-TV를 통해 중앙도막에 불이 난 것으로 확인하고 반대차선 진입 전동차 100호 기관사 최모

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100호 전동차와 종합사령실의 무선교신 내용과 차이가 나는 기관사 최씨와 직원의 진술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경찰조사로 종합사령실 직원들의 업무 태만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계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앞으로 사고 책임을 따지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감식팀은 열배치량기 지층에서 사고 전동차에 대한 1차 감식을 벌여 두께를 79개를 확인한 결과 이번 지하철 참사의 사망자는 모두 13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황재경기자

정치권 유족돕기 팔건었다

고충처리센터 설치... 지역 의원들 상시 대기



대구의 정치권이 담당하거나 어떤 일을 겪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돕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부터 합동본향소가 설치된 시민회관 3층 이복도 민 사무실 한쪽에 '국회의원 고충처리센터'를 마련, 2.18 대구지하철 화재 피해가족돕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원들은 순서를 정해 매일 당면형 태로 대기, 유족들이 사고수습과 관

피해가족들의 불만·요구사항 접수

바깥당 무료 인지·장례비 추가 지원

런해 요구를 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면 즉각 관계 당국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준다.

다만 백승훈 의원은 사고발생자인 종구의 중앙로역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상시 대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충처리센터는 착남 유족들로 부터 장례구비서류 간소화와 대구구원포지 및 남광당 무류인지, 장례비 추가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를 당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21일엔 백 의원은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신천역 폐쇄화로TV가 17일 오전에 고장인 바림에 18일 탑승객을 촬영하지 못했는데도 수리를 맡은 교대분소와 신천역 관계자는 서로 '고치려 갔었다', '못 고치고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등 말이 엇갈린다"며 '은혜' 의혹을 제기한 것을 진중적으로 다뤘다. 백 의원은 "대구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줄으로 이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 위원장은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당원들에게 '식사를 비롯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소해야지 유족들의 눈치를 받거나 공무원들

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 복하라'고 엄명을 내리기도 했다. 민주당 대구시지도 금명간 지원선터를 시민회관에 설치, 유족과 실종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라 시민회관측이 애로를 겪고 있으며,이때문에 '그럼잡아도 복잡한 데 정치권이 사무실을 요구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무실을 만들 어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유족들을 도와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편찮은 것은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정세준기자
penman@daegu.com



합동본향소 찾아

21일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 정복도지부장(왼쪽 두번째)과 의원들이 대구지하철 참사 합동본향소를 찾아 현충하고 있다.
이근영기자 g.yee@daegu.com

영남(15년) 2003. 2. 24

謹
검은 리본 달고 머리숙여 묵념하고...

卍 지하철 희생자 뉘 위로 '추모공연' 잇따라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모 분위기가 대구지역 문화예술계의 공연과 행사마다 나타나고 있다. 지하철 참사 이후 상왕수 공연이 취소된 대신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하는 추모성 공연으로 이어지거나, 일부 공연은 희생자를 애도하는 경한 분위기로 진행 중이다.

음악협회

대구지하철(지부장 최영은)은 시간에도 기간인 21~23일 참사현장인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인근에서 추모 공연을 열었다. 음

협대구지부는 브리소벤드와 현악기 연주팀을 구성해 이 기간 매일 오후 30분에 걸쳐 진혼곡을 연주하며 희생자의 넋을 달랬다. 지난 21일 오후 대구문화관에서 장기공연을 한 대구시립극단은 공연전에 극단대표가 애도를 표시하고 관객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불렀다. 출연진은 모두 검은 리본을 단 채 공연했다.

22일 오후 대구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연

린 노래에 '소리타레'의 공연에선 관객들이 검은 리본을 덮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모사와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소리타레' 측은 공연장에서 유족들이 모금문화를 보고 사고현장인 중앙로역으로 이동해 연주회를 마쳤다.

또 22일과 23일 대구시내의 한 박물관에서 열린

북원드 공연도 공연팀과 관객들이 모두 검은 리본을 달고 공연을 했다.

공연장 밖에서 지하철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볼레카드를 내

간 대구문화관은 앞으로 상왕수 공연기간 문화관에서 갖는 모든 공연은 공연에 앞서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와 묵념을 올리고, 단원들은 상정(喪禮)을 닦도록 했다.

한편 오는 27일 대구시문화관에서 열린 예정인 대구아기배합창제는 대구시민화합축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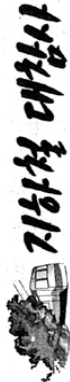
/박종필기자 kbjm@yeongnam.com

/김은경기자 enigma@yeongnam.com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모공연이 잇따르고 있다. 참사현장인 대구중앙로역에서 열린 대구음악회 추모 음악회. /이서용기자 sajuhw@yeongnam.com

“유가득 새가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것일 것으로 5시, 시그널대행부분가
시구시민회관 앞 빌딩 1층에서 5
층으로 상강을 하게 되나, 이층에서
하나는 이상구석(37·정리업)은 화정실
정조소로 내려가서, 별도로 100여명
의 인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원의봉사활동

면 일에서 단내가 나지만 마음은 편
듯하다"며 "기죽을 옳은 유가족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고생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대구시지정봉사센터에는 이색적
로봇 노령봉사를 하는 봉사자(가) 하루
20명 정도. 지난 19일엔 이색 88
이 생수·과일상, 케첩은 1천200g
자 등을 운반했지만 다들 잘 모두 하
고 집에 간다. 김은희(가)는 봉사를 하고
도 영어에 '참' 하는 의욕을 보였
다. 그녀에게는 지친다는 것은
세계가 희박하다. 심지어 하루 1만
~2만명이 드는 주차로도 자신들의
호수머니는 든다.

대구시자열물사센터 권영수 센터장(36)은 "대형부르 찾아와 밀기를 받고 싶다는 '나홀로형' 표시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사회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개인 참가자가 몰려들고 있어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일본사자대
부분이 개인보다는 단체별로 참여하
다. 삼성사회복지단을 비롯해서 50여
개 단체가 꿈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밖
에도 대기업과 사회·종교단체, 공무
원 등 구내 대부분의 봉사단체
가 참여하고 있다.

대구최신지사를사단, 금치상 할
에서 유가족들에게 대접할 식사를 부
지런히 나르던 동구지회 회장을 총무
(50)는 "대구시에 8개 구(市別)로 자
원분배에 참여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적인 인제(人災)는 없
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물품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하는 조용철씨는 23일 추이탕 400인분을 마련, 대한 적십자사 자원봉사팀에 전했다. 이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성서학회봉사단원들이 23일 신흥동 가족들에게 식사를 나누주고 있다.

지금까지 200여개 단체 연인원 6천여명
하루 1만명 식사준비·상담·통신 등 지원

날 새벽 음식물 실은 차를 집질 못하고 연인연 6천여명에 이른다. 시민들의 자살봉사 문이 가득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간 때문에 이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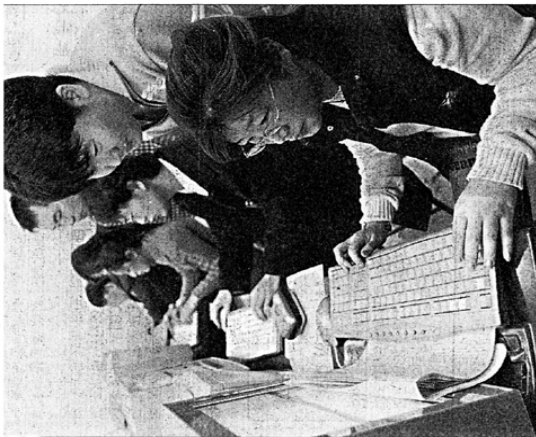
실종자가족 1천여명 등 하루 유
봉인 3만명이 넘는 사고대체관
동인. 이곳을 움직이는 안락회(巴
左衛門番)사들이자. 이들은 하루
고 1만1천명의 병사의 수를 준바
고. 지령문(地令文)과 청소, 교통
관, 심판(審判)을 담당한다.

거의 모든 일을 24시간 쉬지 않고 처리한다.

특히 실종자가족들의 발단이 있다. 르자 대구시의사회가 진료체계를 4시간 이내로 보완하는 등 실종자가족들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있어 그나마 실종자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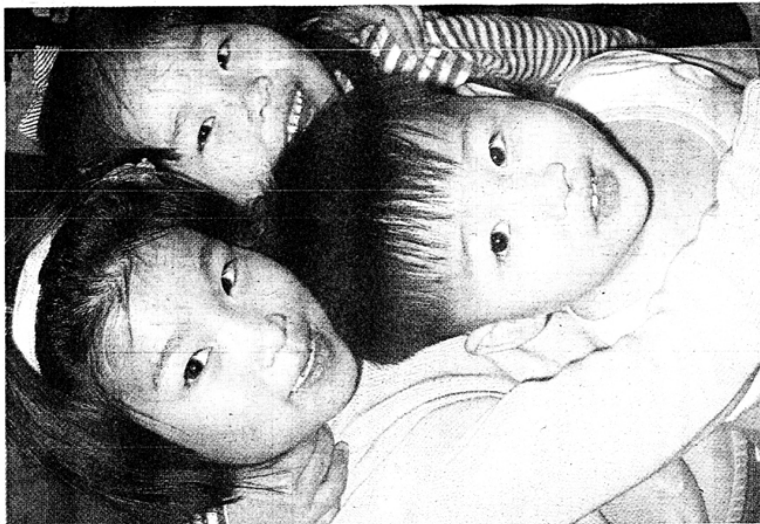
김병규 대구시 자연봉사파견(51)은 "자연봉사자들의 힘으로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런 시민정신을 잘 살려 간다면 슬픔을 딛고 대구가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말했다.

www.fehv.com
/유철희기자 fehv@yeongnam.com

원봉사자들이
/발견과기자

23일 실종자가족 대기소가 있는 대구시민회관에서 실종자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실종자 파악을 위한 결투리에 정장하고 있다. /박지과기자

조선(7면) 2003. 2. 25



◇영문도 모르는 두 동생...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어머니를 잃은 영수미·난영·동규(왼쪽부터 시계방향) 어린 삼남매가 지난 23일 그 의미를 실감 못하고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수미·특필취재팀

작했다. 할머니는 글이 아무무나 이 재 전하는 자기가 다 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만내 동규는 영문도 모르는 채 소리를 치며 팔팔팔팔 뛰고 있었다. "엄마 죽었다. 엄마 죽었다." 지난 22일부터 수미는 친척 집하 반조를 잡거 일일이 공책에 자기 사

“내가울면 동생들 울어...” 눈물 삼키는 7살 수미

1년前 아빠 잃고 대구慘事로 엄마마저 잃은 '3남매'

경북 영천시 화남면 귀촌리. 이웃집이 띄엄띄엄 있는 농촌 마을이다. 이 동네의 한 허름한 2층 단주주택에 사는 영수미(여·7), 난영(여·6), 동규(4) 3남매는 낯선 '기차 손님'들이 많 이 찾아오자 신기한 표정을 짓는다. “아머니, 애들 좀 부탁할게요. 나 는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할게 요...”. 3남매의 어머니 박정순씨는 지난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 고현장에서 물러가려니 시아머니 황 정자(66)씨에게 진화를 걸었다. 진화 는 끈 끊었다. 하지만 돌아온다면 그 는 돌아오지 않았다. 박씨는 남편을 잃고 대구에서 영천

의 시대로 이사는 뒤 학교 식당일 을 하면서 영양사가 되기 위해 대구 시내 요리학원에 나가던 길이었다. IMF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은 중 격에 시름시름 앓던 남편이 지난해 1 월 세상을 등지자 “나라도 받아야 한 다”며 나선 약속했던 며느리였다. “엄마웃 맞아” 유품확인 황씨는 3남매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알릴까 고민했다. 결국 고모 엄순옥(42)씨가 19일 겨우 용기를 내 큰딸 수미를 불렀다. “수미야. 병원 가자.” 수미는 한사 코 가지 않으려 때를 썼다. “병원에 왜 가? 무서워.” 한동안 버티던 수미였지만 고모 엄씨가 “수미야, 수미가 가자. 엄마 를 찾을 수 있어. 내가 엄마랑 제일 친하잖아. 엄마 찾고 싶지 않아?”라 고 달래자 태도가 바뀌었다. “수미는 병뎡 일 아났다. “빨리빨리 갈게. 빨리 가자.” 두 동생들은 “엄마, 왜 안 오느냐”며 칭얼거렸다. 고모는 영남대병원에서 수미 엄마의 유품을 찾아냈다. 물론

갑게 태버린 상태였다. 수미는 ‘엄마 거 맞아. 엄마가 머 리에 꽃았던 ‘엄기 토끼뎡’ 맞아. 그 리고 저긴 엄마 청바지. 엄마는 항상 이렇게 한 단 접어 입거든...’ 그때 까지 수미는 영문을 몰랐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엄씨는 수미 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리기로 했 다. TV뉴스 속보에 나오는 검은 인 기 나 는 현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 며 물었다. “수미야. 여기 알아봐. 저 기 연기 나 는 곳 지하철 속에 엄마가 타고 있었어. 엄마가 어떻게 됐을 지 알아?” “고모, 당연히 죽었겠지. 저렇게 연기가 많은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겠어.” “엄마 바보야. 버스 타 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혼자 이불쓰고 울음

수미는 이런 엄마가 아빠를 따라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을 안다. 수 미는 그 후로 엄마 얘기를 하지 않는 다. 잘 울지도 않는다. 하지만 엄마가 자던 방에 혼자 들 어가 이불을 덮어쓰고 훌쩍거리곤 한다. 눈이 빨개서 나온 수미에게 고

<특별취재팀>

文甲植치정대우(팀장)
gsmoon@chosun.com
朴圓秀치정대우(wspark@chosun.com)
崔漢現기자(oh@chosun.com)
康康漢기자(kyoun@chosun.com)
李元榮기자(capadm@chosun.com)
金聖喆기자(enki@chosun.com)
시진=홍영희기자(jw-lee@chosun.com)
朱完中기자(wiloo@chosun.com)
金鍾佑기자(jw-kin@chosun.com)

슬픔 속 용기심는 ‘온정 행렬’

성금 200억 돌파...묘지 기탁까지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8일째로 접어들자 화재사고대책본부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를 돌기 위한 성금 기탁액이 2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성금·성품과 함께 조문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대책본부에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8일부터 25일 오전까지 고사리손에서부터 재발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기탁한 성금 1972건 209억4300만원과 유가족 등 피해자와 대책본부 직원을 위한 성품 94건이 각각 접수되는 등 온정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금은 삼성그룹에서 50억원의 약정금을 기탁한 것을 비롯, SK텔레콤과 LG그룹(약정)에서 각 30억원, 현대그룹에서 20억원, 롯데 10억원(약정), 현대중공업 6억2000만원, 포철·KT(약정)·한진(약정) 각 5억원, 금호그룹 3억원(약정), ㈜풍산과 ㈜효성(약정) 각 2억원, 일본 중의원 하토야마 유키오씨가 10만엔 등을 기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에서 3억300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손학규 경기지사 1억원, 안상영 부산시장·김혁규 경남지사·국제라이온즈협회 회원·신상진 대한의학협회장 등이 각 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각계

의 성금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성금·품 접수 창구에는 성금과 함께 약품상자와 드링크류·생수·우유·음료수·딸기·녹차·김치·라면·김·빵·어묵·돼지고기·죽종류·추어탕 등 먹는 음식을 비롯해서 국화·화장지·담요·장래용품·현열증서 뿐 아니라 주사기·마스크 등 의료용품까지

각종 물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성품 가운데는 합동분향소를 주아로 지키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대형TV·배개·속옷·양말 등과 쌀·향·수건·치솔·치약 등 일상용품뿐 아니라 묘지(6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탁되고 있다.

성금·품과 함께 대구시민회관 사고대책본부 옆에 있는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25일 오전까지 국내·외에서 찾아온 조문

객 4만3118명이 분향하는 등 끝없는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한미연합사령관을 대신한 맥케일 준장, 미 20지원 단장 조이너 대령,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 아베, 일본 중의원 하토야마 유키오, 중국 지하철공사 채취성 사장, 뉴욕 한인회 27대 회장 김석주씨 등이 동료와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을 해 눈길을 모았다.

/崔泳琪기자 cyk@chosun.com



◇추모의 뜻 곳곳에...

대구지하철 사고 8일째인 25일 오전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수많은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다.

/李宰佑기자 jw-lee@chosun.com

화재예방대최여부망定認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신원화 인이 어려운 실종자에 대한 '인정사망'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류품 등 시망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전혀 없는 실정자 기각을
은 사고 후 현장의 조기 훼손이 현장
에 있던 일부 사체와 유류품들이 사
라진 원인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
어 인정시만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공
방을 난입이 예상되고 있다.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현재까지 신고된 실종자는 57명. 이 중 생존·사망·부상·이중신고 등을 뺀 미확인 실종자는 32명으로 신원이 확인된 56명을 비롯해 진동차기 추경정신 100여구 등 150여구와 비교 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법 제28조 2항에 명시된 실종신고 제도는 전쟁이나 침략한 선박, 수락한 항구에 있어거나 기타 사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난을 당한 사람이 위난 종료 후 2년간 생사가 불명할 경우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신분상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 법을 따를 경우 이번 참사로 실종된 사람들은 사고 후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사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다.

따라서 대체복무는 확실한 사망증거는 없지만 주변상황으로 미루어 사망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 호적법에 의해 조사가관의 보고에 의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하게 하는 인정사비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체본보기가 마련한 인지기준은 ▲주민주 · 학생중 · 수월 을 본인화인 이 가능한 유류품 ▲전화화나 후대 폰 위치 확인 여부 ▲폐쇄회로 등을 통해 당시 지형철을 이용했다는 정황 ▲편일 지형철을 이용한 출 · 퇴근 등 으로 분류된다.

인정시망은 삼풍백화점 참사 때 30



사
본
아
자
신

25일 오후 대구지청 방화침사 희생자 유가족이 포구수 관제차들과 함께 인천차량기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
 이들의 유부품을 검사하고 있다.
 김동우기자 dwkim@daegu.com

유족 유산 상속 유류품 유류품 사라졌다' 반발

여명, 대한항공기 관 참사 때 50여명
에게 각각 적용됐다.

대책본부는 이에따라 지난 24일 인
정사망제를 추진하기 위해 실종자심
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심
사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족

다행히도 큰일을

조해녕 대구시장은 이와관련 "지하철 참사로 인한 실종자의 시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정황증거를 통해 사망자로 인정하는 등 한명의 외로운 피해자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七、

홍순기 변호사는 "민법상 실종선 고제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등 실종자 사후대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고처럼 신원확인이 어려운 실종자가 많은 경우 최대한 확보한 유류품

과 정황 등을 토대로 한 사망인정제
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회생자들이 친
도이산 고문에서 3개월 이상 갇혀 있
었고 성인남성 1명을 화장하는데
900~1천도에서 70분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종자의 상당수가 재
로 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해 사망자에 준하는 보
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1면) 2003. 2. 27

정부 '대구 참사' 직접 수습

청와대 여론 항배·법률적 검토 함께 고려

고건 총리 희생자 조문

정부가 대구지하철 참사의 사고 수습에 직접 나서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관계기사 4~7: 28~31면
청와대는 이미 대구참사 실종자들의 사망사실 확인과 관련한 「인정사망제도위원회」 구성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면서 법률적인 검토까지 마친데 이어 향후 사고수습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실무관계자는 이날 「중앙정부가 어떻게 관여할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고수습관여 방침을 확인했다.

사고수습책임을 떠맡고 있는 대구시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과 반발 및 사고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대구시와 지하철본부 등 지방정부의 미숙한 대책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안을 청와대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사고수습에 나서서 것은 여론의 항배와 법률적 검토가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문하고 사고수습대책 수립을 협의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고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총리께서도 대구를 한번 다녀오시라」고 권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하철 건설과 소통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 안전 확보는 뒷전에 둔만큼 대구 참사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참사 진상 규명과 사후 수습에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서명수기자 ciderot@maeil.com



희생자 추모 시민대회 26일 오후 대구 중앙로역 입구에서 열린 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 1차 시민대회에서 유족과 시민 등 3천여명이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시민회관까지 촛불 추모행진을 하며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aeil.com

대구일보(1면) 2003. 2. 28

정부 대책반 대구 상주

高총리 참사현장 방문 조속히 認定사망위 구성

‘실종자 가족 의혹 풀어줄 방안 마련’

고건 국무총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반을 구성, 대구에 상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하기 위해 27일 오후 6시30분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구시민회관을 방문한 고건 신임 국무총리는 실종자가족대책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차관급이나 1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하겠다”며 “특히 실종자 가족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4면〉

특히 고 총리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반을 사고현장인 대구에 상주시켜 실종자가족과의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이번 사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 총리는 관련법상 현 대구시 대책본부로 해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반은 대구시 대책본부와 함께 사고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반은 현재의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총리는 또 실종자가족 신원확인 과 관련해서는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은 실종자에 대한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며 “실종자가족들이 추천하는 위원들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실종자가족대책위 대표들이 조혜영 대구시장의 사법

처리를 요구하자 고 총리는 “사법처리 여부는 사고수습이 끝난 뒤에 가능하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실종자 신원확인 등 빠른 사고수습”이라고 답했다.

고 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시민회관 별관 1층에 마련된 유가족대기실을 찾아 유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위로했다.

이어 고 총리는 사고현장인 중앙로역을 둘러본 뒤 광병원과 파티마병원을 찾아 지하철 참사로 입원중인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오후 9시께 귀경했다.

임성수·임호기자

s018·tiger35@idaegu.com

대화단절 된 채 대립

실종자가족·市대책본부

대구지하철참사 실종자 가족들과 대구시 주도의 화재사고대책본부간

대화가 27일현재 이틀째 단절되는 등 사고수습이 표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밤부터 대책본부의 무성의에 항의하며 조혜영 대구시장의 퇴진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본부 마련을 요구하면서 양측간의 대화가 이틀째 끊겼다.

실종자가족대책위는 별도의 정부차원의 대책본부 구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작성해 오는 28일 청와대로 대표단을 보내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高총리 대구방문

고건 총리가 27일 오후 대구시민회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난 후 유족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고총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반을 구성해 대구에 상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동우기자 dwkim@idaegu.com

대구신문(15면) 2003. 3. 1

검찰 '참사 수사' 전면나서

검찰총장 특별지시... 대구지검 '수사지휘본부' 구성

지하철 방화 참사

검찰이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수사전면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28일 김각영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임안식 2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지휘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본부는 지금까지 박운해 형사 5부장 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반보다 한 단계 격상된 기구로 대검 강력부장이 현장

지휘를 하게 된다.

이날 오전 김 총장은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와 함께 수사지휘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김 총장은 지사에서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과 유골에 대한 철저한 감식으로 완벽한 신원 확인과 실종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과실 유무, 범행의 조직적 은폐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의법처리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의 수사지휘본부설치 지시는 중앙특별지원반 구성 등 대구지하철화재에 대해 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형사5부 소속 검사 6명에 다른 부서의 검사를 추가 지원받아 지휘본부를

확대 개편한 뒤 본격적이고 정밀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수사지휘본부장 임안식 차장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검찰 인력을 투입,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장검사는 특히 실종자 확인작업에 대해 "수사기관의 직접적 업무는 아니지만 유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철저한 확인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 기자

<kss@idaegu.co.kr>



“검찰총장과 피해자 가족대표”

이기동 기자(leekd@idaegu.co.kr)

28일 오후 김각영 검찰총장은 김영진 대구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함께 시민회관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 대표와 면담했다.

대구일보(1면) 2003. 3. 4

현장 훼손 본격 수사

검찰, 물청소 관계기관 협의여부 조사

시민단체, 뽕시장등 책임자 고발 방침

대구지하철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조해녕 대구시장을 비롯, 대구시 고위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대구지하철 참사현장의 조기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면〉

시민·사회단체대책위 관계자는 3일 "조 대구시장 등 이번 사태의 실질적 책임"선에 올라있는 고위 책임자들을 조만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조 시장이 지하철 참사의 중요한 증거인 중앙로역에 대한 청소작업과 사고 전동차를 일배차량 기지로 옮긴 것은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현장훼손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형사5부(박해운 부장

검사)는 사고현장의 조기훼손과 관련, "대구시는 현장에 대한 잔재물 수거 및 복구를 경찰에 문의해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 측은 허락해준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현장 훼손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사고 당시 물 청소 등 현장 조기복구에 대해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누군가의 지시 여부 등을 두고 당시 정황 및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고현장의 조기훼손이 유족들의 반발 등 논란이 되고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과실이 드러내면 사법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의지와는 달리 조 시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경우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거나 고의성 여부가 관건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검찰은 재 지휘 이후 경찰에 의해 영장이 재 신청된 1079호 기관

사 최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중앙로 역무원 이모(35)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재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규성·임호 기자
kydjks@idaegu.com

자원봉사자 활약 빛났다

부상자 구호·급식 등 1만3,000여명 참여



대구지하철 참사

대구지하철 사고수습에 자원봉사자의 자원활동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참사 직후 지하철화재사고대책본부에는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일부 자원자들은 대책본부를 찾아 와 부상자 구호 및 구조대원에 식사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4일 현재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는 모두 615개 단체에 1만 3천600여명으로 하루 평균 30여개 단체, 700~9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하철 참사후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 마련된 유가족대기실에 기거하고 있는 1천여명의 실종자 가족들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무료 급식은 물론 담요와 속옷 등 생필품 제공, 분향객 안내, 국화꽃과 헌혈증서 제공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봉사요원들은 지난 18일 지하철사고가 일어나자 중앙로역 현장에 식사 차량을 배치하고 부상자와 구조대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지난 2주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실종자가족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사회봉사단과 KT사랑의 봉사단도 사고대책본부 입구에 무료 급식소를 설치해 하루 3끼를 준 비해 관계자들에게 대접하고 있다. 대구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역 2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차례로

사회복지사를 보내 24시간 희생자 가족들을 돌보면서 안내와 음식배분 등을 맡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 단체는 지하철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 예배와 미사를 갖는가 하면 불교계와 원불교가 합동천도제를 봉행하는

등 종교계도 정신적인 차원의 지원 활동을 펴고 있다.

경북대 봉사동아리 '신망애' 등 대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대책본부를 찾아 와 유가족들의 수발을 들고 있으며, 지난 95년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로 재학생과 교사 등 43명이 숨진 영남중 재학생들은 사고이후 매일 윤번제로 급식활동을 돕고 있다.

실종자 가족 황모씨(36)는 "황망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고 허둥대는

가운데 자원 봉사자들의 정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추운 날씨속에 몸을 사리지 않는 시민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해 했다.

봉사활동을 나온 박은희씨(여 32) 사회복지사는 "유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한데다 2주간 노숙을 하다 시피해 피로가 쌓인 모습을 본다"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대구일보(3면) 2003. 3. 5

확인보다 실종인정 먼저하라

실종자가족 대책위 책임규명 · 관련자 처벌도 요구



대구지하철 병화차량의 관련한 실종자 인정문제에 대해 중앙특별지원단이 실종자가족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키로 한 가운데 실종자가족들이 신인정 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포괄 인정제'를 요구하고 있어 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실종자가족대책위원장은 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지하철 참사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어 사후수습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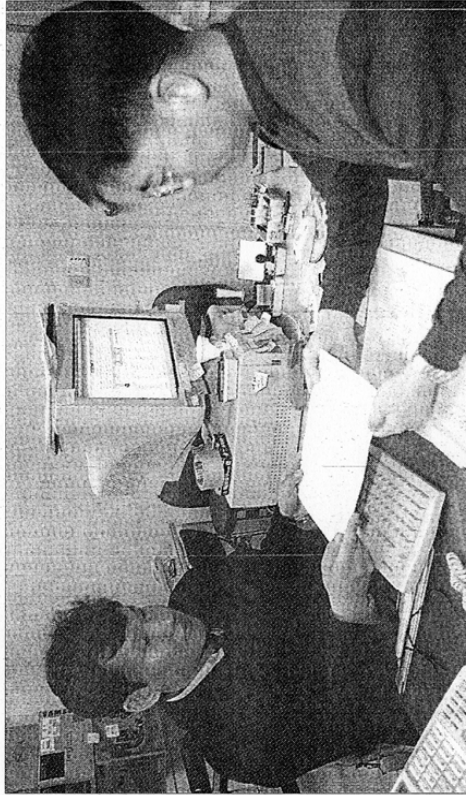
실종자가족대책위 강택원 대표위원은 4월 "인정사망심사위 구성과 관련, 중앙특별지원단이 실종자가족대책위에 기준과 위원 선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위 입장은 사실확인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든 실종사고자를 우선 인정하는 포괄인정제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포괄인정제를 통

별"이라며 "실종자가족들은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고현장까지 훼손

한 조해성 시장 등 대구시 및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의 처벌을 위해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idaegu.com



현장보존 진정서 제출

4월 오후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들이 지하철 참사의 관련해 '현장보존진정서'를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 검사에게 제출하고 있다.
김동두기자 ddkim@idaegu.com

“지방지하철 국가운영 바람직”

첫 국무회의 대책 논의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지방지하철을 국가가 건설·운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 국회 지여사회에서 폭넓게 벌어지고 있다. 지하철 붓에 허덕이는 대구가 큰 짐을 벗을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는 짧은 회의시간과 첫 회의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근본 문제 제를 파악하고 대책까지 제시됐다. 마침내 국회에서도 지방지하철을 통합 건설·운영 하는(가칭)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시민단체들도 대구 참사의 근본원인은 돈이라고 인식, 정부가 맡아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한뜻인 것이다.

◇첫 국무회의=이창동 문화관광부장 관이 지하철을 국가가 건설·운영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의미있는 의견’이라며 이 장관이 중심이 돼 종합대책을 제시하라고 지시 했다. 이에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지하 철 관리·운영을 정부차원에서 확대관리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의 재야 두차례 여인합 고지 총리는 서울의 장점만인 ‘인행’을 내세워 이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지하철 주무장관인 최종찬 건교 부장관은 오 총리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지하 철 건설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른 지역별에 상차를 지원에 대한 반발,을 거론하며 ‘정 부예산 부담이 크므로 정책적인 접근이 필 요’라고 권 장관을 거듭했다. 원론적 수 준이었지만 대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회 의결과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지하철공사 설립=한나라당 건

교위소속 박승국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의원과 광주·대전·인천·부산 출신 의원들 을 중심으로(가칭)한국지하철공사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50여명이 이 법안에 서명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 정이다.

한국지하철공사는 대구·광주·대전·인 천 지하철은 물론 2007년까지 부산교통공 단이 운영하는 부산지하철까지 통합운영 한다는 것이다. 공사 건설시 지방지하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돼 부채까지 공사가 떠맡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지하철 공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철도철의 공사화 와 동시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는 철도민영화에 대 한 대안으로 공사화를 제시해 놓은 상태이 기 때문이다.

◇지역시민단체=김경민 대구YMCA 중부관장은 “지하철 공사의 원인을 하나 하나 따져보니 결국 돈이 문제였다”고 말

했다.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가 지하철을 무리하게 건설하다보니 값싼 전동차를 구 입할 수밖에 없었고 안전시설 설치도 부족 했다는 것.

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장 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인식 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관계자는 “대구지 하철을 국가가 맡지않고서는 전동차 교체, 1호선 복구 등 무엇보다 제대로 하지 못한 다”라며 “지역 경제침체를 이유로 부산지 하철을 정부가 맡은 것을 감안하면 대구지 하철은 진작 정부가 맡았어야 했다”고 말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국지하 철공사나 대구교통공단설립을 위해 시민 운동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법=공사 또는 공단설립의 유일한 갈림길은 재원확보 문제다. 정부가 부산교 통공단으로 인해 2조3천억원의 부채를 안 고 있는 상태에서 대구 1조3천억원, 광주 3천억원, 대전 2천억원, 인천 5천억원 등 모두 2조5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건교부는 그간 대구교통공단 설립요구가 있을 때마다 재원부족을 이유 로 난색을 표시했고 대구 이외지역 의원들 이 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요구에만 그쳤다.

한나라당 이해홍 의원은 이에 대해 “국 토건설관리청 등이 사용하는 교통특별회 계 15조원의 일부를 지하철로 돌리면 문 제가 해결되나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반대 가 문제”라며 “대구시민 요구가 거세지고 정부가 특단의 결심을 해야 이뤄질 것”이 라고 했다.

정부가 지방지하철을 한꺼번에 맡는 것 이 부담이라면 지자체 재정을 감안, 대 구·광주·대전 순으로 교통공단을 설립 하는 방안도 없지 않다.

최재영기자 jwcho@maail.com

催建교 등 관련장관 고무적 발언 시민단체들 “공단설립 운동 계획”



유기록 하소연
한명숙 환경부 장관(왼쪽)이 4일 오후 대구 시민회관 실종자 유 기록 대기실을 찾아 유가족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aail.com

매일(1면) 2003. 3. 6

“대구지하철 건설·운영 중앙정부가 맡아야야”

안일 대처로는 참사사태 못 풀어

대구 참사를 계기로 대구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는 지하철 건설·운영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관계기사 4면
특히 참사 후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이 일부 흘러 나오다 시간이 지나면서 멈칫거리자 대구시민들은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이번 사태를 풀 수 없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119회 임시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가칭 ‘한국지하철공

사’ 설립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는 등 대구지하철 건설·운영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기로 했다. 강황 의장은 ‘전국 지하철의 통합 운영을 위해 한국지하철공사가 설립되더라도 대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통합공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상의 이희태 상근부회장은 ‘지하철은 재정 여건상 대구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운영권을 아예 가져 가거나 최소한 건설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인환 예산담당관은 ‘대구 지하철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적어 재정 압박 요인이 됐고 운영 적자마저 눈덩이처럼 커져 안전설비 투자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라며 ‘정부는 시민 안전 보장 측면에서 대구지하철 지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명대 김기혁 교수(교통공학)는 ‘그동안 지하철 1·2호선 건설때문에 1조3천억원의 빚을 진 대구시로서는 건설 부채는 물론이고 운영 적자도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2호선의 운영 적자를 보충해 주고 3·4호선 건설비를 부담하는 등의 정부 지원책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용기자 kimhy@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maeil.com

실종자 가족들 노숙생활 18일

대구시민회관에 마련된 지하철참사 대책본부, 1층 전시실 몇 개의 칸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18일째 가족들을 예타게 찾으려고 이곳에서 낮과 밤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양상이 되면서 가족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런 상태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추위를 막기 위해 바닥에는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지만 역부족이다. 밤이면 한기가 스며들어 온

몸 이상을 보내고 있다. 오직 대학생 아들(23)만이 집과 학교를 오가고 집을 지키고 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박지숙(67)씨는 딸이 실종되자마자 대구로 내려왔다. 식사나 취침은 자원봉사자들이 애써줘 불편을 덜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이는 속일 수 없었던 듯 밤이면 병기에 온몸이 서늘하다. 더우기 악몽에 시달리다 번번이 잠이 깬다.

시민회관 강당·중앙로역서 숙식 “신원확인 때까지 집에서 못 자요”

몸이 오싹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다.

언니가 참사로 실종돼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50대 초반의 여성은 형부와 질녀와 교대로 이곳에서 지내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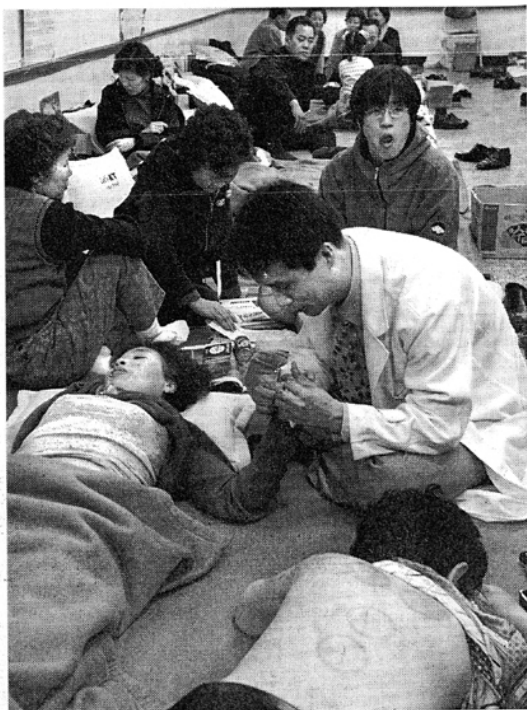
중학교 2학년생인 딸 이보환(15)양이 친구와 함께 친구 가방을 사리 갔다가 실종됐다는 어머니 김순옥(45)씨는 사고 첫날부터 이곳을 지켜왔다고 했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여기 왔습니다. 딸의 신원이라도 확인할 때까지는 남아 있어야죠.”

보환이의 아버지 이봉수(51)씨는 이보다 더 차가운 중앙로역에서 열

24살난 손녀를 잃었다는 할머니 이삼계(72)씨 역시 이제는 집에 들어가지가 싫다고 했다. 매느리는 중앙로역에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 이씨는 “자다가도 손녀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기 그지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참사현장인 중앙로역 지하 1층에도 가족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숙식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식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시민회관보다도 더 열악하다. 그러다보니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아내를 잃었다는 서영창(60)씨는 “그래도 아내를 생각하면 이쯤 고생하는 것은 아무



◇치료받는 실종자가족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인 약사 공기현(73·여)씨는 병원과 사고현장, 시민회관을 번갈아가며 음식제공 등의 자원봉사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시청 직원들의 피로도 시간이 갈수록 많이 아니다. 그러나 시청 직원들은 드러내 놓고 피곤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다. 하루 100여명이 2~3교대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소식없는 가족을 기다리며 18일째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한방치료를 받고 있다.

／李宰佑기자 jw-lee@chosun.com

있다. 직책에 따라 24시간 근무에 24시간 비번, 또는 아침 8시 출근 밤 11시30분까지 근무지만 자신들의 본래 업무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 간부는 “집안 일은 물론이고 주변의 경조사는 챙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 끝날 지 막연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때까지는 버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朴圓秀기자

wsark@chosun.com

영남(27면) 2003. 3. 8

사망 정황확보 눈물겹다

실종자가족, 죽음 인정받으려는 기막힌 심정들



지하철 대참사

인정사망을 위한 실종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가 사고 전동차에 탑승했다는 정황증거를 경찰에 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실종자마다 담당경찰을 배치, 실종자 확인을 위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이 제출하는 서류들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신분 서류에서부터 휴대용 위치 추적기, 사고차량 탑승장면이 찍힌 CCTV 촬영, 사진, 출근표,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 다양하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들은 작은 정황 증거라도 제출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고 있는 한 경찰은 "한 가지 증거라도 더 제출하기 위해 동네 이웃 수십명에게서 진술서를 받아 제출한 실종자 가족들도 있다"면서 "정황증거를 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라고 전했다.

고속버스 기사 수소문 겨우 확인서 받아

◆ '아버지 찾는' 딸

아버지 이명규씨(70·경남 마산시 회원구)를 찾고 있는 이씨의 장녀 현주씨는 휴대용 위치 추적기 안되고 사고 당일 동대구역 CCTV에 탑승 장면 녹화 테이프가 없어 낙담했다.

이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달 17일 부산에 있는 형님 집에서 부친의 제사에 참석한 후 18일 오전 일찍 막내딸인 해란씨의 졸업식(계명대)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로 떠난 후 소식이 끊겼다. 휴대용 위치 추적 결과 17일 저녁 부산이 마지막 위치였다. 배터리가 다 되었던 것이다. 동대구역에서는 사고 차량의 탑승 장면이 CCTV에 녹화돼 있지 않았다.

이씨의 가족은 그러나 다행히 이씨가 탔을 부산발 대구행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수소문해 찾아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50분 부산발 대구

행 경기70바 48XX호 버스를 운행한 H고속 운전기사 윤모씨(42)는 당시 승객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이씨로 추정되는 남자 승객이 '동대구 지하철역을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았으며 지하철역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사실 확인서를 써 주었다.

가능한 많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이씨 가족들은 또 졸업식장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로 되어 있던 막내딸 해란씨가 아버지를 못 만나 안절부절못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해란씨 친구들과 교수들로부터 받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탄 고속버스에 탔던 다른 두 여자 승객을 찾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증언을 해 준다면 더 좋겠네요."

현주씨는 그러나 그 승객들을 찾을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6일 한 부부가 대구시민회관 실종자가족 대거소에서 대구역 CCTV에 찍힌 가족의 사진을 보며 인정사망을 위해 경찰에 날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박진권기자 pajika@yeongnam.com

"국과수는 CCTV 원본테이프로 작업을"

◆ '어머니 찾는' 아들

탑승장면이 CCTV에 찍힌 이들도 정황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는 마찬가지다. 병원에 간다고 나섰던 어머니

한영자씨(63·삼주시 북동동)를 찾고 있는 아들 백남욱씨는 어머니가 철도 대구역 CCTV에 찍힌 장면과 지하철 대구역 CCTV에 찍힌 장면을 확보하긴 했지만 선명도가 더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철도 대구역 CCTV는 그런대로 화질이 괜찮았지만 지하철 대구역 CCTV는 흐릿했기 때문이다.

나지 못한 우씨가 집으로 전화한 내역, 배씨의 딸이 11시40분쯤 자신이 다니는 사에일로 전화해 엄마를 걱정할 내용 등을 자세히 적어 경찰에 제출했다. 현모씨 등 4명의 동네 이웃들로부터 아침에 아내 이씨가 지하철역으로 출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서도 함께 경찰에 냈다. 화장품 대리점 출근표도 물론 함께 제출했다.

백씨는 "서울에 있는 민간법의 학원 구소에 물어보니 흐릿한 CCTV에서 선명도를 높인 사진을 출력하는데 3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CCTV 원본 테이프로 작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고차량 탑승 장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unghj@yeongnam.com

전화내역·이웃진술서·출근표 등 총동원

◆ '아내 찾는' 남편

아내 이경희씨(58·대구시 동구 금강동)를 찾고 있는 배봉조씨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중앙로역 근처에 있는 화장품 대리점 출근일이었던 아내는 평소 근검절약이 몸에 배

휴대폰이 없었고, 아내가 탑승했던 안심형 CCTV도 사고 당일 녹화본이 다음날 없어쓰기로 지워져 있었다.

배씨는 그러나 17일 아내 친구 우모씨가 집으로 전화해 다음날 대리점에서 만나자고 한 내역, 사고 당일 오전 10시10분쯤 아내를 만

‘이정사망심사위’ 오늘 발족

15명으로 구성...내주부터 본격 활동

중앙특별지원단·실종자대책위 합의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실종자 조기 사망인정을 위한 '인정사망심사위원회'가 8일 발족된다.

<관련기사 13·14·15면>

‘대구지하철 사고수습 중앙특별지원단’과 ‘대구지하철참사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20분께 대구 북부소방서 5층 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인정사망심사위 구성과 관련, 2차 협의를 갖고 8일 인정사망심사위를 발족,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정사망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중앙사고사대책본부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위원장은 대구 지역사회에서 평명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하되 국무총리가 지명키로했으며, 위원은 중앙지원단 추천 7명, 실종자대책위 추천 7명으로 5대5 구성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법의학 전문가, 변호사, 의사, 교통전문가, 화재 사고전문가, 경찰, 시민단체, 언론인, 종교인(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인정사망심사위를 발족키로 했으나 실종자대책위측이 추천인사 7명 중 3명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해 8일로 연기됐다.

인정사망심사위는 인정사망범위를 정한 뒤 실종자 개인별 심사를 거쳐 조기 사망인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지원단과 실종자대책위는 우선 이번 참사와 관련된 실종자로 확인된 명단 제출을 경찰에 요청키로 했다.

김중양(58) 중앙지원단장은 “이번 참사로 인한 대구시민의 아픔은 전국민의 아픔이자 슬픔”이라며 “단 한 사람도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기(39) 실종자대책위원장은 “실종자에 대한 사망인정은 이상 최악의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실종자 가족 대다수가 서민들이지만 결코 경제적 부

담을 털어주기 위해서라도 사망인정을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7일 현재 이번 참사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는 모두 248명이다. 진식기자
jins@kyongbuk.co.kr

경북(1면) 2003. 3. 8

영남(27면) 2003. 3. 10

“사고원인 규명·책임자 처벌이 대구발전 가로막는다...”

‘이젠 덮자’ 이해못할 논리 확산



진다고 강변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 등으로부터 안전대책없는 지하철 운행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의 한 고위공무원은 “사고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 하계유니버시아드(11월) 대회”가 코 앞에 다가왔는데 참가 책임자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매우 적당치 않다”고 말했다.

북구 중심의 사고 수습이 서둘러 진행됐다. 이같은 북구 위주의 사고 수습

市, U대회·신인도 들먹이며 복구치중 강변 상당수 시민도 ‘산사람은 살아야’ 동조 경향 “언론 관심 시들...상인동 재관 우려” 울분

수백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낸 대구 지하철 대참사가 일어난 지 21일째, 사망자 신원확인 등 물론 사고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조차 진전이 없는 데도 대구 발전을 위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는 이제 복구작업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 사이에서도 참사에 대한 기억이 빠르게 잊히고 있어 이번 사고도 ‘상인동 참사’ 같아 그냥 잊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고 직후 대구 사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참사와 이적구니없는 사후대책으로 충격에 휩싸여 있었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사고 당일 중앙로에 복구 대책이 서둘러 나오고 사고 다음날부터 지하철 운행이 재개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는 지난 1·2차 대회 규모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초래해 유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3차 추모대회에는 2차 대회 참가자의 10분의 1 수준인 500여명만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실종가족들은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멀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참사가 피해자들만의 문제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중앙로 일대에 교통통제가 이뤄진 다음부터는 사고 현장인 중앙로역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구 시민회관을 찾는 시민들의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마저 아슬아슬 덮고 넘어간다면 상인동 참사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추락한 대구의 신인도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책임 규명과 확실한 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정혜진기자 junchi@yeongnam.com

영향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도 이같은 논리에 동조하거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2·18 비극’을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고 있다. 8일 오후 대구지하철참사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린 3차 시민추모대회

때문에 신원 확인에 중요한 단서가 될 유해 잔여미가 사고 전동차를 옮기는 도중 날아가고 쓰러지거나에서 희생자들의 유류품은 물론 사체 일부가 발굴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는데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고 수습 과정의 책임 논쟁이 대구의 발전을 위해 결코 도움이 안

다. 특히 대구시의 대구시지하철공사는 ‘시민들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며 서둘러 사고현장을 청소하겠다고, 지하철 운영을 중단하면 심지

대구신문(1면) 2003. 3. 11

인정사망심사위 첫 회의

의사·의결종족수 전격 합의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10일 공식 출범 직후 첫 회의를 열고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또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임규옥, 남호진, 이재용, 이현희 등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이날 논의된 회의는 물론 향후 심사위 운영과 관련 실종자인정문제와 연계된 다양한 각론에 대해 다 루도록 사무를 위임했다.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13일 오후 7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해산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즉 10명중 6명이 찬성하면 통과하도록 결정했다.

이들은 또 위원중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논의된 회의는 물론 심사위에서 다룰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위임하고 이 소위원회가 전체 심사위 개최 하루전에 회의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 통보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심의일정이 이뤄지도록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간사선정과 관련 유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시 공무원 중 유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유족추천으로 임명하도록 결정하고 유가족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보호, 돌출발언경계 등을 위해 배제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심사위는 유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시신 22구를 모두 실종자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시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될 경우 인정사망에서 확인사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활용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기 대책위원장은 이와관련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향후 실종자심사위 운영방법과 관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심사위 유족참관불가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중 아는 사람이 없어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후 수용에 대해 통보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시작초기 대구시가 마련한 회의자료와 관련 윤석기 대책위원장이 또다시 시가 심사위를 의도적으로 물고거려 하고 있다며 시간부들의 간사위임과 시 공무원의 참관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 위원들만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강진구 기자

<dragonk@idaegu.co.kr>



여기가 사고 현장

이기동 기자 <leekd@idaegu.co.kr>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후 7시 중앙로역 사고현장을 둘러보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매일(31면) 2003. 3. 11

고사리손에서 기업들까지... '아픔보듬기' 감동의 밀물

대구지하철 참사

오늘 성금모금 마감

어이없는 방화가 유례없는 대참사로 이어진 대구지하철방화사건을 극복하려는 전국민의 성원은 자원봉사 열기와 함께 놀랍도록 뜨거운 성금 행렬로 이어졌다.

지난달 21일 매일신문이 전국에서 최초로 모금운동을 전개한 이래 마감 하루전인 10일까지 단 18일만에 모인 성금 총액은 480억원(중앙재해구조연합회 집계).

삼풍백화점 사고시에는 모금은 동이 없었으며,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시 성금 192억원에 비해 단 기간에 2.5배에 이르는 모금액을 기록했다.

◇기업들의 성금 쾌척=대구지하철 참사에는 기업들의 성금 기탁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

삼성그룹 50억원, LG그룹 SK그룹 각 30억원, 현대자동차 20억원, 롯데그룹 국민은행 이랜드 각 10억원, 현대중공업그룹 6억2천만원, KT 포스코 에스오일 각 5억원, 신한은행 3억4천만원, 대구은행 3억 317만원, 두산 금호그룹

CJ 신세계 각 3억원, 새마을금고연합회 2억3천만원, 태왕 화성산업 대구백화점 각 1억원을 사고대책본부에 기탁했다.

지역 기업과 단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북주(대표이사 김동구) 2억원, 조일그룹(대표 이재섭) 월드

구점 추가분 3천460만원, 삼화식품 동국무역 평화크래치공업(주) 계열사 (주)연우 대구시의사회 법인택시사업자 각 3천만원, (주)화신의 관제사가 2천547만원, 성서첨단산업단지 2천607만원, 세림제지 2천443만원, 무림제지 2천79만원, 비락 유림건설 파티마병원 각 2천만원을 매일신문사에 기탁했다.

◇수미 3남매에 대한 온정도 이어져=또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시

다. 이 가운데 매일신문사 접수분은 22억70만2천838원으로 전국 언론사 접수분 197억4천400만원(10일 현재)의 11%를 넘어서 전국의 신문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으며 조선일보 16억5천500만원, 동아일보 4억7천600만원, 중앙일보 2억3천600만원 인 것으로 재해구조연합회는 11일 오전 밝혔다.

이 성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고보상금액과는 별도로 사망자와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특별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게 된다.

◇모금 상한액 높이고 모금 기간 늘려달라=한편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대책본부는 국민성금 모금 한도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모금 기간도 당초 11일에서 이달말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재해구조연합회에 요청했다.

사고대책본부는 10일 오후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49명과 미확인 실종자 222명 등 271명을 사망자로 인정하고 특별위로금을 사망자 2억2천100만원씩, 부상자(145명) 6천100만원씩 각각 지급할 경우 사망자 598억9천100만원, 부상자 88억4천500만원 등 687억원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건의했다.

민병곤기자 minbg@maeil.com
최두성기자 dschoi@maeil.com

19일동안 500억 육박 '뜨거운 성원' 본사 22억 모금 전국신문사중 최고 보상금외 별도의 위로금으로 지급

건설(대표 조규상) 대구도시가스(김영훈 회장) 대성그룹(김영대 회장) 각 1억원을 본사에 기탁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금일봉, 이문희 대구대교구장이 1천만원을 본사에 기부했다.

삼성홀플러스(대구경북본부장 이유권) 6천246만6천원, 영남건설(대표이사 배대순) 삼립산업(회장 이충곤) 각 5천만원, 대한지적공사 3천516만원, 롯데백화점 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영남중고등학교생들도 4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본사에 기탁했으며, 본사가 가장 먼저 보도한 영천의 엄마일은 3남매에 대한 성금기탁과 장학지원의 온정도 이어졌다.

◇본사 모금액 전국 신문사중 최고=10일 현재 모금액 480억원 가운데 언론사 기탁분(전국의 신문 방송사 포함)은 197억원이며 나머지는 사고대책본부로 접수됐

영남(1면) 2003. 3. 11

“대구참사 超黨 협력 ‘영수회담 의제’ 추진”

한나라 지역의원들 대책회의

‘유가족 요구 수용’ 등 盧대통령에 건의
與野政협의회 구성 수습 적극 나서기로

대구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10일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과 관련 △인정사망기준 가족측 요구 최대한 수용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상가 피해 보상 △부상자 후유증 치료 법적 근거 마련 △유가족, 실종자 가족 건강검진 △모금 시한 연기 △철저한 사고 수사 △지하철 국가공사화 추진 △대구경제 희생 대책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키로 했다. 또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해 대구 참사 수습책을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민주당 대구시지부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4면에 관련기사>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전10시를 갖고 노 대

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의 영수회담 때 대구 참사가 민생현안 차원에서 공식의제로 채택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끝이어 열린 원내의 지구당위원장 연합회에서 박 대행에게 건의안을 전달했다. 박 대행은 노 대통령에게 반드시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인정사망자 심사기준에 실종자 가족측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해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퇴원 후 발생할 후유증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사고로 발생될 장애인에 관한 예우(취업 등)의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상가 피해보상부분은 정부 차원

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세제감면, 금융지원,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가 의료진을 대거 투입시켜 종합검진 등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성금모금은 11일까지인 시한을 3월말까지 연장하고, 한도도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액토록 촉구했다.

건의안은 언론, 실종자 가족대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당부했다.

지하철 사고예방 근본 대책과 관련, 대구 지하철 전동차를 즉시 불연재 전동차로 전면 교체하고 안전관리, 대피장치 등의 시설보완작업도 3월 중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건설, 운영하는 지하철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한편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대책본부도 10일 성금모금 기한연장과 한도액 증액을 전국재해구조협의회에 건의했다.

강재섭 대구시지부위원장은 “사고현장 훼손에 사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나라당이 조해영 시장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한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lee@yeongnam.com

대구일보(2면) 2003. 3. 12

유족간 미확인 사체 인수 논란

149구 중 30여구는 신원확인 통보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실종자가족 대책위원회는 11일 신원미확인 사체 149구를 유가족들이 일괄 인수해 합동장례식을 치른 뒤 별도로 조성될 추모공원에 안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체 일괄 인수에 대해 실종자가족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오는 14일께 1080호내 사체 142구 가운데 30여구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들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여 사체 일괄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하철참사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는 11일 대책위에 위임장을 낸 유가족 158명을 대상으로 사체인수 및 장례 방법과 장지 선정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자 148명 가운데 53%인 79명이 사체 일괄인수 및 합동장례식을 희망했다고 밝혔

다. 하지만 투표자의 46%인 68명은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개별적으로 사체를 인수받은 뒤 합동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체 인수 방법을 둘러싼 실종자가족들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체 인수방법에 대해 1명은 기권했다.

임성수 s018@idaegu.com

성금 모금 이달말까지 연장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기간이 이달말까지로 연장되고 모금 한도액도 7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성금 한도액은 모금이 시작된 지난달 20일에는 200억원이었으나 같은달 28일 500억원으로 증액됐다.

대구신문(14면) 2003. 3. 12

전 세계 '참사 애도서신' 줄이어

일본·중국·미국 등 18개국 대사관·자매도시 48건 보내와

대구지하철대참사 이후 세계 각국에서 대구시로 보낸 애도서신이 18개국 4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하철 참사 직후 일본을 비롯한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전세계 18개국 대사관 및 자매도시에서 참사를 애도하는 48건의 서신을 대구시로 보내왔다.

지난달 18일 자매도시인 히로시마 시장이 애도서신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일본이 가장 많은 12명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러시아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월드컵의 영향으로 벨라판아시아 축구연맹 사무총장과 터키축구협회 하킵 협회장이 애도서신을 보내

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25일 모스크바 교통국장이 이메일을 통해 애도서신을 대구지하철공사에 보내오기도 하는 등 대구시 이외에서도 전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상당수의 애도서신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영 기자

경북(19면) 2003. 3. 13

전동차 납품비리 본격 수사

경찰, 특별팀 구성 전반적 수주 과정 실사 착수

바닥·내장재 불량여부 확인 병행



대구지하철 참사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 경찰이 2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차 제작 과정에서 불량 자재 납품 등 비리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수사 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건설자재 시험 연구원 대구지원에 검사를 의뢰한 전동차 바닥재 3장과 FRP(섬유강화플라스틱) 3장 등 내장재 샘플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 받고 불량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한국건설자재 시험 연구원 대구지원 한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의뢰 받은 전동차 내장재 샘플에 대한 검사를 거쳐 지난 8일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구지하철 전동차가 지난 94~96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제작·납품된 것으로 보고 당시 전동차 발주처인 대구지하철 건설본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전동차납품 비리의혹과 관련해 계약과정에서부터 제작,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수주과정에 대해 부실 및 비리여부를

캐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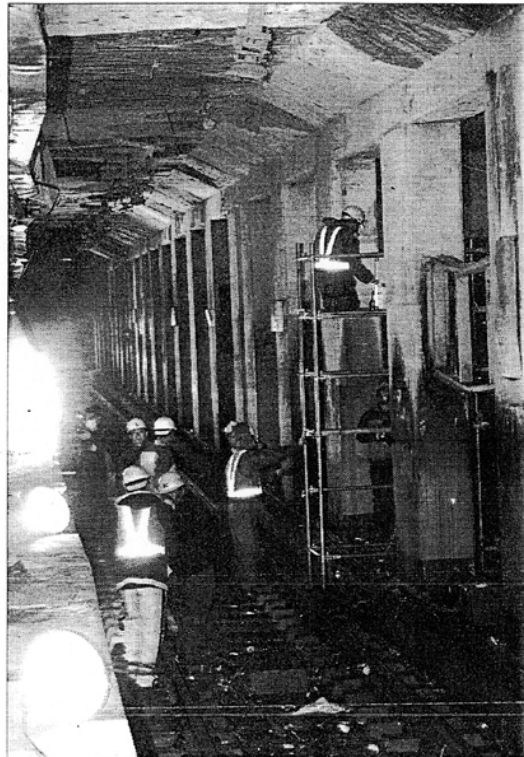
경찰은 전체 6만2천여 종에 이르는 전동차 부품 가운데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은 부품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연을 구하고 있다. 경찰은 전동차 납품 시점이 형법상으로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으나 납품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불량자재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강대형 수사본부장은 "전동차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그 대상이 너무 방대해 비리소지가 있을만한 부분을 포착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며 "단 한점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녹취록 조작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마그네틱 원본 테이프에 대한 감식 결과가 13일께 국과수로부터 통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동안의 수사기록을 재검토 중이다.

진식기자

jins@kyongbuk.co.kr



중앙로역 안전보강 작업

안전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 대한 권정호기자kwonjh@kyongbuk.co.kr

영남(3면) 2003. 3. 12

‘대구참사’ 정부차원 전폭지원 공감

여·야 영수회담 어떤 얘기 오겠나

12일 노무현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 권한 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청와대 오찬회 동에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책과 관련,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시한(14일)까지이지 임박한 특검법 제정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며, 한나라당은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경제위기 등 최근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책= 박 대통령은 이날 △인정사망기준 가족측 요구 최대한 수용 △특별재난 지역에 준하는 상가 피해 보상 △부상자 후유증치료 법적 근거 마련 △유가족, 실종자 가족 건강검진 △철거한 사고 수사 △도시지하철 국가공식화 △대 구경제 회생책 마련 등 대구출신 의원들이 건의한 지하철 참사 수습책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빠른 시간내 시행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북 송금 문제는 국민정서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밝히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 남양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성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조성과정에 부정이 있다면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금자금’ 조성과정 특검조사

盧 大 統 領

北사용처 문제는 정치적 해결을

‘특검법’ 더이상 수정할 수 없다

차 大 行

거부권 행사 부당성 적극 제기

◇대북 송금 특검법 거부권 문제= 노 대통령은 "민주당측에서 특검법을 조금만 수정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전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변 뿔썰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단 특검법에 대해 더 이상의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앞서 노 대통령과 지민원 감종필 총재가 11일 만찬회동에서 일단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다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시키는 방식에 의견을 모으는데 대해서도 합상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현안, 북핵 문제 등=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임을 강조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야·정이 경제 문제에 합심하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중·대선거구제 전환 문제의 경우 소선거구제가 당론이 관철을 분명히 하면서 대신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영란기자 yrllee@yeongnam.com

유족·시민단체-지원단·市 의전대립 조기 사고수습 ‘난항’

유족 ‘추모공원 안장’... 지원단 ‘소요시기 길어’

유족과 시민단체, 중앙특별지원단과 대구시가 이번 사고수습과 관련 중요 시안에 대해 대립하면서 조기 사고수습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더욱이 이들 주체들은 조기 사고수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할 방침으로 향후 사고수습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실종자가족들은 일부 신원이 밝혀진 시신에 대한 인도와 장례절차와 관련 지난 11일 마라톤회의 끝에 일괄인수후 추모공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단은 순해사정인을 통한 피해규모파악과 함께 정부차

원의 재정지원 등 보상방안이 추진 중인 상태에서 일괄인수와 추모공원 안장은 대책수립을 위한 자금마련과 소요시기 등을 감안하면 준비기간이 너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일괄인수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려면 조성과 자금마련 등에 최소한 2여년의 시일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지원단은 시신의 오랜 기간 인수거부에 따른 죽은자의 명예를 훼손할수도 있다며 명분회복도 중요하지만 실리차원의 다양한 협의진행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 유족들과 시민단체 대책위는 출범초기부터 신 개신없는 지하철 운행은 절대 불가하며 당장 지하철운행을 중단하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먼저 시행된후 지하철운행을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입장은 지하철 운행 재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외신뢰도 증진과 지상교통의 정상화를 위한 밀거름으로 대구경정상화를 위해 단초가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대구국제심유박람회와 대구국제광화전, U대회 등을 고려하면 지하철은행재개가 시민과 학

생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각종 국제행사를 앞둔 대외신뢰도 제고에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이다.

이같이 최근 중요 쟁점에 대해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명문을 앞세우고 지원단과 시는 실리를 내세우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사고수습은 제 2라운드를 맞고 있는 국면이다.

지원단 한 관계자는 “최대한 유족들의 편에서 사고수습을 단행할 예정이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유족의 행보는 사고수습의 진전보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dragonk@idaegu.co.kr)

대구신문(1면) 2003. 3. 13

정부, 지역경제 회생 안장

20일 대구서 관계장관회의... 활성화 논의

섬유박람회 국비증액 1억 지원

오는 20일 대구에서 지역경제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경제관련 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조해남 대구시장은 14일 대구시장 상 황실에서 열린 대구국제섬유박람회 (PID)조직위원회에서 "고건 국무총리로부터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관일인 오는 20일 대구에서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경제관련 장관회의를 가질 계획이라 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조 시장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총리에게 "지하철 침식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이에 따라 대구에서 경제각료회의를 갖기로 했다는 저이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자원 부 김상열 생활산업국장도 "대통령 의 지시에 따라 오는 20일 국무총리 를 비롯해 20여명의 정부 경제관료들이

참가하는 대구 지하철 대책회의와 대 구경제지원대책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등 경제 관련 장관 일행은 20일 대구국제섬유박람 회가 개막하기 전 약 2시간 가량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지원대책 회의에 이 어 국제섬유박람회 지원 방안 및 대 구경제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특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PID조직위원회에서는 또 대 구국제섬유박람회에 대한 국비 지원 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해 이번 편시 회부터 국비 보조금 지원 규모가 2천 500만원 늘어나게 됐다.

관현도 대구경부섬유산업협회 상 관회장은 이날 "온라인 마케팅 사 업 예산 1억5천만원과 소재패핑 시스 템 구축 사업 예산 1억원 등 2억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국 비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산자부

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김상열 국장은 "앞으로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대한 정부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할 방침이며 올해는 현재 책

정된 국비 보조금 7천500만원 보다 2 천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지원하 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 총리를 비롯해 재경·교육·법무·국방·행자·문

화·산자·정보·복지·환경·노 동·건설·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 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중앙특활지 원단장, 대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 이다. 고 총리와 장관 등은 이 자리 에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고수습 지원방안 및 대 책 논의와 함께 △피해자 보상범위 △대구지하철의 '전국시범'을 위한 조치방안 △안전기획단 설치·운영 방안 △지하철 사고예방대책 △문화 예술지원의 대구지역 시기진작 방안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성문기자 smwoo@idaegu.com

대구일보(1면) 2003. 3. 15

76명 인정사망 21일 첫 판정 실종자 처리 ‘급물살’

대구지하철 참사

심사위원회 대상자 201명 통보 받아
유해 149구 1차 감식도 내주초 완료

대구지하철 참사 인정사망 심사위가 처음으로 18일 관련 심사에 착수, 오는 21일부터 인정사망 판정이 내려지기 시작할 전망이다. 또 다음 주 초까지는 발견된 유해 149구의 유전자 1차 감식도 완료될 전망이다.

인정사망 심사위원회는 18일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인정사망 판정 대상자 201명으로 확정하고 사망 가능성이 높은 76명을 1차 대상으로 선정, 심사위원들에게 배당했다. 심사위원들은 7개팀(각 2명)으로 나뉘어 각 10, 11명씩을 담당해 심사

한 뒤 그 결과를 오는 21일 열릴 심사위 4차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해당자를 인정사망 판정한다는 것.

김준곤 인정사망 심사위원장은 “실종자가족들이 기거하는 중앙로

역의 열악한 환경과 인정사망 불인정 불안에 시달리는 가족들의 불안한 심경을 감안해 처리 시일을 앞당기기로 하고 실제 사망 가능성이 큰 실종자부터 심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또 오는 28일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인정사망 판정을 먼저 진행시킨 뒤 국과수 신원 확인 작업을 통해 해당자의 유해까지 확인돼 사체검안서가 발부될 경우 ‘확정사망자’로 분류키로 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국과수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도 속속 진척돼 이미 20명의 명단이 통보된데 이어 금명간 또 비

슷한 규모의 신원도 밝혀질 예정이어서 인정사망 심사 대상은 점차 감소해 나갈 전망이다.

집단사망자 관리단 이원태 단장은 “20일쯤 추가 신원 확인 유해 명단을 통보할 것이고 다음 주 초까지는 발견된 유해 149구의 유전자 1차 감식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한편 경찰과 수습대책본부는 18일 인정사망 심사 대상자 201명(국과수 신원 확인자 20명 포함)의 명단을 인정사망 심사위에 통보했다.

강병서기자 kbs@maeil.com

최병고기자 cbg@maeil.com

최두성기자 dschoi@maeil.com

“지하철 운영 정부가 맡아라”

재정악화 2호선 안전성도 ‘흔들’

대구시, 내일 관계장관회의서 공식 요청
U대회 계기 ‘국제대학교류재단’ 설립도

지하철 참사로 가라앉은 대구에
불파구를 마련기 위해서는 지하철
건설·운영의 중앙정부 기관은 물론
다섯달 앞으로 다가온 U대회의 성
공적 개최, 이를 바탕으로 한 대구
의 도약대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계기사 4·5·28·29면
대구시는 20일 대구에서 열릴 총
리 주재 참사 관련 관계장관 회의의
를 통해 중앙정부가 대구지하철의 건
설·운영을 맡아 주도록 공식 요청
키로 했다. 과다한 건설비 부담 및
운영 적자 가중으로 대구시의 재정
난이 악화되고 지하철 운영 부실화

그 상황이가 내년부터 2007년 사이
진중돼 있어 2호선의 2005년 하반기
개통 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하다
고 했다. 또 2호선 전동차의 내장재
를 영국 공업규격(BS) 기준에 맞춰
설비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150억원 역시 중앙정
부 지원 없이는 마련하기 불가능하
다고 했다. 대구지하철 건설본부 이
용구 기진부장은 “현재 2호선 전동
차 내장편은 불연재로 시공하고 있
지만 의자·바닥재·연결막은 1호선
전동차와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쓰
도록 설계돼 있어 화재에 여전히 위
약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유니버시아드
시민위원회(위원장 김남웅 경북대
총장)는 19일 대구 국제화을 목적
으로 유치된 U대회 본래 취지를 살
리려면 이를 기회로 대구에 정부 차

원의 「국제대학교류재단」을 설립,
대구·경북을 세계 대학 교류의 중
심지로 발돋움시키는 특단의 지원
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민위원회에 따르면 대구는 산
업에서 취약성을 보여 다른 분야에
서도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경북까지 포괄해 47개 대학 35만여
명의 대학생이 있는 특성을 감안한
다면 대구를 세계 속의 대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지역 산업 발전도 이를 중심으로 추

진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시민위원회는 U대회 후속 사업으
로 국제대학교류재단이 대구에 설립
되면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 유학을
로 역할을 맡음으로써 대구가 세계
로 통하는 대학교류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고, 재단은 세계대학엑스포
등 각종 교류행사를 주도함으로써
대구를 세계 대학의 중심으로 부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해용기자 kimhy@maeil.com
김병규기자 kbg@maeil.com

매일(1면) 2003. 3. 19

영남(27면) 2003. 3. 20



대형길게 그림 등장 2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지하철 참사 등에 대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청 밖에서 지하철 참사 희생자가족 100여명이 대형길게 그림을 걸고 일출한 사고수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연이틀 계란세례 시청앞 격렬시위

대책위, 관계장관 대책회의장 진입 시도

대구지하철참사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린 20일 오전 8시부터 희생자가족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대책위 관계자 등 100여명이 대구시청 앞에서 조해녕 대구시장 사퇴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했다.

이날 희생자 가족들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사로 들어가는 장관 등에게 계란을 던졌고,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오후 8시쯤 대구시청 앞에서 조해녕 시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유가족 등 250여명은 이날 오후 7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앞 도로에

서 추모대회를 갖고 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한 후 조 시장 퇴진,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구속, 지하철 운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청사에 수백개의 계란을 던졌으며 조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하는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기 희생자가족대책위원장은 추모집회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희생자 처리 △안전이 확보된 지하철 운행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추모공원 조성 등을 대구시 등 관계당국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3시쯤에는 대구와 서울·부산·인천지하철 노동

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궤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중앙로역 앞 도로에서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 시민·노동자 애도를 위한 전국궤도노동자 추모대회'를 가졌다.

조합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지하철과 철도에 대해 시민의 안전은 핑개치고 적자타령과 돈벌이에 급급하면서 효율성과 수익성만 맹신하고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부정책에 있다"면서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대피가 용이하도록 역사의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하철과 철도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1인 승무원제, 역 민간위탁, 기술 및 차량의 외주 용역 등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포기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 방화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 노조, 교통전문가 등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형기자 lshyung@yeongnam.com

영남(4면) 2003. 3. 20

산업구조 고도화 “대구 경제 살리기”

■ 대구U대회·‘밀라노’·‘지하철’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20일 대구시청에서 고건 총리가 주재한 ‘대구U대회 및 밀라노 프로젝트 대책회의’에서 대구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추진하려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한방바이오 벨리 조성, 기계·생물산업 육성,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 총리와 관계장관들은 “대구에는 섬유산업 외에 대구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이 부족한 만큼 대구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구시가 산업고도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우선 정부는 달성군 일대 500만평을 대구테크노폴리스로 조성하기 위해 이 일대를 ‘국가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테크노폴리스를 대덕산업단지(840만평) 및 광주첨단산업단지(240만

평)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수성구 일대 30만평에 오는 2015년까지 6천여명을 투입해 조성하려는 한방바이오 벨리 조성사업의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설치하고 ‘한약관리 및 한약교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서산업단지내에 430여원을 들여 설립하려는 기계부품 소재 시험평가센터를 올해중으로 설치하고, 한방바이오벨리 예정지에 설립하려는 전통생물소재 산업화센터와 나노부품 실용화센터 건립도 적극 지원키

로 했다. 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으로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추진해, 당초 예정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차질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의 전통 주력산업인 섬유산업발전을 위해 내년부턴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사업분야(4개분야 3개사업)를 산업자원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하철참사로 삼라작인 중역에 빠져있는 대구시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실추된 한국과 대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U대회를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시일내 문화관광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U대회준경자위원

회를 구성해 대회시설, 선수촌 건설, 대회운영 등 대회 준비상황 전반에 대해 정책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문화부는 체육복권 수익금 100억원을 대회운영비로 상반기에 지원하고, 행정자치부는 도시환경정비 및 경기장 개·보수 경비 7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키로 했다. 국방부는 선수촌 경비 등에 필요한 2천여명의 군인력과 선수촌영문 1만9천여점을 군수물자로 지원하고, 건교부는 대회기간중 대구~인천간의 임시항공편을 증편하고, 정보통신부는 통신주관사업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며, 교육부는 문화행사 출연학교(5개교)에 대한 시설 및 환경개선비를 최대한 지원키로 하는 등 각 부처에 대한 대구U대회조직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특히 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실추된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구U대회가 안전대회가 될 수 있도록 5월부터 안전관계기관 합동으로 ‘U대회 안전통제본부’를 상설운영해, 선수 및 임원단뿐 아니라 대구지역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달성군 일대 540만평 연구개발특구 지정 U대회 중앙지원단 구성 대회준비 점검

정부는 20일 대구시청에서 고건 총리가 주재한 ‘대구U대회 및 밀라노 프로젝트 대책회의’에서 대구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추진하려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한방바이오 벨리 조성, 기계·생물산업 육성,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 총리와 관계장관들은 “대구에는 섬유산업 외에 대구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이 부족한 만큼 대구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구시가 산업고도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우선 정부는 달성군 일대 500만평을 대구테크노폴리스로 조성하기 위해 이 일대를 ‘국가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테크노폴리스를 대덕산업단지(840만평) 및 광주첨단산업단지(240만

인정사망자 64명 첫 결정



나머지 91명 중 56명은 28일 확정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실종신고자 가운데 6명이 인정사망자로 첫 결정 됐다.

지하철참사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위원장·김준곤 변호사)는 21일 대구소방본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지난 18일부터 개별심사를 벌인 1차심사 대상자 70명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에 의해 사체 신원이 확인된 확정사망자 12명을 제외한 64명 모두를 인정사망자로 결정했다.

이날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된 인정사망자들은 모두 휴대전화, 발신 위치와 통화내용, 지하철 CCTV에 찍힌 화면 등 사고 전동차에 탑승했다는 명확한 정황증거가 있는 실종신고자들로 이의 없이 인정사망을 결정했다고 심사위는 밝혔다.

이날 개별심사는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심사위원이 2명씩 7개조로 나

뉘 각 조별로 10~11명씩의 실종신고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심사위는 국과수의 시신 신원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인정사망이 결정된 6명에 대해 대구시에 바로 인정사망을 통보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15일동안 국과수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심사위는 오는 28일 5차 회의때 나머지 심사 대상자 91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인정사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5차 회의때 인정사망 여부를 결정

하게 될 56명은 지하철 CCTV와 목격자 증언, 친구와의 약속 등 정황증거가 불충분한 실종신고자로 심사위 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로 숨진 사망자는 21일 현재 사체 신원 확인자 82명, 인정사망자 64명으로 집계됐다.

임성수기자 s018@daegu.com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

지하철 참사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위원장 김준곤 변호사)는 21일 4차 회의에서 사체 신원이 확인된 확정사망자 12명을 제외한 64명을 인정사망자로 합의했다.

김동우기자 dwkim@daegu.com

대구일보(5면) 2003. 3. 22

영남(22면) 2003. 3. 22



22일 대구지하철 사고로 숨진 대구 가톨릭대 테니스선수 4명의 유해를 인수하려는 가족들이 운구되는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박진권기자pajika@yeongnam.com

“생계위협 더 못참아”

중앙로역 인근 동일동 및 남일동 상가변영회와 주변 상가업주들이 중앙로역 주변의 추모집회를 금지해 달라며 장기간의 주민수호대회를 개최기로 해 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2일 오후 3시 중앙로역

동일동과 남일동 상가변영회원과 주변 상가업주들은 이날 주민수호대회에서 “차량 통제와 잦은 희생자 추모행사 등으로 생계를 위한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이들은 △파해지역 상가 영업 손실 보상 △중앙로 차량통행 허용

중앙로역 인근상인 “추모집회 금지”

오늘부터 내달말까지 주민수호대회

희생자대책위와 정면 충돌 불가피

주변에서 피해지역 상가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는 ‘상가 및 주민수호대회’를 시작으로 동일동 상가변영회 김정일 회장 명의로 증부경참서에 오는 4월말까지 집회신고를 마쳤다.

이에따라 한 지역에서 상이한 성격을 가진 두가지 집회는 불허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가변영회가 22일부터 4월말까지 중앙로역 주변지역 집회를 독점하게 돼 오는 26일 추모대회를 준비중인 희생자가족대책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중앙로역 주변 추모집회 금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한 상가 희생 및 활성화 촉구 등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일동 상가변영회 관계자는 “희생자 가족들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피해자인 만큼 함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모대회를 열더라도 큰 충돌은 피할 생각”이라면서 “상가업주들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조선(10면) 2003. 3. 27

“지하철 참사로 먼저 간 이들은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틱낫한 스님
大邱 현장서
‘걷기 명상’ 수행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을 깨어있는 마음(Mindfulness)으로 대하면, 그들이 늘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6일 오후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 암흑 속 절규가 마르지 않을 비원(悲願)으로 자리한 바로 그곳에서 베트남 출신 평화운동가 틱낫한(77) 스님이 진혼(鎭魂)의 걸음을 땀다. 스님은 고령과 빠듯한 방한 일정에 따른 피로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대구 지하철 희생자 천도(薦度) 걷기 명상’을 수행했다.

지난달 18일 지하철 화재로 344명의 사상자를 냈던 중앙로역. 스님은 그들을 진 대개한 지하철역 안에서 분향한 뒤, “마음 속 자비를 끌어내 슬픔에 잠긴 이곳에 널리 퍼뜨리자”며 양손을 앞에 모으고 명상 완보(緩步)를 시작했다. 손에 흰색 국화를 들고 그의 일정한 보폭을 뒤따른 시민 500여명(경찰 추산)은 역사 주변에 바쳐진 헌화와 실종자를 찾는 거리의 대자보·현수막을 보며 또다시 에타웠고, 생사를 가리지른 지하 방화벽을 떠올리며 통절한 가슴을 쳤다.

25세 된 딸을 잃은 김정태(67)씨는 “부디 딸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빌고자 왔다”며 “명상 수행이 모든 고통을 잊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27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염주 실내체육관에서 ‘내 안의 평화 그리고 화해’를 주제로 4대 도시 순회 마지막 강연을 한다.

/大邱=朴瑛錫기자 yspark@chosun.com

/崔賢默기자 seanch@chosun.com



◇大邱 동화사 방문

26일 오전 대구 동화사를 방문한 틱낫한 스님이 동화사 주지 지성(오른쪽에서 첫 번째) 스님과 함께 경내로 들어서고 있다.
/大邱=李宰佑기자 jw-lee@chosun.com

영남(27면) 2003. 3. 28

“대구는 자원봉사 모범도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대구 자원봉사 모범도시로 새롭게 태어났고 있다. 이번 참사 수습에 대구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기반이 확충됐고,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의식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수습대책본부가 마련된 대구시민회관에는 사고가 난지 39일이 지난 28일 현재 삼성그룹의 사회봉사단, (주)KT대구지역본부의 사랑의 봉사단,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새생명복지회 등 17개 단체에서 230여명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은 식사와 간식, 음료수, 과일, 국화꽃 제공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족에 대한 생활필수품(내의, 양말, 수건 등) 제공, 건강진단 등 의료봉사, 부상자 입원병원 간병봉사, 분향 참배 안내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2만2천여명. 사태가 점차 정리가되면서 지금은 봉사단체가 하루에

식사제공 등 참사수습 2만여명 활동 한달이상 지속 사례 국내외 드물어 시민의식 확산...내달 민간포럼 출범

20개 안팎으로 줄었지만, 참사 초기엔 시민회관과 참사현장인 중앙로역에서 60개가 넘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식사 제공과 청소 등 굵은 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봉사단체들이 참사 당일인 2월18일부터 지금까지 한달이 넘도록 인력과 물자를 지속적으로 쏟아부은 사례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과거 각종 대형참사 때도 봉사활동을 폈지만, 2주 안팎이면 사태수습이 끝났다.

이 때문에 하루 300~600명분의 식사를 각각 제공하고 있는 삼성사회봉사단과 KT대구본부봉사단, 대

한적십자사 대구지사봉사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 봉사단은 지금까지 식사준비 음식재료비로만 1억원 이상의 돈을 쓴 것으로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 자원봉사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삼성사회봉사단은 구미공장의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체제 그대로 자원봉사단이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민영화 이후 자원봉사단 운영에 더욱 적극적인 KT대구지역본부는 앞산 대덕식당에서 선지국을 주문해 제공하

는 등 매일 다양한 식단을 짜노라 애를 먹으면서 이번에 노하우를 축적했다. 하루 14명의 직원이 아침 200인

분, 점심 400인분을 제공하는 KT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27일 “지금은 600인분이지만, 초창기엔 하루 1천 8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다”면서 “대구·경북지역 각 자사에서 매달 680만원의 사회봉사기금을 비축해왔기 때문에 참사 당일 곧바로 봉사단 투입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김병규 자원봉사과장은 “발행한 사고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대구가 좀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모범도시 조성은 조해녕 대구시장의 시장선거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대구시는 자원봉사 모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 자원봉사과를 신설했고, 민간주도로 자원봉사 활동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할 ‘대구 자원봉사 포럼’이 다음달 3일 오후 6시 그랜드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월도혁기자 endson@yeongnam.com

매일(27면) 2003. 4. 1

도심내 묘지...법·민원 뚫을까

대구지하철참사 수습과정에서 추모묘지공원 조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희생자 대책위는 수창공원 예정지(구 담배인삼공사 부지)에 추모묘지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수창묘지공원의 조성은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수창묘지공원 조성에는 난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대 걸림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근린공원이자 상업지역인 이곳에는 묘지가 들어설 수 없다. 또한 20호 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에서는 500m 이내에 묘지가 들어설 수도 없다는 법 규정에 배치된다.

더욱이 도심 속에 있는데다 1만1천800여평 규모인 이곳의 조건은 「장래 시가지화가 예상되지 않는 3만평 이상의 자연녹지에만 공원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추모공원과 위령탑을 수창공원 예정지에 건립하되 추모묘역은 대구시립공원묘지(칠곡군 자천면)에 조성하는 방안을 대책위에 제시했지만 거부됐다.

결국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2항의 단서조항과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수창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도 추진키로 했다. 관할 지역에 묘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계법령

대구지하철 참사

—— 추모묘지공원 가능한가

현행법상 ‘인가 500m 이내 금지’
묘역주변 주민 반발 설득도 난제
‘425억 2년 공사’ 속제 산 넘어 산
市 ‘뜨거운 감자’ 정부부처에 넘겨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추모묘지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대구 수창동 구 담배인삼공사 부지 전경. 그러나 현행법상 묘지공원이 들어설 수 없는 데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김태형기자 thkim21@maeil.com

개정을 정부부처에 건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추모공원 문제는 이제 정부부처로

공이 넘어간 셈. 수창묘지공원 조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난관은 예산 및 시간

문제이다.

수창공원 예정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비는 425억원(대구시 추산)에 달하지만 지하철 부채 등으로 열악한 시 살림으로는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31일 대책위와 가진 협의에서 「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을 시비로 우선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요청하겠다」고 합의했다.

당장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수창묘지공원을 조성하는데 2년여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 역시 걸림돌 중 하나이다. 공사의 선결 과제인 관련 법 개정 및 도시계획 변경에도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책위는 지하철 참사 희생자의 유해를 냉동고에 안치해놓거나 일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뒤 수창묘지공원에 재안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근 주민들의 예상되는 반발도 간과할 수 없다. 추모공원이라 하더라도 도심에 묘역을 조성하는데 대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추모묘지공원이 혐오시설만은 아니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지만 중앙로 상인들에 이어 예상되는 집단민원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해용기자 kimhy@maeil.com

추모공원 반대 진정서 파문

‘상권 망친다’ 이유 유족대책위, 시·중구청에 의혹 눈길

동사무소 등서 발견...수사의뢰키로



대구지하철 지하철공사 추모공원(수창공원 예정지) 조성과 관련, 중구 구민일동 명의의 추모공원 반대 진정서와 서명용지, 현수막 문건 등이 동사무소에서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지하철 공사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물의뢰,azzi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희생자대책위는 3일 오후 대구시 민회관 대책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1시30분께 동인3가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지하철공사 추모공원에 반대하는 진정서와 서명용지 2장을 발견하며 '차로 동인동 주민, 2차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났

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실확인을 위해 오후 2시30분께 동인3가동사무소를 찾았고, 확인과정에서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A4용지 2장 분량의 대구시장 앞으로 보내는 진정서와 서명용지, 현수막 문건 등이 동사무소내 직원용 폐지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공개한 중구 구민일동 명의의 진정서는 '수창공원에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중구지역은 중심상권으로 다시 도약할 기반을 완전히 잃는다. 추모공원 건립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수창공원 부지가 아닌 시외곽지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대구시장은 중구 주민들의 간

그것도 추모공원 인근인 상내3동이 아닌 동인3가동에서 발견된 것은 중구청, 나아가 대구시가 조직적으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진정서 등을 작성한 주체 등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재원 중구청장은 "추모공원이 들어설 상내3동 주민들이 반대입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중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중구청이 앞장서서 반대여론을 조성할 수도 없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하는 일을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임성수기자
s018@idaegu.com

대구일보(3면) 2003. 4. 4

영남(27면) 2003. 4. 7

윤진태 前사장 영장 또 기각

홑시장 사법처리 '희박'

지하철 대참사

실무자만 영장 발부
법적용 형평성 논란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61)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해녕 대구시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김홍일 대검 특별수사본부 2반장은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 전 사장에 대해 추후에 보강조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검토하겠다"면서 "검찰은 윤 전 사장이 증거인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3일 증거인멸 혐의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기각됐다.

대구지법은 4일 오후 윤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영철 대검 강력부장)는 현장훼손과 관련, 지난 1일 윤 전 사장과 김육영 지하철공사 시설부장(52)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씨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윤 전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 3일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현장훼손 수사가 현장을 청소한 실무자만 구속하고 이를 지시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조해녕 대구시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장을 청소한 실무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지시한 상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조 시장 등 현장훼손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다시 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앞으로 현장훼손에 대한 책임소재와 진상규명 파악 등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

중앙로 다시 뚫린다

늦어도 10일부터 차량통행 재개

대구지하철 참사

市·희생자 대책위등 합의
인근 상가 영업피해 고려

지하철 참사로 지난달 1일부터 전면 중단되고 있는 중앙로역 지상도로의 자동차 통행이 늦어도 오는 10일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희생자대책위, 시민사회단체대책위, 대구지방경찰청, 일대상가 단체 등은 지난 5일 오후 중앙 특별지원단 사무실에서 협의를 갖고 교통 통제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는 동성로·중앙로 등 인근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10일 0시부터 자동차 통행을 재개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앙

로 통행 재개와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은 대구시장이 지고 중앙로역사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계속작업도 계속 실시키로 했다. 또 대구시는 시민사회단체대책위의 위촉을 받아 중앙로역에 대한 안전성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전문대 박창화 교수가 제시하는 보완 요구사항을 9일 이전까지 이행하며, 보완이 빨라질 경우 통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북대 방재연구소 박문호(토목공학파) 교수는 지난달 중앙로역사 구조물에 대한 긴급 안정성 진단을 실시, 중앙로에 자동차가 다녀도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의가 제기되면서 통행 재개가 미뤄져왔다.

최두성기자 dschoi@maeil.com

매일(31면) 2003. 4. 7

국민(24면) 2003. 4. 8

‘대구참사’ 유족들 두번 울린다

현장리포트

추모공원 조성 위치 갈등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지하철 안전 운행을 기원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 문제가 장소 선정에서부터 해당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뻗어가고 있다.

추모공원 건립은 희생자대책위가 유족 및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구역과 위령탑, 추모관 조성 및 운영방안을 놓고 추진중인 사업이다.



중구의회

“도심에 공원묘역 웬말” 의원 결의문 통해 반대

대책위는 장소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구 중구 수창동 옛 전매청 자리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이고, 주택밀집 지역이 아니며, 참사현장과 가깝다는 이유를 내세워 최적으로 결정, 대구시에 추모공원 조성을 건의했다. 옛 전매청 자리는 대구시가 ‘수창 공원’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추모공원 묘지조성에 대해 별도의 법 제정은 필요없지만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에 묘지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시는 옛 전매청 자리에 추모공원 조성이 결정되면 묘역 2,500㎡, 추모비 4,000㎡, 전시관 3,000㎡ 등 모두 39,

242㎡에 609억원을 들여 2~3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족들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 모금된 성금을 활용하거나 유족들 자체 기금조성,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금모금 등을 통해 추모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다.

그러나 옛 전매청 자리가 후보지로 거론되자 해당 중구의회가 최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창공원 예정지 추모공원 조성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없이 도심에 묘역을 조성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 지역에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상권을 활성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구의회 신현식 의장은 “공원묘역을 도시 한가운데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판단해 우리구 전체의회의 뜻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도 추모공원 조성 반대 집

회까지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이미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반대서명 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중구청이 주민들을 앞세워 반대를 부추기고 있고, 반대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그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해 불똥이 중구청으로 튀었다.

대책위는 반대서명 문건이 인근 성래3동이 아닌 동인3가동에서 발견되었고, 명의로 성래3동 주민이 아닌 중구구민 일동으로 기재돼 조직적 개입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기 위원장은 “중구청이 추모공원

대책위

구청서 반대 여론 몰이 “유족 아픔 외면한 처사”

묘역조성에 반대하는 진정서와 서명날인 명부, 관련 현수막 안을 마련해 구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있다”고 폭로했다. 대책위는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이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며, 경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시켰다.

마찰을 빚자 대구시는 일단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다. 추모공원내 위령탑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묘역 조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대구시민 전체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진통은 불가피보인다.

대구=김상조기자 sangjo@kmib.co.kr

매일(31면) 2003. 4. 9

“시민합의 전제돼야 추모공원 조성 가능”

홍시장 밝혀 재정여건도 추진에 어려움

대구지하철 참사

조해녕 대구시장은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묘지공원을 조성하려면 시민적 합의와 법적 문제가 결이 전제돼야 하며 현재 대구시의 재정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수장 추모묘지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중구민 대표들과 8일 대구시청에서 만난 조 시장은 “안전교육의 장으로서 이번 참사 추모공간을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시민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이 전제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조 시장은 또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수장 추모묘지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600여억원이 들지만 현재의 대구시 재정 형편상 이를 조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올해 대구시의 일반회계 예산 1조8천억원 가운데 지하철 채무상환비와 경상비 등을 뺀 순수 사업비가 3천억~5천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빼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정이 이렇어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왜 추모묘지공원 조성에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조 시장은 자신이 직접 합의한 사실은 없다며 “단지 김기옥 행정부시장이 희생자대책위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헌법상의 한계와 주민 반발 등) 난점이 있으나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시장은 “당시 희생자 대책위 측에 관련법상 도저히 안된다고 설명했지만 ‘되는 방법을 강구하고 관련법에 예외조항이 있는지 중앙부처에 질의도 못하



8일 오후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서 열린 지하철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반대 집회에서 중구지역 주민 600여명이 도심지 공원요지 조성 즉각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imaeil.com

느냐”고 강력히 요구해 합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구민 600여명은 8일 오후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수장공원 조성 합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주민 반대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조

시장에게 전달했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 중 200여명은 오후 4시쯤 중구청까지 거리 행진을 한 뒤 구청 밖에서 20분 가량 구호를 외치다 해산했다.

김해용·최두성기자

조선(12면) 2003. 4. 12

중앙로 상권 되살아날까?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교통이 통제됐던 중앙로역 일대의 차량통행이 지난 10일 재개됐다. 그동안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져 막대한 타격을 받았던 지역 상인들은 차량통행 재개와 함께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11일 오후 중앙로역 2번 출구 앞. 참사 당시 검은 연기를 토해 내던 지하철 환기구 위에 설치된 천막 속에 놓인 추모의 촛불들은 아직도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주변 도로에는 노선버스·택시 등 각종 차량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고, 보도(歩道)는 우산을 들고 봄비 속을 종종걸음 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중앙로역 일대 상인들은 지하철 참사 이후,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골프의류 매장의 매출액 기록은 이같은 상인들의 주장이 전혀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매장의 올 2월, 3월 매출액 합계는 1억 4500만원. 작년 같은 기간 매출액 2억 7800만원에 비해 거의 절반에 불과했다.

참사현장 인근 아카데미시네마의 영화관람객도 70% 감소했다. 작년 2월18일부터 4월9일까지 관람객은 12만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관람객은 3만6000명으로 떨어졌다. 매출액은 성인 관람료(6500



◇중앙로 재개통후 중앙지하상가에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많이 늘었다.

지하철 참사후 매출 절반 감소 차량통행 재개로 일부 회복세

원) 기준으로 5억 4600만원 줄었다. 아카데미시네마 측은 “지난 10일 차량통행이 재개됐지만 아직까지 관람객이 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주말부터는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카데미시네마 주변 한 볶음밥 전문점은 차량통행 재개로 매출액이 10% 가까이 늘어났다. 교통통제 기간 중 하루 180~190테이블 정도 손님을 받았지만, 차량통행 재개 첫날인 지난 10일에는 210테이블 정도 손님을 받았다. 사장 권모(59)씨는 “지하철 참사 전에는

하루 평균 600~700테이블 정도 손님을 받았다”며 “차량통행 재개 후 매출액이 늘기 시작해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로역 일대 상권이 되살아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 지하철참사 이후 추모 열기가 높아진 만큼 소비성향은 떨어졌다. 차량통행은 재개됐지만, 지하철의 중앙로역 정차는 11월에야 재개될 예정이다.

김무웅(金武雄) 동성로상가변영회장은 “중앙로역 일대 상권이 단기간에 되살아나기는 어렵겠지만, 주변 환경과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琴元嬖기자 capedm@chosun.com

매일(31면) 2003. 4. 23

대검수사 의혹만 남긴채 ‘빈손’ 종결

오늘 수사본부 해체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을 혼란에 빠뜨렸던 현장 훼손 관련 수사가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 수사를 주목적으로 대구에 파견됐던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조해녕 대구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뒤 23일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서울로 복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23일 현장 훼손과 관련, 조해녕 대구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조 시장의 경우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청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증거인멸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 윤 전 시장은 경찰 허락 없이 공사 직원과 군부대를 동원해 청소한 점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현장 지휘·보존 책임에 대해서는 윤 전 시장 등에게 현장청소 혐의나 허락을 한 적이 없어 형

사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검찰도 사건 현장 청소 사실을 몰랐을 뿐 목인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장훼손 책임을 물어 기소된 사람은 지하철공사 김모 시설부장 뿐이다. 그의 검찰은 방화범 김모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장훼손, 녹취록 조작, 단전, 화재 당시 중앙로역 긴급 대응 미비 관련자 등 10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방화 서터 의혹도 문제된 방화벽 설치 건축법 위반 및 방화 서터 조기 작동 여부가 지하철 참사와 무관하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에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계속 수사 지휘 후 송치받아 처리기로 했다. 대검은 23일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수사 착수 당시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은 물론 전동차 납품 및 지하철공사 윤영비리·녹취록 조작·전동차 단전 등 경찰수사에서 미흡했던 것까지 전방위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 표명이며 현장훼손과 관련 내부수사도 벌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모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대검 수사는 무수한 의혹만 남겨버렸다.

현장훼손 수사의 경우 대검은 조 시장과 윤 전 시장의 현장훼손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에 전력해왔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의 경우 극히 이례적으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고의로 인한 증거인멸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aeil.com

대구지하철 참사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22일 전동차 단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던 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 팀장 곽모(50)씨와 전력사령실 직원 박모씨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별수사본부 박해은 1반장은 지난 2월18일 중앙로역 전동차 방화 사건 당시 이들이 전력 차단 후 긴급대응을 않아 1080호 전동차의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일보(3면) 2003. 4. 28

유가족-대책위 '합동장례' 요구하며 반발 중앙로驛 안전진단 또 무산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현장인 중앙로역 지하 3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됐다. 대구지하철공사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중앙로역 지하 3층 천장과 기둥, 벽면 콘크리트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들의 반대로 27일 오후까지 실시되지 않았다.

지하철공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시설안전공단(2명), 한국콘크리트학회(8명), 대구지하철공사(24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로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앙로역 1층에서 지내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합동장례를 요구하며 반발,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못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하계 U대회를 앞두고 오는 8월 1일부터 전동차 무정차 통과라도 할 수 있으려면 시급히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또다시 유가족들의 반대로 안전진단

이 실시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안전진단을 통해 지하 3층의 천장과 기둥, 벽면의 콘크리트 부분 시료를 채취, 검사를 벌여 완전교체나, 보강이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odaegu.com

대구신문(19면) 2003. 4. 28

희생자 시신 27구 오늘 추가인도

142구 중 61구 개별인도

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27명의 시신이 가족들에게 28일 개별 인도된다.

27일 지하철 방화 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이 1080호 전동차 등에서 수습, 신원을 확인한 방도씨(50·대구시 동구 효목동) 등

27구의 시신이 28일 월배차량기지 창에서 가족들에게 개별 인도된다.

이에 따라 참사 이후 국과수가 수습한 142구의 시신 가운데 유가족들에게 개별 인도된 시신 수는 61구로 늘어나게 되며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시신 6구를 제외한 75구의 시신이 남게 된다.

최기영기자 dujjok@idaegu.co.kr

대구신문(1면) 2003. 4. 28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7명 지원 잠정 집계

대구지하철공사에 대한 공개모집 결과 7명이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공모 마감일인 25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이 추가 접수될 수고 있어 최종 지원자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지원자는 시국장출신 전직공무원 2명과 경대 오모교수 등 학계 3명, 기업체 경력자 등 기타 2명으로 모두 7명이다.

출신지별로는 대구 5명, 서울 1명, 경기 1명 등이다.

이에따라 시는 최종 우편마감분을 접수한 뒤 7인 지하철사장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신입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강진구기자 dragonk@idaegu.co.kr

매일(1면) 2003. 4. 28

지하철 유족, 부시장 감금·안전진단 저지... “물리력으로 해법 못찾아”

U대회·고속철 등 지역현안 산적
시민들 “수습 실마리 빨리 찾아야”

‘지하철 유가족’

●1면서 계속

지하철 참사가 발생 70여일이 지났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보다 대구 시와 유가족간의 대립 구도가 격화되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관계기사 27·30면
26일 낮 12시쯤 유가족 40여명은 김기욱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8시간 동안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1층 대책위 사무실에 억류했다. 유가족들은 시민회관 주차장에 합동분향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던 중 김부시장 등 공무원 200명이 헬거에 나서자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 지프차에 타고 있던 김 부시장을 대책위 사무실로 끌고 갔다.

8시간 만에 경찰의 중재로 풀려난 김 부시장은 탈진증세를 보이며 경북대 병원에 입원해 28일 오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김 부시장과 함께 있었던 시의 한 공무원은 “일부 유가족들이 몸이 아파 누워있는 김 부시장을 슬리퍼와 손으로 때렸다”고 전했다.

희생자 대책위 관계자는 “시민회관 대강당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주기로 해놓고 대구시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일부 유가족들이 김 부시장을 대책위 사무실로 데려와 출입구 문을 막는 바람에 김 부시장이 8시간 정도 밖에 못 나간 것일 뿐 감

금·폭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23일 밤에도 시민회관 대강당 합동분향소 설치 문제를 놓고 시와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대구시 수습대책본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시 공무원 30여명을 억류한 채 24일밤까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하철참사 사태수습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장례 및 보상협의도 ‘수장요역을 조성할 때까지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하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와 ‘장례를 치른 뒤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우리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이 달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1호선의 재개통도 희생자 가족들의 반발로 정밀안전진단이 착수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한국콘크리트학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중앙로역 지하3층 철근콘크리트 시료 채취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지하 1층에 머물고 있는 희생자가족 등 수십명에 의해 저지됐다.

최두성·문현구기자

●2면에 계속

당초 대구지하철공사는 U대회 이전인 8월 1일부터 중앙로역 무정차 방식으로 1호선 전 구간을 재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진단 지연으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희생자대책위 측은 “희생자 가족들이 중앙로역 지하2층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장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합리적인 협의보다는 집단적이고도 물리적인 행동에 의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는 유가족들의 행동과 오락가락하는 대구시의 태도 때문에 지하철 참사는 발생 70여일이 지났으나 수습의 확실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가 고향이며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통해 ‘가끔씩 듣는 대구 소식에 격정이 앞선다. 지금은 우리나라 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타지 사람들은 대구를 형편없는 3류도시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구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안타까운 일(대구지하철참사)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동아(27면) 2003. 5. 3

슬픔은 저 하늘 멀리

가정의 달인 5월.
2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로 부모를 잃은 '수미양 3남매'와 3월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로 아들을 잃은 김창호씨(40)의 경우는 가족 사랑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되새기게 한다. 이들은 지금 아픔을 딛고 '아름다운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천=김미옥기자 sall@donga.com

부모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난 '수미양 3남매'가 풀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엄마 빈자리 너무 크지만...

대구참사 수미3남매 “꼭꼭하게 살래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북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황정자씨(63) 집. 자그마한 여자아이 2명이 대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와 할머니 황씨 품에 안겼다. 황씨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난해 1월 심장마비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올 2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로 어머니마저 잃고 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엄수미(8), 난영양(6), 동규군(5) 3남매. 하지만 이들은 밝고 씩씩한 모습이었다.

사고 후 두 달 동안 할머니는 농사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전념했다. 엄마 생각으로 피로워하

지 않도록 항상 집을 비우지 않고 3남매를 돌봤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부쩍 철이 든 첫째 수미양은 더 이상 반찬투정을 하지 않는다. 숙제도 스스로 하고 자다가 동생들이 차버린 이불을 덮어 주기도 한다. 얼마 전부터는 동생들의 밥그릇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고집 센 둘째 난영양도 할머니의 말을 잘 따르는 편. 전에는 자신이 방을 어질러 놓곤 했지만 요즘은 동생 동규군이 늘어놓은 장난감을 정돈할 정도로 달라졌다.

할머니 황씨의 눈에는 손자손녀들의 달라진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

없이 안쓰럽게 보인다. 할머니에게 힘을 준 것은 3남매의 사연이 알려진 후 전국 각지에서 보내 온 편지들. “3남매를 훌륭히 키워 달라”는 당부와 “수미 힘내라”는 격려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미양을 위해 책을 보내 준 중학생도 있었다.

현재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한국야쿠르트사가 보내주는 월 100만원. 황씨는 “이 중 5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수미양 3남매를 위해 적금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책을 좋아하는 수미양의 장래 희망은 국어선생님. 난영양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미술선생님이 되겠다”며 수줍게 웃었다.

떠도는 원혼 언제까지...

대구참사 희생자 22일 합동영결식 후
유족 일부, 시신 냉동고 재안치 움직임
추모공원 여부·위치로 대책위·市 갈등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을 둘러싼 희생자 대책위와 대구시의 갈등이 합동 장례식의 파행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양측은 추모공원 조성 위치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당수 유족들은 22일 열릴 예정인 합동장례식 후 시신을 냉동고에 재안치하기로 하는 등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대책위와 대구시는 합동장례식을 22일 시민회관에서 치르기로 합의, 19일부터 시신을 인도기로 했다. 하지만 월배차량까지 냉동고에 안치된 81구의 시신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75구의 유족들 가운데 40~50명 가량은 장례식을 치른 후 시신을 냉동고에 재안치할 움직임이어서 전대미문의 파행적인 장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희생자 상당수는 매장하거

나 납골당에 안치하더라도 생존한 유족들이 사망한 뒤에는 묘소를 관리해 줄 후손이나 특별한 연고자가 없는 경우여서 추모공원 조성 및 입지와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측이 추모공원 조성 여부와 위치를 놓고 실시기로 합의한 여론조사도 담보상태다.

대책위와 시는 대구지역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응답자의 50%를 중구 구민으로 하는 등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문 문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실시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는 중구 수창동 담배인삼공사 부지에 조성되는 수창공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묘역 포함 여부만 묻지는



대구 지하철참사가 일어난 지 80여일이 지났고, 대구U대회가 100일도 채 안났지만 대구시민회관 주차장에는 희생자들의 영정이 그대로 안치돼 있다.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정확한 여론수렴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여부를 포함, 조성할 경우 어디에 조성할 지, 묘역을 포함시킬 지 여부 등 종합적인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둔 대구시는 81구나 되는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채 행사를 치를 수는 없다는 입장. 하지만 대책위 집행부 역

시 끝지 않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창공원 추모공원 조성 의지를 굽힐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U대회까지 상가(喪家) 분위기가 이어질 공산도 커지고 있다. 권모(35·자영업·대구 북구 산격동)씨는 "고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추모공원은 대구시민 전체의 의지가 반영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대구일보(1면) 2003. 5. 21

전동차 '불량재' 납품 철퇴

검찰 내장재 정품으로 속인 업자 셋 구속

대구 지하철 참사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한 전동차 불량내장재 납품업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대구지검은 20일 불량 내장재를 정품으로 속여 납품한 경남 김해 O정밀 전 대표 전모(65)씨와 전 상무 도모(55)씨, 충북 음성의 O사(지난 98년 부도) 전 대표 김모(61)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 등은 지난 94년 11월부터 97년 1월까지 전동차의 벽면과 천장 등에 사용되는 내장재인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납품하면서 난연성 수지만을 사용, 불연성 FRP를 제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값싼 일반수지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50% 가량 섞은 가연성 수지를 사용한 불량 FRP를 제작, 납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구지하철 전동차 216량의 내장재를 모두 불량품으로 제작, 원청 업체인 H중공업에 납품해 O정밀은 7억1천만원, O사는 3억9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원 청 업체와 계약 당시에는 정품을 보여주며 수주를 한 뒤 실제로는 불량품을 공급해 왔으며 원가절감 및 작업편의를 위해 불량품을 양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씨 등이 서울과 부산 지하철 등에도 불량제품을 공급했는지와 H중공업 관계자들이 전동차 내장재가 불량제품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규성·박준우기자
kydks@idaegu.com

‘대구참사’ 잊지 맙시다

28일로 화재발생 100일 ... 전국서 추모 행사 잇따라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지역은 물론 서울 등 전국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대구에서는 시민단체 및 희생자대책위 등이 각종 추모진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서울에서도 대규모 국민추모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참사 발생 100일째인 오는 28일을 전후해 영상·기록사진전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대구YMCA는 27일 3층 교남실에 서 ‘시민이 주인되는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소방전문가와 언론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도 오는 28일 대구시민회관 합동복합소에서 100일 추모식을 가진 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참사 100일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추모전을 열기로 했다.

또 28일부터 6월15일까지 대구시 민회관 2층 소강당에서 영상 및 기록 사진전을 갖는 한편 같은 기간에 중앙로역 지하층 동아백화점 방향 출입구에서도 ‘나, 얼마 사립하는거 알지?’라는 주제의 시사 만화전을 개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지하철참사 100일 국민추모음악회 추진위원회’는 참사 100일째인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 야외 특설무대에서 국민추모음악회를 갖는다.

‘슬픔을 딛고 이제는 희망으로’란 부제를 달고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로 상경,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한편 사회 각 분야 지도층 인사들과 전문가

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추모음악회가 될 전망이다.

또 이날 행사에 앞서 공연장 한편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시민들이 헌화할 수 있도록 국화꽃을 준비하고 다른 한쪽에는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대형 메시지 보드를 마련, 행사가 끝난 뒤 이를 대구 희생자 대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시신 12구 추가 유족 인도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시신 12구가 28일 오전 9시에 월배차량기지에서도 추가로 유족들에게 인도된다.

이번 개별 시신인도는 지난날 28일 27구가 유족들에게 인도된 이후 한 달여 만이며 이를 위해 국립과화수사연구소 장낙영 박사 등이 25일 대구로 내려왔다.

이로써 국립과화수사연구소가 수습한 142구의 시신 가운데 73구가 유족들에게 인도됐으며 신원확인이 안 됐거나 연고가 없는 시신 6구를 제외한 63구만 남게 된다. 한편 대구지하철참사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 추진위원회는 28일 대구대공원 추모공원 조성 천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재경기자

대구일보(3면) 2003. 5. 26

세계(22면) 2003. 5. 28

지하철 참사 오늘로 100일째 ‘대구의 아픔’ 끝나지 않았다

2·18 대구지하철 참사가 28일로 발생 100일을 맞았으나 상당수 유가족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등 대구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7일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확인된 시신 191구 가운데 지금까지 122구만 유가족에게 인도돼 개별장례를 치렀을 뿐 신원이 확인된 시신 63구와 신원확인이 안됐거나 연고가 없는 시신 6구 등 69구는 여전히 월배차량기지에서 냉동보관돼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 오전 9시53분 참사 발생 시간에 맞춰 대구시민회관 합동분향소에 서는 추모식이 열린다. 이어 대구백화점 앞에서 대

구YMCA, 희생자대책위, 주최의 영상 및 기록사진전이 개막돼 시민회관 소강당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인명피해=27일 현재 방화참사 사상자는 사망 192명(인정 사망 1명 포함), 부상 147명 등 33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당초 신원 확인자 49명, 전동차내에서 수습된 시신 142명으로 전동차내에서 수습된 시신 가운데 6명(DNA 확인 미신고 3명, 신원 확인불능 3명)은 신원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상자는 147명 가운데 138명이 퇴원했고 9명은 현재 동산병원 등 4개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실종자는 598명이 신고됐으나 현재까지 사실확인 및 인정사망심사결과 미확인 실종자는 판

단유보 2명, 불인정 19명으로 결론이 났다.

◆수사 및 재판=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200여명의 요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방화범 김대한(56)씨, 1080호 기관사 최상열(38)씨 등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8명, 불량제품을 납품한 O정밀 대표 전모(65)씨 등 모두 12명을 구속하고 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 윤모(6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신69구 영결식 못치른채 냉동보관

추모공원 장소 異見... 합동장례식 연기

시민들 “U대회전 수습 마무리됐으면”

방화피고인 김씨를 비롯해 사고 전동차 기관사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8명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데 이어 2차 공판이 26일 열렸다.

◆사망자와 부상자 보상문제=사망자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의해 월 최저임금(현재 51만4150원)의 240배인 1억2339만6000원 한도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구지하철공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도 사고당 보상한도 10억원, 1인당 보상한도 4000만원으로 이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이밖에 지난 3월 31일까지 사고대책본부

와 언론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탁돼 지난 20일 재해구호협회로부터 대구시가 인수한 국민성금 656억6000만원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사고대책본부는 이 성금으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1인당 1억7000만원), 삼풍백화점붕괴사고(1억7000만원) 등의 보상기준을 참고해 손해사정인의 사정 결과 등을 감안, 사망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당시 지급분(2890 만 원)과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지급분(6500 만원)의 평균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산정할 방침이다.

◆추모공원 조성 문제=희생자대책위와 대구시측은 추모공원장소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유가족이 아직 합동장례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희생자 대책위는 중구 수창공원과 함께 대구대공원, 팔공산자연공원, 앞산공원 등을 후보지로 요구하는 반면 대구시는 현행 공원법과 주민반대 등을 들어 도심 추모공원건립 불가론을 펴고 있다. 시는 철곡군 지천면 낙산리 대구시립공원모지를 후보지로 제안했으나 유족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등 참사 수습이 원활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조기에 결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06@segye.com

“삼덕동 천주교묘지 인근

지하철 추모묘지 추진”

사업추진위 대구시에 통보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추모사업추진위원회는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대구 수성구 삼덕동 산 118의 1번지(천주교 공원묘지 동남편) 그린벨트 지역 1만평에 추모묘지공원을 조성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대구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 지역에 추모공원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을 경우 추모묘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매 일(30면) 2003. 6. 2

영 남(1면) 2003. 6. 2

수성구 삼덕동 천주교 묘지에

추모공원 조성합의

내주 합동장례식 거행할 듯

지하철 참사 발생 100여일을 넘겨 지루하게 끌어오던 추모공원 조성문제가 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가진 제5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천주교 공원묘지 동남편 입구에 조성키로 합의·결정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추모사업추진위원회 10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의 후보지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천주교 공

원묘지내 추모공원 조성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7대3으로 이 안에 합의·결정됐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 관계자 및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현장을 답사, 적절한 규모의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사고 발생 이후 100일 넘게 안심기지창에 냉동 보관중이던 희생자들의 합동장례식은 다음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모공원 예정지는 이제까지 논란을 빚었던 공원 부지가 아닌데다 인근에 일반 거주자가 없어 별다른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현 대구시행정부시장은 “희생자대책위의 전격적인 양보로 이같은 합의를 이뤄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며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윤호기자 sagang@yeongnam.com

경북(19면) 2003. 6. 5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 묘역 부지 범물천주교 공동묘지 옆 결정

추모사업 추진위, 찬성 7·반대 3 '가결'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묘역 조성지가 대구대공원에 인접한 천주교 공동묘지터로 결정됐다.

지하철 참사 추모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준곤)는 2일 오전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산 188-1 번지 범물천주교 공동묘지 부지 인근 개발제한구역(1만860평)에 지하철 참사 추모묘역을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부지선정은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전원 10명이 참석,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부지 결정은 대구대공원 예정지와 공원 경계선을 두고 인접한 곳으로 공원내 묘역이 들어설 수 없는 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는 추모묘역 조성부지와 인접한 대구대공원 예정지에 위령탑과 안전교육관 등 추모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구대공원 예정지 경계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에 추모묘역을, 공원 부지에는 추모공원을 조성할 경우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모묘역 조성지가 결정됨에 따라 사고 발생 이후 3개월 이상 대구지하철공사 월배차량기지사업소

에 냉동보관 중인 희생자 62명에 대한 합동장례식도 조만간 치러질 전망이다.

또 이번에 결정된 추모묘역 부지 인근에는 민간부락이 없어 주민들과의 마찰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모사업추진위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으며, 대구시는 별다른 주민반대가 없을 경우 건설교통부의 승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추모공원 조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수성

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수성구 삼덕동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앞서 주민의견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으며, 인근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추모묘역 조성저지 활동에 들어가 또 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진식기자

jins@kyongbuk.co.kr

대한매일(12면) 2003. 6. 5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공원

수성구 삼덕동에 조성키로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사업추진위원회는 2일 대구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수성구 삼덕동 산 188의1 사유지 3000~6000㎡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부지는 대구 대공원 예정지와 천주교 묘지 사이 그린벨트에 있다. 이날 부지 선정은 10명의 위원 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인근 주민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별다른 주민 반발이 없을 경우 건설교통부 승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 의견 청취, 시 의회 의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모공원 터를 확정짓게 된다.

대구 황경근기자

몇 차례 후보지 바뀌었으나 주민들 반대 부딪혀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산 넘어 산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수습의 분수령이 될 추모공원 조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로 결정되는 후보지마다 반대의견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결식마저 참사 발생 100일이 넘도록 치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보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수성구 삼덕동 산188의 1번지 3000~6000㎡ 땅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추모공원 조성을 결정한 이곳은 대구대공원 예정지와 천주교 공영묘역 사이에 자리한 그린벨트 지역.

희생자 가족들과 대구시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달지 않아 결정대로라면 추모공원 조성은 급물살을 타야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성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는 몇번재 바뀌었다. 맨 처음 결정된 곳은 대구시 중구 수창공원 예정지. 대구시와 희생자 가족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이곳은 그러나 공원지역에는 묘역을 조성할 수 없다는 점, 시내 중심가여서 주민들 반대가 거세다는 점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결국 무산됐다. 대구시는 대구시립공영묘역 등 몇 곳을 후보지로 제시했지



◇지난 달 30일 수성구의회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인 고산지역 주민들.

최근 수성구 천주교묘역 옆으로 결정 주변 주민들 반대입장 강해 불투명

만 희생자 가족들은 이를 반대했다.

이어 추모사업추진위는 추모공원 후보지로 대구월드컵경기장 부근의 대구대공원내 부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고산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지난 달 30일에는 수성구의회가 대구대공원내 추모공원 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300여명의 주민들도 수성구의회앞에서 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추모사업추진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천주교 공영묘역 옆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묘지저지대책위원회 전원식(全元植·52) 위원장은 “대구의 상징이자 자랑거리인 대공원지역에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시립공영묘역에 추모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7일 반대결기대회를 열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향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수성구의회 한해동(韓海東)의장도 “지금까지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아버지 묘지도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묘역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 수성구 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은 물론이고 대구시민들 모두가 이번 결정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들은 수창공원내 추모공원 조성 등까지 몇 차례 양보한 마당에 이번 결정까지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며 상당히 격앙돼 있다. 희생자가족인 윤근(尹根·56)씨는 “추모공원에는 안전교육관이 필수이고 안전교육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묘역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 시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기(尹錫琪·39) 희생자대책위 위원장은 “현재 위치는 대구시가 요청해서 결정된 곳인데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대구시가 설득해 서라도 추모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이종진(李鍾鎭) 환경녹지국장은 “주민들을 잘 설득해 이번만큼은 유가족들의 맺힌 한을 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朴圓秀기자 wspark@chosun.com

매일(31면) 2003. 6. 26

지하철 참사 29일 합동 영결식

대구시-대책위 합의 내일부터 63명 시신 유족에 인도

대구 지하철 참사 사망자 중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유해 69구의 장례식과 희생자 전체의 합동영결식이 일요일인 오는 29일 오전 대구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기현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신원이 밝혀지고도 장례가 미뤄져 온 유해 63구를 27일부터 가족들에게 인도하기 시작, 29일 오전 사망자 합동영결식을 갖기로 희생자대책위와 25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영결식에 맞춰 신원 미확인 유해 6구도 시립 공원묘지에 가매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6일 중 요원 10명을 대구로 파견해 월배차량기지 냉동고에 보관돼 있는 유해 인도 준비에 들어갔으며, 인도된 유해는 유족들 선택에 따라 화장되거나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될 전망이다. 경찰은 유족들의 희망을 파악하기 위해 26일 면담 조사에 들어갔으며, 냉동고 재안치 요구가 있을 때는 받아 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합동영결식은 몇번이나 날짜가 잡혔다가 무산돼 왔으나, 25일 합의와 관련해 희생자대책위 측은 '추모공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이번 영결식을 결행키로 시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하철 참사 수습의 최대 관건이었던 장례식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상금 지급과 성금 배분, 추모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종환 복지정책과장은 '유족과 부상자 측이 제시한 손해사정액을 검증해 보상금의 법정 지급액을 이미 결정했고, 특별위로금(국민성금) 배분은 희생자대책위, 유족연합회, 부상자대책위 등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 또 추모 묘원, 위령탑, 안전교육관 조성 등 문제는 추모사업추진위 결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민회관에 설치돼 있는 분향소와 희생자대책위 사무실도 합동영결식 이후 일주일 이내에 비우기로 유족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maeil.com
문현규기자 brando@maeil.com

영남(1면) 2003. 6. 26

지하철 희생자 192명 전원 29일 합동 장례식

대구시는 현재까지 개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지하철 참사 희생자 69명을 포함, 사망자 192명 전원에 대한 합동장례식을 29일 오전 10시 대구시민회관에서 갖기로 희생자대책위와 최종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장례식은 청와대 관계자 및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군사령부 군악대의 연주로 장엄하게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합동장례식을 마친 뒤 현재 월배차량기지에 보관중인 희생

자의 유해는 개별적으로 매장 및 화장 등의 장례절차를 치르기로 하고, 앞으로 추모 묘역 등이 조성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절차는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희생자 보상금은 대구시와 대책위측이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며, 성금을 기금으로 한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윤호기자 sagang@yeongnam.com

대구신문(1면) 2003. 6. 30



합동영결식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192명의 영정과 미확인 6구 등이 참사 132일만인 29일 대구시민회관 광장에서 합동영결식이 유가족의 오열속에 치러졌다.

권정호기자 kwonjh@idaegu.co.kr

대구지하철참사 합동영결식 거행

편히 잠드소서

대구지하철 참사 132일째인 29일 오전 10시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대구시민회관 광장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17·18·19면〉
숙연한 분위기속에서 거행된 이번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조혜영 대구시장,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등 각계인사와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 모두 1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숙, 대구KBS아나운서의 개식선언으로 진

행된 영결식은 2군사령부 군악대 연주에 맞춰 고인에 대한 묵념과 국민의례로 시작됐다.

이어 윤석기 희생자대책위원장의 경과보고에서는 "우리는 오늘 합동 영결식을 통해 그 동안 대구를 감싸고 있던 불신과 갈등, 좌절과 패배감을 일소하여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희생자 유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들의 뜻을 담아 이제는 안심하고 탈수 있는 지하철이 되기를 기원하며 희

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경과보고를 마쳤다.

이어진 조혜영 대구시장의 추도사에서는 "갑작스런 슬픔과 고통을 달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며 "노 대통령과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다짐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오진영 희생자의 언니인 오진희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추모글을 남송하자 유가족과 일반시민들이 모두 고개숙이며 눈물을 떨구었고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은 유가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어진 종교의식에서는 동화사의 덕현스님을 비롯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재왕 목사, 천주교대구대교구 맹봉술 신부 등이 역을하

게 고인이 된 영령들의 넋을 달래는 의식을 진행했다.

현화와 분향을 끝으로 합동영결식이 끝났으며 노제 행사는 중앙로 지하철역 주변에서 유가족들의 오열속에서 엄숙히 진행됐다.

사고 132일째에 거행된 이번 영결식은 앞으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와 추모공원 조성 등을 남겨두고 대부분의 수습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최용식기자 ssen@idaegu.co.kr

각계인사·유가족·시민 등 참석

유가족 오열속 노제행렬 이어져

유가족들은 추도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슬픔을 참지못해 이내 오열을 터트리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드러내 주위의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관계로 체코에 출장을 간 고건 국무총리 대신 참석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추도사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한 지하철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현장 대응 능력의 대폭강화와 안전을 최우선할 것을 영령들 앞에 고개 숙여

조선(10면) 2003. 6. 30

‘대구참사’ 131일만에 합동영결식

추모글 낭송하자 영결식장 ‘울음바다’로

대구지하철 참사 사망자 192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사고 발생 131일 만에 거행됐다. 합동영결식은 그동안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결정된 부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논란이 일면서 계속 미뤄져왔다.

29일 오전 10시 대구시민회관 광장에서 유족들과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영결식에서 고건 총리를 대신해 추도사를 읽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정 각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을 대표해 여동생을 추모하는 오진희씨가 추모글을 낭송하자 영결

식장이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영결식은 일부 유가족들이 대구시 등 당국의 수습 과정에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조용히 치러졌다.

영결식에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강재섭 의원, 민주당 정동영 의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유족들은 사고

지점인 중앙로역 지상에서 제 올리기, 진혼굿, 조시 낭독의 순으로 노제를 거행했다.

이번 영결식 거행으로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수습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부상자들은 지난 26일 부상자 127명 중 125명에 대한 보상액을 모두 119억3764만6700원으로 합의했고, 사망자 192명에 대해서도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몇 번의 진통 끝에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된 대구시 수성구 삼

덕동 천주교 묘역 인근의 주민들이 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하고 있어, 완전 수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기 유가족대책위 위원장은 “합동영결식을 고비로 참사 수습이 70% 가까이 마무리됐다”며 “영결식이 끝나면 희생자대책위를 축소하고 사무실도 이전하지만 모든 과정이 해결될 때까지 대책위는 존속시키겠다”고 말했다.

/大邱=朴圓秀기자 wspark@chosun.com
/琴元美기자 capedm@chosun.com



◇오열

29일 오전 대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합동영결식에서 희생자 가족이 영정을 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李幸佑기자 jw-lee@chosun.com

매일(30면) 2003. 6. 30

“이젠 영영 이별이구나” 울음바다 지하철 참사 합동영결식



중앙로역 장례행렬 29일 오전 대구 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린 대구 지하철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영결식 후 유족들이 영정을 들고 사고현장인 중앙로역까지 고인의 넋을 위로하며 행진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aeil.com



오열 합동영결식에서 슬픔에 복받친 유족들이 영정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아들아... 합동영결식 후 한 희생자 어머니가 사고현장인 중앙로역 지하 3층 철로까지 내려가 아들의 이름을 묵념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영남(26면) 2003. 6. 30

참사 132일만에 합동영결식 대구는 또 통곡했다

유족들 영정 사진 붙들고 오열
추모글 낭독 이어지자 눈물바다
시민들 중앙로역까지 상여 행진

대구지하철 참사 132일만에 열린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치러진 28일 오전 대구시민회관 광장. 무더운 날씨에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초여름의 날씨였지만 영결식장에 운집한 유족들과 시민 등 1천여명의 마음은 넉 달 전 찬바람 속에 검은 연기가 가득했던 2월18일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울분과, 오열, 속

연함으로 가득찼다.

조해녕 대구시장, 고건 총리의 추도사에 이어 고 오진영씨의 언니 오진희씨, 고 윤지은양의 아버지 윤근씨의 추모의 글 낭독이 이어지면서 유족들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목놓아 자녀의 이름을 부르다 결국 실신하기도 해 주위

를 안타깝게 했다.

신원미상 영정 6개를 포함 192명의 희생자 영정 사진이 올려진 분향소에는 육군 제2군 사령부 군악대의 장중한 조가가 끝난 뒤에도 현화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영정 사진을 붙들고 오열에 오열을 거듭했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합동영결식 후 중앙로까지 빈꽃상여를 들고 행진했고, 망자에 대한 재와 진혼굿과 조시 낭독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참사 넉달만에 희생자들을 보내며 이들의 영령이 이 도시를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지켜줄 것을 기원했다.

/정혜진기자 junghj@yeongnam.com

경향(7면) 2005. 2. 19



대구지하철 참사 2주년 현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주년인 18일 유가족과 시민들이 대구 시민회관 광장에서 추모식을 거행한 뒤 현화와 분향을 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대구 | 뉴시스

大邱地下鐵 中央路驛

火災事故白書

발 행 일 : 2005년 2월
발 행 : 대 구 광 역 시
편 집 : 기 획 관 실
인 쇄 : 한진종합인쇄사



